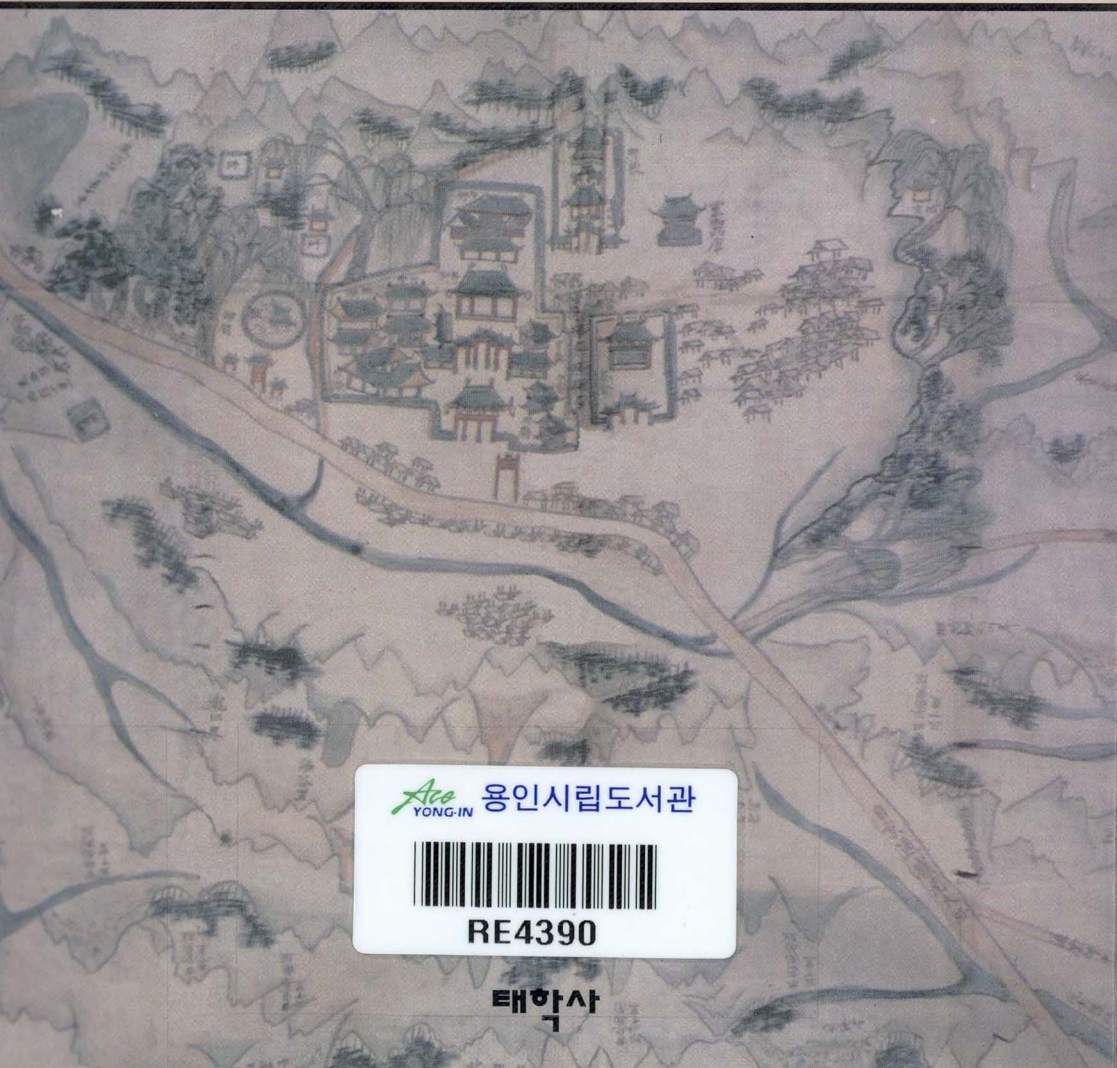


용인
.....

중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 강현모



Acc YONG-IN 용인시립도서관



RE4390

태학사

박중수(朴鍾洙)

- 공주사대 졸업
- 문학박사(단국대)
- 현재 용인대 교수
- 주요논저

『대학한문』, 『문학과 인생』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북부, 남부, 서부)

「조선조 기류문학의 연구」(학위논문)

「충남 연기지방의 설화연구」 외 다수

강현모(姜賢模)

- 한남대학교 졸업
- 문학박사(한양대)
- 현재 한양대, 한남대, 용인대 강사
- 주요논저

『부여지방의 구비전설』(상, 하)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북부, 남부, 서부)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학위논문)

「이몽학설화의 연구」 외 다수

용인 중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 강현모

태학사

박종수(朴鍾洙)

- 공주사대 졸업
- 문학박사(단국대)
- 현재 용인대 교수
- 저서에 『대학한문』 『문학과 인생』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북부, 남부, 서부) 등이 있고, 논문에 「조선조 기류문학의 연구」(학위논문), 「충남 연기지방의 설화연구」의 다수가 있다.

강현모(姜賢模)

- 한남대학교 졸업
- 문학박사(한양대)
- 현재 한양대, 한남대, 용인대 강사
- 논저에 『부여지방의 구비전설』(상, 하),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북부, 남부, 서부) 등이 있고, 논문에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학위논문), 「이문학설화의 연구」의 다수가 있다.

용인 중부지역의 구비전승

2000년 7월 20일 인쇄

2000년 7월 27일 발행

지은이 박종수·강현모

펴낸이 지현구

펴낸곳 태학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57-42

전화 : (02) 584-1740 전송 : (02) 584-1730

천리안 ID : thachak4

홈페이지 : <http://www.thaehak4.com>

등록 : 제22-1455호

값 20,000원

ISBN 89-7626-544-0 03810

* 파본은 구입한 곳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발간사

얼마 전부터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 유산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해 있는 용인시는 매스미디어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아파트 신축공사 소리가 가득 차 있어, 본래의 모습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용인의 문화 유산도 비례하여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던 박종수·강현모 교수님이 5~6년 전부터 걱정하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본 문화원에서 우리 문화유산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 놓자고 한 것이다. 그 당시 문화원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으나 하도 간곡하여 이를 결정하고 나니 예산 문제 등 고민이 많았다. 용인 동부지역과 북부지역 두 권의 책을 발간하자마자 IMF 체제로 예산 책정이 더욱 힘들어졌다. 그러나 문화원 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계속 추진하였으며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5~6년 전에 시작 못 했다면 이렇게 많은 우리 용인의 구비설화를 버렸을 것을 생각하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두 분께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전국 어느 지방을 보아도 구비설화로 다섯 권의 책을 낸 곳이 있을지, 그것도 각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구술한 것을 이렇게 다섯 권의 책으로 나왔다는 것은 용인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재미있게 편집하여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꺼리가 되고, 이 분야 학자들의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동안 『용인 동부, 북부, 남부, 서부, 중부지역의 구비전승』의 5권 발

간 작업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책들이 내 고장 문화 창달에 참고가 되며 용인 시민의 도약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그 동안 책록에 응해 주신 용인시민 여러분과, 용인대학교 박종수·강현모 교수님 그리고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00년 7월 일
용인문화원장 이 현 규

머리말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민속학자 몇 분과 용인 시내에서 점심을 하던 중에 ‘앞으로 몇 년 후면 용인도 說話가 사라지겠다’면서 아쉬운 표정들을 짓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 ‘용인의 설화를 수집하자’고. 그리고는 한국정신문화원에서 발간된 『韓國口碑文學大系』를 펼쳐보니 수집된 용인지방 설화가 1권의 책으로 발행된 것을 보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기회에 용인 전지역을 살살이 답사하여 용인 문화유산으로 남겨놓기로 했다.

그 후 계획을 세우고 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랐다. 궁리 끝에 용인 문화원을 찾아 이런 계획과 사정을 말하니 긍정적이었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가니 문화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용인의 설화를 용인 문화유산으로 남겨놓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원장님이 그렇게도 훌륭해 보였다. 용인문화원과 뜻을 같이하여 이 일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먼저 동부지역[백암면, 원삼면]을 시작으로 1996년 5월에 첫 권을 냈다. 마을을 빠짐없이 찾아다니기, 제보자 선정, 분위기 조성, 녹취하기 등의 어려웠던 일이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을 편찬하면서 잊게 되었다. 막상 발간된 책을 보니 또 걱정이 앞선다. 혹시라도 잘못된 곳은 없는지, 용인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계속 책을 낼 수 있을 것인지, 며칠을 걱정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책이 벌써 다 나갔다’는 것이다. 책을 찾는 곳은 많은데 걱정이라고 한다. 안도하며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독자 중에, 전화로 “책은 다 좋은데 제보자의 말 그대로 기록되어 군데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재미가 없다”는 등의 말을 듣기도 했다.

사실은 이 일을 계획할 때 ‘제보자의 직접 구술대로 기술하느냐, 아니면 흥미 있게 윤편해서 기술하느냐’가 편집상의 난제였다. 학자들에게 자문화

니 당연히 전자의 방법을 강조하였다. 후자의 방법으로 기술하면 흥미는 있겠지만 학자들의 자료적 가치가 덜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의 기록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통 문화적 가치가 있고, 민속학 외에 언어학 방언학 지명학 등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앞으로도 전자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용인 북부지역의 구비전승』을 두번째로 1997년 5월에 발간했다. 첫번째 발간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였다. 그 후 IMF 체재 하에 모든 예산 감축으로 세번째 발간이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일을 우선으로 했다. 용인 동부와 북부 두 권의 책이 나간 후 조선일보사에서 게재하겠다고 한다. 굳이 사양했으나 1997년 10월 23일자로 “내 고장 옛이야기 책에 담는다”를 보고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용인 남부지역 구비전승』을 세번째로 1998년 8월에 발간했고, 『용인 서부지역 구비전승』을 네번째로 1999년 9월에 발간했으며, 이번에 끝으로 다섯 번째인 『용인 중부지역 구비전승』을 발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 지역에서 口碑說話를 각 권 550쪽 이상 5권을 펴냄은 용인 지방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흥미위주의 유편이 아닌, 제보자를 어렵게 선정해서 직접 구술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자료집으로 후손들까지 구비문학 연구자들에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여기까지 오기는 뜻을 같이한 전 용인문화원장 송재권님, 현 용인문화원장 이현규님 그리고 사무국장 이웅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책들이 나오기까지 협조 해주신 용인 주민 여러분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출판을 맡아주신 태학사 지현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사와 집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

2000년 7월

용인대학교 균재 연구실에서 지은이 적음

『일러두기』

1. 이 자료는 1995년 5월 1일~2000년 6월 10일 사이에 용인시 중부지역인 시내 지역, 양지면 내의 모든 리를 대상으로 조사·채록한 자료를 정리 수록한 것이다.
2. 지역개관은 자료발간 대상인 용인시의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지, 군지, 읍·면사무소에서 제시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 보고서의 작성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기술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4. 각 동·리마다 마을개관을 하고, 제보자에 대한 개관은 따로 하지 않았다.
5. 자료마다 일련번호, 제목, 제보자의 성명(나이, 성별), 테이프번호, 조사장소, 조사자, 조사날짜 등을 명시하였다. (단 조사자의 이름이나 나이를 조사하지 못한 자료는 동·리별로 제보자 1, 2로 표시하고, 나이는 ?로 표시하여 놓았다.
6. 자료의 배열은 각 동·리별로 하여 번호를 붙였으며, 그 동·리의 배열은 군지의 배열 순서에 따라 설정하였다
7.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내용을 일체 가감없이 그대로 활자화하였으며, 와음이나 방언도 그대로 채록하였다. (녹음불량은 기록상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복원시켜 활자화하였다.)
8. 자료 본문에서 방언의 설명이나 상황과 분위기의 변화 등은 ()안에 부연 설명하고, 조사자나 청중의 개입은 []로 묶어 표기하였다.
9. 필요한 경우에 생략을 …로 표시하고, 테이프에서 채록할 수 없는 부분은 [청취불능]이라 표시하였다.
10. 수록 자료의 구체적인 자료 분류는 용인시 전 지역이 조사를 마치고, 기회가 되어 발간할 때 붙이기로 한다.

여

백

차 례

발간사	3
머리말	5
일러두기	7

I. 용인시 중부지역 개관

지역개관	27
가. 용인 시내 지역	27
나. 양지면 지역	29
조사개관	31
가. 조사지역의 선정 배경	31
나. 조사일시와 개관	32
다. 조사자료의 동·리별 개관	44

II. 용인시내

김량장동	49
가. 마을개관	49
나. 설화	50
1. 김재경(71, 남)/생거진천 사거용인	50
1) 생거진천 사거용인 1	50
2) 생거진천 사거용인 2	52

2. 김재경(71, 남)/옥심쟁이 천석꾼	55
3. 김재경(71, 남)/김량장리의 유래(1)	58
4. 김재경(71, 남)/성산의 유래	59
5. 김재경(71, 남)/환생한 김정승의 딸	60
6. 김재경(71, 남)/천년 묵은 지네	72
7. 김재경(71, 남)/옹이 송천한 굴암절	84
8. 방태서(62, 남)/김량장리의 유래(2)	85
9. 방태서(62, 남)/해와 달이 오누이	87
10. 정난옥(62, 여)/소금장수가 되어 장가간 사람	87
11. 손영월(86, 여)/시집살이	91
12. 손영월(86, 여)/도깨비가 된 빗자루(1)	92
13. 이흥순(85, 여)/넓적바위	93
14. 주원희(45, 여)/김량장리의 유래(3)	94
15. 제보자1(80, 남)/김량장리의 유래(4)	94
16. 김성재(80, 남)/천유 이씨의 유래	95
17. 김성재(80, 남)/이성계의 현판과 양천 허씨 유래	97
18. 김성재(80, 남)/대원군과 김병기의 지략	100
19. 김성재(80, 남)/제사 때 밥 대추 감을 꼭 올리는 이유	101
20. 김성재(80, 남)/한석봉의 글씨가 유명해진 이유	103
21. 박철종(75, 남)/도깨비가 된 빗자루(2)	104
22. 장종성(77, 남)/호랑이 불	106
23. 박철종(75, 남)/삼밭에 괴 들었따의 유래	106
24. 박철종(75, 남)/도둑이 제발 저러다	107
25. 김입득(71, 여)/도깨비가 된 빗자루(3)	108
26. 김입득(71, 여)/산삼 동자(1)	109
27. 김입득(71, 여)/저렁이 국을 봉양한 효부(1)	110
28. 김입득(71, 여)/옹인 지명에 관한 일화	112

29. 김입득(71, 여) / 마음 공부	113
30. 정별순(87, 여) / 마음을 깊게 써 복받은 사람	114
31. 정별순(87, 여) / 은혜 깊은 옹	118
32. 정별순(87, 여) / 산삼 동자(2)	120
33. 정별순(87, 여) / 자식을 주고 시아버지 살린 며느리	121
34. 정별순(87, 여) / 지렁이 국을 봉양한 며느리(2)	122
35. 정별순(87, 여) / 배은 망덕한 흠애비	123
36. 정별순(87, 여) / 도깨비가 준 땅	124
37. 이조만(75, 남) / 삼천 냥을 탕진한 아버지를 살린 아들	125
38. 이조만(75, 남) / 뱃단을 옮기 형제	129
39. 이조만(75, 남) / 형제간의 우애(형제투금)	130
40. 이조만(75, 남) / 김량장리의 유래(5)	131
41. 박순천(78, 여) / 도깨비 방망이	131
42. 박순천(78, 여) / 은혜 깊은 개치(치악산의 종소리)	133
43. 박순천(78, 여) / 둔갑한 여우	135
다. 민요	137
1. 박철종(75, 남) / 하니 놀진 못하리라	137
2. 박철종(75, 남) / 어하 동동 내 사랑아	138
3. 박철종(75, 남) / 유장면 불과만이요	139
4. 박철종(75, 남) / 농나도 타령	140
5. 이흥순(85, 여) / 열녀가	140
6. 이흥순(85, 여) / 유람가	141
7. 성분이(87, 여) / 범벅 타령	143
라. 속신어	145

역북동 * 147

가. 마을개관	147
나. 설화	148

1. 김봉서(76, 남) / 함박산의 유래(홍수 전설)	148
2. 김봉서(76, 남) / 용인의 옛 이름	149
3. 제보자1(70대, 남) / 용머리산 유래(떠내려 온 산)	149
4. 제보자2(70대, 남) / 부아산의 유래	150
5. 제보자2(70대, 남) / 여자와 고무신	150
6. 제보자3(70대, 남) / 을지문덕의 성	151
7. 제보자2(70대, 남) / 생거진천 사거용인	152
8. 제보자3(70대, 남) / 단혈에 대한 일화	153
9. 제보자3(70대, 남) / 우물 속 명당	154
10. 제보자3(70대, 남) / 피를 써서 얻어 쓴 명당	156
11. 제보자3(70대, 남) / 남은 정 기른 정	157
12. 제보자3(70대, 남) / 옥심을 부리다 잃은 계족산의 명당	159
13. 제보자2(70대, 남) / 친정의 명당을 빼앗은 딸	161
14. 제보자2(70대, 남) / 주원장과 이성계	162
다. 민요	165
1. 김봉서(76, 남) / 함경도 오락가락	165
2. 제보자3(70대, 남) / 독립운동가	166

삼가동 * 167

가. 마을개관	167
나. 설화	168
1. 최석근(72, 남) / 삼가리의 호자 최춘봉	168
2. 최석근(72, 남) / 궁촌의 마을 유래	170
3. 최석근(72, 남) / 성묘하면 자손이 죽는 호혈 모	172
4. 최석근(72, 남) / 탐력 시험	174
5. 최석근(72, 남) / 호랑이한테 잡힌 여자 살린 스님	176
6. 허종(61, 남)과 부인 / 호랑이를 만나는 메주고개	178
7. 허종(61, 남)과 부인 / 내관 모여 산 궁촌의 유래	180

남 동 * 183

가. 마을개관 183

나. 설화 184

1. 최씨할머니(83, 여)/무너미 고개의 유래 184
2. 최씨할머니(83, 여)/호랑이보다 무서운 곳감 (1) 185
3. 유숙(87, 남)/능골의 유래 185
4. 이가순(66, 여)/산을 무너뜨린 장수 186
5. 이가순(66, 여)/산 김씨보다 독한 죽은 최가 187
6. 이씨할아버지(68, 남) 김옥희(65, 여)/노루실의 유래 188
7. 이씨할아버지(68, 남)/이평화 집 부자 되기 189
8. 이씨할아버지(68, 남) 김옥희(65, 여)/박사 집안이 된 이평화 집 194
9. 세계순 (83, 여)/소금장수 일화 195
10. 세계순 (83, 여)/하룻밤에 쌓은 정 198
11. 세계순 (83, 여)/과부를 얻은 효자 199
12. 세계순 (83, 여)/자식 귀엽다고 하면 좋아하는 호랑이 202
13. 세계순 (83, 여)/사나운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203
14. 세계순 (83, 여)/호랑이보다 무서운 곳감(2) 205
15. 세계순 (83, 여)/'죽은 최씨가 산 김씨 당한다'의 유래 205
16. 세계순 (83, 여)/죽은 조상도 좋아하는 천 자손 207

유방동 * 209

가. 마을개관 209

나. 설화 210

1. 남준우(69, 남)/유방리의 남씨네 야기장수 210
2. 김봉순(79, 여)/자식을 호랑이에게 준 호부 211
3. 김봉순(79, 여)/연시 감을 구한 효자 213
4. 장영자(59, 여)/우물 속에 쓴 명당 215
5. 장영자(59, 여)/아버지와 아들의 짚신(탈털탈) 217
6. 장영자(59, 여)/부인이 울음 소리에 먹는 떡 218
7. 장영자(59, 여)/산삼 동자 220

다. 민요	221
1. 김봉순(79, 여)/탄노가	221

고림동 * 223

가. 마을개관	223
나. 설화	224
1. 김명선(69, 남)/도개비 졸린 사람	224
2. 김명선(69, 남)/뿔을 깨 주는 호랑이	226
3. 김정순(75, 여)/강림도령의 효도	227
4. 이택수(56, 남)/신방 지키기의 유래	230
5. 민배식(80, 남)/고림동의 지명 유래	232
1) 립원의 유래	232
2) 가정자의 유래	233
3) 고진의 유래	233
4) 용마뱀	234
6. 민배식(80, 남)/생거진천 사거용인	234
7. 박용남(72, 여)/목에 비너 걸린 호랑이를 구한 사람	235
8. 이강래(59, 남)/떡국새	237
9. 안종수(59, 남)/안자 모가 살아난 유래	238
10. 안종수(59, 남)/정몽주 선생의 묘소 쓴 유래	239
11. 안종재(59, 남)/이진마을의 유래	241
12. 이덕재(63, 남)/용인의 유래	242
13. 최영은(74, 남)/오누이 싸움을 한 석성산	242
14. 최영은(74, 남)/물이 넘어가야 할 태화산	244
15. 최영은(74, 남)/붓돈지와 보평 유래	245
16. 최영은(74, 남)/돌무덤과 아기장사	246
17. 문성의(74, 여)/구렁이를 상하게 하여 벌을 받은 사람	248
18. 문성의(74, 여)/나라의 왕이 된 아이	251
1) 어머니의 원수 갚기	251
2) 아기장수 물리치기	253

3) 아기장수의 죽음 안 나무	255
4) 장수의 자금을 마련한 여우	256
19. 문성의(74, 여)/도개비들의 말을 엿듣고 얻은 명당	258
20. 문성의(74, 여)/흙투를 대우하고 잘 된 흥가	260
21. 문성의(74, 여)/밤에 찾아오는 지내 신랑	262
다. 민요	263
1. 심인식(88, 남)/상여가	263
2. 금필영(78, 남)/농부가(논매 적에)	264
라. 속신어	265

마평동 * 267

가. 마을개관	267
나. 설화	268
1. 이영재(83, 남)/이퇴계 선생 일화	268
2. 이영재(83, 남)/삼박굴의 유래	274
3. 이영재(83, 남)/심정승을 골려 얻은 목천군수	274
4. 설계수(남, 81)/할아버지와 손자(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281
5. 설계수(남, 81)/찌 많은 사람	283
6. 설계수(남, 81)/피난가지 않은 호자	285
7. 설계수(남, 81)/허벅지 살을 베어준 열녀	286
8. 조용구(78, 남)/호랑이를 만난 사람	286
9. 박병근(78, 남)/황진이 일화들	287
10. 원운동(81, 남)/호랑이 등을 탄 호부	292
11. 조완산(? , 남)/호랑이보다 무서운 곳감	296
12. 원운동(81, 남)/생거진천 사겨용인	298

운학동 * 301

가. 마을개관	301
나. 설화	302

1. 유씨(51, 여) / 사과에서 태어난 아기	302
2. 유씨(51, 여) / 수수대가 빨간 이유(1)	303
3. 양남석(70, 남) / 호자 흥기섭과 호랑이	304
4. 양남석(70, 남) / 별학동의 유래	306
5. 박인재(76, 여) / 수수대가 빨간 이유(2)	307
6. 박상문(60, 남) / 법안골의 유래	309
7. 박상문(60, 남) / 흙애비굴과 와우정사	310
1) 흙애비굴	310
2) 와우정사	310
8. 박상목(72, 남) / 호랑이 고개	311
9. 이금실(70, 여) / 마인(병든 남편 버린 악처)	312
10. 김석중(79, 남) / 장사와 은혜 같은 호랑이	316
11. 김석중(79, 남) / 도깨비 불	320
12. 김석중(79, 남) / 도깨비 쫓는 방법(벗나무 가지)	322
13. 김석중(72, 남) / 중국으로 간 사신	324

호 동 * 329

가. 마을개관	329
나. 설화	330
1. 유숙경(72, 여) / 호랑이 일화 (1)	330
2. 제보재(74, 여) / 호랑이 일화(2)	331
3. 제보재(74, 여) / 호랑이 일화(3)	332
4. 박진영(64, 남) / 서얼들의 출세를 막은 유래	333
5. 박진영(64, 남) / 바보 온달	336
6. 박진영(64, 남) / 은혜 모르는 호랑이	338
7. 박진영(64, 남) / 고시래의 유래	339
8. 박진영(64, 남) / 우연히 명당을 쓴 세 지관	341
9. 박진영(64, 남) / 고쟁이를 입은 마누라	346
10. 박진영(64, 남) / 여자의 재치	347
11. 박진영(64, 남) / 굼의 자손 단군	348

12. 박진영(64, 남) / 김해 허씨의 일화	348
13. 박진영(64, 남) / 대동강 팔아먹은 붕이 김선달	350
14. 박진영(64, 남) / 장님에게 당한 붕이 김선달	351
15. 박진영(64, 남) / 붕이 김선달의 금강산 구경	352
16. 김익채(91, 남) / 조선의 야사	353
1) 바람 부는 대로 공격한 이성계	354
2) 정몽주의 선죽교의 죽음	356
3) 한양터를 잡은 무학대사와 정삼봉	358
4) 자자오행으로 인한 골육상쟁	359
5) 함흥차사	362
6) 살곶이 전설	365
다. 민요	366
1. 이간난(85, 여) / 사별가	366
2. 이간난(85, 여) / 참부가	367
3. 이간난(85, 여) / 상여가	367
해곡동 * 369	
가. 마을개관	369
나. 설화	370
1. 제보자(70대, 여) / 장수 발자국	370
2. 제보자(70대, 여) / 도개비의 불	371
3. 제보자(70대, 여) / 사람을 해치지 않는 호랑이	371

Ⅲ. 양지면

양지리 * 375	
가. 마을개관	375
나. 설화	376

1. 황해섭(78, 남)/호랑이 목에 걸린 비너를 빼준 사람	376
2. 황해섭(78, 남)/뭍여 있는 사람 살려주기	379
3. 제보자1(?, 남)/아내에게 버림받은 강태공	380
4. 박연태(81, 남)/경성 판사가 된 가난한 셋째 사위	382
5. 박연태(81, 남)/좌수보다 뛰어난 어린 아이	386
6. 박연태(81, 남)/시아버지 팔자고 아내를 꼬인 효자	389
7. 박연태(81, 남)/여우 잡은 소금장수	391
8. 김시천(61, 남)/산신의 신령스런 힘	392
9. 심태우(82, 남)/견드릴 수 없는 고목나무	394
10. 심태우(82, 남)/사람을 소로 만들어 판 여우	395
11. 김상철(68, 남)/장승의 성은 장씨	396
12. 심태우(82, 남)/자식에게 나쁘게 말하지 말라	397
13. 제보자3(73, 여)/부당굿	399
14. 이복길(86, 남)/병속에 들어간 귀신	400
15. 이복길(86, 남)/개 잡아간 호랑이	401
16. 이복길(86, 남)/도깨비 진언	402
17. 이복길(86, 남)/육갑인 얻게 된 일화	403
다. 민요	404
1. 제보자2(?, 남)/학질경	404
2. 심태우(82, 남)/아리랑	405
3. 심태우(82, 남)/심청가	406

남극리 * 409

가. 마을개관	409
나. 설화	410
1. 이순복(64, 여)/호랑이를 물리친 소	410
2. 이순복(64, 여)/정성 드려야 할 제사	411
3. 이순복(64, 여)/도깨비를 만난 사람	412
4. 김옥순(78, 여)/호랑이를 물리친 용감한 어머니	412
5. 김옥순(78, 여)/도깨비에게 홀린 남편	415

6. 김옥순(78, 여) / 시아버지 증풍 고친 며느리	416
7. 송종섭(71, 남) / 안(安)씨와 권(權)씨의 성씨 싸움	417
8. 배원석(75, 남) / 결초보은(結草報恩)	421
9. 송종섭(71, 남) / 정승집 남녀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	427
다. 민요	431
1. 이순복(64, 여) / 한글 노래	431

평창리 * 433

가. 마을개관	433
나. 설화	434
1. 윤정현(67, 여) / 해와 달이 된 오누이(수소대 빨간 이우)	434
2. 윤정현(67, 여) / 효자를 위한 산삼 동자	436
3. 윤정현(67, 여) / 초립동이 알려진 장원급제의 문귀	438
4. 윤정현(67, 여) / 여우 동생을 물리친 오빠	441
5. 윤정현(67, 여) / 힘이 센 장수	445
6. 윤정현(67, 여) / 도개비에게 흘린 머슴	445
7. 황재숙(60, 여) / 어쩔 수 없는 죽을 팔자	447
8. 황재숙(60, 여) / 며느리 장모되고 딸이 시어머니	448
9. 황재숙(60, 여) / 시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한 셋째 며느리	450
다. 민요	456
1. 윤정현(67, 여) / 찹깨 들깨	456
라. 수수께끼	457

제일리 * 459

가. 마을개관	459
나. 설화	460
1. 이영재(58, 남) / 제일리의 마을 유래	460
2. 포내순(67, 여) / 주계 송대갑	460
3. 포내순(67, 여) / 도개비 불	462

4. 고금선(64, 여)/수수께끼 설화	464
5. 김춘석(?, 남)/개검으로 부자된 효자	465
6. 장재식(?, 남)/삼 형제가 합심하도록 한 아버지	466
7. 유흥춘(62, 남)/처녀를 희롱한 중	467
다. 민요	469
1. 원제남(73, 여)/모내기 노래	469
2. 원제남(73, 여)/백발가	469
3. 원제남(73, 여)/석탄백탄	470
4. 원제남(73, 여)/연밥 따는 아가씨	471
5. 장재식(?, 남)/묘찌는 소리	471
라. 수수께끼	472

추계리 * 475

가. 마을개관	475
나. 설화	476
1. 이창(79, 남)/추계의 옛 이름, 고미령의 유래	476
2. 이창(79, 남)/추계의 유래	477
3. 이창(79, 남)/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이유	479
4. 이현식(71, 남)/강신한 딸을 죽인 양반집	480
5. 김숙희(55, 여)/귀신에 홀린 아저씨	482
6. 박순자(64, 여)/장자못 전설	483
7. 김숙희(55, 여)/묘자리를 빼앗은 정몽주의 딸	484
다. 민요	486
1. 이창(79, 남)/시조창 2수	486

식금리 * 489

가. 마을개관	489
나. 설화	490

1. 정용우(69, 남) /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490
2. 박용익(60, 남) / 비석 유래	492
3. 박용익(60, 남) / 도적굴	493
4. 박용익(60, 남) / 도깨비 불	495
5. 박용익(60, 남) / 귀신 만났으면 응원해 줘야 할 소	496
6. 박용익(60, 남) / 용이 셋이 오른 용두천	497
7. 박용익(60, 남) / 의병을 숨겨준 절의 샘터	498
8. 박용익(60, 남) / 만대복록지지가 있다는 금박산	499
다. 민요	500
1. 윤재용(76, 남) / 노랫가락(1)	500
2. 윤재용(76, 남) / 창부타령	501
3. 정용우(69, 남) / 대장부의 삶	502
4. 정용우(69, 남) / 노랫가락(2)	503
5. 정용우(69, 남) / 모심기 노래	504
6. 정용우(69, 남) / 우물놀이 노래	505
7. 정용우(69, 남) / 노랫가락(3)	506
대대리 * 509	
가. 마을개관	509
나. 설화	510
1. 제보재(70, 남) / 대대리의 유래	510
2. 송재문(67, 남) / 한터(대대리)의 유래	511
3. 송재문(67, 남) / 말치 고개와 쇠똥지 고개의 유래	513
1) 말치고개	513
2) 쇠똥지 고개	514
4. 송재문(67, 남) / 능안에 얽힌 간단한 전설	515
5. 송재문(67, 남) / 효자탑에 얽힌 전설	516

주부리 * 519

가. 마을개관	519
나. 설화	520
1. 탁만수(76, 남)/호랑이를 잡은 사람	520
2. 허기순(68, 여)/시아버지를 호식 면하게 한 효부	524
3. 허기순(68, 여)/원수를 갚은 개	525
4. 허기순(68, 여)/부처 바위	526
5. 김선례(54, 여)/구렁이가 나오는 샘	529
6. 민정숙(70, 여)/도깨비와 씨름한 할아버지	431
7. 민정숙(70, 여)/헛간의 도깨비	532
8. 민정숙(여, 70)/도깨비 도움으로 부자가 된 사람	533
9. 민정숙(70, 여)/도깨비 때문에 죽은 야기	534
10. 오봉희(78, 여)/도깨비에 홀린 사람	535
11. 오봉희(78, 여)/눈을 사야 할 도깨비 돈	537

송문리 * 539

가. 마을개관	539
나. 설화	540
1. 송재윤(60, 남)/지극 정성을 보인 효자	540
2. 송재윤(60, 남)/방앗간에 상주하는 달걀 도깨비	542
3. 김남이(63, 여)/호랑이 태몽으로 얻은 아들	543
4. 김남이(63, 여)/죽은 용꿈으로 얻은 딸	544
5. 이영자(67, 여)/뱀 꿈으로 얻은 아들	545
6. 김남이(63, 여)/돼지 꿈을 꾸고 얻은 아들	546
7. 김남이(63, 여)/무 꿈으로 얻은 손자	547
8. 류봉수(71, 남)/반정의 유래	548
9. 류봉수(71, 남)/송문리의 유래	550
10. 류봉수(71, 남)/잔치에 채일을 치는 유래	552
11. 유한중 모친(70, 여)/송문 3리에 있는 정려의 유래	554

정수리 · 557

가. 마을개관	557
나. 설화	558
1. 제보자1(70대, 남)/기남이 고개의 유래	558
2. 제보자2(70대, 남)/수난의 기남이 고개	559

여

백

I. 용인시 중부 개관

여

백

지역 개관

가. 용인시내 지역

중부지역은 용인시의 가장 변화한 지역에 있어 명실상부하게 용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전의 용인읍은 1530년(조선 중종25년)부터 1914년의 행정 구역 개편 당시까지 수여(水餘) 또는 수여면(水餘面)으로 호칭되어 왔다. 지금의 석성산(石城山)은 용인현의 구흥역과 현의 치소(置所)였던 읍내면(邑內面: 現 구성면) 또 수여면이 금령역(金嶺驛)과 동변면(東邊面)의 경계가 되어왔으며 현재의 버드실, 유방리, 일원은 동변면에 속했었다. 수여면의 경계는 서남(西南)으로 부아산과 먹조현(메주고개)까지, 동남으로는 김량점(金良店)과 상동촌면계(上東村面界)까지였고, 동남으로부터 동북간은 경안천으로서 양지현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고종 8년(1871)에 발행된 양지읍지에 의하면 신평리 마전(마평리), 김량장, 해곡리, 호리 등은 양지현에 속해 있었으나 1895년 4월의 전국 지방 관제의 개편에 따라 각 현(縣)이 군(郡)으로 개칭될 때 위 구역이 양지군에서 수여면으로 이속되었다.

1910년 당시에는 김량역을 둔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1911년 군청사가 읍내면에서 본읍내로 이전되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한 府, 郡, 面 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의 일부가 포곡면에 이속된 반면 양지군 주서면의 일부를 편입하여 수여면이라 칭하여 10개를 관할하여 오다가 1938년 용인면이라 개칭하고 그 관할리를 그대로 흡수하였으며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거 읍으로 승격되었다.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이때 용인읍을 폐지하고

중앙동(中央洞), 역삼동(驛三洞), 유림동(柳林洞), 동부동(東部洞)의 4개 동으로 신설되었다. 신설되기 전의 김량장리와 남리가 중앙동으로, 역북리와 삼가리가 역삼동으로, 유방리와 고림리가 유림동으로, 마평리·운학리·호리·해곡리가 동부동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리하여 용인시는 2개 읍, 8개의 면, 4개洞, 107개의 法政里·洞과, 504개의 行政里·統 그리고 363개의 자연마을과, 141班으로 되었다.

용인시내 지역의 면적을 보면, 1998년에 조사된 용인시 591.61km²(100%) 중에 중앙동이 7.97km²(1.3%), 역삼동이 12.48km²(2.1%), 유림동이 13.60km²(2.3%), 동부동이 23.51km²(4.0%)이다. 용인시내의 총면적은 57.56km²(9.7%)로 용인 전체의 9.7%에 해당된다. 참고로 전국 면적은 99,407.9km²이며 경기도 면적은 10,136.2km²이다.

세대 및 인구수(1998년 기준)는 중앙동이 7,193 세대에 21,567명(남:10,857, 여:10,710), 역삼동 5,533 세대에 17,360명(남:8,801, 여:8,559), 유림동 5,754 세대에 18,042명(남:9,214, 여:8,828), 동부동 3,534 세대에 10,948명(남:5,540, 여:5,408)이다.

중부지역의 학교 현황(1999년 기준)은 초등학교가 4개교(157학급, 6,984명, 교원:185명)이고 중학교가 2개교(67학급, 3,295명, 교원:113명), 고등학교 2개교(51학급, 2,652명, 교원:107명) 전문대학 1개교 17학과 3,653명에 교원:74명이다. 대학은 용인대학교가 5개 단과대학 3개 학부 18개 학과 학생:5,381명 교원:136명이며,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는 3개 단과대학 10개 학부 학생:11,573명 교원:198명이다.

주요 관공서는 시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등 중앙동에 20개, 역삼동에 10개, 유림동에 2개 동부동에 3개로 총 35개로 용인 전체 116개 중 30%가 중부지역에 있다.

문화재로는 역삼동에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76호인 채제공(蔡濟恭) 퇴문비(誅文碑)와 채제공묘가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7호로 되어 있다. 채제공 퇴문비는 번암 채제공 사후에 정조대왕이 친제(親製)하여 하사한 碑임으로 어제

퇴문(御製誄文)이라고 제액(題額)되어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를 시호비(謚號碑)라고도 한다. 시호는 인물의 사후에 그 생전의 행적을 기려 내려주는 대명이다. 그리고 동부동에 마평리(麻坪里) 적석총(積石塚)이 있다. 이곳의 적석총은 주변의 인가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고 있다. 180평 크기이며 길이는 25m, 폭 10m, 높이 3m이다.

나. 양지면 지역

陽智邑誌(1899년 5월 발행)에 의하면, 양지군은 고려 때에 등원 군수(藤原郡守)를 지낸 사람이 비로소 터를 잡고 등촌이라 하였는데 오늘의 읍내면이다. 조선조 개국 초에 고서면 봉림산 아래의 주곡리에 읍을 정하고 읍호(邑號)를 양산이라 하였다. 훈도관(訓導官)을 두었다가 조선 성종 경인년인 1470년 양산 북쪽 50리에 있는 금박산(金箔山) 아래의 광주진관(廣州鎭管)으로 읍을 옮기고 읍호를 추계로 고치는 한편 직급을 높혀 현감으로 하였다. 이때의 주동(朱東), 주서(朱西), 주북(朱北), 고동(古東), 고서(古西), 고북(古北)면 등으로 되었다.

그 후 연산군 경신년인 서기 1500년에 읍을 폐하고 이천부에 포함시켰다가 1504년에 추계향으로부터 10리 떨어진 정수산 아래에 읍을 정하고 양지라 하였다. 1914년 4월 1일 전국 府, 郡, 面의 폐합에 따라 양지군을 폐지하고 용인군으로 합하였다. 용인군 내사면으로 개편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수지면은 수지읍으로 승격되고 外四面은 白岩面으로, 內四面은 陽枝面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양지면의 면적은 57.71km²(1998년 현재)이며 용인의 9.8%에 해당한다. 양지면은 10개 리로, 양지리 1,593 세대 5,151명, 남곡리 671세대 1,891명, 평창리 279세대 873명, 제일리 294세대 911명, 추계리 122세대 325명, 식금리 81세대 240명, 정수리 59세대 174명, 대대리 203세대 626명, 주북리 372세대 1,203명, 송문리 267세대 841명이다.

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 35학급 1,114명이며, 중학교 1개교에 15학급 668 명이고 고등학교는 용인시내 학교를 다니는데 교통이 좋은 편이다. 관공서는 6곳이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양지 향교를 들 수 있다. 양지 향교는 조선 중종 18년, 1523년에 초창되었다고 전한다. 1981년도에 양지 향교의 대대적인 보수를 하면서 대성전과 내삼문 명륜당을 해체 복원하였다. 그리고 양지 관아(陽智官衙)가 양지면사무소 뒷뜰에 방치된 채 있다. 이는 옛날 양지현 관아의 외동헌(外東軒)이었다.

조사 개관

가. 조사지역의 선정 배경

용인 중부지역인 용인시내, 양지면에 대한 구비문학 조사는 조희웅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용인군편(1-9)와 용인문화원에 간행한 이인영의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시에서 기존의 자료를 종합하여 간행한 『용인군지(구비문학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구비문학 조사방법론에 따라 보고하였던 『한국구비문학대계』 용인군편에는 중부지역 조사로 용인시 운학동의 조사에서 설화 8편과 긴 민요 3편, 그리고 양지면 양지리에서 설화 14편과 긴 민요와 무가 각각 1편씩을 채록하고, 송문리에서 설화 3편을 조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자료가 많이 발견된 것이다.

이번 용인 중부지역 조사는 용인시 동부, 북부, 남부, 서부지역에 이어 중부지역인 용인시내 10개 동과, 양지면의 10개 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의 조사는 동부지역 조사와 같은 때인 1995년 5월부터 시도하였다. 이는 이 지역을 다른 지역 조사에서 교통시간을 고려하여 이 중부지역에서 조사할 있도록 배려하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느 마을은 여러 번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성과 없이 돌아온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이곳은 용인시의 관청이 집중하여 있는 문물의 중심이며,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더욱이 용인 서부지역의 도시화에 발맞추어 이곳도 급속도로 현대화를 이루고 있어 전통문화가 급속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민들의 사회적 분위기상 현장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 조사량이 미진하거나 조사하지 못한 마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2000년 6월까지 많은 인원이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은 조사량이 극소수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지역의 조사에서 동부지역의 조사 때 투입한 인원들은 다양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민속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였다가 여의치 않아서 1997년 조사부터 구비문학 조사로 한정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지역이 1시 10개 동과 1면 10개 리로 광범위하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녹취해야할 조사 보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조사 보조원으로 한남대, 한양대, 용인대에 설강된 민속학 관련 과목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에게 현장에서의 조사방법론과 조사 요령을 수시로 주입시켰다. 그리고 수시로 전래의 동화나 민담집, 전설집, 민요집 등을 읽게 하였다.

이렇게 조사 보조원들에게 조사할 내용과 방법을 숙지시킨 후에 용인시 서부지역의 해당마을을 배정하였다. 2-3명을 한 조로 편성한 다음, 조사대상 마을로는 한 법정마을을 선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법정마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50,000분의 1 지도를 주어, 되도록 지도상에서 큰 자연마을이나 행정마을을 택하여 조사하도록 권하였다. 그리고 유능한 제보자가 있으면, 그의 주소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오게 하여 추가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조사일시와 개관

이번 용인시 중앙지역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초기 조사에서 종합적 조사를 하기 위하여 많은 인원을 투입하였다. 둘째로는 현장에 투입된 많은 팀들이 현지에서 구비문학 자료를 조사하지 못했던 점에 기인한다.

이곳의 지역은 마을간의 조사량에 있어서 편차가 매우 심하다. 용인시 김량장동은 인구수가 많기도 하지만, 매우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비하여, 용인시 해곡동이나 양지면 정수리, 추계리, 대대리 등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하겠다. 이 지역의 조사에서는 도시화된 지역에서의 조사가 완전한 산촌마을에 해당하는 지역보다 조사된 자료 량이 매우 많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이곳의 토박이들보다는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많은 구비문학의 자료를 전승시켜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완전하게 고립되었거나 산촌마을의 경우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전승시켜온 마을의 자료들도 오늘날 현대화로 인하여 소멸되어 가고 있어 조사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사 개관에는 자료집에 실린 조사 보조원들만의 조사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즉 자료집 발간에 따른 조사 과정을 살펴보자.

1995년도의 1학기에는 한남대에 설강된 민속학 수강생들로 동부지역의 조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들의 조사한 지역은 양지면 양지리, 송문리, 주북리, 추계리, 식금리, 평창리 마을이었다. 그리고 1995년도 2학기에는 한양대의 고전문학의 전통을 수강생들과 한남대에 설강된 민속학 수강생들로 동부지역의 보충조사와 남부지역 조사 때에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에 조사한 지역은 용인시내 전역과 양지면 남곡리와 제일리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1996년 1학기에는 1팀이 북부지역 조사할 때 주북리에서 부터 인접의 고림동 그리고 마평동까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1997년 1학기에 용인대에 설강된 한국 민속학 수강생들로 양지면의 대대리, 양지리, 정수리, 식금리를 추가 조사하였으나, 역시 미진하여 2000년 1학기에 용인대에 설강된 한국민속학 수강생으로 하여금 자료 양이 부족한 용인시 유방동, 해곡동, 그리고 양지면의 정수리, 대대리, 식금리, 추계리, 송문리 등을 추가 조사하였으나 용인시 해곡동, 양지면 송문리와 추계리에서만 적은 자료를 조사하였을 뿐 대부분은 자료 조사에 실패하였다.

이들의 조사과정을 시·면의 동·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용인시 지역

용인시 지역은 용인지역의 교통 행정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곳은 용인의 행정관청이 옮겨오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이것이 전통문화의 전승을 급격하게 소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용인시내 지역의 조사는 남부지역의 조사할 때인 1995년 11월에 주로 조사되었다. 고림동과 마평동은 1996년 6월 1일에 한 팀이 조사하였고, 이때 조사를 하지 못한 해곡동을 2000년 1학기에 추가로 조사하였지만, 설화 3편만을 채록하였다. 한편 이 조사 지역의 지명은 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조사하였기 때문에 명칭의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래서 행정단위의 명칭은 현재 사용하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이 용인시 지역의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김량장동은 여러 조가 조사를 하였다. 1995년 11월 4일에 이곳은 이민정 김경화 김은용조,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조,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조, 그리고 민속을 중심으로 조사한 김은영 신지연 전선희조가 조사를 하였다.

우선 마평동을 맡아서 조사하던 이민정, 김경화, 김은용은 마평동에서 조사하다가 대로변 건너편이 있는 용인부동산을 들어가서 이를 운영하는 김재경 할아버지를 만나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란 설화 등 길고 짧은 이야기 7편을 녹취하였다. 한편 민속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김은영, 신지연, 전선희도 이날 제보자를 찾아 개인 집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래서 김량장동의 한 마을 이장을 맡아보던 방태서 할아버지를 찾아가 민속을 조사하던 중에 이 마을의 유래와 효자 이야기 등 설화 2편을 채록하고 나오다가 상점주인인 정옥난 할머니에게 설화 1편을 조사하였다.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조는 중구노인정을 방문하여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와 함께 조사를 하였다. 이들은 손영월 할머니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일생 생활에 필요한 예절이나 겪은 시집살이에 대해 말씀하면서 설화 2편, 이홍순 할머니에게 설화 1편을 채록하였다. 서구에 있는 최영수 집으로 가 점심을 먹으면서 어머니 주원희씨에게 짧은 김량장의 유래에 대해 듣고, 시장 내에서 한 할아버지에게 짧은 김량장의 유래 듣고 서구 노인회로 옮겼다. 여기에서 김성재 할아

버지를 만나 천유 이씨의 유래에 듣고 장소를 가락 김씨 종친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4편을 들었다. 서구 노인회를 다시 들러 박철중 할아버지에게 설화 3편과 민요 4편, 장종성 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을 듣고 북구노인정으로 옮겼다. 북구 노인정에서 김임득 할머니에게 설화 5편을 듣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한편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는 앞 조와 비슷하게 장소를 이동하였다. 우선 중구 노인정에서 10분 정도 할머니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여 정별순 할머니에게 설화 7편, 이홍순 할머니에게 민요 2편, 성분이 할머니에게 민요 1편을 듣고 장소를 서구노인회로 옮겼다. 이곳에서 이조만 할아버지에게 설화 4편을 들었다. 북구노인정으로 옮겨 박순천 할머니에게 설화 3편을 듣는 것으로 모든 조사를 마쳤다.

역북동은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이 1995년 11월 4일에 조사를 하였다. 역북동에 도착하여 가게에서 동정을 사가는 김봉서를 할아버지를 만나 지명과 관련된 단편적인 설화 2편과 민요 1편, 그리고 기우제 관한 민속을 들었다. 그리고 역북리 노인회를 찾아갔더니 할아버지들이 놀이터 나가 운동을 하고 있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귀찮아 하다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1이 용머리산이란 지명설화를 구술하여 주고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좀 더 마을 안쪽으로 이동하자 역북 6리 노인회란 간판이 붙어 있는 곳에 두분의 할아버지가 담소하고 있었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반기며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때 제보자2가 설화 5편과 제보자3이 설화 4편과 민요 1편을 구술하여 준 것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삼가동은 최지선, 우진희, 이유진 1995년 11월 4일에 이장님 댁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장님이 소개해 준 여자 경로당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삼가 3리에 있는 남자 경로당도 역시 문이 닫혀 있었다. 제보자를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삼가 2리에 효자비가 있어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에게 문자 방앗간을 소개하여 주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석근 할아버지는 만나 아버지인 효자비의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곳과 관련된 유래담 등 설화 5편을 들었다. 그리고 오후에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모인다 말을 듣고 찾아갔으나 조사하지 못하고, 그 앞의 슈퍼에서 군청을 다니다가 정년퇴임을 하였다는 허중 할아버지를 소개를 받고 자택으로 찾아갔다. 부부가 함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곳의 지명이나 일화와 관련된 단편적인 삽화와 민속 등을 듣고, 몇 명의 할아버지들을 만났으나 채록하지 못하고 조사를 마쳤다.

남동은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이 1995년 11월 4일에 남동 마을 중에 대촌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자들은 큰집에서 쉬고 있는 최씨 할머니를 만나 이곳과 관련된 무내미 고개와 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중간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등 단편적인 설화 3편을 들었다. 그리고 전에 이장을 하였다는 유숙 할아버지를 택으로 찾아가 능골에 대한 지명 유래담을 듣고, 다시 이가순 할머니 택으로 장소를 설화 1편을 듣고 장소를 노루실 마을로 옮겼다. 집안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 김옥희 할머니 부부를 만나 노루실과 관련된 전설과 사실의 긴 이야기를 3편을 듣고, 집에서 쉬고 있는 세계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서구적인 인상인데,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소금장수 이야기(지리산 산신제)를 시작으로 8편의 설화를 구술하여 주었는데, 이를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유방동은 이미성, 정정남, 최인경이 1995년 11월 11일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유방동에 도착하여 이장님을 찾아갔으나 없어 낙담을 하고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도중에 가게 앞에서 3-4명의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 설화 1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더 이상 채록할 수 없어 노인회장님을 택으로 찾아가 개인담만 듣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다니다가 무를 다듬고 있던 김봉순 할머니에게 효자와 관련된 설화 2편과 민요 1편을 듣고, 다시 가게로 나왔다가 그곳에서 쉬고 있는 장영자 아주머니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처음에 싫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거듭 요청하자 설화 4편을 구술하여 주었는데, 이를 듣고 조사를 마쳤다.

고림동은 여러 팀이 조사를 하였다. 우선 황은정, 이은미는 1995년 11월 4

일 민속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고림 2리에서 김명선 할아버지를 도깨비와 호랑이에 관련된 설화 등 2편, 고림 3리에서 김정순 할머니를 만나 강림도령이야기 1편, 고림 5리에서 이택수 아저씨를 만나 신방 지키기 유래담 1편, 그리고 고림 1리에서 심인식 할아버지를 만나 민요 1편을 듣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김은주, 이정훈, 윤은경이 조사하였다. 이들은 고림 2리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의 소개로 민배식 할아버지를 댁으로 찾아갔을 때 3명의 할아버지들이 담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마을 유래담을 시작으로 2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자리를 박용남 할머니 댁으로 옮겨 설화 1편을 듣고 고림 4리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도중에 일을 하다가 밭둑에서 쉬고 있는 이강래 아저씨를 만나 떡국새 1편과 속신어 2개를 듣고, 경운기를 타고 가는 안중수 아저씨를 만나 비닐하우스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안중수 아저씨에게 이곳 관련된 설화 등 3편을, 그리고 이덕재 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 최영은 할아버지에게 4편을 그리고 금필영 할아버지에게 민요 1편을 듣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한편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은 원래 이웃 마을인 주북리를 추가 조사하러 갔다가 고림리로 넘어와서 조사를 하였다. 이들은 고림 2리 노인정 앞에서 쉬고 있는 문성희 할머니를 만나 아기장수 설화 등 여러 가지 유형 설화 5편을 듣고 이곳에서 조사를 마쳤다.

마평동은 1995년 11월 4일에 이민정, 김경화, 김은용이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마평동 노인정을 들러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영재 할아버지가 선뜻 나서며 이야기관을 형성하였다. 이영재 할아버지는 ‘짐승 소리를 알아들은 사람’ 이야기를 이퇴계 선생 형제와 관련시켜 구술을 시작으로 긴 설화 3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설계수 할아버지가 이야기관에 뛰어들어 구술하여 주었는데, 설화 4편과 민속 2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돌아간 뒤에 노인정에 들린 조영구 할아버지에게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 1편을 듣고 이웃 마을인 김량장동으로 옮겨 조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1995년 11월 20일에 원삼면 두창리를 맡았던 임태현, 문

선의가 두창리에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 조사하였다가, 마평동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박병근 할아버지를 만나 황진이에 대한 긴 이야기 1편을 채록하였다. 한편 양지면 주북리의 추가 조사를 맡았던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은 1996년 6월 1일 주북리에서 시작하여 이웃마을인 고림동을 조사한 뒤에 이곳 마평동 노인정을 찾아가 원윤동 할아버지에게 설화 2편, 조완산 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을 조사하는 것으로 용인 조사를 마쳤다.

운학동은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가 1995년 11월 4일에 조사하였다. 운학동은 호동과 개울을 경계로 1,2,3리로 나누어져 있었다. 조사자들은 우선 1리에 도착하여 개인 집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막막하였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집을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낙담을 하고 돌아 나오려고 할 때 밖에서 들어오면서 말을 건넌 유씨 아주머니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사과에서 태어난 아이, 수수깡이 빨간 이유 등 설화 2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장소로 운학 2리로 옮겨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의 추천을 받고 자택으로 찾아가서 콩 타작을 하다가 쉬며 담소하고 있는 양남석 할아버지에게 설화 2편, 집에서 콩을 고르고 있는 박인재 할머니에게 설화 1편을 듣고 운학 3리로 이동하는 도중에 밭에서 부부가 일을 하고 있던 박상문 할아버지에게 설화 2편을 듣고 3리로 옮겼다. 박상목 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을 녹취하고,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도중에 쉬고 있는 이금실 할머니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우선 이야기 1편을 구술하여 주고는 건넌방에 계신 남편인 김석중 할아버지에게 안내하면서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반갑게 맞이하던 김석중 할아버지는 4편을 설화를 구술하여 주어 이를 녹취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호동은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가 1995년 11월 4일에 조사하였다. 이들은 호동에 들어섰을 때 대문 앞에서 수건을 쓰고 키질을 하고 있는 유숙경 할머니를 만나 짐승과 관련된 이야기 2편을 듣고, 장소를 이동하는 도중에 논에서 콩을 까고 있는 안성이 고향인 74세의 할머니에게 호랑이 관련 설화 2편을 녹취하였다. 이때 강남대에 근무하는 박진영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것

을 본 할머니께서 불러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양한 유형의 설화 13편과 민속 관련된 내용 4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와우정사를 들러 차를 얻어 타고 호 2리로 이동하여 들에서 콩을 따고 있던 이간난 할머니를 만나 민요 3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마을 아주머니의 안내로 김익채 할아버지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반가워하면서 우리나라 삼국에서 조선 초까지의 역사와 관련된 사화를 길게 구술하여 주었다. 이를 듣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해곡동은 문정필, 원용필, 윤준웅이 2000년 5월 22일에 조사를 하였다. 조사자들은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황량한 산골짜기라 조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몇 가구 안 되는 집을 돌아다니다가 두 분의 할머니가 앉아 담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평상에 앉아 편안하게 구술하여 주었다. 이 자리에서 단편적인 설화 2편을 채록하고는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었다.

2) 양지면 지역

양지면은 용인이 되기 전에 양지현의 치소가 있던 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덜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곳 10개의 리를 대상으로 1995년 1-2학기에 조사를 하였고, 1996년 1학기, 1997년 1학기, 2000년 1학기에 추가 조사를 하였다. 원래 산악지역이어서 그런지 이곳은 조사량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양지리는 이효숙, 서지숙, 이봉희가 1995년 5월 13일에 조사하였다. 두려운 마음으로 양지리에 도착한 조사자들은 두 팀으로 나누었다. 이효숙은 노인정을 들어가서 설화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서지숙과 이봉희는 민속과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한일부동산에서 조사하다가 노인정에서 합류하였다. 우선 이효숙은 노인정을 찾아갔을 때 10여 명의 할아버지들이 모여 담소하고 있었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황해섭 할아버지가 설화 2편을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판을 형성하여 주었다. 이어서 제보자 1이 설화 1

편, 박연태 할아버지가 설화 4편을,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보자 2가 민요 1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한편 서지숙과 이봉희는 한일부동산에서 담소하는 5명의 할아버지를 보고 들어가 김시천 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과 여러 가지 민속과 통과의례를 들었다. 그리고 박태연 할아버지가 2번째 이야기를 구술할 때에 노인정에 합류하여 할아버지에게 민속과 통과의례를 듣는 도중에 설화와 민요를 채록하게 되었다. 심태유 할아버지에게 설화 3편과 민요 2편, 그리고 그 중간에 김상철 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한편 박건혜 박영진은 1997년 5월 18일에 양지 3리에서 추가 조사를 하였다. 조사자들은 문이 닫힌 노인정을 뒤로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집에서 쉬고 있는 73세의 할머니를 만나 무속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을 듣고 자리를 이복길 할아버지 택으로 자리를 옮겨 귀신, 호랑이, 도깨비, 육잡인 등 4편의 설화를 구술하여 주어 이를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남곡리는 이정호, 최병선이 1995년 11월 11일에 이곳을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4리로 나누어져 있는 마을 중에 2리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마을에 도착하여 마당에서 콩을 타작하고 있는 이순복 할머니를 만나 호랑이와 도깨비 관련 설화 2편과 민요 1편, 그리고 사실적 일화나 서사성을 갖추지 못한 효자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옮겼다.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 김옥순 할머니를 만나 호랑이, 도깨비, 효부 이야기 등 3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어 출타한 할아버지들이 돌아온다는 오후 3시쯤에 남곡 2리 노인정을 찾아갔을 때, 7명의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거나 담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화투를 건으며 배원석 할아버지가 마을의 모습이나 삶, 그리고 독립 투사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판을 형성하여 주었다. 이때 호랑이에 대해 조사자가 묻자 옆에 있던 송종섭 할아버지가 성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여 주었다. 이어서 이야기판을 형성한 배원석 할아버지 1편과 송종섭 할아버지가 1편을 더 구술하여 준 것을 녹취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평창리는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이 1995년 5월 13에 조사하였다. 평창리에

도착하여 마을회관을 찾았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가정집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마을에서 소개를 받고 윤정현 할머니를 댁으로 찾아갔을 때 마침 황재숙 할머니가 놀러와 계셨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윤정현 할머니가 이야기판을 형성하여 6편의 설화와 민요 1편 그리고 수수께끼를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옆에 듣기만 하던 황재숙 할머니가 후반부에 이야기를 시작하여 설화 3편을 구술하여 준 것을 녹음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제일리는 최선희, 이소은, 김영철이 1995년 11월 11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이 마을에 도착하였으나 사람들은 농번기라 모두 바빠서 이야기를 해 줄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이 마을의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 이영재 아저씨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다가 이 마을의 유래에 대해 문자 간략하게 말씀하고 바쁘다고 하면서 자리를 성급하게 떠났다. 그래서 다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표내순 할머니를 만나 이곳의 인물인 송대감, 도깨비 등 이야기 2편을 듣고, 입담이 좋다는 원제남 할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설화를 듣지 못하고 민요 4편과 수수께끼 2편을 듣고 나왔다. 그 이후에 마을 돌아다니다가 만난 이사 중인 고금선 할머니에게 설화 1편, 김춘석 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 그리고 장계식 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과 민요 1편을 듣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추계리는 식금리를 조사하였던 박준범과 서정협, 박기준이 1995년 5월 13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식금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이곳으로 이동하였는데, 서정협과 박기준은 민속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박준범이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자들은 마을 분의 소개로 이창 할아버지를 자택으로 찾아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곳의 옛 지명인 고미령, 추계의 유래와 정몽주 일화 등 설화 3편과 황진이 성삼문의 시조 2수를 창으로 불러준 것을 녹취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최정환, 박준범, 손동희가 2000년 5월 18일에 추가로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이현식 할아버지를 만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가 고향인 황해도 응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1편을 구술한 것을 녹취하였다. 다시 제보자를 찾

아 돌아다니던 조사자들은 집에 두 분이 담소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김숙희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여 설화 2편을 구술하였고, 놀러오신 박순자 할머니가 그 중간에 설화 1편을 구술하여 준 것을 채록한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식금리는 박준범과 강정훈이 1995년 5월 13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식금리에 도착하여 제보자를 탐문하기 위하여 마을 입구에 있는 가게에 들렀다. 그런데 가게 주인인 윤재용 할아버지가 연세가 들어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술을 한 잔 드시고는 이곳의 지명 유래를 설명하였지만 서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흥이 났는지 설명과 함께 민요 2편을 불러 주었다. 그리고 정용우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어 자택으로 찾아갔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옛날에 많이 들었지만 다 잊어버렸지만 노래는 잘 한다’며 노랫가락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민요 5편과 세시풍속과 민속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도깨비 관련 설화 1편을 구술하여 주었는데, 이를 녹취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한편 추가 조사는 차재수, 심봉섭이 1997년 5월 4일과 24일에 실시하였다. 4일에 식금리를 찾아갔으나 조사하지 못하고 박용익이란 분만 소개받고 나왔다. 이 분과 연락을 하여 용인시내 김량장리에 있는 송원다방에서 식금리의 지명유래와 관련된 설화 7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대대리는 정교현, 지청원이 1997년 5월 26일과 28일에 조사를 하였다. 26일에 조사자들은 마을에 도착하였으나 조사에 실패하고 비가 오기로 한 28일에 다시 찾았다. 마침 비가 와서 마을회관을 찾아가 5명의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어 조사를 시작하였다. 기대와는 달리 설화 1편을 듣고 송재문 할아버지를 소개받았다. 조사자들은 송재문 할아버지를 자택으로 찾아가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곳의 지명과 관련된 유래담 5편을 듣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주북리는 1995년 5월 13일에 김영주, 김은지, 신민아가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노인정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막막하였다. 한참 망설이다가

주북 2리의 마을을 돌아다니던 도중에 자택에서 쉬고 있는 탁만수 할아버지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며 민속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에 설화 1편을 들었다. 바빠서 더 이상할 수 없다고 하여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에서 설화 3편과 기우제에 관한 민속을 듣고는 장소를 옮겼다.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쉬고 있는 오경례 할머니 댁으로 장소를 옮겨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민경숙 할머니께서 서사성을 갖추지 못한 호랑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며느리인 듯한 김선례 아주머니가 이야기관을 형성하면서 설화 1편을 구술한 다음에 민경숙 할머니께서 도깨비에 관련된 이야기 4편과 단편적인 무당에 관해 말씀하여 준 것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이 주북리는 1996년 6월 1일에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이 추가 조사를 하였는데, 주북 3리에서 북한에서 피난 온 오봉희 할머니에게 도깨비 관련된 설화 2편을 듣고 이웃 마을인 용인시 고림동과 용인 터미널 입구인 마평동에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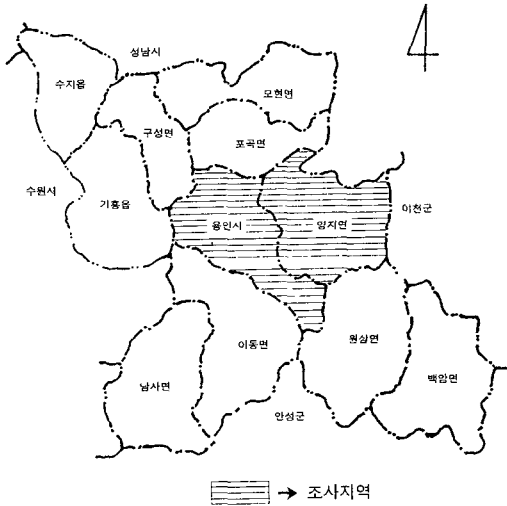
송문리는 유은숙, 이선경, 임옥인이 1995년 5월 13에 조사하였는데, 주로 민속과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유은숙이 중심이 되어 송동 마을에서 송재윤 할아버지에게 설화 2편을 조사하는 것으로 마쳤다. 그리고 2000년 5월 14일에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이 추가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할머니가 계신 송문 2리 복지회관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복지회관에는 4명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김남이 할머니가 태몽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야기관이 형성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남이 할머니에게 설화 3편, 이영자 할머니에게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조사자들은 자리를 논둑의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 마을 이장으로 활동한 류봉수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곳의 지명인 반정, 송문리의 유래 등 설화 3편을 채록하였고, 대대로 시제를 지낸다는 송문 3리에 유씨댁을 찾아가 유한종씨의 모친에게 조상에 관해 설화 1편을 듣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정수리는 1997년 5월 26일에 변홍제, 이지윤 조사하였다. 마을에 도착하여

구명가게를 찾아갔으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노인정을 소개를 받고 찾아갔다. 노인정에 45분이 할아버지들이 담소하고 있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짝막짝막한 전설 2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다. 조사자료의 동·리별 개관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의 총수를 용인시의 동별, 그리고 양지면의 이별로 재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는 설화와 민요 등 구비문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조사지역은 용인시의 중앙지역으로 용인시, 양지면으로 한정하여 수록하였다.

설화 민요 제보자 주요설화제보자(자료수 3편 이상)

	설화	민요	제보자	주요 설화 제보자
총 계	228	33	104	
용인시	138	15	62	
김장량동	43	7	15	김재경, 정별순7, 박천종3+4, 김임득5, 김성재5, 이조만4, 박찬순3, 이흥순0+3
역북동	14	2	4	3제보자6+1, 2제보자5, 김봉서2+1
삼가동	7		3	최석근5
남 동	16		6	세계순8, 이씨 할아버지(김옥희 남편)3
유방동	7	1	3	장영자4, 김봉순2+1
고림동	21	2속신	12	문성의5, 최영은4, 안종수3
마평동	12		6	설계수4, 이영재3
운학동	13		7	김석중4
호 동	16	3	5	박진영11, 이간난0+3
해곡동	3		1	1제보자3
양지면	90	18	42	
양지리	21	3	9	박태연4, 이복길4, 심태우3+2
남곡리	9	1	4	이순복3+1, 김옥순3
평창리	9	1수수	2	윤정현6+1+수수, 황계숙3
제일리	7	5수수	7	원제남0+4+수수
추계리	7	1	4	이창3+1
식금리	8	7	2	박용익7, 정용우1+5
대대리	5		2	송재문4
주북리	11		5	민정숙4, 허기순3
송문리	11		5	김남이4, 류봉수3
장수리	2		2	

여

백

II. 용인시내

여

백

김량장동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이민정, 김경화, 김은용, 김은영, 신지연, 전선희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김량장동은 용인시의 중심 지역으로 관공서와 학교, 각종 기관, 상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고려시대에 금령역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금령역과 금령원이 있었다. 이곳에서 장이 섰으므로 금령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음되어 김량장이 되었다. 이 김량장에 대한 다른 설로는 김량이란 사람이 이곳에 처음으로 장을 벌려 그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도 하고, 풍수지리와 관련된 일화에는 김량이 명지관인 박상을 납치하여 부모의 묘지를 썼는데, 그 이후 자손이 많아져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본래 용인군 수역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김량장에 소학동과 호동의 일부를 합쳐 김량장리라 칭하여 용인면에 편입시켰다. 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던 용인군청을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급격한 팽창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김량장리를 구성하던 자연마을들은 명칭을 잃어버리고, 구획된 명칭으로만 남아 있다. 우선 중앙구는 군청소재지가 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자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김량장리의 한 가운데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동구는 김량장리의 동쪽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서구는 서쪽에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이곳을 옛날에 오리나무가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오리골이라 불렀다. 그리고 학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었다고 하여 소학동이라고도 불렀는데, 아마 가장 오래된 명칭으로 보인다. 그리고 별학은 오리골 너머로 소학동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구별하여 부른 것이다. 남구는 남쪽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북구는 북쪽에 위치하여 붙여졌는데, 원래 은덕골이라고 하였다. 이곳은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인품이 너그러워서 주위에 은덕을 베풀었다는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또 선조대왕의 증손 심룡군의 묘소가 있어서 능말이라고 불렀다. 북구에 속하는 술막은 능말 동쪽에 있는데, 이곳에 주막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나. 설화

1. 생거진천 사거용인

김재경(71, 남)/김량장동 T 1앞

[용인부동산] 박중수, 강현모, 이민정, 김경희, 김은용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마평리를 조사하다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에 노인들이 있어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제보자가 반갑게 맞아 주면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구술하여 준 내용은 주로 제보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곳에 어려서부터 계속하여 들어온 이야기라 한다.

1) 생거진천 사건용인 1

아무 얘기나 해 달라. 일종의 용인의 전설을 얘기하는 것 아냐. 그럼 여기에 국한된 전설을 얘기하는 것 아냐? [조사자 : 국한된 전설도 돼고, 아무 얘기나 해 주세요.] 그럼 생거진천 사거용인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어째서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고 하는가? 그러지.

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흔히들 지금 서울 사람들은 ‘죽어서 용인으로 가겠다’고 전부 용인 산지를 원한다 이거야. 그건 왜 그러냐고 하면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다. 죽어서는 용인에서 묻여라.’ 용인이 에 ‘산새가 화려하다’ 라는 뜻에서, 그래서 전부 용인 용인하는 거야. 심지어 공원묘지도 수원, 광주보덤도 용인지역을 아, 그 설립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두 가지 학설 중에 한 가지는, 에 용인에서 사자다가 일찍이 자기 남편을 여윈 아낙네가, 나이는 한 사십 됐는데, 용인에서 아들딸을 낳고서 남편을 여의었거든. 그러니 혼자 살 수 없고 그래서, 재가를 한 것이 진천으

로 재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천에서 또 역시 아들딸 낳고 잘 살다가 이제 수명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거든. 그러니까 인저 씨 다른 한 배의 자손들, 진천에 동생이 용인의 형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지.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인의 형제가, 그 어머니의 큰아들이 이제 진천으로 간 거여. 계- 진천으로 가서, 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진천 아우들 보고 하는 말이,

“너네들은 생전에 어머님을 에- 잘 모시고 효도를 극진히 다 했는데, 나도 자식이고서 에 느낄같이 어머님을 좀 어머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으니, 어머님 기왕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체래도 용인에다 묻겠끔 허락을 해 달라.”

근데 형제지간이지, 이제 씨는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에- 진천의 아우가 꽤히 승낙을 했으면은 괜찮은데,

“안 됩니다 이거여. 어 일단 진천으로 재가하신 어머님이시고, 여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진천에다 산소를 모시겠다는 거여. 그러니까 이제 에 용인 형제들이 꽤 씹 하거든, 사실은. 어 지네들은 생전에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를 했심은, 우리도 조금 말이지 부모님한테 좀 효도를 하게끔 양보를 해줬음은 좋은데,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거든. 계 이것이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기 때문에 원님한테 소출을 하게 된 거여. 이를테면 원님한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다 이거지.

그래 이제 원님이 이제, 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천 자식들도 효자요, 용인 자식들도 효자요. 누구를 어떻게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 이거여. 그러나 이제 진천에서는 용인 사람보다 더 많이 그 어머님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효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에-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면,

“생거진천 사거용인. 살아서는 진천에서 사셨지만은, 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인에다 묻혀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그 어머니를 용인에다 모신 거야. 요것이 인저 제일 처리고.

2) 생거진천 사거용인 2

인자 아주 또, 우리가 그 상상치도 못한 전설은,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시켜 가지고,

“너, 용인의 아무 개를 잡아 오너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진천의 아무개를 잡아간 거야. 인자, 혼백을 잡아간 거지. 인자 혼백을 잡아 갔기 때문에 인저 진천에는 인저 사람이 죽었시니, 혼은 사자가 잡아 갔지만은 육체는 그대로 사 저 있는 거 아냐?

그러니까 인제 진천에서 삼일장으로 해 가지고 인저 시체를 그 장사 지낸 거여. 그러디 이 혼백이, 사자가 데려간 혼백이 인저 염라대왕 앞에 꿇어앉은 거야. 그 염라대왕이 인제 명부를 딱 보면서,

“너는 어디로 해 온 누구냐?”

그러더니,

“예, 소자는 인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에서 사는 아무개올시다.”

아무리 꾸들여(떠 들어) 봐도 응-, 진천에 있는 아무개는 더 살아야 되거든 응. 개 본게, ‘용인의 아무개를 잡아와라.’ 그랬더니, 진천의 아무개를 사자들이 잡아온 거라. 그러니까 인제 염라대왕이 꾸지람을 준거지. 이 사자들 보고,

“이놈들아! 용인의 아무개를 잡아 오랬지, 왜 진천의 아무개를 잡아 왔느냐?”

아 그래, 사자들이 잘못 듣고 그렇게 했기 땀에, 그냥 사죄 백배하고 인제 사자들이 인제 용인으로 인저 예-, 잉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아무개를 잡으러 내려왔다는 거야. 그랬는디 인제 진천의 혼이 어찌,

“너는 이세에서 더 살다 오너라 하고. 나가라.”

이거야, 염라대왕이. 그러니까 인제 염라대왕이 나가라는 바람에, 인제 혼

이 불나게 자기 집으로 왔네. 아 왔더니 자기가, 혼이 자기 몸체로 들어갈 몸체가 없어. 벌써 땅에 묻혔다 이거야. 그러니 어,

“아하, 염라대왕이 사자들보고 그랬지. ‘그 용인의 아무개를 잡아 오라’고 그랬으니께 용인으로 가자.”

하고. 이 혼백이 용인에 인제 찾아간 거야. 아 그랬더니 딱 사자들이 혼을 잡아갔기 땀에 아직도 따뜻한, 저 시체는 그대로 있거든. 게 이 진천의 혼백이 에 인제 용인의 시체로 들어간 거야. 게 들어 가지고 한창 있다가 인자 한숨을 쉬고 인자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금방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갔다 다시 살아났다.”

고. 용인에서는 그냥 이 기쁘기 한량없는 것이지. 그러니께 인저 거기의 인제 그 상제들이고, 인저 그 안낙네들은,

“아,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

고. 참 손뼉을 치고서 반감게 저기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이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이러더니,

“어, 여기 내 집이 아닌데.”

하고는 인저 훌훌 털고,

“왜, 내가 여기 누워 있어.”

하면서 훌훌 털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전설이기 때문에, 뭐 돈 있는 사람이나 양반이나 당나귀 타고 다녔지. 무슨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께 인제 걸어서 자기 고향으로 인저 더벅더벅, 인저 진천으로 향해서 가는데, 아이 용인의 인제 그 자손들이,

“아이 아버님! 어딜 가시냐?”

고. 잉 그런게 인저 이, 이 사람은,

“내가 왜, 느 아버지냐? 나는 분명히 용인, 용인 사람이 아니고 난 진천의 아무개다.”

그랬더니,

“아유, 아버님이 저승에 갔다 오시더니,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돼셨나 보

다.”

고 그냥 말유하는 거라. 그러니,

“내가 왜 느의 아버지냐?”

고 하고 인제 이 사람은 뿌리치며 인제 진천으로 가는 거야. 근게 진천으로 가는게, 인제 용인의 그 자손들은,

“아버님이 아마 실성하셨나 보다.”

하고 인제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제 진천까지 딱 이 저기가 도착돼 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서,

“이리 오너라.”

했더니. 자기 아들이 인제 나왔네.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그랬더니,

“누굴 찾으십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인제,

“이놈아! 누굴 찾다니, 내가 너 아버지인데.” 그래,

“아니, 우리 아버지는 옛그저께 돌아가셔서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데, 우리 아버지라뇨?”

그러니까,

“아이 이놈아! 니가 아무개 아니냐?”

아, 이름을 대거덩, 응.

“그런데 어떻게 아저씨는 낯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아 이놈아! 내가 아무개고 너 어머니 있고, 너 아들, 너 동생 있고. 내가 아무개, 아무개 다 아는데, 이놈아! 내가 너 어머니여.”

인제 그랬어.

“아, 세상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고. 그러니 그때 또 그 용인의 아무개의 자손들이 또 쫓아가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저기 해서서 그렇다.”

고. 말이지 그랬더니, 인제 거기서 육신각신 인자 그러다가 또, 에 인제

그 당시에 아마 원님은 아니겠지. 예 그 당시에는 뭘지 모르지만은, 게 인제 소출을 해 가지구서 가만히 들으니, 이거는 예 이제 그 혼이, 얘기를 들어 보니께는 인제 혼은 진천 혼이구, 이- 몸체는 용인 몸체거든. 그래서,
 “살아서는 진천에서 살고, 죽어서는, 몸체는 용인 몸체이니께 용인에서 묻혀라.”

예- 이러한 전설이 두 가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리구요.

[조사자 : 그래서 용인을 인제 묘, 묘자리로 좋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인제 막 그런 말이 전해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용인이 예 산들이 전부 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용인 또 명당자리가 많아요. 뭐 여기 만 해도 8대 종손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인제 여기 몇 군데 내가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2. 옥심쟁이 천석꾼

김재경(71, 남)/김량장동T 2앞

[용인부동산] 박중수, 강현모, 이민정, 김경화, 김은용 조사 (1995. 11. 4.)

앞의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란 두 편으로 긴 이야기 구술하여 준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어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도 어려서부터 계속하여 들어왔던 용인의 전설이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용인군 용인읍 운항리 삼새미, 현재 예- 칙량연수원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거기에 옛날에 안씨 승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거부가 살았었는데, 얼마나 짠지, 얼마나 노랭이고. 그래서 동네에서 사실은 호평을 듣지 못하고 허는 그러한 거부가 살았었는데.

하루는 에 고승은 아닌, 커다란 절에서 스님 한 분이 동냥을 받으러 거길
갔다 이거여. 그래서 인제 팽가리 뚜드리면서 염불을 올리면서,

“동냥을 달라.”

고 했더니. 이 마당 쓸러 나온 머슴아이가 마당을 쓸다 보니까, 스님이
‘동냥을 달라’고 그러거든. 그런게 인제 그 안진사라 하는 사람이,

“야! 왜 배깁에서 그렇게 시끄러냐?”

하고. 큰소리가 나거든. 그래 인제 이 에 머슴이,

“아 다름이 아니웁고, 인제 중이라는 분이 지금 염불을 올리고 동냥을 달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냥을 달래야. 그러면 에 저기 저 헛간에 가서 에 소똥 한 바가지를 동
냥으로 갔다 줘라.”

그러니, 이 머슴은 어느 명이라고, 어느 영이라고 실행을 안 하겠어.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소 외양간에 가서 함박지 소똥을 가지고선 인제 중한
테로 가서,

“우리 주인 나리께서, 어 이거를 드리라고 하니 어떡 허겠습니까. 가져가
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중이 낮도 찡그리지 않고 서슴없이,

“동냥자루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허더라 이거여. 그래 인제 거기다가 넣어 줬어요. 그러니 중이 아무 소리
안하고 그 동냥을 받아 가지고 갔거든. 가 가지고 이 중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껄뽀하고 한지, 자기 주지스님한테 사실 얘기를 헐거여.

“어느 마을에 부자 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가서 동냥을 달랬더니, 이 소똥
을 함박지를 주니 이걸 가져왔노라고. 이렇게 껄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고. 이거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어디 고승께서 벌을 줌 내려 주십사.”

“그래, 그럼 내가 갔다 오지.”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고승께서 역시 그 집을 가 가지고 안마당에서 팽가리를 두드리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아하 참 안 됐네. 아하 이거 참 안 됐네.”

‘아하 이거 참 안 됐네.’ 하면서 짹 입을 다물고 왔다갔다 하거든. 그 래 머슴 놈이 배밭 마당을 쓸, 쓸러 나와 가지고 그 스님이 자꾸 왔다갔다하 면서, ‘아하 이거 참 안 됐네’ 입을 다물고 다니면서 그런게, 불나케 자기 상 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께 상전이 그래,

“그 에 중놈을 좀 그럼 에 안으로 모시라.”

고. 그러니께 인제 머슴이 그 중을 안으로 모셨어요. 그래 인제 모셨는데, 그 주인 하는 말이 중보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연유가 있길래 왔다갔다, 우리 마당에 왔다 갔다하면서 ‘아하 이거 참 안 됐네’ 하고 입을 다물고 다니시오. 그 이유를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인제 주인이 고승한테 물었거던. 그런게 인제 고승이,

“댁에가 지금 천석꾼이신데.”

“아 그렇죠 내가 지금 천석꾼이죠.”

“만석꾼 이상 하실건데, 아 저기 저것 땀에 지금 천석꾼 백에 못 하는 거 요.”

아 이렇게 고승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욕심많은 이 에 안참지가,

“아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고 뒤에 산모랭이가, 에 이 저 산 능선이 있는데, 저 능선을 이렇게 파헤 치면 적어도 에 한 20메타 가량 이렇게 파헤치면은, 이 당신이 천석꾼 현 것 이 만석꾼 이상으로 어 이 재산이 부를 것이다.”

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던. 그런게 욕심많은 이 안진사가,

“고마워라.”

하고 말이지. 그 하인을 시켜서,

“야! 쌀 이 대도(큰되박) 큰 말 갖다가 이 스님한테 드리라.”

고. 으 그러니까, 인제 쌀 한 말을 스님한테 인제 갖다 드린께, 스님이 그 걸 짚어지고 인제 올라온 거야. 그 이튿날 즉시 동네 사람을, 아- 이제 사 가지고, 어떻게 샀냐든,

“자루, 한 자루에 흙을 파서, 한 자루에 에 쌀 에 한 되씩. 에 그러니 이걸 빨리 인제 그 에 능선이 된, 그 이 저걸 갖다 헐라.”

이거여. 그런게 동네서, 이웃 동네 사람들이, 아낙네 석권 전부 와 가지고 그냥 지게를 지고 온 사람, 또 이 뭐 이제 함지박을 가지고 온 아낙네들, 그 저 호미로 팽이로 해서 그 흙을, 산더미 흙을 전부 파헤쳤거든. 어느덧 아마 그 안진사네 쌀이 한 백 가마 가량은 에 손실이 됐을 거여.

인제 그리고 인제 이제나저제나 인제 부자 될 꿈을 꾸고 있는데, 1년이 되어 2년이 되어 3년이 됐는데, 천석꾼이 백석꾼도 안 됐다 이거여. 한 5년 만에 완전히 거지가 되다시피 했어요. 으 그러니 누구를 나마 하느냐 이거여. 중이 어디서 온 사람인 지도 몰르고, 그냥 그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만 얘기 듣고, 자기가 제 발등을 찍은 거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에 그런 화를 당했다 하는, 아주 마을 곳이 삼새미죠.

에 그 지금 칙량연수원 있는 그 곳이에요. 그런데 전해오는 전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3. 김량장리의 유래(17)

김재경(71, 남)/김량장동T 2앞

[용인부동산] 박중수, 강현모, 이민정, 김경화, 김은용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구체적인 전설을 문자 좀 생각을 하시다가, 조사자가 용인의 유래에 대해 문자 김량장동의 유래에 대해 말씀하였다.

제보자는 김량이란 분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였다.

[조사자 : 그러면요. 용인을 왜 용인이라고 하는지 내려오는 전설같은 거.]
에 김량이라는 곳은 알아도, 용인은 아마 그 지명을 구체적 내용은 모르고, 김
량장리는 에 우리 김해 김씨, 옛날에 김량이라는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어요.

음 그래서 실은 그 할아버지가 이 군청 뒤에 이 산 여기에 묻혔었는데,
왜정 시대에 일본 놈들이, 에 이제 그 에 강제로 그 산소를 에 잉기라고 해
가지고, 저네들이 에 신사 어, 신사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 할아버
지가 저 앞에 산, 저 덜병치하고 하는데 그 앞으로 이장을 한 일이 있어요.
(군사 요충지이란 내용 생략)

음 그리고, 인제 이 예전에는 이 과거보러 전부, 어 충청도 저 아래대에서
는 양지로 해서 그 어- 사현리 산 그쪽으로 해 가지고 두천리로 해서 이렇게
들 올라 과거보러 갔고. 인제 이쪽 이제 그 에 안성, 평택 이쪽에서는 다 이
쪽으로 또 이렇게 과거보러 인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인이 김량장리라는 곳은 알아도 용인은 어째서 지명이 용인으
로 됐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인 사람은 사실 이름 자체가 그래
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은 어질고 착해요. 원 본바닥 사람들은 네 악인들이
없어요.

4. 첫산의 유래

김재경(71, 남)/김량장동T 2앞

[용인부동산] 박종수, 강현모, 이민정, 김경화, 김은용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 성이 많다고 하자 생각이 났는지 간략하
게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수원에서 일로 오다 보니까요 뭐 성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있던데요.] 여기 가면, 여 저 성이 예- 성산이라고 저 쪽에 있는데, 거기에 예 뭐 하루저녁에 예 귀신 할머니가 성을 쌓다는 그런 저기도 있어요.

지금 어디냐 하면은 자연농원, 가실리에서 저쪽으로 넘어 동백리로 넘어 가는 곳이, 거기 가면 지금 현재도 아마 거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조사자2 :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있고 거- 인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몰르겠어요. 그런 얘기만 있고.

[조사자2 : 뭐 이렇게.] 그리고 인제 정몽주 선생님이 산소가 여기 저 용인군 모현면 능골에, 그래서 인제 능이 많다 해서 능골이라 그러지. 정몽주 선생님 아시죠. 어 그 양반이 여기 묻혔대는 거.

5. 환생환 김청승의 딸

김재경(71, 남)/김량장동T 2앞

[용인부동산] 박종수, 강현모, 이민정, 김경화, 김은용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지역의 전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면 문화원에 찾아가면 잘 알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전설보다는 민담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고전 이야기를 부탁하자, ‘그런 고전 이야기를 하라’고 하며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조사자 : 옛날 얘기도 괜찮고, 호랑이 살던 시대 그런 얘기도 괜찮구요.] 아니 뭐. 옛날 얘기를 해달랑께 옛날 얘기를 해주지. 이제로부터 150년 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용인에서 사는 띠꺼머리 총각이 있었었는데 일찍이 조실부모를 했거든. 그제나 지금이나 사람은 나서 한양으로 가고, 짐성들은 시골서 살라. 그래야

잘 먹고 잘 산다 했고. 또 사람들은 출세를 할려면 한양으로 가라 해서, 그 당시에 나이가 열두 살 먹은 총각인데두 머리는 좀 깎든 모양이라.

그래 조실부모를 했시니 어떡하. 개나리 붓짐을 싸 짊어지고 인제, 용인서 아 광주로 해서 인제 한양으로 가는 도중인데, 지금은 차가 있고 마차가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 뭐 어디 말 이외에는 없는 사람은 도보로 꼭 갔잖아요.

근데 용인을 출발해서 인제 광주로 해 가지고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는데, 아마 이 남한산성쯤 아마 갔던 모양이라. 이 배는 고프고 날은 어둑고, 기운은 빠지고 그래서, 그래도 인제 물어 물어서 인제 가는 도중인데, 기진맥진한 자기 힘 쪽 별안간 빠지더니 쉬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설 장소를 몰색하니께 고 옆에 아주 그 잔디밭이 아주 깨끗한 잔디밭이 있어 가지구,

“아, 내가 여기서 잠깐 쉰다 가겠다.”

하구서. 인제 거기서 개나리 붓짐을 풀러 놓구 잔디밭에 드러눕는 거라. 아 그랬더니 깜빡하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자기 나이 또래 된 아주 보기 드문 선녀와 같은 아가씨가 떡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지금 애가 인제 예를 들어, 아마 길동이라고 해요.

“길동씨가 지금 한양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한양으로, 지금 이틀테면 취직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말만 잘 들으시며는 저절로 하고 싶은 일이 다 성취될 터니, 내 말을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란다.”

고 했더니,

“무슨 말이요?”

자기가 참 하는 일이 다 성취된다니, 아 그 말 안 들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인제,

“아, 말씀은 하시라.”

고 그러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인제 그 에 요만한 상자가 있는데 거기

에 구슬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로 해서 한양 어디로 어디로, 이렇게 인자 그 지리를 알려 주는데, 어디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에 정승이라고, 김정승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사는데, 이거를 꼭 우리 그 양반이 우리 아버님인데, 이걸 꼭 에 길 동씨가 전해 주면은 아마 길동씨 하고 싶은 일이 성취가 될 것ियो 그러나 그 안에는 이걸 누구든지 이걸 보이면 안 된다 이기요 이거를 약속을 지키 면은 아마 잘 될 것입니다.”

“아, 그거야 뭐 힘든 일이 아닌데 못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럼 지가 전해 드리죠.”

허고 그 상자를 받아 가지구 자기 개나리 봇짐에 썼어요 싸 가지고 있는 데 깜빡 하고 보니 인제, 에 일장춘몽이거던. 이제 꿈을 꿴다 이기여. ‘아, 꿈 도 에 회안하다. 어쩌면 그렇게 생시와 같으냐!’ 이거지. 그러나 그러면 꿈에 그 아가씨가 준 그 상자가 내가 보따리에다 썼는데, 그 보따리에 있는가 없 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풀러서 보니께, 아 그 상자에 그기 자기 가 쓴게 있드라 이기여.

‘아하, 이 꿈에 일러준 그 저기가 환하게 눈이 선하다 이기여. 그래서 아 하 요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해서, 내가 그르면 꿈에 아르켜 준 길을 찾아가 보마 하고. 부랴부랴 그 아가씨가 일러 준대루 한양을 들어가 가지구서 인저, 이 골목 저 골목 지시한 대루 이렇게 찾아가지고슨 떡 보니께, 참 고 래등같은 음 에 큰집이 앞에는 입철 병장이 있다 이기여. 그래서,

“이 댁이 김정승 댁입니까? 아무개 김정승.”

“아 그렇다.”

고. 그래 보니, 문지기가, 그 병장이 보니께, 아 거지같은 쪼뜨만 놈이, 으 일국의 말이지 정승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 댁이 그 댁이 아니냐’고 그르거 든. 그런께,

“냉큼 이놈!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잡아다가 죽친다.”

고. 하는 바람에, ‘아하 이 사람한테는 말 걸었다가, 으 뜻을 이루지 못 할

거구나’ 해서 추녀 밑에서, 멀찌감치 추녀 밑에서 기다리다가 또 한 점이 되니까, 다시 인제 또 교대를 하더라 이거여. 그런데 또 교대한 병장한테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

“사실은 약하 약하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 정승님을 면회를 꼭 해야 되겠는데, 전해 주시길 원한다.”

고 그랬더니 아 그 병장이 역시 거지같은 아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께, 또 호령호령하고,

“냉큼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에 죽친다.”

고 말이지 또 그러거든. 그런데 또, ‘아 이 사람도 안 되겠구나.’ 하고. 게 세 번째 에 교대한 병장은 인물 됴됨이가 순하게 생기고 잘만 얘기하면 들어줄 만 하거든. 게 인제 사실 그 병장한테 가서, 문지기지.

“사실은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세 번째 에 이 댁에 권 어른 이신 정승님을 에 꼭 만나보기 위해서 간청을 했더니, 에 두 번은 이렇게 혼나고 어 이제 댁에서 세 번째데, 꼭 저를 좀 제 말씀을 듣고 정승님한테 가서 좀 이야기나 좀 해 달라고. 전해 달라.”

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순하게 생겼을 뿐더러, 상당히 사람 볼 줄을 아는 사람이라. 이 아이가 말하는 거동을 보니, 옷은 남루하게 입었어 두 상당히 영리하게 생겼거든. 또 한 번도 아니요, 세 번까지 에 기다렸다가 자기한테까지 얘기할 때는 무슨 곡절이 있을 거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문지기는 그 아이보고,

“네 말이 사실일 거 겠으면은, 에 대감께서 들으실 지 안 들으실 지는 몰르지만은 내가 일단은 그러면 전해 보거나 하지. 기다려라.”

하고. 인제 이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얼굴색이 좋아서,

“어쩐 일인지 대감께서 너를 사랑방으로 모시라고 하니, 이 쾌히 승낙하신 거나 다름없시니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해서 인제,

“사랑방으로 들어가서 인제 기다려라. 그러면 곧 인제 대감께서 나오실 것이다.”

그래 인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랫목에 있지 않고 인자 옷목에서 무릎을 꿇고 인제 기다리고 있는께. 한참 있다가,

“어햐!”

해더니, 예 아랫문이 열리면서 긴 장죽을 문, 참 시음이 백발 된 할아버지께서, 건장한 할아버지께서 들어와 아랫목에 떡 착상을 하고 앉으시더라 이기여. 그러더니 힐끗 쳐다보더니,

“니가 나를 보러 왔는고?”

이 애는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고 나서, 자기 통성명을 했지.

“용인에 사는 아무개데, 약하약하 이만저만해서 서울로 한양으로 오는 도중에, 어느 쫘 돼서 예 잠깐 쉬는 동안에 잠이 들었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어뜨게 어뜨게 생긴 선녀와 같은 아가씨께서 어, ‘이 상자를 대감님께 꼭 전하라’고 해서 서신하고, 그래서 지가 가지고 왔노라.”

고 대감이 가만히 그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깜짝 놀라고 있거든. 왜 그러냐? 나이를 따져 보니까, 12년 전에 ‘금이야 옥이야’ 하고 길르든 그 딸 한 아이가 무남독년데, 그 딸 아이가 3개월만에 세상을 떴어요. 세상을 떴는데, 그 애가 꿈에 선물했던 그 자리에다가 딸을 묻은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딸이 살아 있으면은 지금 이 아이가 얘기한 그 연령과 비슷하다 이기여. 그래서,

“그러면 니가 그 꿈속에 예 본 그 여자의 그 선물을 니가 아니 가져, 이 전해 주라는 그 상자를 가져 왔는뇨?”

그런께.

“예. 가져왔습니다.”

하구. 개나리 붓짐을 풀어 가지고 이제 서신하고 상자를 대감님한테 보인 거여. 대감이 떡 서신을 읽어보니, 그냥 얼굴이 이냥 그냥 좋은 얼굴로 변하더니,

“너, 잠깐 여기 있으라.”

하구나서. 그 상자하구 서신하구 가지구 안으로 들어간다 이기여.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헨 거라. 무슨 얘기냐 하면,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에 기 인제 백일 기도를 에 들여 가지구서 결국 얻은 딸인데, 그러니 얼마나 구엽계 에 딸을 키웠느냐 이기야. 그런데 그 상자의 구슬은 에 이 오랑캐 나라에서 에 이제 가져온 그 구슬이라. 국내에서 생산에서 생산되는 구슬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 구슬을 그 딸에게 줬더니, 세 살 먹을 때까지 그 구슬을 가지고 참 재미있게 살다가, 그 이 귀엽게 자라다가 딸이 세 살 때 털커덕 이유 없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뜬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다 묻었는데, 서신을 읽어보니 뭐냐며는,

“어머님이 백일 기도를 드려 가지구서, 아 나는 에 이제 이를테면 옥황상제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에 선년데, 음 너무나 그 정성에 감동이 되서 옥황상제님께서 나를 미리 이세로 내려보냈는데, 내가 3살 때 죽었지만 사실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지금 그대로 자라고 있다 이기여. 어 그러니 어느 땐가는 내가 다시 인간으로 변할테니, 그때까지 부모님들은 기달려 주시고, 또 이전에는 이 아이는, 이 길동이래는 아이는 역시 자기와 똑같은 신분이다 이기여. 어 그러고 자기와 천생의 배필인데 하늘 나라에서 맺어진 배필인데, 에 미리 인제 그 용인에다가 애는 이제 그 어렵게 저기 되 있구 그래서, 자기하구 그 저기를 맺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앤데, 내가 환생될 때까지 이 아이를 친아들과 같이 잘 양육을 하 달라.”

이거지. 인제 그러한 사연이거든. 그러니 인제 그 때서부턴 그 어머니랑 그 아버지랑 참 기분이 좋아서, 이 잃었던 딸이 다시 인제 언젠가는 다시 에 자기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감, 그리고 인제 또 딸이 지시한 거 길동이라는 아이가 참, 에 웃은 남루하게 입었지만서두 거 인간 됨됨이가 이 아주 귀동자로 태어났거든.

그래서 애를 그 이튿날서부터 에 서당으로 보내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하

고. 그리고 인제 서당을 별도로 그 하나 지어서 말이지, 꼭 계서 거기서 거거를 허도록 이렇게 인제 에 별당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래 이 아이는 아침에 인제 부모님한테 문안드리고, 인제 그제 인제 시형(수양) 아들이 된거지. 그리고 나서 서당에 가서 인제 공부를 허면은, 스승이 이를테면 에 서당 선생님께서 하늘 천 하면은 따 지 가물 현까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아주 영리한 아이여.

이제 그렇게 무럭무럭 이 아이는 거기서 지나기를 한 3개월쯤 됐는데, 하루는 역시 인제 이 아이가 인제 공부를 인제, 인제 천자 띠(띠)고, 명심보감 띠고, 통감 띠고 인제 역시 인제 대학을 띄 이제 공부를 허는데, 밤 9시쯤 됐는데 별안간 인자 호롱불이 이냥 요렇게 살랑살랑하고 찬바람이 들어오거든. 그러더니 누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는데, 3개월 전에 꿈에 봤던 그 아가씨가 웃는 낯으로,

“서방님! 아무 걱정 마시고,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구 그저 공부나 계속 하시라.”

고. 그러구 들어오거든. 그러니 이 아이는 한쪽으로는 반갑지만서두, 한쪽으로는 무섭기 그지 없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 만난 여자지만은 이게 인간은 아니다 이기여. 어 그런게 반가우면서도 두려움이 앞서는 거라. 게 그러니 또 이 아이는 자기는 여기 시형 아들도 들어왔지만, 이 아이는 그 집의 원 친딸이거든. 게 자기와 상전과 마찬가지로 아녀. 그러니 들어오는 걸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인제 이 아이가 들어오니께, 여자가 들어오니께 그냥 향기한 냄새가 나더니, 이 책을 보더니,

“아 이거, 저꿈 이거 배우시느냐?”

고. 그러면서 인자,

“저하고 인제 같이 모르는 거 있으면은 내가 알르켜 드린다.”

고 허면서. 그리고 인제 거기에 거- 밤참, 야참을 에 꼭 어 그 침모를 갖다 놓는데, 아 이 사과를 꺾어서 이 길동이기도 주구 자기도 먹는다 이기여. 인제 그러구 한 11시 반쯤 되서 닭이 울 무렵에,

“내가 여기 나타난다는 것을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만일 얘기하면은 그만한 형벌을 내리겠다. 근게 절대 약속을 지켜 달라.”

고. 근데 인제 누구 명이라고 약속을 안 지켜.

“알겠노라고. 인제 절대 누구한테 얘기 안 하겠노라.”

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이 여자는 11시 반쯤 돼서 문을 열고 나가는 거라. 이제 나가고 나니께, 한숨을 ‘휘’ 쉬고 ‘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냐?’ 그러나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선다 이기여. 응 인간이 아니고 귀신이기 땀에. 이틀테면 뭐라고 할까, 귀신이라고 할까.

인제 그래서 항상 그 어 인제 그 이튿날이 됐는데, 자기 인제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고 아침 식사를 먹고 인제 서당에 갔는데, 서당에 가서 책을 펴놓고, 책이 눈에 들어오지를 았아. 왜 그러냐면 어지께 저녁에 그 아가씨 저기가 지워지지 았고 자꾸 으 저기가 떠올리거든. 그러기를 며칠을 한 삼 일을 그러다 보니께, 밥맛도 떨어지고, 공부하는 것도 인제 저기하고. 인제 그거를 또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 자기가 혼자만이 속을 태우고 있는 거라.

근데 그 눈치를 누가 챘는가 하믄 그 어머니가 눈치를 챘거라. 이 아이가 항상 아침저녁으로 명랑한 기분으로 서당에도 갔다 오고, 또 에 지방에 들어가서 책 읽는 것을 들으면은 낭랑하기 그지 없었는데, 한 며칠 전서부터 책 읽는 소리나 이 또 이 얼굴을 보면 얼굴이 노리끼하게, 그런께 잘 먹질 못 현께. 이 이놈이 모슨 곡절이 있는가보다. 몸이 아파 아픈게 아니가. 그래서 그 이튿날은 이 아이가 이제 아침 문안을 왔길래,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 길동야! 너 어디 몸이 아픈 게 아니냐?”

“아, 몸이 아픈 게 았다.”

고. 이 틀림없이 몸이 아픈 데도(잠시 중단) 그래서 다시 그 어머니가 았 들보구,

“니가 틀림없이 몸이 아프거나, 그렇지 았으면 무슨 곡절이 있는데 얘기

안 할 것이냐, 얘기하라.”

이랬더니,

“절대 아픈 거 없습니다.”

이기여.

“그러면 니가 왜 요즘은 먹지도 못하고, 왜 얼굴색이 그러냐? 너 틀림없이 몸이 아프거나 그렇지 않으면 니가 꼭절이 있는 것이야? 니가 우리를 친 부모든 꼭절이나 몸이 아프면 이야기할텐데, 우리 양어머니 양아버지라고 해서 니가 얘기를 안 허는 것 같으니, 그럴 거 같으면 내 자식으로 너를 섬길 수가 없어. 당장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라.”

이기여. 자 이러니 이 길동이가 어떡해. 그래 할 수 없이 사실 얘기를 헨 거라.

“한 며칠 전서부터 사실은 따님이 내 방에 몇 시경에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놀다가 갑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영감과 그 부인은 얼마나 기쁘냐 이기야. 그러나 그 딸이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 어특하면은 으 그 딸 몰래, 우선 부모기 땀에 딸의 그 성장한 그 저기를 보고 싶은 맘, 욕구가 앞서지 않아. 그래서 생각 끝에,

“좋은 일 있다. 우리가 니 방에 먼저 병풍을 쳐가지구서 구멍을 뚫고, 미리 가서 두 내우가 인제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예 들어오는 딸만 보고 우리가 내색만 하지 않으면 되지, 되지 않을 것이냐?”

게 인제 그럴 듯 하거던. 이렇게 인제 길동이 하구 부모하구 짜고서 인저, 인제 그 때는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일찌감치 인제 예 그 길동이 서당, 예 책방에 인제 거 병풍을 쳐놓고, 불을 정말 환히 켜 놓구 두 노인네가 인저 이 병풍에다 조금 인제 이 눈을 이려고 내다볼 수 있는 구멍을 뚫고서 인자 기달리고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9시가 넘고 10시쯤 됐는데, 아 문이 열리더니 별안간 그 좋은 얼굴로 들어오다가 한 발 방으로 내딛다가는 얼굴색이

변하더니 문을 닫고 그냥 나가더라 이거여.

차 그러니 인제 이 부모네들이, ‘아차, 벌써 제가 먼저, 몰를 줄 알았더니 우리가 여기서 숨어서 보는 것을 애가 알았구나!’ 그래도 그 얼굴을 어쩔 걸 에라도 봤는데, 참 이냥 뭐 그냥 미치게 이냥 쫓아가서 붙잡고 싶은 그런 감동이 그냥 앞서더라 이기야.

“아무개야!”

하고. 쫓아나가니, 벌써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연기와 같이 사라진 거라. 그리고 나서 인제 후회를 한들 소용이 있느냐 이기야.

“아하, 이거 괜히 약속을 잘못해 가, 아니 저 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애가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

이제 걱정이 앞서지만서두, 저질러논 물이니 어특해. 게 인제 절대 인제 이 아이가 인젠 뭘 해도 묻지도 않고, 인제 이 아이의 거동만 보는 거라, 부모네들은. 그런게 이 아이는 그 날은 그렇게, 에 그 집 딸이 이제 ‘옥자’라고 하면은, 옥자가 들어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나갔는데, 인제 기달리게 되는 거라, 인자 반대루. 어 애가 나갔기 때문에, 부모가 들어 가지면은 ‘자기를 또 찾아와서 뭐 혼을 내주든가, 무슨 얘기가 있겠지’ 허고, 인제 그때부터, 그 시각 이후부터 자꾸 기달림이 앞서는 거거든.

그 날 웬 종일 밤을 새도 오지 않더라 이고여. 그래 인제 그 이튿날도 기다려도 오지를 았아. 사흘을 기달렸는데, 사흘 되던 날 딱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꼴이 난거지. 그러더니 썩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이 길동이는 그때는 두려움보덤도 그냥 기쁨이 앞선 거라 응. 인제 인간 대 인간과 같은 그런게 정이 이냥 솟아올라 가지고, 그냥 잃었던 그 운무정씨가 찾아온 거 같은 그런 기쁨으로 그냥 으, 그냥 얼굴이 그냥 참 에 저기 하면서 인제 길자(옥자의 잘못)를 맞은 거지. 그러니 길자가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왜 약속을 어겼느냐 이기야. 어 길동씨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에 이제 일 주일이면은 인간으로 환생될 에 날인데, 에 어겼기 때문에 3개월이

라는 세월을 또 연장이 되겠끔 됐다 이기야. 그러니 내 약속을 어겼으니, 지금 당장 나가서 회차리 20개만 꺾어 와라.”

이겨여.(조사자 웃음) 아 그러니 누구 명이라고, 인제 어 그러나 회차리를 꺾으러 가면서도 기쁨이 앞선 거라. 으 뭐, 어디를 뭐 형벌을 받건 말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제, 이 그 이제 그 뭐야, 그 뒷동산이 아닌 어디 거 저 나뭇간에 가서 인자 이 싸리가지 회차리를 20개를 꺾어다가 인자 대령을 헌 거라. 그랬더니 인제,

“치마 위에 이걸 건고 인제 올라서라.”

그러더니. 인제 이걸 으 밑에 저기를, 인저 으 다리를 인제 건구 올라섰는데, 이 여자가 회차리를 20개가 다 부러지도록 사정없이 후려친 거라. 그러니 그 20개가 인제 후려칠 적에 이 살덩거리가 그대루 남아 있어. 그냥 피가 줄줄 흐르고 인제 그러지. 그러면서도 아프대는 거보덤, 으 절대 아프지도 앓구 기쁨이 앞서는 거여. 인제 게 인제 다 치구 나서는, 이 길차라는 여자가 자기 침을, 에 그 이제 그 피 흘린 그 저기에다가 쪽 발라주더니, 그냥 싹 그 붙고 그 피가 흐르는 그 자리가 싹 또 가시는 거라. 인제 그러구 나서는,

“이제는 절대 인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시오.”

허구 나서, 인제 그때 가서 둘이 이냥 오손도손 정말 참 책도 같이 읽고, 또 그 여 야참도 인제 같이 먹으면서 에 인제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거라. 인제 이 부모네들이 아침 에 인사를 와서 인사를 하지만은, 저 ‘딸이 오느냐 안 오느냐’ 묻지도 못 허지 인제. 이 길동이의 안색을 보니까, 상당히 그 좋은 안색이거든. 아하 이젠 부모네들은 이제 그 자기 ‘딸이 아마 이제 또 나타났나 보다’ 그 묻지는 못하고. 인제 그러구 나날을 보내는데, 세월은 어느덧 정말 참 3개월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그 딸이 하는 말이,

“이제 내일이면 내가 인간으로 환생하는 날인데, 에 이 길동씨가 에 사인교를 가지고 그 때 그 꿈꾸던 그 자리에 에 가서, 일절 하인들 있는데, 하인들 멀리 물리치구 나서 그 자리가 조금 좀 불룩하게 나왔을 테니, 거기를 파시면은 이 저기 뗏장만 건으면은 내가 요 몸체 그대로 누워 있는 거와 같이

누워 있을 테니, 길동씨가 나를 사인교에 태워 가지고 에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안방에다가 눕히고, 에 불을 뜨듯하게 때고, 그때까지 인제 자기가 깨지는 않은 거지. 내가 그때 준 그 구슬을 이 몸에다 이렇게 구실리면은, 내가 이 인저 정식으로 인저 인생을 환생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노라고. 그러나 부모한테 미리 연락을 해도 좋다.”

이기에. 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인제, 참 기분 좋게 그 날을 보내고 이 여자는 가고. 그 이튿날 아침에 문안드릴 적에, 인제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라. 그랬더니,

“야, 이제야 인저 죽었던 딸이 인제 다시 이 하늘 나라에서 커 가지구.”

인제. 인제 그러구 에 그 날로 이제 그 결혼식을 거행하게끔. 응 아주 그냥 그 이 온 나라에다가 그냥 선포를 허구 아주 잔치를 크게 인저 벌릴려구. 그냥 준비를 다 하는 거라. 그래 인제 이 애가 사인교를 가지구서 인제 거길 갔더니, 역시 인제 제대로 누워 있거든. 그래서 인제 안아서 사인교에 태워 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 가지고, 에 올적에 자기가 완전히 환생될 때까지는 에 길동씨 이외는 누구도 인제 보지 못 하게 했든 모양이라.

인제 그래 가지고서 인저 불을 때 가지고 뜨듯하게 온기가 돌고, 에 그 인제 길동씨가 거 구실려 가지고선 인제 그 길자의 그 몸을 쓰다듬은게, 한참 있다가 에 숨을 내쉬우더니, 이제 그 몸이 그 차디찬 몸이 인제 온기가 돌고 혈액이 통하더니, 인저 한숨을 쉬더니 인저 깨어 나드라 이거여. 그래서 인저 그 안에 길자가 길동일 보고,

“그간에 고생이 많이 하셨노라고. 이제 인저 아버지 어머님한테 문안 올려도 되겠다.”

그래 인제 둘이 대기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문안 올리고, 그 날로 결혼식을 으 거행했고 아 온 나라에 선포를 허고. 이 아이가 에 삼대에 정승을 해 먹었다. 그 아이가. 그 아이도 인제 정승이 되고, 거기서 난 자식들도 인제 정승이 되고. 에 3대 정승을 해먹었다는 전설 애깁니다.

6. 천년 묵은 지네

김재경(71, 남)/김량장동T 2뒤

[용인부동산] 박종수, 강현모, 이민정, 김경화, 김은용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풍속에 대해 묻자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요를 해달라고 하자 소질이 없어 못 한다고 한다. 이곳의 특산물을 조사한 뒤에 다시 호랑이에 얽힌 이야기를 부탁하자 같은 동물을 소재로 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호랑이에 얽힌 설화라든지 그런 거요.] 호랑이? 용인의 거 뭐 옛날 얘기를 또 해달라 이거예요? 호랑이에 대한 옛날 얘기? 그거 또 얘기해도 돼. 야 참 그러지. 또 그럼 내 얘기를 하나 해주지.

호랑이하고 얽힌 얘기는 아니고, 어 이제 그 지네, 천년 묵은 지네의 얽힌 얘길 하죠 내가 지명을 얘기해야 아마 쉽게 들을 테지! 사실은 이게 지명이 어딘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면 조금 멀다고 진천이라고 하죠 진천에서 이름을, 아마 저서라도 얘길 해야 될 거예요. 어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애 이제 그 선비가 아홉 번째에 과거를 봐서도 낙방을 했어. 그러니 아홉 번째 낙방을 했으니, 그 선비가 얼마나 구차하게 살겠느냐 이거야. 그러나 이 지금은 저기 하지만, 옛날에 선비들은 나가서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낙네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이 그 뒷바라지를 다 해 주는데, 이제 열 번째 과거를 보러 가는데 당장 노비를 구할려니 노비가 없어. 그래서 생각다 못한 그 부인이 자기 머리를 잘라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걸로 노비를, 으 이제 자기 남편을 노비를 해 준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열 번째 과거니 제발 좀 음 급제를 해서 오시라.”

고. 그리고 인저 정성껏 이 홍길동을 어 이 보냈네. 인제 홍길동이 열

번째 과거를 보러 인제 한양으로 오는데, 어디쯤 왔냐면 역시 인제 그 남한 산성 그 험한 산길까지 인제 온 거여.

그런데 이 어둑어둑한데, 아 별안간 소낙비가, 난데없이 소낙비가 쏟아지 거든. 그런게 이 소낙비가 오기 때문에, 우선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 자기 조그마한 몸이라고 은신할 곳이라도 없는가 두리번거리는데, 자기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역시 바위 밑이 자기가 은신할 거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길동이가 거길 들어가서 이제 피신을 하고 있는데, 피신하자마자 소낙비는 딱 끊어져. 아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지내는 놈, 늦주발에다가 으 이제 늦젓가락을 동동 굴리는, 으 그거는 제사지낼 때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쿵!”

소리가 들리거든. 그 뭐 시장하기 짝이 읊지. 뭐 점심도 못 먹고 말이지, 저녁도 못 먹고 ‘하이튼 이상하다’ 하고, ‘웬 인기척인가’ 하고 이제 얼른 나와 가지고, 거 이 바위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니, 선녀와 같은 여자 둘 이 묘 앞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막 인제 끝날 무렵이야. 아 그런게 인제 딱 나타났네.

나타나 가지고 그냥 배가 고프니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 지금이나 예전이나. 옛날에는 제사 지내면은 뭐, 지금도 그러지만서도 이웃 사람들을 밤에 불러요. 사랑방으로 연락하면 사랑방이서 인제 잡담하고 새끼 꼬고 가마 치던 인제 그 이웃에 총각들이, 총각들 아니면 이웃 저 으 남자들 이냥 우 와서 제사밥을 먹기꺼진 하고 그러는 저기라. 제사밥 얻어먹는 거는 그런 아주 어 뭐 별 뭐 죄로 생각 안하고 또 그렇게 좀 주게끔, 노나 먹게끔 되 있기 때문에. 근데 우선 허기지기 때문에 옆치 불구하고 에 그 아낙네들을 보고,

“제가 상당히 시장을 한데, 거 제사밥 좀 얻어먹을 수 없습니까?”

그러더니, 그 여자 둘 중에 하나는 참 더 아주 잘 생기고, 하나는 그러게 인자 주인댁 아가씨하고 인제 그 하녀와 같은 그 둘이여.

“하 그러시냐!”

고 그러니까 인제 주인 아가씨빨 되는 아가씨가,

“예, 에이 옥분야! 그 제사밥을 이 선비님한테 대접을 하노라.”

그랬더니,

“예, 아씨!”

하면서. 그 대접을 하거든. 그런데 인제 그 허기진 바람에 그냥 얼마나 자기가 여지껏 보지 못한 진수성찬이야. 그냥 맛있게 먹는 거라. 그냥 누가 있건 없간에 그건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그리 배불리 먹고 나서, 숟가락을 딱 놓고 나서 이제 그 주인들한테,

“고맙다.”

고 인사를 한 거여. 인제 그런데 인제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나가 본께, 이제 잘 때(장소)가 걱정이거덩. 이제 떡 그 아가씨들보고,

“도대체 아가씨들은 어디신데 이 동네, 이우대에 동네가 어디요. 그러니까 이 어디 설만한 자리를 찾는데 어디 없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랬더니 거 주인 아가씨빨 되는 사람이 슨,

“여기는 동네가 읍고, 천상 우리 백에 없는데 우리 집이래도 좋으실 것 같으려는 저를 따라 오시라.”

고 아 그러니 얼마나 이 아가씨, 저 길동이가 기분이 좋겠느냐 이거야.

“아 이렇게 시장한데 말이지 좋은 음식까지 주셨는데, 또 채워까지 주신다니 정말 그 은혜 백골난망이라.”

고 하면서 인제 뒤로 인제, 어실렁어실렁 뒤로 쫓아가는데, 그러니 밤중에 인제 아가씨는 인제 호롱불 들고 인제 그 으, 인제 뭐 광우리를 인제 짚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인가가 도통 읍어. 인제 저만쫓 오는데, 큰 이 저 어 계곡에 고래당 같은 집이 있는데, 그냥 환하게 불이 켜 있어. 대문이 열 대문이야.

그런데 인제 인기척이 읍어요. 그러니 이 아가씨들이 글로 쑥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 자기도 인자 뒤쫓아 들어갔지. 아니 그 넓은데, 그 으리으리

한, 아 이 치장한 그 저기는 으리으리한 데도 기척이 없어, 아무 인기척이.
단 두 식구가 사는 거라. 그러더니 그 주인댁 아가씨가 그 옥분이 보고,
“야 옥분야! 선비님 에 목욕하시게 목욕물 디라.”

아 그러더니,

“에 선비님 보고 이리 오시라.”

고 하면서 따뜻하게 목욕을 던 데로 인제 아,

“여기 와서 목욕을 하십쇼.”

이거여. 하 그러니 이제 목욕까지 하라고 이러니, 으 이러한 고마울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재워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그러나 한편 쪽으로는 가만
히 생각하니, 으시으시하게 또 어 귀신과 같은, ‘내가 이거 뭐 도깨비에 홀
린 건가, 이게 귀신한테 홀린 건가. 그러나 자기야 지금까지 해를 당한 게
아니고, 생전 보지 못했던 선녀와 같은 두 아가씨 앞에서, 그 아가씨들이 준
음식, 보지도 못 헌 진수성찬 음식은 마음껏 먹었겠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
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키는 대로 인제, 에 옆방에 가서 인제 옷을 훌
훌 벗고 어 거 목욕탕에 물을 따뜻하게 데운데 인제 거기 가서 몸을 씻고,
그러고 인제 몸을 씻고 나와서 자기 옷을 찾으려니 자기 옷이 없고, 그 옆에
하얀 명지 바지저고리 일십(일습; 한 벌)이 딱 놓여 있거든. 아 그래니,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옷 어디로 갔어요.”

그러더니, 인제 그 옥분이라는 아가씨가,

“아유 선비님! 옷은 저기다가 치웠습니다. 빨아서 지가 저거 헤드릴 거고,
에 아씨께서 선비님 내다 드리라고, 이걸 입고 안방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
니 이 옷으로 갈아 입으십쇼.”

허는 거야. 하 이제 정말 이유를 전혀 모르겠끔. 그러나 누구 명령이라고.
으 그대로 이냥,

“에라이 뭐 죽으나 사나 시키는 대로 하겠다.”

고 하고 그 옷을 입으니, 참 자기가 자기 얼굴을 으 상상을 해도 참 진짜
선비와 같은 그런 기분이거던(웃음). 이제 옷을 입고 에 건너방을 나오고. 안

방으로,

“에헬!”

기침을 하니께. 옥분이가,

“어서 들어 오라.”

고 그러더니, 이 이젠 문을 열어주고 이저 옥분이는, 에 그 아가씨가 에,

“저녁상을 차려 오너라.”

하니께는, 옥분이는 나가고 그러더니 그 이 그 아씨가, 그 주인 아씨되는 사람이 아랫목에다가 방석을 깔고 어,

“이제 그 선비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거야. 스 아 이게 영문을 모르겠으면서도, 무슨 나중이라도 영문을 알아야 되겠다는 저거도 시키는 대로 아랫목에 떡 앉아있는 거야. 아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큰 패자상에다가 그저 자기가 보지 못한 음식을 잔뜩 차려서 그지, 그 아씨하고 옥분이라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 아 그러니 거기 에 또 따뜻한 반주 한 잔까지 떡 따라 주거던. 아 이저 주인 아씨가.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서도, 이게 귀신한테 홀린 건 틀림없이 홀렸는데, 그러나 뭐 금방 죽어도 어 나한테 해꼬지를 안 해. 안 했기 때문에 ‘그저 먹고나 보자’ 하고 술을, 따뜻한 술 한 잔을 참 반주를 인자 들여마신 거야. 그러니 그 향기야말로 자기가 상상치 못한 그 술이라 말이야. 아 그래 그거는 서너 잔 따라주는 대로 마시고 나서,

“이제 고만 반주는 저기 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라.”

고 그래 인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상을 딱 인저 에 물리고 나서, 인제 그때에 에 주인 아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인저 에,

“여지껏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놀래셨겠지만, 어 선비님하고 우리 하고는 천생의 연분이야. 나는 오늘 선비님이 꼭 나타날 줄 알고 오늘 나탄, 그 산에서 나타나는 남자하고는 천생의 연분이니, 에 이제 제가 서방님으로 모실테니 저희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이거야. 아 이 과거를 아홉 번째 떨어진 놈이라, 열 번째 가도 떨어질 켜

틀림없는 거고. 또 살아 생전에 나이가 사십이 되도록 이러한 증말 참 훌륭한 집과 훌륭한 아가씨 밑에서 같이 산다는 것은 참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 이라. 그저 하자는 대로까지 하는 거라. 이 그날은 거기서 인저 에 서로 에 부부가, 이 부부의 인연을 맺고 나서 인자 그 이튿날 일어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여자가 하는 말이, 광에서 당나귀 한 필에다가 엽전을 잔뜩 실어주더니,

“요기서 어디로 가면은 한양이 가까워. 그러니 이 돈을 저녁 때 여섯 시 이 까지, 들어올 때까지 다 쓰고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에 좋은 일을 하든가 적선을 하든가, 술을 먹든가 그거는 게이치 않겠다. 그러니 한 푼이라도 냉겨 가지고 오면은 안 됩니다. 이거를 좋은데 쓰시면은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고 오시오.”

이거야. 아 그러니 생전 그러한 에 엽전은 구경도 못한 사람인데, 좋은 옷 에다가 당나귀에다가 엽전 으 그냥 달고 말이지 마음대로 쓰라니 얼마나 기 분이 좋아. 그랬더니 또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이 얘기를 약속을 아니 지킬 수 없고 이 인제 그렇게 그저 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돈을 주고, 또 거지들한테도 돈을 주고, 또 인저 돈 주다주다 인자 저기하면, 술도 먹고 싶으면 술도 먹고. 그러고 인제 시간 여섯 시쯤 되가지고 돈을 다 쓰고 빈 당나귀만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하기를 무려, 한 자기간에는 한 삼 개월 동안 한 거 같애. 그러디 그 하루는 불현듯이 자기 고향 생각이 난 거야. 처자 생각이 난 거야. 자기가 여기서 이 훌륭한 옷에 훌륭한 밥에 훌륭한 아가씨에 이렇게 꿈과 같이 사는데, 놀라지만서도 한 삼 개월 지나다보니, 아차 이 내가 과거 어 보러 이 한양으로 떠나고 나서 그 이 부인과 그 처자를, 이를테면 자기를 죽였는지 살었는지 모르니 내가 우리 고향에 간다 하면은 이 집 마나님이 그래도 여 에 몇 바리는 주겠지. 이를테면 당나귀 몇 바리는 엽전을 주겠지 하구선 인자, 그날 저녁에는 저녁상을 물리치고 나서 그 아낙에, 자기 부인보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과거보러 오는 도중, 이 오는 도중에 이렇게 되지 않았소. 그러나 지금 고향에 있는 처자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 예- 좀 갔다 오게 좀 해달라.”

고. 했더니 하 쾌히 승낙하고서,

“아이 그러실 것이라고 다녀오시라고 말이지. 궁금하실 거라.”

고. 하 그러면서 이제 쾌히 승낙을 하거던. 아 근데 야 참 자기가 생각한 바로 이제 내일쯤이면, 그 저 에 당나귀 에 몇 바리에다 말이지 잔뜩 엽전을 싣고, 인자 자기 고향에 그저 뗏뗏하게 가리라 이리고, 인저 어 욕심을 품고 인저 그 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인자 아침 밥상을 먹고 나서,

“인젠 가겠소.”

했더니,

“야, 옥분야!”

(웃음)그러더니,

“그 서방님 가신대니, 그 서방님 처음에 입고 왔던 그 옷 있잖니, 서방님 보고 갈아 입으라.”(웃음)

이거야. 하 이거 자기가 생각한 거 백팔십도 다른 얘기를 허거던. ‘아하, 이거 내가 괜히 그랬는가.’ 이렇게 에 후회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빨은 얘기니 실행을 해야 돼겠다.’ 하고. 그저 주는 대로, 옥분이가 주는 대로 자기 옷 입었던 거 벗어놓고, 옛날에 거 입고 온 옷을 입고 인자, 그러더니 겨우 돈 삼 푼을, 세 푼을 주더니,

“갔다 오시라.”

이거여. 하 세 푼 가지고 인저 가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제 무슨 낮으로 고향에 갈 것이냐 이거여. 첩피하기 그지없고, 자기 생각은 그래도 바리바리 당나귀에다 몇 바리 엽전을 싣고 갈 줄 알았던 것인데, 아 이거 몇 개월만에 떡 집에 갔는데, 돈 세 푼 가지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고향에 들어가자니 바삭 화가 나는, 지나가는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제 부끄럽기 그지없고 해서, 자기 고향에 직접 못 가고, 자기 고향으 인제 그 에 뒷동산에 인제 올라

가서 날이 어둑할 땀을 기다리고 인제 있는 거라.

그래 자기 뒷동산에서 혼자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자기 집이 자기가 살던 집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께 자기가 살던 집이 읍거던. 자기가 살던 집이 읍고, 그 자리에 고래당 같은 기와집이 떡 지어 있거던. ‘아하 이 우리 이 메느, 저 이 집 자기 마느라하고 아들딸이 결국 자기가 오지 않고 그러니께, 집을 팔고 팔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지가 되가지고 어디로 갔나 보다’ 하고, 저 누가 팔자 좋게 자기가 살던 터에다 저렇게 좋은 기와집을 짓고 사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그래 인제 날이 어두울 때까지 인제 기다리고 있는데, 때는 아마 예봄 춘3월이었던 모냥 같애. 게 으스스런 달밤애, 달이 인제 그 인제 환하지도 않고 좀 음 저기한 달밤애, 인제 어실렁어실렁 인제 걸었는대. 그 노적 그 마당애, 그 자기 집 옆애 그 노적가리가 있는데, 노적가리는 거저 지푸라기지. 이렇게 쌓았는데, 이놈이 얼른 거 가서 숨어있는 거라. 게. 만일에 자기 하고 막연한 사람이 지나가면, 이 그래도 물어보기라도 하고 인저.

그리고 그 얼결에 그 으 자기, 그 살던 그 집, 고래당같은 집의 문패를 보니, 아 자기 문패가 딱 붙어 있거든. 허 이 참 이 아마 이 똑같은 동인이 있는가 보다, 이제 자기가 아니고 자기와 이름이 같은 사람도 또 있나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제 그 에 이 이를테면 이 늦가래 그 안 속에서 인저, 예- 신신 한탄을 하면서 있는데. 그날따라 그 집이 인제 환하게 인제 불을 켜 났는데, 하 동네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거든. 게 들락날락 하는데 나가서 말이지, “내가 여겼소. 당신 우리 집이 어디 갔소. 우리 이 우리 집 사람이 어디로 가고, 우리 아들들이 어디 가서 살어.”

물어볼 수도 읍고. 인제 그러커구 있는데, 한 점 두 점 가다 이제 때는 아마 아홉 시쯤 났든 모냥이라. 아 그런데 누가 뒷, 으 그 울타리가 이렇게 났시면은, 뒷문이 있는데 뒷문을 열고 나와서, 어 달을 쳐다보고,

“아휴, 오늘은 틀림없이,”

에 자기 낭군을 부르면서 이,

“낭군님이 꼭 오셔야 헐텐데. 제삿날이 오늘인데 오늘 제삿날까지 잊어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목소리를 들은게 자기 부인 목소리거덩. 아 그런게 그 목소리에 이 익은 목소리가 들리길래 어디케 인제 야금야금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 인제 그 아낙네가 에 인제 이 달을 향해서, 에 하염없이 자기 낭군을 기다리는 그 혼자 중얼거리다가, 누가 거 지푸라기 속에서 저 꿈지락 꿈지락 하니까 깜짝 놀래서,

“아 거 누구요?”

한 거여. 아 그런게 인제 이 남자가 쫓아나가 가지고,

“아 여보! 당신 아무개 아니여?”

그랬더니. 아이 그 아낙네가 이 자기 뉘편을 보고,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아니 여보! 음 왔시면은 안으로 으 진작 들어올 것이지. 왜 이 노적가리 이 속에서 숨어 지냈느냐?”

이기야. 그리고,

“어서 들어가십시다 하고, 애들아! 아버님 여기 오셨다.”

하고, 큰소리를 치는 거라. 그러니 인제 아들들이 이 안체에 있다가,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우르르 인제 오더니, 아 자기 아버지가 에 거기 있거든.

“아유 아버지! 어서 들어가시자.”

고, 근테 이건 영문을 몰라. 무슨 영문을 몰라. 어떻게 된 영문을 몰르고 그저 끌려들어 간 거라. 이제 끌려 들어가서,

“아니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오?”

그런께.

“아, 오늘이 아버님 제삿날이 아닙니까?”

그께 당장 그냥 옷 갈아입고, 인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제사지내는 그 이제 시간이 다 됐단 말이여. 그래 우선 얼결에 제사는 지낸 거야. 제사를 지내고, 인제 안방에 떡 들어와서, 인제 에 제사상을 받고 나서 술 한 잔을

먹고 나서 연유를 물은 거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물은께.

“아니,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방님! 서방님이 과거 보러 가시고 며칠 후에 에 그냥, 에 돈이 몇 바리가 오고, 어 그냥 이 비단이 몇 바리 오고, 쌀 이 몇 바리 오고, 어 이거 서방님이 다 보낸 거라고 해서, 에 돈 가지고 이 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아 지금 자식들 다 호위호식 하게 논도, 잃었던 논도 어 몇 섬지기 다 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아 무슨 말씀이 쇼.”

이거야. 그때 무릎을 딱 치면서,

“아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그 으 집에 가겠다고 할 때에, 에 그 옷, 좋은 옷을 벗으라고 해구 자기가 입고 간 옷을 줄 적에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이그거든. 그리고 돈 세 푼 주길래, ‘세상에 에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인제 그러고 나서 자초지종을 자기 아낙네하고 아들들한테 딱 다 얘기를 한 거라.

“사실은 약하약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노라. 과거도 못 보고 내가 사실은 어디에서 그 아낙네하고 지금 살고 있노라.”

그 얘기를 들은 자식들과 그 부인이,

“세상에 그런 고마운 여자들이 어디겠느냐 이기야. 그러면 그 여자들에 지끔까지 단 그 둘이 사는데,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적절하게 생각하겠느냐고 이 길로 그 여자, 우리 걱정은 저, 우리는 이 재산 가지고 이제 이 아들딸 다 장성했겠다. 어 인저 이 아들딸 장개 들고 손녀나 보고 이 낙으로 살터니, 당신은 아무 걱정말고 에 그 아가씨들을 위해서 여생을 보내십시오.”

하구. 게 돌려보낸다 이그여. 그래서 이 사람이,

“옳타구나! 사실은 에- 당신네들의 말이 옳타.”

구. 하면서 그 길로 제사밥을 먹고, 그 길로 그 옷을 입고 인저, 예 또 인저 이 집으로 오는 거야. 오는 도중에 거진 다 왔는데, 아 별안간 몸이 피곤 하거든. 게 인제 잠깐 아 쉬어 간다고 허는데, 게 인제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서 인저 잠깐 쉬다는 것이 깜빡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자기가 보지 못한 자기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호호백발 노인네가,

“너 이놈! 지금 어딜 가는 거냐?”

이러고 호령을 하거든,

“나는 너의 할애비다.”

하면서. 아 이 생전보지도 못한 할아버지랑께 그저 그런가보다.

“아, 그 왜 그러십니까?”

하더니,

“너 이놈! 지금 가는 데가 어디어디 아니냐?”

이그여. 아이 알고 얘기 하거든. 그 아가씨들 둘이를,

“그 아가씨들은 사람이 아니고 지네다 이거야. 천년 묵은 지넨데, 너 이놈! 죽으러 가는 거다 이기여. 죽으러 가는 길인데, 내 말만 들으면 니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 내 말은 명심하고 들어라.”

이기여. 하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예- 호령을 하면서 명심하고 들으라니, 테이프 다 끊어진 겨(조사자에게) 이제 안 해? [조사자 : 아니 돼요]

“게 무슨 애깁니까?”

그랬더니.

“니가 가면은 우선 그 아가씨가 밥상을 차려올 거다. 밥상을 차려오되, 앉자마자 밥숟갈, 그 아가씨가 밥을 떠 줘서 너를 먹으라고 줄 것이다. 그러나 이거를 받아먹으면은 너는 죽어. 그러나 받아먹지 말아야 된다 이기야. 세 번 거절만 하면 너는 살고, 그 지네들은 죽는다 이기야. 그러니 내 말을 명심하라.”

이러고 아 그러고 나서 홀연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여. 아 이게 일장춘몽

이야. 이게 꿈여. ‘야, 참 꿈도 희안하다.’ 응 그런디 ‘희안하다 희안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집으로 간 거여. 자기 집을 갔는데, 아 아닌게 아니라 벌써 자기가 올 줄 았았는지 호롱불 들고 마중 나와 있는 거여. 게 인제 마중을 나온께,

“아 서방님! 이제 오시느냐!”

고 그냥 각뚱이 모시거든. 게 인제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을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났더니, 안방에다 떡 았았는데 밥상을 차려 왔거든. 아 그런 게 꿈에 자기 할아버지가, 아 이야기 한대로 그전엔 그러지 았았는데, 았자마자 밥숟갈을 들고 밥을 건네준다 이그여. 그런께 이제,

‘아차 인저, 내가 이걸 받아먹으면 내가 죽는다’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이걸 받아먹어야 옹겠느냐, 그렇지 았으면은 내가 죽어도 이 우리 집 식구들을 이렇게 살리고 이 은인되는 지내고 뭐고 간에, 은인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해야 옹겠느냐. 거기서 딱 생각하길 인간일 것 같으면은 에 은혜를 저바리면 안 된다.’

허고 그냥 주는 대로 덜커덕 이냥 받아먹은 거라.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자식들은 이 아가씨들이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께. 게 이냥 그 한 숟갈을 덜커 받아먹자마자 ‘우당탕탕’ 앞마당에 이냥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뭐가,

“짱!”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이거여. 그게 인제 또, 반면에 그 아가씨들은 얼굴들이 그 이 퍼렇고 저기 했던 얼굴들이 그냥 이 암색이 이냥 울긋불긋 하더니, 이냥 화색이 돌면서 기분 좋게 돌면서,

“서방님! 이제 살았습니다.”

이기여. 인제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서방님이 오실제, 서방님의 할아버지라고 허면서 선명예, ‘이 첫 숟갈을 받아먹지 말라’고 했죠.”

아 그랬단 말이여.

“사실은 첫 술갈을 안 받아먹었시면은, 으 에 자기가 죽고 지끔 우당탕하고 떨어진 저거는 인제 그 천년 묵은 에 이무기야. 이무기가 승천을 허고, 이제 서방님이 받아먹었기 땀에 서방님도 살고, 인제 우리 둘은 사실 천년 묵은 지네테, 우리는 승천한다 이기야. 그리고 서방님의 은혜를 뭇로 다 갚겠느냐.”

고 하면서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가 하늘로 승천을 할터니, 이제 남은 재산 다 가지고 고향에 가서 여생을 잘 보내시라.”

고 인제 그 날은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이제 그 으,

“어디 갔다 오시라고 보지 말라.”

고 그러거든. 아닌게 아니라 그냥 벨안간,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더니 이냥 그 으 이저 검은 구름이 또 짝. 서광이 그 마루에 비치더니, 그 마루에 애들이 천년 묵은 지네루, 인간이 인저 천년 묵은 지네루 변해 가지고서 하늘을 타고 승천을 헨거야. 승천 허구 나서, 그 집들은 난데 간데 없구 그냥 큰 바위 속이야, 이계. 그래서,

“아, 하 내가 일은 잘했나 보다.”

하구. 자기 고향에 갔더니, 자기 고향 그대로, 어 그 재산가지고 다들 잘 살거든. 에 이것이 에 좋은 아홉 번 과거보러, 아니 낙방한 사람이 열 번 과거 보러 갔다가 그래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 에 과거에 급제는 못 했으되, 에 이 하늘에서 도와준 적으루 이렇게 여생을 잘 보냈다는 이 애입니다. 끝.

7. 용이 승천한 굴암절

김재경(71, 남)/김량장동T 2뒤

[용인부동산] 박중수, 강현모, 이민정, 김경화, 김은용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전설에 대해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용인에 이동면 묵리에 가면은, 예 그 용주산가 있어요. 굴암절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용이 예 승천을 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 절 뒤에 가면 우물이 둘 있는데, 한 우물은 항상 물이 말랐고, 한 우물은 항상 물이 흐려. 그건 인제 용이, 한 눈이 멀은 용이 예 승천을 했기 때문에 인제 그렇다 이기야.

그래서 전해 오는 말에, 나도 거기 굴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거기에 예 ‘어린애, 예 아들 낳지 못하는 아낙네들은 거 굴을 빠져 나오면, 예 이제 아들을 갖는다’ 해 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그 이웃 아가씨, 저 여자들이, 아줌나들이 그 굴을 많이 빠져온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제 그런 일이 없지만은.

8. 김량장리의 유래(2)

방태서(62, 남)/김량장동T 3뒤

[별학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영, 신지연, 전선희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김량장동에 도착하여 이 곳의 민속과 생활풍속 및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그러다가 조사자가 지명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인데, 제보자는 이곳에서 몇 대째 살아온 사람으로 이장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선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신다. 4대가 한 집에 살고 5남매를 두었다고 하며, 여태껏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조사자 : 원래 여기 김랑장리에는, 아니 김랑장에는. {말을 자르고} 여기가 옛날에 김랑장리인데, 여기 김랑장리 전통이 뭐냐면, 이제 내도, 나도 들은 소린대.

여기가 옛날에 그 김랑장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김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이걸 앉히기 위해서 전장해서, 싸움을 해 가지고 이겨 가지고서, 뭐 힘이 장사였는지 이겨 가지고서 김랑장리를 만들었다는 거여.

그리고 우리 동네는 여기가 ‘별학’인데, 이름이. 지금은 뭐 ‘서구’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 이 동네가 별학인데, 지금도 다른 데 사람은 여기를 별학이라고 해, 여기를.

특별한 던데, 요 옆에 우물이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그 우물이 어떻게 좋은지, 겨울계 가면 물이 따뜻하고 여름엔 차가워서 발을 못 들여놓는 물이 있었어. 아주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 여기다 빌라 지어놓고 읊어 졌는데, 빌라 지어놓고 읊어 졌는데, 에 그걸 찢어 미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게, 그 우물에서 학이 날아가서 여기를 별학이라 이름을 졌다는 거여, 이 동네. 그 물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서든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난리 치면서 그렇게 했어.

그 물은 아주 좋았어. 아주 수질검사를 해도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좋은 물이었지. 그런데 그걸 죽여 났어요. [조사자 : 그래 왜 죽였어요?] 응? [조사자 : 집 때문예요? 너무 아깝다.] 아까워도 보통 아까운 게 아니야. 그건 순전히 돌이여. 그건 돌을 보통 저 큰 문짝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이 빨랫돌이 우리 저 신발장 두 배 나가게 컸던 돌이여. 이 동네 사람이 다 가서 빨래하고 했던 곳이지.

그리고 바가지 우물여, 그게. 암만 가물거나 비가 오거나 만날 고대로 여. 그렇게 좋은 물이여. 바위 속에서 나온 물이여. 아주 여름에는 뼈가 시려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겨울계는 빨래들, 다 동네 사람들 거기 가서 헐 거여. 그래서 거기 가서 학이 널러 가서 별학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여, 여기가. (웃음)

9. 해와 달이 소누이

방태서(62, 남)/김량장동T 3뒤

[별학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영, 신지연, 전선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집의 할머니께서 마련해 준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제보자의 할머니께서 호부상을 받은 것에 대해 들었다. 80살이 넘는 시어머니와 아들, 손자 4대가 살고 있는 집인데, 모두들 호심이 지극해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호부상을 받은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단편적인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조사자 :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하나 해 주세요.] 옛날 얘기는 뭐? [조사자 : 그냥 아시는 옛날 얘기.] 옛날 얘기라 뭐 있어. 노인네들한테 조금 옛날에 들은 얘기뿐이지 뭐.(우리들의 독촉에 못 이겨 해님달님 얘길 잠깐 꺼내셨다.)

그거 옛날에 뭐 떡장수가 뭐, 영 떡을 뭐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랭이가 서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얘길 했더니 하나를 줬대요. 아 이놈이 또 앞에 와서, 한 고갱 넘으면 또 그러고. 가다가다 나중에는 뭐 제(모두) 뺏기다 보니까, 이냥 몸뚱이까지 다 뺏겼다. 뭐 이런 그런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가 있지.(웃음)

10. 소금장수가 되어 장가간 사람

정난옥(62, 여)/김량장동T 3뒤

[별학, 슈퍼] 박종수, 강현모, 김은영, 신지연, 전선희 조사 (1995. 11. 4.)

이장님 댁에서 나와 도로 변에 있는 슈퍼에 들어갔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사람이 많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간신히 줄 락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손님 때문에 이야기에 집중을 못 하셨다. 충북 괴산이 고향이신 슈퍼 주인 할머니는 어렸을 때 친할머니한테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옛날에 꿈, 아주 어두운 산골에, 아주 깊은 산골에 살았는데 아주 너무나 가난해. 아주 너무 가난하다 못 해,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너무 가난해 가지구.

그이 떡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이 달구, 달구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마차가 달구지였거든. 달구지라고 그랬거든. 지금은 요즘 것 마차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그거 달구지라고 했다고.

그래 달구, 달구지에 인제 어느 인제 한 사람이 마차 달구지에다가 인자 뭘 잔뜩 싣고 오드래. 그래서 그게 뭐냐 하고,

“그게 뭐요?”

그러니까,

“소금이라.”

고 그러드래 응 그래서,

“그 소금이 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촌에서는 소금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 인제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인제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인제 배추 같은 걸 이렇게 절여서 간장도 내먹고,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걸 담구는 걸 그런 걸 현다.”

구. 인제 그런 거야. 인제 그거서 그랬, 그러구 했어. 그러니까는 인제 이 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 회한하단 말이지. 그 듣두 보두 못한 그 저거를 하니까는.

“그럼 이거를 우리를 주면 안 됩니까?”

했더니.

“나도 이걸 팔아서, 해서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이거를 허는 거라.”

고 하니까.

“그럼, 이 촌에 여길 뭘 보고 이것을 들어 왔냐?”

고 하니까.

“길이 한없이, 한없이 인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게는 되었다.”

고 인자 그런 거야. 그 할아버지가 인제 그래 가지구 인제 마을이 얼마
 읍어. 그래 가지구 거기서 인제 하룻밤 인제 그것 소금 달구지 그걸 놔두고
 인제 자게 됐어. 근데 이 집 인제 그 할아버지가,

“아주 밤에 저걸 훔쳐와야 되는데,”

그걸 훔쳐올 수가 읍어. 내가 훔쳐 오면 저 사람이 이걸 못 팔아 먹구. 또
 내가 그걸 훔쳐 와야, 내가 또 그걸 어떻게 이용을 좀 해서, 이렇게 좀 옛날
 에는 이렇게 지게에다 이렇게 향아리같이 생긴 디다가 등짐을 지구 땡기면
 서 그 소금을 팔았다구. 지금 모양 이렇게 허지를 앓구.

그래고 했는데, 이걸 다 잊어먹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일동 웃음)
 그래 그러구 했는데, 이제 그걸로 훔칠 수가 읍어서 인제 밤새도록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거야, 인제. 그래 인제 그 사람 인제 꺾 때까지 있다가도 있을
 수도 읍고, 안 꺾 때까지 있을 수도 읍고. 그래 훔치기는 훔쳐야 하는데, 못
 훔치고 밤새도록 지키다 보니까 날이 섰어. 이 양반이 인제 밥을 얻으러 왔
 어.

“밥 한 술만 달라.”

고 그래서,

“밥 한 술 줄께, 그 소금 좀 달라.”고.

“그럼, 그러마.”

하구서. 그래서는 밥하고 소금하고 인제 바꿨어. 인제 바꾸고 인제 이 양
 반은 그 달구지틀, 또 그 이튿날 밥을 얻어먹고 또 오게 먼 길을 가고 이제

이렇게 소금을 붙였는데, 생소금을 먹어 보니까 짹짹하고 짹짹하고 그냥 이상하던 말이야.

그래서 인제 그거를 도루 이고, 마 달구지 마 바퀴를 따라서 인제 한없이 쫓아가는데, 이 달구지가 빠르잖아, 길이. 그런게 한없이 쫓아가다 쫓아가다 인제 삼 일을 쫓아가다 인자 아마 발견을 됐나 봐. 그랬는데 이 개울에 이렇게 인제 돌다리를 건너가다가, 이 마차가 그 달구지가 이렇게 넘어져, 넘어져 가지구서는 인제, 이렇게 인제 소하고 그 넘어져 가지고 그러구 이냥 있드래.

그래서 인제 이 양반이 가서 그걸 일으키고, 인제 이렇게 있는데, 소금이 반은 젖었지 뭐. 그 개울이니깐 반은 젖어. 젖어 가지고 있는데, 다시 깨워 가지고 인제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는 아 소금이 다 많이 젖었으니까 많이 녹았잖아.

“이거를 녹았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 그냥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양반은, 그 양반을 쫓아가서 했는데, 그제 인연이 되어 가지고는, 인연이 돼 가지고 둘이 소금장수를 허러 다니게 됐어, 둘이. 소금장수를 둘이 다니게 됐는데, 어느 깊은 산 속에 가다 보니까는 아가씨가 혼자 있드래. 아주 그냥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거기서 인제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이 아가씨를 서로 그러니까 뭐 뭐라고 그럴까. 장가도 못 가고 있던 거야.

그러니깐 나이가 많았어도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인제 그 아가씨를 서로 노리고 있는 거야. 이 아가씨가 보니까는 인제 자기도 산골에서 혼자 있을 수가 읊잖아. 그래서 있을 수가 읊으니까,

“따라 가겠다.”

고. 아마 그랬나 봐. 아마 그래 ‘따라 가겠다’고 그래서 인제 따라 가 가지고서 논, 인제 어느, 어느 마을로 가 가지고는 이이 징을, 지금으로 말하면 강간의 징 범해가지고 인제 남산같이 불러 가지고, 인제 그냥 그걸 끌고 돌아 멩기다, 멩기다 어느 이 그러니깐 뭐라고 할까, 방앗간, 이렇게 디딜방아,

이렇게 디달방아, 방앗간이 있는디 거기서 인제 애를 낳게 됐어, 인제. 그래 애를 낳는데, 그 애를 그 인제 달구지에다 싣고, 하나는 엄마는 거기 싣고, 그 할아버지는 인제 이렇게 참 끌고 가면서, 인제 그랬는디, 인제 고걸, 고것 백이 생각이 안 나네.

[조사자 : 끝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끝에는 그 애하고 그 엄마하고 이제 달구지에 싣고 가고 그러면서 인제 그 얘기까지 나도 못 들었어, 우리 할머니한테.

11. 시집살이

손영월(86, 여)/김량장동T 4왕

[중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장소를 옮겨 중구 노인정으로 옮겼다. 이곳에는 다른 팀이 조사하고 있어 그 팀과 함께 조사를 하였다. 그래서 옆의 할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설화를 제보를 받게 되었다. 대전서 왔다는 말에 너무 멀어서 왔으며 신경을 써 주었다. 한쪽에서 이야기판을 벌려 제보자가 이야기판을 장악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시집살이를 말하며 오늘날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구술한 것으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라도 서사성을 갖고 있어 기록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9대를 살았어. 지금은 용인읍이지만 옛날에는 용인군이었어. [조사자 : 할머니, 그럼 옛날 시집살이하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이구! 말도 말아. 옛날엔 시어머니가 어찌나 시집살이를 시키던지. 난 깨를 볶다가 깨 태워 놓고 쫓겨날 뻔했어. 지금 같으면 깨가 타면 기름이나 짜지.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

“깨도 못 볶고 데려 왔다.”

고 시어머니가 중문 밖에다가 소리소리 질르구. 시집살이가 그러지 뭐. [조사자 : 언제 시집오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열여덟에 시집 오셨대는데.] 그래. 그때는 다 그랬지. 옛날에는 가문 바래구 사느라구. 가마 타고 구십 리 왔는데, 팔당땀이 친정인데 구십 리 왔어. 마을 안에 들어오니까 저 십 리 밖에 햇불이 나오더라고.

[조사자 : 햇불이요?] 어! 어두우니까. 아 그땐 전기가 나 시집을 때 전기가 없었어. 나 오년(은 해)에 우리 사촌 시아버지이가 전기 설비를 한다고 하면서 오백 석 추수하는 땅을 팔아 가지고 전기설비는 안하고 일본에 도망갔어. 일본에 갔는데 3년 만에 나왔는데 연장을 얻어 가지고 살았지 뭐야? 요런 통하고 전기갓이고 나오더라고. 다 그냥 계산 철폐하고 다 버리고 그냥 와서 돈만 내버리고 왔지. 나 시집은 후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우리 전기 들어오기 전에 석유 켜지.

12. 도깨비가 된 빛자루(17)

손영월(86, 여)/김량장동T 4앞

[중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에 대해 자식의 대우에 회한을 말하며, 한편으로 부모에 효도하라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시집왔을 때의 혼속에 대해 말씀한 뒤에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요기 동그란 산이 있어. 일본 정치 때 산이 있는데 도깨비가 자꾸 쫓아 오더라. 불이 있거든, 도깨비 불.

그 놈을 때려 잡으려고 하니까, 때려 잡으려고 보니까 그 이튿날 허리띠

를 끌어. 어떤 영감 그놈 도깨비를 소낭구에 묶어 놓고 갔다. [조사자 : 쫓아가는 걸요?] 그래서 인제 그 이튿날 아침에 나와 보니까 싸리 빗자루래. 싸리 빗자루.

거기에 피가 묻으면 그렇데야. 근데 저 놈의 도깨비가 있겠지. 하곤 이 집에 와보니까 거기 낭계가 나무에가, 소낭개가 싸리 빗자루를 좁매 났데. [조사자 : 아 싸리 빗자루가 도깨비인가 봐요?] 그래. 그 자꾸 앞을 막으니까, 그 늑은이 가는 길에 이런 빨건 불이 자주 막으니까, 그 놈을 냐매, 그 놈도 억지. 그 놈을 잡아 가지고 소나무에다 좁매 났구 아침에 와보니까 싸리빗자루래.(웃음)

13. 넓적바위

이흥순(85, 여)/김량장동T 4앞

[중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어떤 앤 길 가는데 흰하더래. 자꾸 가보니까 마당 마루가 넓적하고 좋더라. 그래 객쳐 영감이 나왔는데,

“아이구! 여기서 잤으면 좋겠다.”

“어이! 생각 잘 했수, 게서 한 번 자구 가우.”

그래서 거기서 잤다는 거지. 두러너(들어 누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바윗돌이더라. 마루가 아니고 그것 바윗돌이 되는 거야, 그게.(웃음)

14. 김량장리의 유래(3)

주원희(45, 여)/김량장동T 4앞

[서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한 노인정에서 다른 팀과 같이 조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중구 노인정을 나왔다. 점심시간 되어 조사자인 최영수의 공신빌라의 집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곳의 유래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여기가 김량장리잖아,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근데 왜 김량장리냐 하면 옛날에 김양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이야 김양장.

근데 굉장히 효심이 강했대. [조사자 : 그 사람이?] 그래 갖구 그 사람을 기리는 뜻에서 동네 부락 이름을 김량장리로 했다. 원래 김양장리인데 거 바뀌는 그 있잖아? 이름, 그래서 김량장리가 됐대.

15. 김량장리의 유래(4)

제보자1(80, 남)/김량장동T 4뒤

[서구 시장내]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최영수의 집을 나와 앞에 있는 시장을 지나다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있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곳의 지명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였다.

여긴 김량장리여. 왜냐면는 음 그게 말여,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상업하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량이더라.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곳 사람한테 장사하려고 장을 열었다. 영 그러니까 김량이 장을 열었으니 여기가 김량장리지 뭐여.

16. 천슈 이씨의 유래

김성재(80, 남)/김량장동T 5앞

[서구 노인회] 박중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시장에서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서구의 노인 회를 찾아갔다. 노인회에는 여러 분의 할아버지들이 담소와 화투치기로 시골 벽적 하였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 이야기 판을 형성하여 주었다.

자네들 한국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알아? 조선, 조선이? [조사자 : (한글 을 성립한 걸로 잘못 듣고) 세종대왕님께.] 세종대왕, 아니 세종대왕은 그제 세종대왕이 세운 게 아니고. 그건 글을 학문을 깨어나시니까 세종대왕이 세 운 거라 그러지? 조선을 어떻게 공민왕에서 이렇게 바뀌친게 어떻게 바뀌졌 는지 알아?

[조사자 : 아니요 저희는 모르죠] 모르지? 그럼 역사 선생님이 뭘 가르친 거여. 지금 응, 역사 선생이 뭘 가르쳐. 공민왕에서, [청중 : 그 질문을 하지 말고] 이씨 조선이, 공민왕이지 개성 도움이 됐어. 공민왕 왕씨, 왕씨 도움이 지. 자네 통두란이라고 아냐? 중국에. [조사자 : 네?] 통두란이라고? [조사자 : 통두라 아니예요? 무슨 족 이름 아니예요?] 아니야. 아냐 사람 이름이 지.(기침을 크게 하고선) 공민왕 적에 어떻게나 부패해졌어. 그때는 양반이 담배대 이렇게 물구서,

“저기서부터 저거 우리 땅이다.”

하면. 그 땅이 되여. 양반이라서 상놈들은 얼신도 못 혀. 상놈들이 항의했다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상투를 어찌 매달르느고 하니 대추나무 가지당, 두들겨 패여. 그러니까 능지처참이 되서 땅 뺏끼고 그냥 오는 거여. 할 수 없어.

그때는 이제 누가 제일 양반이나구 하며는, 임씨하구 지씨하고 한 성을 내가 잊어버렸다. 그 세 사람이 양반이여, 아주 양반이여. 시방으로 말하면 노태우나 전두환이나 김영삼이 같은 말만하면 그만인 거, 이게 그렇게 부패했으니까.

중국서 통두란이가 한국을 먹으려 나왔어. 이거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나와서 그전에 천기지, 천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씨 이성계 있잖아? 태조대왕, 응. 태조대왕 알지? 그 이가 위인이여. 통두란두 활을 잘 쏘고, 쏘는데 그게 날아가는 기러기의 왼 눈깔을 쏘라면 왼눈 깔을 쏘. 걸 맞춰. 바른 눈 깔이라면 바른 눈깔을 쏘. 그러니까 재주가 둘이 비등해여.

이거 통두란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성계를 죽여야 왕이 될텐데, 이성계를 죽여야 할텐데, 왕이 될텐데 이성계를 죽일 도리가 없어. 그래 죽일라구 백두산에 올라갔어, 백두산을. 장수들이니까 화살을, 활 화살 뒤에 차고 대니고, 그래 말을 수행원 데리고 대니지, 말을 타고선. 말을 타고 푹푹푹 백두산을 올라가다 중간머리에 이성계가 뒤가 마려워. 똥이 마렵단 말여? 그래 똥을 누려 저기 저 가 가지고선 이제. 바위 뒤에서 뒤를 까구선 이젠 뒤를 보는데, 통두란이가,

“옳다. 이게 기회다.”

라구선 활시위를 한껏 땡겨 가지구선 딱 쏘단 말여? 딱 쏘더니 그 죽을 판이지, 죽지 뭐. 이성계가 뒤를 보다 말고 화살을 탁 잡았어. 그러니까 통두란이가,

“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성계 보구,

“형님!”

이라구. 그래구 그 통두란이 자손이 천유 이씨여. 이건 실담이야. 천유 이씨 여기 있어? 천유 이씨가. 그래서 그 통두란이 하구 이성계가 같이 합작을 해 가지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구 이성계가 왕이 되고. 그 후 얘기를 하면 한 나절 해야 되니까 내가 기운이 없어 못 해야. 고것만 알면 되어. 이건 실담이여.

[조사자 : 그 통두란이란 사람이?] 중국 사람이. 오랑캐여 오랑캐. [조사자 : 그럼 넘어와서.] 넘어 왔지. 그렇지. [조사자 : 그 사람 벼슬 같은 거 안 했어요?] 벼슬 같은 거 왜 했지. 나중에 이제, 이씨 조선이 되어 가지구선 이성계가 시켰지. [조사자 : 어느 정도 위치?] 아이 우의정도 시키고 좌의정도 시키고 그랬지. 통두란이 자손이 지금도 살어, 그것만 해 가지고, 관 뒤.

17. 이성계의 현판과 양친 러씨 유래

김성재(80, 남)/김량장동T 5앞

[종친회실]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였으나 듣기가 어려웠다.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계속 질문이 있자 이성계의 글씨를 보여준다고 하여 5분 정도 떨어진 가락 김씨 종친회 사무실로 옮겨 커다란 현판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조사자 : 할아버님은 이거 어떻게 장만하시게 되었어요?] 어어, 이건 저기 있는 데가 있어. [조사자 : 가보예요?] 가보지. 아! 이거 지방 원본은 지방 갖다 팔어두 한 일 억은 더 받을 꺼여? [조사자 : 여기에 사연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얘기해 준 거잖아? 옛날 양반이 가주고 있는 거지. 옛날 양반이

내용은 거야.(사진을 찍음. 제보자는 감기에 걸려 기침을 자주 하지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심.)

태조대왕이 조선을, 이 쿠데타, 시방 말이 쿠데타여. 북벌을 치러 가려고 할 적에, 오랑캐를 치러 가라고 했더니 이 오랑캐를 안 치구서 뒤를 쳤어. 그게 역사에 나오지? 그거 나오지. 뒤쳤지. 응. 그래 응 그건 아는 구만.

뒤쳤는데, 그거 뒤치게를 어떻게 뒤 쳤느냐면 말이야? 어이 김수로왕 있지? 김수로왕. 김해 김씨는 김수로왕. 알아 들어? 김수로왕 부인이 누구여? 성이 뭐여? 허씨여 허씨. 인도에서 온 허씨여. 허씨인데, 김수로왕이 아들이 여러 형제여. 근데 어머니가 돌아갈 적에 유언을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아버지 살아, 살 적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성, 내 성을 따르게 해 달라.”

고. 해서 허씨를 따랐어. 시방 허씨가 수로왕 부인의 성이여. 어머니 성은 허씨의, 수로왕은 김해 김가는 남편의 성이구. 원 줄거리구, 부인의 줄거리가 이제 허씨이지. 허씨. 김해 허씨, 이천 이씨 그게 다 한 줄거리인데.(탁자를 두드리면서 강조하듯 말씀.) 김수로왕이 어머니 성을 따른 허씨를 어디로, 사패지(나라에서 내려 준 땅을 일컬음)가 뭐 줄 아나? 사패지지? [조사자 : 모르는데요?] 사패지지라는 것은 이렇게 용인군은 여기도 이게 이씨의 탄원자 쓰는 사패지지여, 여가. 용인군을 하사를 해, 나라에서.

“이건 네 땅이다. 네 구역.”

게 여기가선 전부 추수도 얻어먹고 사패지지란 게 그거여. 사패지지. 그 어머니 성은 따라 가지고 어디를 사패지를 주고 하니 시방 김포, 김포 몰라? 그때가 김포 이름이 뭐고 하니,(기억이 나지 않아 뒤로 몸을 한 번 제친 후 다시 말씀함) 양천! 양천이 시방 김포여. 김포평야라는 데는 엄청 넓어. 거기를 사패지를 이렇게 줬는데, 그때 시절엔 시방같이 그렇게 썩지도 않고, 김수로왕이 진짜 민주주의를 부르면서 거 참! 아주 잘한 양반이여. 몇대는지 내두 잉! 이젠 삼국을 통합한 사람이 김유신장군이시? 그때가 기어.

근데(기침을 다시 크게 함) 그 아래지. 시방 양천, 양천으로 사패지를 딱

지내 가지구. 쿠데타가 딱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양천 허씨 그 양반이 이성계하고 친해여. 원체, 그게 이성계가 양천 허씨 그 양반 보구,

“양천 허씨 당신이 이번엔 당신이 쿠데타로서 당신이 왕을 해라.”

그래니까, 허씨 얘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내가 활을 쏘 줄 아니? 군사를 경영할 줄 아니? 싸움을 할 줄 아니? 그러니까 니가 해라.”

그래서 서로 ‘니가 해라’ ‘니가 해라’ 니가 해라 그러다가 이성계가 말았어.

“그럼, 내가 나가야.”

게. 이제 김수로왕의 허씨가 양천을 이렇게 점령해 사패지지를 쓸 적에, 이 양반이 와서 추수를 해서 안 내가주 가. 그냥 자기 먹구 다 해 먹으래. 그땐 그렇게 인심이 좋구 참, 했었어.

“내가 필요할 때는, 청구할 때는 좀 다오”

그래구 언약을 하길래, 몇 십 년을 그냥 해 먹었어. 그대 백성들은 좋다구 했지. 사패지지도 안 하구 그 뒤나니까, 허씨 얘기가 작인들을 모아놓고,

“내가 돈이 필요하니. 그땐 쌀이 돈이지. 쌀을, 너희 농사지를 만큼만 내 놓고 나머진 다 다오. 농사지를 만큼만. 그러니까 식량하구 농사를 다 지어 먹구 나머지만을 내라.”

이거여. 게 그거를 모으기 시작했던 말여. 일년 모아 가지구 전장을 하자면 칼도 만들구 쇠도끼도 치구 별걸 다 만들어야 하지 않아? 사람들 죽이는 걸 만들테니까. 그 3년을 그렇게 모아 가지구, 3년 동안 도구를 만들었어. 팬 들어 가지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구 쿠데타를 성공했던 말여.

그래 시방, 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느디, 성공을 했으니까 통두란이랑 형제를 맺어 가지구면 같이 쳤단 말야. 그대 이씨를 천유 이씨가 여기도 많이 살어. 그 사람 보구,

“너희들 조상이 누구냐?” 하면

“통두란이라.”

고 그려. 이걸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래 그걸 치어 가지구선, 이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구선 성공을 했으니까. 태조대왕이 허씨 보구,

“너희는 우리하구 사촌간이다. 남이 아니다.”

이말여. 그래서 외자 이름을 지은 것 양천 허씨여. 그러니까 알아 들어? 김해 허씨는 세자 이름, 외자 이름은 양천 허씨여. 거기두, 학생들두 양천 허씨도 있을 테지? 한자 이름이 있으테지. 시방두 한국두 말여, 옛날두 말여 죽 내려오면서 ‘이근희’ 원 원족은 외자 이름이여. 옛날엔 외자 이름은 못 지었어. 왕족이래야 외자 이름.

그래서 양천 허씨가 조선조 오백 년에 벼슬을 정승판사를 아흔 넷을 했어. 응. 전주 이씨보다 양천 허씨가 더 많이 해 먹었어. 그 아래 벼슬을 얘기할 것두 없구. 그래서 이젠 이게 그렇게 된 사정이지. 난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자세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도 목이 아파 못 해. 외자 이름은 양천 허씨, 두자 이름은 김해 김씨, 이천 이씨두, 가락이니까 가락 김씨라 그러지. 가락 김. 그렇게 통두란이가 여기 부패했으니까 그렇게 먹으려 와서 천유 이씨가 되고 그렇게 된 거여.

18. 대원군과 김병기의 지략

김성재(80, 남)/김량장동T 5앞

[종친회실]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가락 김씨 종친회 사무실에서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이야기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조씨 시대 때에 어느 성이 왕성했나? 노론소론 할 적에 안동 김씨가 왕성했어. 칠십 몇 년을 했지. 그건 알지. 응.

그랬는데 칠십 몇 년 할 동안에 나중에 다시 돌릴을 직에 대원군, 대원군 대감이 안동 김씨를 물리쳤지. 대원군 대감이 조대비아구 대원군 대감하구. 그 때 대원 대감이 음모들을 하는 거지.

안동 김씨에,(잠시 생각) 말하자면 수자지 김병기. 김병기를, 시방이나 그 때나 똑 같어. 김병기가 상감 만조백관제 먹었던 말여. 만조백관이 제 모여서 상을 차려서 노는데, 대원 대감이 이제 음모를 잡을라구 국수를 먹다가 국수를 먹는데 요강에다 토해 버렸어.

그럼 김병기가 청해 가지구선 독약을 넣어서 죽였거든, 김병기 책임이지. 상병은 그건 누구 책임이지 받아야지. 그러니까 김병기가 대강 저기다 토하는 걸 보구선, 요강에다 토했으니까 그걸 자기가 그걸 다 들여 마셨어. 그러니까 만약에 독약을 탔으면 자기두 죽을 테니까 안 죽었잖아. 그래서 옛날에 지혜 있는 양반들은 전부 참 그렇게 오묘하구 모략하구. 옛날에 그랴.

19. 제사 때 밤 대추 감을 꼭 올리는 이유

김성재(80, 남)/김량장동T 5앞

[종친회실]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가락 김씨 종친회 사무실에서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조사자에게 ‘제사 때 밤, 대추, 감을 놓는데 왜 놓나’하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전주 이씨 할아버지 글씨 처음 보았겠네! 제사 지내지? 밤 놓지 대추 놓지, 감 놓지. 그거 왜 놓나? [조사자 :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귀신 쫓는 것 아녜요?] 밤은 왜 놓나? 왜 그런지 모르지? [조사자 : 아! 붉은 색하고 관련되는 것 아녜요?] 그러게 이것은 반드시 알아 놔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양반 자손 행세를 못 하는 거야.(잠시 생각을 가다듬느라고 눈을 감음) 밤나무를 심어서 이식하는 것을 자네들은 아냐? [조사자 : 밤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것 말입니까?] (고개를 끄떡이며) 응, 응! [조사자 :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속은 잘 모르는구나!

밤나무는 밤을 심어 가지고(손으로 행동을 하며) 잎이 자라면 그 나무를 파가지구 딱 데다 쟁겨 심어야 밤이 열어. 그런데 밤이 이렇게 있으면,(책상에다 그리면서) 요놈이 요렇게 자라 가지구설나무네 한 이테(2년)가 되면 요만큼 자라구서, 이 밤이 부랄이 안 떨어져. [조사자 : 뿌리가 안 떨어져요?] 응, 뿌리에 붙은게 안 떨어지는데, 그거를 딱 데로 이식을 해 가지고서, 심어 가지고 자라야 밤송이가 열려야. 그 뿌리가 떨어져.(책상을 치며) [조사자 : 예전에 심었던 밤이요?] 그렇지. 원 종자가 떨어진다 이 말여.(잠시 말을 멈춤) 그래서 밤 놓는 것은 결혼해서 아들딸 낳라고 밤 놓는 거고, 원 취지가 그거고.

또 대추는 뭐냐? 대추는 씨가 하나인가 둘인가? [조사자 : 하나요.] 하나지. 감은 다섯도 있고 셋도 있고 둘도 있고 그렇지?. 대추는, 왕이 하나지 둘은 아니잖아. 조상도 하나지. 한국에도 대통령이 하나지 둘은 아니잖아. 그래 대추를 쓰는 거야. 알아 들어? 그래 이것이 덮어놓고 그냥 대추 놓고, 밤 놓고 그냥 또 감은 대여섯이니까, 그래서 밤은 그래서 놓고, 대추는 그래서 놓는 거여.

그러니까 제사지낼 때는 밤은 어떻게 놓고, 대추는 어떻게 놓고, 감은 어떻게 놓고 감은 씨가 여럿이니까,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여. 여기에 들어가는 더 있는데 죄다 잊어먹었어. 아마도 자네들 선생들도 모를 거여. ‘선생님 밤은 왜 놓습니까? 대추는 왜 놓습니까?’ 물어 봐. 밤은 언제든지 시집 장가를 가고서 자식을 낳야, 밤 부랄이 떨어지단 말이여. 인제 자손을 낳았으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 건 옛날에 사적에도 있어. 됐어 그만해. [조사자 : 아니, 제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일 놓는 것은 왜 홀수 개로 놓는다고 하나요?] 응! 흥동백서라는

거지. 붉은 거는 동쪽에 놓고 하얀 것은 서쪽에 놓는다는 거지. 배도 하얗니까 서쪽에 놓고 밤도 그렇고(책상을 두드리며) 사과를 이리로 놓고 감도 여기 놓고(책상의 오른쪽을 가리키며) 집안마다 다 다른 거야. 근데 대부분 흥동백서를 따르지. 근데 또 딴 집안은 다르게 놓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집안 지내는 대로하는 거야.

20. 한석봉의 글씨가 유명해진 이유

김성재(80, 남)/김량장동T 5뒤

[종친회실]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조사(1995. 11. 4.)

가락 김씨 종친회 사무실에서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서 원산면 맹리 허석 양천 이씨지. 여간 사람은 보여 주질 않아. [조사자 : 이것도 자료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문집 같은 것.] 많지. 거기 대전 교수들은 이런 거 보지도 못했을 거야.(액자의 태조 글씨를 가리키며)

줄을 안 그었어도 쪽쪽 자리가 맞잖아? 아주 그냥 균일하게 썼어. 배울게 많지. 또 자네들 죽지 봤나? [조사자 : 대나무 그런 거 아녜요?] 말하자면 대나무지. [조사자 : 얘기만 들었는데요.] 지금의 이런 종이보다 두껍지. [조사자 : 아, 예.] 근데 지금 설명해도 몰라. 죽지들 몰라면,(잠시 생각함) 원효대사 사령장(교지)에 있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 죽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맑지가 않아.(종이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허석 씨네 가보면 죽지에 쓴 것이 있어. [조사자 : 그 분 주소 좀 알 수 있을 까요?] 원산면 맹리, 거기에 갈려면 그냥 가면 안 보여 줘. [조사자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전화를 해주던지 나와 같이 가야 돼.

그냥 가면 잘 안 보여 줘. 훔쳐 가면 안 되거든. 그것을 간수할려고 지하실을 만들었어.

거기 가면 한석봉 글씨, 한석봉이 글씨는 썩 잘 썼지만, 그때 썩 잘 쓴 글씨는 아니란 말야. 왜냐하면 어느 대왕 때 하도 한문을 초서로 써서 무슨 자인지 몰라서,

“왕이 정자로 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한석봉이가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석봉이 글씨가 유명한 거야. 됐어?

21. 도깨비가 된 빗자루(2)

박철종(75, 남)/김량장동T 5뒤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가락종친회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서구 노인회로 장소를 옮겼다. 그래서 구면인 할아버지들께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판을 형성하여 주었다.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사람이 말야, 시장에 삼투재, 삼투재에 가서 아주 술을 잘 먹어. 매일 술을 먹고 주정을 하고 개판을 잘 쳐, 동네에서. 아, 그래서 장이 옛날엔 보통 20리 30리 가야 돼지 고기 한 근이라도 사 와.

야! 그래 시장에 가설라무네 이놈의 고등어를 하나 사 가지고 떡 하니 오는데, 오밤중에 술을 잔뜩 먹고 시골길을 오는데, 개울을 건너서 토끼 길같은 데로 술술 오는데 도깨비들이 말야 앞으로 쪽 가고 있거든.

야! 이놈이 참 겁이 나거든. ‘요놈의 도깨비가 무어냐? 내가 요놈의 도깨

비를 오늘 한 번 잡아보자.’ 하거든. 가만히 덩불 밑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아 도깨비가,

“야! 여기 술 취한 놈이 있다.” 고.

“으쌔, 으쌔.”

달겨 들어 막 묶으라고, 잡으라고 하더라. 이 사람이 가만히 술이 얼적저 근히 췌는데, 허리띠를 풀러 가지고선 한 놈을 꼭 잡았던 말야, 도깨비를. 그러구선,

“요놈!”

하고선, 나무가 하나 큰 게 있길래 거기다가 허리띠를 칭칭 동여매는 거야.(무엇인가 묶는 행동을 하며) 아주 꼭 묶어 놓고선,

“요놈 잡았다.”

뒤척거리면서 올라 왔는데, 도깨비들이 지랄을 하는 거야. 지랄을 하거나 말거나 실실 집에 왔어.

“야! 큰일 났어. 도깨비와 지금까지 도깨비와 싸우고 왔다.”

고.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했어. 마누라가 다리를 보니까, 어디를 돌아 댕겼는지 온 몸에 진흙과 나무에 끈히고 신발과 옷이 엉망이야. 그것이 진짜 도깨비야.(웃음)

날이 다 밝은 다음에 밥을 한 숟갈 먹고 덩불 밑에를 가 본 거야. 허리띠로 도깨비를 묶어 놔는데, 하도 이상하니까 한 오리 되는데 덩불 속을 찾아간 거야. 근데 술김에도 아니깐 갔지. 쓱 가서 보니까 빗자루를 매 놔터란 말야. [조사자 : 그럼, 그게 도깨비예요?] 그렇지.

그럼 빗자루가 왜 도깨비가 되는지 아어? 사람의 피만 묻으면 빗자루가 도깨비가 되는 거고. 도깨비, 꼭지 부러진 것이 빗질만 하면 그것이 도깨비가 되고, 빗자루가 도깨비가 된 거야. 그래서 빗자루가 어디서 피가 묻었든지, 조화를 부려서. 그래 가보니까 빗자를 엮어 매 놓았더라. 그래서 도깨비를 잡았다고 한 거야. (웃음)

22. 호랑이 불

장종성(77, 남)/김량장동T 5뒤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신이한 점
에서 같아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국이 밝아서 그런 것이 없지. 다 옛날 이야기지. 나도 봤
어. 도깨비불 말고 호랑이 불을. [조사자 : 호랑이 불이요?]

한 5리 되는데, 어떻게 비가 퍼붓고, 아버지가 그때 노인네가 되가지고 병
을 앓아서. 눈 물꼬를 터 놔야겠는데 아버지 못 가고, 그래서 내가 갔는데.
막 물꼬를 틀어막는데 시퍼런 불이 번쩍번쩍하는 거야

“아이 어머니! 내가 앞에 갈래. 뒤에 무엇인가가 쫓아 와.”

그 놈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 집 문 앞까지 비추어 주더라
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행동을 취하며) 발자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23. 삼밭에 괴 들었다의 유래

박철종(75, 남)/김량장동T 5뒤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생각이 났는지 제보자가 나서 이야기를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장가를 가야 될텐데, 예전에는 15살이면 노총각이야. [청중 : 아이고.] 그냥 겹사겹사로 맹일(명절) 때 선을 보기로 했는데, 입던 옷을 바로 빨아 가지고, 지금은 짚순이나 있고 세탁기도 있지만, 전에는 개천에다 손으로 비벼 빨아 가지고서 옷을 했는데, 내일이 초하루인데 그냥 급사리 빨아 가지고 뭘 입고 있어야 할 것 아냐?

그래 입을 것이 없으니까 중의 적삼, 일하러 댕길 때 입는 중의적삼을 입고 선달 그림날이나 벼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꾸 불르네. 그걸 지내야겠는데 선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집이 그냥 막사 비슷한 거였는데 방앗간에 가서 뽕겨를 가마에 넣고 기둥에 묶어 놔는데, 도둑놈이 닭이 우는데 도둑놈이 훔쳐가서 선을 못 보았다.

옛날에 밤 도둑놈이 오면은 ‘삼발에 괴 들었다.’ [조사자 : 예?] 그렇니깐 예방이라고. [조사자 : 삼발에.] 삼발에. 삼 말이야, 베로 짜는 거 말이야. 대마초 말이야. 삼발에 괴 들었다면 그 사람이 열 발작 안에 잡힌다는 거야. 누구든지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삼발에 괴 들었다고 하는 거야. [조사자 : 괴가 뭐예요?] 밤손님이 들었다는 거지.

24. 도둑이 께발 쪼리다

박철중(75, 남)/김량장동T 5뒤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도둑을 소재로 하고 있어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어느 부자 집에 돈이 많은데 하루는 돈을 몽창 잃어 먹었어. 옛날에는 엽전이거든. 야!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 두지만, 옛날엔 향아리나 돈패

에 두거던. 아 글세, 이것은 향아리 채 몽창 들고 가 버렸어. 아! 이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길, 향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선 동네 사람을 전수 이장 반장을 통해 가지구선,

“모여라.”

하니까. 7~80명 모두 모였던 말야. 그래 가지구선 돈을 잊어먹은 사람이 쫓그마 향아리를 갖다 놓고선 그 속에 먹물을 풀어 놔거던. 그리구선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구 말 하나면,

“이 안에 두깨비가 있시니까, 죄진 사람은 두깨비가 손가락을 물고, 죄 안진 사람은 두깨비가 안 문다.”

했거던. 그리고 등잔불을 탁 끈 거야. 이제 감감한 데서 한 사람씩 손을 넣는데, 꼭 한 사람 죄진 사람은 큰 일 났지 뭐야. 한 놈이라도 빠뜨리고 손을 안 넣으면 흠친 사람으로 인정을 하거던. 그래! 모두 손을 향아리 밑바닥까지 넣는데, 아! 흠친 사람은 겁이 덜컥 나거던. 다른 사람은 모두 손가락을 넣고 왔는데 이놈은 주먹을 잔뜩 움켜쥐고 향아리에 넣는 시늉만 했거던.

“이제 그만 불을 밝혀라.”

그래서 보니까, 전부 손에 먹물이 새까만데 한 놈만 손이 하얗거던.

“야, 이놈아! 네가 돈을 훔쳐갔구나.”

하고 도둑을 잡았다. 옛날에 어수룩하니까 그렇게 잡은 거야. 동네에서 그리구 도망을 갔어.

25. 도깨비가 된 빗자루(37)

김임득(71, 여)/김량장동T 6앞

[북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북구 노인정을 도착하였을 때 몇 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담소를 하거나 화투를 치고 있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며 도깨비에 대해 문자 제보자 선통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처음엔 녹음이 잘 안 되어서 녹음 못함.) 껌껌한 밤길에 앞에서 뭔가가 반짝반짝 하거든? 남자가 술을 먹고 이자 가는 거야. 밤에 한 열한 시나 열두 시 반, 열한 시 반 도 됐을 때 가면 도깨비가 달려드는 거야. 도깨비가 막꼭, 막 장대 같은 남자야.

도깨비가 해낼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옛다리로 넘겨야 되는 거야. 옛다리로 넘겨서 자빠뜨려야 도깨비가 자빠져서. 오른다리로 하면 세상에서 못 이겨. 저. 죽어 사람이.

그러더니 남자가 옛다리로 넘겨서 꼭꼭 소낭구에다 묶어 놓고, 칩닝쿨 꿇어다가 묶어 놓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전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싸리비더랴, 싸리비.(웃음, 흥이 나 싸리비로 쓰는 행동.) 이렇게 쓰는 싸리비.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빗자루도 되고 여자가 불을 때다가 부엌에서 불을 때면, 밥을 할래면 옛날에는 불을 때야 하지 않냐? 장작 불같은 거 솔까지 땀라면 빗자루를 깔고 앉을 때거든. 그러면 거가 경도(여성의 생리 혈을 말함)가 나오면 경도가 묻어. 경도가 나올 때. 그러니까 빗자루에 경도, 즉 사람의 피가 묻어 가지고는 그 빗자루가 이젠 도깨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심을 했었던 거여.

26. 산삼 동자(17)

김임득 (71, 여)/김량장동T 6앞

[북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1995. 11. 4.)

이 이야기는 ‘동자삼’ 이야기와 유사한 ‘효’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보자에게 본받을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하자 잠시 말이 없이 생각하다가 구술한 내용이다.

옛날의 아들이 효잔디 이 엄마가, 엄마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참 돈두 없구 헐래야 헐 도리두 없구. 그 때 옛날에는 그랬어. 어서 누가 돈을 쥐어 주고, 뭐 주덜 안 했어. 죽으면 꼼짝없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 도사가 음, 산에 가 기도를 드렸겠지. 아들이 산에 가 기도를 드렸겠지. 그러니까 도사가 나왔지. 도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아들을 삶아서 어머니를 드려라. 그러면 어머니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헐 거냐?”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그렇게 허졌어? 지방 사람들 같으면 못 혀. 옛날 사람들이야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걸 먹고 이제 엄마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도사가 그저 효도거든. 그런 아들이 없거든. 자기가 아들을 삶아서 할머니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었으니까, 효자지. 손자를 삶아서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났고. 일어나서 그 도사가 이제 그게 인삼 뭐 갖다가 넣어 낫겠지. 그게 인지 뭐냐며는 삼이 아니라, 인자 거기서 그 사람이 편안히 먹고 살게 나온 거야. 그렇지 않아.

27. 지렁이 국을 봉양한 며느리(1)

김임득 (71, 여)/김량장동T 6앞

[북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다른 효에 대한 이야기를 요구하자, 같은

소재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또 시어머니가 아파서 드러누워서 인제 죽게 생겼는데 아들은 군인 가고 없고, 먹고 살 도리가 없어. 그러니께 막,

“배가 고파 죽겠다.”

고 소리 질러도 무얼 가서 일해야 어디서 돈이나 주냐? 며느리도 자기도 굶어 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그러고 있는디. 어느 날 하루 무엇을 삶어다 주는데,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 그 노인네가. 며느리가 갖다 주니께.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맛 있냐?”

구 하니께,

“어머니 그게 괴기요. 괴긴디 어머니가 허약하니까 어머니 삶아 드리는 거라고. 그걸 잡수시면 괜찮데요.”

매일 지렁이를 잡아다 삶아 주는 거야, 똥강의 지렁이를.(두 손으로 약 15cm를 가리키며) 이만스한 지렁이를 잡아다. 그러니께,

“그걸 좀 보자. 그게 뭐가 이렇게 맛있나, 나 좀.”

엄마가 봉사여. 엄마가 눈이 안 봐. 뭐가 그게 맛있는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으니 손에다 좀 찍혀 달라.”

고 했어. 그러니께 찍혀 주니께,

“이거라.”

고 하니께. 만져 보니께 안보이니께 뭘지 모르지. 이렇게 말린 놈을 찍혀 주니께. 그러니께 자리 밑에다가 넣어둔 거야, 지렁이를. 며느리 몰래 넣어 두구선, 누차 맛 있으니께 시어머니가, 살이 그걸 먹고 부영게 살이 찌고 그러니께 그게 좋거든. 좋아지니께, 인자 참 이상하다 몸도 좋아지고 참 며느리가 좋아서 잡아다 삶아 주는 거야. 그것만은.

그러다가 아들이 왔어, 군에 가서. 그전에는 보국대여 보국대. 군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아들 손을 잡고,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지시느냐?”

구 하니께.

“야! 며느리가 매일 이렇게 맛있는 것을 삶어다 줘서, 뿔이나 뺨다구라는 데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달라구 해서 여기다 넣어 놔. 이게 뭐냐?”

라고. 아들을 내 뵈 거야, 지령이를.

“어허, 어머니! 악! 지령이!”

라고 놀랜 거야. 그러니께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뜬 거야.

“어메, 지령이를 삶아 줬냐?”

눈을 번쩍 뜬 거야. 그래서 효자가 됐드라, 며느리가. [조사자 : 그래서 눈을 뜬 거예요?] 응. 참말로 그 애긴 있어. 이날부터 그렇구 뭐 따른 거 뭐 없는디, 정신이 없어, 정신이.

28 용인 지명에 관한 일화

김임득 (71, 여)/김량장동T 6앞

[북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가 ‘정신이 없다’며 이야기를 마감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용인이 좋은 이유를 묻자 생각이 났는지 간략히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용인엔 용자가 들어 거주고, 용인이 명당자리가 많다. 용인이 명당자리가 많아서 옛날에 왕들이 다 용인에 많이 묻혔 데야.

용인이, 그래서 용인 ‘용’자가 들어서 좋디구 그 소리만 들었어. 그래서 할아버지도 거기다 했잖아. 산 샀잖아, 용인에다.

29. 마음공부

김임득 (71, 여)/김량장동T 6앞

[북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제는 더 없다’고 하였다. 그래도 조사자가 끈질기게 요청하자 절에서 들었던 것이라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조사를 마쳤다.

나는 부처님을 지성으로 믿지. 할머니가 글을 아냐 뭘 아냐? 그런 걸 다 알아야 하는데. 내 맘적으로만 부처님을 좋아서 믿으니까.

저, 저 저 공주 저쪽으로 가면 신문사가 있어. 신문사에 우리 카드가 있었구. 스님한테 내가 한 번 가서 문의를 했어. 가 기주구.

“스님, 저는 아무 글을 몰라 가지고 내 맘적으로 부처님을 믿지, 남에게다가 악하게 하지는 않는다구. 하지만 내 맘적으로만 믿지 법문을 못 해니까, 스님! 그걸 다 알아야 하는데 글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보살님! 무슨 소리냐! 그게 진실이지. 그게 진실인디 다 부처님께서는 뭐 알아주어. 아는 체하는 사람보다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신도자가 된다 그려. 그러니까 스님 마냥, 저 보살님 마냥 내 맘적으로만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고, 내 맘적이 첫째지. 너무 아는 체하면 안 된다.”

그려.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청중이 절에 대해 물어 봄) 굉장히 크지. 정문절 (그런데는) 굉장히 크지 몰라! 글을 알아야 뭘 알지. 그렇지 않냐? [조사자 : 절에서 들은 얘기 같은 거.] 절에서 들은 얘기, 몰라.

30. 마음을 곱게 써 복받은 사람

정별순(87, 여)/김량장동T 7앞

[중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김량장동에 도착하여 중구 노인정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하였다. 노인정에는 9분이 모여서 화투와 담초하고 있었는데,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옆에 듣고 있던 제보자 선뜻 나서며 이야기판을 형성하면서 주도적으로 구술하여 주었다. 설화는 교훈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가난 하더라.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부잣집 퇴가리에 가서 훔칠라고 베틀 한 섬을 지고 돌아다보니까, 남 노적가리에 베틀 한 섬 떼어놓으면 와 굶잖어. 그래 차마 못 가지고 왔어. 남 퇴간에 베틀 한 섬을 빼올 수가 없어서 도로 왔다.

와서 생각해도 지가 굶어 죽겠으니까 그 날 저녁에 또 갔다. 또, 한 섬을 지구서 돌아서니까, 그 자리가 텅 비더라, 또 놓고 오고 세 번째 갔는데 그래도 못하고 거가 베틀 세 번 지러 갔다가 도로 돌아서서 오는데, 길바닥에서 뭐가 채이더라. 그래 보니깐, 무슨 신(실)뭉치 하나가 떨어 졌드라. 그래 그걸 집어들고 가지고 집에 와서 마누라보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오고 돈을 못 벌면 안 올 테니까, 하여튼 난 나간다.”

구. 하고 나갔데요 근데 그 실을 뭘지 모르고 보니까 구렁이 뚫어 졌드래. 끈이 달렸더래. 여그다(허리를 가리키며) 차구서 앞까정 가니까, 그냥 큰 도굴래 총판에 대가 집이 있는데, 뭘 일인지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

그래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같은 사람이 방으루다 하나 가득(많이) 들어 앉았더라. 그래 그 집 아버지가, 대가집 아버지가 죽었데야. 그런데 그 방에 들어앉은 게 죄 지관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밥을 얻어 먹구 갈라구 저 구석

떼기가 앉았는데, 사람들이,

“어따 쓰면 뭐가 좋고 어따 쓰면 정승판사 나구.”

뭐 어떻게 하면서 죄 지껄이는데, 인제 만상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구석쟁이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여. 그럴 수밖에, 모르니까. 만상주가 제일 먼저 풍수차를 뒀데. 지관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다가 아버지 산소에 쓸라구.

나와서 한 바퀴씩 도는데, 그지 같은 이 사람이 그제 땅지기 보는 쇠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지. 벼를 석 섬을 훔치러 갔다 못 훔치고 남의 벼까지 주는 척 하다가 왔으니까. 근데 이견 밋도 모르고 구녕이 뚫어졌으니까 웃고름에 차고서 앉었지.

야! 다른 사람은 잘 마치느라고(맞추느라고) 야단치는데, 그 사람은 초라하게 입은 그지처럼 하구서 아무 말도 았거던.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 잘난 척 한다는 거. 야! 그러니까 훌쩍 보내구선 그 말 안하고 앉아 있는 사람을 (기침하고) 데려가니, 뭘 알아야지. 글썸! 그래 죽을 맛인 거여,

인저 아 지관을 다 보내버려 놓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묘자릴 잡으라니.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혀. 야! 그러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목욕재개를 시키고, 새 옷을 그냥 청양과제 해서 갈아 입혀 노니 이거 어떡해야 옳야! 그래, ‘이젠 죽겠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얀 소복한 젊은 새댁이 머리를 꼭 따고 들어 왔드랴.

“선상님! 날 좀 살려 달라.”구.

“내가 죽겠는데 누굴 살려 달라고 그러냐?”

구. 그러니까,

“선상님! 지가(제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며는 선상님도 살고 나도 산다.”
고

“그래 어떡하느냐?”

구. 하니깐,

“내일 아침에 산에 올라가른 큰 다리가 있을 테니, 이 산을 뛰고서는 ‘삼

대 정승이 났구나' 그러구, 또 내려와 가지고서는, '아, 산소를 뛰면서 꿈을 허리에다가 씌면 꿈이 일곱 달만에 새끼를 낳는다. 아, 여기다 산소 써구서 칠삭동이가 생기는구나.' 하구선. 거길 내려와서 산소를 하나 보구선 고 밑에다가, '여기다 쓰면 삼대 정승이 나겠다'구 그렇게만 해 달라."

고 그래,

"이래서 칠삭동이를 애 낳냐?"

고 그러거든.

"내려가서 보라구. 셋째 골엘 보면은 꿈이 새끼를 일곱 달만에 낳는다구. 요기다 산소를 썼기 때문에, 이 산소 때문에 집안에 칠삭동이가 생겼다구 그러라."

구. 그 새댁이 시집 와서 칠삭만에 애를 낳았더니, 주전부리하고(부정하게) 낳았다고, 그 아버지 산소를 쓰고는, 시아버지 장사 지나고는 죽일거래. 그 며느리를 나쁘다고 옛날엔 그렇게 했다. 아 그러구선 정신차려 들고, "그렇게만 하면 나도 살고 선상님도 산다."

구 그래. 그래서 그 날 아침에 아침을 먹여 가지고 산에를 가는데, 여자가 일러주는 대로 했어야.

"아이 어떻게 이 산소를 쓰구 칠삭동이가 났느냐?"

고 그래서,

"꿈의 허리에 산소 끼면 칠삭동이가 생깁니다."

아, 그랬더니 꼭 맞았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주전부리하지 않고서, 그 꿈의 허리다 썼기 때문에 일곱 달만에 이들을 낳아서 그랬는데, 주전부리했다고 죽일려구 그런 건데, 선상님 때문에 시아버지도 살리구 손자 놈도 낳은 것도 알았다."

고. 하는 거야. 그래 며느리가,

"저 선상님이 산소 자리를 하두 잘 알고 한니까, 친정에 데려가서 우리 할아버지 산소자리를 좀 써졌다."

고 그러니까 아 죽일라구 그러더니만, 며느리가 그렇게 되니까 그냥 떠

받들어서 그냥 어깨에다 태우고 뭐, 그 지관장이는 지관도 못 보는 거지.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말을 태우고 근간시럽게 하고 친정엘 갔어. 꼭 딸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 장사 지내면 죽일라 그런 건데.

“아이구! 어떻게 이렇게 살아 왔냐?”

구. 그러니까.

“그 선상님 때문에 살았다고. 그냥 꿈의 허리에다 산소를 써서 칠삭둥이가 났다고 해서 내가 살았다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 산소 자리 좀 보러 왔다.”

구. 그래 인자 저녁에 그러더라. 산소자리 본다는 사람하고 저기 내일 아침에 이 식구들이 이 할아버지 산소자리를 불러고, 안죽 안 돌아가셨는데 불러구 그런 거여. 저기 나가서 연못 가운데, 연못 가운데다가 돌루다 이렇게 쌍구선 이 가운데다 미류나무를 심어 났어. 그러면 그제 석화산이라는 거여. 그치? 연못 가운데 그제 석화산이여.

“그 석화산을 혈구선 그 밑엘 보면 그냥 명당터라’ 그러라구. 그렇게만 하라.”

구. 그 색시가 땅의 지리를 다 알면서 시키는데 지가 안 하구 배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을 때가 되서 그러는 거라구.

“산소자리 아침 먹고선 봐 달라.”

고 하니까. 빙 돌다가,

“명당은 저 연못 가운데, 석화산 밑에 있습니다.”

그랬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을 다 모아다 그 놈의 연못을 치구, 그 석화산을 혈어내고 보니까 그냥 바위에다가 사람 하나 들어갈 광둥(광중)을 지어서 바위덩이가 꼭 덮이게 거기 있더라. 그러니 얼마나 용혀. 그러니,

“아이구! 바위 지리가 석화산 밑에 있다고 그러는 것을, 참 이렇게 딸도 살리구 그랬다구. 고맙다.”

구. 하구선 인제 집에 갈 때가 됐으니까,

“가 봐야겠다.”

고 하니까.

“어이 가시라고 가셔야 한다.”

구. 그냥 입만 차려서 가니까. 아! 집이 없더라. 그리고 그냥 죽는마두 도 저들을 치고 있고, 그냥 아유, 으리으리한 집이 있더라. 그래서 이 집은 옛날에 살던 집을, 그러니까 몇 년 됐는지 몇 해 됐는지 모르지. 가니까,

“아이, 집이 어디 가고 이런 좋은 집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 그냥 나돌더니,

“이 집은 나리가 나가서 돈을 붙여서, 돈을 벌어서 붙여서 그 집을 잘 됐다.”

고. 그냥 하인이 얘기하는데, 참 상방 중방 꾸르르 하더라.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시집에서도 그 돈을 미리 붙여주고 친정에서도 붙여주고, 그런 부자가 됐더라. 글썄, 그런 부자가 되서,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라는 건가 봐. 벼 석 섬 훑치러, 가질러 갔다 남의 벼 가마 주는 생각을 하고 와 가지구선, 그걸 하나 주서 가지고 나가 가지구 그런 부자로 살드라.

31. 은혜 갚은 용

정별순(87, 여)/김량장동T 7앞

[중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조사자가 용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동물조차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역시 교훈적인 내용으로, 무릉도원이란 변형된 이야기라 하겠다.

야! 그냥 용이 올라가면 물을 짜고 올라간대. 그냥 못 올라간대. 야! 그랬는데 그냥 정승네 집 바깥마당에 그냥 올라가다 못 올라 가구선 용이 떨어졌대.

고게 떨어지니까, 그 정승이 나와 가지구서 인간 못 보게, 인간을 봐도 부정 타. 사람을 보면 떨어지는 거래. 그래서 무엇을 드린 인간을 못 보게 하느라고 멍석을 갖다가 덮어 놔대. 그리고 동네 사람들보고 그냥 방죽을 막구선 물을 퍼다가 부랬더라.

그래 물을 퍼다 부었는데, 인제 멍석을 베껴 놓고 그랬는데, 그냥 동네 집이 떠나가게 생겼더라, 많이 퍼다 부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 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신선이 하는 말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해줘서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 산으루다 아무 날에 오라.”

구 그러더라. 그렇게 그냥 용은 올라 가구선 물이 남았더라. 그런데, 용이 올라갈 적에 꿈을 꾸구선 나와서, 그냥 목욕재계를 하고 탕관을 하구선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용이 올라 가구선 물이 남았더라. 그런데 그 꿈에 인제 그렇게 ‘아무 산으로 오라’구 그래서, 아이 하필 동자를 데리고 갔대. 조그만 동자를 데리고 그 산에를 올라갔대. 올라갔더니 세상에 못 보던 집이 그렇게 있더라. 아무 것도 없고 상에다 차려놓은 것도, 상도 그냥 상이 아닌데, 불그스름한 걸 상에다가 불그스름한 물을 부어 놓구선 그냥 인사를 하면서, “신세를 갚을 길이 없어 오시랬다구. 그러면서 이걸 잡수라.”

그러더라구. 그러니까,

“아이, 난 안 먹는다.”구.

“잡취 보라구. 은혜 갚는다.”

고. 자꾸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동자애가,

“참! 이게 뉘데 안 먹는다구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손으로 흉내를 내며) 짝어 먹고, 짝어 먹고. 자꾸 그 둘이 얘기하는 데도 짝어 먹었다. 그러니 아이, 애가 신선이 됐더라. 그 ‘신선

되서 데려 갈려구, 신세 갚을려구, 용이 못 올라갈 건데 살려줘서 고맙다'고 신선 맨들을려구 그런 건데.

요놈의 애가 가져다 짝어 먹구선 애가 신선이 되 버리니까 데려가고 아무 것도 없더래.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빈 산이더래. 그래 산을 내려오니까, 그게 이제 천 년이 지났는데, 물어 보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 어디 갔냐?”

물으니까.

“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러느냐?”

구. 해서 그냥 되돌아가서는 죽었다.

32. 산삼 동자(2)

정별순(87, 여)/김량장동T 7앞

[중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효자나 효녀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서, 옛날에는 부모한테 잘하면 보배를 내려주고 잘못하면 벼락을 때리구 그랬던 시절이여. 그때는 시어머니가 앓는데, 도대체 약을 해도 듣지를 앓고 어떻게 고칠 길이 없는데 도사(중)가 왔더라.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살겠냐?”

고 그러니까.

“방법은 있지만 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래.

“뭐냐?”

구. 그러니까.

“그 아들을 고아 맥이면 낫는다.”

그러더라. 아들이 책보를 옆에다 끼구 글방에, 그때는 글방에 글 배우러 땡기는 거지. 아! 그냥 시어머니 살릴 수 있다는 소릴 듣구선 가마솥에다 물을 펄펄 끓이는 거여. 가마솥에다 물을 끓이다 보니까, 아들이 책보를 옆에다 끼고 들어오거든? 그래 얼른 집어서 물에다 넣고 뚜껑을 덮었다.

아. 그래 고는데, 아들이 또 들어 오더라. 아! 그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도사가 그 마음을 보느라고 그렇게 했지, 설마 자식을 죽이라 했겠어. 그래서 복을 받어서 그게 아들이 아니고 인삼을 사람으로 보게 하구선 고은 거야. 그래 소방(솥뚜껑)을 열고 아들을 보니까 인삼이 똥똥 떴더라.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렇건만, 시방은 부모를 갖다 내버리고 죽이는 시대야. 그렇게 복을 못 받는 것여. 옛날엔 그렇게 했어. 그거 아들을 갖다 넣겠어?

33. 자식을 주고 시아버지 살린 며느리

정별순(87, 여)/김량장동T 7앞

[중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효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끝에 효도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시아버지가 장애를 갖는데 안 오니까, 시아버지 오는 길에 가서 지키고 있을라구 보니까, 아 그래 산비탈에 허연게 있고 뭐가 앉았더라. 가보니까

시아버지가 술 취했는데, 호랑이가 꼬리에다 물을 적셔 가지고 얼굴에다 얼어 죽으라구 쑤지에다 물을 적셔서 자꾸 끼얹고 앉았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시아버지 주면 내 자식을 내 줄게.”

하고, 우리 시아버지를 업고서 오니까 좇아 오더라. 그래 자기 자식을 얼른 내주니까 안 가지고 가더라. 옛날엔 짐승도 그렇게 영박하고 해꼬지를 안 하더라. 잘 했다구. 효도했다구.

그렇게 효도를 하면 복이 들어오는데, 시방은 부모를 내버리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어. 옛날엔 부모에게 잘하고 하나두 그런 게 없었어.

34. 지렁이 국을 봉양한 며느리(2)

정별순(87, 여)/김량장동T 7앞

[중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이 이야기도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호를 주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제보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시아머니가 눈 멀구 아들은 가난한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지렁이를 잡아다가 빨경게 튀겨서 삶어서 찌더니, 볶아다 찌더니,

“아들 오면 준다구. 맛 있다.”

구. 자리 밑에다 넣구 했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

“아이구, 얘! 뭐가 이렇게 맛있는지, 며느리가 해다 줘서 먹었더니 하두 맛 있길래 너를 줄려구 찌다.”

그랬더니, 아들이 받아 가지고 보니까 지렁이 볶은 거드래.

“아이구! 어머니 지렁이요.”

그러니까 눈을 확 뜨더라요. 그래 옛날에는 효도하면 그렇게 됐다구.

35. 배은 망덕한 흘애비

정별순(87, 여)/김량장동T 7뒤

[중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이때 옆에서 한 팀이 조사를 함께 하여서 좀 소란스러웠다.

딸을 하나 데리구 흘애비가 사는데, 도깨비가 와서 그렇게 지랄을 하더라. 문을 열었다 닫구 열었다 닫구. 그래서 낭중에(나중에) 들어오더니 영감 궁뎅이를 투덕투덕 하더라.

“아이, 왜 이러니?”

그러면,

“아버지! 뭘 그랴?”

“아니다. 자라. 자라.”

그랬더니. 아! 그냥 도깨비가 어서 인절미를 잔뜩 가져오고, 그냥 어서 인절미를 잔뜩 가져오고. 그냥 술에다가 고기도 갖다 넣구선 안에 쪽 띠뎀다가 또 끄내놔다 이렇하구. 그냥 떡에 뒷에 갖다 주더니, 아! 이번에는 그냥 돈을 들고 갖다 주더라. 돈을 쥐고 갖다 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더러 묻고 그랬다.

“돈을 갖다주고 그러니, 나를 도둑놈으로 알거라.”

구. 하니까 그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떼야 한다구. 떼라.”구.

“어떻게 떼느냐?”

구. 하니까.

“말을 잡아서 말피를 썩- 문 바깥에다가 뿌리고 말 뺨다귀를 땡겨 놓으면

안 온다.”

구. 그러더라. 아! 그렇게 했더니만 이놈의 도깨비가 와 보구선 부아가 나니까 그냥 돌을 갖다가 막 쌓아서 그 흠애비가 돌에 치어서 죽더라. 근데 팔세를 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니까 그랬다고 팔세를 해서 그랬는데, 이놈이 그렇게 하지를 말았으면 괜찮을건데, 도깨비한테 치어 죽었다.

36. 도깨비가 준 땅

정별순(87, 여)/김량장동T 7뒤

[중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도깨비를 소재로 하고 있어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돈을 벌면 땅을 사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라 하겠다.

말구리라는 데가 있어. 있는데, 누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그냥 강변에 쌀독이 수북하고 사람이 병글병글 하구 그러더라. 그러더니,

“이것 좀 몇 년 말았다 달라.”구.

“그러라.”

그랬더니. 아! 세상에 오지를 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거 안 오드라. 그래 그런 얘길 했더니, 그건 옛날 말이지, 참.

“그걸, 쌀을 팔아 가지구 저 강 건너다 가서 살면 안 온다.”

구 그러더라. 강을 건너가서 어디까지 가서 땅을 죄 사 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왔더라.

“영 오질 았아서 어떡할 수가 없어서 저기다 땅을 사 뵈다구. 다 가져가라.”

구. 가서,

“이것두 사구. 이것두 샀다.”

구. 죄다 일러주니까, 네 구탱이(귀퉁이, 모서리)에다 말뚝을 박구 밤새도록 끌더니 도저히 못 끌겠거든. 그리구 그걸 자기 줄라구 하니까 안, 그렇게 해꼬지를 안 했지. 해꼬지를 하면 돌을 담아 못 먹는데. 그랬더니,

“아이구 못 가져 가겠다구. 가지라.”

구. 그러더라. 그래서 부자가 됐대. 도깨비두 친해서 부자되는 놈이 있고 망하는 놈이 있구 그렇대.

37. 삼천 냥을 탕진한 아버지를 살린 아들

이조만(75, 남)/김량장동T 8앞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중구 노인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구 노인회로 장소를 옮겼다. 이곳에는 7-8명의 할아버지들이 화투치기와 담소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자 조금 전에 남자들이 왔다 갔다고 하였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반갑게 맞이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왜정 때 강원도 춘천 사는 박씨가 있는데 면장을 지냈어. 면장을 지냈는데 국고금, 나라돈을 많이 집어먹었어. 집어쓰구선 징역을 가게 됐단 말이야. 큰일 났거든, 집안이 망하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열두 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면장이,

“제가 법원에 들어가서 삼 년 말미를 주면, 지가 그 돈을 갖다 갚을테니 우리 아버님 구속시키지 마십쇼.”

“아, 그럼 니가 삼 년만 말미를 주면 그 돈을 꼭 갚겠느냐?”

“갚겠습니다.”

그러구 나왔단 말이야. 나와서 면복쟁이한테 가서 짐을 해 봤어요. 짐을 해보니까 면복쟁이 하는 말이,

“오늘밤으로 옆두 돌아다보지 말고, 그저 앞으로 그저 실컷 뛰어 가라 그 말이야. 어떠한든 니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뛰어 가라.”

이 말이야. 거짓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횡성을 내리 뛰었던 말이야. 횡성을 내리 뛰어 가지구선 쓰러졌어요. 고개 넘어가서 그냥 쓰러졌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기진맥진하고.

그때 마침 고개를 지나가던 점잖은 노인이 한 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소년 아이가 그저 쓰러져 있던 말이야. 이렇게 자는 걸,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걸 보니까 애가 쓸만하거든. 그래서 엘 깨웠어요. 그래 그 노인은 [청취불능] 까만 갓을 썼어. 도포를 입었어. 깨니까 애가 누워 있으니,

“왜,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배고프고 해서 그렇다” 하니,

“너!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 노인이 데리구 갔어요.

“너, 내가 심부름꾼으로써 널 먹일라는 거니까, 내 집에 가서 그저 밥을 먹고 있어라.”

그래 이놈을 데리고 가서 재털이를 쏟아 놓고, 오강을 쏟아 놓고 했어. 그 력저력 한 삼 년 있는데, 그 기한현 지가, 그 범원에 가서 기약현 지가 거반 돌아오게 됐단 말이야. 근데 미쳐 돈을 한 푼 못 벌었지. 근데 한날 그 노인이 께 부르시는 거여.

“너, 내 말 한 마디만 꼭 들어 줄래?”

“아, 무슨 말씀이요 삼 년이 넘었습니다.”

하니. 그 노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병 환자요. 나병환자, 문동병이란 말이야. 문동병인데, 음- 충주, 충청북도 충주 색시가 하나 잘 된다고, 부잣집 색신데 그 노인 아들이 잘됐단 얘길 듣고 혼인을 하러 왔단 말이야.

“너, 우리 아들 대신 장가 좀 들어다오.”

그런 거여.

“어떻게 대신 장가를 들어갑니까?”

하니까.

“그런게 아니라, 가서 초례를 지내구, 대례지내구, 사모 쓰고 대례 지내고 첫날밤에 새악시 몸에 손만 안 대구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믄, 그러구 오믄 되는 거니까 대신 장가를 들어가라.”

야! 기회가 왔단 말이여. 그래서,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사실 얘길 한 거여.

“아버지가 국고금 잡숫구 징역을 가서 3년 안에 그 돈을 갚는다고 왔는데, 삼 년이 되니까 그 돈만 갚아 주신다면 대신 장가를 들러 가겠습니다.”

“그건 걱정 마라. 내 오늘이래두 붙여 주겠다.”

아, 이 노인이 기약을 써서 그 돈을 벼락같이 춘천으로 보내는 거여. 그래 개가 대신 장가 들러 갔어요. 가다가 초례를 지내고 첫날밤을 신방을 꾸미는데, 지금은 거 신혼여행을 가서 여관에서 그냥 누워 자니까, 그게 첫날밤 이구 뭐구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이 쪽도리 남자 저고리 입구 앉았거든. 그 래 쪽도리를 내려 주고 옷을 베끼구 뉘어놔야 그게 다한 거란 말이야. 지금은 신혼여행 가서 그게 첫날밤이지만.

그래 신방을 했는데, 아 이 신랑이 신부 몸예다 손을 안 대는 거여. 안 대고 가만 있어. 새악시가 밤새 쪽도리를 쓰고 앉어 고개가 아프고 인자 불을 태우고, 세상 잘 때를 봐도 자도 앓고 그냥 가만히 한쪽에서 있었으니 이거 사람 죽겠는 거 아니란 말이여. 말두 안 해. 그래 새악시가 할 수 없이 입을 열고 물었어요.

“아 서방님! 우째 이 쪽도리를 내려줘야 고개를 들겠고, 이거 옷을 베껴 줘야 좀 내가 눕겠는데 왜 안 그러십니까?”

그래 한참 보니까 사실을 일단 눈치챘단 말이여, 이 새악시가. 그래 아가 씨 같으면, 노골적 얘기지 문둥이한테로 시집을 가겠어? 싫지? 이 신랑은 잘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빛을 내가 갇아 줄테니, 나하구 같이 신방을 치릅시다 했어. 내가 갇아주면 될게 아니야? 난 그런 문둥이한테 갈 수 없다.”

아 새악시가.

“새악시 말 듣곤 안 된다.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야 한다.” 새악시가 그냥 나와서 그 아버지한테 가서 그런 사실을 얘기했어.

“그건 걱정 마라.”

내가 친행은 횡성이 아닌 춘천으로 갔네. 그래서 그 움막살이 면장 집에, 그냥 아 돈 발이 몰려. 그걸 잔뜩 곡식까지 신구 들어오는데, 면장이 별안간에 부자가 된 거란 말이여. 그러니까 장가를 잘 들었지. 새악시두 잘 가구.

근데 그 신랑의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아니냐 말이여. 효자지. 그 여동생이 시집을 보냈더니 시집을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오빠만 효자 노릇하긴 서럽단 말이야.

“저도 아버지 자식이니까, 저도 좀 효를 해야겠어요. 그럼, 그 문둥이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되어 잘 사니까, 저는 문둥이한테 가겠다.”구.

“안 된다.”

는데. 갔단 말이여. 할 수 없이 보낸 거여. 같은 날에 그 아버지와 그 노인이 개 하나 봐주기 위해, 예쁜 색시가 자기 아들까지 둘씩 등에 업고 시집을 오겠다고 짝 - 들어왔으니 이런 기가 막힐 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노인이,

“니가 우리 안방에 가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

신랑 방에 지가 들어갔어.

“같이 들어앉아 있을 테니, 매일 같이 물 하구 약탕관 하구 그것만 화로에다 불만해서 들여보내면 약을 지가 가져와서 약을 달여서 먹일 테니까.

그니까 석 달 열흘 동안, 백 일 동안은 절대 문을 열어 보시지 말라.”

그러구는 시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여. 그러니까 하자는대로 했지. 약을 가져와서 달여 먹이겠다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승락을 하니, 그 새악시가 그 문둥이 방에 들어 앉았는 거여. 매일같이 화롯불만 장작을 해서 참나무 숯불만 해서 들여보내면 물만 끓이는 거여, 약탕관하구. 그러니까 이 새악시가 들어앉아서 화롯불에다가 약탕관을 들여놓고 물만 끓이는 거라.

끓이는데, 거기 약이 어땀느냐 그 말이여. 약을 안 가져 갔지. 약이라는 건 장도칼 하나밖에 안 가지구 갔단 말이여, 장도칼. 요만한 칼 하나 가져왔어. 가져와서 이렇게 자기 다리를 열구 넘적다릴 오린 거여. 오려설랑 그 약탕관에다 넣고 인육(자기 다리)을 넣고 고기를 속에다 달여 먹인 거여. 문둥이가 인고길 먹으면 낫는대요 아주 백 일을 또 그렇게 다려.

백 일을 먹이니까 허물을 훌쩍 벗고 완전한 사람이 됐거든. 그 문둥병이 없어지고 근데 이놈이 하늘이 난 효녀라, 오려두 아물구 오려두 아물구, 아프지 않고 피도 안 나구. 금방 아물구 이게 잘 아물어. 그래서 새악시가 신랑을 훔쳐다 그 집에 가서 살았다. 그것이 하늘이 난 효자, 효녀 남매야. 정말 효자, 효녀야.

38. 벋단을 솟기는 형제

이조만(75, 남)/김량장동T 8앞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충남 예산인가 홍성에서 전설로 전해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형제가 사는데, 동상(동생)을, 징용을 내 보냈어요 징용을 내 보냈는데, 동생이 삼 년 지나 올 거다 했어. 형이 밤에 뱃단을 밤새 집어다가 동생 뱃가리에다가 놔두는 거야. ‘동생 좀 잘 살라’구.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생각 건데, 내가 농토를 이만큼 비어 가지구 나왔는데, 형님은 부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구 있거든. ‘형님을 좀 도와 줘야겠다’ 하구는 그 뱃단을 밤새도록 형의 뱃가리에다 갖다 두는 거여.

그러구 나서 그 이튿날 가보니까 뱃가리가 줄질 않아. 형네 뱃가리도 줄지 않고, 자기 뱃가리도 줄지 않아. 그래서 ‘이상하다’ 하구는 서루 자꾸 갖다가, 형이 갖다 놓으면 동생이 갖다 놓으니 줄 리가 없고, 늘 리가 없지.

형제간은 그런 의리가 있어야 되.

39. 형제간의 우애(형제투금)

이조만(75, 남)/김량장동T 8앞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같은 형제 우애를 소재로 하는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는 형제투금이란 유형으로 김포의 유타담이기도 하다.

형제가 금을 하나 얻었는데, 형이 금을 넣고 앞에 가거든. 뒤에 동생이 따라가다가 동생이 생각하니까, ‘형님이 죽으면 제 차지가 될 것 아니야’ 생각하면서 형을 밀고 주먹질 하다가, ‘언덕 아래로 밀쳐버릴까.’ 이 궁리 저 궁리하면서 한참 고개를 올라가는데, 형이,

“나 이거 넣고 가기가 무거우니, 니가 들구 가거라” 한다 말야. 동생은, ‘올타꾸나’ 하고 동생이 앞서 금을 지고 가니까, 이 형이 생각하기를 또 동생

을 죽이구 싶거든. 아, 금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다 형이 동생을 불러서,
 “애, 그 금을 내버리고 가자. 넌 내가 지고 갈 때 날 죽이고 싶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나두 너를 주구선 너를 죽이고 싶었다. 그러니까 금 때문에 이러니까 이
 걸 버리자.”

그래서 금을 내버렸어. 아! 그랬더니 형제끼리 그렇게 훌기분 하구 좋을
 수가 없어. 욕심 때문에 형제간 좋은 의가 끊어질 뻔했지.

40. 김량장리의 유래(57)

이조만(75, 남)/김량장동T 8앞

[서구 노인회] 박중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이곳이 지명이 왜 김
 량장동이라고 하세요’ 하고 묻자 말씀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김량이란 분이 있었어. 그 분이 여기 살았는데, 이 김량장리를 장
 이 서게 되면서 그 분에 의해서 김량장리가 된 거지.

[조사자 : 그러니까 김량이란 분이 여기다 장을 열어서 마을 이름이 김량
 장리에요?] 그래. 그래서 김량이라. 나두 여기 와서 들었어.

41. 도깨비 방망이

박순천(78, 여)/김량장동T 8뒤

[북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중구에서 조사를 마치고 북구 노인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7-8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담소도 하고 화투도 치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 팀이 조사를 하고 지나갔는지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하였다. 그래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선뜻 나서며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부모한테 효도한 얘기를 하나 해 줄께. 옛날에 한 사람이 남구를(나무를) 갔는데, 산에 남구를 갔는데, 갈퀴를 벽벽 갈퀴나무를 하나까 깨금(열매의 일종) 하나 나오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에이쿠! 이진 우리 할아버지 드리고”

또 한 번 나오니까,

“에이쿠, 이진 우리 마누라 주구.”

또 한 번 나오니까,

“이젠, 이진 우리 아들 주고”

이랬거든. 그래 남구를 한 집 다 해 가지구 왔어. 그랬는데 이젠 그 사람이 해가 지고 또 가서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집이 하나 있더라고, 산꼭대기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한잠 자고 날이 밝으면 가야지.”

깨금 세 알 갖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도깨비가 오더라. 무서워서 벌벌 떨다 할아버지 드린다는 깨금을 한 입 깨무니까,

“이크, 대들보가 무너진다.”

함시로 도깨비가 난리가 났더라. 또 한 번 딱 하니께,

“이크,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즈그들이, 도깨비가 도깨비 방방이를 놔두고 풍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드래. 그걸 가지고 부자가 되더라. 침에 할아버질 드린다고 해서 복을 받았어.

근데 한 사람이, 이웃 사람이 그걸 하나 또 이제 본을 봐서, 또 가서 남구

를 가서 굶으니까 깨금이 하나 또 나오더라.

“이크, 이견 우리 마누라 주고.”

또 한 번 하니까,

“이크, 이견 우리 아들 주고.”

이랬거든. 인젠 그래 가서 그 집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도깨비가 쭈욱 오더라. 그래서 그걸 딱 깨무니께,

“이그! 인내(사람냄새) 난다. 인내 난다.”

이러더라. 그때 또 한 번 깨무니까,

“인내 난다.”

하면서 찾아보더니 이놈을 잡아다, 그냥 갖다가 기둥에 묶어 놓고 한 번 누르니,

“뚝딱!”

두 번 누르니,

“뚝딱!”

하며 죽이더라. 할아버지 드린다는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은 도깨비한테 맞아 죽더라.(웃음) 그리 밖에.

42. 은혜 깊은 까치(치악산의 종소리)

박순천(78, 여)/김량장동T 8뒤

[북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나무를 한다는 소재가 같아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남구(나무)를 갔는데, 이젠 갈퀴질을 하다 보니까 까치가,
 “까아악! 까아악!”

하고 짓더라. 산에 남구 하다 이내 쳐다보니까, 까치가 저 남구 꼭대기에 있는데 큰 구렁이가 잡아먹으러 가더라. 올라 가더라. 아이고! 까치 죽는 게 안타까워서 큰 작대기로 까치 똥구녁을 쭈셔서 날려 버렸디야.

근디 이 구렁이가 까치를 못 잡아먹으니까 분해서 어디로 가더라. 남구를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더라. 그래 산꼭대기로 가니 집이 있더라, 큰 기와집이 하나. 그래,

“날이 저물어서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어떤 예쁜 새댁이 하나 나오더라.

“여기서 자고 갈 수 없냐고. 남구를 와서 저물었다.”

고 했더니,

“들어 오라.”

고 하더라. 저녁을 잘 차려서 먹고서는 사랑방에서 지는데, 이렇게 앉아서 나무꾼은 잘려고 드러눕고 그 여자는 바느질을 하더라, 그 옆에 와서. 실을 이렇게 꿰는데 보니까 헛바닥이 돌이더라.(놀라는 소리를 내며) 그러니젠 그 구렁이가 사람으로 둔갑을 해서. ‘웁다! 내가 그 구렁이한테 낮에 그렇게 해서 속았구나,’ 생각을 하고 핑계를 댔대.

“아이고! 오늘 저녁에 우리 순기가 있는데, 제사가 있는데 가야할 건데 잊어버렸다고.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

고 그러니깐,

“닭 울거든 가라.”

고 그러더라. 닭 울 때만 고대고대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 구렁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까치가 어디서 살아서 종 있는데 가서 대가리로 종을 때렸어. 그러니까 날이 깨더라, 종소리가 나니까.

아, 그 멀쩡한 기와집이 큰 집채같은 바위가 되고. 바위 속에 쭈욱 들어가고 자긴 바위 밑에 드러눕고 그랬더라. 그냥 오다 보니까 까치가 대가리가

떨어 졌더라. 종을 때리다가 대가리가 떨어져 죽은 거지. 그래 까치를 장사 지내 주고 그인 잘 살았다.(웃음)

43. 둔갑한 여우

박순천(78, 여)/김량장동T 8뒤

[북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나 여우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모든 조사를 마쳤다.

이 사람은 인제, 아이쿠! 다 잊어버렸네. 인제 저기 뒤 곁에 우물이 요렇게 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총각 혼자 밥을 해 먹는데, 아! 맨날 누가 밥상을 예쁘게 차려서 밥을 해 놓더라. 어디 일하고 오면 밥을 해다 상을 차려놓고 상을 차려놓고.

“참! 이상도 하다.”

하고서는 한 번은 어디 숨어서, 깊은 통에 숨어서 보니까는 이쁜 새댁이 거기서 나오더니 밥을 해다 상을 바쳐다 놓더라. 아! 그래서,

“누구나고? 누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하냐고. 나하고 살자.”

고. 붙들었다. 붙들어서 사는데, 새댁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여우가 나오더니 재주를 훌쩍훌쩍 세 번 넘어 새댁이 되더니 그래도 밥을 해 놓더라. 분명히 여우가 도술을 하는 걸 봤는데, 아무리 봐도 여우 짓은 없고 분명 사람이더라. 그렇게 한 몇 년 살다가 그 여우가 하는 말이,

“나, 친정에 좀 갔다 온다”

고. 그래서,

“친정이 어디냐?”

고 하니까.

“참나무 골이라.”

그러더라. 참나무 골에는 마을이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냐.”

고. 인제 그 총각이 농사를 저서 많이 해 가지고 엿도 고고, 떡도 하고 이래서 한 짐 지고서 보냈다. 친정에 간다고 나선 새댁을 보내고선 그러고서는 뒤를 밟았다. 살살 밟아서 안 보이는 만큼 가서 보니까, 참나무 골을 가더니 큰 굴이 있더라. 굴로 쭈욱 들어 가더라. 들어가더니 아이구! 늙은 여우가 오더니,

“너 어디 갔다 인제 오냐?”

고 그러고.

“언니!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고 반가워서 야단을 하고 이러더니 하룻밤을 자더라. 이놈을 보고 왔대요. 와 있으니 오더라, 새댁이 집에. 그러니까 여우를 두 번을 본거지. 만날 적에 도술하는 것을 보고, 도술하고 들어가는 걸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 그 속에는 여우가 아홉이더라. 그 속에 든게.

“아홉 여우가 당신을 해꼬지 하고 죽이려 아무 날에 올 꺼니깐, 빨간 팔은 방문 앞에 키에다 해서 담아 가지고 붙들고 앉아 있으라.”

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어느 날 아홉 여우가 문간에서 캥캥 짓으면서 잡아먹으러 올 꺼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고. 그래서 팔을 한 되 가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대, 밤에. 그랬더니 아니나 달러! 아홉 여우가 이렇게,

“캥캥!”

하면서 문에 들어 오더라.

“옛다, 이놈아!”

하면서 죽으라고 팔을 까불렀대. 아홉 여우가 짓어대는데, 밤에 여우 짓는데 빨간 팔이 그 예방이라. 그래서 아홉 여우가 다 죽었더라. 그래서 그 여우 가죽 베껴 가지고 부자가 되어, 새장가 가서 잘 살더라.(웃음)

다. 민요

1. 하늬 놀진 못하리라.

박철종(75, 남)/김량장동T 5뒤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설화 24’를 마치고 조사자가 옛날 노래를 부탁하자, 제보자는 웃음 띠면서 생각이 났는지 불러주신 것이다. 이 노래는 창부타령의 변형으로 보인다.

하늬 헤에에
하늬 놀진 못하리라
하늬 헤에에
하늬 놀진 못하리라
범 들었네 범 들었어
이 강산 삼천리 범 들었네
푸른 것은 버들이요
누른 것은 찌꼬리라
황금 같은 찌꼬리는
부들부들 한 날아들고

백설 같은 흰나비는
장다리 발~~으로~~만 날아든다.
이떠리 디떠리 떠리리리리리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2. 어하 둥둥 내 사랑아

박철중(75, 남)/김량장동T 5두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의 민요를 마치고 ‘노래를 잘 부르신다’고 하자, ‘그럼, 여러 개를 해 봐야지,’
말하면서 불러 주신 것이다. 이때 청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반겨 주었다.

어하 둥둥 내 사랑아
어하 둥둥 내 사랑아

우리 둘이 사랑타가
한 번에 행 아차나
죽기나 되요
고생 기약을 미래나 가세
너는 죽어서 국화 꽃 되고
나는 죽어서 나비나 되어
내가 하내 꽃
우에나 놀기나 되면
나인 줄만은 내가 나 알아
어하 둥둥 내 사랑아

어하 똥똥 내 사랑아

우리 둘이 사랑타가
한 번에 행 아차나
죽기나 되요
고생기약을 미리나 하세

3. 유장면 불과만이요

박철중(75, 남)/김량장동T 5뒤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이 노래를 흥겹게 마치자 청중들이 ‘잘 한다’며 박수를 치자, 제보자는 흥에 겨워하며 ‘박수 나와, 또 해야겠네’ 하면서 이어서 불러주신 것이 다. 제보자는 자신의 흥에 못 이겨 더욱 소리 높여 불러 주었다. 이에 따라 조사자들도 어르신들의 노래소리에 어깨를 움직이면서 흥겨움을 느꼈다.

유장면 불과만이요
무전이면 불상사라
성서불경 하든 집은
어딜 가지구 못 오시나
일후에 다시 만나 만나
설화 하리로구나

4. 능나도 타령

박철종(75, 남)/김량장동T 5두

[서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최영수, 이수철, 김희수 조사 (1995. 11. 4.)

앞이 노래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불러주신 것이다.

능나도 실버들 한들한들
 봄바람 불들고 춤을 춘다
 피꼬리 성상 가진 날러와
 등실 등실 얼시구나
 쿵~~응 쿵~~응 멋이로다
 쿵~~응 쿵~~응 멋이라니

숙교사 댕기는 나풀나풀
 남치마 자락을 안고 돈다
 뱀나부 쌍쌍 꽃 찾아 날어 와
 등실 등실 얼시구나
 쿵~~응 쿵~~응 멋이로다
 쿵~~응 쿵~~응 멋이라네

5. 열녀가

이홍순(85, 여)/김량장동T 7뒤

[중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설화 36’을 조사하다가 옆에 있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앞의 이야기에서 생각이 났는지 도깨비를 구술하여 주었다.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야기보다는 노래가 낫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충신은 만조정ियो
 효자 열녀는 갖가지라
 하형제 낙향을 하니
 봉우유신 하오리라
 우리도 성주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6. 유람가

이흥순(85, 여)/김량장동 T 7뒤

[중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자마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때 청중들은 흥이 겨워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만고강산 유람할 제.
 봉래산이 어드메뇨
 일봉네 일봉장과
 상록수 이 아니냐
 죽장 짓고 품을 실어
 봉래산을 유람할 제

경포대 명월을 구경하고
 청간영 낙산사와
 종석봉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열른 넘어
 봉래산을 올라가니
 부영들은 하늘 아래 잠겨 있고
 백설폭포 금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든 구름 깨우라고
 마른 안개 잠겨우니
 선경 여기가 분명쿠나
 때마침 모추니라
 붉은 꽃 푸른 잎과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 춘색을 자랑한다
 봉래산 좋은 경치
 지척에다 걸터 놓고
 못 본 지가 몇 해 던지
 다행으로 오늘날에
 만고강산을 유람할 제
 이곳을 당도하니
 옛 일이 새로워라
 어허 세상 벗님네여

7. 범벅 타령

성분이(87, 여)/김량장동T 7뒤

(중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명진, 이명진, 이명희 조사 (1995. 11. 4.)

앞의 제보자의 노래가 끝나자 옆에 있는 제보자가 선뜻 나서 노래를 불러 주기 시작하였다.

등글 등글이 범벅이야
 누구라 잡수실 범벅이야
 이도령은 멍쌀 범벅
 김도령은 찹쌀 범벅
 이도령의 거동을 봐라.
 기집년이 행실이 글러 싹쌀하고
 외박장사를 나간다고
 민빚, 참빚, 쪽집계를 사 가지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연만 보고 세만 보자.
 기집년의 거동 봐라
 이도령 없는 싹을 알고
 건넌 말 김도령 기다린다
 대문간에서 소리 나네
 기집년의 거동을 봐라
 김도령 목소릴 알아 듣고
 대문을 열러 나가더니
 상사복수를 붙들어 잡고
 대문을 닫고 중문 닫아

대청 위에서 썩 올라서서
 문간문 닫고 장지문 닫어
 방애를 들어가니
 올려다보니 성향장판
 내려다보니 각장장판
 각시가를 불러보자
 각계 수리의 배비장에
 자개 함농 반닫이에
 모란 병풍을 둘러치고
 새털 같은 늦요강을
 발치 발치라 버려 놓고
 원앙금침 장베게에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굽실굽실 잘도 논다
 창포 밭에 금니가 놀듯
 굽실굽실 잘도 논다
 이도령의 거동을 봐라
 뒷동산에서 내려와서
 여보 여보 벗님네야
 내가 왔으니 문을 여오
 기집년의 거동 봐라
 이도령 목소릴 알아듣고
 김도령 주체를 어찌하나
 삼 대나 사 대 내려오는
 뒤주 속에다 넣어놓고
 금고불락 자물쇠로
 어썩 비껴 잠귀 놓고

대문을 열어 나오더니
 기집년이 하는 말이
 외박장사를 나간다더니
 아닌 밤중에 웬 일이요
 새끼 서 발을 끊어 들고
 뒤주를 걸머 쥐고
 북망산천에 돌아가서
 뒤주문을 열고 보니
 새빨간 몸뚱이가 들었구려
 이도령이 하는 말이
 너도 남의 집 외아들이고
 나도 내 집 외아들인데
 너 죽일 때가 왜 있으리
 이 길루다 달아나라
 인디질을 풀어놓고
 집으로다가 돌아오니
 기집년의 거동 보라
 김도령이 죽은 줄 알고
 삼오제 지내러 올라가서
 아이고 지고나 데고 지고

이제 못 하겠다.

라. 속신어

밤에 생애 소리가 나면 동네에 홍역(마파)이 든다.

여

백

역북동

가. 마을개관

박중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역북동은 김량장동 서북쪽에 인접한 마을이다. 이곳은 최근에 용인시의 팽창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곳으로, 시청을 이전 계획에 따라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역북동은 본래 용인군 수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역말과 북동을 합하여 역북리라 칭하여 용인면에 편입시켰다.

이 역북동의 구성하고 있는 자연 마을을 보면, 평촌은 김량장동과 인접한 동쪽에 있는데, 벌판에 자리를 잡은 마을이라고 벌말이라고 한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신성은 평촌 마을에 한국전쟁으로 생긴 피난민을 위한 가옥을 건립하였는데, 처음에는 수용소라 불렀다가 새별마을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기록한 이름이다. 역동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금량역이 있던 곳이라 역말이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 표기인데, 이곳에 운정이란 물맛이 좋았던 약수가 나오는 샘이 있어 운정이라고 불렀다. 신대는 역말의 서쪽에 새로 터를 잡았다고 하여 새터말이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곳에 마을이 생기게 된 것은 새로운 주점이 생겼기 때문에 신점이라고 하여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관골은 관터가 이 골짜기에 있어 불려졌다고 하나, 금량역에 속한 관원들이 살아서 비롯된 명칭으로 보인다. 낙은은 김량장동 북구와 인접한 마을로 나그네들이 쉬어 가던 곳이라 나그네골이라고 한 것이 변음이 된 이름인데, 마을의 뜻을 한자로 표기하여 여곡이라고 쓰기도 한다. 중간말은 새터와 구성의 중간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구성은 마을이 구석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운터골은 일명 음덕굴이라고 하여 낙은 마을 북쪽에 있는데, 아마 금량원이 있어 원터골이라고 하다가 변음이 되어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나. 설화

1. 함박산의 유래(홍수 전설)

김봉서(76, 남)/ 역북동T 1앞

[관곡]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첫번째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평소 한복을 즐겨 입어 저고리 동정을 사 가지고 돌아가시는 할아버지로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 본 고향이 황해도 황주로, 그 곳에서 보통학교를 나오셨다고 하셨다. 용인읍 역북동 관곡 340 - 5통에 사신다고 친히 적어 주셨다.

함박산이라고 있어요 함박산. 저기 가면 보여요, 함박산. 여기 저 명지대 학 앞에 가면, 거 보면 함박산이 제일 높아요. [조사자 : 예, 함박산이요?] 저기 성산도 있고, 저건데.

에, 그런 나도 80까지 됐지만 얘기 들은건데, 함박산이라고 있어요, 함박산. 함박산 넘어서 가면 제짜 이동면 저 고개가 있어요 그전에 옛날에 여가 바다였었는데, 바다. 바다. 바단데, 왜 함박산이라고 이름을 졌냐 하면요, 함박만큼 남았대. 여기 물이 침수가 돼 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고려 · 신라 · 백제 저거 당시 있지. 근데, 그래서 함박산이라고 지었다고.

고 밑에 가면 문흔 고개가 있어요, 문흔 고개. [조사자 : 문, 뭐요? 문어?] 문흔, 문흔 고개가 있는, [조사자 : 아! 문흔이요?] 그 고개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배가 글로 넘어가지 못 했대요. 그래서 문흔 고개라 지었고, 그래서 함박산이라고 졌대.

2. 용인의 옛 이름

김봉서(76, 남)/역북동T 1앞

[관곡]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 용인의 지명에 대해 조사자가 묻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기우제와
합경도 오랑 타령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었다.

(요게 용인면이야, 용인면. 용인면인데, 용인읍으로 시정된 지 3년 밖에 안
됐어. 날짜로 3년 전인데 용인읍으로 시정이 됐어.

그전에 여가 물 수자 나무 려자 수여면이었어요 수여면.)

3. 용머리산 유래(떠내려 온 산)

제보자1(70대, 남)/역북동T 1앞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1995. 11. 11.)

역북동 노인회관을 찾아가 할아버님들이 운동하는 놀이터에 찾아 뵙으나,
서로 이야기 해 주길 꺼려 하였다. 그 중 한 분이 우리의 요청에 이야기
한 토막을 해 주셨다. 성함과 연세는 말씀을 안 하셨다.

(용머리 산이라고 칭을 해요. [조사자 : 예. 용머리 산요?] 자세한 건 몰라
도 어느 구절에 장마가 크게 쳐서 떠내려 와 가지고, 용의 머리가 잘라져 가
지고 산이 됐는데.

[조사자 : 아 산이 된 거예요?] 그건 몰라. 그건 얼마가 됐는지. 몇 년도에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조사자 : 그냥 그렇게 전해 내려온다 구요?] 응, 그렇지.

4. 부아산의 유래

제보자2(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노인정 놀이터를 떠나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 조그만 가게 옆에 노인회 간판이 있고 할아버지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두 분 다 일흔이 넘으셨고, 자세한 연세와 성함은 밝히지 않으셨지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저게 질 부자 아이 아자 아이를 진다는 뜻인데, 그래 가지고서 유도대학이 제 생긴 게, 유도는 업는 거 아냐? 그래 가지고서 부아산이 제대로 임자 찾아왔다 그거야.

[조사자 : 아이를 지는 산요? 그런데 왜 아이를 지는 산이라 했어요?] 그건 뭐 옛날부터 내려 왔으니까 내막은 잘 모르겠고. 그게 아이를 지는 산에 유도대학이 들어 왔으니까 업는 게 아냐. 그래 가지고서 유도대학이 제 자리를 제대로 찾아왔다 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5. 여자와 고무신

제보자2(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지금 세대에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할까? 왜냐며는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촌수가 없어, 여자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들과 딸 사이에도 촌수가 없어요. 어머니하고는 아버지에 대한 촌수여.

그러기 때문에, 촌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이 고 무신을 갖다 왼쪽 바른쪽 없이 맨들어 냈어. 왜냐하며는 이쪽 육할지 몰라도(여학생을 보면서) 아무 남자가 신어도 맞게끔 되어 있어, 왼쪽이나 바른 쪽이나. 그렇지?

그건 이치상 그래, 촌수도 없구. 그렇지만 부부지간 같이 가장 친한 친구가 없는 거여. 부부지간 외는. 그래서 이제 친구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여. 단 한 가지, 여자는 그러니까 항시 몸가짐 몸조심을 잘 하라는 거여. 그거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해 줄께. 틀림없는 얘기지 그제.

6. 을지문덕의 성

제보자3(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던 제보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김은석 장군이, 아 어디서 을지성이라는데, 만주 사평성 산성리라는 데가 이렇게 산이 높은데, 거기다가 그 분이 인저 옛날에 진격하고 갔는데, 을지성이 있었데.

그런데 인저, 내가 인저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도 패가 되고, 우리나라 사

람도 손들어 가지고, 만주 놈들이 국치나 가 가지고 쳐들어 간 거여 .

저기서 비석까지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대륙성 기후가 여름철에 언제 구름이 다 닳칠지 몰라. 나 닳치면 어딘가 패고 가니까. 이 번개가 벼락을 치고 가니까, 하다 못해 낭비에 비석 아래 돌을 치고 가니까.

그, 이건 만주 중국 놈이 국치라고 나서, 그 연처에 종종 올라갔다가 산, 이렇게 큰 산 인데 올라갔다가 겁먹어. 거긴 대륙성 기후라 언제 구름이 물려올지 몰라. 거, 건제 구름이 몽게몽게 물려와서 산하고서 벼락을 쳐서 직사해 뻗지고 혀.

이제 한, 내가 동문하고 일하고 중국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 인제 이거는 영혼이 있다. 응 ‘을지산성에 영력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거 못 가서 비석 못 밟고 벼락에 맞아 죽었다. 이건, 이건 송나라와 전설이 내려와서 아무도 못 올라가고 겁이 나서 저 죽을까 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얘기야. 그래, 이건 해방 직전까징두 이젠 일본 놈이 선(손) 뻗 때, 몇 개월 앞두고 나왔지만 사직을 끼지 않은 을지성이라 이 얘기야.

7. 생거진천 사거용인

제보자2(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운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가 독립운동을 부르기를 마치고 자신이 충주에서 이사온 유래에 대해 길게 말을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지명 하나가 상당히 중단 말유. 용 용자 어질 인간데, 용인하면 옛날에서 부터 여자들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 왜냐하면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은 ‘생

거진천 사후용인'이라 했던 말여. 용인에 명당자리가 있어 가지고서 사후용인이 아니거든.

왜냐 하면은 용인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용인 여자가 시집을 와 가지고서 사는데, 아들 하나 딱 낳고서 남편이 죽었어. 그래 가지고서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를 내팽개쳐 놓고서, 저 진천으로 시집을 갔어. 재가를 했던 말여. 거 가서 아들 삼 형제를 낳단 말여, 진천 가 가지고.

게~ 용인에 있는 큰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찾아오긴 찾아와야겠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천 가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 찾아오지도 못하고, 가서 꾸구리지도 못 허고, 그 애들 때때. 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좋다. 어머니가 돌아가면 송장을 찾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진천 가 살아온 거여. 돌아가자마자 어머니를 갖다 모셔다가 용인에다 묻었어. 그러니까 살아서 ‘생거’ ‘진천’이 ‘생거진천’이고, ‘사후용인’이 죽어서 용인에 왔다고 해서 용인이여. 묘 자리가 좋아서 용인이 아니.

거 용인이 골치 아픈 거여, 여자 때문에.

8. 단혈에 대한 일화

제보자3(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가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란 이야기를 마친 후에,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에서 명당이란 단어에서 생각이 났는지 명당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조사자가 해달라고 말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그 얘기 또 해 주세요. 재미있어요.] 왕비혈이 있어요. 용 용비혈. 왕이 거기서는 장군이, 아 나르고는 거저 이렇게 바우나게 하는데, 그 도막 위에도가 쇠를 요만치 댄, 요걸 갖다가 반구를 요만침 떼구는 땅에 들이 박았다 이거야.

그럼 그거는 ‘혈을 질렀다’ 그러는데, [청중 : 그치, 그렇지.] 혈 질렀다 그러는데, 이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나오르는, 이 날개가 이 짝 산에도 있고 저 짝 산에도 있는데, 두들겨 피고는 쇠붙이를 박았다 (말이여). 누가 얘기가 ‘혈을 질렀다.’ 건데, 사실이 이거, 건 지리사에 대해선 모르지만, ‘혈을 질렀다’ 하면 거기 정기를 빼앗기는 데, 그런 게 나와 있더라구.

[청중 : 아니, 숨어 있는 거야. 그냥 숨어 있는 거야. 고기 그대로 숨어 있는 거야, 그냥. 그거 빼면 바로 발복이 되요.] 직접 봤으니까, 세는데, [조사자 : 바로 발복이 되요, 빼면?] 거. 뭐 엄청나게 두들겨 박아 가지고, [청중 : 빨라야 30년. 혈이 끊어지며는 빨라야 30년이 되야 조금 운이 들어 오구.] 일본 놈이 박았다는데, 뭐 하긴 몰라. 이제 이건 불가사이니까. [청중 : 그러니까 그.] 혈을 질렀다는 얘기가, 사람이 침을 맞지 않습니까? 침을 그냥 뽑아 놓 상태니까, 뽑아 노면 꼼짝 못하지. [청중 : 빼야만 낫던지 뭐가 되지.] 딱 찍어 놓은 건 절대로 꼼짝 못하지. [청중 :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침을 빼면 낫던지 안 낫던지 자기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급소를 찔러 놓으면 이건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기를 못한다. 거 정기를 누가 우려라... 무서운 얘기여 외로운 얘기구.

9. 우물 속 명당

제보자3(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명당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것을 물 명당이라고 명명하였다.

자기 아버지가 일류 지관인데 자기 시비는 안 잡더라 이거여. 그래 아들
이 볼 때는 이상 터라. 아버지가 그래도 굴지에 지관인데, 당신의 터는 잡아
되어야 될 께 아니여? 게,

“아버지 어찌 되실려고 아버지 들어왔을,”

“너 베갯을 내다 봐라. 너의 어머니 있니, 없니?”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죽으면은 목을 싹 비어 가지고, 관을 비어 가지고, 머리를 그대로 봉
해 가지고 요 샘에다 느라 이거지. 샘에다 느코, 몸동일 갖다 남 몰래 장사
를 지내라.”

아버지가,

“꼭, 그케 장사 지내라.”

물 명당이라 이런 얘기여. 그걸 엄마가 지나가다가 들었다 이런 얘기여.
엄마가 그걸 안 들었어야 물 명당이 있고 없고 하는 얘기지.

엄마가 인저 들었는데, 아버진 돌아 가셨구. 인제 자식하구 살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 저 아버지 유언을 다 있구, 참 죽은 뒤에 남들 몰래 이렇게 싹
다 해치웠는데. 인제 자식하고 살다 보니까 거 으악이 나 가지구는 ‘오르니,
그르니’ 거 바른 소리가 문제가 돼 가지고는,

“이노므 새끼! 저 애비 목아지 잘라다가 물 속에 장사 지낸다.”

이 소리를 엄마가 소리냈네. 게 이웃에서 들었네. 이놈의 소리를 들었네.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이 들어 가지고는 이웃에서 물을 퍼 보니까, 아주 깨
끗이 짜 가지고 그냥 거기서 집어 는(넣은) 거여. 그 물을 여지껏 먹은 거지
인저. 그러니까, 물 속이 냉해서, 물 속에서 썩지 안잖아요? 얼음에 갇혀 안
썩어요. 냉수에 시체가 안 나타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못 살고 팔려 나가지고 게, [청중 : 아- 뭐시기 됐다고] 게 사람은, 인간이라는 건 비밀이 없어. 특히 명당 비밀인 건. 그리구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비밀이라도 간직해야 할 비밀이 있으면 간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여. 이것이 물명당 얘기예요.

[청중 :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좋은 자리에 못 들어가, 천하없어도.] 자기 아니면 자식들한테도. [청중 : 힘이 없어요 거진 다 그래.] 못자리 좋은 것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착하고. [청중 : 그런 고약한데 보며는, 살아 생전에 아주 고약한 짓을 많이 했지.]

10. 피를 써서 얻어 쓴 명당

제보자3(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운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를 끝마치고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또 인저 해방 후 얘긴데, 아주 가난해서 남의 집 살이 했는데, 그 동네 제일 부자 집에 가서 겹살이를 했는데, 어느 지관이 술을 먹고 그 집에 와 가지고 있었다. 겹살이를 하니깐 산으로 들로 들락날락 하고, 인제 여자 심부름 남자 심부름을 가릴 것 없이 하는데.

아, 고 밑에 제일 부자가 사는데, 한 삼백 석 지기 한단 이런 얘기여. 삼백 석 지기를 한다면 큰 부자는 못 돼. 그 뒤가 그 집 모이(묘)라 이런 얘기여. 할아버지 때 모인데,

“아! 조기다 조금만 모이를 돌렸으면 천 석을 할텐데,”

하고, 이 지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야. 이걸 이 겹살이 하는 그 인제,

남의 집 사는 사람이 인자, 이 소릴 듣고는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얘기를 했다 이겨여.

“거다 모이를 쪼끔만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더라.”

구. 그 마을에 있다 가만히 보니까,

“쓸 수 있다.”

이겨여. 모이를 쓸 수 있다 이겨여.

“내 시키는대로 해라.”

이겨여.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나든, 우연히 미치는데 가장해서 미친 거. 부러 미친 척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 댕기면서, ‘무얼 묻었다 파내고, 묻었다 파내고’ 그러고 다닌 거.

(이하는 테이프를 갈아주는 것을 잊어 녹취하지 못함, 생각하여 후반을 기록한 것임) 그 후 2년 동안 무언가 묻었다 파내는 그런 미친 짓을 계속해 사람들을 속인 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때, 자기 아버지의 유골을 파내어 그 묘 자리에 묻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 부산인가로 가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 돌아 왔을 땐, 그 삼백 석 지기 부자는 망해 버렸어. 그래 그 집을 사서 묘를 다시 잘 해서 잘 살았다.

11. 낱은 청 기른 청

제보자3(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씨내리의 변형된 내용으로, 제보자는 이것을 실제로 일어났던 부산 사건이라고 하였다.

거, 부산 사건인데, 부산 해방 후 부산 사건인데 한 삼천 석은 인저.

칠 남매를 나 논 거, 옛 장사가 그걸 먹여 살릴 도리가 없더거라. 이 실화로 흘러내려 왔는데, 거 먹여 살릴 도리 없어 부자 집에 내뽐렸어.

거, 그 집에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니까 반갑긴 반가운데 이거를 키우나 안 키우나, 안 키울 수가 없으니 키웠다 이거여. 자 근데 아이는 모르는 데 아버이는 알지. 옛 장사를 하고 그저 나와서 옛을 쪼끔씩, 자기 자식이니 까 저, ‘내가 아버지란’ 소린 발설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는 공부 잘 해 가지고, 옛 국민학교 중학교라고 일본, 삼천 석을 하나까 일본 유학을 갔다 이거야. 근데 유학까지 갔는 데도 와서 옛을 비(베어) 준다 이런 얘기여. 대학생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거이 옛을 받아먹겠어.

그래서 안 받아먹고, 그냥 받아 먹긴 받아먹었지. 하도 국민학생부터두 옛을 주고 다정하게 해 주니까 정에 못 이겨 받아 먹음시로 세상에, 이게 아저씨 그러대, 아저씨라고 했는지 할아버지라 했는지 뭐, 그런 아저씨라고 했겠지.

“아저씨는 나하고 우트케 됐길래, 꼬마서 부텨 내가 대학을 댕기고 일본 유학을 댕기는 데도 응 옛을 주느냐?”

이거야. 게 옛을, 게 사실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야. 게 아버지가, 아버지가 얘기를 하나까, 얘기를 하나까,

“그러냐구. 도리 없지요”

그래 가지고서 인저, 전 가서 어떤 노인을 보니까, 할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니라고. 할아버지라고 참 그랬어. 그 할아버지 세계 왔단 말이며. 근데,

“아버지! 누가 있길래 어렵다.”

고. 그러면은 [칭취 불능] 게, 그런 얘기를 죽 하나까. 고백 안 할 수가 없잖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판단을 해야지. 저 와서 이게 돌봐 줬는데, 안 되는 게 이 집 돌봐주고 재산을 들여다고. 이게 합세도 안 되고. 그

래 이 대학생이 딱 생각할 때 기른 정도 있고 낳은 정도 있으니까, 딱 천 석을 때 쥐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때 버렸어.

“이거 인연을 끊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사회문제 밖에 안 되니까. 천 석 지기를 때 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떠나고 가 잘 살고”

그게 그렇게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거든. 그게 뒤범벅이 되면은 이 집도 저 집도 다 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날(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고, 날 기른 분도 부모데 인정에 따라 참 정에 따라 살라 이거여.

12. 욕심을 부리다 잃은 계족산의 명당

제보자3(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사람이 정의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과 노태우 대통령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어 설명하였다. 앞의 것과 같은 풍수지리에 관련된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자신의 고향인 충주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난 충주서 온 사람인데, 충주에 계룡산이 있어요. 남산 계룡산이 있는데, [청중 : 계룡산은 공주지.] 아니 계족산. 내가 잘못 알은 거여. [조사자 : 계족산이 대전에서부터 이어지나요. 계족산은 대전에 있지 않아요?] 계족산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난 모르고 제일 크고, 해발 500m 남산이 한 400m 되는데, 어느 지과사(지관) 하는 분이 과객으로 누구 댁에 들렀다 이거여.

과객이라, 마침 보니까 고을 원을 해먹던 집이라 이거여. 시방으로 말하면 군수쥬. 그래 옛날 과객을 무시 못한 원인이 있어요. 뭐시냐 과객 중에 보따리에 보머는 무신 글을 배웠는지 또 글 배우는 사람이 과객질을 하지.

아주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거 문간에 가서 바가치나 흔들고 이런 뒤, 생활이나 해 갖고 그 사람 뒤. 근데 거기서 인저, 그때 원이 원이라는 걸 몰르고 풍설이니까. 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대접을 받고 나서 조금 안다 그래. 허- 그래 인저 계족산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용비, 학비혈이라 이거여. 학이 나르는 혈이라 이런 이야기여. 나도 들은 얘기지. 직접 올라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참 등에다 (묘를) 이러구 쓰고, 참 그거,

“이거 학 하면 참 옛날에 뭐, 뭐 큰 대인이 된다.”

그러드래 이러거든. 그냥 참 자리도 좋고 훌륭하거든. 그 당시는 대문을 닫고 거 뒤, 매일을 놓고 또 자연 과사매라나, 또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한 잔 되받으면 나오리. 거기서 오래 있으면 자꾸 떨어지잖아. 그리고 나서 점점 잘 되서 집도 부자가 되고, 점점 명위가 높고 잘 됐다.

아, 그게 미련이지 인간. 게 인제 요번에 잘 났으면 대우를 받을 테구. 이제 옛날 이야기 처음에 들어가서, 들어가 자니까 아주 박대를 하드라 이런 이야기여. 되긴 더 잘 났는데, 뭐가 더 잘 났는지 뭐, 돈을 잘 벌었던지 칭송이 많던지. 거 크는, 그 고을에서 점점 명성이 높으니까 큰 거야. 그래 그래 가지고서,

“그 자리다, 양쪽에다 비석을 한 짝 세웠으면 대재해서 대감을 해 먹겠다.”

그러니까. 이 원에 있던 머시기가, 우선 제 욕심만 냄기고 그 이치를 생각지도 않고, 그 고을 원이니까, 대감 막 석수 데려 놓고 비석을 해 가지고 학비혈 양쪽에다 딱 놔 버렸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망했다 이거여.

날아가는 학에 탄, 날아가는 양쪽 날개다 돌을 놓았으니 날라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여. 그래 모든 것은 다 이치에 따라서, 지과사도 이치에 요해 날라 가고, 인생도 다 사회적인 원리에 맞아서 돌아가는 거 아녀.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그런 전설이 있어. 학이 날아가는데 ‘양쪽 날개에다 냅다 비석을 세우면 더 잘 된 데니까’ 그러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될 거다 욕심이 땡겨 가지구. 아 뭐 학이 나를 수 있어. 돌로다 똑똑 눌러 났으니. 그런 전설이 있어.

13. 친정의 명당을 빼앗은 딸

제보자2(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풍수지리라는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여자가, [조사자 : 여자가요?] 왜냐면 저 여자가 시집을 가 가지고서 사는데. 아주 가난해, 아주. 워낙 가난해 가지고서 말도 못 해. 그런 데다가 친정 아버지가 죽었던 말여.

그래 가지고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뭐, 가서 보니까 아주 모이 자리가, [청중 : 한 잔 해요. 아니! 아주 조금만 해요.(음료수를 권하며)] 복호 형이라고 호랑이가 엮드려 있던 자리인데 참 좋아! 암만 봐도 지금도 좋다고.

거다 인제 모이를 쓸라고 잡아 가지고서 구덩이를 파는데, 옛날에는 밤에 지켰어, 꼭. 광부가 파 놓고서 탄 사람들이 침범할까 봐, 갖다가 쓸까 봐 꼭 지키디구. 게, 인자 뭐 부잣 집이구 벼슬 꽤나 하는 집이구 하니까 지키구 있는데, 암만 생각해 봐도 그 노무 자리가 욕심이 난다 말여. 그래 시집간 딸이 ‘뺏긴 뺏어야겠다’ 해서 친정 어머니한테 들어가 가지고서,

“엄마, 엄마! 나 저 약주 술 좋은 거, 독한 술로 해서 한 동이 하구 닭 볶은 거 다섯 마리만 달라.”구.

“너, 뭐 할라구 그러니?”

“아, 글썸 나두 먹구. 응, 사위도 좀 주구. 누구 좀 노나 줄려구.”

“그럼 그래라.”

워낙, 시집가서 딸이 가난하게 살구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지구서, ‘그까 짓 거야 못 해주랴’ 하고 닭 몇 마리 볶구, 막걸리 좋은 약주 한 동이를 주 었다구. 그랬더니 그걸 갖고 응, 닭을 들구 가 가지구서 밤에 지키는 사람 들 에게 갖다가 슬슬 따라 분 거여. 그래 가지구서 독한 술하구 닭고기를 주니 까는, 배도 출출하니까는 먹고서는 뒤로 자빠졌단 말야. 그리고 그 동이로다 가 옆에 개울에 가서 계속 물을 갖다 분 거여.

그래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한강 아녀. 그래 가지구서 인저 모이로 쓸려구 상주가 가서 딱 보니까 물이 잔뜩 고였으니 쓸 수가 없 잤어. 그러니까 일단 지관을 불러다 농구서 묘이 자리를 새로 잡는 거. 잡아 가지구서 탄 데다 쓸라구 할리는 찰라에 시집간 딸이,

“오라버니, 오라버니! 모 자리 어차피 내빌라든 날 좀 달라. 우리 저, 시아 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어디 마땅한 자리가 없어 가지 고서는 그냥 개 끌어 묻드시 묻어 가지구서 아주 불쌍스럽다우. 이거 어차 피 버릴 거면 저를 주시오.”

아! 덜컥 승낙해 버렸네. 아 그게 물 고였것다 까짓 거. 그래 가지고서 친 정이 쫄닥 망했어. 친정은 쫄닥 망하고 그 집은 부자가 되어 가지고서, 그 전주 이가 효령대군파, 아주 잘들 살아요.

14. 주원장과 이성계

제보자2(70대, 남)/역북동T 1앞뒤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의 집안에 관련된 말씀을 하였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준 것이다.

주원장이 하고 우리 이태조 하고 같이 등극을 할 때, 이거 너무 거창한 거 같은데, 그짓말 반 참말 반인데. 근데 어느 집에 아가씨가 있는데, 과택이 었다 이거여.

과택이 있는데, 거 인제 딸을 길러 곱게, 곱게 길렀는데, 꿈에 자꾸 그 미 남자가 찾아와. 이쁜 미남이 찾아오니까, [청중 : 아무 기탄 없이 얘기해요 기탄 없이 얘기해요.] 찾아와요. 거 심지어 몸까지 팔렸다 이거여. 어 몸뚱이랑 몽사까지 이뤘다 이거여. 그냥 자꾸 이쁜 남자가 찾아와 가지구서는.

그래 가지구서는 도태(임신)가 됐네. 도태가 되어 가지구 아들을 낳았어. 근데 남자도 없어. 남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꿈에 몽사를 해 가지고 도태를 했는데, 근데 어머니하고 나이가 사춘기가 들어가니까 담판을 하는데, ‘나 이거 영락없이 애비 없는 호로새끼야.’ 옛날에 애비 없는 호로새끼가 무슨 말이나 하면? 말할 것도 없지. 거시기 그래서 저다, 저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엄마하고 담판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설움 받고 살 수 없어. 나가면 ‘애비 없는 호로새끼’라고 이거 살 수가 없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엄마! 애기 좀 해 줘요.”

“난, 애기 알 길이 없다.”

이거야. 게,

“너는 어떻게 됐냐면, 난 몽사를 한 사실이 있다. 꿈에 하두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아냐, 몽사를 해서,”

하루는 하얀해 가지구 바늘에다 실을 꼬여다가 명주실 있잖아. 서서히 풀려 나가는 거 있잖아, 베 짜는 것. 거기다 꼬여 가지고 옷에다가 꼬매 났다 이거야. 단단히 안 빠지게 땡여 났다 이거야.

그래 일찌감치 날이 샘으로부터 저기 압록강 사는 거기 다시 찾아가는데, 실 끝 따라서. 그래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실 끝에 매달려 죽었는데, 물 위에 물건은 개뻬그든. 이렇게 잡으 땡기니까 수달피가 죽어 있어. 꼬여서

수달피가 죽었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 질로,

“야! 난 수달피가 아버진가 보다.”

옛날엔 단군이 곰의 자식을 갖다, 수달피의 아내인가 부다. 그래 알고서는 그저 먹으면 강애가 높고

내다보니까 그 산기슭에 ‘모이 관 들어 갈 만한 곳이 딱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옛날 관 들어 갈만한 곳.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물 속에 들어가서 잠겨 보기도 하고, 꺾기도 잡고, 물 속에 오래 헤엄을 치니까 물 속을 어느 정도, 아주 헤엄에 능란하지. 거 가보니까 이렇게 드러누워 사람 죽은 시체 진짜 꼭대기 관은 누울만 하고 탁 드러누워 있다 이 말이여. 거기서 참 노는데, 한 번은 점잖은 노인이 와서,

“애야, 애야! 애 너 저기 헤엄쳐 들어가 봤니?”

“예, 들어가 봤어요.”

“거, 어떻게?”

“거, 관 꼭대기 쓰고 밑에다 쓰고 사람 죽은 거, 시체 관 두 개 넣으면 마침 맞겠대요.”

이거 바보지. 물에서 들락날락,

“그럼, 너 거기까지 뭐 운반할 수 있겠니?”

“네,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관두 해겠니?”

“뭘, 관은 개법지요. 물 위에서 까짓 거.”

그러면,

“밑에다 쓰면 대국천자가 되고, 위에다 쓰면 조선왕이 된다.”

이거여. 그래 인제 이렇게 관을 가지고 물 속에 헤엄쳐 들어가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자가 위에 있지 어찌 아래 있느냐’ 말여. 지기루 있지. 천자가 위애가 있지 아래가 있을 수 없지. 빌어먹을 바꿔치기 했다고.

그래서 그거 관을 바꿔치기 한 거야, 바꿔치기. 바꿔치기 했는데, 밑에 그거는 그러니까 인제 위에 쓸 이 사람은 정기를 빼앗겼지. 인저는,

“너는 천자가 되어라.”

인저, 거기서 즈 아버지를 모신 것이 꺾여서 주원장이 되고, 한국에는 이 퇴계 아니 이성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저 아득한 옛날에 전설이 내려와 있어. 이진 그짓말이래도 이치는 맞아.

(이후 누루하치에 대한 설명 생략)

다. 민요

1. 함경도 소랑 타령

김봉서(76, 남)/역북동T 1앞

[역북동]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이 노래는 용인의 이전 이름에 관한 지명을 마친 다음에 기우제 대해 말씀한 뒤에 생각이 났는지 불러주신 것이다. 이것을 끝으로 다른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함경북도 · 함경남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있는데, 함경도라는 데는 배를 많이 타고 저기 해야 하지 몰라요, 함경도 저 뭐이가 노래가 있어. 오랑 타령 본 고향이 함경도 원산이지. 근 말이 있잖아? [조사자 : 끝까지 해주세요?] 아, 근데

시자데이 자라개

경서하고도 신마찌라

하는 말이 있잖아? 함경도 오랑 타령

2. 독립운동가

제보자3(70대, 남)/역북동T 1앞

[6리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채순, 이호경, 최윤정 조사 (1995. 11. 11.)

앞의 을지성에 대해서 구술한 다음에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불러 준 노래이다. 이 노래는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독립 운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라 하는데, 제보자는 고학할 때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만 가서, 저-학생이 학교 땡길 시에는 독립가가 삼백 몇 가지나 되. 만 주 만해도 그런데 우리가 부른,

청춘은 맑고 맑은데
 앞을 가리고 다시 보지 못하는 이몽이로다
 잠든 나라 깨워서 고향 살리고
 천만리 앞을 나서고 가자

젊은 고학생 시절에 부르게 되어서 잊어버리도 안 해. 입에다 설설설설. 가서 차안서 따먹고, 데모하고, 위암 철인 것은, 이제 이런 것을 우리 국사적인 훌륭한 일화로 얘기 거리가 됐지만. 이에 뭐, 용인에 와 보니까 하전찰어. 충 주에서 이사온 지 2년 밖에 안 되는데.

삼가동

가. 마을개관

박중수 강현모 최지선 우진희 이유진 조사 (1995. 11. 4.)

삼가동은 용인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쪽으로 10분 정도 걸리는, 역북동 서쪽에 인접한 마을이다. 메주고개와 용인정신병원으로 넘어 가는 세 갈래길이 있어 삼거리, 세거리, 삼거동 등으로 불렸다. 또 이곳에 주막이 있어 주막거리라고 하였다. 삼가동 본래 용인군 수여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삼거리에 서동을 합쳐 삼가리라 칭하고 용인면에 편입시켰다.

삼가동의 구성하고 있는 자연 마을을 보면, 우선 삼거동은 위의 설명한 것과 같이 삼거리가 나 있다고 하여 불려졌는데, 일명 주막이 있어 주막거리라고도 불렸다. 궁촌은 옛날 궁에 소속된 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궁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일설에는 내시들이 말년에 이곳에 나와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궁말(궁촌)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생식 기능을 잃은 내시들이 집단 거주하였던 마을이라 빗대어 궁촌이라 부른 것이 아닌가 한다. 떡조원은 떡조고개 옆에 있는 마을이라 고개의 이름을 따서 칭하였고, 상직동은 궁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삼거리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있는 마을이라 상직, 또는 곧골이라 한다. 그리고 하주막은 주막거리 아래 있다고 불려진 이름이고, 새터말은 궁말 동쪽에 새로 건설된 마을이라고 하여 불려졌는데, 일명 선거동이라고 부른다.

삼가동은 도로를 사이로 삼가 1리와 삼가 2리와 삼가 3리로 나뉜다. 옛날에 이 마을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오늘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렇지만 삼가 2리는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았다. 이 마을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집에 계시거나 소일거리를 하시고, 자식들이 여러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것 같다.

이 마을 주위에 보면 절이 몇 군데 있어서 신앙이 불교인가 생각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다양하였다. 그리고 마을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 굿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나. 설화

1. 삼가리의 효자 최춘봉

최석근(72, 남)/삼가동T 1앞

[궁촌 방이간] 박종수 강현모 우진희 이유진 최지선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우선 이장을 찾아갔으나 부재하였고, 노인정의 문도 굳게 닫혀 있어 막막하였다.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직접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개를 찾아가면 아프게나 부재하였다. 그런다 한 아주머니를 만나 앞에 있는 비석에 대해 묻자 방아간 집을 가면 알 수 있다고 하여 댁으로 찾아가서 듣게 된 것이다.

10남매를 낳아 가지고 참 앓는 가정에서 외 독신이니께는 우리 할머니가 그 저 낳는 것만 고맙게 생각을 해고 손 퍼지는 것만 고맙게 생각을 해고 우리 할머니가 예 손주들을 그렇게, 열을 우리 어머니가 열을 낳아서 길렀어요.

우리 아버지는 앓는 가정이니께는 열을 낳았으니께는, 무슨 재산이나 많아야만 뭐 재산가지고 해지. 앓는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났으니께는, 그래서 저 산 너머에 가 가지고, 눈이 그렇게 허영게 와도 지겔, 땀나무 지게를 지고 가 가지고선 그 눈을 굽어 체치고 거기서 남구를(나무) 해다가 용인 시장에 가서 식전에든 팔아 가지고 와 가지고 참 그걸로다시리 학비를 내고.

또 할머니가 앞을 못 보셨어요. 앞을 못 보시는데, 그 모친을 모시고서는 그 오일만큼 그 뿔나무를 용인 시장에 가서 팔아 가지고 그걸 오일만큼, 지끔은 고기가 항상 있지마는 그때만 해더라도 이 소 한 마리를 해 가지고 여러 고깃간에서 노나 가지고 팔고 그런 시절이거덩요.

근데 그 한 근을 사 올 것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오 등분을 냅니다. 오 등분. 오일만큼 소를 잡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오 등분을 내가지고 그걸 '할머니 잡수실 거다.' 해 가지고서는 이 화뢰에다가 그걸 해 드러놓고 앞을 못 보시기 때문에 더듬더듬해서 그렇게 해드려 노면 할머니 잡숫고, 참 이렇게 해 가지고선 할머니가, 그런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지고서 공동묘지에서 모셨어요.

그런게 여기서 뿔나무를 식전에 해지고 가서 그 먼저 할아버지 산소에 먼저 가서, 땡겨서 성묘를 하고 뿔나무를 용인시장에 가서 팔고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로 학비를 대고 식구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 왔어요. 읍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재산이 많아야만 뭘 하는데, 재산도 없고 그라니깐 념의(남의) 농토 농사짓고.

그러는 데도, 할머니가 10년 동안 앞을 못 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그, 에- 지끔이면 돌아가시면 그냥 그때 당시 그냥 모시고 일 년만에, 절에나 갔다가 모시고 이래지만, 그때는 제청을 해놓고선 삼년상을 꼭 냅습니다. 삼 년 동안 산소에를 하루도 안 빠지고 가고. 이 공동묘지에 기신 데도 그냥 뿔나무를 해지고 가서 용인에 팔러갈 때면 해서 거기 가서 땡겨오고 하시고. 참 이 지팡막대(손을 크게 벌려) 삼 년 동안 짚으니쨌 반정도로 남을 정도로 지팡이가 닳고.

그래 가지고서는 참! 세상에 저런 분 없다 눈이 와도 산소에다 눈 쏘고, 비가 와도 비 그치고 나면 산소가 어떻게 됐나 갔다 오시고. 그래 그런 사람이 없다고 용인군청에서 돌 올리고, 도에서 중앙으로 올려 상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읍는 가정에서 애들 그렇게 근실하게 길르고 착실하게

길르고 그런다가 해 가지고선, 그리고 이십 년 동안이라는 것, 참 일 년도 어려운데 십 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앞을 못 보시는 부모님 모친을 갖다가 그 고기를 매일 극진히 화취에다 해서 그걸 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보통 성 의입니까? 그래더라도 내가 그 손 아들이지만,

“예! 그렇게는 못 합니다.”

우리 아버지니젠 그렇게 하셨지, 참말로 못 해요. 어느 암만 효자래도 참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선 인제 돌아가셨는데, 인제 돌아 가지고 나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여기 인저 산을 그래도 뻔나무 장사라도 그래가지고 애들 키우고

좀 그래도 여유 돈을 모아 가지고 산을 사서 항상 이 부친 산소, 내 산 사 가지고 모시는 게 원이라서 한테 모셨어요. 근제 모시고 났는데, 거기 그 그냥 매일 아침저녁으로 참 삼 년 동안을 올려 내리시게는, 이 저런 분이 없다고 말이지, 이 근래에 없다고 말이지 군청에서 늘 와 가지고 이렇게 상을 주시고, 참 애는 많이 쓰셨죠. 우리 아버지가 십 남매를 길러 가지고서는 그 장성하도록 길르자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옳는 가정에서.

2. 궁촌의 마을 유래

최석근(72, 남)/삼가동T 1앞

[궁촌 방아간] 박종수 강현모 우진희 이유진 최지선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마을의 이름이 생긴 유래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예. 이 동네 이 궁촌이라는 이름조차, 궁에서 그 일 보던 내관들이 참 세

집이 살았어요. 그래 가지고선 그 사람네들은 내관일망정 관에서 재산을 많이, 땅을 많이 쥐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 전지를 다 해먹고 추수를 해가고 이래 가지고선 살았는데, 옛날같이 그 후손을 이어 내관을 찾고 양자를 해 왔거던요.

그 이제 저 충청도 충북 사두사방에 가서 어린애들을 이, 그러나 내관이 될 거 같으면 그 애들을 데려다가 손자를 삼고 아들을 삼고 이렇게 키워 가지고선 내려왔는데, 내가 산 어려서부터 여기서 내관 세 집을 알았지만은, 그 사람네들이 인제 차차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본계는 인제 세상이 자꾸 개화가 되게는 양자도 안 하고, 양자도 인제 하려들지도 않고 이래니께는 내관들이 자꾸 스스로 인제 그 말하자면 손이 끊치는 거지.

그래 가지고선 자기 친족들을 양자를 해 그 재산을 다 물려주고, 그 친족들. [조사자 : 그 친족들이요?] 예. 그래가지고 내관이 한 사람 그 나이 많이 잡순 분들은 돌아 가셨겠지만, 여기 떠나 가지고 한 사람 젊은 사람이 지금 한 75센가 지금 되는 사람이 지금 영등포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여기 큰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와요. 그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인제 영등포로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 인자 한 사람이 여기 지금 그래두 알던 서로 그 예 친지를 그 저기 해기 위해서 여기 큰일에는 이 많이 참석을 해요. 그러고 세 집이 그냥 다 예 자기 친족들을 양자를 해 가지고 친족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이렇게 인제 그렇게 되고. 옛날서부터 그래서 여기가 궁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사자 : 내관이요?] 예. 내관이 살고.

그리고 여 능안이래는 여기가 지금 있는데, 이 옛날에는 정부에서 그 능을 쓰기 위해서 거기를 잡어 가지고 능안이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인제 고을 마을인, [조사자 : 무덤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거기서 애기능이라고 하나 갖다 쓰고, 그 외에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론 쓰지 않고 그래서 그 능을 잡었기 땀에 능안, 그 고을 이름이 능안이래는 데가 있고 여기는 내관이 살기 땀에 예 궁촌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랬습니다.

3. 성묘하면 자손이 죽는 호혈 묘

최석근(72, 남)/삼가동T 1앞

[궁촌 방아간] 박종수 강현모 우진희 이유진 최지선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지명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야기로 좋은 명당이란 호혈이 자손을 죽게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묘이를 썼는데 이 부화산에서 거기가 북향이 됩니다. 북향이 되는데 내가 어려서 듣기는 호랭이 혈을 호혈이라고 했어요. [조사자 : 호랭이 혈요?] 예. “그 산 내력이 호랭이 혈이다. 거기다 묘이를 쓸 거 같으면은 상제들이 이 묘이엔 갔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마 했죠. 그런가 그래 가지고선 노인들 말씀이 그 묘이를 쓰고 저 아래서, 저 아래서 쳐다보고서는 거기서 성묘만, 절만 하고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 작년에요. 작년에 그 묘이를 찾으러 서울서 인천서 부평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와 가지고서는 그 족보에, ‘박씨 아무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 묘이는 내력이 북향이다.’ 인제 이렇게 썼는데, 그걸 보고선 인제 이걸 향해서 찾는데, 그 묘이를 찾았어요. 그래 가지고선 그 사람한테다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묘이를 찾았으니 내일이라도 오시고, 틈 있는 대로 당신 시간 나는 대로 와 그 묘이를 찾았으니 와 보고 가쇼.”

그랬는데 그 이튿날 왔어요. 그 사람이 와 가지고서는,

“여보! 그럼 할아버지 묘에 그 가보면 나무가 그냥 아따구가 서 있고, 그냥 큰 나무 적은 나무 이렇게 막 그냥 뽕 둘러섰는데, 여기 그러니까는 묘이 찾은 제가 근 100여 년 되다시피 하는데 가서 성묘만 할라구 그래도 저 술

이래도 한 잔 가져가서 붓고 절을 하고 그래야지. 당신이 암만 이장을 해 가더라도, 그거를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붓고 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그게 맞습니다.”

그래 즈이 작은 아버지가 75살인데, 그 할아버지 따라서 그 한 번 왔던 묘 얘기를 하는데, 와 본계는 뭐 전전 뭐 캄캄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산소에 가서 그 이 술을 분구 절을 허구선, 이래구선 바로 이장을 해다가, 한테다가 이 가족 공동묘지가 있으니깐 그리로 모시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날르고 이 포크레인 놓는 데는 얼마구 뭐 하면서 얘기를 해. 그리구는 ‘얼마냐’구 이렇게까지 꺼정 얘기를 해놓고는 갔습니다. 그 날 간 날로서부터 종무소식이예요. [조사자 : 왜요?] 그러니께는 ‘그 산소에 왔다가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그 전설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왔다 갔으니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나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서는 지금 아주 종무소식이 되 버렸어요, 묘이는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 종손이래는 사람이 그 묘이에 가서 성묘를 하구 갔다 이거여. 술을 분구 그루구 간 뒤로는 아주 소식이 뭐 끊어진 거여. 그러구선 그 묘이를 파다 이장을 한다고꺼정 얘기를 하구 가구, 하구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주. 그래서 내가 그 전화번호를 여기다 어디다 뒀는데, 영 내가 다시 전화를 한 번 걸어 가지고선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할라는데 전화번호도 어디로 없지. 그래 가지고선 연락도 못하고 그냥 올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종무소식이 되 버렸어요.

[조사자 : 호랑이 혈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 혈이니께는, 거기 산소에 왔다가 그렇기 땀에 거기 가서 술을 분구 그냥 아주 소식이 끊였으니깐. 일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다고요. 그 묘이가 박지향씨네 그 헤인데, 묘이가. 그래 이젠 해가 이렇게 다 넘어 갈려면 그 묘이에 해가 비춰요, 묘이에만. 해가 딱 해는 일몰하다시피 하는데, 그 해는 그 산소에 비

취거든요.

“아휴! 저 박지향내 묘이에 해 비천 것 보니겐 해 다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해가 다 넘어갔으니까 쇠꼴들 비러 가거라.”

노인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허시고 오늘꺼정 전설에 내려오는 얘기가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근데 그 묘이를 찾아준 후로는 종무소식이예요 [청중 : 그런거지 뭐 통부게(북어)하고, 오래된 묘이에 갈 땐 통부게하고 콩나물을 삶어 가져가 끼엿이고 그게 예방이래요 그러면 아무 탈이 없데요. 그렇게도 안하고 그러니깐, 술 한 잔만 가져가 빼죽 부어 났으니겐 그렇지.]

4. 담력 시험

최석근(72, 남)/삼기동T 1앞

[공촌 방아간] 박종수 강현모 우진희 이유진 최지선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귀신이나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느냐고 문자 생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귀신이 없다 있다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장담을 허고 너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잤다시리 확실히 알래며는,

“너, 저 아무대 지금 공동묘지에 가서, 그 아무개 묘에 가 가지고서는 말뚝을 박고 오너라. 예, 너 귀신이 없다고 장담을 허니.”

그러니께는 이 사람들이,

“그럼 가서 내가 말뚝을 박고 오면은 너들 어떡 할꺼냐?”

인제 이러니께는,

“술을 실킨 사 달래면 사 줄꺼고, 너 무슨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

근데 방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 인제 이 사람이 그 공동묘지에 갔어요, 말뚝을 깎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깎아주고서,

“이 말뚝을 박고 오너라.”

옛날에는, 지금은 양복 입고 코트 입고 이래지마는, 옛날에는 두루메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서 말뚝을 박는 것이 이 두루마기 자락 채 박았어요, 때려 박는 것이. 게 일어 날래니께 말뚝이 때려 박았으니,

“애, 입마 뇌라. 아! 뇌라, 뇌라.”

이래가지고 자빠졌다 옆으러졌다 자빠졌다 이래거던. 사람들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서 궁금하다 이거여. 이 사람이,

“이거 정말 이거 괜한 짓들을 해 가지고선 그 사람을 거기 보냈다고 여기 올 때가 지났는데 안 온다고 사람들이 가자.”

고 이 말이지. 기본께는 이 사람이 그거 그래거던, 쳐다 본께.

“뇌라. 으짜구 뇌라.”

그래구 이래구선 옆드러졌다 일어났다 자꾸 그래거던. 아 그런께는,

“어, 저 사람 머리 돌았으니 저거 클 났다.”

구. 그냥 가서 아 사람들이 잡아당겨 본께는, 아 진짜 후루메기 자루를 뭐 이 안 놓거던. 그 이 말뚝이 그냥 드리박은 것을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선, 그때 가서야 말뚝이 박혔다구 빼 놓구서는, 그래 그 사람이 그 길로 병이 들어서 죽었테요.

그런젠 그런 짓도 못 할 짓이다. 그래 인제 귀신이 없다고 장담을 하고 갔는데, 그 두루마기 자루채 때려 박었다 이거여. 그런젠 이제 후루마기 자루를 올래니께는 그 붙들린 채 와. 올 수가 없지. 그래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참 웃으며 얘긴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럴 께 아닙니까? (웃음)

5. 호랑이한테 잡힌 여자 살린 스님

최석근(72, 남)/삼가동T 1앞

[궁촌 방아간] 박종수 강현모 우진희 이유진 최지선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조사자가 호랑이나 훌륭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용인군 남산(남사?)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렇젠 그 산이 유명한 명산이에요. 거기 산도. 그래서 옛날에 참 거기 대사님이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옛날 얘기도 잘 해주고, 날마등 내려와 가지고 잘 해주고.

참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 사랑방이 있어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자기 집서 텔레비 보지만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는 참 옛날 얘기도 하고 얘기 책 보고 참 이랬는데, 그 대사님이 그 날마등 와서 옛날 얘기 해고 참 좋은 얘기해 주고, 그 스님을 노다지 기다렸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한날은 올 때가 지났는데 세상 안 오거던요? 안 오니께는,

“자! 이상하다. 올 때가 지났는데 우째 이 사람이 이렇게 안 올까.”

하고선 말이지. 이 대사님이 어째 안 오시나 하고선 자꾸 궁금하게 기다리고. 이 때나 올까 저 때나 올까 기다릴께는 세상 안 오더라 이거여. 그래 가지고선 ‘이상하다!’ 하고선 등불을 밝혀 가지고 그 길을 그 오는 길을 나서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스님 오는 데루 다시 그 길루 다시 가 보니께는, 스님이 웬 젊은 여자를 하나를 업구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구 내려오더라 이거여. 그래,

“우젠 일이냐?”

그러니께는,

“우젠 일이나 마나 이 여자 좀 살리자고 말이지. 이 여자를 살려야지 안

된다.”

그래 가지구선 이 방에다 갖다 뉘이고, 그냥 뜨뜻하게 장작불을 때고, 이 불을 갖다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 가지구서는, 이 그냥 사람들이 주물르고 그러니께는 이 여자가 깨어났다 이런 얘기여. 그래,

“어떻게 된 사실이나?”

이래고 보니께는. 그 여자가 보은 사는데 시집온 지 3일만에 호랭이가 업구서는 이 여기로 온 거예요 [조사자 : 충북 보은에서요?] 예. 보은서 하룻저녁에. 그럼 호랭이가 어이쿠 지금도 무섭다구 그러지만, 호랭이가 얼마만큼 날르냐 이런 얘기에요. 아 그래 가지구서는 보은서 그 여자를 업구와 가지고서는, 그 여자를 갖다시리 이렇게 모을 변단에다시리 이렇게 놓구서는 호랭이가 앞발 들고,

“어흥!”

하고 소릴 질러 것 같으면은 여자가,

“갈갈갈갈!”

하고 웃고. 또 앞발을 내려놓으면 그치고. 또 이렇게 들구선 앞발을 들고,

“어흥!”

할 것 같으면,

“갈갈갈갈!”

하고 웃고. 그 대사님이 본께는 저 여자를 꼭 죽일 것 같더라 이거여. 그래서 그 여자 그 ‘갈갈갈갈’ 하고 웃는 뒤로 가 가지고 여자를 그냥 실그러니 자기 뒤루다시리 그냥 이 잡어나워서 뒤로 해놓고서는, 자기가 여자 행세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여.

“갈갈갈갈!”

하고 웃고 말이지. 그래니까 호랭이가 버쩍 앞발을 들쩍에, 그냥 이 대사님이 가서 허리를 배차어 가지고서는 호랭이를 그냥 힘있는 대로 끌어 안구선, 그래 가지고선 호랭이를 죽였어요. 그 대사님이 그래 호랭이를 죽이구 나가지고서는 그 여자를 업고 내려왔다 이거여. 그래 인젠 이 마을 사람들

은 고지가 안 들리거든. 그래더니,

“그 현장을 가 봐라 말여. 호랭이가 죽었으니 가 봐라.”

그 현장을 가보니까 호랭이가 죽었다 이 말여, 사실이. 그래 가지고서는 그 여자를 깨나 가지구 그 주소를 물어 본께는 충청북도 보은이라고 해서, 문경 새재 넘어 보은이라구 해서 그리루 연락해 가지고서는 여기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 이 빨리 와서 데려가도록 허라.”

그러자, 그래 이러구서는 사람을 또 그리루 보내 가지구 사실인가 아닌가 말이지. 가서 문의를 해니까 하루 저녁에 저녁 먹고 나가더니 없어졌다 이 거여. 그래,

“그 사람이 여기 와, 남산면에 와 있으니 와서 데려 가라.”

구. 아 그래니께는 그 얼마나 그 반가운 일이야. 그 저 잔치한 지 3일만에 그냥 여자를 잊어버렸으니. 그래 와 본겐 대사님한테 사실 얘기 듣고, 동네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깐 사실이 그런 사실이 벌어졌거던. 그래서 그 대사님 바지저고리 해고, 옛 사고해서 그 여자하고 같이 와 가지구서는, 예 그 사람이 살고 그 대사님한테 치사했다는 그런 전설의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6. 호랑이를 만나는 메주고개

허중(61, 남)과 그의 부인/삼가동T 1앞

[삼가 1리] 박종수, 강현모, 우진희, 이유진, 최지선 조사 (1995. 11. 4.)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더 이상 채록할 없어 방앗간을 나와 돌아다 니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를 만나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하여 집에 쉬고 있 다는 제보자를 소개를 받고 댁으로 찾아가서 목적을 설명하자, 옆에 있던 부 인이 인근의 메주고개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공된 이야기이다.

부인: 용인서 신갈 넘어 가는 길이 있어요. 아이! 그러면 구길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그 구길을 가철헌 신길로 맨들었 데는 그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정신병원 그 길이 마창길이었지. 옛날에.

남편 : 그거는 뭐! 메주고개에 대한 유래는 난 모르고 그 메주에서 유래됐 데는 것만 알고 어떻게 어떻게 그 사연은 몰라요. 그 길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길이 인제 그것은 인도고 정신병원 쪽에 지금 난 길은 지금 현대는 그 팔차선으로 되 있지만. 그래고 이쪽에 지금 2차선 이게 인제 본 지방도예요. 그 당시 왜정 때부터 차들이 통행했던 길이고 인도가 변해 가지고 현재 도로가 된 거죠. 8차선 도로가 된 거지. 그래 옛날 분들이 과거보러 다니시고 그럴 때에는 고개로 다니셨는데 그 이름을 작은 메주고개. 요건 큰 메주고개. 뭐 작은 메주고개. 인제 이래가지고 작은 메주고개 길이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인제 뭐 옛날에 마차 타고 지나다니고 그래서 인제 과거보러 그 당시에 인제 뭐 옛날에 마차 타고 지나다니고 그래서 인제 과거보러들 한양 서울로 다닐 때는 그 길을 이용해서 다니시고 그랬다고 인제 그러고 그 당시만 해도 산이고 하고 뭐해 가지구 그 초행길에 뭐 호랭이도 만나고 이랬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어요.

부인 : 예, 내가 신갈이에요, 친정어. 저기 기흥읍 신갈인데, 거기서 우리 그러니깐 친정아버지가 저기 용인장에 마찰 끌구 이 길로 오시면은 새벽에, [조사자 : 메주고개요?] 예. 메주고개로 넘어 오시면은, 마차 끌고 오시면은 호랭이가 그냥 흙을 발로 막 마차 끌고 가는 사람한테 죽죽 막 끼였이고 그랬대요. 우리 인제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구. 시집오기 전에 나 쪼그맣을 적에. 나는 호랭이가.

남편 : 끼였이면은 호랭이는 그 불빛을 제일 싫어하는데, 무서워하고. 그러면 담뱃불 뭐 이런 거 있잖아. 부시기 같은 걸로 불을 켜서 인제 담배를 피고 그러면 그 호랭이는 사라진 데는 거야. 거기들, 불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을 무서워하는데. 그래가지고 마차를 끌고들 다시 뭐 그 나무장사들 하시는 분이 저기 해구 아마 그러신 것 같애.

7. 내관 모여 산 궁촌의 유래

허중(61, 남)와 그 부인/삼가동T 1앞

[삼가 1리] 박중수, 강현모, 우진희, 이유진, 최지선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 이 마을의 유래라 생각이 났는지 역시 부인이 먼저 언급하면서 구술된 이야기이다.

부인 : 33년 됐어요. 내가 시집온 지 33년이 됐는데. 시집오니까 우리 시 할아버님이 계셨었는데 거기서 저기 인담씨라구 내시가 우리 집에 오서 가지고 우리 시할아버님한테, ‘형님, 형님’ 하시고 놀러 오시더라고요, 우리 사랑방에. 그 분이 바로 내시셨데요. 근데 거기서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 궁촌서 사시다. 나는 그거 밖에는 몰라요. 우리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인저 그 분도 돌아가시곤 안 와요.

남편 : 그래서 인제 그 이야긴데 옛날에는 지금 인제 행정구역상에서 4개 리가 됐는데, 조선 말기에 인제 그 국내에 인제 내시, 내시분들 내관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분들이 말기에 인제 그 저기가 해체 상태에 될 때에, 국가에서 땅을 이제 그 당시에 뭐, 당시는 뭐 몇 섬지기 몇 섬지기는 엄청 큰 땅이지.

“어디 가서 인제 그걸 가지고 살아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우리 마을에 하여간 내시촌 모임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알기에 네 분이 계셨는데, 그 주민들이 그 분들을 뭐 아주 나리라고 했으니까. 궁에서들 계셨던 분이니까. 그래 그 분들이 상당한 지주 역할을 했어. 땅을 많이 국가에서 그 받아 가지고 여기 와서 사시고 그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양자도 오고 그래가지고 인제 지금 후대들이 살고 그러는데. 당시엔 하여간 여기가 그 내시들이 많이들 와서 살고 계셨다구. 내 생전에도 그 분들 사시던 걸 봤으니까. 그래 대감댁 뭐 그랬으

니깐. 그 분들 칭호를 그런 것도 성글히 해전 역사가 되는 거지.

여

백

남 동

가. 마을개관

박중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1995. 11. 4)

남동은 용인터미널에서 서남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교통이 매우 편리한 마을로, 용인시의 중심지인 김량장동 남쪽에 위치하여 있다. 이곳은 용인군 수여면에 속 하였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대촌리, 동진리, 하리 일부 합하여 김량장리 남쪽에 있다고 남리라 칭하여 용인면에 편입하였다.

남동을 이루는 자연마을을 보면, 옥현은 터미널에서 1km 정도 남쪽에 있는데, 옛 날 장만이란 사람이 고개 옆에 옥으로 정자를 지었다 하여 옥고개라 하고,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다른 일설에는 이곳의 산이 거북이 꼬리와 같다고 하여 구미라고 하는데, 이런 구미는 지형이 구석지고 턱진 곳을 가리킨다. 들옥이는 옥현의 남쪽에 있는 마을로, 들이 옥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한자로는 평옥이라고 한다. 대촌은 옥현의 남쪽, 들옥이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남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무너미라고 하는데 무너미 고개로 넘어가는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신기는 무너미(대촌) 서쪽에 새로 이룩된 마을이라 뜻에 붙여진 이름으로 새터말이라고 한다. 안터는 새터말(신기) 안쪽에 있는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인데, 한자로 내기라고 한다. 동진은 옥현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마을의 동쪽에 군대가 진을 쳤다고 해서 붙여졌는데, 뒤에 한자어만 바뀌어졌다. 덕곡은 동진의 서남쪽 명지대학교가 있는 곳이다. 그 유래는 불분명하나 큰골이라 뜻이란 말로 대곡이 변화되어서 덕골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나. 설화

1. 무너미 고개의 유래

최씨 할머니(83, 여)/남동T 1앞

[대촌] 박중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그 마을에서 좀 큰집에 사시는 걸 보니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 같고 작은
몹집에 등이 많이 굽으셨지만 깔끔한 편이셨다. 사투리가 심하지 않으며
연세에 비해 정정하신 편이다.

여기가 옛날에 지금은 남리 대촌이야. 남리 대촌이라고 하는데 새로나 이
름이 무너미야. [조사자 : 문애미요?] 응. 물이, 이 고개 여기가 이게 용인서
저 고개가 10리, 저 짝 고개에서 여기가 십 리, 그래서 이십 리여. 근데 물이
저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 왔다는 거여. 그래서 무너미여, 문애미.

옛날에는 여기가 무너미 동네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리 대촌이라고 그러
지. 그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그게 전설이고. 그리고 저 느티나무가, [조사자
: 아, 저 큰 나무요?] 응. 저 느티나무가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해요. 옛날에
는 저게 400년 정도 넘었다는 거여.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광고 써다 붙이고
와서 관리를 해요.

여기는 난리 때에도 사람 하나 다치지 않고, 통 이 동네 사람은 사람 하
나 다치지 않았어. 우리가 이 집을 놔두고 피난을 갔다가 3달만에 돌아왔는
데도, 그래서 서울 사람이 피난을 와서 그득하니 집집이 가득가득 해.

우리 이 문가에서 서울 사람 소를 7마리를 잡았어. [조사자 : 소요?] 응.
소를 피난민들이 잡아서 먹고, 난리 때.

2.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17)

최씨 할머니(83, 여)/남동T 1앞

[대촌] 박종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이야기를 문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앞에서 말한 내용이 중복되어 구술하고 있다.

[조사자 : 호랑이 꽃감 얘기 아세요?] 옛날에 애가 울으니까 말이어, 별 걸 다 준다고 해도 애가 울드란 말여.

근데 호랑이가 문밖에 와 있다는 거여. 그러는데 애를 나중에,
“꽃감 주려.”

그러니깐. 우린 달래느라고 꽃감 준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애가 울음을 그치는 거여. 그러니까 호랑이가,

“꽃감이 나보다 더 무서운 것.”
인지 알고 달아났다는 거여.

3. 능골의 슈래

유숙(87, 남)/남동T 1뒤

[대촌] 박종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옮기는 도중에 집에서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피부가 검은 편이고 주름살이 많았다. 이가 없어 말을 알

아들기가 힘들고 몸이 쇠약한지 등이 많이 곱고 걸음을 잘못 걸었다. 전에 마을 이장을 하여 그런지 일반 할아버지에 비해 아는 게 많았고, 굉장히 친절하고 말씀도 잘 하는 편이었다.

여기 처음 오시는 거지요? 이 위제 저수지가 있어요. [조사자: 예. 저수지요?] 그 저수지의 그 위 골짜기를 능골이라고 하죠. [조사자: 능골이요?] 예. 능골.

어 임금님 죽으면 능묘 하잖아요. 그 능골요. 그 길가에 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옛날 능리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능골이라고 해요. 고대 아주 옛날 고대에 능골. 그리고 이 고개를 무내미 고개라고 해요. 물 넘어가는 고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물이 꼭 차는 고개라고, 고개에 올라서면 여간 높지 않아요, 여가.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한강 물로 가고 저 쪽으로 내려가면 저 서해바다로 가요. 여기가 상당히 높은 고개예요. 야기서 서울까지 내려가요. 서울 멀잖아요. 120리가 넘잖아요. 그래 저 작은 이젠 저 평택까지 내려가고요.

그래 고개가 유명한 고개예요. 능골이라고 염두에 둔 사람이 없어요. 능골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임금님 묘라고 하는데, 저기 저 저수지 골짜기 위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능골이 있다고 들었어요.

4. 산을 무너뜨린 장수

이가순(66, 여)/남리T 1뒤

[대촌] 박종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조사 (1995. 11. 4.)

앞 제보자의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도중에 집에서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나이에 비해 젊고 활달하신 편이라 말이 많다. 며칠 전 다리를 삐끗해 불편하다고 했다.

여기는 전설 얘기 모르고 여기 남산면 그러게 남산학교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평지 산이 있는데, 그게 옛날 노인이 그러는데, 힘센 장사가 하루저녁에 산을 몽게 버렸다. 그래서 그게 성안이라고.

‘하루 저녁에 산을 몽게 버렸다.’ 그 소리는 있대. 그걸 가지고 성안이라고 더라고.

5. 산 김씨보다 독한 죽은 최가

이가순(66, 여)/남동T 1뒤

[대촌] 박종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글세 야긴 그 소리가 있더라고. 왜 그래 최가가 죽었는데 산 김씨가 죽은 최가를 못 당한대요.

왜 그게 나왔는가 했더니, 최가가 죽었는데 김가가 가서 죽은 최가의 무릎팍을 이렇게 눌렀더니 벌떡 일어나서 마박을 쳤대요. 그래서 죽은 최가가 산 김씨보다 더 독하다는 말이 있더라고.

6. 노루실의 슈래

이씨 할아버지(68, 남) 김옥희(65, 여)/남동T 1뒤

[노루실] 박종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1995. 11. 4.)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자기 종가집의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들은 나이에 비하여 젊고, 농사짓는 사람들에 비하여 얼굴이 희고 고운 편이었다. 키도 크고 성격이 매우 활달하였는데, 말린 고추를 따듬으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 : 여기가 노루실이요, 노루실. 왜 노루실인가 하면, 요기 우리 큰 조상님들, 그러니까 우리 대 종가집, 그 지금 이기형씨네 집이요. 그 집터가 노루가 잡아 뒀어요. 저 꿈을 꿴는데 노루가 와서 내려와선 거기다 집을 지으라고.

김 :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래 전라도에서 대래미 보따리 해 가지고 남부여대서 노인네가 몸져 누우니까 하도 효자노릇을 해서 그런지 토끼가 나와도 죽고, 노루가 와서 죽고 그런 얘기를 하라니까.

이 : 자기가 잘 하는구려. 당신이 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난 이도 빠지고.

김 : 저 아래서 오신 양반이 누구여? 여자여 남자여. 저 아래서 오신 양반이 박씨지? 박씨 부인이지?

이 : 박씨 부인은 왜 박씨 부인이야?

김 : 박씨 부인이래며. 남부여대 해오신 사람들이. 괴나리 보따리 해 가지고 온 사람이. 남부여대 저 아래 전라도선가 어디? 전라도여? 어디 올라온 데가?

이 : 올라온 데가 저기 운봉. 운봉에서 왔어. 저 충청남도 충남 보령에서

가까와요.

김 :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양반들이 거기가 고향이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가 고향인데, 가시덩쿨로 움막집을 지은 거야. 처음에는 움막집을 짓고 사는데, 부모를 모시는데 하두 고생스럽고, 그냥 땅을 파서 그냥 곡식을 심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너무너무 효성스럽게.

옛날에는 효성스러우면 하늘에서 우러러 보는지, 저기 토끼가 그 마당에 와서 죽고, 죽고 그러드래. 푸드득 떨어져 죽고 푸드득 떨어져 죽고 그러더니 꿩도 그러고. 그래서 그걸 해 드리고 해 드리고 그랬대, 이 양반이.

그래서 인제 그걸 자신 양반이 튼튼해져서 그렇게 하고 사는데, 하도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그 자손도 역시 또 부모한테 효성스럽고 너무 잘 하니께, 저 그 위에 꼭대기 가시덩쿨 밭 거기서 인제 뭐야 꿈을 꾸니까, 노루가 그러더라 꿈에.

“내가 집터를 잡아 줄께. 거기다 집을 지으면 제일 부자가 될테니 따라오라.”

고 그래서 그 날 눈이 왔는데, 눈이 하얗게 왔더라우. 그 눈이 하얗게 와 가지고, 그 발자국을 쫓아 내려오는데, 그 저기가 내려와 보니까 요기 노루가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 이렇게. 이렇게 뺨돌아 발자국을 뺨돌아 해놓고. 그랬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 저 가지고 이평화라는 벼슬을 해 잡습고, 그 그래서 이평화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데요, 모든 사람들. 저 아래까지 비비고 땅을 사신 거야.

7. 이평화 집 부자 되기

이씨 할아버지(68, 남) / 남동T 1뒤

[노루실] 박종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같은 소재와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옆에서 부인인 김옥희 할머니가 맞장구를 맞춰 주었다.

그 재산 모을 때 어떻게 모았냐면, 첫번에는 자손들 한 서넛 여덟씩이나 까 먹는 것도 아껴 먹고 절약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첫 번에는 쌀 몇 가마 모으고 그 다음에는 땅 한두 마지기 사고 그 다음에는 돈이라고 생겨. 그래 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고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절약해서 쌀을 사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인저 얼마큼 모이니까. 남은 돈을 불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리대금은 할 수 없고. 뭐 빌려주고 좀 이자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청중 : 너무 착해. 너무 착하게.] 그런 사람이, 하루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던 과객이 쑥 들어오더니, 와선 이렇게 뭘 한참 쳐다보고 내다보고 그러더라. 봐야 암만 봐야 뭐 돈이 있는 거 같지 않단 말야. 돈을 좀 장사밀천을 좀 얻으러 왔는데, 그 이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 밀천이 있기가 있지만 여기 돈을 썼으면 해서. [청중 : 이자가 싸서.]

꿈을 꾸 가지고, 여기 돈을 썼으면 하구 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돈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보태줄 형편이야. 그래서 한 번 물어봤단 말야.

“혹시 돈 좀 꾸 줄려냐?”고.

“모을 거는 없고 꾸 줄 거는 있다.”

고 그러니까

“그럼, 있는 대로 내놔 보라고 내 쓰마.”

그래. 그 사람하고 인저 그때야 뭐 종이 적는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저 얼마 알고선 계약서 쓸 때야. 뭐 계약서나 마나 그 사람 와서 값으면 다 행이요. 떼먹고 가면 그만이지. 어디 가서 찾아. 그런 형편인데.

“아, 2만원만 빌려 간다고 장사해서 값아 달라(준다?).”

고 그래서,

“갔다 쓰라.”

고. 그래 계약을 해서 서로 언약을 하고 그 사람이 가져갔단 말야. 그래 이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서울 가서 물건을 해 가지고 인저 친구 내려가서 파는 건데, 자기 돈을 가지고 할 때는 별로 이윤이 안 남더니 아 이 돈을 갖다가 하니까 곱절이 남거든. [청중 : 그라. 여기 노루가 집터 잡아준 데라. 그런지 잘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 한두 번, 세 번 해 먹고는 와서 돈을 가지고 왔단 말야. 아주 뭐 이자도 싸고.

“당신 이익만 남으면 조금만 보태주면 된다.”

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이 자기 밥 먹고 돈 꿰준 사람 밥 먹게 아주 그렇게 쳐 가지고 왔거든. 그래 갇혔단 말야. 갇춘 그 자리에서 또 달래는 거야. 그래 또 쫓지. 그 사람이 또 갖다. 그 사람 혼자가 될 뉘 주면 곱절이 사 주거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지, 그러지 않느냐. 글썽 그냥 두 사람이 다 결론은, 다 가져가고 자꾸 모으는 거야. 나중에 버쩍버쩍 늘어 가지고.

[청중 : 잘 됐네, 아주. 거기서 여기 돈을 하나님께서 도운 거야. 그래가지고 땅을 다 샀데, 땅을.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땅을 적엔 이 땅을 안 디던 사람이 없데요. 많은 적엔(웃음) 그러니까.] 그래서 인저 부자가 됐는데, 땅을 산 게 그 옛날에는, 땅이 제일이거든. 돈보다 땅이야. 땅을 사 들이는데 달래는 금액을, 그건 뭐 비싸건 싸건 파는 사람이,

“얼마를 줘야 팔것다.”

해면 그게 다야. 그 얼마 가지고 스무 마지기 건 다 산단 말야, 돈 되는 대로. 돈은 돈대로 불리고, 땅은 땅대로 사고 집에서는 인저 절약해 가며 모은 거하고, 장삿군들이 가서 늘려준 거 하고 되고 보니까. 그래 땅을 첫번에는 땅에서 나는 거 우습더니, 한 서너 석인가. 지금 마지기 수로 한 마지기 200평인데, 그 마지기로 20마지기가 한 섬지기로.

한 섬지기는 뭘로 봐야 하나면 그 뻬씨, [조사자 : 뻬씨요?] 뻬씨를 한 섬을 해야 논에 인저 거기를 다 삼을 수 있단 말야. 그게 한 섬지기로, 그게.

그래 그렇게 인제 몇 섬지기가 되니까 그걸 다 먹어? 뭐 1/3도 가지고 와도 다 남고, 자꾸 인제 남기 시작하더니 몇 해 지나니까 마름이, 인제 마름 우리는 그 쪼금 했을 때 뭐라고 꼬부랑 마늘세 받는데 이 당숙, 부모님 아버지들이 그 5촌 당숙.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촌, 6촌까지 다 그 양반들이 모이면 한 30명 된단 말여. 그 양반들이 거기 올라가서,

“넌 어디로 가라, 넌 어디로 가라.”

하고 배당을 줘요 그럼 거기 가서 문서만 그거 가지고 인제 어디 가라는 대로 가. 그 인제 가야 하나면 가을에 타작하고 인제 가야 되거든. 근데 봄 부턴가 가서 토지가 어디어디 있나 토지가 어디 있는가 그걸 보는 거여. 마름이 몇이나 되나. 그 한 마름이면 몇 수십 섬을 가지고 있거든. 동네 땅을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 우리도 거기서 추수를 해 드리면 곡간에 쌀을 언힌 거. 그래 그럼 서울로 연락을 해요. 전화가 없으니깐 인제 인편이지. 연락을 해서,

“몇 백 석 모아 왔소.”

하면. 서울선 그 뭐 먹을 필요도 없거든.

“그냥 두라고 났다가 봄에 다 내다 팔아라.”

이거야. 팔아 가지고,

“땅 나오는 대로 다 사라. 비싸건 싸건 달라는 대로.”

그래가지고 나중엔 마름들이 부자가 되는데, 이 추수하러 간 사람들이 봄에 한 바퀴 뺑 돌아서 어서부터 어디가 땅이 있는 건지, 지방 이름만 써 가지고 오는 거야. 어느 지방에 얼마, 어느 지방에 얼마. [청중 : 경상도는 얼마, 충청도는 얼마.] 그럼. 그거 가지고 사무실에서 인제,

“여름에 팔고 오라.”

고. 그럼 출발할 때 여비껴정 다 줘. 땡기면 먹는 거까지 다. 그래 돈 다 주고 내려가지. 그럼 그 돈을 집에다 두고 간단 말여.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깐, 집에 출발해 가지고 거기서 밥 먹여 주고 술 주고, 채워주고 저기까지 가는 노자까지 다 주거든, 마름들이. 그래야 또 저희가 또 먹을 게 있

으니까 결국은. [청중 :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됐어. 아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할 것 같으면, 그래 종가집을 우리 일가들이 뜯어 먹는 거지 뭐. 여비를 타 먹고 가서 땡기면 얻어먹고, 올라올 때도 거기서 또 여비 두둑하게 얻으니까 가져오고. 가 보기만 하면 거기서 또 인저 왔었다고 또 중단 말여. 그래 마름이 한 번 보고 오면, 집에 양식은 비비고 할 필요 없어, 거기서 다 주니까. 그렇게 이제 재산이 늘었어오.

그러다가 인저 해방이 되가지고, 이박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3년이던가 4년이던가 토지 개혁을 했어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던 말야. 그래 일본 사람이 전부 갈 때 그냥 빈손으로 다 올라가지 않았어? 그래 적산 가옥이지 뭐. 가옥은 적산가옥이고, 그거 인제 전부 일본 농지를 한국 정부에서 뺏은 거 비슷한 거지. 그래 그거를 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농민이 살수가 없단 말야. 그래 정부에서 농민에게 거저 줄 수는 없고. 싸게 해서,

“몇 해 동안 땅 값을 해 놔라. 농사지어 가면서 값이라.”

그래서 인제 토지개혁을 했지. 이렇게 그리고 토지 주인들은, 일본 사람 것은 안 주지만 한국 사람 것은 조가증권이라고 있어오. 이런 조가증권 거기다가 정부에서 도장 찍어서 인제 조가증권은 그 안에 여기 소작농 논 몇마지기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거 한 두장 이면 되지만, 워낙 많은 사람은 백장 이백 장쯤 된단 말야. 그거 하나가 지금 돈 얼마냐면 10만 원짜리 있고 50만 원짜리 있고. 큰 부자들은 몇 백 만원씩 되는 사람은 돈으로 환산 안하니까, 지금 자기앞 수표보다 그게 수표지 뭐. 현금으로 그건 금방 못 바뀌오. 그걸 현금 만들려면 장삿꾼한테 넘기지.

지금 저 뭐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청중 : 고리대금.] 아니야. [청중 : 그렇다고 해 뒤.] 학생들도 배웠을 걸. 한 건 무슨 뭐 따는 거 있지, 잘 보면. [청중 : 증권.] 응. 증권 증권이여. 그래 그걸 가지고 머리가 깬 사람들은 공장 같은 거 그런걸 해서 좀 잘 됐는데, 대부분 토지 가지고 자기가 농사 안 짓

고 농민이 해준 거, 그냥 거저 얻어먹다시피 한 사람이니까 돈 가치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돈 들어오는 거 쓰기만 했으니까, 돈 가치도 모르고 절약이라는 건 없었지. 그거 흥청망청 썼었지. 그랬다가 별안간에 토지개혁 되는 바람에.

8. 박사 집안이 된 이평화 집

이씨 할아버지(68, 남) /남동T 1뒤

[노루실] 박중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된 이야기이다. 이는 노루실 이평화 집안과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부인인 김옥희 할머니가 적당하게 맞장구를 맞춰 주어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청중 : 왜 우리 얘기만 해요. 그래 박사 내려온 얘기를 해야지. 벼슬한 이야기.] 박사는 그 집이 그 저 이기형 박사, 이병로 박사 문교부 장관하고 그 양반이 박사지. 큰아들이 이기형씨라고 의학박사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임 하셨지. 둘째 분은 수원농대 교수로 있다가 그 양반도 의학박사 농학박사여. 셋째는 이태형씨라고 서울교대 화학주임으로 있다가 정년퇴임 하셨어. 그 분도 박사지. 그 아래 동형이라고 있어요. 그 놈은 내 아우 빨인데 나보다 5살 덜 먹었나, 계도 의학박사여. 그 집인 사위도 박사, 아들도 박사, 그리고 딸 하나가 큰따님은 이순병씨라고 그 양반 하나만 박사 아니지. 따님이 들인데 운병이라고 지금 저 한국 병원 있지? 한국 병원 그 원장이 이운병이여. 그 남편은 민씨고, 사위도 박사여 의학박사. 그래 전부 박사만 있지. 사위하고 딸 하구 아들하고 전부 17인가 전부 박사여. 그러군 같은 이서방넌 데 딸 집은 박사라고 하나도 없어. 사촌에도 없어.

[청중 : 거기 그 양반 집안이야. 노루실 거기서 내려온 게 그렇게 박사까지 내려왔다고 이평화 벼슬 따먹고 그래. 그게 전설이라 내가 아까 그 얘기가. 노루가 집터 집 지어줘서 자손들이 잘 됐다 그런 얘기가. 내가 그 얘기한 거야.] [조사자 : 그래서 여기가 노루실이에요?] [청중 : 응. 그래서 노루실이야. 여기는 원래 노루실이 아니야.]

여기는 노루실이고 저 개울 건너는 서움마을. 우째 서움마을인가 하면 거기 서움이 있어서. 서움. [조사자 : 서움?] 이 : 옛날 왜. 음, 좋게 말하면 선비들이 공부하는데, 저기 있을 때 그 양반들이 서움을 놓고선 상놈이 설치는 사람이 돈 가지고 있으면 붙잡아서 죽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그래 죽겠으니까 돈 내놓는단 말여. 그래 그걸 알겨 먹고 그래. 그렇게 나쁜 짓을 해. [청중 : 우리 얘기하지. 왜 저 그 동네 내력을 얘기해.]

그것도 이 서방은 이 서방인데 패가 우리 패가 아니요 차 타고 그냥 술만 먹고 와서 동네사람 패는 거야, 대원군 시절에도. 그것도 대원군이 봉변을 당했지. 자기가 정권 잡으니까 시원찮은 것들을 다 쓸어 버렸지. 그리고 인저 여기는 노루가 있었다고 노루실이고, 저기는 서움이 있었다고 서움마을이고. 현재는 여기가 천삼리고 저기는 팔리. 한 동네데, 그렇게 갈라졌어. [청중 : 그렇게 된 거요.]

9. 소금장수 일화

세계순 (83, 여)/남동T 2앞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마을을 돌아다니는 도중에 집에서 쉬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나이에 비해 고운 편이

며 아직까지 머리에 쪽을 빗고, 인상이 매우 서구적이었다. 할머니는 대전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고 한다.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

옛날에 소금장사를 하다가 저물었어. 날이 저물어서 잘 때가 없어서 동네도 안 뵈고, 그래서 집을 못 찾고서 저기 가다 보니까 쌍묘가 있더라. 묘의가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조사자 : 묘요?] 응.

쌍묘가 있는데 묘의 옆에서 가서 잤다. 쌍묘의가 있는데 요렇게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으면 여기는 사람이 하나는 자잖어. [조사자 : 가운데요?] 응 가운데. 거기 가서 잤다. 그 사람이 거기서 자는데 조금 있다가,
“여보오? 여보세요.”

그러더라. 그래,

“왜요?”

그러니까,

“생일 먹으러 가야지.”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보! 나는 손님 있어, 여보 못 가겠어. 당신이나 갔다 와.”

여자보고 인자 갔다 오랬어. 그 귀신이 여자보고 갔다 오랬어. [조사자 : 가는 여자 보고요?] 아니. 귀신이 하는 얘기여. 그건 귀신이,

“여보쇼.”

그러더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생일 먹으러 안 가? 오늘 저녁에 생일 아냐?”

생일이라고 하더라. 귀신인 제사가 그러니까.

“안 가.”

그러니까,

“나는 손님이 있어서 못 가겠어. 당신이나 갔다 와.”

그러니까. [조사자 : 귀신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럼 혼자 갈까?”

하고 가더랴. 거더니 조금 있다가 오더랴. 오니께,

“그럼 잘 잡셨수. 생일 배기는?”

하니까.

“생일 배기는 뭘 먹어? 저기 밥에는 바위가 들고, 고사리 나물엔 구렁이가 들고, 뭐 먹을 것이 있어? 그러니까 못 먹고서 그냥 부애가 나서 얘기를 불에다 화로다 호딱 퍼다 밀고 왔어.”

그러더랴. 그러니께는 그 이가,

“아이고, 왜 그렇게 하. 못 먹으면 말지 그렇게 하면 되나, 자손을.”

그러더랴. 그러니까 손자가 데었다고. 이제 그 이튿날 잠을 자고, 한숨을 자고서 그 이튿날 동네를 찾아가니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그냥,

“밤에 제사를 지냈는데, 화로불에 아이가 빠졌다.”

고 야단이 나더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 그 날 인저 그이 들으라고 그랬지. 그 소금장수,

“아무 데를 가면 무슨 풀이 있는데, 그 풀로 갖다가 뜯어다가 삶아서 바르면 바로 낫는다.”

그러더랴. 근데 그 풀이름을 잊어 버렸어, 내가 그 풀이름을. 그래서 그 이가 찾아 갔어. 그 이튿날 찾아간 거야. 그 이튿날 찾아가니까 그렇게 야단 났더랴. 그래서 그 소금장사가 저기 인저 사랑방에 앉아서,

“여보쇼.”

“왜 그래요.”

“아무디 가면 무슨 풀이 있다던데, 그 풀을 뜯어다가 삶아서 바르면 낫는 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가서 뜯어다가, 풀을 뜯어다가 바르니까 나셨대. 그게

끝이여.

1△ 하룻밤에 쌓은 정

세계순(83, 여)/남동T 2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호자나 열녀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 홀어머니가 어디를 가니께 소내기가 막 쏟아지더라. 소내기가 막 쏟아지는데, 아휴 남의 집 앞에 가 사람 앞에서도 자꾸 쏟아 지더라. 소내기가 안 그치고 그러니까는 저기,

“들어오시오.”

인저, 사람들이 거기 섰으니까는. 그래 들어갔어. 들어가니 저녁을 얻어먹고 어떡하고서는 잤는데,

“사랑방에 할아버지 있는 데서 자라.”

더랴. [조사자 : 어 딘 할아버지가 있는 데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노인네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더라고. 그러는데 인제 저기서 들어가서 자는데, 아 그놈의 할아버지가 기엄기엄, 위 방에서 자는데 기어 오더라. 그 할아버지가 기어오더니, 저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나를 건드리면 그래서,

“그간 늙은이가 뭘 건드리면 뭐가 될까?”

하고 인저 잤어, 그냥그냥 건드려도 내비두고 잤는데, 아이고! 그 다음에 애가 있네. [조사자 : 그 홀아줌막?] 응. 그 홀애미가 애가 있어서 큰일이네, 걱정이네. 걱정이네 할 수 없지. 인저 그 집으로 되로 왔어. 그 얘기를 한 거야, 아들보고. 큰아들보고,

“이래 저래해서 왔더니, 할아버지가 기어 올라와서 ‘노인네가 괜찮겠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더니 이렇게 애가 있으니 어떡해야 하느냐?”

고.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살으라.”

고 그러더라. 아들이,

“살지 어떡하냐, 갈 데도 없고”

원래 갈 데도 없더라. 그래서 그 집에서 자서 애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
데. 아들을 낳으니까 어떡하겠어. 그 할아버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사
는데 이 할아버지가 죽을 때 말을 할려다 못하고 그러는 거여.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해 보세요, 다 아버지 소원대로 해드릴 테니 해 보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인저, 뭐 앞 논이라나 뒤 논이라나

“서 마직을 뭐, 저 할머니를 줘라.”

그러더라. 그 앞으로. 그래서 그 앞으로 줘서 인저 집에서 살다, 그 할아
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아들하고 잘 살다 죽었다. 뭐 그게 끝
이여.

11. 과부를 얻은 효자

세계순(83, 여)/남동T 2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유형의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
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는 상부한 여자들이 재가하는 방식의 이야기로, 숫구이
총각이의 변형으로 보인다.

또 다른 얘기는, 옛날에는 흠애미두 시집을 못 보냈어. 옛날에는 못 보내

고 보낸다는 게 그냥 내보낼라면 상제 옷을 짝 해 입혀서 흠애미를 내보냈다.

옛날 옛날에는 그래서인지 그렇게 생겼는지, 어떤 할머니가 모자가 사는데, 저 어머니가 죽었더라. 그 집에서 저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밥만 먹고 얻어먹고 그냥 머슴을 살은 겨. 부자 집에서 돈두 못 받고 그 전에는 목구멍 둘만 먹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위했다고 먹는 게 하두 기가 막혀서. 그런게 지 어머니가 죽게 되서 죽었는데,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그만 저 지 어머니가 죽었으니께 깜박 잠이 들지 안 들어. 잠이 드니까, 꿈을 꾸니까 지 어머니를 업고서 가느라고 산을 올라가는데 그러더라. 어떤 하얀 노인네가 내려오더니만, '너는' 그런게 꿈이 그랬나. 꿈이 그랬을 꺼여 꿈이.

“너는 거기다가, 그니 어머니는 비가 쏟아지는데 어떡 하냐고 비는 쏟아지고 큰 일 났어. 그러니까 업고 가다가, 너 올라가다가, 니가 못 업고 가니까, 쉬면은 그 쉼 자리다 물어라. 어머니를 쉼 자리다 묻고서 내일은, 공주서 사는데, 대전을 내려가거라.”

그러더라. 그래서 인저 지 어머니를 갖다가 지고 가다가, 비는 쏟아지고 그 자리다 묻었어. 지 어머니를 묻고 인제 심난하고 하니께, 그 이튿날은 비가 그치고 하니께 대전을 내려왔다고. 그것도 아마 오래 되긴 오래 됐지. 그래서 인저 대전을 내려 왔는데 상제가 섰더라, 문 앞에. [조사자 : 상제, 상제가 뭐예요?] 상제가 거시기 삼베옷을 입고 상제 노릇을 하고 방갯을 쓰고 중단을 입고 그러하고 섰어. 대합실에서 나올라고 하는데, 그 문 앞에 섰더라. 그래서 거기가 가서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상제가 섰더라. 그래서 그 상제보고,

“여보쇼, 어디 가쇼?”

그러니까.

“여서 살아요.”

참 그러더라. 그 여자인디 그 사람이 여자가 먼저 상제가 얘기를 하더라.
그 총각보고,

“당신은 어디 살아요?”

“나 공주 살아요.”

그러면,

“공주 살으면 당신은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나두 공주 가요.”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서 여기저기 돌아 댕겼지 뭐. 그 이가 인저 심심하고 하니까, ‘공주 산다’고 해서 ‘공주를 가느냐’고 인저 함께 갔다, 걸어서. 그 때는 걸어땡길 때잖아. 차 없잖아. 걸어가는데, 가며가며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디 저 요렇게 냇물이 있는데, 냇물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는 바위가 있고, 여기는 냇물이 있고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

“그럼, 저기 가서 쉬어 갑시다.”

그러더라, 여자가. [조사자 : 상제가요?] 응. 상제가 여자여. 옛날에 과부는 상제 옷을 입혀서 내 보냈어. 어디로 나가 '시집을 가던지 하라'고 돈을 줌 줘서 보내. 부잣집에서는 시집을 안 보내고 상제옷을 싹 입혀서 방갓을 씌우고. [조사자 : 남장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지, 남자 옷을 입는 거여. 방갓을 씌우고 중단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보낸단 말이여. 그래서 인저 거기를 가보니까 얘기를 하네.

“나는 여잔데, 아무개 아무개서 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당신을 따라간다.”

고 그러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자네. 여잔디, 그 지 어머니가 어제 장사 지내고 오니까 그 중단을 그 사람을 입히고, 저기 뭐여 방갓을 씌우고 하니까 여자고, 남자의 상복을 벗으니까 하얀 소복을 했던 말이여, 속에는. 그러니까 아주 됐지, 뭐. 그렇게 해서 그 집을 그렇게 용하게도 도사가 일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를 데리고 왔

네. 그렇지.

아 그 여자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땅을 사서 그 날에는 땅두 사잖아.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래서 살림을 차리게 되서 그 사람이 아주 부자가 돼서 잘 살더라. 그렇게, 그런 수가 있다. 옛날에는. [조사자 : 효도를 해 가지고 그런가 봐요?] 응, 그런게 정성으로 어머니한테 잘하고 그래서 그렇지, 뭐. 어머니를 먹여 살려서. 옛날에는 그렇게 도사두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두 없어.

12. 자식 귀엽다고 하면 좋아하는 호랑이

세계순(83, 여)/남동T 2앞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동물이 도개비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나물 뜯으러 간 거 하’ 하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 뭐. 나물 뜯으러 간 거 또 하? [조사자 : 예, 나물 뜯으러 간 얘기는 뭐여. 그것 또 해주세요] 나물 뜯으러 여럿이 나물을 뜯으러 갔더라. 깊은 산중으로 나물 뜯으러 갔는데, 아이고 그 범 새끼가 펍 이쁘다네. 엄청 이쁘다. [조사자 : 호랑이요?] 응, 새끼가.

글쎄 그거는 커가며 이뻐지고. 그건 지랄 같아지고, 팽이 새끼는 좋아진다. 커가며 이쁘다. [조사자 : 고양이 새끼가요?] 응, 뵈기 싫다. 처음에 나면은. 호랑이 새끼는 커가며 미워지고, 고양이 새끼는 커가며 이뻐지고. 응 그렇다. 그래서 나물을 뜯으러 갔는데, 아이 참 오물오물 따듯하니까 나왔어. 나왔는데,

“아이구야, 그거 이쁘다. 우리 하나씩 가져가자.”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서로 이뻐서 안아다가 그냥 났다가 막 그러고, 이뻐서 쓰다듬어 주니께는 범이 웃는다고,

“어형.”

그러더라.

“아이고, 큰 일 났다.”

고. 그라메,

“범 새끼인 줄 우린 몰랐다.”

고. 그라메 죄다 도망을 갔다. 나물 뜯은 거고 뭐고 다 집이 내버리고, 보따리고 다 집어 버리고 집으로 도망을 왔드라. 옛날에는 무서워서 엉간히, 지금은 무서워 안 하잖아.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안 보고 구경도 안 해봤으니까 무서웠지.

그래 가지고서 집에 갔더니만, 집집마당 어떻게 하나두 안 잃어버리고, 고 임. 집집마당 임자 임자를 찾아서 그냥 나두고, 호랑이 새끼를 이뻐만 하고 해 긴지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집집에 다 갖다 뒀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는 거기도 나물하러 못 갔다.

13. 사나운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세계순(83, 여)/남동T 2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사나운 아내나 시어머니 길들이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어떤 색시가 시집을 못 가더라, 그래 그냥 역새가지고. 그런데 또 어떤 시어머니가 역새가지고 며느리를 못 얻더라. 그러는디, 며느리를 선을

보면 깨지고 깨지고 시어머니가 억새다고, 며느리를 못 얻어서 하루는 이웃 집 색시가,

“내가 가서 산다고, 내가 간다”

고 그래서,

“니가 어떻게 가냐?”

하니까, 그래도,

“시어머니가 억셔도 내가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 내가 가서 산다.”

고 그런 거여.

“그럼, 가서 살라.”

고 그래서 그 집으러 시집을 보냈다. 그 집으로 시집을 간다 해서 다 채려서 해서 보냈다. 보냈는데 침에는 잘하지 뭐. 침에야 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나쁘다고 하겠어? 그래서 가서 사는데 잘 살어, 사는디, 뭐 불만도 없이 사는디,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또 억신 짓을 살살 시작 하드랴. 하는디,

“어머니!”

“왜?”

“이 잡아 드릴게요, 머리 이.”

그러더랴.

“니가 이를 잡아 쥐? 그래 잡아라.”

머리 이를 잡았어. 잡았는데 두적두적 다 잡고서 나중에는 인저 막 그냥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어.

“어, 당신이 소문을 듣기를, 이 집이 시어머니가 억셔서 며느리를 못 얻는다고 해서 내가 들어왔어요. 당신이 또 며느리를 못 살게 할거냐?”

고. 막 그냥 머리채를 들고 휘두르고 그냥 때리는 시늉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시어머니를 잡아 났더랴. 잡아놓고서 사는데 뭐 잘 살어. 그러니까 그렇게 억신이가.

14.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2)

세계순(83, 여)/남동T 2앞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애가 꽃감을 무서워 한다. [조사자 : 왜 무서워 하는 데요?] 애가 우는디
별 걸 다 준대도 안 들어. 못 들어. 그러니께,

“호랑이가 온다.”

고 해도 울어, 자꾸. 그러니께

“호랑이가 오면은 어떡하느냐고. 그러니까 왜 우느냐고. 울지 말라고. 그
치라.”

고 해도 죽어도 안 그쳐. 그러니께는,

“꽃감 줄께.”

그러니께는 얼른 그치거든. 아이고 이제,

“나 호랑이보다 꽃감이 더 무서운 건가 보라.”

고 아이고 도망을 갔어. 그리고 다시는 안 오더랴. 그래서 꽃감이 무섭다.
꽃감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15. '죽은 최씨가 산 김씨 당한다'의 유래

세계순(83, 여)/남동T 2앞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앞에서 들었던 죽은 최씨가 산 김씨보다 무섭다는

이야기를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최씨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가 생전 초상난 데를 안 가더라, 죽어도 죽어도 안 가니 뭐. 지 집에 초상나면 큰 일 났지 인저. 그게 큰일 아녀.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죽었는디 수새(수시)를 못 거둔 거여. 죽으면 이렇게 해 놔야 돼. [조사자 : 사람을 바르게요?] 응. 숨지면 반듯하게 이렇게 드러놓고 다리도 뻗혀 놔야지. 이렇게 오그리면 안 뻗혀 져. 오그린 걸 그런 걸 그냥 내버려뒀네. 김씨가 인저 와서,

“염을 해 달라.”

고. 그러니까 염을 할 수가 있어? 뻗뻗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지고. [조사자 : 염요?] 응. 염하는 거, 염. 사람이 죽으면 염하잖아. 염해야 장사를 지내잖아. 옷 입히는 게 염하는 거여. 그냥 수새 거두는 건 침에 죽을 때 이렇게 해놓고, 다리도 이렇게 뻗게 해놓고 똑같이 이렇게 해 놔야 되야. 배에 다 올리던지. 어떻게 하든지 똑같이 해 놔야 되야.

사람이 그러는디, 그걸 못하고 내버려두면 오그라진 대로 굳어 버려, 이 삭신이. 죽었으니까 힘이 없잖아. 그러는 걸 내버뒀네. 내비 뒀는디, ‘염을 해 달라’고 그러니 염을 어떻게 하. 이게 뻗혀져야 염을 하지.

그러니까 염을 못하면 디딤돌을 올려놔. 이게 오그라지고 죽으면 퍼지라고. [조사자 : 돌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안 뻗혀 지니까 디딤돌을 다 올려놔. 그렇게 해야 옷을 입지. 어떻게 입어. 이렇게 오그려서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해서,

“염을 하러 오라.”

니께.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머리가 그의 마뺨을 딱 때리고. 또 여길(상체) 누르면 다리가 사람을 딱 때리고. 김씨가, 그래가지고 최씨가 독한 거여. 죽은 최씨가 산 김씨를 당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들이 애를 먹었네. 안 가서 그랬는디, 인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인저 나중에는 자기가 죽어서 잡고 오더라, 못 하고서. 염을 안

해주고 그냥 잡고 오더라.

16. 죽은 조상도 좋아하는 친 자손

세계순(83, 여)/남동T 2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고선경, 김진성, 장현경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죽음과 관련된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어떤 사람이 사는데, 혼자 사는 이여. 혼자 사는 인디, 동네에서 애가 있
다고 그래프는 흥 보잖아? 그런데 흠애미가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이가
산으로 이사를 간 거여. 저기 혼자 마을에.

그런 마을로, 외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 인저 양자를 했어. 본 집에
서 아들이 없다고 양자를 했는데, 제사를 올렸어. 제사를 올렸는데 어떤 사
람이 지나가다가 인저, 저 옛날에는 사랑방이 있잖아.

사랑방서 목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더라. 제
사를 지내는데, 젓상은 잘 차려 놔는데, 아이고 온감을 안 하고서 그냥 얼른
얼른 하고서는 딴 사람이,

“어였거라. 구였거라.”

그라면서 쫓아오더라, 어떤 사람이. 그래 조상이 쫓아오더라는 거야. 조상
이 쫓아오는 것을 보니까, 이 이는 슬그머니 물러나는 거야. 제사를 못 얻어
먹고 물러나는데, 이 이는 인저 외딴 집으로 저 산골로 쫓겨나서, 거기 가서
그 이는 하두 없어서 나승개(냉이) 죽을 끓여서 한 그릇 갖다 놔는데.

[조사자 : 나승개 죽요?] 나승개. 지금 나오잖아. [조사자 : 나물요?] 응, 나
물. 나물 죽을 끓여서 놔는데, 그 오늘 저녁이 제사라고. 그의 죽은 걸 알고

서는 죽을 끓여서 냈는데, 거기 가서는 나물 죽을 맛있게 먹고 가는 거여. 그 이는 혼을 다 뱉, 그 사랑방에 자는 이가. 그래서 ‘왜 이러나’ 하고서는 가서 물었어. 그 이튿날 아침에,

“당신네는 간밤에 내가 그 혼을 좀 잠깐 보는데, 어제 제사를 잘 지냈는데 하나두 운감을 안 하고서 딴 데로 가더라고. 딴 데로 아무개 저 산 꼬랑이 그 홀어머니 사는데 가서 죽을 잡수고 가셨다.”

고 그러니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양자를 들었다.”

고 그러더라. 그의 양자를 들어 왔는데, 그게 혼이 지 아들이라고 그이가, 죽은 이가 자기 아들이고 다른 데로 양자를 갖는데 헛일이여. 안 먹어 못 먹어. 그래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인제는 조상을 찾아야겠다.”

고 그래서 물으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딴 데 가서 그 나승개 죽을 먹고 갔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찾으라고 그러더라. 그 이가,

“아들을 그 집에 가 찾아 오라.”

고 이 집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았다. 그 이가 가서, 그래서 양자는 소용없다는 거여.

유방동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이미성, 정정님, 최인경 조사 1995. 11. 11.

유방동은 용인터미널에서 북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교통을 매우 편리한 마을이다. 이 곳은 용인시의 중심지인 김량장동 북쪽에, 그리고 고림동의 서쪽에 위치하여 있다. 이곳은 용인군 수여면에 속하였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유곡리와 방축동을 합쳐 앞의 글자를 따서 유방리라 하여 용인면에 편입하였다.

유방동을 이루는 자연마을을 보면, 무수막은 유방동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임진왜란 때 왜군의 막사가 무수히 많았고 해서 붙여졌다고 하고, 또는 이 왜적들을 우리의 의병들이 물리쳐 근심을 없게 하였다 하여 무수막(無愁幕)이 되었다고 한다. 방축동은 무수막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 고래로부터 이 마을 앞에 흐르는 경안천, 일명 김량천에 홍수가 나면 제방이 유실됨으로 독을 쌓아 홍수 피해를 물리쳤다 하여 방축골이라고 하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유곡은 방축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석성산에서 흐르는 하천 계곡을 따라서 버드나무가 많아 버드실이라고 부른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 버드실은 윗버드실(상유곡)과 아래버드실(하유곡) 나누어져 있다. 지장실은 상유곡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부터 기장을 많이 심어 기장실이라고 하였는데, 변음이 되어 지장실이 되고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일설에는 임진왜란 당시 석성산에서 왜적과 교전할 때 군량은 없고 기장만이 싸여 있다 하여, 사람들이 기장실이라 부른 것이라 한다. 무태곡은 유곡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 김태라는 무명의 장수가 무예를 습득하던 계곡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일설에 의하면 조선 중엽 임진왜란 당시에 김태란 장수가 왜적의 침공을 미리 알고서 대비코자 일찍이 이곳에서 무예를 습득하여 의병으로서 출전대비 하였던 곳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은 조선 중엽 임진왜란 당시 이 일대에 왜적과 격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

에 있는 버드나무의 밀림을 방패삼아, 즉 유목이 자연방패가 되어 아군의 피해가 줄었다고 하여, 이후로 유방리라 불리었다고 한다.

나. 설화

1. 유방리의 남씨네 아기장수

남준우(69, 남)/유방동T 1앞

[가계] 박종수, 강현모, 이미성, 정정님, 최인경 조사 (1995. 11. 11.)

조사자들은 유방동에 도착하여 먼저 이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제보자를 찾기로 하였다. 그때 마을의 가게에서 서너 명의 어른들이 있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청중 : 옛날에 버드나무가 많았어.] 여기가 유방리라고 벼들 유자 막을 방자 그래서 여기가 유방리야. [청중2 : 그러요 여기에 버드나무가 많았어.]

에, 여기에 뭐 내력이 있는 게 별게 아니고, 저그 저 성산이라고 있어요 저그 저, 저기 수지 말여, 높은 산이여 그제. 거기서부터 여기 서도리라고, 여 우리 산인데, 여기 저 길 옆에 높은 산이 있어요. 저기까지 아흔아홉 봉이여, 그제. 백 봉이 되야만이 그제, 우리 남씨네가 에 장사가 났었어요, 여기.

장사가 태어났는데, 그제 아흔아홉 봉이라 뇌서 장사가 웅 살질 못하고, 어른들이 재정 때니까 몰래 그냥 갖다 죽였어요. 갖다가 저 개울에다 놓고 요만한 맷돌, 맷돌쪽으로 눌러 죽였단 말여.

근데 이게 전설이지만, 이 겨드랑 밑에 날개가 있, 있었는데. [청중 : 장사

라구나] 영. 그런데 그 맷들로 눌러 죽였더니, 여기 투구봉 칼봉이 있어요, 우리 산. 그런데 거기서 용마가 저 개경주, 저 건너 동네들 우로 해서 냇다 뛰어 갔다. [청중 : 장사가 낳으니.] 아니, 장사가 죽었으니까, 자기에 잉 모신 이가 죽었으니까, 그냥 울고 그냥 소리치면서 저 건너로다 그냥 넘어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재정이니까 이게, 뭐여 옛날에 무시(무서워)니까, 그러니까 이냥 그 장사가 낳다 하면 그 집안은 그냥 절단이 난대. 그래서 몰래 갖다들 죽인 거여, 그냥. [청중1 : 날개 있으면 장사여.] 영. [청중1 : 그래서 용마가.] 그래서 맷, 맷들로다 그냥 눌러 죽인 거여. 어. 그래가지고 용마가 울면서 저 건너로 뛰어갔다 이거지. [청중3 : 그래서 결국 그 용마가 죽고 말았지.] 글썸, 거 죽인 거야.

2. 자식을 호랑이에게 준 효부

김봉순(79, 여)/유방동T 1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미성, 정정님, 최인경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노인회장을 찾아가 그 분의 개인생활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으나, 이야기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집안에서 무릎 다듬고 있는 제보자를 발견하고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옛날에 인제 부부가, 인자 매누리 시아버부니 한 분만 모시고 인자 시는데, 시아버지가 어찌게 약주가 거한지 술을 엄청 잡쥬. 그래서는 술만 잡수면 그냥 길에가 두리 놓고, 집이를 인자 안 들어오시면 아들이 꼭 가서, 모시러 가서 인제 모시고 온대.

오는데 그때 마침 간난 얘기가 있던 모양이여. 그러길래 그렇게 되지. 난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들은 소리니깐 증말 옛날 얘기지. 내가 벌써 80이 다 됐는데. 그랬는데, 한날은 그 매누리가, 그 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이지.

“당신은 집에 있고, 내가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올테니, 집이 있시라.”

고 그러고는 인제 남편네를 집이다 두고, 붙들어 앉히고는 매누리가 갔대. 매누리가 인자 시아버지가 약주가 취해서 그냥 어디가 씨러져 안 오시니까, 인자 찾다, 찾다 땡기다가 시아버지를 만났는데, 길 옆에 가 그렇게 두러 누우셨더라. 그래서는 이렇게 먼 밑에서 보니까, 옛날엔 호랭이도 많았지. 지금은 호랭이가 없지.(열무를 읊기느라고 중단)

그래서 인제 먼데 서서 보니, 시아버님은 길 옆에 썰어져 두러 누웠는데, 며누리가 먼 밑에서 보니 무섭지, 호랭이. 그래서는 인자 배씩(바씩) 가진 못하고, 신령님한테다 빌었대요. 호랭이를 신령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서서 손이 발이 되도록,(할머니가 손을 기도하는 흉내를 내며.)

“신령님이 잡술 건 내가 갖다 드릴 테니, 우리 시아버님만 가만 두시라.”

고 그냥 서서 그라고 빌었어. 빌었더니 이제 산신령님도 끝, 효, 지금 효부 있대도 그런 효부가 어디 있어? 제 자식 호랭이 밥, 호랭이 먹으라고 갖다 주고 그 시아버님 데리고 와. 술 먹어서 썰어진 것. 어렵도 읊어. 그래서 인제,(기침) 한참을 그렇게 서서 빌고 애원을 하니까, 신령님이 슬그머니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인제 가더라.

가니까는 인제 그제서야 보며 배씩 가서는 시아버니를 인제 흔들어 깨우고 그래서는 집으로 모시고 왔어. 왔는데, 그러니 가슴(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우뚝해여. 아 옛날엔 뭐 자식 몰라, 지금 사람만 자식을 을구 떨어? 옛날에도 다 내 속으로 낳건 다 부모들이 을구 떨어. 그러니 그 간난쟁이를, 신령님한테 그짓말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고 왔는데.

그래 인제 시아버지를 모셔다 집이다 놓고서 깨끗한, 옛날에 어려워서 뭐 보재기나 좋것어? 어쨌든 깨끗한 것에야만 그냥 이렇게 싸서는 갖다 놓고,

시아버님 두려 놓고 그 신령님이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놓고서는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왔는데, 옛날엔 부잣집이나 이렇게 대문, 막대기 대문 널뜨란 것으로 해 닫지. 옛날에 어려운 사람은 다 삼작문이야, 꺾금한. 그래서는 어린 애기 저, 자기 그 깃난쟁이를 싸다 거기다 놓고 집에 와서 있으니, 그게 잠이 올 일이야? 그래서는 인제 어느 땐가 이렇게 방에서 들으니까는 깃난애 우는 소리가 나드래.

그래서 ‘이상도 시럽다. 반드시 내 얘기를 신령님 잡수라고 갖다 바쳤는데, 어디서 깃난쟁이 우는 소리가 나나’ 하구서네 이래, 처음에는 별(보통)로 들었다, 자꾸 우는 소리가 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자기네 집 삼작문, 저렇게 대문 앞에다 감짝같이 그 애를 갖다 났드래요.

그래, 그래서 부모님한테 호성이 지극하면 신령님도 알아본다고. 그게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모를 거 같애도 다 안다고. 그래서는 그 얘기도 잘 기르고, 시아버님도 잘, 잘 모시고 와서 잘 살다가 돌아가더라고. 그게, 그게 끝이야.

3. 연시 감을 구한 효자

김봉순(79, 여)/유방동T 1앞

[지택] 박종수, 강현모, 이미성, 정정님, 최인경 조사 (1995. 11. 11.)

앞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같은 호를 주제로 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오월, 유월에 연시 감이 어디 있어? 연시감. 꽃감은 있지. [조사자 : 꽃감은 있죠] 꽃감은 있지만, 그건 필요 없어. 암만 같은 거래도. 이 아버지께서

두려 누워서 그 연시감을 잡수기를 원하는 거야, 아픈 양반이.

그러니 이것 어디 가서 연시감을 구해요, 그래. 그래서 인저 그 아들이 아주, 우리내 어디 저런데 갈라몬 다 소지품 챙겨 가지고 가듯이, 아주 개나리 보점을 싸 가지고 나섰어, 아들이. 그 연시를 구해 불라고. 그 부모가 잠, 아 피서 잡수고 싶어하는 그걸 구해다 드릴라고 그러니까 그런 호자는 다 하늘이 냈지.

그래서는 인자 사도 팔방을 땡기는 거야, 그 연시감을 구할라고 그러니 연시감이 어디 있어? 그래서는 어디 짚구(계속) 가다가는 저런 산이 닥치고, 길만 요렇게 있는 데로 거기를 가게 됐어. 그런데 길이 가다가 저물은 모양이여. 저물으니까 인제, 저물어도 가야지 어떻게여, 산에서 자나.

가느라고 가는데, (쌈지에서 담배를 꺼내 피움) 가는데 어디쯤 가니까, 거기도 역시 산신령님이 또 들어 오더라. 그래서는 아주 뭐 머리가 쭈뼛하고 무섭지, 뭐. 암만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땡긴다 해도 그래서는 호랭이가 말해요.

가깝게 와서 자꾸 풍지рода ‘뚝뚝’ 치더라. 그 연시감 구하러 나선 사람을. 그래서는 인제, 그게 인제 말을 못 해도 ‘타라’ 소리래요, 그게 해석하네요 그래서 인제 자꾸 ‘뚝뚝’ 치고 이용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인저 이 호랭이 뭐 큰 건 사람 하나 실컨 타고 가지. 얼마나 썩 무서운 짐승이래.

그래서 인제 등에다 올라탔는데, 어디쯤 호랭이가 뒤 태워 갖고 가더니, 산골에 그냥 두메 산골에 그냥 집이 있드래요. 집이 쪼끔 있지 뭐. 이런 대치(대처; 도시) 같아? 있, 있는데 그 옛날엔 노인네들 있는 집은 사랑방이라 그러. 지금은 사랑방도 읊어. 이 저런 디도 사랑방인데, 문에 불이 빨강게 비치드래요. 비치니까 호랭이가 그 저기쯤 두고서 갖다가 내려 놓드래, 호랭이가.

내려놓으니까 인저 내려서는 호랭이는 인저 저 갈대로 가고. 인제 그 연시감 구하러 나온 사람은, 밤이 깊어지니까 자야지 어떻게. 그래서 그 주인네 거길 찾아들어 갔데, 불 있는 데를. 찾아들어 가니까 노인 할아버지가 계

시더래. 그래서 인제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아,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밤이 깊었는데, 여길 어떻게 찾아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런 사실 얘기를 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병환 중에 누워 계셨는데, 연시감을 지금 어디 가서 구하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아픈 아버지 연시감 잡수게 좀 구하러 그냥 일부러 이렇게 사도팔방이로 나서서 들어, 들어 땡기는 거라.”

고. 그 날 인자 그 노인네가, 벌써 그렇게 될라고 그랬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하루 저녁 잘 재우고 밥을 잘 해 맥여서는, 그 할아버지가 그냥 빨간 연시감을 이런 쟁반이루 하날(가득) 내왔드래요.

“이거를 잘 갖고 가서 드리라.”

고. 그래서 구해 갖고 와서 그 아버지를 드렸다는 거여. 그게 아주 옛날 얘기여.

4. 우물 속에 쓴 명당

장영자(59, 여)/유방동T 1앞

[슈퍼워] 박종수, 강현모, 이미성, 정정님, 최인경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에게 조사를 마치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슈퍼에서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났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 해 줄 것을 부탁하자, 처음에는 싫다며 웃음을 지었다. 계속하여 부탁을 드리자 평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그것 해야지 짧잔하게. 옛날에 하도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아들이 셋이고 인자 두 영감님이, 인자 내우간 사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팠어. 아파 갖고 인자 죽을라고 그래.

그래 인제, 인자 그래서 아들한테다 꼭 자기가 말을 해야겠는데 헐 수가 읍어. 그 할마니가 쫓아 댕긴게. 할멈 쫓아 댕긴게 헐 수가 읍어. 그래 갖고 인자 자꾸 아퍼서 인자 금방 죽겠는디, 그래 갖고 헐 수가 없다고 허다가는, 인자 할멈은 이자 못 들어오게 하고 아들만 인자 셋을 쪽 앓혀 놓고 근데 막 할멈이 인자 부애가 나갔고는 백갓에서(밖에서) 인자 엿을 들었어. 그런 계네 영감이 죽을라고 하면서 그래,

“나 죽으면 저 동네 앞에 인자 그 동네 인자 우물인디, 거기다가 넣으라고 그래. 인자 그냥 생여는 해다가 묻고, 사람들이 인자 보니까.”

그래서 인자,

“그런다.”

고. 허고는 송장을, 인자 직 아버지를 그 삼에다 인자 갖다 놓고 인자, 그냥 인자 초상을 쳤어. 그래 인자 얼마나 사는데, 살림이 인자 자꾸 불어. 부자가 돼, 자꾸. 그러니까는 막.

인자 하루는 그래 갖고 저 엄마랑 인제 아들이랑 인자 싸웠어, 부애가 났었던가 부지. 싸워 갖고는,

“내가, 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을 한다.”

고 그래. 그래 갖고 동네 사람한테 그 할멈이 말을 다 했어.

“저 후리 아들놈들이, 저렇게 시함(쌈; 우물)에다가 직 아버지를 갖다 놓다.”

고. 그런게 인자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꺼 아니라고. 그래서 인자 이렇게 보니까, 막 쌈물을 인자 품었어 인자. 우물물을 다 품고 본게, 송아지가 탁 되야 갖고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있드래, 그 우물 속에서.

[조사자 : 살아서요?] 인자 송아지가 됐지, 송장이. [조사자 : 네?] 송아지가 됐어, 인자. 그 송장, 할아버지 송장이. [조사자 : 송아지로 변했어요?] 응, 송아지로 변해 갖고 [칭중 : 산으로 올라 갈라고.] [조사자 : 산으로 올라갈라고요?] 응. 인자 무릎을 딱 꿇고 있드래. 그 놈이 올라가 빠렸으면 인자 아무 탈이 읍지. 품어 났어도 아무 것도 읍으니까 근거가 읍잖아.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방정이어. 근게 여자 앞에서는 좋은 말을 못 한대, 방정맞아서. 자꾸 그 집이 폭 망하드래. [조사자 : 그럼 여자는 말조심하라는 거네요?] 응. 여자는 입 조심을 해야 해.

5. 아버지와 아들의 짚신(털털털)

장영자(59, 여)/유방동T 1앞

[슈퍼말] 박종수, 강현모, 이미성, 정정님, 최인경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그래 제보자는 자신이 구술한 자료가 쓸모 있다는 말에 힘을 얻었는지 더욱 재미있는 것으로 하겠다면 시작하여 주었다.

더 웃는 얘기해 줄까?(웃음) 옛날에는 전부 가난한 사람만 살으니까, 이 짚신 그것을 인자 삼아서 갖다가 시장에 다 갖다 팔아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삼은 것은 꼭 가서 팔아도 돈을 더 받아. 그러구 아들은 삼은 것은 돈을 꼬끔 받아. 그런게 아, 아들이 자꾸 막,

“가르쳐 주라.”

고. 그래도 안 갈쳐 줘.

“나 죽을 때 가르쳐 준다.”

고. 아버지가. 근데 인자 하루는 인자, 참 살다가 본게 하루는 인자 죽게 생겼어, 아버지가. 근게 인자 아버지한테 이자 딱 관심은 하나두 읍고, 인자,

“그 신을 어떻게 해야 더 받나?”

고. 그런게 관심 있어 갖고 인자 물어 봤네. 그런게로 막 숨이 넘어나감서,

“털.털.털.털.”

하더라. 털 뜯어 갖고, 곱게 해 갖고 갖다 팔라고.(일동 웃음)

6. 부엉이 울음 소리에 먹는 떡

장영자(59, 여)/유방동T 1앞

[슈퍼엣] 박종수, 강현모, 이미성, 정정남, 최인경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웃으면서 ‘흔
자서 할 때는 많은디, 이렇게 할라니 없다’고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슬
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원래 바보신랑의 관한 이야기인데, 제보자는 신랑
이 어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옛날에 또 한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꼭 그 동네는 여 부엉이가 울어야
떡을 해 먹드래. [조사자 : 부엉이가 울어야지요?] 응. 부엉이가 울어야 떡을
해 먹어. 그런게 인자 장가를 가 갖고는,

“떡 안 해 먹냐?”

고 각시를, 인자 처가살이를 갔었는데부지. 각시를 인자 막,

“떡 해 먹자.”

고 행께,

“이 동네는 부엉이가 울어야 해 먹는다.”

고 그래.

“그런 거는 당신이 밤에 나무에 올라가서 올라라.”

고 그래. 근데 인자 울었어. 인자,

“부엉! 부엉!”

허고 인자 울으니까, 신랑이 울은게 친정 엄마보고,

“아이고 어머니! 부엉이가 울어요.”

그렇게,

“떡쌀 당귀라.”

그러드래.(일동 웃음) 그래서 인자 떡살을 당구어 놔는데, 당귀 놓고 인자 떡이 인자 막 찌지는데, 자꾸 그냥 내려와, 자꾸 부엉이 소리를 참 허드래. 궁계로 인제,

“고만 허구 내려 오라.”

고 그렇게.

“고만 부엉! 고만 부엉!”

허고는 인자 내려 왔어.(일동 웃음) 그래 갖고 떡살을 해서 인자, 떡을 인자 막 김이 폭 나 인자. 시루에다, 그전엔 이렇게 큰 시루에다 찌니까. 김이 폭 나서 인제 즐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와 갖고,

“떡 주라.”

고 그렇게 각시를 즐라당계, ‘떡 주라’고 [조사자 : 사실 웃끼는 놈, 놈이네.] 응, 자꾸, 인제 우고(위의) 한 둘금 있잖아. 그 놈을 두루룩 걷어 갖고 인자 옆(앞)지락으다 인자 이렇게 싸 줬어. 그런게 어린 사우였었는 게비지. 옆지락에다 싸준 게,

“뜨거! 뜨거!”

형계. 각시가 인제 그것도 저기 할 거 아냐.

“에이, 고물 하나 툅어간 게 그렇게 뜨겁다고 하냐?”

고 물어 즐라고. 그렇게는,

“이게 고물이나고. 윈 둘금이지 고물이나?”

고 그러드래.(일동 웃음) [조사자 : 윈 둘금] 저런 그릇에다 뇌주고 여기 다 싸서 준 게 뜨걸 것 아니라구. 그런데 ‘뜨거, 뜨거.’ 현계, ‘고물 하나 툅어 간게 그렇게 뜨겁다고 허느냐?’고 각시가 인자 신랑한테, [청중 : 책 잡힐 꼴.] 그런데 ‘이게 어디가 고물이나 윈 둘금이지. 고물이나’고 그러드래.

허고 인자, 그전에는 이렇게 정지(부엌)문도 옹어. 거적을 이렇게 엮어 갖고 이렇게 두루럭이 말아서 이렇게 걸어 놓는 고리가 이렇게 있거든, 이렇

게 생긴 것이. 그것이 인계 나간계, 상투를 푼 땡기더래. 그런계,
 “아이구! 이게 윈 들곰입니다. 윈 들곰입니다.”
 허고 도망가드래.(웃음)

7. 산삼 동자

장영자(59, 여)/유방동T 1앞

[슈퍼읽] 박종수, 강현모, 이미성, 정정님, 최인경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효자가 살았는데, 효자 효부가 살았는데 막 아버지가 아퍼서 별약을 다 해도 안 낫어. 그래 갖고 죽게 생겼는데, 하얀 중이 와 가지고,
 “그 이쁘게 서당을 땡기는 손자를 해 먹어야 낫는다.”

고 그러드래. 중이. 그래서 아고, 그런 계로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게 아니라고. 그래 인자 마지 못 해서 인자 뺏어, 그 소리를. 그런계 얘기는 서당에를 갔는데, 아유, 그 소리를 허다허다 못해서, 인자 아버지는 살리야 짓고. 그래 갖고 인자 허니까, 막 아들이 인자 부인이,

“그러믄 그래 야지.”

하고 그냥. 그래서 인자 허고는 부인은 방으로 가만이 있고. 솔에다 물을 팔팔 끓이면서 아들이 오기를 이자 기다려, 아버지가. 그런계 인자 아들이 서당에서,

“오늘 무엇을 했다고. 더 공부를 잘 했다.”

고. 막 뛰어와. 아유,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보듬어서 솔에다 인자 탁 집

어넣어. 집어넣고 인자 얼마나 있으니까, 막 냄새가 인자 구수하게 진짜 나. 그러니 그 엄마가 어떻게 돼.

아 그리는데 삶, 몇 시간이 있었는가 또 애기가 들어 와. [조사자 : 아들이 요?] 응. 자기 아들이 또 들어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그 술을 가서 열어 봤어. 그렇게로 막 그렇게 생긴 동삼이 꿏더래, 술에서. [조사자 : 삼이요?] 응. 삼이 꿏더래.

그런게 그 스님이 삼이었는데, 그 인자 효자가 진짜 효부인가 인자 그거를 불라고, 그래서 인자 그걸 했는데, 그래 갖고는 그 부인도 인자 그것들 들어 줬으니까, 그게 삼이 됐지.

영. 그래서 인제 아버지를 그 놈을 막 갖다 드린게, 막 그 놈을 먹고 오래 오래 살고. 그 애기는 공부를 더 잘 하고. 효자효부로 상을 받고 살더래.

다. 민 요

1. 탄노가

김봉순(79, 여)/유방동T 1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미성, 정정님, 최인경 조사 (1995. 11. 11.)

앞에서 연시감을 구한 효자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에 대해 문자 불러 준 것이다. 제보자는 노래를 불러준 다음에 이 노래가 늙은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주기도 하였다.

(청취불능) 웬 말이야 [얼썩]

상판 같이 좋은 머리

까막소가 웬 말이야

새벽같이 밝던 눈이
 청명관이(청맹과니) 왜 말이야
 현수박씨 까던 이가
 목탁 소리 왜 말이야
 씨암닭 걸음 걷던 걸음이
 주리때 걸음이 왜 말이야

내가 꼭 당해서, 한심해서 그래 하는 거지 노래가 아녀, 이게. 꼭 맞지 뭐
 여. 이가 요령던 이가 죄 빠져서 이도 읊지. 머리도 그렇게 술 많던 머리가
 머리도 읊지. 나는 그래도 허리 안 꼬부라졌다고 그래. 그런데 저렇게 일을
 푹적거리고 하면 허리가 아퍼서 자연 꾸부러져.

고림동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황은정, 이은미,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5. 11. 4., 11. 11., 1996. 6. 1.

고림동은 용인터미널에서 북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교통을 매우 편리한 마을이다. 이 고림동은 동으로 양지면 주북리, 북으로 포곡면은 금어리, 그리고 서쪽으로 용인시 유방동와 김량장동에 연결되어 있다. 이곳은 용인군 수여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고진리와 임원리를 합쳐 이들에게서 한 자씩을 취하여 고림리가 칭하여 용인면에 편입하였다.

고림동을 이루는 자연마을을 보면, 고진은 고림동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임진왜란 때 이곳에 진을 치고 싸웠던 옛날 진 터가 있던 마을이라 옛진말, 예진말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현재 이진말, 이즌말이라고 하는데, 이를 한자로 고진이라 표기하였다. 이 마을에는 임진왜란 때 마을 뒷산에 집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25여 가구에 주민이 125여명 살고 있다고 한다. 金德井은 고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살았던 김덕이란 부자가 먹던 우물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김덕우물에서 음이 변하여 진덕우물이 되었고 한다. 립원(林院)마을은 130여 년 전 참나무 정자가 있어, 앞에 가를 붙여 가정자로 불려졌다. 뒤에 숲이 많았으므로 숲원이라 하였다가 이를 한자 표기로 임원이 되었다. 일명 도룡계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마을은 40여 가구에 주민이 200여명 살고 있다. 보평(漕坪)은 임원 북쪽이 있는데, 보(漕)가 여러 개 있는 들판의 한가운데 있다 하여 봇들이라 부른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마을은 30여 가구에 주민이 140여명 살고 있다. 대소산동은 김덕정 북쪽에 있는 마을로, 크고 작은 산줄기가 뺨어내려 마을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대산동 소산동이라 하는데, 이를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단사(丹沙)는 대소산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뒷산이 당산인

데 그 밑에 있는 마을이라 당산골이라 칭하게 되었다. 원래는 이 뒷산에 아가위 나무(棠)가 많아 비릇된 명칭인데 당제를 지내는 터가 있어 당산골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산이 단사로 변한 것을 그대로 부르고 있는데, 30여 가구에 주민이 150여 명 살고 있다. 한편 고림은 고림 2리 지역인데, 주북리와 불과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가구수가 40여 가구에 구성된 마을이다.

고림동은 꽤 현대화가 되어 마을이 커졌는데, 자연 마을을 대상으로 7리로 이루어져 있다. 윤씨와 한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외지 인구가 많이 유입된 지금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양반이라고 하면서 이 마을에서 군수가 두 분이 나오셨다고 자랑이 대단한 마을이다. 마을에는 역시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이 많이 계셨고, 아주 연세 드신 분도 농사일이나 소일거리에 열중하셨다. 이들은 마을에 몇 그루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다. 농지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섰고 주변에 고속도로나 큰 도로로 차량이 자주 눈에 띄었다. 교통은 용인시내로 들어가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으나, 중앙통과 인근에 있어 교통은 편리하다. 학교나 병원은 읍으로 다니고 있다. 이 마을은 도시화로 인하여 여러 성씨가 모여 살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은 희미하였고, 종교는 도교와 불교가 몇 집 있으나 대부분은 종교가 없다고 하겠다.

나. 설화

1. 도깨비 홀린 사람

김명선(69, 남) /고림동T 1뒤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황은정, 이은미 조사 (1995. 11. 4.)

이 이야기는 세시풍속과 민간풍속 등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에 제보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이 고장에서 태어나 젊어서 외지의 산판을 따라 다녔으나, 나이 먹고 난 후에 고향이 좋아서 되돌아 왔다. 지금도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열매나 곡식을 주워서 그걸로 생

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교육은 보통학교 중퇴자라고 하나, 여러 군데로 낱품 팔이로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들은 이야기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성격은 극히 내성적이었으며 온순하고 친절했다. 외모는 얼굴이 가는 편인 데다가 깡막른 모습이었으나 말씨는 치아가 많이 빠져서 발음이 분명치 못하였다. 또 귀가 잘 안 들려서 자꾸 물어보시거나 댐 말쑈를 하여 힘이 들었다.

[조사자 : 도깨비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얘기, 도깨비에 관한 얘기]
[청중 : 응 술 먹고 산에 돌아다니다가,] 도깨비에게 홀려 가지고 [조사자 :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 주세요?]

그것은 그냥 이 맑은 정신은 괜찮아. 인자 술 먹고, 그냥 술이 얼큰하게 먹으며는 이게 갈 적이는 환하지, 이런 질마냥 환하. 그러니까 무언 어디고 가다 보면 까시 등으로 덤풀서 걸리고, 무엇도 걸리지.

그래 그때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홀리며는 아프지 안 하. 까시 찢리거나 어디서 찢어지거나, 찢린 줄 모르고서 그냥 사뭇 따라 가는 거. 앞에서 그놈이 끌고 가니까. [청중 : 불이 환한데 따라가 멍겨요] 끌고 사뭇 따라가는 거이지.

그러고 데리고 가니까. 그래 내가 갈 적이는 질이 좋아, 넓고. 그래도 가다보면 이 옷이 인자 까시뎡이에 걸리고 어찌고 해서 찢어지고, 손이 찢어지고 그렇지. 그런게, [청중 : 가다가 날 새면 인자.] 밤 새면 인자 그러면 인자 깨 가지고 인자 집이 들어오지, 날 새면. 밤새도락 돌아 멍긴게 깨지.

그런데 이렇게 시방도 그랬어. [조사자 : 도깨비요?] 응 시방, 시방도 있어. [청중 : 산, 깊은 산.] 왜냐하면 이런 외진디, 인자 그 산골짜 같은 디, 구름 끼고 비 오잖어. 그러면 저녁이 보면 불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허지, 저녁이지. 시방도 있어.

2. 불을 켜 주는 호랑이

김명선(69, 남) /고림동T 1뒤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황은정, 이은미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다. 제보자는 도개비를 끝까지 쫓아가 그 구멍을 뒤져보면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다가 산중에서 일어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였다.

[청중 : 옛날에 또 호랑이가, 호랑이가 불 켜 가지고, 또 호랑이가 따라 땡기며, 따라 땡기는 것도 달밤에 현.] 그거는 불 밝혀주는 거지, 호랑이가.

내가 잡아 먹을 사람이 아니고, [조사자 : 호랑이 얘기요?] 응. 내가 잡아 먹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 가는 대로 길을 밝혀 줘, 어두우니까. 인제 산골 같은 데.

[청중 : 가서 잡아 먹는데.] 집을 가잖아. 집을 가며는 고걸 밝혀 줘. 이리 질거름이, 불이 환하니까 질거름 찾아갈 꺼 아니여. 그게 인제 재밥이 되며는 인제 그, [청중 : 뜯어먹지.] 그 불은 안 켜 주거든, 내 밥이 되며는. 그 고거는 인제 불 켜줬다가 인자 거기 가며는 인제 깜깜, 인자 산골짜기 가며는 깜깜 허잖아.

[조사자 :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불, 앞만 보, 불을, 저기서 이렇게 해서 불 따라서 가는데 가 보면, 깜깜하다는 거죠?] 응. 저기서 이렇게 잡아 먹을 라면 불을 꺼 놓고서, 인제 산고랑이에 갖다가 넘어 가니까. 그런다 보면 고 것 늣다없이 깜깜허니까, 인제 못 갈 것 아니여, 더듬더듬 허고. 인제 그때나 잡아먹는 거. 그러니까 밤이 되야 잡아먹는 거여. 그 아무나 잡아먹는 게 아니여. 지 밥이 돼야 잡아먹지.

3. 강림도령의 효도

김명선(69, 남) /고림동T 2앞

[3리] 박종수, 강현모, 황은정, 이은미 조사 (1995. 11, 4.)

앞의 제보자에게 세시풍속과 장례법 등을 조사한 뒤에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서 만난 제보자이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선뜻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 고장에서 태어나 계속 이곳에서만 거주해 온 할머니이다.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노인답지 않게 수줍음을 많이 타 겨우 한 편의 설화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깡마른 외모에는 너넉지 못한 생활에 찌들은 자취가 역력하였으며, 말씨는 상당히 빨랐다.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말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다는 뜻으로 파악되며, 기억력도 그리 좋지는 않으셨다.

효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옛날에 아희 조경은 강림도령이란 것이 있었잖아요? 아희 조경은 강림도령. 아희가 아니라 큰 사람이 아희의 등에 큰 사람은 강림도령이라는 얘기죠. 아마, 강림서 도령으로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강림은 여기서 대면 영월, 평창, 여기 강림이라고 있잖아요. 지방 명이죠. 그 강림도령이 어려서 이제, 저의 부모네가 낳아 키울 적에 말이죠. 이제 한 살, 두 살 먹어 세 살 때 차차 말 배우고 이럴 때, 그 아주 늦게 두셨어요. 거의 부모네가 그래 거 거적에 잠자리 할 때, 그 복판에다 누이고서 내외분이 귀여워서,

“아버지를 때려라.”

이거야. 그래, 이 녀석이 세 살 먹었으니까 아버지를 툭 치고 사랑 적어서 차차 크는데,

“어머니 때려라.”

하필 그게 부모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툭 치고 그러다가 차차 요놈이 클수록, 아홉 살 먹어. 이 때는 이제 글을 배울 때 아니예요? 책을 끼고 가셔도 글을 배우고 와셔도, 아버지가 눈에 안 띄면 어머니를 때리고. 또 어머니가 눈에 안 띄면 아버지질 때리구.

그랬는데 아 요거 큰일 났단 말이야. 아, 이러다가 지 아버지가 그만 일찌기 사망이 됐어요. 그래 장사를 지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래니까 어머니를 때릴 수밖에. 아, 이놈이 공부를 하고 와서는 어머니를 때리는 거야.

아 그러니 처음에는 귀여워서 그저 때려도 아픈 척을 안 했지만, 차차 이놈이 크니까 힘이 늘어서 치는 게 아플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 무얼 하니까 나라에서, 관청에다 일렀단 말이예요.

“난 아들이 이렇게 참 매를 쳐서 더 못 견디겠으니까 조정해 주시요.”

그때 그 놈이 열한 살쯤 되었을 거예요. 관청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김효자 떡이라는 효자 떡으로 그만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구양이죠. 그게 수양이자 구양이죠.

그래 보냈는데 개가 가만이 보니까 그 효자라는 분이 다 늙은 모친 한 분을 위해서, 내외분이 지내는데 아 어떻게 부모에게 정성스럽게 하는지. 때치는 일도 없고, 그 공경하는게 무릎을 꿇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며, 잠자리에 침구 퍼 놔드리는 것 하며, 아침에 개는 거며, 아 뭐 어떻게 저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서 두고 보죠. 맥이긴 잘 맥이고. 이제 저 부자 집에서 맥이는 거니까.

그래 하루는 지름을 짜게 되었어요. 부자 집에서 지름을 짜게 됐는데 부인더러 이르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아직 쉬니까 이따 일어나시거든 진지 대접하라고 나는 오늘 어디 가면 저물게 올 테니까.”

그러니까 방글에 짜설랑 마루에다 놔두었는데, 그제 이제 두 번 그 위를 넣어서 짜는 그판에 시어머니가 깨셨단 말이야. 깨서 나오니,

“아니, 여태 오줌을 안 쏟았구나!”

하고 그 지름을 보고, 이걸 들고 주춤주춤 하구 나오시거든.

“아이 어머니! 지가 갖다 쏟을 게 봐 두세요.”

갖다, 지름을 그만 갖다 벌발 고랑에다 주루루 내버렸단 말야. 아이고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그래니깐 ‘어떻게 갖다 부시게냐’고, 자기가 갖다 붓는 거야 며느리가. 그래 강남도령이 보기에,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경을 쳤다. 거름을 갖다가, ‘그걸 거름이라고 하지.’ 그걸 갖다가 오줌이라고 버렸으니까.”

아. 그러다 저러다 해가 저무니까, 참 남편이 왔다 그거야.

“아, 지름을 다 짚소?”

“아! 다 짚어요. 그래 아희 기름을 갖다 버렸어요.”

“왜?”

“아,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여태 오줌을 안 버렸다고 하시며 들고 나오셨는데, 아 그 거름을 얘기하면 ‘아이구, 내가 거름을 쏟을 뻔 했구나.’ 하면 감수 하실까 봐 지가 갖다 벌발 고랑에다 부었습니다.”

“아주 잘 했다.”

고 부인을 보고 절을 구부령하고 하거든. ‘야, 저렇구나! 어머니 대우를 저렇구나.’ 거기서 몇 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배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집에 갔으면 어머니 대우 해 보겠는데, 이거 여기 와서 가지 못하고 가만히 효자가 두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 됐거든요.

“내 이제 오늘은 너의 집으로 보낼테니,”

그게 아마 열댓 살 됐다 그거예요.

“오늘 조반을 먹구 가라.”

구. 아주 조반을. 무슨 환갑잔치 차리듯 했거든. 해다가 차려 주니까,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안 먹고 있어요. 강남도령이.

“아, 너 가래는데. 잘 먹고 가지 왜 안 먹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저도 노모가 계신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거 못 먹겠습니다.”

“너는 이제 사람이 됐다. 너의 어머니 갖다 드릴 건 저기 다 배치해 놔어.

그러니까 먹어라.”

그걸 먹고 그날 효자 집에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향담에다 그 해 지케서 지구 가는데, 아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자식을 그렇게 효자 집에 보낸 뒤에, 아 어떻게 편한지 매를 안 맞아서 아주 혼자 있으니 아주 편하거든. 그래 이제 혼자니까 갈퀴를 후려다가 이렇게 보에다 싸다 군불을 넣어 가지고 참 이렇게 지내는데, 그제 집이며 말며 그렇지요. 그제 저의 어머니가 낭구를 하러 갈퀴를 보에다 싸들고 비탈길로 올라간단 말이야. 거기다 향담을 내려놓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쫓아와.

“아이 어머니! 지가 안 때립니다. 안 때립니다.”

올라가서 어머니를 붙들어 모셔다가 그래가지고 공경을 잘 해 가지고 나중에 효자가 됐네요.

4. 신방 지키기의 유래

이택수(56, 남) /고림동T 1뒤

[5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황은정, 이은미 조사 (1995. 11, 4.)

앞의 제보자에게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앞의 제보자 집을 나와 마을을 돌아다니는 도중에 제보자를 만나 세시풍속과 민속을 조사하다가 듣게 된 것이다. 제보자는 이 고장에서 태어나 계속 이곳에서만 살아오면서 농사밖에는 모른다고 한다. 성격은 극히 외향적이어서 활달하며 개성이 몹시 강한 인상이었다. 술을 몹시 즐기는 편인지 술을 드신 상태이었다.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며 분위기에 쉽게 동요되어 몇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며 설화도 말씀해 주셨다.

창문 하나에 찢구 이렇게 들여다 본대는 거, 그걸 왜 찢느냐? 그 내력이 모냐? 옛날에 이 어느 고을에 이 부자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의 소원이 글이야. 공부를 못 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 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먹구 공부밖에 모르는 거

야. 공부밖에 모르는데, 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는 데두 이놈이 아는 거라군 글밖에 모르니깐, 먹구 앉아선 모 마누라 옆에 있어두 ‘마누라 너는 너구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글만 읽거든. 글만 계속 읽구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첫날 저녁엔 잘 다뤄야 된다. 잘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다뤄야 된다. 잘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그래두 뭐인가 머리에는 뉘우치는 게 있거든. 남자들이라면 표창이라는 거 음 그것이 칼이라구. 칼을 넣구 다녔는데, 아 첫날 저녁이 딱 됐는데 신랑 신부 방에서,

“아야! 아야!”

소리가 나거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옆방에서,

“잘 다뤄야 된다. 잘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근데 이 미련한 놈이 ‘여자래는 것은 뭐 사흘만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 근데 이놈이 표창을 꺼내 가지구선 가죽을 벗기는 거야. 그렇지. 칼루다가 가죽을 베끼니깐, 이 여자가 새댁으로서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깐 쓰라린 걸 참아가면서 ‘아야, 아야’ 소리만 질른 거야. 그래 아침이 딱 되 가지구선 옛날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문안을 드립니다.”

그래 인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만 뒤라.”

할 때까지 아침에 자꾸 일어나면 세수하고 문안부터 드리고, 큰절루다가 문안부터 드리구 나와서 밥을 짓는 건데, 아침에 문안을 드릴 땐 바라니까

생전 문안을 안 드리거든, 며느리가. 그래서 문을 열어 봤어요. 문을 열어 보니까 아들놈이 영 앉아서 공부만 하구. 이렇게 옆을 쳐다보니까 가족을 버껴서 딱 매달아 놓은 거야. 인피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놀랜 거야.

“야 ‘잘 다뤄라 잘 다뤄라’했더니 이놈아가 그게 무슨 소린질 모르구 가족을 베껴 매달았구나!”

아 며느린 그대로 간(죽은) 거지. 그러기 뻘에 지금 신랑 신부 장가 가면 문을 찢구 들여다 보는게 가족을 벗길까 봐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신방을 지킨대는 거요.

5. 고림동의 지명 유래

민배식(80, 남) /고림동T 3앞

[2리 지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조사자들이 고림동에 도착하여 마을 사람들의 소개를 받고 제보자의 대으로 찾아갔다. 이곳에는 놀러오신 할아버지들과 6명이 함께 들었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놀러오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도록 응원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구술하고, 청중은 바닥에 앉아서 들었다.

1) 립원의 유래

[조사자 : 이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립원이라고 적어, 립원. 수풀 립자에 언덕 원자여. [조사자 : 립원요. 이 마을에 대해서.] 그래. 이 마을 유래 먼저 얘기할 게요. 이 립원에 대한 것.

이 마을을 그 립원이라고 한 건 수풀 입자는 예 그 전에 여기가 전부 숲

이 많았어요. 그러구 그 숲밖에 에 하천이 쪽 내려 가구. 그래서 그 숲이 있으니까, 수풀 림자, 림자를 써 가지고 언덕 원자라서 림원이라고 이름을 짓어, 이 마을을.

그런데 그게 뭐 한 몇백 년 전에 했거지. 그러니까 우린 나이 80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 잘 보구 듣고, 어른들한테 가끔 들을 얘기이거든. 이게.

그러면 숲이 왜 없어졌냐?. 그게 옛날에, 아주 여기 뭐야 장마가 저 가지구 큰비가, 지금같이 독을 갖다 이렇게 놓구 개울을 곧게 하면은 그렇질 않은데, 큰 장마가 지나까 산에서 사태가 나구,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 오구 그런 바람에 숲이 전부 다 떠내려 간 거야. 그래 가지고 앞에 숲이 없구. 저 냇개도 저 위로에 다 물러가고 그랬거든.

2) 가정자의 유래

여기 또 아래 가정자가 있어, 가정자. 왜 가정자라고 했느냐? 고 밑으로 개울이 나갈 적에, 여기 에 반상간일 적에 양반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정자로 거기다 짓고, 고 밑으로 내가 흘러갔다고. 고래 고 마을을 가정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3) 고진의 유래

고림리란게 4개 동네인데, 4개 리인데. 지금은 뭐 10개 리가 넘어. 용인읍 거기서 요렇게 개울 건너면, 거기 첫부텨 여기까지가 전부 고림리야. 그렇지 거게.

그, 그 당시에, 여기두 뭔가 조선 난리지 뭐. 옛날 얘기니까 난리 날 적에, 그 장사가 저 쪽에 고진이란데, 거기다 진을 치고 그 뭐가, 전장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이 고진.

4) 용마뱀

또 고기 오다가서 논이 있는데, 논 이름이 용마뱀이란 게 하나 있어. 근데 이 진을 치고 인제 거기 싸움을 하니까, 거 말을 타고서 적을 쫓아서 가다가 그 용마뱀이란 데서 물을 먹었다고 해서 용마뱀이라. 아직까지 논, 논 이름이 그렇게 있다구. 그래 인제 거기서 인제 물을 맥이구. 에 여기 고림리 립원 언덕을 보니까. [청취불능] 여기를 들어오지 않고 피해가지고 저 광주 땅으로 넘어간 거지.

6. 생거진천 사거용인

민배식(80, 남) /고림동T 3앞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 가운데 있는 나무에 대해 묻자 말씀하여 주었다. 그러나 서사를 갖추지 못하여 ‘이곳에 전하는 전설 같은 것이 없느냐’고 묻자 ‘잊어버려 알지 못한다’며 호도에 관한 것이나, 실생활이 관한 것을 말씀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에 돈 있는 사람은 용인 와서 산을 많이 사, 묘이 쓸라고. 그래 이것 예전부터 내려온 얘기인데, 에 에 그러니까 ‘이 용인이 좋다’는 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할 것 같으면은 생거, 사거용인이란 말이 나왔어. 사거, 죽은 다음에는 용인으로 가야한다, 산세가 좋구. 그러니까 요 여기다 묻혀야 된다.

인자 그런 얘기가 인자 쪽 나타났는데, 뭐이가 있냐면은, 용 용인에서 사시던 양반이, 영감님께서 돌아가니까, 진천. 진천 알아? 진천 가서 영감님하고 인자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인이 먼저 오는데 에 아들이 하나 있고. 진천 가 사니까 또 거기 가 또 아들을 낳단 말야.

그래 가지구 내중에 죽으니까, 큰아들이 그 죄 어머니를 찾는 거야. 그러 니 죄 어머니가, 아, 큰아들 사는 데가 용인이니까 용인으로 오게 되잖아. 그 때 고기 에 생거 살아서는 진천서 살구, 죽어서는 용인으로 왔다. 그 무슨 말이나 하면, 에 생거진천하여 사거용인이라.(웃음)

이게 나왔는데, 에 인자 그런 예가 있으니까, 고걸 피해가지고 그걸 악이 악영향으로, 또 약으로 인제 고걸 해석을 했지 뭐야. 근데 실지가 진천 쪽에 는 산이 이렇게 용인같이 좋질 않아요. 나도 이 저 피난 갈 때 진천을 들러 가지고 가 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현재에 그래서 실제 용인의 산세가 좋다. 아이 그런 것 나 하나 헛 것 있다구. 에이 근처에 산을 판다해도 서울 사람들 이 다 사는 거야.

7. 목에 비녀 걸린 호랑이를 구한 사람

박용남(72, 여) /고림동T 3앞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조사자들은 앞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채록할 수 없어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그런 도중에 집 마당에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자리에는 5명의 청중들이 조용하게 듣고 있었다. 제보자는 마당에 쭈그려 앉아서, 조사자의 유도로 인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라 하였고, 구술하는 억양은 조금 소란스러웠다.

금호 어머니한테 들었어. [조사자 : 예, 인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때는, 그때 시절도, 우리가 애(옆에 있던 7살 소년)만할 때밖에 안 됐었어. 그랬는데 이웃 집 노인네가 하는 소리가,

“범두 사람은 해꼬지 하는 사람이나 해꼬지 하지, 아무나 안 한다.”

그러는 거야.

“왜 그래, 할머니?”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수원으로 장사를, 쇠장사를 허러 갔는데, 가져 가서 인제 좋은 거 가져가서 팔구, 쪼그만 거 또 사오잖아. 그런데 저 충산에, 저기 청산에 거기로 오는데, 밤중에 인제 오는데 범이 내려 오드라야. 범이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니, 이 드런 인간에 왜 눈에 띄느냐고 올라가라.”

고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고 머리를 흔들더랴. 머리를 흔들더랴.

“안 올라 간다.”구.

“그럼, 어떻게 허라고 그러느냐?”

구. 그랬더니 아가리를 딱 벌리드리야. 사람 앞에 이렇게 떡 와 가지고서 (간식으로 이야기 중단)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또 틀렸지. 그러는디 인제 사람 앞으로 배싹 와 가지고 머리를, 아가리를 딱 벌리더랴. [조사자 : 호랭이가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라구 그러냐?”

구 그랬더니,

“아가리 있는 걸 끄내 달라.”

구. 그래서 손을 부치고 끄냈대, 그 노인네가. 남자 노인네가. 그런데 죽은 목숨을 허고서 끄낸 거지 뭐. 그랬더니 이전이 비냐 있잖어. 사람 하나 잡아 먹었드랴. 비냐가 이렇게 딱 걸렸드랴, 목구녕에가. [조사자 : 비녀요?] 비냐. 비냐. 쪽진 비냐. 쪽진 비냐인디 이렇게 딱 걸쳐는디, 그걸 끄내 주었대. 그랬더니,

“좋고 고맙다.”

구. 그냥 절을 허구, 절을 허구. 그러더니 먼저 찌릉찌릉 오더니, 그 집꺼, 근처까정, 집 앞에꺼정 데려다 주드리야. 그 그거야. [조사자 : 그렇게 해서 인제 호랑이 목숨, 호랭이 그것 끄내 쥐 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요?]

잉. 고맙다구.

8. 떡국새

이강래(59, 남) /교림동T 3앞

[4리 발독]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조사자는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사면이 고향인 제보자를 만났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부탁하자 할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어떤 것을 해야할지 모른다고 하여, 재미있는 것을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조사자의 유도로 생각이 났는지 서서 소란스럽고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을 무척이나 빠르게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라며 말을 이어 나갔다.

나는 진짜, 진짜 저기유.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요는 내는 맨날 거짓말하기 싫어요. 인제 뽕새가 아니라, 뽕새가 아닌가 진짜요. 그 뽕로 생각했어요. 떡국새요. [조사자 : 떡국새요?] 비슷하죠,

“뽕!”

내가, 저 옛날에 시집살이가 심해 가지구, 인자 며느리가 이웃집에 가서, [조사자 : 소쩍새, 소쩍새 그 얘기라고요.] 아니 뽕. 뽕새라는데, 나는 나 혼자면 떡국새라 그래요.

근데 그 시어머니 줄라구, 저기 이웃집에 갔다가 그래 먹구서 인자, 시어머니 드린다구 갖다 주었어요. 그 주는 건 떡구. 또,

“아이, 우리 시어머니 갖다 드리게.”

인자, 다만 누가 주었는지, 하야간 그건 아무러면 줬겠지. 어른이 있으니

가. 어른을 몰르면 안 되거든. 인자 시어머니 드릴라구. 갖다 어디다 냈나 구, 해필 벽(부엌) 부뚜막에 냈어. 부뚜막에 냈거든.

그런데 개가 이걸 봤어요 [조사자 : 며느리가요?] 개. 개가 봤다구. [조사자 : 그 무슨 개가요?] 그 집에 개가 봤다구. 그런데 어디 잠깐 비운 사이에, 인자 살그머니 올라가서 먹었어요. 인자 시어머니가 갔다 왔는데, 어이 떡국을 이냥 다 먹었네. 싹 끊어 먹었네요. 인제 싹 훑아 먹었어.

“야, 애 어른도 모르고 싹 먹었다.”

고. 막 야단이야. 막 야단쳤지 그냥. 아우 어떻게 분한지, 며느리가 에 자 살해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구 저 새가 뵈어요. 근데 인제 그개, “떡국! 떡국!”

개 때문에 그래요. 떡국하고, 개 떡국 두 가지. 그래

“떡국! 떡국! 개개개개개.”

그런다구. 난 시골에 태어나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제법 잘 알아요. ‘떡국!’ 진짜예요. ‘개개개개’ 그런다구. 거짓말 아니니여. [조사자 : 그래요.] ‘개개개개’ 그런다구, 그 떡국새가. 나 혼자 떡국새라, 누구나한테 질문해도 좋아요. 틀림없어. 나 노인네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9. 산자 묘가 살아난 슈래

안종수(59, 남) /고림동T 3앞

[4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조사자들은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이동하는 도중에 경운기를 몰고 가는 제보자를 만났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조사자들을 경운기를 태우고 비닐하우스로 갔다. 비닐하우스에는 일을 하다가 쉬고 있는 일행 3명을 있었다. 제보자는 말씀을 차분하게

하시다가, 조사자의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저기 부곡에 가면은, 내가 원래 저 순웅 안씨인데, 거기 가면은 안자 묘가 있어. 안자 묘가 있는데, 부곡 역전에 한 오백 미터, 1킬로 정도 들어가면은 있는데, 거기는 불청지이란 게 있어, 땅이.

불청지이란 게 뭐냐? 나라 임금도 그 지역을 갔다가, [조사자 : 건드리지 못한다.] 건드리지 못 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저 박정희 당시에, 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에 그런벨트고 뭐고 거기를 개발을 할라고 했던 말이여.

그 안자 묘를 동양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자, 맹자, 주자, 안자 해가지구 동양에서는 안자가 들어갔단 말야. 그 자가 상당히 그 저기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묘를 박정희가 없앨려구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육군대위 젊은 장교가 하나 쫓아 들어가 가지구,

“각하! 이 동양에서 일본이나 인도나 기타 동남아 각국에서 이 안자를 갔다가 제사를 지내구. 세계 5대 성인으로 모시는데, 동양에. 저 이것을 갔다가 그 문테면 어떻게 돼느냐?”

그래 가지구 박정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래 가지구 그때 안자 묘가 살아났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 그 순웅 안씨에 중대한 그 역사적 속 얘기가 담겨 있는 거고

10. 청몽주 선생의 묘소 쓴 유래

안중수(59, 남) /고림동T 3앞

[4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에 마치고, 묘지에 관련된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구 인제 정포은 산소가 용인에 있단 말야. 용인은 인제 정포은이, 내
일이 정포은 산소 그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인자 여기 유지를 일하고 그래
서 제사 해마다 지내려 가는대.

그것 산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선죽교에서 이방언이한테 결국은 철
퇴 맞아 죽은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제 그 저기가 될
때, 그걸 뭐라 그러지? 응? 지금 말하면 그 뭐야? 그 저 봐 주는 것, 나중에
밀하기 있다가 그 법, 법에서 벗어나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술을 먹었더니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죽교에서 그 사람이 온거나 이것이 아니구, 그때
당시 선죽교에서 맞아 죽어가지구, 어 갔다 아무 데나 물어봤다가, 야중에
그 복권이라고 그러지?

저 복권도 돼 가지구서 유골을 갖다가 모시고 올 적에, 여기 풍덕천이라
고 있어. 거기서 인제 그 명정이 바람에 날려 가지구, 그 거기가 딱 떨어졌
단 말야. 그래 가지구 그 자리에다 모셨는데, 이 아마 그 저 경기도에선 그
명당이라면 명당자리란 말이야.

명당자리인데, 고 옆에 이 무슨 산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저 정몽주
선생의 누이동생이 있었어.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거기다 그 묘 파
묻은 데다 물을 갖다가 들이 뿜놓은 거야. 정몽주 산소 그 자리에다가, 쓸
자리에다가 물을 퍼붓구서, 정몽주 선생 동생이.

거기다 물을 퍼 놓구. 여기는, 그 이튿날 와보니까 물이 난단 말이야. 그
물 나온 자리라고 해서 딴 데로 옮기구, 거기는 파묻었다가 이 다음에 자기
신랑을 갖다 모셔논 거야.

그래서 정몽주 산소 가면 산소가 들인데, 지금 그 산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은 거기가 더 명당자리인데, 아무리 응 남매시간이라두.(Tape 뒷

면으로 넘어가며 녹음이 중단됨)

11. 이진마을의 유래

안중수(59, 남) /고림동T 3뒤

[4리 비닐하우스] 박중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 세워진 철탑에 대해 설명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 김민우가 그 철레탑은 유래했을 적에, 사실은 그 용인서 그 전공을 많이
세운 자리이구. 그리로 여기가 삼도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올라
올 적에 이 용인을 거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교통의 요충이란 말이
야.

그래 가지구 인제 이 용인에 요기 가면은 일진마을, 이진마을이라는 동네
가 있는데, 그리구 이 고기 가면은 진도 금물이라고 있어. 진도 금성이라고
있는데, 그 일진마을이 오래 변해 가지구 이진마을이 됐느냐?

그러니까 요기를 항상 전장터였단 말이야. 6.25당시에 저 중국군이 들어
와서 38선, 37도 선을 못 넘어 가지구 여기서 평장이 전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본사람이 진을 쳤는데 일진마을인지, 오랑캐 이자를 써 가지구 진을
쳐 가지구 이진마을인지 그거는 내 소재를 못 밝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은 일진마을인데, 오래도록 부르다 보니까 일진마을, 일진마을
하다 보니까, 이자로 변해 가지구 이진마을이다 이렇게 변했다고 저기가 있
고.

12. 용인의 유래

이덕재(63, 남) /고림동T 3뒤

[4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앞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제보자에게 이곳의 전설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녹음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꺼려하며 이야기를 구술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여기 용인은, 내가 옛날 얘기를 할게, 여기 용인은 용 용자에 사람 인자거든. 그 저기가 석성산이 있어요.(청중 웃음) [조사자 : 석성산요?] 응.

이 용인은, 옛날에 용이 편케 누어있는 형국이라서, 풍수지리 상으로 태백산맥으로, [조사자 : 용이 편하게 누워있는 형요?] 응, 응. 누워있는 형국인데. 그래서 인제 옛날 무슨 뭘니까?

우리 조상을 얘기는, 그게 뭐여, 저 풍수지리 상으로 명소가 많다는 얘기가. 그래서 응, 좌청룡 우백호가 제대로 되구. 이래서 인제 용인에게가 그 옛날부터 전설이 내려와서, 그런데 이것 왜 그걸을 자꾸 녹음을 헐라고 들어. 그만 뒤, 아 에 나 안 해, 인자.

13. 소누이 싸움을 한 석성산

최영은(74, 남) /고림동T 3뒤

[4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가 녹음하는 것을 꺼려하여 이야기를 중단하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청중들이 마저 이야기를 해 주라고 하자 나섰다. 이곳에는 4명의 청중이 있었는데, 조사자의 요청과 청중의 응원으로 구술하여 주었다. 억양은 부드러우며 재미있게 구술하였으며, 인상이 무척 좋으신 분으로 구비문학에 대해 반감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

섞어들은 얘기가 아니지. 그것 맞는 얘기이지. 이게 예 석성산 할미성이 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노부모가 살았는데, 슬하에 아들딸을 두었어요. 그래서 인제 가뭇이 아홉 해를 들어서 인제, 어떤 도사에 지나가면서 얘기가, “아들이건 딸이건 하날 없애야 풍년이 든다.”

이래 가지고서 인제 딸은 나막신을 신어서 한양을 댕겨 오게 하구. 아들은 인제 성을 쌓게 했어요. 여기 여 석성산에서. 그래 가지구 인제 영 노인네 두 양반이 따지기를, 아들보다 딸이 없어지는 게 낫아서, 아들은 나막신을 신겨서 한양을 댕겨 오는데, 그래 그 얘기 알아요, 형님!

그런데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밤새, 어머니나 할머니는 앞치마에다 돌을 주워다, 아들은 성을 쌓아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흙을 한 짐씩 저담은 것이 아흔아홉 봉 되구. 그래서 성을 또 쌓기 전에 딸이, 서울 간 딸이 먼저 돌아 왔어요.

[조사자 : 그래서요?] 그래서 차마 아들은 못 죽이고 주저하는 참에, 하늘에서 인제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 물구회의, 잉 그 구 년째 가물었는데 벼락을 때렸어. 벼락을 때려서 인제, 이 아들하구 영감은 벼락에 맞아 죽고, [조사자 : 딸만?] 응. 딸만 살았다는 얘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풍년이 들기 시작해서, 인제 제가 석성산 할미성이 이쪽에 있어요. 이 아흔아홉 봉이구. [조사자 : 석성 옆에?] 용인의 전설이 그렇게 된 거여.

[청중 : 마귀산이라 있어요.] [조사자 : 마귀산요? 석성산 옆에 마귀산요?] 이 양반은 여기서 70년을 살은 사람인데, 나는 40년 밖에 안 살았어. [조사

자 : 마귀산은 또 뭐예요? 응. [조사자 : 마귀산은 또 뭐예요? 마귀도 몰라. [조사자 : 왜 그러니까, 왜 마귀산이예요? 늙은 귀신이 마귀지 뭐여. 할머니 신이 아니야. 마귀는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조사자2 :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왜 마귀산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그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신이니까. 이런 말뚱어서 그래서 마귀다. 사람이 그렇게 치마폭에 하나 갖다 놓은게 저렇게 높아? 그런게 그 인제 그때 우리가 말하기를 마귀라구 그러지.

14. 물이 넘어가야 할 태화산

최영은(74, 남) /고림동T 3뒤

[4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시다가, 같은 산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태화산, [조사자 : 태화산.] 태화산. [조사자 : 태화산?] 응. 쿨 태자 잉 이렇게 쓴 것. 또 빛날 화자. [조사자 : 빛날 화요?] 응. 이렇게 쓴 것. 태화산. 그런게 옆쪽에는 인제 그 뭐라고 그러지. 마라갈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조사자 : 마라갈요?] 응. 이름을 마라갈이라고 그러는데. 고 옆에는 거기도 할미성이 있어. [조사자 : 할미성요?] 응. 할미성이 마귀산이라고 할껴. [조사자 : 이게 마귀산이라고요?] 그렇지.

[조사자 : 그래 여기에 얽힌 얘기 좀 해 주세요요?] 여기가 저기 어딘고 하니, 지금 팔당댐 막은데 있잖아. 거기가 양쪽에 산이 있거든. 그것이 폐끼지면은 물이 어디로 내려가니, 이리 역수 한단 말이여, 일리로 가요. 그 요 용

인읍, 읍에서 꼭 여기도 용인읍이니까, 읍 그 동네에서 조금 가면은, 거기 무네미이라고 있어. 근데 이 물이 그리 넘어간다는 것여.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 금강으로 빠지는 거여. [조사자 : 금강요?] 응.

그리고 그 때에서 할 적에는 얼마가 남는가 하니, 저 태화선 저 높은 봉이 광주땅인데, 그 산에서 인제 그 태야 덮어놓은 만큼 남는다고 해서 태화산이여.

15. 붓둔지와 보평 유래

최영은(74, 남) /고림동T 3동

[4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앞의 이야기에서 이곳을 지나간다고 말할 때 지명에 대해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 동네 얘기를 할까. 이 동네는, 이 동네 이름이 여간 많잖어.

근데 여기서 고림 4리라는 게, 여기 고림리라는 게 왜 그러니? 옛날 진터가 여기 있거든. [조사자 : 진터요?] 응. 응 옛날 진터가. 옛 고자를 쓰고 그래 옛 고자지.

그리고 여 위가 숲원이야, 이 동네 이름이. 그래서 여기가 고림리구. 그리고 이 동네는 뱃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선, 여기선 이번에는 붓둔지라고 하는데, 인제 그거부터 얘기하지.

붓둔지래는고 왜 붓둔지냐? 여기가 둔전이거든. [조사자 : 둔전요?] 둔전 대량 알아? [조사자 : 모르겠어요.] 둔전이라는 것은 그전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군대를 이렇게 보내면은, 거기서 자구 먹구 하는 데가 둔전이여. 그래서 그 둔전 사람을 거기서 살림 살면서 농사를 짓고, 군대가 오면은 밥을

해주게 되 있어. 그개 둔전이야.

그리고 또 역말이고 있는데, 역, 역말이라고 있는데, 그건 양반들 거 가서 자는 데가 역말이구. 그래서 그런데 이, 이 땅이 둔전에 속해 있어서, 보통 때 둔전을 보호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붓둔지야. [조사자 : 아하 그래요. 붓둔지요.] 영.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평이라구 그러는데, 그거는 여기서 동네가 저, 이 넘어 갱변에서 동네가 있었거든. 개울 옆에 보습이 있었는데, 임술년 장마에 거기서 인제 떠내려가는 바람에, 떠나 내려가서 일루 올라와서, 그래서 이름이 붓뜰이라고 그러지, 거기를. 그래서 보평이야. 이름이 보막을 보자 하구 들 평자하구 해서 보평이라구.

16. 돌무덤과 아기장사

최영은(74, 남) /고림동T 3뒤

[4리 비닐허우스]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 주변의 지명에 대해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런데 또 그것 하기도 웃은 얘기를 하지. 여기가, 이 산 이름이 액기산이야. [조사자 : 액기산요] 액기산. 두루미 액자, 달기 기자야. 그 액기산 인자 그 이름이 그 산밑에서 산다고 그래 가지구서 여기서 살구.

또 저 이 개울 이름이 연해야. 제비 연자 연해거든. 그러게 해서. 이걸 뭐 뭐 (늑음) 허면, 이 말을 못 허잖아.(일동 웃음) [조사자 : 그냥 하세요] 인자 웃는 얘기가. [조사자 : 연, 연 강 이름이 뭐라고요] 연해. 그 냇물이 이름이. 제비 연자 내 천자 그러면 연해가 되거든.

그리구 여기가 과거 왜정 시절에는 일본놈 땅이어서 전부 묵어 자빠져서

번더구번이 있는데, 인제 이 그 남병철이란 사람이 와서 개간을 해서, 여기 와서 지금 농장이라고 그러지. 이들이 농장이야.

[조사자 : 돌무데기요?] 동네 이름이 돌무데기인데, 지금은 저, 저마평리 산촌이라고 그래. 거기 신평리, 산 신천이지. 신천이 저 위지. 저기 저 석담 이라고 그래. 석담. [조사자 : 석담요?] 그렇지. 석담이라고 해야 돌, 돌무데 이거든. 그래 거기 가서 물어보면 그 내력이 잘 알아.

그러구 여기 옛날 진터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 고진래 뒤에, 예 고자 이 진터가. 거기가 옛날 진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 아래 와서 그 합수 웅덩 이라 데가 있거든.

그래 거기서 여기 저 남서방네가 여기 사는데 장사가 하나 있었어. 근데 장사가 그 아래, 아래에서 내려 오는데, 그 봉덩이가 100봉이 되야 되는데 99봉이구, 그 밑에다 썼거든. 게 99봉에다 썼는데, 그 밑에가 무덤이가 공동 묘지가 뒀단 말야.

그래 장군들이 그래 칼을 또 투구를 벗어들고, 하나는 투구봉이고 하나는 칼봉이야. 인제 저기서 와 여 유방리 있는데, 인제 거기서 칼봉이 있고 인제 투구봉이 있는데, 장군이 칼, 투구를 벗어들고 칼을 까꾸로 지고서 절을 하 거든. 그 앞에서 곡소리가 났거든, 공동묘지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남서방 네들이 성과를 못했다는 거야.

[조사자 : 고림리 얘기 해 주세요요?] 그래. 고림리가 그 앞에 진터가 있는 데, 거기서 진을 치구서,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이쪽으로 내려 왔는 데, 그 합수 웅덩이 된 다음에, 지금 고속도로 다리 밑이여. 그 다리 밑에, 에 거기에 진짜 웅덩이가 하나 있거든, 양쪽에. 합수되는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빠져 죽었어서, 피가 흘러서 내가 뒀다구 해서 그게 합수 웅덩이 여. 그것 옛날부터 유명하다더니, 지금은 저 흔적도 읊어져 버렸지.

17. 구렁이를 상하게 하여 벌을 받은 사람

문성의(74, 남) /고림동T 4앞

[2리 노인정앞] 박종수, 강현모,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6. 6. 1.)

원래의 조사지역인 주북리보다도 이곳 고림동에서 훨씬 많은 채록을 하였다. 특히 이 제보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놀라운 것은 긴 이야기 몇 편이 있는데 이 제보자의 연령에 비해서 기억력이 참 좋았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강약을 더해 가며 재미있게 해 주셨다. 이야기는 어릴 때 전주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들은 것이라 한다.

화성암절 이름이라고 아는가? 그래서, ‘우리 앞마당 가생에 있다.’고 그렸더니만, ‘아이 거기 좀 가 봐야겠다.’고 그러는데, 가니까 누가 있어, 아무도 읊지. 그러니까 그냥 보살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나와 앉아서 얘기가, 얘기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여.

그런데 안 될라면, 이 손이 뱀 허물 벗은 것 같어요.(조사자가 제보자 옷깃에 마이크를 달아준다.) 아이고 그걸 해요 어따가 아이고 이걸 어찌. 뱀 허물, 어 뱀 허물 벗은 것 같고, 새(혀)바닥을 이렇게 내 놓드라고.

“내 새바닥을 불러, 보라.”

고. 그러는데 새바닥이 양쪽이 꼭 뱀눈마냥 뿡 뿡어졌어요. [조사자 : 그 사람이요?] 예. 그런데 남잔데요.

“거 왜 그랜나, 왜 그러느냐?”

고 그러니까, 저기 사는데, 저 여주 쪽에서 살다가, 작년 그 그꼬럭젠가 왜, 장마 몹시 졌지? 장마 몹시 졌는데 인저 일꾼을 데리고, 일꾼을 데리고 논둑이 터지니까, 논둑 그 가마짝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가느라고 가니까, 가서 이렇게 몇 가마니 해서, 이렇게 모래로다 해서 거기를 틀어막다 하도 죽겠으니까 이렇게 그 일꾼하고 앉어 있으니까, 자기네 집 있는 데서 연기

가 폭삭 나더라.

폭삭 나더니 그 집이 쓰러지느라고 그래 중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마누라 하나 그냥 집에서 그냥 씨러 졌대. 씨러져 죽었 데지. 하도 기가 막혀서 인저(웃음) 그래 그래설랑은, 어?(웃음) 그래서 인저 그 마누라를, 죽은 마누라를, 아들은 아무렇게나 해지만 그래도 마누라는 이 생여도 쓰고 그러잖 어?

그래서 저기 그 산이, 이 범의 혈(穴)이래요, 그 산 이름이. [조사자 : 범의 혈이요?] 범. 범. [조사자 : 좋은 산 아니에요 좋은 산?] 그렇지. 그렇지, 범. 호랭이 혈. 거기다 이렇게 파는데, 인저 동네 사람들이 가서 파는데 큰 구렁이가 나오드래요. [조사자 : 산에서요?] 응. 그 파는 구렁이에서. 그래서 남자는 그랬다.

“저기 여길 파지말고, 다른 데로다 파라.”

고. 돈, 그. [조사자 : 그 부인 남편이요?] 응. 그 남편이.

“여기다 어떻게 팔 수가 있냐? 다른 데다 파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까지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 그래면서 이렇게 파다가 어떻게 잘 못해서 좀 찍혔대요? [조사자 : 살에요?] 응, 아니 그. [조사자 : 구렁이요?] 구렁이. 좀 찍혔대요. 그런 거를, 고 옆에다가 이렇게 파고는 그걸 묻고 여자는 그냥 묻었대지.

그랬더니 그냥 그때부터 그 남자가 앓는 거래. 앓, 앓아서 돌아 댕기다, 돌아 댕기다 아이 곤치러 댕겨도 못 고치고 그랬는데. 그렇게 뱀 허물이 벗 벗는 거래. 정말 뱀 허물 벗는 것 같아요, 이 팔이. 그리고는 헌 새(희)바닥은 이렇게 내밀어 보이는데, 양쪽에 꼭 뱀눈마냥 뺨 뚫어졌어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래, 그래, 그런데 인저 뭐라냐? 그냥 저기, [조사자 : 화성암을 찾아온 거예요?] 응. 용허대 소리가, 여 저기 수원까지 와 가지고 용인, 용인을 그냥 넘어 왔는데.

그래 수원까지 와 가지고 용인 오는 차를 탔는데, 이러 이렇게 저기 버스

를 타고 오는데, 그 동안 쓰리꾼이 가져 갔대는 거지, 주머니를. [청중1 : 주머니에 뭐가 들었는데?] 돈. 돈하고 무슨 영, 그래야 수원 댕기는 그런 거 있었어. 거 털어 갔대지. 그래서 아무 것도 안 가져 왔대는 거여. 저 읍대는 거여. 그래서 여북하면 그 저기 앞집 할멈네 살던 그 있어.

원식 엄마라고 왜 여자 있지, 애들, 아들만 들. [청중1 : 영식이냐 응, 영식이. 그 니가 자꾸 돈 사천 원, 그래 화성암에 오니까 보살은 읍지. 좀 물어보라고 온 거래. 좌우간 용허대 소리가 있더라, 용인에서 들으니. [조사자 : 점쟁이한테 물어 보려고요?] 예. 화성암에서 그런 걸 보거던요 보는 이 거던요. 그래,

“그 니네한테 좀 여기 와서 자세히 물어봐 가지고 그 산소를 옮길까, 산소를 옮기면 괜찮을까.”

그래고는 왔대는 거여. 그런데 보살이 읍었어. 그래서 그냥, 그냥 갔어. 그런데 영식이 엄만가 그 니가 돈 사천 원을,

“노자래도 하라.”

고 주니까 그냥, 십 원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 그런 것도 있어.(웃음) [청중 : 그럼 뭐야? 벌을 입었구만.] 벌을 입었지. 그래서 그 지관을 그냥 거기서 못 살게 인이가 가서 하도 평강을 놓아 가지고 지관이 어디로 내뺐다. 지관, 지관보고 잘못 봤대는 거지 응. 그런 혈이라면 좀 저기 허지 않고 [조사자 : 피해야 되는데.] 어. 어 그래서 뱀이 나오더라고, 그런 거를. 그런 걸 크니까, 크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기하다 보니까 저기를 찍혔대. 저기 삼 그런 걸로. 지금이니까 포크레인으로 하지, 그전에는 다 삽으로 팠잖어요? 아휴 그랬다고 그러면서,

“아이구 집을 어떻게 그래 집은 어떻게 하구 왔수?”

그러니까. 그래도 살기는 괜찮게 살았나 봐. 살았길래 그 밥 해주는 할머니가 하나 있데, 그 동네에. 증말 그 할머니도 어디 의지할 곳 읍고, 이 니도 식구도 별안간 저기 했으니 의지할 곳이 읍어서 그냥 저기, 쌀은 넉넉하니까 ‘두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도 있어요.(웃음)

18. 나라의 왕이 된 아이

문성의(74, 남) /고림동T 4앞

[2리 노인정앞] 박종수, 강현모,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나무장사에서 시작하여, 아기장수를 물리친 장수로 중간에 등장시키고, 끝에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어릴 때 명절날에 소설책을 읽은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해 주신 것을 전주에서 들었다고 한다.

1) 어머니의 원수 갚기

이렇게, 지금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왜 장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산, 지금은 저런 산을 모두 까뭉기고 그래서 장사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전엔 장사가 많이 나오는데, 동네서 어떤 이가 인저 저 산중에서 이렇게 기냥 아버지하고 나무장사 허고 이렇게 사는데.

아버지가 밤에 돌아갔대요. [조사자 : 남자가요?] 응. 이렇게 두, 두 췌만 살았지, 아들하고 저 참! 어머니하고 살았어. 아이고 이것 왔다 갔다 하네.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어머니, 한 날은 이 마을, 이 이 동네로 밤에 이렇게 횃불이 있어요. 이런 데다 불을 켜가지고 뭐 그 때는 뭐가 있어요? 불, 달 아니면 그것만 불 그것 밖에 읍지.

그러니까 횃불을 켜 가지고 동네로 내려와서 놀다가 기껏 놀다 올라가니까, 깜깜한 방에, 옛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불키는 시늬) 불 키는 게 있어요, 부싷. 부싷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오니, 불 키는 게 있어요. 그걸로 불을 켜래니 얼른 더디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허니까, 방을, 깜깜한 방을 더듬으니까 어머니가 없더라고. [조사자 : 네에?] 어머니가 없어서 아, 아휴, 엄마마 밤중에 인저 호랭이가 물어간 줄 알고,

“엄마! 엄마!”

블르면서 이렇게 돌아 댕기니까, 돌아 대니까 구석에 요 다리가 하나, 다리가 요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다리 들, 이렇게 돌이 만져지는데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듯 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청중1 : 뭐야?] 하나는 차갑고, 얘기를 들어야지 인저.(일동 웃음)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듯해서, 이렇게 뜨듯한 다리를 더듬더듬 더듬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자가, 여자가 하나가 어머니를, 그 어머니를, 시체 죽은 시체를 세워놓고 코를, 코를 빨더라. 그런 걸 양 머리 꼬맹이를 꼭 껴서 방바닥에다가 저기 뺑이, 저기, 저기 하니까. [청중 : 여운가 보네?] 아녀. 사람이 병 고칠라고, 자기 병. [청중 : 아이고!] 옛날에 약이 있어요? 그 문등병 같은 건 사람 그런 걸 먹어야 낫, 낫는 데니까.

그래설람은 뿌리치니까 어머니 벌떡, 인저 시체니까 벌떡 씨러지고. 그 여자는 방바닥에 팽개치니까 머리가 한 움큼 숙 빠졌는데 어디로 달아 나더라. [조사자 : 여자가요?] 그렇지. 그 빨아먹은 여자가 어디로 달아 나더라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둥, 또 동네를 또 내려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 가셨다고. 그래, 그래니 그 우리 친구들, 동네 아는 분들이 좀 올라가서 같이 저기 하자.”

고. 그래서 그 이튿날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지내고는 집안에 있는 쇠를 죄 돌아다니면서 주서 모아서, 잘하는 대장간에 가서 칼을 하나, 칼을 하나 잘 치었대여. 지금, 그냥 지금이니까 그렇지, 대장간에 가서 칼을 맨들어요. 그 칼을 맨들어 가지고 숫돌에다 쓱쓱 갈아서, 뒤란에 무슨 나무를 한 번 툵 치니까, 그 나무가 툵 씨러지더라.

씨러지니까, 인저 집은 그냥 그 뭐, 정말 산골 오막살이지. 뭐가 있었어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냥 집은 내버리고 나셨대, 그냥. 좌우간 집집마다 몇, 몇십 리를 돌아대니다 보니까, [조사자 : 계속하세요.] 몇 십리를 돌아 댕기다 보니까, 어느, 어느 집에 이 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수건을 썼더라고요. 수건을. 아 그 때는 수건을 잘 안 쓰지. 수건을 쓰고는 이렇게 두레박 있잖우?

두레박, 물 푸는 두레박으로 이렇게 푸는데, 그 이 애가 가설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면서,

“아줌마! 나 물 줘 줘?”

그래. 그러고 비비니까 수건이 훌쩍 벗어지는데, 한 움큼 빠졌더라고. 한 움큼 머리가 빠졌더라. [청중 : 그 여자 찾으러 돌아 대냈구먼.] 응. ‘이 여자가 우리 엄마 그랬구나’ 하고, 칼을 쭉 빼설람은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물 풀라고 이러는데 탁 치니까 그냥 목아지가 땡겨 떨어 지더라.(웃음) 땡겨 떨어져서(웃음) 땡겨 떨어지니까 그 길로 동네 내려와서 외쳤대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응, 증말 돌아가신 것도 마음 아파 죽었는데, 자기 병 고칠라면, 그러니까 문둥, 문둥이었어. 문둥이가 피 빨아 먹으면, [조사자 : 자기 병 고칠려고요?] 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마음 아파 죽었는데, 자기 병 고친다고 우리 어머니가, 코를 빨아서 피를 빨아, 빨아서 내 그 여자들 이렇게 죽었다.”

고. 그냥 소리치고 동네 내려와서 그러니까, 누가 터치를 못 하더라고. 터치를 못 해설람은 저기 하는데.

2) 아기장수 물리치기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가 어떤 그 어느 동네를 또 그냥 방향없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개울에 나왔는데 하는 소리가,

“웃도리 엄마! 웃도리 엄마!”

그러더라. ‘웃도리 엄마’라고. ‘웃도리 엄마, 웃도리 어마’ 그러더라. ‘저 여자가 이상하다고 왜 웃도리라고 부르나’ 하고 동네에 들어 갔다. 동네를 들어가서 사랑방서 자면서, 그 쪼그 쪼그만 애들이, 인자 으른 자는데 가서,

“아유, 아저씨! 이 동네에는 왜 웃도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에 웃도리가 다 있데요’ 그러니까 허는 소리가, 응. 그 아줌마는 애기를 못 나서 저 근너, 근너 산에다 치성을 드렸더니, 한날은 그 밤에 주무시, 자는데 그 산이 입으로 쭉 들어 가더라. 자는데 꿈에, 꿈에 그 산이

입으로 들어 가더래요. 그러다가 그래더니 그 산이 도로 나와서 저기 했다고 그래더래.

그래서 인저 애기를 열 달, 그러자 과부지. 그 애기 난 아줌마가 남자가 읊으니까.(웃음) 그랬는데 애기가 있더래요. 있어설람은 열 달, 열두 달을, 장사를 넣는냐고 열두 달을 채웠다네 봐. 열두 달을 채웠어.(웃음) 넣는데, 밤에 넣는데 죽겠다고 넣는데 애기가 웃도리만 나오더래, 아랫도리가 읊더래. 그러더니, 그러더니 한 손에는 콩을, 콩을 한 움큼 쥐고, 한 손에는 저기 스속(조)이라고 있었어요, 스속. 밥해 먹는 거. 밥해 먹는, 밭에다 해서 스속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한 움큼씩 쥐고 나왔더래요. 엄마 뱃속에서, 그 웃도리만 있는 사람이. 그래면서 그러더래.

“엄마! 엄마! 나는, 나는 어디로 가니까, 어느 바우 밑으로 가니까 절대 동네 사람한테 일러주지 말라고. 일러주지 말라.”

고 그러더래.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동동동동 떠서 가더래요. 그래서 동, 그 소리를 동네 사람 보고 허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꼬마가 그 집이 가, 그 어머니 웃도리래는 집에 가 뭐 일꾼을 해주고 있었대요. 인저 알고 싶어서. [조사자 : 그렇죠] 응. 알고 싶어서. 그냥 몇 년을, 한 삼 년 살다가 그걸 캐물었지. 물으니까 그 애보고,

“우리만 알자고. 우리만 알자.”

고. 그러면서 일러 주더래.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어느 연못에 그 바우, “연못 안에, 가운데 바우가 있는데 그 바우 밑으로 들어간다.”

고. 거기까지 일러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못 믿는다는 게 어머니여. 그래설람은, 가설람은 그 칼로다 저기 그 강 저 연못을 퍽 치니까 길이 나오더래요. 길이 나와서 그 바, 바, 바웃돌을,(청중들의 소란의 잠시 중단) 바우, 바웃돌을 이렇게 놓고는 그 칼로 탁 치니까 그 장사가 나오더래요. 그러데 좁쌀 한 움큼 쥔 거는 죄 군사가 되더래요. 그리고 콩 한 움큼 쥔 거는 말이 돼. 말의 형영이 됐는데 눈 하나 안적(아직) 안 된 말 있고, 다리 하나 안적 못 일어슨 일어슨 말도 있고. 사람도 죄 그 형용이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다리 하나, 한 사람도 다 되고 요 무릎 하나만 못 일으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어매라고 일러줬더니!”

그러고는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망쳤데요. 그러니까 어머니(웃음) 남이래는 거여, 일러 그런 말도 못 지켜준 거라. 그 집이 가 일꾼으로 있으니까, 그 자기는 해준 데는 게 잘못 일러 줬지. 해필 장사한테다 일러준 거지.(웃음) [청중2 : 그 장수가 태어나면 어마를 죽인 데요.] 영. 그렇데요. [청중2 : 어마는 일러주기 때문에 자기 엄마를 죽인 데요?] 그래설람은 그 아들이 결국은 그냥 사라져 버렸지. 그 사라져 가지고 물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출세를 못 시키고는.

3) 야기장수의 죽음 안 나무

그래설람은 그래서 인저 그, 그러고는 이렇게 돌아서서 또 다른 데로 가니까, 가만히 이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뺨 뚫어져서,

“아 여기 드러눕 있으면, 드러 났으면 그래도 이슬은 안 맞겠다.”

하고 드러 났으니까. 한 밤중쯤 되니까 저 건너편 느티나무가,

“얘, 아무게야! 아무게야! 이리 놀러 와.”

그러더라. 느티나무끼리.(웃음) 그러니까,

“아이구 얘, 우리 저기, 저기 손님네가 오셔서 지금 자,”

그러드라.

“무슨 손님네여?”

거기서 그러니까. 이 니가, 이 느티나무가 하는 소리가,

“아휴, 저기여 얼마나 장산데, 이 나라를 치고 들어왔을 [청중 : 장사가.] 응. 장사가 와 주무시는데.”

그러더라. [조사자 : 나무들이 아는 거예요?] 응. 나무들이 그러게 서로 저녁이면 그러게 통한 데요.(웃음) 옛날 고목 같은 그, 그래. 예 그러니까,

“뉘, 여기 장사가 또 있는데.”

그러더랴. [청중 : 이 안에 있는데, 또 있다는 게 뭐여?] 응.

“장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녀. 그 장사는 이미 저기 죽었어. 아이구 읊어 줘. 그 어머니가 입을 잘못 놀려 가지고.”

그런게 나무끼리는 서로 알았지.(웃음)

4) 장수의 자금을 마련한 여우

그래설람은 또 어디만큼 가니까, 어디만큼 가니까 괜히 이 얘기가 긴 거 아니요? [조사자 : 아니예요](웃음) 어디만큼 가니까, 어느 산 모랭이를 돌아 가니까, 저기 산 모랭이를 돌아가니까,(잠시 다른 이야기로 중단) 저기 산 모랭이를 돌아가니까, 누가. 여우라는 놈이 앉았더니,

“헤! 헤! 헤!”

웃더랴. ‘헤헤헤’ 웃더니, ‘헤헤헤’ 웃더니 해골바가지를 이렇게 들고 앉아서, ‘박박박박’ 긁더니, 얼굴에도 이렇게 삭 바르니까 사람이 되더라고요.(청중 놀람) ‘박박박박’ 긁어서 몸에다 이렇게 속 바르더라. 그 니가, 자기가 장사니까,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헤이, 저기 왜 그랴?”

그러더랴. 그래설람은,

“너, 뭐 하는 거여?”

“응. 이 동네 저기 굿, 굿을 허는데, 그 집이가 굿해, 굿해 줄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 그 옛날에 그 여우 도섭을 한대잖우, 그계. 그계 그거여.

“저기 굿하러 가는 건데.”

그러더랴. 그래서,

“네가 같은 게, 네까지 것 같은 게 무슨 곳을 해?”

그러고는 가설람은 그 여우를 해칠라고, ‘저런 거를 두면 안 된다.’고 해칠라고 그러니까.

“흥! 나를 그러?”

그러길래,

“아, 니까짓 게 뭘 알아서 그래니?”

그러니까.

“헹, 그래도 당신 뒤 바쳐줄라고, 지금 저 산 모랭이에 바우 밑에 금 향아리가, 향아리가 물렸는데, 거기 금이 세 향아, 향아리가 셋인데 다 차고 한 반 향아리 남았다고 그러더라. 반 향아리 인저 고것만 차면, 당신도 이 나라를 치고 들어 앉는다.”

그러니까.

“너까지, 네까짓 게 뭘 그런 걸 아느냐?”

고 그러고 인제,

“이리 와 보라.”

고 그러드래, 여우가. 여우가 인제 사람 됐지 인저. 사람 돼 가지고 그래슬슬 쫓아가설람은,

“장사니까 이것 밀어 보라.”

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바우를 이렇게 하나 밀고 보니까 증말 하나 가득하게 차고 또 하나 밀으니까 가득하게 차고 또 하나는 다, 반 향아리 냉겨 있대.

“이거만, 이것만 차면 당신 이 나라에 큰 일, 큰 일 해 먹어.”

그러더라.

“그렇구나!”

하고설람은(웃음) 그랬더니 결국 그 니가 큰 일 해 먹었대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가지고 그 니가 이 나라 치고 들어앉았다(웃음) 그만하. 그만 해.

19. 도깨비들의 말을 엿듣고 얻은 명당

문성익(74, 남) /고림동T 4앞

[2리 노인정앞] 박종수, 강현모,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앞에서 여우와 비슷한 신기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어릴 때 전주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한다.

황방산이라고 산이 있었어요. [조사자 : 전주요?] 네. 전주 황방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효자동이고, 지금도 서구사 절은 있긴 있더라. 있나 보더라구, 저 텔레비에 나오더라구.

그런데 서구사 절이 있는 황방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동네 살면, 저쪽 황방산 절이 있는데 거 호랭이가 많아 또 호랭이가 많은데, 우리 뒷집에 사는 김택, 김택일이라는 이가 혼저 사는데, 기도를 해요. 뭐 증말 기도를 인저 밤새도록 그냥 뭐,

“가가서방 신매감을 ...”

뭐, 우짜고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렇게 허는 건데, 그 우리 종중산이 있었어요, 산 하나. 그런데 거기가 그 산에 바우가 꼭 칙소마냥, 칙 소, 왜 황소에 얼룩얼룩한 황소 있잖아요? 그 소같은 바우가 있다구요, 그 산에. 나 이건 본 거 얘기하는 거유.

그런데 그 홀애비가 거기 가서 인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유. 기도를 하며 인저 백 일을 허면, 산신님이 내려와 가지고 산신님이 내려와 가지고, ‘어디는 명당이고 어디는’ 이렇게 쪽 밤에 이렇게 보인 데요. 명당이니까 밤에 눈 감고 있어도 거기 보인 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 짓구는, 인제 집이라고 뭐 이냥 나무 좀 비어다가 이렇게 어리거리 허구 하는데.

인저 저녁을 헐 때는, 졸으니까 아무케도 그런 기도를 해도 그 졸음이 오

니까 상투를, 상투를 여기 서까래에다가 이렇게 끈냉이로 해서, 노끈으로 해서 이렇게 매달고는, 밤새도록. 백 일을 거 반, 그냥 하다 보면 밤중이면 이렇게 앉아설람은 그냥 인자 이렇게 오이면(외우면), 밤에 와서는,

“어흥!”

허고 이렇게 잡아매긴데, 호랭이가. 호랭이가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좌우간 나물 뜯으러 가서 호랭이를 봤데니까, 바우 밑에. 그래 그런다. 그러도 거 이기는 거지. 말해자면 무서워서 이리질 않고 그냥 이기고 하는데 한 저기 이저 거 반, 그때는 끝나는 때가 되어나까 떡을 해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인자 허는 거지.

밤새도록 오이니까 새벽녘인데 이렇게 앓어 눈감고 하니까, 그냥 산신들이 무척 모여가지고 그냥, 부엌에도 있고 그냥 옷방에도 있고 이렇게 있더니,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획 불더래요. 바람이 획, 호랭이 바람이 불더니 그 호랭이는 간 곳이 옹고, 도깨비들만 달박달박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감고 보니까, 저 아래 그 동네 안 노인네라고 안 서방네 노인네가 있어. 그러니까 고런 걸 살살 가 옛 들을라고, 옛 들을라고,

“어디가 명당자리고. 뭐 어디가 뭐가 있고,”

뭐 그런 걸 옛 들을라고, 훔쳐 들을라고 간 거지. 그러니까 가서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호랭이는 간 곳이 옹고 도깨비들만 달박달박 하더라. 그래설람은 자기가 상투를 그냥 냅다 잘르고, 저 황방산 꼭대기라는데 가 이렇게 보니까, 그 노인네가, 그 노인네들이 진짜 거기 살살 올라 오더래요, 들어.

그래서 그냥 그 길로 내려와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그냥, 우리 뒷집에다 집을 짓고 인자 그 남원택이라는 이를 여자로 얻어 가지고 사는데, 그래도 계속 오여요, 뭐라고 저녁이면. [청중 : 그 짚인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런 사람인데 그래요. 짚이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러므로. [청중 : 짚이지도 않았는데.] 응. 짚이지도 않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오이더라구. 오이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라, 한날은.

“어휴, 어저녁에 뭐가 왔었나 봐. 우리 뒤란, 우리 뒤가 대나무가 있었어요. 대나무 밭 저 뒤로 접시같은 밭자국이 있다.”

고. 그래 호랭이 와 돌아 땡겼지. 그랬는데 인저 그 인저, 그 집은 인자 그 냥 일 년이 나니까, 뭐 집은 흙으로다 간신히 어리가리 현 집 뭐, 씨러지지 뭐여.

그래 우리 집안네 증조 할머니이래는 이네가 저기 있는데, 그 니네 일꾼이 나무하기 싫으니까 가서 그 서까래를 갖다가 불땡, 저 쇠죽을 쏜거야. 그랬더니 그 날 저녁부텨 앓더라고. 앓더니 결국은 문둥병이 되더라고, 거 일꾼이. 그거 봤어, 난. 시집을 때 본 거야 건, 어려서.

[조사자 : 전주에서요?] 네. 전주 황방산이래는 산이 있어요 거기 황방산이라고 있어요. 테레비에도 더러 나오더라구. 서구사 절이라고 절이 있는 산인데, 거기 호랭이가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웃음) 이 얘기 고만해요.

20. 흙토를 대수라고 잘 된 흥가

문성의(74, 남) /고림동T 4앞

[2리 노인정앞] 박종수, 강현모,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신기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는 흙토란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어렸을 때 전주에서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한다.

그 집으로 집은 좋은데, 이사만 들어가면 좌우간 그날 저녁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날 저녁이면 사람이 죽더라요.

그래서, ‘참 이상도 하다’ 하고, 그 뭐 볼 줄 아는 이가 가만히 가서 그 집 대문간에 가 보니까, 그 집에 뭐 지킴이 꼭 있더라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녁

에 밤중쯤 되니까 그냥, 도깨비가 오더래요. 도깨비가 오더니,

“아휴, 흙, 흙토야! 흙토야!”

그래고 들어 가더래요. [청중 : 흙토?] 응. 흙토. 인제 그래, 그래고 들어갔는데,

“에이 이 집이 흙토만 부르면 되겠구나!”

하고는 인제, 그날 저녁은 그러구 들어가더니, 그러구 들어가더니,

“아이 저기 오늘 저녁이 이사 안 왔구나!”

그러고 가더래. 갔는디, 그 니가 그 이튿날,

“흙토야!”

하면. 어디서,

“네!”

그러고

“흙토야!” 하면

“네!”

하고. ‘네’ 하는 데로 자꾸 쫓아 들어갔대. 그랬더니, 옛날 옛날에 애들이 흙으로다 사람을 맨들어서 가지고 놀다가 인제 그 땅에다 논 건데, 그냥 거기다 이렇게 집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그게 신이 붙어 가지고 그랬더라. [청중의 말씀 청취불능] 응. 그래설람은(웃음) 누가 이사온다고 그러더라. ‘이사온다’고 그러길래, 인제 그 니가 장담을 한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라고는. 저녁에 좌우간, 좌우간 여기서 당신이 하루 저녁을 이길, 이길래거든 그 광대 있지, 광대 이 저기 이렇게 사람 맨드는 것, 지금은 뭐 맨드는 거. [청중 : 탈.] 응. 탈. 그거 열두 개를 갖다 방에 죽 걸어 노라.”

고. 그러더래요. 그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에다 죽 걸어 놔더니, [청중 : 옛날에도 탈이 있었어?] 예 있데요. 왜 광대들 저 줄 타고 허는 사람들이 썩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열둘을 갖다가 방에다 죽 걸어 놓았더니, 그날 저녁에, 또 가만히 보니까 도깨비가 또 오더라. 오더니,

“흙토야!”

그런게. 대문을 안 열어 준대요. 다른 사람이 가서 대문을 꾸땡기면 안 열어주고, ‘흙토’를 불러 가주고 ‘흙토야’ 하면, 그게 무슨 신호로 해서 문을 열어 주더래요, 그래,

“흙토야!”

그러니까. 문이 열리더라. 그래서,

“흙토야! 흙토야!”

하고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탈바가지를 열둘 개를 걸어 났으니까,

“어휴, 우리 장군님은 얼굴이 하난데 열두 개라.”

고(웃음) 그러고 그냥,

“여기는 못 살데라.”

고 그 도깨비가 그냥 가더라. 그래서 그 댄 사람이 와 가주고, 그 흙토를 친해 가지고 거기가 사는데, 왜 송가(흥가)터가 부자로 된다는 소리가 있잖아? 그걸 새겨, 흙토를 새겨(친구 삼아) 가지고 부자로 잘 살았대요. 아휴 나 이거 짱아.(웃음)

21. 밤에 찾아오는 지네 신랑

문성의(74, 남) /고림동T 4앞

[2리 노인정앞] 박종수, 강현모,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정신이 없어 이젠 못 하겠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도 어렸을 때 전주에서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긴대. 어느, 어느 집이서, [조사자 : 어느 마을.] 영. 어느 마을에서 시집을 왔는데, 자꾸 하루 저녁, 아니 남편네가 죽었대죠. 죽어 가지고 사는데 자꾸 말르더라잖아요, 그 여자가. [조사자 : 여자가 요기 응. 여자가 말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누가 보니까 ‘왜 저렇게 말르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녁이면 신랑의 초립을 쓰고 오더라, 그 방에. 저기 신랑마냥 하고 와설랑은 그날 저녁이 잘 지내고 가구, 지내구 가구. 그 래설랑은 동네 사람이 그랬대지.

“그래지 말구, 오늘 저녁에 뭐를 좀 잘 응, 뭐를 표시를 해라.”

구 해서. 여자가 명지, 명지꾸리 하나에다가 실을 꼬여서, 바늘에다가 실을 꼬여서 놀다가는 뒤에다 인자 꽃였대여. 뒤에다 꽃이니까, 그 니가 저녁에 그 신랑이 왔다 갔는데, 인저 그날 밤을 새워 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그 게 한없이 갔더라지. 그래 보니까 저 동산에 바우 밑으로 쪽 들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우를 대들어서, 동네 분들이 대들어서 열어보니까, 지네가 이그만하게 엮드렸는데 거기가 바늘이 꽃혔대잖아요.(웃음) [청중1 : 신랑이 지네가 둔갑을 해가지고 신랑 노릇할려고 온 거여.]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그래니까 그 지네하고 밤을 잘 지내다, 밤을 잘 지내다 갔는 데도 그 여자가 말르더라잖아요. [청중2 : 말르지.] 예. 배짜 말르드래잖아요. [청중2 : 말르지. 마르게 하라고, 그렇게 할라고 지네가 둔갑을 한 거여.]

다. 민 요

1. 상여가

심인식(88, 남) /고림동T 2앞

[1리 자택] 박중수, 강현모, 황은정, 이은미 조사(1995. 11. 4.)

이 마을에서 태어나 계속 이 고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7, 8대가 여기서 계속 사셨다고 한다.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나 젊어서는 우체부 일을 하기도 했고, 고림 1리 이장을 맡기도 하였다고 한다. 성격은 괄괄한 인상을 풍겼으며 외모는 머리가 다 빠져 거의 대머리였다. 말씨는 연세가 드서 발음이 분명치 않아 이야기 도중에 몇 차례 되물어야 했다. 처음에는 사양하고 도무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다가 몇 차례 권유로 통과의례에 관한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상례 행렬에 대해 말하다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에헤헤~ 미리 상타고
 일가 친척이 많다 한들
 대신 갈 사람 누가 있나

2. 농부가(논밭 적에)

심인식(88, 남) /고림동T 3앞

[4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고림 4리의 비닐하우스에서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장의 소개로 할아버지를 댁으로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집으로 가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야기를 잘못하고 옛날 노래나 한 마디 해야겠다고 음영조로 불러 주었다. 인상과 마음씨가 부드럽고 온화하신 좋으신 분이셨다.

닷새만큼 바람 불구
 열흘만큼 비가 와서

오곡 잡곡 풍성하니
성평 세계 이 아니냐
어럴러려 상사디야

근검하면 부유하고
사치하면 패망이라
우리 농부 절약하야
천하대본 힘을 쓰세
어럴러려 상사디야

라. 속신어

이강래(59, 남) /고림동T 3앞

[4리 발독] 박종수, 강현모, 김은주, 윤은경, 이정훈 조사 (1995. 11. 11.)

앞에서 설화 「떡국새의 유태」에 대해 말씀한 뒤에 해 주신 것이다

- * 밤 까치가 짚으면 난리 난다.
- * 개가 풀을 뜯어먹으면 삼일 내로 날이 꺾는다.

여

백

마평동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은용, 김경화, 이민정, 임태현, 문선의,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5. 11. 4., 1995. 11. 20., 1996. 6. 1.

마평동은 용인터미널을 중심으로 남쪽에 펼쳐져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양지군 주서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마남리, 마북리, 신평리 김량리 일부와 용인군 수여면 하리 일부를 합쳐, 마남 마북의 마와 신평의 평자를 따서 마평리라 칭하여 용인면에 편입하였다.

마평동을 이루고 있는 자연 마을로, 우선 신흥은 옛날에 지나가는 길손이 이곳에서 말을 재우고 쉬었다고 해서 마구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구리는 풀의 변음이라고 볼 때, 말구리에서 말보다는 마(麻)가 많은 고을이란 마구리가 아니가 한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곳이 마전리에 속하였다가 마을이 점차 커지자 마북리(신평)과 마남리(신흥)로 구분되었다. 신흥은 새로 일어난 마을이란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신평은 들판에 새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박곡은 박씨 세 집이 거주하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농사를 지으면 흉년이 없고,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사람이 무성한 것 등 세 가지의 복이 있는 지역이라고 삼복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삼박골은 삼밭골(麻田谷)의 변으로 생각된다. 석담은 이곳에 원형이 많이 손상되었으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적석총이 남아있는 데서 비롯된 이름으로 일명 들무데기라고 한다. 신점은 양지군과 용인군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으로, 영남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대로 변에 자리잡고 있어, 새로이 주막이 생겼다고 새술막이라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 마평동의 조사는 1995년 11월 4일에 김은용, 김경화, 이민정은 터미널 인근에 있는 마평노인정에서 조사를 하였고, 1995년 11월 20일에 임태현, 문선의가 용인시의

버스 터미널에서 조사하였으며, 1996년 6월 1일에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이 마평동 노인정에서 조사를 하였다.

나. 설화

1. 이퇴계 선생 일화

이영재(83, 남)/마평동T 1앞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김은용, 김경화, 이민정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용인 시외터미널에서 내려 인근의 마평동 노인정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10여 명의 할아버지들 모여 화투치기와 담소를 하고 있어, 조사자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 구술하여 주었다. 삼박골에 살고 계신 제보자는 ‘짐승소리를 알아듣는 사람’ 유형의 설화를 이퇴계 선생과 연관시켜 구술하여 주었다.

그전에 그 이퇴계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퇴계 선생님의 서원이 저 경주에 있거든. 경주에. 그런데 그 분이 형제분이여. 형제분이 어디를 쭉 이리 가는데 응, 이 산기슭에서 말이지 까마구들이,

“다육, 다육!”

하거든. ‘똥을 다자 그 육 육자’ 그 우리가 듣자면 ‘까옥 까옥’ 소리지만, 그 사람들은 새짐승 소리로 알아듣는 걸로, 그 다육 고기가 많다. 똥을 다자 그래 ‘다육 다육’ 하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아우가,

“아유 형님! 저 까마구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기 좀 가보고 가십시다.”

그러니까. 그 형이,

“아이 가 보기는 뭘 가봐.”

“아이 가 봐요.”

그래 가봤어. 갔더니만 저 뭐 산기슭이 점 사람의 송, 송장이 하나 있더라, 시체가. 그래 마침 그때, 저 지금 같으면 잠복해 가지고, 형사들이 잠복해 가지고 그 범인을 잡을라고, 그땐 사령이라고 형사가 아니라 이 잠복하고 있는 거야. 형사들이 마냥 이렇게 살인범을 잡을라고 그저.(헛기침) 이때 마침 형제들이 붙잡혔단 말이야. 애매하게 붙잡혔지.

“너들 왜 사람을 죽였느냐?”

이러니께.

“우리는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라, 여기 까마구가 울고 새 짐승소리를 알아들으니께, 참 ‘다육 다육’ 하길래 와 본 거라.”

구. [청중 :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니. 까짓게 알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웃음) 그래 저 그러니까,

“침 여기 왔다 이렇게 됐노라구. 새짚는 소리가 알아듣는 걸로 까마구가 ‘다육 다육’ 하길래 왔더니, 여기 송장이 있다.”

고. 그러나 저러나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잡아다가 원님한테 데려갔단 말이야. 애매하게 저기 잡혀간 거지. 그래 꿰어 얹혀 놓고,

“너, 왜 살인을 했느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원보고 하는 얘기가,

“저희가 새 짐승 소리를 알아듣는 걸로 지나다 보니까 까마귀가 ‘다육다육’ 하길래 갔다가 그렇게 애매하게 붙잡혀 왔노라.”

구. 그래 그래 그러다가 덜컥 가두거든. 이퇴계 선생 형제를, 원이. 그러다 인제 이튿날 그 때부터 춘삼월이야. 봄. 봄. 삼월인데 제비가 인자 새끼를 쳄단 말이야, 집을 짓고 그 원이 새끼를 그냥 붙잡어다 그 도포자락 소매 속에다 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미 제비가 머리맡으로 돌아다니며 쓰러지고 야단이거든. 그때 원님이 이퇴계 선생 형제를 불렀어.

“그래 너 새 짐승 소리를 알아듣는다니, 저 제비가 저 뭐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제비가 하는 말이, 우리가 비록 미물일망정 인간에 아무 해 미친 적이 없는데, 원님께서 왜 우리 자식을 잡아가십니까?”

이 말이야. 꼭 들어맞잖아.(기침) 그래 ‘아! 다행이라’고 원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냥 석방을 시키는 거야. 그래 주안상을 차려서 인저 술하고 안주하고 한 상 잘 차려서 대접을 하매 먹으라고.

“먹고 가라.”

인자 그 퇴계 선생이 아우는, 퇴계 선생이 대추 하나만, 그 좋은 안주에 고기 술도 많은데 그 대추 하나만 이렇게 집어먹고 그러니까, 그 아우가 형하는 대로 이저 그렇게 먹고서 가는 거야. 가는데 원이 그 사령을 시켜서 미행을 하는 거야.

“저 분네들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오너라.”

그러니까, 인제 사령이 뒤에 미행하면서 쫓아가는데, 이 형제분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우가 하는 말이,

“형님! 왜 그 좋은 안주에 좋은 술에 안 잠수셨어?”

그러니까.

“아 그거, 땅에서 나온 곡식이래서 전부 비린 내 나서 안 먹었어.”

“아 저도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 저런 얘기하며 이러 가는데, 가다보니까 이게 길바닥에 황금, 황금이 바가지 쪽 쪼개있는 것마냥 두 쪽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

“아유, 형님! 저 금 봅시다. 금. 형님 한 쪽 갖고, 나 한 쪽 가릅시다.”

“아유, 난 싫어. 그런 거 안 가져.”

“아유, 형님도 안 가지면 나도 안 가질래요.”

그냥 그걸 두고서 그냥 갔단 말이야. 그냥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오다 보니까 웬 사람이 지나가던 거길 행인들 들여다보고, 그냥 딸기 샘구녕 들여다보듯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거든. 그래 아우가 형보고 하는 얘기가,

“아 형님! 저 사람이 저 황금을 저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 사람 눈에는 금으로 안 보일 꺼야. 반드시 구렁이로 보일 꺼야. 이따 오면 물어보게.”

그래, 인제 퉁퉁히 형제들이 가는데,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참 만났단 말이야.

“당신! 거 뭘 오다가 봤소?”

“아유! 황구렁이 두 마리가 그냥 소리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징글맞은지 모르겠다”고.

“거 보라구. 거 금이라는 게 이렇게 손톱 반만 해도 거 무령 보이지 않고 자고로 다른 것으로 보여.”

금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그래서 인제 그게 구렁이로 보였지. 인자 그래 인자 가는데, 가면서 가는데 쪽 얘기를 하는데 아우가 하는 말이, “형님! 그저 원이 중의 자식입니다.”

그러거던. 중의 자식이라고, 원이.

“아유, 아무 소리도 말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

그래 인제 사령은 인제 그걸 들었거든. 그 얘기를 듣고 인자 그렇게 가는데, 가다가 인제 어디 가서 이렇게 있는데, 날이 저물어 자는데 형제분이 가 앉았어. 그런데 초립동이가, 그전에 왜 초립이라는 걸 쓰고 땡기지. 장가 안 간 사람은 그걸 쓰고 땡기는 거여. 그래 초립이라는 것이 퇴계 선생님한테 가서 절을 그냥 날라 가듯이 절을 한단 말이야. 가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언찬 좀 해 주십시오.”

언찬. [조사자 : 어느 창이요?] 말씀 언자 길 찬자. 칭찬을 해달란 말이야, 언찬을. 그래 벌써 퇴계 선생은 그 누군지 알거든, 벌써. 그래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앞에 연못에 있는데, 거 저허 이무기가 있거든. 용이 있거든. 그런데 인제 그게 용이 되서 하늘에 올라갈라든 군자의 언찬을 세 마디를 받아야 등천(승천) 한다는 거야, 용이. 그래서 그 연못에 용이 있는데, “그러라.”

고 그 이튿날 갔더니 그 용이 뱀다 그 꼬랑지를 하늘에 대고 있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퇴계 선생이 보고서 그냥 왔어. 그래 그 이튿날 초립동이 또 왔거든.

“아! 선생님 왜 오(가?)셨어요?”

“누가 뭐니? 꼬랑지 보러 왔어?”

“그럼, 낼 또 오십시오.”

그래 그 이튿날 또 갔더니, 또 등허리를 남실남실하고 이려고 있거든. 또 이렇게 보다 그냥 왔어. 그래 또 와서,

“아! 왜 그냥 오셨어요? 언찬 좀 해 달라.” 고

“누가 뭐 등허리 보러 갔어?”

“그럼, 낼 또 오십시오.”

갔더니, 뱀다 용이 머리를 하늘로다 뻗치고 있거든. 참 우리가 그림을 봐도 그게 아주 무섭잖아. 그 산(살아 있는) 용이 그러고 있는데 누구든지 놀랄 거야. 그런데 퇴계 선생이 이렇게 한참 쳐다보다가,

“아! 가히 용답다.”

고 이렇게 언찬을 세 마디 했어. 그러고서 그냥 왔거든. 그래 그 큰 짐승이라는 게 자기 모양을 보이려 들지 않는다고. 가령 저 그전에, 옛날에 그 어느 산골짜구니에 가면 그 호랑이들이 범이래도 그 자기 모양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 든다고. 그래서 인제 그랬는데, 그 이튿날 자는데 꿈에 현몽을 해.

“아, 선생님 덕분에 등천(승천)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선생님 원이 계신지, 소원이 있으시면 이뤄 드릴테니 말씀 하십시오.”

이라거든. 그래서 퇴계가,

“아유! 우리는 아무 소원도 없어. 그런데 밤에 잠을 잘라면 아 머리말에 그 시냇물이 졸졸 흘러서 물 내려가는 소리에 단잠을 못 자겠어. 그러니까 그 시내나 좀 물려 달라.” 고

“그러면 아무 날 아무 시에 에 높은데, 저 산으로 피신을 하십시오.”

이 말이여. 그래 그 날 좀 피신을 했더니, 그냥 그만 억수장마가 지는 거야. 그냥 그러더니 그 시냇물이 딴 데로 가더라. 그래 물러갈 퇴자 시내 계자. 그래서 퇴계야. 퇴계. [조사자 : 아] 시내를 물리쳤다고 해서 퇴계 선생이라고. [조사자 :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이 또 어 그저 사령이 애길 들었잖아. 중의 자식, 원이 중의 자식이라는 것을. 그래 인저 사령이 원한테 갔어. 원한테 갔더니만,

“너, 그 분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 영 우물우물하고, 차마 ‘원이 중의 자식이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아 들은 데로 얘기해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유, 원님께서 절의 자손이라고 그러디다.”

야! 그래 그냥. 원이 그냥 얼굴이 빨갛고 그 쟁피하지 뭐야. 그래 원이 중의 자식이라니! 그래 급급해서 칼을 갈아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갔어.

“어머니!”

그 칼을 앞에다 놓고,

“어머니! 저 바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만약에 추호래도 거짓이 있으면 불효나마 이 칼 갖고 찔러 죽겠다.”

고요. 이래커던. 그러니까 아 그 어머니가 기가 맥히지 뭐야. 내 그래 할 수 없이,

“그런게 아니라, 그 전에 손이 없어서 너를 낳을 적에 절에 가서 기도를 들였다. 그 신돈이,”

신돈이라는 중이 고려 말 때 중인데, 백자천손 시절에, 아들이 천이요, 백자천손 아들이 백이요, 손자가 천이라는 그 백자천손. 그 고려 말기에 그 신돈이가 그 저 역적이였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절에 이렇게 있는데, 그 손 못 보는 사람들이 그 좀 많아.

그래 아들을 낳라고 거기 가서 기도를 드리면 마루창이 툭 꺼지면서 떨어

지는 거여, 거 기도 드리는 여자가. 그래 그냥 거기서 폭행을 해서 내보내면
자꾸 아들을 낳거든. 그래 원도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야, 그개.(웃음)

그래서 원이 그냥 채피해서 그냥 그 고을 떠났더라, 딴 데로 말이야. 그런
얘기야. [조사자 : 이게 끝이에요? 이 얘기가?] 끝이야.

2. 삼박골의 유래

이영재(83, 남)/마평동T 1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은용, 김경화, 이민정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 마평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묻자, 제보자는 이
곳 마평동에 살고 있지 않아 잘 모른다면, 살고 있는 삼박골의 유래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할아버지!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마을 이름.] 마을 이름이 삼박
골. [조사자 : 삼박골이에요?] 응. [조사자 :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박씨가 그전에 옛날에 세 집이 살았다. [조사자 : 아, 박씨가 세 집
에 살았군요.] 삼박골이 어찌 삼박골이나? 하니까 ‘옛날에 박씨가 셋이 살아
서 삼박골이다.’ 그것만 알지 잘 모른다.

3. 심정승을 골려 얻은 목천군수

이영재(83, 남)/마평동T 1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은용, 김경화, 이민정 조사(1995. 11. 4.)

앞의 삼박골의 유패를 마친 다음에 결혼하였을 때의 상황에 대해 묻자, 혼속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난 것이 있는지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전에, 저기 옛날에 말이지, 아 시골에 한 촌부가 사는데, 촌사람이 사는 데 참 그리 먹고 살기는 괜찮아, 돈도 푸짐하게 있고. 그런데 벼슬을 하나도 한 게 없다고. 그래 인저 서울을, 심정승을 찾아갔어. 심정승을 찾아가서, (헛기침)

“대감님! 저 하다 못해 진사 벼슬이라도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

“그럼 돈이 들어야 할 꺾.”

“아, 돈 드릴까요. 아, 얼마나 됩니까?”

“삼천 냥이 들어야 한다.”

고 그래. 그래 삼천 냥을 인자 땅을 팔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갔다. 갔는데 벼슬을 시켜 준다면서 그냥 시일만 끝지 그냥 아무 소리, 소식이 없어. 그래 한 번은 또 찾아가서는 그러니께,

“아유, 그렇게 쉽게 되나. 더 기둘러. 그런데 돈이 모자라. 돈 한 이천 냥만 더 가져와.”

그래 또 인저 가게까지 팔아서 전부 팔아서 달라는 데로 죄 갖다 줬다고. 아 그라고 영 소식을 기달리니 소식이 와야지, 기별이 와야지. 그래(헛기침) 할 수 없이 그냥 인저 기달리다 기달리다 집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 그냥 집도 없고 가게도 죄 팔아먹고 뭐 아무 것도 없으니, 난리가 나서 기별이 왔는데, 그냥 집에나 고향이나 내려간다고. 그냥 터덜거리고 내려갔는데 주막이 저어 마지막 있는데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어떻게. 그래 꺾가 나가지고 앓은 거여. 길바닥에 가서 그냥 데굴데굴 굴르면서,

“사람 살려라.”

라고. 소리를 지르니께, 그 주막집이 나와서고 참 보더니 데리고 가서 그

냥 침을 놓고 사람을 데리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깨어나더라고. 그래,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게 촌 주막, 지금은 여관이지만 그때는 주막이거든. 주막인데, 거 인저 심부름하는 애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내가 인저 저녁을 먹은 뒤에 개가 와서 보니까 총각이야. 아주 떡거머리 총각에게,

“너 장가들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왜유? 아! 장가들고 싶지요.”

“그래, 그럼 너 내 말을 잘 들어.”

그런데 그때 마침 웬 행인이 들어오는, 과객이 들어오는데 아주 부자여. 그런데 건을 쓰고 상제인 모양인데 인제 옆방에 들었거든. 근데 인제,

“상제님의 건을 훔쳐 오너라.”

그러니까,

“예. 훔쳐 오죠.”

“그럼, 너 장가 들어 줄게 훔쳐 오라.”

고 이놈이 그 건을 훔쳐 가지고 왔어. 예 여기 저기 어는 응~지금 같은 면,

“저런 색주가 요리집, 그런 술집이 없느냐?”

고 물으니께,

“여기 있다고 그런데 한 군데 좋은 데가 있다고 주인도 아주 참 일색이고 좋고 그렇다.” 고

“거기 안내 좀 하라.”

그래 인제 건을 주머니에 넣고서 거길 찾아갔어. 거길 찾아가서 인제 개가 인제 알려줘서 거길 갔는데, 참! 요리 한 상을 차려 가지고서는 진탕만탕 먹었거든. 먹고서는 올라는데 돈이 한 푼이나 있어야지, 맨몸으로 왔으니. 그래,

“여보!”

주인보고.

“나 주막에서 자는데, 내 돈 가져온 게 없어. 그런게 이따 아침에 오라.”

고 야! 그래 기생이,

“누군지 알고 가느냐?”

고. 그러니까 이 건을 주면서,

“이 건 임자만 찾아오라고. 그러면 돈을 줄 꺼야.”

이 건은 자기가 훔쳐온 거거든. 제 건이 아니여.

“그래 그러라.”

고. 그러니까,

“우린 건망증이 있어서 얘기를 못 한다.”

고. 그러. 아. 이튿날 식전에 그 건을 가지고 와서 건 임자를 찾으니까, 그 옆방의 참 그 탄 사람이지 뭐여.

“야! 어제 잡순 술값 달라요.”

하니까. 그 건 주인이,

“야! 어제 내가 무슨 술을 먹었냐?”

고. 그럴 꺼 아니여?

“아, 이 낭반이 건망증이 심하시다더니 진짜 건망증이, 아. 이 건을 주시면서 ‘이 건 임자만 찾아 오라’고 하셨는데. 웬 탄소리가십니까?”

아. 그래. 책피하니 어떻게 해. 얼른 지불해 줘 버렸어. 그라고서 이제 이 여자는 돈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그 이튿날 저녁에 또 이 남자가 또 찾아왔어. 그 촌사람 벼슬을 할라고 그러는 사람이 찾아갔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웃더래. 웃으면서 또 술을 한 상 잘 먹으면서,

“자기하고 살자.”

고. 그러거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아유, 난 처자가 있는 사람이라.”

고. 그렇게 했더니 저기,

“그럴 수 없다.”

고. 그래.

“아유, 걱정 마라고 난 아무 것도 없어도(패물을 꺼내 보이면서) 이것만 하면 실컷 나 먹을 건 있으니까 아무 부담 없이 살자.”

고 말이야. 그래 못 이기는 척하구,

“그러라.”

구 그랬거든. 그러구 이 인저 그 여자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사실 얘기를 했어.

“우리 가서 그 복수를 하자, 둘이 가서. 어, 미인계를 써서 미인계로 써서.”

미인계로. 복수를 하러 둘이 슬렁슬렁 집으로 갔거든. 가나가 거시기 심정승이,

“아, 어떻게 왔느냐?”고

“왜 왔느냐?”

“아, 웬 일이고 마나 집에 갔더니 난감해 집도 없다, 죄 팔아먹고 우리 남부여대해서 이렇게 두 내우 왔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감 댁에서 신세지고 살아야겠소.”

그래. 이 심정승이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아주 일색이야. 그래 요것마저 뺏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 그러라.”

고. 그래가지고 요거 고저 맞은편, 대감방 맞은편 방을 하나 썼어. 두 내우 거기서 살라고 거기서 먹고 그러면서. 아 이저 그 김서방이란 사람이, 김서방인데, 이 사람이 영(헛기침) 어디 나가지도 않고 두 내우 꼭 붙어 앉아서, 방에 앉아서 먹고 낮잠만 자고 하니께,

“아,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좀 맹겨 활동도 하고, 뭘 해서 돈도 벌고 그래야지. 방구석만 들어앉았나?”

고 그러니까.

“아휴, 뭘 하고 싶은데 돈 밑천이 있어야죠. 여기 물건을 갖다가 시골에다 팔고 시골 물건을 갖다가 여기다 팔며는 참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밑천이

있어야지요.”

“그래, 아 얼마나 하면 할텐데?”

“한 이천 냥 가져야 해요.”

그래 이천 냥을 주더라.

“그래, 이걸 가지면 며칠이나 걸리겠나?”

그러니까.

“가 봐야 알죠.”

“그건 그래.”

이걸 가지고 가더니만 사흘만에 왔어.

“아 어떻게 그리 일찍 왔나?”

그러니까.

“아, 재수가 드럽게 없어. 가다 저 불한당을 만났습니다. 돈을 다 도둑놈한테 강도한테 빼겼습니다.”(웃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한 번 더 해 봐야죠 뭐, 이걸 인저 장년들을 몇 사 가지고 와서 같이 가야죠.”

“또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드냐?”

“한 삼천 냥 들어요.”(웃음)

그래 또 주거든.

“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또 며칠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한 열흘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 ‘열흘 걸릴 거요.’ 인제 보낸 뒤 이놈의 영감탱이가, 심정승이 그 아내를 쏘이는 거여. 두 내우가 쫓으니까 말이지. 서로 왕래를 하고 그러는데, 참 마당 빌어 봉달 빌어 발까지 빌어서 방에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서 갖은 그냥 그 심정승이 여우를 떨고 그래 가지고서 인제 서로 돌이 눈이 맞았

어. 그래 서로 자는데, 동침하게 됐는데 아 별안간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
서 그 사내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

“문을 열으라.”

고. 그러니까 아 할 수 없이 이놈의 심정승은 그냥 옷거정 벗었네. 그래
어떻게 할 수 가 있어야지. 그 옷목에 빈 뉘주가 있어, 뉘주. 그 쌀 담은 그
전에 뉘주라고 아유 그래서,

“대감님! 절로 들어가 있으시오.”

“그래?”

빨개 벗고 저 뉘주 속으로 들어갔네. 그 자물쇠는 다 팍 잠갔거든.(헛기침)
아 그래 이 영감탱이가 들어오더니만,

“아휴, 왜 이리 빨리 오셨느냐?”

고 그러니까.

“빨리가 다 뭐지. 이번에도 그냥 죽을 뻔 했어. 죄 강도나 불안당을 만나
서 다 털렸어. 아, 재수 드럽게 없다. 저 놈의 뉘주가 재수가 없어서, 저 놈
을 도끼로다 뉘주를 때려 부순다.”

고 그래. 그 영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나대거던.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아휴, 그 뉘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 저 암만해도 저놈의 뉘주가 재수가 없는가 보다고. 아, 저놈의 뉘주
갓다 저 연못에다가 갓다 집어 넣어야지 안 되겠어.”

그래. 밀방을 해서 그 뉘주를 짚어지고, 심정승은 그 안에 들었거든. 짚어
지고 연못을 찾아가는 거야. 그냥 그 연못가에다 내려놓고서는,

“이놈의 뉘주 연못에다 풍덩 집어 넣야겠다.”

고. 그래 인제 심정승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죄 듣는 거야. 그러니,

“아, 여보게! 김 서방! 날세. 날세.”

그러거든. 그래 열어 보니까 심정승이 거기 있더라, 빨개 벗고.

“아휴, 대감 웬 일이지냐고. 얼른 가시자.”

고 집으로 갔어. 집에 갔는데 그냥 감기가 들어 가지고 다 죽게 됐지 뭐야. 그래 그 이튿날 심정승이 어떻게 됐나 하고 새벽 일찍 가보니까는 아랫목에서 ‘벌벌벌’ 떨고 말이지.

그냥 그 이 김서방이 보더니 치가 떨려 베길 수가 있어? 그래 목침으로 냅다 그 앞가심을 말이지, 벗고 있는 걸 후려 갈겼어. 그러니까 늙은이가 힘이 있어? 늙은이가 그 비틀거리고 그냥 폭 꼬꾸라 지는데, 그래도 비명을 질르는데, 그라고 있는데 아들들이, 아들들이 다 벼슬을 하거든? 그래서 아들들이 삼 형제가 들어온단 말이야.

“환후가 웬 일이지?”

고. 그러니까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목침을 휘두르면서 인제,

“여기 저놈이 목침을 들고서 때렸다.”

소리는,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저 김서방이 하는 얘기가, “야! 내 생전에 벼슬을 하나 못 해 줘서, 벼슬 있는 너희들이 목천군수래도 하나 시켜 주라고 목침을, 그러면서 그러는 소리라.”

구.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목천군수를 시켜줬잖아.(일동 웃음) 그래서 웬수 같고 소원을 이뤘대.

4. 할아버지와 손자(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설계수(81, 남)/ 마평동T 1뒤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김은용, 김경화, 이민정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서 듣고 있던 제보자가 나서 이야기를 이었다. 이 노인 정에 10명의 할아버지들이 있었는데,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회투를 치고 계셨고 분위기는 시끄러웠다. 조사자는 설계수 할아버지께 찾아온 목적을 재차 설명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요즘 우리 것이 사라져 가는 이

시점에서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우리 것을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고 말하자,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녹음을 하지 말고 괜찮으면 녹음하려고 말하지만 조사자들이 녹음을 바로 시작하였으며, 분위기는 화기에 애하게 이루어졌다.

그 전에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손자가 할 아버지보고,

“할아버지 좋은 얘기 좀 해 주쇼?”

허니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얘기 경주를 하자.”

그러니께.

“좋다.”

고 그러니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그것을 제일 질게 한 얘기를,

“누가 제일 얘기를 진(진) 놔으로 하는가 내기를 하자.”

그런게 손자가,

“어유! 그러면 나는 질게 얘기를 모르는 디요?”

그러거든. 그런게,

“아, 그러. 내가 이기겠다.”

고. 인저 할아버지가 얘기를, 인저 그전 호랭이 얘기를 했어. 산중에서 홀 어미가 예~, 산중 그 비탈 밭에 가서 서숙, 서숙이라고 있지? 서숙을 비어 가지고 지계에서 짙어 가지구 요리 짙어 가지고 허니까, 아~ 뒤에서 뭐시 꼭 버티고 일어나들 못 혀.

앞에서 이렇게, 아 뭐시고 뭐 이려, 밑으로 지계를 들여다 본게 호랭이가 뒤에서 '짱' 이렇게 두 발을 걸고 있다 그 말이여. 그러니께 그 할머니가, 그 전에 여따 대님을 치고 대냈어, 여자들은 여다가. 대님을 딱 끌러 가지고는 딱 흘미쳐 갖고는 호랭이랑 눈을 딱 하고 있는데, 봉알이 달랑이달랑 하거든. 고놈을 지계 가지에 딱 대님을 꺾매고 호랭이 봉알을 딱 흘미쳐 났어.

(일동 웃음)

어, 그러고는 딱 일어나 부렸어. 그리고 홀어미가 일어나 버렁께, 아! 호랭이가 사람을 쫄랑쫄랑 이 지게에 봉알이 딱 걸러버려 가지고 못 도망가, 못 쫓아 갔거든.(웃음) 그래 가지고 인자, 그 여자는 이냥 놀래 가지고 집으로 와 부렸는디, 나중에 와서 가서 본께,

“호랭이를 잡았다. 대님으로 호랭이를 잡았다.”

인자 그런 얘기를 헌께, 손자가~,

“이, 아, 그 그것이 그렇게 짧으꾸만 얼마나 질어요? 내가 그러면 진 얘기를 하나 할까요?” 헌께

“어, 해 보라.”

하니. 이북에서 양식이 없어. 그러니 이 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사람 먹을 것도 없는디, 쥐들이 먹을 것이 있어? 없지. 그런게 쥐들이 전부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벌판으로 가기로 회의를 했어. 그래서,

“그러면 압록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야?”

하니까. 그 쥐가 나서가지고,

“전부 각자가 꼬리를 물고, 쫓~ 늘어 서서 건너가자.”

그냥 요랬지. 제일 우두머리가 앞에 서고, 이래 가지고 뒤에 꼬리를 연거 물어 가꾸 압록강을 건너 간디, 아니여도 이북에 있는 쥐가 전부 다 건너게 할라면 몇 날, 며칠을 건너갈 줄을 몰라.(웃음) 그 한 줄로 쫓 서서 건너 갈랑께 그런게 할아버지가

“내가 졌다.” (일동 웃음)

5. 피 많은 사람

설계수(81, 남)/ 마평동T 1뒤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김은용, 김경화, 이민정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순창 고추장이 얽힌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말씀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순창의 유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한 다음에 조사자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나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노래는 모르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하면서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르지마는. 그런게 인자 배가 고평게 한 사람이 피를 내 가지고는, ‘아, 어떻게 해서 이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이냐?’ 하고 하루는 빈 지계를 짊어지고 동네를 돌아댕기면서, 인자 다른 동네 가서 글썸 무엇이라고 이러냐면,

“논이나 밭 가운데 큰 독(돌)이 이런 놈이 있으며는 들어낼 사람은 말을 하시오 그럼 내가 들어 내주요.”

그러더라구. 그리고 이러고 댕기요 아이고, 밭 가운데 큰돌을 들어내 준 다니께 이러니께 좋거든? 인제,

“그럼 오라고 인제 오라.”

고 우리 집이서 밥을 지어 주서 밥을 배부르게 먹고는,

“좌우가내 이 지계를 지고 인자 가 보자.”

고 그러니께 인자 밭으로 가 보니께 큰 바우가 가운데 있던 말여? 궁계,
[조사자 : 큰 바위가요?] 응.

“이걸 어떻게 짊어질 것이냐?”

근계,

“아! 내 지계 위예다 올려 주쇼. 그러면 지계에다 짊어지고 어디 갔다 내 불러요(웃음) 지계에다만 짊어 주쇼. 그러면 내가 짊어다가 갔다 내불탱게.”

지계를 갖다 딱 대놓고 있어.

6. 피난가지 않은 효자

설계수(81, 남)/ 마평동T 1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은용, 김경화, 이민정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아기 낳을 때의 금기사항을 말한 다음에, 조사자가 효자 얘기를 하나 해달라고 요청하니 설계수 할아버지가 아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설계수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끼었기 때문에 조사자가 묻는 걸 알아듣지 못 하였다.

이 효자 얘기. 우리 거시기 있는 데서 효자가 하나 있는데, 시방 그 사람이 뭐시냐 최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여. 임진왜란 때.

인자 그~ 임진왜란 때 왜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젊은 사람을 쫓 잡아가고 막 거시 할 땐디, 자기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 인자 죽게 생겨서, 인자 자기는 젊고 한 게 짹하게 생겼는디 도망가야 하겠는디, 자기 아버지가 곧 죽을라고 하거덩? 금게 도망갈 수가 없어, 자기 아버지를 내부리고. 그래서 기냥 가만히 앉아서 지네 아버지 옆에서 가서,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디. 그래 인자 왜놈들이 와서 말여,

“아! 여기 젊은 놈 하나 있다.”

고 잡아 갈라고 하거덩? 그래 이제 대장이,

“너 이놈! 다 도망갔는데 넌 안 가고 있냐?”

하니까.

“아유,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시게 생겨서, 내가 운명을 해야 생겨서 못 도망가고 있다.” 인제,

“아따 이놈! 참 특별한 놈이다. 뱀 뒤라.”

그래 기냥 갔다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국가에서, 말하자면 이 논까지 타고 아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웃음)

7. 허벅지 살을 베어준 열녀

설계수(81, 남)/ 마평동T 1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은용, 김경화, 이민정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음담패설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하자 앞의 이야기와 같은 인간의 윤리와 관련된 주제라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 허벅다리 살을 베서 남자를 먹이면 살린다고 항해. 그걸 베(베)서 먹인 그런 열녀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자세히 잘 몰라.

8. 호랑이를 만난 사람

조용구(78, 남)/ 마평동T 1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은용, 김경화, 이민정 조사 (1995. 11. 4.)

노인정에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신 후 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바로 조영구 할아버지이다. 제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충청도 공주에서 사시다가 고립동으로 이사오셨다고 한다. 앞니가 4개 밖에 없어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리고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것 같다. 조사자가 충청도 공주에서 사셨으면 충청도 공주에서 내력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 달라고 요청하니 고민하시다가 말씀을 꺼내신다.

호랑이 얘기를 하나 하라 해서 내 얘기하는데, 우리 어려서 내 당숙이 산,

산들이 험악해요. 가다가 호랭이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호랭이를 어떻게 만났냐면 인제 늦게 갔거든, 어디서. 근게 밤에 저 회산 넘어 가는데, 거기를 넘어 가는데 호랭이가 잡아 먹을려고 하는 걸, 상구 싹질을 해 가지고서 저 이겨 나왔거든.

그런 얘기를 내 들었어. 뭐 다른 얘기는 뭐 없어. 하여간 이 내 당숙이 머 리도 뿔히고 다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그건만 알지 몰러.

9. 황진이 일화들

박병근(78, 남)/ 두창리T 1뒤앞

[터미널대합실] 박중수,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1995. 11. 20.)

두창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용인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던 중, 중절모를 쓰시고 멋진 가죽잠바를 입으신 신식 할아버지를 만났다. 백암 터에서 일을 보고 서울로 돌아가시는 길이라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 달라고 부탁드리니, ‘황진이’ 이야기를 해 주셨다. 자신은 한 달에 책을 10권 이상 읽는다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셨다.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갖고 말 중간에 우리에게 질문도 하시며, 지팡이로 바닥에 한자도 써 가시며 자신만만하게 구술하였다.

저, 숙명여대 김영숙(?)교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나라 중종 때, 이조 중종 때 황진이, 잘 알지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니 다시 오기 어려우리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조사자 : 와아] 우리나라 3대 시조의 하나입니다. 정몽주 포은선생,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냇이라도 진토 되어 일편단심 변할쏘냐.

또 그런 시조가 있고 성삼문 잘 알지요? 그 성삼문이가 사육신의 한 사람인데, 그 세조가 그 죽일 때 이갑단 말이야. 그래서,

“죽어서 무엇이 될 꺼냐?”

이리 물었어.

이몸이 죽고 죽어서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 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견곤하여 독야청청 하리라.

그 시조 알지요? 그 시조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데, 시조는 지금도 살아가 있어요. 살아 있고 그 황진이, 금방 청산리 벽계수야 그 시도 살아 있지요. 또 정몽주 선생은 그 방원한테 죽을 때, 선죽교 죽을 때 그 시도 다 살아있다는 말이야.

아 그런데, 그 우리나라 여걸 중에는 사임당, 이율곡 선생 모친 말이야. 사임당이 우리나라 건국, 개국 이후에는 제일 으뜸가는 그 여걸이거든. 그 신사임당이. 저 사직골에 가면은 정사 있거든. 그 아들 이율곡 선생하고 같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신사임당 실존 인물이고, 우리나라의 고대 소설이 심청전, 또 여계 그 춘향전, 이런 건 소설이란 말이야.

그런데, 숙명여대 김영숙 교수님이 황진이의 역사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 우리가 알기로는 ‘황진이, 그 여걸이 송도, 지금 개성의 송도의 황진사 딸이다.’ 이렇게만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마 김영숙 교수님이, 숙명여대 학생 가르치기 위해서 황진이의 역사를 한 번 고증하려고 자료를 수집해 봤더니, ‘선녀’라 선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조사자 : 아, 선녀요?] 예, 선녀라

선녀. 실존인물이 아니고, 선녀라 하는 거는 말하자면 마, 천사도 되고,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거다.

그래서 그 김영숙 여사가 그 황진이의 역사를 고증을 찾고자 무척 애를 썼어요. 여러 서(책을) 그 고증을 열, 열 개를 아무리 조사를 해 봐도, 난 출생한 날짜도 없고, 연도도 없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안 나왔다는 기라. 그 저 황진이, 개성의 황진이 하나만 딱. 그래서 인자 고증해 보니 참 황진이가 그야말로 그 여걸이요, 천하의 미인이라. 그래서 인자, 인자 김영숙 교수님이 실존인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증을 아무리 발굴해 봐도,

그 황진이가 그 당시의 화담선생 알지요? [조사자 : 잘 모르겠는데요] 서경덕이. [조사자 : 아] 그 분이 우리나라의 대철학자란 말입니다. 종종 때, 우리나라 이퇴계, 이율곡 참 허다한 선생이 많지마는, 제일 철학자로서는 서경덕이 화담이라.

그 인자 황진이가 서경덕이 화담하고 서로 연애를 했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 그 김영숙 교수님이 그거를 발굴해 조사를 해 보니, 화담선생 서경덕의 책을 아무리 들춰봐도 황진이라고 서로가 사랑한 그런 흔적이 없던 기라. 그리하여 황진이가 대충 난해하고, 서경덕이 나이가 한 사십 살 차이가 나오더라. 사십 살.

그래가지고 참 그 황진이가 너무나 인물이 잘 나와 놓으니, 그것이 참 소설에 야사에는 ‘황진사의 서출이다. 첩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 황진사가 인자 키올라카니, 서출의 딸이라고 장자로서는 항상 거절을 했는 기라. 거 뭐꼬 야사에는.

아, 그래 황진이가 나이가 크고 하니까는 옆집 총각이 짝사랑을 했는 기라. 그거는 알지요? 옆집 총각이. 하다가 인자 옆집 총각이 죽었어. 그래서 인자 죽었는데, 옆집 총각도 자기 집이 잘 살아요.

그리고 인자 말하자면 저 행상을 운반하는데, 그 행상이 황진이 문 앞을 지나가다가, 결국 상등(상여)이 거기서 발이 붙어 버렸어, 발이. 발이 안 떨어

어지는 기야. 그 원한이 맺혀 가지고. 그러 인저 앞장 선 사람이 발이 안 떨어지니, 그 떨라고 수십 차례 해요. 그래서 황진이이 속적삼, 안에 내복이죠. 그것을 벗어 가지고 행상에 거니까, 그때야 비로소 인자 땅에서 떨어지는 거야. 아, 인저 그런 일화가 있고.

그리, 황진이 어머니가 진가라, 진가. 진나라 진자. [조사자 : 성이 진씨요] 응, 진가라. 진간데. 이 황진이 어머니가 열 여덟, 열 아홉 살 때, 그 개성에 병 병묘교, 병묘교 밑에 빨래를 했어요, 빨래를. 옛날에.

하니까 길가는 나그네가 그 다리 밑을 내려다보니까, 부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던 기라. 그 중에 황진이 어머니가 이 나그네 눈에 들어갔는 기라. 그래 가지고 인자 참 보니, 여자들이 빨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녀의 눈이 무서화 가지고, 인자 다 가고 나서 이 황진이 엄마는 늦게까지 빨래를 하고 있어.

근데 이 길손이 다시 와 봤는 기라. 다 봐. 다시, 다시 와서 다 와보니 빨래를 하고 있던 말야. 그리갖고 내려갔어. 내려와 가지고 인자, “물을 줌 둘러”고 여쭙드라. 그래 바가지에 물을 딱 떠 줬는데, 그런게 물을 먹다 보니 이게 술이 되어 뿌린기라. 술이. [조사자 : 물이 술이요?] 물이 술이 돼. 그래 가지고 인자 황진이 어머니한테,

“이 물 한 번 먹어 보라.”

말이야. 먹어보니 술이라. 이게 인자 술 이름이 합성주가 돼. 합성주. 합할 합자, 이를 성자 합성주가 되는 기라. 그리서 인자 서로가 길손도 술을 먹으니 얼큰해 뿐고, 황진이 어머니도 몸이 얼근해진 뿐기라. 그 길로 서로 사랑을 했어. 그렇게 해서 인자 황진이를 낳았다. 음, 이래가지고 인자 진자가 황진이에 참할 진자가 붙어. 성은 황가고 인자 참 진하고 붙어 황진이가 되었다. 인제 그런 야사가 있고.

아, 인자 황진이가 크고 보니 참 옆집 총각이 짝사랑하여 죽여 놓으니 인자 그것도 죄거든. 그 길로 인자, 참 ‘내가 말이지, 응 옆집 총각을 죽여 놓

왔기 때문에, 내 이미 속적삼을 벗어 주었기 때문에 내 이미 마음을 뺏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자 그 길로 기생으로 된 거야. 기생.

[조사자 : 그 일로?] 그 일로. 그래도 한 가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기생에 되니까, 그 인물이 좋으니까 송도에 과거에 고도거든. 귀족들이 막 와 가지고, 황진사 딸이 술집에서 술이나 파니까, 니도 내도 막 술 먹으로 많이 왔는 기라. 오니까 아무도 황진이의 그 미모와 시와 시조와 모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기라. 아무리 지가 글을 잘하고 시를 잘 지어도 황진이를 만나면 죽어 버리는 기라. 황진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인자, 개경 중국까지도 알아 뿌린 기라. 중국까지도. 중국 사신도, 일단 중국에서 서울에 오며는 반드시 갈 땐, 개성을 갈 땐 들러 가니까래. 개성의 황진이를 만나고 가는 기여. 만나 봐도 중국의 사신들이 황진이에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단 말야. 그만큼 인품도 좋고 시조도 잘 부르고 노래도 잘 부르고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센계. 그렇게 황진이와 대항할 그만큼 라이벌이 없는 기라. 대항할 그만큼 개성에서 떠올랐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개성에 그, 그 스님이, 지족 스님이 알 지자 다리 족자 지족선사 있었어. 지족 스님이 그 개성 삼십 리 골짜기에 삼십 년 간 참 성불이 되겠다고 인자 도승이라, 도승. 참 그만큼 열심히 참 성불이 되겠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 개성의 부자들이 전부 그때 제를 할 때 그 스님한테 제를 해. 창강에서 절을 오려(tape 앞면에 계속) 그래가지고 이 스님을 아무도 감히 그 접근을 못하는 기야. 배우도 못한 기라. 배우도 그만큼, 참 고승 스님이라. 그래 황진이가 그를 들었던 말야.

“그럼, 내가 가서 참 그 스님을 까봐야 되겠다.”

응 이래가지고 참 소복을 단장해 가지고 스님에게 갔단 말야. 가 가지고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스님이 거들떠도 안 보는 기라. 거들떠봐도 파계승이 되는 기라. 그만큼 이제 이러구 되었드라.

그래서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그 지족스님 거들떠를 안 보니, 지족선사는 인자,

“마귀다 말이다. 마귀가 나를 현혹시키니까.”

나는 인자 그저는 경을 자꾸 읽는 기라. 경을 읽으면 마귀가 떠나가거든. 아무리 읽어도 이 마귀가 안 떠나가는 기라. 안 떠나가는 황진이도 지족 선사가 거들떠보지를 안 한다 이거라.

그래, 그래가지고 마침 황진이가, 비가 왔어. 비가 오니 백에 나가서 비를 흠뻑 맞았어. 비를. 돌아 봤다 말이여. 돌아보니 그야말로 선녀 같은 말이여, 그 미인이. 그 여자가 소복에(이하는 기록) 비를 흠뻑 맞아서 옷이 몸에 딱 붙으니까, 인저 그 지족 선사가 혹 반한 거야. 그래서 인저, 둘이 또 같이 지냈지.

10. 호랑이 등을 탄 효부

원운동(81, 남) /고림동T 4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고림동에서 조사를 끝난 뒤 용인시내로 나왔다. 그런데 시간이 남아서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마평동 노인정에서 찾아가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여러 할아버지들이 즐겁게 맞이하여 주었다. 그 중에서 제보자께서 이야기판을 열어 주었다. 이 이야기는 옛날에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한다.

저기 그전에 이 안성에 큰 부자가 하나 살았다. 사는데 이이가 부자라 인저 저 아래다가서 논밭 전지를 많이 해 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 이것 나이는 먹어가고,

“가서 전지나 한 번 둘러보고 온다.”

고 간 거여 인저. 거 가서 이루 저루 죄 둘러보는데, 거 아마 여름철이었

던 모양이지. 어느 그 정자나무 큰 남구가 하나 있는데, 거 가설람은 쉬어 있으니께, 쉬었는데 나이 그저 불과 얼마 안 먹은 남자아이가 낭구를 해서 째어지고 꺼블꺼블 허구 오거던. 거 보니께, 아니 애가 마음에 든다 말이지.

“애! 너 어디 사니?”

그렇게.

“아무데 산다.”

“그래, 너의 집에 인제 갈 수 있느냐?”

고 아 그래 쫓아왔단 말이여, 인자 그 애를. 거 가니께 아주 집이 이냥 남루한 게 쪼끄만 게딱지같은 집인데, 간신히 기어 들고 기어나는 집인데, 가서 지 어머니를 찾으래는 거여. 그러니 찾으니께, 나오니께 인제 개가,

“이 양반이 우리 집에 가 보자고 그래설람은 모시고 왔다.”

고 그러니께,

“아, 그러냐고. 그래 들어 오라.”

고 그래서 쫓아 들어가 보니께, 거 쪼끄만 방에 에 자리 깔은 것이 몇 입인지 모르겠더래. 조각조각 주서다가 깔아서. 사는 게 뭐뭐 형편 읍지. 그래, [청중 : 자리 그렇게 많으면 부자지.] [일동 웃음]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께, 이 놈이 꼭 자기 생각에는 이 다음에 괜찮을 거 같거든. 그러니께 에이 그 아이 어머니 보고,

“애를 내가 데리고 갔다가 올텐데, 잠 승락해 달라.”

고 그래 이 놈을 데리고서 집이를, 이 안성으로 온 거여. 이 안성 사람이. 와설람은 석구들 좀 뵈고 그래고선 이놈을 보내고선, 자기 딸이 아마 시집 보낼 게 있던 모양이지. 그래 그 개를 찍고서 글루다가 시집을 보내기로 헨 거여. 그래 이제 그렇게 해 가지구, 그서 날짜 잡아 가지구선은 글루 보내놓고서는, 그래도 좀 이놈의 늙은이가 좀 슬슬 가봐서 먹을게 읍고 이러믄은, 그 먹을 거래도 좀 대주고 이랬시면 괜찮은데, 통 안 가본 거여, 아주.

보내놓고 그만이여. 그냥 아마 이삼 년이 됐든지 뭐. 아 그 간구하게 살다가 아 이놈이 복이 읍어 그런지 병이 들어 가지구 죽었네 그래. 죽으니께 그

시어머니하고 인저 떠느리하고 둘이서 그냥, 그 먹을 것도 읊을 테지 뭐. 아 사는데, 인제 그 새 중간에 이 영감이 마음이 뭘 걸렸던지, 자기네 부리는 사람들을,

“그 아무데, 아무데 가면은 거기 있지. 가설람은 한 번 보고 오라.”

구. 아 가서 보고 오더니 죽었는데, 신랑이.(웃음) 아 그러니께 거 어떻게. 그 천상 데려 와야지 어떡 해요?

“가 데려 오라.”

고. 인저 사람들을 보냈던지 가마를 보냈던지 보냈는데, 가서,

“가자.”

고. 허니께 애가, 그 떠느리 그러니께 이 집 딸이, 딸이,

“아, 어머니 노인네를 혼자 두고 나 혼자 갈 수 있느냐고. 나 안 간다.”

고. 그러니께, 그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다 저것을 그렇게 다 이렇게 보냈는데, 안 가면 안 된다고 가라고. 만약에 니가 안 간다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니께 갔다 오라.”

구. 아 시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께, 할 수 없이 가마에 올라탔단 말여. 그 래 그때 어떻게 된거이 허니, 그 집에서 맥이는 강아지 한 마리 하나 있었어 요. 중강아지 됐던 모냉이래지, 이만한 게. 근데 요 강아지가 가마를 따라서 온 거여, 이 안성까지. [청중 : 그 떠느리를 쫓아왔구나, 그러믄.] 야. 이 놈이 즐랑즐랑 쫓아온 것이 안성까지 온 거여. 그 래 인저 여기 와설람은, 아마 을마를 있었던지, 뭐 한 달을 있었던지 을마를 있는 건 몰라도 있다가 가만히 보니께, 하루는 저 쑥덕쑥덕 하는게 현찮거든. 그 딸이 보니께. 그래더니,

“내일은 댄 데로 후가를 시킨다.”

이거여. 그 래 후가를 시키니께,

“에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딸이 그냥 자기 시어머니한테로다가 그냥 덮어놓고 나선 거여. 걸어 그냥 걸어서 간다구. 을마를 걸어 왔는데, 자기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있으 니께, 요즘게 질을 다 알거든. 그 강아지가 즐랑즐랑 같이 따라간 거여 인저.

저 얼마를 샀던지 왔는데, 한 군데를 가니깐 아 큰 호랑이가, 떡 송아지 같은 놈의 호랑이가 앞을 딱 가로 막았거든. [청중 : 응. 길을까] 응. 그런데 인제 잡아 먹을라고 대들지도 않고, 인제 벼랑간 오지도 않고. 그냥 오는 줄 모르게 슬슬 오는 건데, 그 샅시는 내뺄 수도 없지 뭐.

아 근데 그 샅시허구 맞닿다 이거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찌갓 올려 타래는 거 같거든. 그래 인제, [청중 : 아하, 호랭이 등허리에?] 예. 호랭이 등허리에 올래 탕대는 거여. 근데 이게 그 호랭이가 가니깐 좀 잘 가. 그냥 거 그냥 뭐 인제 또 개도 가구. 그래 인제 가 가지구서 인제, 시집엘 가 가지구서 지내는데, [청중 : 시집이 어디유?] 그런데 충청도 저 아래 되지 뭐.

근데 어떻게 된 거니 호랭이가 가지를 앓구 말여, 낮에는 집이 집에서 자구. [청중 : 집에 자구?] 예. 밤이면 나가서 사냥을 해오는 거여. 인제 토끼도 잡고, 뭐 뭐, 뭐 짐승, 산짐승 닿는대로다가 먹을만큼 이놈이 잡아와설랍은 그걸루다가, 아 그러니까 개까지 네 식구란 말여. [청중 : 그런데 개를 그냥 뒀으니, 호랭이가?] 아 그러니까 그게 벌써 뒀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 인제 아 하루는 나가더니, 나갔는데 안 들어오거든. 들어올 적에 때가 넘었는데대, 근데 강아지 혼자 왔더라는 거여. 인시를 조로록 하니. 그래 더니 와서 그냥 치마꼬리를 잡아 땡기구 뭐 ‘가자’구 끌더라고, 개가. [청중 : 호랭이가?] 개가. [청중 : 개가요.(웃음)] 거 부지런히 쫓아가 보니까, 개를 쫓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상아를 났는데 호랑이가 발을 거기다 치었던 말여. 그러니까 인자, [청중 : 호랭이가?] 예.

그러니까 인제 그 집이서는, 그 동네서는 그 인제 때려 잡으려고, 인제 동네 사람이 죄 모여 가지고서는 뺨들러 가지곤 야단이 났는데, 아 이 여자가 보니까 자기네 집 호랭이거든. 에이 이것, [청중 : 뭘보고 그래요?] 예,

“잡는다.”

고 그러니까.

“잡지 말라고. 그건 우리 호랭이라.”

고. 인자 그러고선, 그 여러 사람을 파헤치고선,

“우리 호랭이라.”

고. 그리고선 들어가 서니께, “아, 별 미친 놈의(웃음) 여자 다 봤다고. 그 래 호랭이가 자기 호랭이가 어딴냐?”

고. 아 그래고선 여기 젊은 사람들이 끝이도 안 듣고서 그냥,
“어이 때려잡자.”

고 야단이거든.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지긋한 노인네들이 그 가만히 생각해니까 그 이상해거든.

“그러면 주인네며는 그 들어가도 괜찮을 거 아니냐? 그냥, 그냥 두라고. 주인네며는 괜찮을 테니까, 주인네가 가서 꺼내 봐라 이거여. 그래 주인네가 들어가니께 끄내면, 끄내면 자기 것이 틀림 읊으니까 뇌줘라, 아 여자를.”

어른들이 시키니께, 시키는대로 했던 말이여. 그래가지고,
“그럼 사람, 호랭이한테 가서로 끄내 오라.”

고. 아 가서 끄내니까 뭐, 개보다 순하게 그냥 반가워 허구, 호랭이가 그 러니께 뭐, 이걸 꺼냈다는 거여.

“에이 그냥 두라고 가, 인자 그 가게 그냥 두라.”

구. 그래 호랭이를 구해 가지고 왔대는 거여. 그래 와 가지고서는 인저 집 이 와서 있는데, 그 뭐 그냥 그 놈이 인저 쏘대니며 그렇게 해서 네 식구, 개 하구 네 식구가 또 살고 있는 거지 뭐, 그게. 그래 그렇게 사는데, 그 그 소 문이 아무튼지 뭐 그 근방이 영에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벌려 나간 것이, 거시기 해 가지구 야중에 그 여자를 참 효부루다가 거시기 해 가지구, 그 잘 살구 끝났다면요, 그게.

11.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조완산(? , 남) /고림동T 4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유도 하였을 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제보자가 나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제보자가 설명하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랬거든. 자기 꽃감이라고 하니까, 이놈이 그냥 둑 그치더래요. 꽃감 나 온다고 그러나. 요 왜 이래.(소란스러움으로 잠시 중단.) 그 얘기가 뭐냐면 인제 할아버지보고 옛날 얘기 해 달라. 옛날 얘기란데 험게 읊잖여.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랑이보다 꽃감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왜 호랑이보다 꽃감이 무섭냐? 그 설명을 해 달라.”

그러니까 얘기 허는 거라구. 그래 할아버지가,

“아, 너 낮에 고자 소리를 들은 모양인데,”

사실은 호랑이보다 꽃감이 무서울 리가 읊지만은, 그냥 호랑이가 이런 밤에 밖앞에 와서 듣고 있다고. 그런데 애가 막 울고 있었어. 막,

“영영!”

울고 있는데,

“야!”

직 어마가,

“호랑이 온다.”

그래도 막 우는 거야. 영. 그럴 적에,

“아이 여기, 아니 야! 너 꽃감 온다.”

그러니까. 그냥 그 호랑이 올 때하고, 온다고 할 때는 울지 않은 놈(그치지 않은 놈의 잘못)이, ‘꽃감이 온다’고 허니까, 그냥 딱 그치더라 이겨여. 그래 개 생각에는, 개 생각에는 인제, 그 어린애 생각에는 꽃감이 인제 먹고 허는 거니까 좋아서 그런지 몰라지만두.

개, 그냥 호랑이는 자기보다, 자기는 이 사회에서 호랑이 제일 무서운 것으로 알았는데, 아이 호랑이 뭐 왔다고 해두 울지 않던 놈이, 꽃감이 온 데니까 딱 그쳐요. 딱 그치더라 이겨여. 영 그러니까 호랑이 그래서,

“아이 이제 꽃감이 무섭구나!”

호랭이가 도망갔다 이거여. 그래서 이제 호랭이보다 꽃감같이. 그런데 그게 그런 얘기에요.

12. 생겨진천 사거용인

원윤동(81, 남) /고림동T 4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 옆에 기다리고 있는 제보자가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다른 할아버지가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용인이, 용인이라는 데가 산골이야. 저 이, 이 여기가, 이 용인에 아주 산골이라. 저거 화전이나 타서 먹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던 말여.

거 아마 하두 어려우니까, 그 큰 산 밑에서 나온 밥을 해 먹는데, 그게 그 바로 귀알 밑에 발이었던 모양이지. 그러고서 인저 남편이 가서 일을 해니까, 가서 밥을 점심을 해 가지고 나가서, 인제 남편허구 이제 앉어설랑은 밥을 먹게 됐는데, 해필 그 낭떠러지에서 먹던, 먹었던 모양이여. 그래 밥을 먹구 앉었는데, 별안간 그냥 그 낭떠러지에서 큰 돌이 냅다 굴러 가지구서는, 그 남편이 그냥 그 돌에 치어서 죽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 저 진천 사람 하나가 병이 들어 가지구서는 다 죽게 됐는데, 염라대왕께서 보니까 이 돌에 치어 죽은 사람은 죽을 나이가 아니거든. 아니니까 가만히 보니까 딱 사람은, 저 진천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거기다가 용인 사람을, 혼을 갖다가 접을 붙여 주면 되겠음께, 염라대왕이다가서 용인 사람을, 혼을 갖다 죽은 것을, 혼을 진천 사람한테

테다 집어넣은 거여, 죽은 사람. [조사자 :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지.

“용인 사람은 치어서 죽었으니께 이미 살릴 수가 없구. 진천 사람은 숨만 떨어지는 거니께, 혼판 집어넣으면 사니께 그렇게 해야 졌다.”

그래가지구 골로다가 진천으로 갖다가 접을 붙혀 준거여. 근테 진천 사람이 살아 가지구선은, 그 미친 사람이여. 식구도 몰러 보고 [조사자 : 바뀌었으니까요?] 응. 딴 사람, 그 단, 딴 소리를 해구. 집안 식구들이 얘기를 해구, 자기 식구 아닌 것마냥 딴 소리를 해구 지껄이고 있단 말여.

그렇게 지내기를 아마 꽤 오래 지냈던 모양이여.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식구들이, 그 용인, 용인 얘기를 뒀다 해구, 딴 소리를 해는 거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러니께 진천에서 아마 용인으로다가 말하자면 사람을 보내 가지고선,

“실지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사람이 있나 읍나가 아무데 가서 물어 보라.”

그래 사람을 보낸 거여. 거 와 보니께 역시 그 죽은 사람의 부인은 살었지, 뭐. 와 물어 보니께, 아무 날 아무 때에 거기서 일해다가 자기 남편이 치어 죽었대는 거여. 그 둘, 둘에. [청중 : 그 이름이 뭐여?] 응. 그래서,

“그러냐?”

고. 그래 인저 간 거여. 가서,

“그렇다.”

고. 그래서 인저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원 죽은 사람의 부인, 용인 부인을 진천으로 데리고 갔데는 거여. 데리고 와서 거시기 하니까, 아 그게 분명하거든. 아 이게 용인 사람의 인제 혼이 거기 가서 살아서, 아이고 두 부인을 다 데리고 살게 맨들어 졌데는 거여.

그래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된고 허니. 그러니까 용인 사람이 죽어 가지구, 혼은 거기가 살구. 이래서 살아서는 진천이구, 죽어서는 용인이래요. 그래 그 얘기가 아마 전국에 다 있을 거여, 그거. 그 간단한 얘기여.

여

백

운학동

가. 마을개관

박중수, 강현모, 권정숙, 김정희, 박선현 조사 1995. 11. 4.

운학동은 용인터미널에서 원삼면으로 가는 도로변에 개울과 도로를 경계로 나누어, 호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인에서 동남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고 마평동과 인접하여 있으나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마을이다. 이 곳은 양지군 주서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어득운동, 학동과 용인군 수여면의 삼삼리, 호동 일부를 합쳐 어득운과 학동에서 한 자씩을 따서 운학리라 칭하고 용인면에 편입하였다.

운학동을 이루고 있는 자연 마을로, 우선 어득리는 형제봉의 형상이 용과 비슷한데, 물고기가 천년을 묵어야 용이 되고, 용은 구름을 얻어야 승천하기 때문에 어득운리라 칭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지형이 골짜기가 깊고 해가 늦게 떠서 빨리 지므로 어둡다고 하여 어둔이라고 한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 어득운(魚得雲), 어득리(魚得里) 어둔(魚屯)으로 기록된 것 같다. 이 어득리는 안어둔(내어둔)과 바깥어둔(외어둔)으로 구분한다. 학촌은 마을 뒷산이 학의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장재미는 옛날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학촌과 장재미를 합쳐진 마을을 별학이라고 부르는데, 별학은 학촌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것 같다. 삼삼은 마을에 찬 샘이 있어 참샘곡이라고 했고 이의 뜻을 취해 진천(眞泉)곡이라고 표기하였다. 찬삼에서 참샘으로 변하고 다시 삼삼(三三)으로 변한 것을 쓰고 있다. 목동은 원삼과 용인을 잇는 큰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행인이 술이나 음식을 먹고 쉬어가던 곳이라 먹거리라 하였다. 그런데 먹거리의 먹(食)을 먹(墨)으로 잘못 생각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운학동은 운학 1리, 2리, 3리가 있는데, 집들이 너무 띄엄띄엄 있었다. 전형적인 농

촌으로, 추수기간이라 농사일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여느 시골마을과 같이 청·중년층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나가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부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마을은 의외로 도시에서 퇴직하고 내려온 노인들이 많았다.

마을의 신앙은 천주교를 믿는 신자가 많았다. 조사자들이 나갔을 때 호동에 여호와와의 증인 회관이 있는데, 여기서 전도하러 나온 사람인 줄 알고 꺼려하였다. 그밖에 운학 2리에 기도원이 하나 있고, 운학 3리에 절이 둘이 있었다. 학교는 운학 2리에 운학초등학교가 있었다. 조사자들은 마을이 커서 설화가 많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조사를 나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현지에서 순수하게 구전되는 설화를 거의 채록하지 못해서 아쉽다. 그러나 뜻뜻한 시골 인심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반겨주는 끈끈함이 있어서 마음이 따뜻하였다.

나. 설화

1. 사과에서 태어난 아기

유씨(51, 여) /운학동T 1앞

[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운학 1리의 동네를 전부 돌아봐도 이야기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찾은 곳이다. 추수철이라 마을에는 굵은 자물쇠가 걸려진 대문뿐이었는데, 마침 밖에서 들어오면서 조사자에게 말을 걸어 와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야기를 곧바로 시작하여 주었다.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시는데, 그 하여튼 산에를 가시는데, 냇가가 있으니까 그 냇가에 깨끗한 물

과 사과가 이쁘게 내려 오드래는 거지. 응? 내려와서 너무 자식이 그림자야.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 사과를 그냥 아주 그냥 할아버지가 정말 건져 가지고 이렇게 응. 집으로 갖고 오셨는데, 얘기를 난 그냥 우리 시어머니한테 들은 거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고 인제 두 분이 이렇게 찝르시는 데, 예쁜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응. 그런 걸 해 주시는 거를 내가 들었거든.

그래 가지고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이냥 찝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걸은 그것 자식이 읊고, 손자도 읊고 하니까 길렀다고. 그런 얘기 대충 들었거든. 생각은 그것 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거를 나이 잡순 분이 길르느라고 고생고생 많이 했다. 인제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했다는 거지. 아 뭐 젊은 학생들이 처음일 걸 뭐. [조사자 : 맞아.] 처음이지, 뭐.

2. 수수대가 빨간 이슈(17)

유씨(51, 여) /문학동T 1앞

[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라 하셨다.

뭐, 이런 시골에 수수를, 수수깡이 이렇게 세워, 이렇게 수수를 심었는데 그 수수깡이 왜 빨갛빨갛 하잖아. 학생들도 다 봤을 거야, 수수깡.

지금들 심지도 않으니까, 수수깡이 왜 빨갛빨갛 해니? 그러면, 그 여우가 이제 그 남매를 잡으로 올라가다가 현 새끼를 내려보내 줘 가지고, 현 새끼, 여우가 떨어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 피가 묻어서 수수깡에 빨갛빨갛한 게

묻었다 그 얘가지 뭐. 그게 또 맞는 얘가지 뭐여. 게 들었지, 뭘 책을 본대든
가 뭐 그런 걸 본대든가 나 한디 많이 못 봤어. 이렇게 쭉어두.

[조사자 : 그냥 그런 얘기가 좋죠.] 그렇지. 그게 순수해기는 해지. 그 뭐
호랭이, 뭐야 두 남녀를 두고서는 뭐 떡장사, 호랭이 할머니, 떡장사 이렇게
딸네 집에 가다가 호랭이를 만나 가지고 그 떡을 다 뺏기고, 자기 몸도 다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호랭이가 혼신을 해서 그냥, 자기 엄마
옷을 다 입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한테 문을 두들기고 그런 식으로, 그거
그런 거밖에 잘 모른거든.(웃음)

3. 효자 홍기섭과 호랑이

양남석(70, 남) /운학동T 1앞

[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노인정에 들러 동네 아주머니들의 추천을 받고 만난 할아버지이다. 돌담을
돌아서는데 콩을 추수하는 중에 휴식을 취하면 할아버지들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계셨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선뜻 나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나오지만, 압탈 한 마리가
그 주위를 서성이며 콩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다.

명심보감의 한 구절에 나오는 애긴데,(할아버지의 옷깃에 마이크를 꽂아
드렸더니 더 크게 말씀을 하심.) 명심보감의 한 구절에 나오는 애긴데, 그
뉘, 그걸(마이크) 뭐 이걸 이렇게 하고 하라고? [조사자 : 이거 마이크거든
요.]

어 홍기섭이라는 분이, 그 일찍이 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어머님만 모
시고서는 이렇게 살아 나오는데, 그 어 어머니가 득병을 해 가지고 병을 얻

으셨단 말이여. 그래 게 어머님이 그러니께 오뉴월에 무슨 감이 있어. [조사자 : (맞장구를 치며)맞아요] 그래 감을 잡수시고자, 인저 홍시를 잡수고자 싶어서 인저 그 홍시를 얘기를 하니께는, 그 아들이,

“제가 그럼 홍시를 구해러 나시겠다.”

고. 그리고 나신 거여. 게 나와서 문 바깥을 나오니께는, 큰 범(호랑이)이 에- 마당 가운데 가서랑은 앉아 있드래요. [조사자 : 범이요? 범. 범. 범. 범. 호랭이. [조사자 : 아, 호랑이요!] 응. 그래서 피해서랑은 바깥을 나갈려고 한 즉 나가질 못 하게 막드래. 그래서,

“아이 낱, 나는 갈 길이 바쁜데 너 왜 이렇게 막노?”

그러니께는. 또 가서랑은, 또 앞에 가서랑은 엎드리고, 엎드리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범을 나보고 타래는 건가 부다’ 하고서는 이 늪이 범을 탕대요. 범을 탄즉, 범이 그 깊은 산중이로 산중이로 막 달리더래.

그래 달려서 인제 간 즉, 어느 큰 그 대문이, 우렁한 그 대문이 달린 집이로다 가서 앞에 가서 이 늪이 엎드리더려. 그래서 내려서나 내린 즉, 내려서 그 대문, 그전에는 에 ‘여보쇼’ 그리고, 지금은 ‘여보쇼! 주인, 주인 있습니까?’ 그러지마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고서랑은, ‘이리 오너라’ 그래고서 부른 것이가, 그때 그 주인 부르는 인사였다고. 그래, 어 불튼 즉 안에서랑은 점잖은 양반이 한 분 나오시더니 방이로다시,

“어여, 들어가시자.”

고. 모시더래요. 그래 인제 모셔서 방으로 들어간 즉, 그날 저녁이 에 친기라, 친기. 친기가 뭘 가지고 친기라 하는지 알아? [박승제 : 부모의 제삿날.] 부모의 제삿날. 아버지나 어머니의 친기. [박승제 : (닭이 쥐 잡는 모습을 보고) 쥐를 잡았네.] 그래 인제 친기에, 어 야 친기에, 제사에,

“오늘 제삿날이오니, 에 제가 잠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오겠다.”

고. 그러고서 들어갔다 이 말씀이여, 주인이. 그 후에 어 조금 있는 즉, 그 제사를 지내고서 제삿상에 에 홍시가 놓였드래, 감이. 그래서 주인 보고서랑은,

“어 참, 이 흥시가 어찌해서 이 흥시가 있습니까?”

그라고서, 인저 주인 보고서 물은 즉, 주인이 하는 말이 에,

“아버님이 항시 감을 즐기셔서, 그 감을 간수할 곳이 없어서 항상 짚동에 다가서, 짚에다가서 이 감을 한 점을 묶어서 넣어 두며는 항상 셋 아니면 넷 백에 안 살더니, 금년에는 일곱 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개를 썼노라.”

고 말이지. 그리고 하니께는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범, 범이, 에 신령이 나를 인도했다고 말이지. 그래,

“내가 여기, 제가 여기 온 원인은 어머니이 이렇게 환 중에서 고상을 하셔서, 어 어머니를 ‘감을 잡숫고 싶으시다’고 해서랑은 감을 구해러 여길 나신 길인데, 범이 앞을 막아서 여기다가서랑은 모셔다가 주어, 저를 데려다 주어서 에 선생님 댁에 와게 되었습니다.”

그라고서 헨 즉, 그 주인이 참 그 깜짝 놀랄 수밖에는 더 있어.

“그러시냐고? 거 참 금년도에는 뜻밖에 예년에는 세 개밖에 안 살더니, 세, 금년도에는 일곱 개가 살았습니다. 그래 네 개를 쓰고서 세 개를 넘겨놔오니, 세 개는 그럼 어 효자님이 갖다고 어머니를 봉양하시라.”

고. 그러고서 그거를 싸서 주더란다. 그래 그 감을 가지고 어 문 밖을 나온 즉, 또 범이 그 대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라고 엎드리더라. 그 불을 탄 즉, 그 야밤에 거기 제사지내는 걸 보고도 집이를 와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이런 그 사례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게 명심보감에 한 구절에 있는 얘기가.

4. 별학동의 유래

양남석(70, 남) /운학동T 1앞

[리 자택] 박중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다가는 일을 못 한다고 하여 조사자들이 도와준다고 하고, 옆에 있던 박승제 할아버지도 더 해 주라고 하자 생각이 났는지 이곳의 지명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 이쪽이 다들 별자, 영 학 학자, 잉 여기 왜 우리 부락이 다들 별자, 학 학자를 써서 이름을 지었느냐? 그 뜻을 내가 얘기할게요.

에 저기, 저기는 저것인가(북서쪽을 가리키며) 애, 저게 깊은 풀이, 저작이가 저것인가, 범, 범혈이라는 거야, 저게. 그런데 그래서 이 골자구니를, 이 골자구니를, 이 골자구니를 범안굴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런데, 여기 이 우리 부락에 이 별학이라고 진 것이, 다들 별자리라는 것인가. 나를 별자리라고도 그러는 것이여, 응. 별자가.

그래 학이 이 저기 저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것이 학 날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응.(학이 날개를 등에 붙이고 있는 모습을 흉내냄.) 그리고 요 밑, 요기 요 요기 조금 내려온 것이 속 안에 내용이 있지. 고것이 학에 주둥턱이라고 그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락을 갖다가 예전부터 여기를 ‘학촌이다’ 그러고서는 이름이 지어진 거야.

운학리 학촌이야. [조사자 : 운학리 학촌이예요, 여기가?] 응. 여기가 학촌이야. 그래서 학촌이라고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박승제 : 그래서 별학동이야. 별학동.] 응. 간단한 얘기, 그것 뿐이야.

5. 수수대가 빨간 이슈(2)

박인재(76, 여) /운학동T 1앞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앞의 할아버지들의 조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겼다. 제보자는 마당에서 콩을

고르코 계셨는데, 얘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다. 방안에는 부엌거리로 쇼핑백에 끈을 끼우는 일을 하고 계셔서 이야기를 들으며 일도 도와 드리고, 점심까지 얻어먹었다.’

한 사람이 사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떡을 이렇게 인자, 이고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오는데 호랭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이제 떡 하나를 주었다. 그래 인자 또 한 고개를 넘었는데, 또 떡,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인자 떡을 인제 고개마다 오다가 그냥 떡 한 함지를 그냥 다 뺐졌다. 그래 가지고서는 떡을 뺏어 먹고는, 호랭이가 그 어머니를 잡아 먹었다. 어머니를 잡아먹고 가지고는 그 호랭이가 애들 남매만 인자 집에 데리고 있는데 와 가지고선,

“문을 열어 달라.”

고 그러니깐. 그 애들이,

“목소리가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으구. 응. 그럼 손을 좀 이렇게 문틈으로 들, 들여보내라.”

고 하니까. 호랭이가 손을 이렇게 들여보내니까, 털이 이제 나고 지 엄마 손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 손 아니라.”

고. 그래고 문을 안 열어 주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문을 그 높이 열고서는 애들을 인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우물가에 인자 큰 노송나무가 있는데 그냥, 그리 애들이 그냥 기어올라 갔어. 기어올라 가지고는 하나님한테다 그냥,

“우리를 살려 주실라면 새 동아발을 내려주시고, 줄일라면 썩은, 썩은 동아발을 내려 달라.”

고. 축원을 하니까, 새 동아발을 내려줘 가지고는 그 애들이 인제 그 동아

줄을 타고 올라가서 남자는 달이 되고 여자는 해가 되고. 그래 인자 호랭이가 또 그렇게 인자 그렇게,

“살릴라면 새 동아를 내려주시고, 죽일라면 헌 동아를 내려 달라.”

고 하는데. 반은 새 거고 반은 헌 동아를 내려 가지고, 그냥 그걸 타고 반쯤 올라가다가는 그냥 그 줄이 끊어지면서 그 호랭이가 그 수수깡 발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수수깡을 빨갇거든. 그게 옛날에 그게 호랭이 피래요. (웃음) 그래서 그냥 호랭이가 그 수수깡 발에가 떨어져 죽어 가지고 수수깡이 지금도 빨갇잖아, 잎새기가. 그래 그게 호랭이 피래네.(웃음)

6. 범안골의 유래

박상문(60, 남) /문학동T 1앞

[2리 발개]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문학 3리를 향해 걸어나가는 길에 기도원을 지나서 멀리 산언덕의 밭이 보였다. 그곳에 사이가 좋아 보이는 부부가 콩을 패고 있었다. 콩 패는 것이 너무 바빠 보여 그냥 지나칠까 생각도 했지만, 그 텃밭을 선산으로 깎아 만든 것 같이 무덤 11개가 앞에 있어서, 가서 얘기를 들어 봤다. 바람이 불었고 옆에 도로를 달리는 차 소리로 약간 시끄러웠다.

여게 저 저. 주소는 알지? 여기가 용인읍 읍, 용인군 용인읍 문학리. 나가 시방 서 있는 곳이 문학리여. 문학리, 호리, 해궁리 여기가 삼 개리, 행정구역상으로 삼 개 리여.

호리는 저 개울 건너가 호리, 범 호자 마을 리 해서, 이 범이 많다는 거지. 해서 이그 전체 골짜구니를 옛날 노인네들은 범안골이라 했어요, 범안골. (이하는 테이프 보관 중 손실로 인해 조사자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함)

그래서 옛날 노인들은 그 쪽(범안골)에는 날이 어두어지면 숲 속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 호랑이들은 사람을 해치거나 잡아먹었다고들 말을 하는데, 사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는 않고 마을에 내려와서 개나 닭만 잡아 먹었다고 한다.

7. 홀애비골과 와우정사

박상문(60, 남) /운학동T 1앞

[2리 발가]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홀애비골과 와우정사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남편한테 ‘학생들에게 홀애비골 얘기 좀 해주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음담패설로 여겨졌다. 그런데, 아저씨는 ‘학생들에게 해 줄 얘기가 아니라고 하시며 이야기 해 주셨다.

1) 홀애비골

옛날에 홀애비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홀애비골이 아니였었지. 그 마을에는 과부가 많아서인지 다른 마을이나 지역에 사는 홀애비들이, ‘과부 마음은 홀애비가 안다.’

고 그 마을의 과부를 밤에만 몰래 와서 보쌈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 텃밭에서 낮에 혼자 김을 매는 아낙네를 산 속에 숨어 있다가 엮어가곤 해서 홀애비골이라는 곳이라 하였지.

2) 와우정사

와우정사는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생긴 형국이 두 소가 누운 형상이

라 와우정사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지금은 그 곳에 절이 있는데, 팔 하나가 사람 몸보다 더 큰, 누운 부처가 있어. 그런데 누운 부처는 원래 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80년대에 경남 지방에서 가지고 와서 옮겨다 놓았은 것이지.

8. 호랑이 고개

박상목(72, 남) /운학동T 1앞

[3리]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녹음 테이프 보관 중 손실로 이 부분이 파기되어 조사자가 대신 서술한다. 장재미라는 지명 유래는 제보자의 형이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원래 그 마을은 박씨 일가들이 살았는데, 큰 형이 재물이 길다는 뜻으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옛날에 그 마을 산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와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어떤 사람은 어두운 산길을 걸을 때 길을 밝혀 주곤 했었지.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대낮에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큰 소리로,

“호랑이가 어디에 있냐?”

고 소리를 치는 순간에, 별안간 오른쪽 어깨를 긴 발톱이 있는 앞발로 낚아채 듯 활쫓고 갔어. 그 사람은 놀라서 마을에 허둥지둥 돌아와 한 몇 일 정신나간 채로 있다가 나왔는데, 그 후로 건강하게 사는가 싶더니 얼마 안 가 죽었다고 해.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무 놀라 단명했다고 하고, 호랑이를 알랐다고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 여기 살아 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도 했었지.

9. 마신(병든 남편 버린 약처)

임금실(70, 여) /운학동T 1뒤

[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장소를 운학 3리 옮겨 제보자를 찾아가는 도중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어 들어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웃음을 띠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20살 때에 들은 이야기라 한다.

옛날 옛날에 참 나 지금 70이 넘었지만, 한 20 넘어서 고 때(에) 들은 얘긴 대. 참, 한 산골짜기에, 옛날에는 시방같이 사람이 많지 않아. 정말 드문드문 살지.

근데, 두 내외가 살았어. 그렇게 정답게 살았었는데, 남편의 친구가 이냥 자주 드나들면서, [조사자 : 왜요? 남편의 친구니까, 인제 자연히 남편, 인제 따라서 이렇게 놀러 오잖아, 그 집에.

그래서 인제, 그 남편의 친구가 자주 드나들면서, 이 여자가 그 남자하고 어떻게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락가락 그 남편 친구가 그러다가, 이 원 남편이 병이 들었어. 병이 들다가 그냥그냥 있다가,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친구하고 같이 정이 들었는데, 남편의 친구하고 정이 들었는데 자기 남편은 앓으니까 더 싫증이 나지. 자연적 싫어지지, 그렇지 않아. 그지. 그건 당연한 일이지. 응!

그래서 ‘아이구 얼른 얼른’ 속으로 말야, ‘저 남편 얼른 죽어야 저 남편 친구하고 살지.’ 요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여자 혼자 인제. 그러

다가 인자, 그러다가 남편이 꼴꼴꼴꼴 앓으니까, 요거 나쁜 여자가 그냥 악심을 먹고, 그냥 정신 다 앓고 누워있는 남편을, 요게 그냥 정신이 바뀌어 가지고 ‘요거 어떻게 없애야지.’ 그러니까서 나쁜 악녀지. 사실 말하자면 나쁜 악녀야. 게 ‘어떻게 해서 저 남편을 없애야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살지’ 하고 원, 고심, 맘밖에 없는 거야.

이가 아휴, 거짐거짐 다 죽게 되니까, 미쳐 그냥 성질도 못 참으니까 고결 그냥, 죽은 후에 갖다 버렸으면 괜찮은데 죽기 전에 갖다 치웠어. 옛날에는 사람이 산에 이렇게 두서너 집밖에 안 살았어. 시방같이 사람이 많으면 거 남의 눈이 무서워서 못하지. 근데 시방은 뭐뭐 그렇게 할 수 없지. 뭐 옛날에는 과히 하고도 남지.

밤중에 어둑어둑 할 때 이 여자가 워낙 그렇게 독한 여자니까 능히 할 수가 있었어. 갖다가 그냥, 미쳐 죽지 않은 자기 남편을 산 산, 산 산중에다 갖다 버렸어. 그것도 그냥 버렸으면 저거할 텐데, 이 굴에다 웅, 굴에다가 놓고 그냥 돌로 탁! 그냥 못 나오게 그냥 막았어. 응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궁리가 고론 궁리밖에 안 현거여. 도저히 못 살아 나오게. 그 만약에 살아 나오더라도 기냥 갖다 놓으면 나를 염려가 있으니까. 갖다가 그냥 돌로 막 저기 해서 꼼짝 못 하게시리.

그러고 인제 마음놓고 그 애인하고 살라고. 자기 남편 친구하고 살라고 고론 궁리만 했어. 그래, 그래 아이구 세상에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요놈의 여자 이냥. 시방 그러면 난리 나지. 그래가지고 이냥 돌아와서 그 남편 친구하고 재밌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인자 살다 세월이 넘어갔는데, 그 자기 남편을 갖다 묻은 굴속에 이 남자가 인제 드러 났는데, 하루는 눈을 떠보니까는 먼 구석에서 햇볕이 솟아 그 나오더라, 햇빛 줄기가. 게,

“어우 저게 먼(무엇인)가?”

바람기도 불어오고. 아 그래서,

“저거 어딘가. 내가 여기가 어딘가?”

하고 말이야. 거기를 엉금엉금. 엉금엉금 겨 가보니까, 구멍이 요렇게 하늘이 빠끔 뵈더라. 그래서 인제 고 즐기만 찾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뵈니까, 가서 인제 파헤친 거야.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냥 겨서 나왔어, 그 구멍을. 헤쳐 나온 게, 그 굴을 인제 빠져나온 거지. 그래서,

“아이구, 인제 내가 살았나 부다.”

하고. 인자 보니까는 맨 산중 중지인디 그냥, 맨 산만 가졌는데도, 게 간신히 그냥, 그런게 죽진 않아도 인제, 정신은 말짱해 그냥. 비틀거리며 뭐, 못 먹고 저기에서 비틀거리 가면서 산을 기어내려 왔어. 산을 기어 내려오니까, 그전에 살던 그 동네 저거든.

“아이구! 이게 웬 일이야?”

고. 그냥 백발이 다 된 걸 자기도 모르지. 저 인제 안 봤으니까. 거울이 없지 뭐, 산중에서 무슨 거울이 있어. 그 자기 상태가 어떻게 된 거를 모르지. 그냥 나와서, 그래 어디 보니까 그 동네 철물점이 하나 있었어. 그래 철물점에 들어가서 이제 거울이라도 보고 할라고 인제 집을 찾아 들었어. 철물점이 나타나서, 철물점에 들어가니까는 이만한 거울이 하나 있어. 이렇게 보니까, 어우 자기 모습이 아냐. 승약하게 저거 저기 하거든, 백발이거든.

“아이구,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나?”

또 자신도 그냥 깜짝 놀래고. 그래 젊은 인정에 주인이 나와서,

“아이구! 저 할아버지, 웬 할아버지? 그 전에 우리 동네에서 살던 그 양반하고 똑 같으네.”

“그 양반이라뇨?”

“그 전예요, 저기 저 집에 살았는 데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지독해 가지고 그 남편 친구하고 살고, 그 남편은 갖다 버렸데요.”

아는 걸 인제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왜 이 남자는 모르지, 그 남편인지. 그냥 백발 된 것만 아니까. ‘그 남자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그냥 대충 얘기만 해줬는데,

“시방도, 그럼 그 여자가 거기서 사느냐?”

고 물으니까.

“예! 거기서 살아요. 둘이 재밌게 살아요.”

그래. 그래 여, 남자가 인제 솔솔솔 가보는 거야, 거기를. 게 이제 망을 보고, 바깥에서. 해는 넘어 갔는데, 이제 몰래 숨어 봐야지. 사실이 그런가 하고 게 두 내외가 그냥 그렇게 사는데, 드나들고 요 남자 없는 틈을 타서.

“내가 저 놈의, 저 계집년을 없애 버려야지.”

하고. 인자 그잖어? 제 웬수 아냐. 옛날에는 자기 예편네였지만, 응. 그래 가지고는 밤중에 그냥 이 남자 없는 새 들어 가지고, 그 여자를 그냥 유인해서 끌어 내왔어. 응 자기 옛날 예편네지 인자, 제 안식구. 안식구를 가서,

“누구나?”

고 말이야. 응.

“나 몰라 보느냐?”

고 자기 남편 모습이 똑 같거든, 백발만 됐지. 응.

“어머 모른다.”

고 시치미 딱 떼며.

“날 모르냐?”

고 말이야. 그래 이냥,

“오라고. 이리 오라.”

고 말이야.

“어딜 가느냐?”

고 말이야.

“아 글썄, 내 말만 듣고 쫓아 오라.”

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없이 뭐, 자기가 한 죄가 있으니까 말이야 시키는대로 해야지. 안 하며는 죽을 것 같으니까는. 슬슬슬슬 쫓아갔어. 그 수중에 있는 여, 남편이, 자기 옛날 남편이 자꾸 산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더니만 바, 반항도 할 수 없고 기냥기냥 무조건 쫓아갔어.

쫓아가서 이냥 보니까는 굴속으로 끌고 들어 가잖아. 응. 자기 살, 그 남편, 못된 남편 죽은 그 굴속. 그래 그 속으로 끌고 들어 가지고 거기다 쳐 넣고는, 그냥 꼼짝 못하게 돌을 싸놓고, 싸놓고 그러다 거기서 그냥 말려 죽었어, 이 여자는. 거기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복수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대. 절대 여자라는 것은 참, 진 저걸 지켜야지. [조사자 : 지조?] 그렇게 지조 지켜야지. 응, 자기 응 남편이 그렇게 저거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저도 당해야지.

그러니까 나쁘며는, 나쁘게 인지한다는 자기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그러니까 시방은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될라면, 우선 내가 잘해서 응 모든지 잘 해야 그제 복이 돌아오지. 나쁜짓 하면 꼭 내게 해가 돌아온다는 걸 명심하고, 게 인제들 지들 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제 악녀, 제목이 마인이라는 거야. 진짜 그건 제정 때 일이라, 시방 그런 거는 없지. 간단하지만 옛날 얘기라고(웃음)

10. 장사와 은혜 깊은 호랑이

김석중(79, 남) /운학동T 1뒤

[3리 자택] 박중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제보자는 이금실 할머니의 남편이다.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다 끝내시고, 건넌방에 계신 할아버지께 우릴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해 주도록 말씀하셨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말이다, 아 깊은, 깊은 산중에 노인 어머니하고 장사 아들이 살았어. 둘이 두 가족이 살았는데, 이 도심지와 달바서, 그 전날은 화장실이란게 저 배깬에 있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산 속에 호랭이가 많아서, 배깬에 용

변하러 못 나갔어. 그래 방안에서 인저 용변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은 천하 장사니까, 덕에 뭐 호랭이를 무서워하지 않고서루 배곶으로 용변하러 나갔단 말야. 배곶에 저 변소간 아주 웅, 뚝 떨어진 디에 가서 인저 용변을 할라고, 옛날에는 인저 바지하고 저고리 입잖아, 한복이니까.

그런데 이저 막 용변을 할라고 이렇게 허리끈을(바지 허리끈을 움켜 잡으며) 끌러 놓고서, 이렇게 하고서 인저 골타래를 한 쪽은 붙잡고 이렇게 하고서 막 붙라고 하는데, 아 뭐가 눈앞에 와서 확 비치는 데 보니까 황소만한 호랭이가 와서 쭈구리고 앉았거든. 그래 이 장정이 보니까 야단났단 말이야. 인저 잡아 먹을라고 앉았으니까, 이 장정이 천하 장사니까,

“에이 요놈 혼을 내 줘야지, 그냥 뒀다가는 딴 사람을 또 해칠까 무섭다.”

그거야. 그래서 한쪽 손이다가는 골타래를 이렇게 붙잡고 말이야, 바지를 붙잡고 그라고서는 날쌔게 가서(조사자 웃음) 호랭이 귀를 휘잡았던 말이야.(조사자의 먹살을 잡으며; 일동 웃음) 휘잡고서, 장사니까 호랭이를 후래 쳤어.

그러니까 호랭이가 인자 뒤집혀서 저 가서 뺨 떨어졌는데, 아유 호랭이가 잡아먹으려 하다보니까, 웅칸 장사고 해서 틀렸단 말이야. 그런데 나가떨어질 때 벌써 호랭이도 다쳤단 말이야. 게 인저 막 도망가는 거란 말이야, 산 속으로다가. 그래 이 장사가 내비려 뒤도 괜찮을 건데, 넘겨 두면 또 사람 어디가 잡아 먹을 거 같으니까, 호랭이가, 디립데 산 속으로 막 쫓아가는 거.

그냥 어디까지나 막 데래 쫓아가는 거여, 그냥. 한쪽 손이다가 이렇게 골타래 붙잡고서 그냥 쫓아가는 거란 말이여. 아 호랭이가 암만 도망가도 자꾸 뒤쫓아 오거든. 근데 호랭이가 아마 다리를 다쳤던 모양이지. 그런게 제대로 막 뛰들 못 하는 거야. 아 도망가다, 도망가다 못 해서 이 호랭이도 지치고 사람도 지쳤단 말이여. 게 이제 호랭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잡아 먹기는 고사하고 잘못하면 사람한테 죽게 생겼단 말이야, 잡아 먹을라다가.

그래 인저 호랭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리는 아프지 더 힘도 없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람이면 비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드라 그거

여. 그래 무릎을 착 꿇고 있는데, 이 장사가 가만히 생각하니, ‘저 놈을 때려 죽여버리면 되겠다’ 는데, 그게 힘이 있어 장사가. ‘근디 저렇게 앉아서 하는 건 잘못 했다고 비는 것 같아서, 저 사람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는 건데 짐승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 따급해야 저렇게 하고 있겠나’ 그래 불쌍하다는 맘이 들어가서 그냥 호랭이를 가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너 해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사람 해치지 말고, 그카고서 마음 참 저 고정하게 먹고 글혀게 하고선 사람 해치지 말아라. 그람 용서해 준다.”

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단 말이여. 그래 놈 줘단 말이여.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집에 돌아오고서, 그 후에 그 할머니가 산너머 동네 어디, 그 옛날에는 산골짜기 집이 한 십 리에다가 이십 리 가서 있거든. 그래 먼 디 갔다가, 저 참 오다가 그 산날맹이에서, 호랭이 만날 산날맹이에서 해가 떨어졌어.

그런디 이 할머니가 인자 아주 노인이라서 지쳐서 집으로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산날맹이에서 지쳐서 앉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단 말이야. [조사자 : 할머니가요?] 그래서 다,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게 됐어. 그 이 그 아들은 모르고 집에 있는 거지. 해 떨어진 다음 어머니가 오시는 생각도 안하고서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져 호랭이가 마침 나타났어.

근데 그 호랭이는 알어? 자기 살려준 장사의 어머니 줄을. 그러니까 호랭이가 와서 보니 할머니가 기절하고 이렇게 해서 꿈쩍을 못하고 있던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구 정신 좀 차리게 한다’고, 호랭이가 인저 어디 가서 꼬랭이에다 물을 축여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정신을 나게 했단 말이야. 그래 인자 할머니가 얼마 있다가 좀 깨어 났어.

그래 인자, 깨어나서 보니까 호랭이거든. 그래 또 기절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호랭이가, ‘아하’ 자꾸 고개를 이러면서 괜찮다고 한 모양이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안심해서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 호랭이가 등을 디

밀어. [할머니 : 업으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업으라고 그런 거다. 지치기는 하고 어떻게 무섭지만서도 할 수 없다 그거여. 그러니까 호랭이 등에 이렇게 업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랭이가 인자 할머니가 떨어질까미 이 달리기는 못하고, 인저 천천히 천천히 덜여다, 인저 할머니 덕이 그 밖밖에 왔다는 말이여. 와서,

“왕죽이 응.”

하니 짚는 거여. 그 장사가 가만히 방 안에서 자다가 들으니까, 바깥에서 뭐가 ‘응응’ 거리는데 호랭이 소리거든.

“하, 요놈이 또 나쁜짓 하러 왔나?”

하고서는. 소래치고 나오니까 그 호랭이란 말이여. 근데 등허리를 뭘 보니까 뭐가 옆에 있어. 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거든. 그래 그제사 할머니를, 호랭이가 와서 그 아들한테 등허리를 이렇게 디리 밀면서 ‘할머니를 업, 데려 가라’ 그거여. 그래서 그 아들이 참 그 어머니를 받고 이렇게 하고서는,

“아 참 착하다구. 호랭이는, 너는 참 아마 나한테 은혜 갚느라고 그랬는 개비라구. 참 너 착한 놈이다.”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후에 그날이믄은 꼭 그 호랭이가 그 집을 찾아와. 그람 그 집은 그 어, 할머니가 말이여, 그 어머니가, 그 호랭이 오는 날은 인제 해마다 오니까, 고 날을 기해서 뭐 먹을 것을, 고기를 잔뜩 장만해서 놔뒀다가, 호랭이 오면 장만 인제 대접하고, 대접하고 그랬단 말이야. 거 호랭이가 틀림없이 그때까지는 찾아와.

근디 인제 장사는 장사니까 어디 산중에 가도 그런 미서운게 하나도 없고. 호랭이가 아무케 해도 무섭지 않는 장사란 말이야. 그런게 상관없는데, 이 할머니는 노인이 노인이라니와 기운도 인제 없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갈라면 참 겁이 나시거든. 근데 겁날게 하나도 없어. 언젠든지 어디 어디 가실라고 하면은 호랭이가 따라 땡겨. 뒤 졸졸 아주 저 집안의 개 미기듯 개 따라 당기 듯 따라 다닌단 말이여.

그래서 아무 디나 가서 밤이 늦던지 그냥 못 가던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아 호랑이가 뒤따라 땡기니 땡 것, 뭐 여우나 뭐 이런 거, 사람 헤치 듯 달라 들도 못하고, 호랑이가 과용해 주니까 말이어.

그래서 그 장사는 그 어머니한테 일생 동안 잘 효도를 하고 살고 호랑이도 역시 죽기 생전, 월 월마나 더 살았나 모르지만, 해마다 거기 와서 그 피기 얻어먹고 그러카고서, 은혜도 갚고 또 은혜 얻고 받고 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잘 살았다.(일동 웃음)

11. 도깨비 불

김석중(79, 남) /운학동T 1뒤

[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다른 호랑이의 이야기나 다른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옛날에 호랑이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같은 신이한 소재 때문에 도깨비에 대해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저 마당 꼬트머리 갖다가 변소를 만들었던 말이어. 그러니까 밤이 는 무서워서 호랑이때미 못 나오고 산골이니까 호랑이가 그전에는 득실땡 거든. 할아버지도 그전에 저 촌에 살적에, 밤에 저 큰집에 사랑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밤중에 여우가 문 앞에 와서,

“어웅! 어웅!”

이렇게 하고 울고 그랬어. 그전에 그랬단 말이어. [조사자 : 여우가 있었어요.] 그럼. 그래서 사랑, 사랑에 요렇게 있으면은, 아 그런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무서워서 사랑에도 못 나가고 그러기도 했어. 사랑이나 배깬에 인저

손님 맞고 하면, [할머니 : 할머니가 해방되기 전에도 산 부근에서 살면 늑대들 우는 소리가 나와] 그렇게 무서웠어, 그냥. 거 할아버지도 그전에 그런 소리 들었던 말야.

그라고 도깨비불 같은 거 모르지? [조사자 : 얘기 좀 해주세요.](일동 웃음) 이거(마이크) 나오는 거야. 또, 또 얘기를 하? [조사자 : 얘기 계속, 있는 거 다 해 주세요.]

전에 할아버지가 촌에 살 적에 저 그 건너 산이, 그전에는 그 산골짜기에 숲이 많이 우거지고 그랬어. 그래서 무서웠어. 지금은 가면 그냥 뭐 숲이래야 째고 해서 별거 아니었지만, 그전에는 이런 아릅드리 나무가 무서웠거든. 근데 그 저 거 건너 쪽에 산골짜기가 무서운 디가 있어. 거 옛날부터 거기는 도깨비가 나오고 아주 무서운 디라고 했어.

근데 이거 그것말 같은 사실인데 말이야. 그 건너를 보면 날 꺾고 저기한 날 그 건널 보면은 불이 왔다갔다 하. 정말로.

“아 제게 도깨비다. 도깨비다.”

보담도 그랬거든. 그런데 그게 도깨비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는구만, 요즘에 와서는. 그 여우같은 그 짐승이 말하자면 옛날 무덤을 파서, 무덤을 파서 뿔 그냥 먹고 가서, 인저 뜯을 두고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며는, 그 뼈에 빛깔이 비치기도 하고, 여우의 눈이 막 비쳐서 그 뻘쩍뻘쩍 하고 그랬다. 그게 도깨비가 아니고 그랬다는 건데, 마 할아버지는 그 불이 왔다갔다하는 걸 보기는 봤어, 할아버지두.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 얘긴데, 그때 저기 할아버지야 그때 저기 노인이, 이 저 촌에 농사지니까, 저 산골짜기에 눈이 있는 데다가 비가 오고 하니까, 인제 눈독이 꺼졌나 어디 불라고 인저 나갔드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막 그냥 불이 뭐, 뭐가 앞에 나타나고 막 그랴 그냥.(옆의 할머니가 나가시는 소리)

그러더니 진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말 같은 사실, 그 도깨비가 나

타났단 말이여. 아주 키 큰 것이 나타나서 막 앞을 가로막고 그러드라. 그래 그 어른도 그때 뭐 나이도 지났지만서도 담은, 아마도 담력이 심해, 강했던 모양이지.

게 이누의 도깨비를 쫓츠야 겠는데, 그 전날에는 도깨비 쫓는 문어가 있었어. [조사자 : 문어요? 도깨비를 쫓는 거. 인저 뭐, ‘방방,’ 하는 것, ‘살모지리, 우지리, 발아지리’ 하고 이렇게 불리는, 거 도깨비를 쫓는 저 그런 글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그 글을 자꾸 외니까, 그 놈의 도깨비가 슬슬 없어지더라는 그거여. 그래서 집으로 참 돌아오셨는데, 집이 와본게, 그냥 그 도깨비한테 그 그것 놀래 가주고서 옷이 흠뻑 젖고 이래서,

“죽다 살아났다.”

고. 그렇게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현시에 얘기하자면 도깨비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자 이런데. 나두 몰라. 그때 어릴 적에 본 것은 틀림없이 거 산골짜기 사람도 안 다니는 딴디, 거기서 불이 왔다갔다하는 건 나도 봤어.

그러니까 그 도깨비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게 있기는 있었어. 그 이제 현대인들이 얘기 하기는 ‘그 뭔가 짐승이 뭐 물고 땡기다가 그 빛깔이 비치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눈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웃음)

12. 도깨비 쫓는 방법(뱃나무 가지)

김석중(79, 남) /운학동T 1뒤

[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도깨비를 소재로 하는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거기 촌에(웃음) 거 옛날도 아녀, 얼마 많이 되지도 않은 한 50년, 한 60년 됐어. [조사자 : 60년요?] 응. 근데 그 한 동네에 아주 씨름도 잘하고 하는 상투쟁이, 씨름쟁이가 있었어. 옛날에는 다 상투 뽑았으니까 말여. 그래 씨름을 하면 참 잘 했어, 우리 어렸을 적 보면은.

거 요즘 저런 씨름이 아니고, 이렇게 붙잡고 하기는 하는데 상투 이렇게 뽑고 씨름하는 거라. 끄떡끄떡하고(웃음) 씨름 잘 했거든. (씨름)장에 갔다 늦으면 산골짜기 산골짜기로 가야 하거든.

그런데 한날은 장에 갔다가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고 그라고서는 그 늦었어. 술, 그런게 인제 술을 인제 잔뜩 취해, 장사지만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하고 인제 오는데, 정말 도깨비를 만났다는 거여.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술 중에도 장사이지만, 술 중에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도깨비한테 끌려 댕기는 거여. 잡아 끌리면 끌리고, 산중에다 끌려가고, 들로 가면 들로 끌려가고. 하구 밤새도록 끌려 댕겼다는 거여. 그라고서는 집에 와 가지고서 그제, 어제 저녁 이렇게 해서 도깨비를 만났다 했는데, 영 도깨비들 저 미쳐버렸단 말이여, 사람이. 하두 인자 놀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도깨비에 끌려 다녀서, 산중도 하여간 막 끌려 댕겼다.

그래 그 장사가 막 그냥 옷이 뭐 헐리고 막 이래서 왔는데, 거 그때부터 미쳐 가지고서는 도깨비 들러 그런 심이 나왔다. 그냥 주먹으로 갖다가 땅을 투기는데 땅이 막 팽겨. 땅이 막 푹푹 팽기드릴까지 막 주먹으로다 땅을 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래서, 막 그냥 어떻게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옛날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뭐 의사한테 가고 어찌고 뭐 그래도. 그냥 바(밭줄)루에다가 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묶어 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도 바를 막 끊을 정도로다가 그 힘이 서. [조사자 : 바요?] 그래. 말하자면 동아줄. [조사자 : 동아줄요?] 동아줄에다가 묶었는데, 아 그런데도 막 뛰고 야단 막 이래.

그래서, 그러자 인자 모 참, 지금 그 뭐라고 하나? 왜정 때는 사쿠라라고 하나? 지금 벚꽃나무. 벚꽃나무 그 장대기로다가 뚜들기면 도깨비가 막 도망간다는 말이여, 이런 속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참 벚꽃나무 장대기를 꺾어다가 그냥 막 묶어놓고 두들겨 뺐단 말야. 아픈 줄도 몰라. 이 사람이 도깨비 들려서, 그러니까 막 한 동안 두들겨 패니까 그자부터,

“휴!”

하더니,

“아구, 내가 왜 몸이 이리 아프냐?”

고. 하고 막 이케, ‘주물러 달라’고 허고 막 이래. 그런데 자기가 묶여 있거든.

“바부터 글러 달라.”

고 인자 말이여. 그래서 동네 사람이 모두 인자 끌어 놓고 그렇게 하나까, 그제사 얘기를 그 사람을 죽 하는데, 그 사람이 밤새도록 도깨비한테 끌려 다니고 이렇게, 그런데 땅도 뚜두려 파고 한 것은 자기는 모른다. 그 도깨비 들려서. 그래서 그냥 도깨비 기운이라고 그렇게 용을 쓰고 그냥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사쿠라 방망이 그거로다 참! 저 저 매화나무 그 가지(로) 패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도깨비를 쫓는 방법이라.

그래서 그 사람 나서가지고서는 살다가 죽었는데, 오래 살덜 못 했어. 그래서 그랬는지 명이 짧아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래 살덜 못하고 죽었어. 그건 우리도 봤어.

13. 중국으로 간 사신

김석중(79, 남) /운학동T 1뒤2앞

[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정숙, 박선현, 김정희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웃음을 한 번 웃고는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는 중국으로다 사신을 보내고 그랬었거든. 지금 중국이야, 옛날에는 중국을 대국이라고 했었어, 전에 우리나라는 소국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중국의 지시를 받고 살았거든, 그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참 사신을 보냈어. 요즘도 사신이라고 하잖아. 대통령 밀사 그 대사 뭐 보내는 것 그것을 사신이라고 했는데, 옛날의 중국에다 인자 사신을 보내며는, 지금으로 말하며는 압록강 건너서 인저 봉천 부근에까지 가며는, 거 중간에 객사가 있었으며. 객사가 뭐냐면 사신들 오고 하면 재우는 집이 있었던 말야.

어쩐 일인지 여기서, 사신을 여기서 보내면은 가서, 거 가서 죽고, 죽고 그래. 살아 오달 못 혀. 그래 우리는 대꾸 사신을 보내는 데, 중국서는 사신을 안 보낸다고 하고. 가다 죽었으니까. ‘그 이상하다’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인자 그 부근에서 모두 본 사람의 얘긴데, 사신이 와서 거기서 자기만 하면 죽는다 그거여.

[조사자 : 객사에서?] 그래. 말하자면 용빈관이지. 사람들, 저 사신들 오면 받아주는 영빈관인데 거기서 죽어. 그 자기만 하면 죽고, 죽고 그래. 그 우리 정부에서는 참 사람을 보내야겠는데 갈 사람이 없어, 이 저 사람이 죽,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참, 인제 이름까지 다 댈 수도 없지만, 뭐 그거 댈 필요는 없고. 한 사신이 자원을 했어.

“지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래 가면 죽을 지도 모르는데 가겠느냐?”

“아, 괜찮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그람 가 보라. 죽지는 말고 살아 오야 한다.”

이렇게 하고서는 인자 보냈단 말야. 그래 이 니가 거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서 자는데, 사람이 가서 허다하게 죽었는데 잼이 오겼어? 그래 잠을 못 자

고 자꾸 이게 쪼그리고 앉아서 뭐가 나타날라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여. 근데 밤중이 될 때까지 아무 소리가 없어. 아무 소리도 읊는데 왜 이것들이 죽었나 이거여. 그 유명한 사람들도 모두 왔는데 죽었으니까. ‘하여튼 이상한 일이다’ 해서 잠깐 앉아서 즐았던 말야, 하두 지쳐서. 근디 갑자기,

“꽝!”(일동 웃음)

허더니 워서(어디서) 대청 마루다가 ‘꽝’ 뛰어내리는 큰 발자국 소리가 난단 말이여.

“꽝!”

‘하하. 저 소리 듣고 죽었는 게비다.’ 그래가지고 문만 잔뜩 쳐다 볼뻔해. 뭐가 들어오나 불라고. 그런데 문쪽으로 와.

“꽝. 꽝. 꽝!”

하고. 근데 문쪽에서 와서는 우뚝 섰단 말여. 얼마나 무서워. 뭔지도 모르겠고. 발자국 소리 들으면 굉장한 발자국이 ‘꽝꽝’ 하는 소리인데. 그 가만히 거기만 잔뜩 노려 쳐다보고 있는데,

“꽝!”

[조사자 : 문 열었어요?] 미담이 문이 양쪽으로 탁 갈라진단 말이여. 자, ‘이게 뭐가’ 그랬더니, 스크르 문이 또 닫혀. 거 읊어져.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보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죽던지 말던지 보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문 닫고 또 없어졌단 말이여.

그래 이제 거기만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천정이 툭 떨어져. (웃음) 무섭지? 천정이 툭 떨어지는데 이게 또 뭐냐 그거지. 저기다 눈독을 들이다 이제 천정을 볼 뵈박이. 천장이 양쪽으로 떡 갈라지는데 한참을 쳐다보니까, 사람 죽으면 넣는 관, 관이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하면서 내려와, 저 천장으루.

이렇게 내려오더니 저 움목에 와서 탁 앉는단 말여. 그러니까 대략 거기서 모두 죽었던 말여. 발자국 소리 보고서 죽고. 아니면 그거 들려눌 때 거기서 다 죽었던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담이 강한이라 봐서, ‘끝까지 지

켜봐야겠다.’ 해서 호령을 했어, 오히래.

“천하에 요괴 같은, 네 니 뭔지 모르지만, 귀신이면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면 나타날 것이지 못 되게 방자하게 군다.”

고 호통을 치니까, ‘흔들 흔들 흔들’ 하더니 올라가서 지붕이 딱 닫힌다 말이야. [조사자 : 방에 올라가서.] 응. 천정이. 올라가서 지붕이 천장에서 닫혀.

“이제는 끝났는 개비다.”

하고서. 잘라고 하니깐 말이며,(웃음) 또 뭐가,

“광!”

인자 저기서 대청 내려치는 소리가, 아까 처음 왔던 발자국 소리 같은게,

“광, 광, 광, 광!”

온단 말이야. ‘인저는 정말 나타내비다’ 하고서 인자 가만히 있으니깐, 아닌 말로 시골 문이 양쪽으로 탁 갈라지더니, 사지 사방에 뭐, 발 한 짝이 썩 역 들어오는데, 발이 자기 키보다도 더 커, 이 발 한 짝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꾸부정하면서. 이래 쳐다보니까 어머어마 하거든. 발이 한짝 들어오는데 자기 몸뎡이보담 더 큰 사람 그거여.

“아이고 이 뭐냐?”

그러는데. 또 발 한 짝이 썩 들어오더니, 고개를 푹 디밀고서 이렇게 들어오는데,(Tape 2앞에 계속)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거대한 사람이 한 손에는 커다란 부채로 얼굴을 썩 가리고 오는 거여. 그래서 인저 그 사신이, 사신으로 온 사람이 거 인저 정체를 알았으니깐 놀람기도 하고 해서,

“누구냐?”

고 물었더니,

“나는 이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적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서 내 묘자리가 바로 이곳이다.”

그러는 거여. 그래 그러니까 그 영빈관 터가 바로 그 장군이 죽어서 한이 맺힌 거지. 그래서 사신들이 오면 꼭 장수를 보고는 놀래 죽는 거여. 장수가

그러더라.

“내가 이곳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신들을 만나며는, ‘영빈관을 옮기라’고 말하려고 나타나면 모두 놀래서 죽어 가지고서 내 한을 못 풀었는데, 당신같이 담력 있고 유능한 사신을 만나게 되서 내 한을 풀게 됐다.”

고 말 하더라. 그래 이 사신이,

“그럼 알겠다.”

고 그리고서,

“그럼, 왜 얼굴에 부채를 가리고 있느냐?”

고 물었는디. 그 장군이,

“내 얼굴은 너무 보기 흉칙해서 사신님이 보면은 전에 왔던 사신들처럼 혼절해 버릴 거라.”

고 말 하더라. 그래도 사신이 너무 궁금하니까,

“조금만 보여 달라.”

고 부탁해서 장수가 얼굴을 가린 부채를 조금 치우니께는 사신이 보고,

“그만 다시 가리라.”

고 한 거여,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그 사신이 누워있는 아랫목, 불 때는 자리가 그 장수가 누웠을 때 얼굴이 와 있어서 얼굴이 불에 탄거지. 그니까 얼마나 흉하졌어. 그래 이 사신이 중국의 황태자를 만나서 그 얘기를 다 해서 영빈관을 옮기고, 그 자리에다 사당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호 동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호동은 용인터미널에서 원삼면으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남서쪽에 길게 뻗어 있는 마을이다. 용인에서 동남쪽으로 11-2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운학동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가 되지만, 하루에 버스가 몇 차례 다니지 않아 교통이 불편하다. 이 마을은 앞의 있는 산의 형국이 풍수지리적으로 호랑이가 누워 있는 형상이라 범골, 도는 호동이라고 하였다. 이곳은 용인군 수여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호동에 예직리, 길업리, 용해곡을 합쳐 호리라고 칭하여 용인면에 편입시켰다.

호동을 이루는 자연 마을로, 우선 호동은 범앙굴, 범골이라고 하여 앞의 호동의 유래와 같다. 길업은 길업이이라고 하는데, 옛날 시인과 목객들이 마을 앞에 있는 계곡을 길업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마을이 들어서면 그대로 차용하여 부르게 되었다. 예직은 마을이 생길 때에 예의를 잘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이라 하고, 용해곡은 해의 열매를 따먹는다고 하여 해실이, 해실 이라고 전한다. 그렇지만 해실에서 실이 계곡으로 볼 때 뒤의 해곡동의 유래와 비슷하며, 용인에 속한다고 하여 용자를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들은 호동 1리와 2리를 조사하였다. 호동 1리인 호동마을은 마을 입구에 작은 다리가 있고 그 건너편에 집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주로 논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마을은 뒤쪽으로는 산이, 앞쪽으로는 작은 시내가 흐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단풍이 멋들어지게 들어 마치 동화 속의 마을을 상상하게 했다. 마을의 이름은 앞의 유래 이외도 옛날 이곳에 호랑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마을은 상당한 부촌으로 생활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젊은이와 아이들이

도회지로 이동하여 많이 볼 수가 없었다.

호동 2리인 예직 마을은 호동마을에서 봉고를 타고 약 10분 정도 더 가야 한다. 산이 더 높았고 호동마을 보다는 비교적 집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 역시 주로 농사를 지었으며 일손이 없어서 노인들이 논에 나와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 마을도 생활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을 찾아볼 수가 있다. 호동 마을과 비슷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나. 설화

1. 호랑이 일화 (1)

유숙경(72, 여)/호동T 1앞

[호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조사자가 호동에 도착하였을 때 산골이라 막막하였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자 대문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앉아서 키질하고 있는 제보자를 보고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며 이곳이 호동이라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이라 생각하여 묻자 처음에는 호랑이 물어갔다는 말과 함께 산신 제사를 지냈다는 민속을 말씀한 뒤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증풍이 걸리신 남편과 단들이 살고 계셨다. 자식들 모두 장성해서 도회지에서 산다고 한다. 제보자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대서리에서 태어나 20살 때 시집을 왔다고 한다. 또박또박한 말투로 인정이 넘치셨다.

동네 애들이, 우리 글썽 늑대 잡아간 거 그 얘기만 알아. 그래 가지구 아 주머니가 만날 울더라구. 지금도,(일부 지위짐) 참 4살배기를 그래, 그냥 재워 놓고 산밑에 남의 집 일을 해 주는데, 가서 일 해 주구 밥을 잡술라구 갔더니 애가 없어진 거래, 낮에, 인재 재워 놓고.

그때는 그냥 배가 고프 시절이라 일단 해주면 밥 한 사발씩 주면 그걸 으 더먹구 사는 거여. 품값도 읍시 그랬는데, 애가 읍서져서 만날 울구 그냥 그랬다구, 그 얘길 하셔. 근데 글썄 바로 뒷동산에서 그렇게 잡아간 거, 늑대가.

근데 인제 원삼서는 얘기 들면 원삼이라구 아시나. [조사자 : 예. 여기 가다 보니까.] 차 타구 찻길 가면 거긴 밤에 잘 안 땡겨. 옛날엔 모닥불 켜고 모기 땡기니까 멍석 깔구 애를 재웠는데, 애를 싹 잡아갔대 늑대가. 그 소리만 들었어. [조사자 : 어머.] 거 가면 그 전설이 있을 꺼여.

[조사자 : 낮에, 밤에 더우니까.] 더우니까. 기양 모기향이 있어 뭐가 있어. 그때는 모깃불 피우는 거야. 썩, 풀 베다가 퍼 놓구 그냥 멍석 깔구 지는데, 애를 그렇게 훑쳐 갔대. 그냥 잡아먹은 거야. 쪼그만 얘기를 그랬다구, 그런 얘기를 들었어. 원삼 사람이 그라더라구요. 어둔리구 호랑이가 나타나구, 동네가 조용하구 아무 사고도 없어.(산제사를 지냈다는 내용 생략)

2. 호랑이 일화(2)

제보자1(74, 여)/호동T 1앞

[호리 논개]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조사자가 자리를 옮겼다. 마을길을 따라 논 쪽으로 가다보니 한 할머니께 서 콩을 까고 계셨다. 우리는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면서 호랑이 이야기를 꺼내 유도하였다. 제보자는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였으나 말투는 비교적 정확했다. 17살 때 경기도 안성에서 시집을 와서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시집오기 전에 들었다고 한다.

[조사자 : 할머니, 여기 이름이 호리데요.] 호리 호자, 호리 호도, [조사자

: 호랑이 호자예요? 응. 호리. [조사자 : 어 호랑이가 많이 나오나 보죠?]

저어기가 저 산이 호랭이 허리래나. [조사자 : 호랑이 허리요?] 그래서, 거기는 집도 못 짓구 머이두 못 심구 그런데, [조사자 : 네. 거기다 집 지면 무슨 일 일어나요, 마을에?] 그렇타. [조사자 : 무슨 일이 일어나는 데요?] 시집 오니께, 내가 동짓달에 시집을 왔는데 그 해 가을에 물어갔다.

그러데, 그 엄마가 저이기 저 친삼이 앞에다 논을 해는데, 밥을 해갓구 이구 가는데 7살 먹은 딸이 질 쫓아 오더랴. 그래서 그런데 쫓아오는데, 다 옛날엔 그 무거운 밥을 잔뜩 해서 혼저 이구 가는데, 그 놈우 쫓아오니 기양 죽것지 뭐야. 그러니까,

“그럼, 넌 너대로 천천히 오라구, 나는 먼저 갈 테니까.”

이러구. 밥은 늦구 그러니까, 그냥 애를 두고서 먼저 갔대. 가서 일꾼들 밥을 다 퍼주구 해도 안 오더래. 기서 거기두 또랑이 있어. ‘또랑에 흑시 빠졌나’ 허구 왔더라니 없다 째여. 그래서 그 길루 없어진 거여. [조사자 :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구요?] 몰르지. [조사자 : 시체도 못 찾았데요?] 시체를 어떻게 찾아? 호랭이가 물어 갔다고 소문이 났는데, 호랭이가 많다고 호리라.

3. 호랑이 일화(3)

제보자1(74, 여)/호동T 1앞

[호리 논기]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여려 가지 이야기를 유도하였지만 더 이상 채록할 수가 없었다.

조오기 사는 또 요, 요기 나가몬 또 논 있지? 거긴 또 염생이 매놓은 걸 호랭이가 물구 저리 넘어가는 걸 뺏어 왔어. [조사자 : 뺏어 왔어요?] 엽구, 등에다 엽구 가는 걸. [조사자 : 뺏어 왔어요?] 뺏어 왔어.

[조사자 : 이구 그걸 어떻게 뺏어 왔어요?] 여럿이 그냥 몽뎡이 가지구 쫓아 가니까, 저녁 때 해가 다 넘어 가구 어둡지는 않구, 근데 엽구 가더라. 그래서 그냥 동네 소리쳐 가지구 여럿이 몽뎡이 가지고 가서 뺏어 왔지.

4. 서얼들의 출세를 막은 유래

박진영 (64, 남)/호동T 1앞뒤

[호리리 논개]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할머님의 얘기를 유도하는 중에 위의 할머님이 한 할아버지를 부르신다. 눈에 자리를 꺾고 앉으시더니 여러 가지 상황 설명 후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시작하셨다. 제보자는 이 이야기에 앞서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다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 다음에 사회와 역사의 다른 점을 얘기하다가 상·반 관계를 얘기하면서 족보의 예를 들어 주었다.

그 중엽에 왜 족보가 생겼냐 하면은, 이래서 그 이견 역사하고는 다른 거지. 일종의 사회에 가까운 얘기지. 이랬데, 서족이래는 거 알아? [조사자 : 서족? 아아 서출.] 서출이라 그러지이. 어떻게 서족이야? [조사자 : 그 첩에 자식기 으음, 그렇지. 원칙으로 첩의 자식이지.]

첩의 자식을 서출이라 그러는데, 첩의 자식은 양반 노릇을 못 해. 아버지 소리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인재 옛날에 첩이래는 건, 양반에서 첩을 하나씩 아주 의무적으로 얻어 살림 놓게 되 있잖어. 그래서 그렇게 얻은 첩의 자식을 서출이라 해서 그 가정에서 길르구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아버지

소릴 못 해. 아버지가 꼭,

“대감! 대감님!”

어림도 없지. 자기 큰 어무니한테도 꼭,

“마나님! 마나님!”

그것이 그랬어. 그러니 그건 쌍놈이야.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쌍놈이야. 게 서출이라는 거지. 그래서 조선 중엽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 아 이젠 나도 그냥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냐. 이렇게 읽어 보구 얘기하는 거여. 내가 본 건 아니구.

어떤 사람이 재주가 좋은 사람인데, 가위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 회의 그 옛날 가계에 가서 가만히 있을까. 서출들 출신이 재주가 좋고 너머 뛰어나단 말여. 기계 말하자면 모계나 부계에서 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 후손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짐성을 기를 때도 모계나 부계가 이렇게 해 가지구, 거기서 이렇게 잡종을 맨들어 가지구 개량종을 만들어. 게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꼭 짐승만 그렇다는 게 아냐.

여자두 남자가 바보한테다 뛰어난 재주 좋은 여자하구 이렇게 해서 꼭 엄마를 닮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이 서출들이 재주가 좋고, 전부 뛰어나단 말야. 그러니까 기냥,

“이거 안 되겠다. 서족덜 그거 안 되겠다. 기 서족은 벼슬을 못 해겠금 만 들어라.”

그랬다는 거야. 그 어떤 장관이 하나 그런 식으로 그걸 가계에다 제출해 가지구 그것이 통과가 됐나 봐. 그래서 득 들어왔는데, 저녁에 인재 퇴근을 행 거지. 퇴근해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오늘 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물으니까, 오늘.

“이런 게, 이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구 자기 어무니한테 보고를 했네. 그 얘길 했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휴, 너 잘못 했다. 우리 집은 자손이 끊긴다.”

그래더래. [조사자 : 어, 왜?] 아주 이걸 그냥 이렇게 전해진 얘기가. 그렇게 알아 뒤. 왜 그러냐. 그 어머니가,
“남을 망치게 되면, 나도 망한다.”

기린 얘기거든 그게. 그럴 꺼 아냐. 암만해도 책을 읽으면, 나보다 이해두 빠를거구. 거 그럴 꺼 아냐. 그렇지만 이해라는 거, 그렇잖아. 꼭 기렸대는 얘길 해지만, 그러나 올바른 해석두 있구, 잘못 헨 해석두 있을 거란 얘기지.

그 얘기가 그래므는 그런 얘길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왜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해구 온 거를 ‘우린 인재 후손이 끊긴다’ 얘길 했겠냐 그런 얘기가. 긴까 ‘서족을 이렇게 망치게 댄들었으니 우리 집이 망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 남한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했느냐’ 그런 얘기가. 다시 얘기했는데는 그럴 꺼 아냐. [조사자 : 맞아요. 그 집안에서도 그 애를.] 아냐, 자기네 집에서 두 서출이 있거든. 서출두 자기 아버지 자손 아니며 같은 형제 아니냐 얘기가. 그게 배만 달른 거지. 어무니만 달른 거지, 아버지 같은 아버지 아냐. 근데 그렇게 해구 보니 그 서족이라는 게 그때부텀 나왔대.

그럼 가까운 근래 얘기 헬까. 신익희씨래는 양반 알아? [조사자 : 신익희요?] 광주시, 국회의원 의장 해구 헨 양반. [조사자 : 잘 모르겠어요.] 에이, 그 저기 그 아직 나이가 어리구나.(웃음) 신익희씨라구 광주가 고향이여. [조사자 : 아, 경기도 광주요.] 응.

애, 그 양반이 서출이래. 난 모르는데 얘길 들으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 제살 지내도 마루 끝에서 지냈대, 봉당에서. 딴 사람들은 전부 마루 끝에서 지내는 데, 서출은 그러니까 마루두 못 올라가는 거야. 응. [조사자 : 마루도 못 올라가요?] 그렇지. 봉당에서 지내는 거지.

그랬던 양반이 공부해 국회 부의장까지 해니까, 아 거 양반 아냐. 벼슬 하른 양반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거 고향을 가서, 향이라고 있지? 왜 향. [조사자 : 향. 네.] 향은 5대조 이상 돼야 향을 모시지. 응. 그럼 현조가 돼야

지. 고조 위에 현조가 돼야 향을 지내거든. 향을 모시는데 그 향을 지내루 갈 때, 그 신의희씨가 그랬대. 제일 말석에 서서 제사를 지내니까,

“아, 신의원! 일루 올라 오시오.”

라구. 거 왜 그러냐면은 종가집 자손들은 워낙 촌래가 얹어. [조사자 : 촌래요? 어, 촌수가 얹으단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 얘기가 자꾸 길어져 안 되는데.(이후 종손이 항렬이 낮다며 그 이유를 설명함, 생략.)

5. 바보 온달

박진영 (64, 남)/호동T 1뒤

[호리리 논개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서얼차대를 만든 유래에 대해 설명한 후에,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월사금을 내랴’고 말씀하였다. 이때 조사자가 바보온달에 대해 요청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부마라구, 그러니까 왕에 사위를 부마라 그러는 거야.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 섹시야. 고깃만 잠깐 얘기. 그 섹시들도 어렸을 때 자꾸 울었을런지. (하하하) 아 그려. 평강공주 어릴 때 하두 울었데. 자구(자꾸) 자구 우니까, “아휴! 넌 온달이한테, 바보 온달이한테 시집 보낸다.”

구 그랬데. 자꾸 어릴 때부터. 게 이놈이 컸거던게 재(자기) 실랑이 바보 온달인 줄 알았어. 산골에서 그냥 노상(웃음) 그 바보 온달의 얼굴두 못 보고 어디 사는 지도 모르는데, 이젠 저 산골에서 숯이나 구워 가지구 이렇게 즈 어무니 하나 이렇게 봉양하구 사는 사람이여. 아 이래 나이는 많구 이랬겠지. 평강공주 하구 나이는 차이가 많이 졌을 거야.

아마 이렇게 그 얘길 듣고 보니까, 어릴 때 그냥 우니까 ‘넌 바보 온달이

한테 시집 보낸다’ 그랬지. 흠! 그거 뭐 나이 차이가 굉장히 컸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평강공주가 시집을 갔어. 근까 왕이니까 반대했을 꺼 아녀. 그래 이렇게 말하자면 가출을 헨 거야.(웃음) 바보 온달일 찾아서.(웃음) 게서 거기서 혼인을 했어,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바보 온달이 어머니가 여우라 그랬데는 거야. 이쁜 색시가 날아 왔으니까,

“여우가 돌속(변신)해 가지구 왔다.”

구. 기냥 그랬데는 얘기두 있어. 대충 들어둬. 나 얘기가 바빠서 안 돼.(웃음) 기래서 거 평강공주가 자기 남편을 글을 가르키고 무술을 가르키고 그랬데는 거야. 그래서 유사시에 가서, 게 가서 고구려를 구했어. 게서 바보 온달 장군이여.

그래두, [조사자 : 바보온달 장군.] 게서 가장 인재 현모양처라구 보통 얘기들 해지. 뭐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이 그런 거 알어. [조사자 : 에헤헤,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나는 국민 학교도 못 댕겼지만 그런 거 알지만.(웃음)

현모양처랜 게 뭐가 현모양처야, 지금은 색시들이 아주 남편에게 이쁘게 보이구 모냥만 내른 현, 현천 줄 알어. 양천 줄 알구. 현모 뭐야 자식들한테 그냥 돈이나 막 주구 옷이나 다 사 입히구 말어. 기냥 한 벌 떨어지지 않아 두, 새루 유행이라면 운동화 사 달래구 말야. 보름마다 한 벌씩 바꿔. 그래야 그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라구 생각해. 그럴 꺼 아녀. 그럼 그 애들이 자라서 우똥게 되는 거지? 또 그렇게 허왕된 것만 생각허지. 그게 조금만 때만 물어 두 안 친구, 또 판치 새 거 사 달라구 친구. 기럼 낭비가 말두 없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렇잖어?

그렇해서 현모양처라 한다든 가정을 잘 꾸려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되는 거야. 가난한 집구석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돼. 그렇잖어? 있는 집구석 돈 쓰는 거야 누구든 못 해. 까짓 꺼,(에헤) 아무 바보라두 해지. 가난한 집에 가서 그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현처 양처가 되구, 자식들을 고생 속에서 건져 내는 것이 현모가 되는 거야.

[조사자 : 그래서 평강공주가 현모양처의 모범이예요? 시초예요?] 아니.

글씨 모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러두, 여자가 기러니까 왕에 딸이 응, 일국의 왕 공주가 바보한테 시집 가랴구 가출을 했겠냐 그런 얘기가.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믄서 가서 가정을 하나 일으켜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지 뭐. 그까짓 꺼 뭐.

6. 은혜 모르는 호랑이

박진영 (64, 남)/호동T 1뒤

[호리리 논개 박중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바보 온달 이야기를 끝난 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였다. 그태 조사자가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요청하자 책이 나온 이야기라 안 하겠다며 떠나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요청하자 생각이 났는지 자리에 다시 앉아 구술하여 주었다.

토끼 잡아먹는 얘기 할까? 토끼 잡아먹는 얘기 해? 아, 토끼를 할 게 아니라, 쥐 얘기를 해야 돼. [조사자 : 쥐 얘가요? 어머, 재밌겠다.]

호랭이가 빠졌거든, 함정에. 빠졌단 말야. 근게 옛날 사람이 망을 해 가지구, 망에 얽히게 되었나 봐. 이렇게 빠지믄, 근데 아! 이 높이가 나올 수가 있어야지, 호랭이가. 게 생쥐가 지나가니까,

“야야, 나 좀 살려 달라.”

니까. 아! 그거 호랭이가 잡아먹히려 어떻게. 그러니까 안 해 줄려니까, 그까 이놈 쥐가 들어가 가지구 망을 전부 쏘아서 그냥 ‘딱’ 푸니까 호랭이가 나올 수 있잖아. 나오니까 지가 며칠 함정에 빠졌으니 배가 고프단 말야. 게 쥐를 잡아먹을라 그랬지. 아! 그러니까 쥐가 하는 말이, 이거 안 되겠거든.

“아니! 이거. 그래, 내가 호랭이님을 이렇게 살려 드렸는데,(웃음) 나를 잡

아 먹을라든 되느냐?”

하구. 얘길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구. 어디 가서 재판을 해 봐야지 안 되겠다.”

구.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러 갔대는 거야. 어디를 부르러 가니까는 누굴 만났냐면은, 토끼를 만났대. 토끼를 만나구, 아! 쥐가 인재 토끼한테 물어본 거야.

“아! 이런데, 어떻게 하나?”

니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끼가 지가 잘못하든 호랭이한테 잡아먹히 겠거든. 그럴 꺼 아녀, 토끼두. 그러니까는 인재 쥐하고 하는 소리가, 호랑이 보구.

“아휴! 난 기냥 이렇게 얘기 들군 모르니까, 그 함정에 빠졌던 자리에 다시 한 번 빠져 봐야 안다구. 빠져 봐야 안다.”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함정에 진짜루 망 쓰구, 이렇게 함정에 ‘쑥’ 들어가니까는, 토끼 하구 쥐는 도망가 버렸지.

“넌, 그대루 살아.”

7. 고서래의 유래

박진영 (64, 남)/호동T 1뒤

[호리 논개]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도개비에 대해 묻자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옹기장수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옹기장수와 보쌈에 관해 말씀하였다. 그런데 이 옹기장수, 보쌈은 서사를 갖추지 못한 민속으로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 이야기를 구술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관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준다고 하더니, ‘고씨네’ 이야기부터 해야 된다면, 그것이

고시래라고 말씀하였다.

풍수는 지관이라 그러지, 보통. [조사자 : 예, 지관.] 모의 자리나 보고 집터 보고 [조사자 : 할아버지 한 입 더(준비한 김밥 드리며)] 아이, 난 고만해. 아! 됐어, 됐어.(웃음) 그 아 이거 지관 애길 해야되는데, 자꾸 말이. [조사자 : 왜요? 지관. 지관이 왜요?] 지관 애길 하려면, ‘고시래’란 얘기부터 해야 된단 말여. [조사자 : 예, 해 주세요.]

“고시래.”

그래잖어. 왜 들에 가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고시래.”

밥순갈 떠 내잖어. 아이 지금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옛날 노인네들 다 밥 먹기 전에 벌써, 남 먹기 전에 떠 가지구,

“고씨네.”

하구 집어 던졌지. [조사자 : 그게 뭔데요?] ‘고시래, 고시래’ 이렇게. 그게 ‘고씨네, 고씨네’여. 워낙 고씨네. [조사자 : 고씨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고씨라는 양반이 지관이었는데, 이주 명지관이거든.

근데 그게 의문나는 게 뭐냐면, 명지관인데 왜 부자가 못 됐냐는 그 얘기지. 그렇잖어? 아직 할아버지구 아버지구, 종 명당자리 갖다 놓구 부자가 됐어두 벌써 될 꺼 아니여. 그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명지관이라 볼 수가 읍서. [조사자 :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데 잼아요.] 이주 그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이 사람이, 홀어머니를 모시구 살었는데, 홀어머니가 돌아갔거든. 근데 저는 장가도 못 들구 자식도 없으니까는, 저만 죽으면 지 어무니 모의 삼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제사 지내 줄 사람두 없구. 그래 송장을 업구 사방 돌아 댕겨 봐두 쓸만한 자리가 없더랜 얘기야, 암만 봐두.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든 뭐가 되지.

어디 저 뭐야, 전라도 어디에 그 넓은 들에 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농

촌에 농사철에 농부들이 사방 여기 저기서 들밥을 먹구 그러니까 아주 풍요롭거든, 그 음식이. 예라! 여기서 이 사람이 뭐냐구 하면,

“농사를 질 때, 부자가 되게 할려면 우선 고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고씨네’ 해고서 해라.”

그간 지 어머니한테 곡식을 준다는 뜻이거든. 그런 식으로 제살 지내기 위해서 3년을 하고 땡졌대. [조사자 : 아이, 너무 재밌다.] 그 고씨네가 고시대가 된 거.

8. 유연히 명당을 쓴 세 지관

박진영 (64, 남)/호동T 1뒤2앞

[호리 논개 박중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고시래의 유래에 대해 마침 다음에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아마 이것이 고시래의 유래에 앞서 구술하여 준다고 하였던 지관 이야기로 보인다.

지관덜 세시(셋)서, 지관이라는 게 직끔 지관들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지관 노릇을 하지만은, 직끔 고고학자덜 지질학자덜은 대개 공부를 하고 그걸 배우게 해서, 그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자 : 어이, 안녕하셔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짓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지만, 직끔 지관들은 뭐 이런 저 나침판 들고 다니며, 하루 내면 돈 10만원 받아가기 위해서 해고.

근데 게 옛날에는 꼭 그런 사람만 있는게 아니거든. 자기가 탁 이렇게 지질에 대한 것을 얘기해면서, 사방 땡기면서 어느 지방에,

“누가 우쨌다.”

이런 것을 보고 땡기는 사람이 있었거든. 게 셋이 우쨌 같이 땡졌대. 같이

땡기는데, 그 사람덜, 돈 지금마냥 뭐 어디 이렇게 음식점이 있고, 그래서 돈 만 있으면 막 사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땡기는 사람 돈이 있을 턱이 있어? 읍지. 뻘한 거 아니여? 무전여행 해는 사람들이 돌아 땡기다 보니까는 시장도 해고 뭐 큰일 났거든.

게 오다 보니까 아주 명당 자리가 있어. 근데 세 사람 다 같이 그걸 봤어. 근데 서로 얘기 안 하는 거여. 비밀이 있단 말이여. 절대 안 가르쳐 준다고 게 근데 셋이 보고 어딜 가니까, 산인데 해가 넘어 갔단 말이여.

직끔 같이 촌락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십 리 가다 우터기 촌 하나 있으면 거기서 숲이나 파서 이렇게 이십 리, 삼십 리 가서 갖다 팔구선, 좁쌀 땡 말이나 팔아다 먹구 살던 사람들이거든. 아이 어떤 집이 가니까는 아닌 곡소리가 들려.

“웬 일인가?”

하고 가 보니까, 떡거머리 총각이, 먼질(무엇인 줄) 알아? [조사자 : 몰라요] 늙은 총각이 거 가난하니까 머리 손질을 옛날엔 상투 틀잖아? 거 손질을 못 했던 말이지. 그냥 영성해 가지구, 아무렇게나. 게서 그런 사람을 떡거머리 총각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하나 울고 앉아 있어.

“왜 그러냐?”

니까, 자기 어머니가 돌아 갔대는 거야. 혼자서, 이걸 뭐 그러니 서이가 의논을 했어.

“저기, 좋은 자리가 있던데.”

그러니까,

“어디?”

“저 넘어 오다가.”

그러니까,

“응! 자네도 봤어?”

“그려.”

“글쎄, 거기 쓸만 해긴 해던데,”

그래 셋이 그렇게 얘기가 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문제 꺼리가 있다는 얘기가. 거기 들어간 송장이 금수의를 입어야 돼. [조사자 : 금수의로요?] 수의, 수의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 [조사자 : 예, 죽은 사람 이렇게,] 염할 때 이렇게 입히는 것. 그걸 수의라고 해, 금수 의. 그러니까 금수의를 입은 송장이 들어가야 되고 철갑, 그러니까 철투구를 쓴 사람이 조문을 외야 돼. 그러면 금시 발복을 할 자리아. 금시 발복이야. 금방 부자가 된다는 얘기지. 모의를 쓰고 나면. [조사자 : 예, 그래서요?]

그런 자리인데, 이런 딱거머리 아무 것도 없는 총각이 금수위가 어디 있고, [청중 : 맞아.] 조객이 어딴. 그거 생각을 해 봐. 그렇지. 그건 도대체 그 사람하고 맞지가 않아. 그래서 셋이 의논하기를,

“우리 한 번 시험삼아 거기에 써 보자.”

그래서,

“그냥 거기다 인저 써서, 이렇게, 이렇게 당의를 모셔라.”

인제 얘기를 했더니 이놈이 아이큐가 있어. 그때 오뉴월인가 봐. 아마 음력으로 오뉴월쯤 되면, 내 이거 저 보리타작도 하고 밀 타작도 하고 그러잖아. 지금 양력 오뉴월에는 안되지만, 음력 오뉴월에는 다 하거든. 그러니까 수위가 없으니까 이놈이 버리(보리)집으로다 말이야, 버리짚으로다 이렇게 저 저길 여겼어, 꺼적을. [청중 : 거적.] 응. 꺼적이라고, 명석 마냥 드문드문 여겨 가지고, 거기다 송장을 푹푹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버리짚이 오뉴월에 잘 마르면 노랑거든. 아주 그냥 그제, [조사자 : 응응. 아, 맞다.] 봤어? [조사자 : 아! 예, 봤어요.] 황금 버니까. 응! 아주 잘 마르면 굉장히 노랑거든. 황금빛이야 진짜루.

게. 이거 버릿짚이. 그 저기 뭐 거적을 만들어 가지고 송장을 싸고선 집으로 왔어. 거 인제 아까 이 사람들은, 지관들은 금수위니깐 그건 생각은 못했던 말이지. 근데 ‘버릿짚이 저게 노라니까, 금수위로 생각 한다’ 이렇게 생각은 얼렁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아! 그런데 가서 인제 이렇게 광증을 짓구, 광중이라고 알아? [조사자 :

몰라요] 야! 이런 것까지 전부 설명해야 될라면 뭐, [조사자 : 곡하는 데에 요] 아니야. 모의를 이렇게 송장을 쓸라면은 걸광이 있구 내광이 있구 그래. [조사자 : 아아.] 그렇게 늑자나 해 가지고, 여섯 자씩 이렇게 파구, 그 속에 가선 꼭 송장만 들어가도록 가느다랗게 파. 그런데 인제 곁에 판 것은 걸광 이라고 하고, 속을 내광이라고 그래.

[조사자 : 예, 그래서요] 잉. 인제 거 광중을 파 가지고선 모시고 났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거든. 이렇게 인제 해관을 하는데, 송장을 그 땅 속에 는 것을 해관이라고 그래. 학생들한테 내가 가르쳐 주고, 내가 배워야 하는데.(일동 웃음) 그게 그렇게 하는데, 하고 나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빗방울 떨어지니까 이 지관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뭇잎 사이로 피해갈 거 아냐.

거 인제 총각네가, 지 어머니 혼자 사회를 묻으려고 하니까, 그 넘어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나물장사야. 산꼴이니까 나물장사 하는 사람이 있었던 말이야. 거젠 거 옛날에는 그저 광우리나 소쿠리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거 읍구 나물장사 그 인제 그 장독소래기라고 있지. 장팡 덮는 소래기가 있어. 독으로 맨든 그릇이. 그거를 제 이렇게(머리에 이는 시늬를 하며) 요기다 까 꿀로 이고 가면, 고기다 나물을 담아 가지고 가다 팔고선 말이야. 우리가 비가 올 땐 까꿀로 뒤집어 썼거든, 이렇게. 응, 뒤집어쓰면 비가 들 떨어질 거 아냐, 옆으로 흘러내리니까. 그래 거주구서,

“아이구, 아무개 엄마가 죽었때때?”

그러구 와서,(일동 웃음) [청중 : 맞네.] 그래드래는 거야. 조객이 온 거지. 응, 그냥 철투구를 쓰고 말이야(웃음) 그게 가만히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게 때를 다 입히고 나면은 평토제를 지내거든. 평토제라고 그래. 마지막 제사 지내고 상주들이 가는 거야. 평토제.

가니까 뭐 음식 차린게 있어. 뭐 있어. 마지막 곡을 하고 우는 거지. 우는데 인제 지관덜이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멀찌감치 앉아 있지. 앉아 있으니까 어떤 소복을 한 여자가 그냥 막 뛰어 오드라는 거여, 고개를 넘어서. 그래서 ‘우젠 여자가 그냥 상중에 말이지 이렇게 뛰어나’ 그러니까, 이 여자 뛰어요

더니 뭐라냐.

“나 좀 살려 달라.”

는 거야. 지관덜 보고

“왜, 그러니냐?” 니까,

“저 뒤에서 나를 죽일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려 달라.”

고. 그래, 그러나 우태개(어떻게) 할 수가 있어, 별안간.

“저 묘에 가서 울으라.”

고. 아 소복한 여자가 울면 그 집 상줄 거 아냐? [청중 : 그집 상준질 알지, 누가 췌껴난 사람인 줄 알어.] 응. 그래 막 이제 슬퍼, 자기 생각을 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그냥 아주 뭐 그냥 뭐 눈물도 나왔겠지 뭐. 그래 거기서 울었어. 아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무지막지한 쇠도리끼랄 가지고 쫓아오더라는 거야. 그래더니 거 지관들이 앉아 있으니까,

“아 여기 소복 세우고 지나가던 여자 못 봤느냐?” 고.

“아까만 있으니까, 아 저쪽으로 가더라.”

고. [청중 : 아 지관들이여.] 으흥. 엉뚱한 대로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로 갔지. 그러니까 응 지관이,

“얼릉 나서서 일어나라고. 어여 가자.”

고. 그리고 나니까, 이 여자 부자 덕에, 말하자면 양반 집 딸인데 시집을 와서 과택이 됐어. 과택이 됐는데,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시집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 [청중 : 맞아.] 죽인데. [조사자 : 죽여요? 잡아 죽인데. 그래 종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그래 쫓아보낸 거야.

그까 이 여자가 그냥 지가 자기 집에서 가져간 지 뭐 패물이 있을 거 아냐. 말하자면 직꿈의 보화가 있으니까, 이걸 싸들고 그냥 도망을 왔는데 거기서 요행이 살은 거지. 그래 그래 보니까 보화를 싸 가지구 왔으니, 그 사람 금시발복한 거 아냐. 그냥 부자 됐지, 금방. 그래서 그런, 그래서 지 질학이란 것 또 아주 무시할 수도 읊는 얘기고, 믿기도 곤란한 얘기에. [조사자 : 아 그래도 아주 재미 있어요. 금수의 그런 것이.]

9. 고쟁이를 입은 마누라

박진영 (64, 남)/호동T 2앞

[호리 논개]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이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도개비에 대해 묻자 강남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며 말씀을 하였으나 사실적인 것이라 녹취하지 않았고, 다른 야한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다가 생각이 났는지 음료를 한 잔 드시고는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

지금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속내의를 말이지, 뭐 팬티나 뭐다 이렇게 입고 여름이래도 말이여 속살이 안 보이거든. 그런데 옛날 사람은 속곳이라는 게 있어, 여자덜 옷이. 이 학생들 속곳이라는 거 알아? [조사자: 예, 알아요.] 알아? 가랑이 푹 갈라진 거.(웃음) 그래서 거 찾아질 것. 그 사람들은 옷을 벗질 않지. 그냥 이렇게 벌리고(행동을 보이며) 앉아서 오줌 누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게 고쟁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뭐 고쟁이, 옛날에 단속곳이라고도 있고 뭐 우짜고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인제 이거 입고해서 이렇게 발을 매니깐 한쪽이 끼울어질 꺼 아니야. 이렇게 앉아 발을 매며는, 그렇지. 그래 상상을 해 봐.(웃음) 그렇지. 옆으로 이려고 삐딱하게 앉아 있으니까 말이야.

그때 마침 등짐 장사라고 하면 인제 이렇게, 옛날에 등짐 장사라 하면 등예다 이게 옛날에 장사꾼이 전부 등에다 지구 땡기니까 등짐 장사라고 그래. 새우젓 장사도 등짐 장사, 향아리 장사도 등짐 장사다, 뭐 다 지구 땡기면서.

이렇게 신길 밑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 여자, 그 저기 말하자면 여자 생식기가 말이여 삐딱하게 되 있거든. [조사자: 어머. 어머.] 그렇잖어. 아니

그 그것말이 아니지, 옆으로 삐딱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게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엉 삐딱한 거 곤쳐 준다.”

고 말이여.(웃음) 그까 남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발을 메니까 그렇게 중간이 삐딱하거든. [조사자 : 그래서요] 그래서 여자를 자기가 꺾 차고 갔다는 얘기지. 곤쳐 준다고 그래구.

그래서 그거는 옛날 우리 한국이 아니라, 옛날 으른덜은 이런 얘기를 애들하고는 ‘잡답스럽다 우쨌다’ 그래 가지구 얘기를 잘 안 해 줄려고 그런 얘기는 못하게 해. 근데 그것이 성교육이 안 돼 있는 거거든. [조사자 : 예, 맞아요. 숨기면 안 돼요.] 이케 그냥 은연 중에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 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 애덜한테. 그래야 또 부모된 사람도. 그게 왜냐면 호기심을 갖게 만들면은 안 되거든. 그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특이하게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사람한테 꼭 그런 잘못이 생기는 거야.

10. 여자의 재치

박진영 (64, 남)/호동T 2앞

[호리 논개] 박중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같은 내용의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여자가 영감 몰래 셋신랑을 봤거든. 켜는데(그랬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 족칠 거 아니여. 나쁘다고 말이여. 지금 같으면 이혼도 하고. 게까 이 여자가 아까 내가 속곳 얘기했지.

“속곳을 이쪽으로 갈려지면 아 이건 당신꺼구, 이쪽 건 저 삶(사람)꺼구.’
그러는 거야(웃음) 그런 식으로, 그래 모면을 했더라 얘기가.

11. 곶의 자손 단군

박진영 (64, 남)/호동T 2앞

[호리 논개]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라며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곶하고 호랭이 하구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았는데. 근데 호랭이는 못 겪고 곶이 되가지고 색시가 됐데.

게 환음이라고 결혼을 해서 놓은 것이 단군이래.

12. 김해 허씨의 일화

박진영 (64, 남)/호동T 2앞

[호리 논개]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음료를 한 모금 마시더니,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는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해 김씨, 김해 허씨는 튀기라 그런다고. [조사자 : 왜요 저희는 김해 김

씨에서 나왔거든요. 김령 김씨이지만.] 대략 김해 김씨에서 갈려 나왔어, 김씨덜은. 다 김해 김씨가 원 시조라고 봐야 돼. 왜, 그 인저 땅에서 들어온 김씨도 있겠지만 말이지.

왜, 그래 다만 김수로왕은 가락국에 초대 왕이거든, 김수로 왕이라구. 게 김수로왕이 뭐 탄생이 우터기 낳는지 몰러, 나도 근데 그 장가를 우터기 들었느냐며는 외국 여자하고 장가를, 결혼을 했대는 거야. 게 그 여자가 올 때 배를 타고 왔는데, 그까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몰라. 게서 게 말은 승(성)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 승이 있고 그러니까,

“승이 뭐냐?”니까,

“허허.”

그랬대. 게 허서방이 됐대.(웃음) 그게 김해 허씨가 되 있어. 김해 허씨. 김해 허씨하고 김해 김씨하고 혼인을 안 해. [청중 : 응. 응. 맞어.] 알아? 그건 알아야 돼. 게서 아까 저 족보 얘기하다 그만 했지만 족보라는 게 뭐야? 씨족을 그 가리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거지. 아무 소용도 없어. 족보라는 것도 양반 쌍놈 가리는 게 아니고, 자기 씨족이야. 씨족을 어티게 어티게 해서 누구서 버터 우터기 우터기 갈라져,

“우리가 저 사람하고 우터기 된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족보라는 게 있는 거지. 근데 이조 중엽에 족보라는 게 왕의 도인이 있어야 돼. 도장이 찍혔어야 돼. 왕의 도장이, 옥쇄가 찍혀야 그게 족보지. 옥쇄 안 찍힌 직쯤 인쇄소에서 막 인쇄하는 그까짓 족보는 족보가 아니여, 막 맨드는데.

옛날에는 양반족, 저기 아까 말하듯이 서족은, 서족은 족보를 못 맨들어. 그러니까 직쯤은 서족이 됐건 뭐가 됐건 다야 족보를 가서 인쇄해 오면 되거든. 돈만 얼마 주고 같이 인쇄해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직쯤 족보라는 것이 값어치가 없는 거지, 아무 값어치가. 게까 씨족이라는 자체가, ‘우리 씨 이렇게 어이 집안이 어티기 어티기 됐다’는 것을 아는거지. 옛날 족보는 누가 벼슬 뭐 하고 뭐 했다는 것이 다 기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산소자리두

어느 곳에 어디는 어느 좌양 어디에 우터기 우터기, 그게 다 써 있어.

그게 다 이기는 거여. 옛날 양반덜은 족보를 가지면 자기 산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여. [청중 : 응. 응. 그렇지.] 묵은 산소는 그랬는데, 게 뭐 씨족이래는 게 별거 아니여. 어느 책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양반이었는데, 제 쌍놈을 저기 해 가지고 애를 낳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으로 부러먹었어. 종으로 부렸는데, 그 사람이 장가들어 딸을 낳거든. 또 장가들어,(양반 아버지가 아들(종)의 딸에게) 인제 겁탈을 한 거여. 그래 가지구 애를 또 낳았어. 이런 책을 읽어보면, ‘근친 결혼 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그럴 거 아니여?.

만약에 에 저 성경에 ‘아담과 이브’ 거게서 두 남자들이 있어서 애를 낳다고 그려. 그 남매끼리 혼인을 했을 거 아니여? 그래 그 씨족이 퍼졌지. 우터기, 그렇지 않고 우터기 씨족이 돼, 남남끼리. 혼인을 우터기 해. 씨족들이 혼인하고 퍼진 것이 민족이다.

지금 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장 엄격하게 가리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야. 씨족관계 문제를 동성동본 혼인 안 하잖아. 지금 법적으로 출생 혼인신고도 못하고. 근데 우리 박서방네는 같은 박서방네끼리는 혼인을 안 해.

애 그래서 직꿈은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하고 혼인 안 한다는 얘기도, 허씨는 그 마나님은 자손이 없잖아, 김해 김씨한테 시집을 왔으니까. 게서 그 집이다 양자를 하나 보내 줬어. 그래 가지구 거기서 그냥 허씨를 봉양하게 하구, 게서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는 혼인을 안 해.

13. 대동강 팔아먹은 붕이 김천달

박진영 (64, 남)/호동T 2앞

[호1리 논기]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붕이 김선달에 대해 묻자, ‘붕이 김선달은 사기꾼’이라며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붕이 김선달 얘기, 거 사기꾼이거든. 순전히 사기꾼이야. 붕이 김선달 얘긴 전부 사기치는 거야. 땡기때 근 정상적인 게 아니고 사기치는 거야.

게 대동강을 팔아먹어. 그 돈이 없으니까 맨날 무전여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지, 돈이 있어. 숙 땡기다 돈이 없으니까 이걸 우터기 뭘 돈이 생겨야 될텐데, 뭘 팔아먹을 게 없단 말이야.

게 평양을 가서 대동강을 숙 보니까 말이야, 겨울게 얼었는데 말이지 그 얼마나 넓어. 그까 여기서,

“에이 이놈아! 대동강 물을 팔아먹어야 겠다.”

고 생각을 한 거야. 게 남의 이런 놈에 가서 게 배거름을 다 뽑아다 사방막 뿌려 논거야. 그냥 대동강에다 그냥. 게까 얼으니까 얼음이 싸하게 배거름만 죽 보일 거 아니야. 그러구,

“제 논이라.”

구. 팔아먹는 거야. [조사자 : 하하 머리 좋다.] 그러니까 이걸, 게 틀림없이 살 때 보니까 논이거든. 대동강이라 구경 안 해 본 놈이 거기 뭐 알아. 그래서 대동강 팔아먹는 거구.

14. 장님에게 당한 붕이 김선달

박진영 (64, 남)/호동T 2앞

[호리 논기]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붕이 김선달에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장님한테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장님 눈 못 보는 게 아니여. 근데 이게 또 장님이 기가 맥힌 사람이여. 이런 건 상식으로 찝딱찝딱하게 상식으로 알아 뒤야 해.

논에 가면 주리라는 풀이 나, 주리라는 풀이. 저 아즙니는 아실 겨. 주리라는 풀이 나는데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안 나, 주리는. 근데 갈대는 소리가 나거든. 갈넌 알지? 억새풀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 이런 소리가 나거든.

그래 갈대밭을 갖다 팔아먹으라고 말이지 이래니까, 장님이 이렇게 바람 부는데 가만 있더니,

“야! 이진 갈대밭이야.”

줄밭이래야 논이 되는데, 갈대밭은 묶는 땅이거든. 그리구 안 사드라는 거야.

15. 붕이 김선달의 금강산 구경

박진영 (64, 남)/호동T 2앞

[호리 논개] 박중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붕이 김선달에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붕이 김선달이가 장가를 들어 가지고 첫 애를 낳는데, 애기 엄마가 애길 낳는데 그냥, 그 옛날 사람 직끔은 이렇게 장성해 가지고 시집을 가니까, 한 스물넷 살씩 이렇게 가니까 장성해거든. 근데 워낙 나이가 많으면 이 저기 해산할 때 고통을 더 많이 받는데. 방광이 이렇게 굳어 가지구 말이여. 그런데 인제 또 어릴 때 시집가 가지고 어린애 낳래면 부소산이라는 약을 저서

맥였어. 직끔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진통제 맞고, 우티기 우티기 해 가지고 힘 안 들이고 낳은 방식을 그렇게 했던 모양이여.

게 자기 마누라가 어린애를 낳는데,

“부소산을 가지고 오라.”

니까. 부소산 액을 지으러 갔어. 그리구 가 가지구 어떤 친굴 만났는데, “금강산 구경을 간다.”

고 하니깐. 이 놈이 금강산 구경을 같이 가 버렸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낙관적이고 말이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마누라는 어린애 낳으려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약 심부름 간다며 금강산 구경 갔으니까 말이여.

게 이 금강산을 직끔 마냥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길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거란 말이여. 걸어가니까 몇 달씩 걸려서 금강산은 일만 이천 봉, 어이 삼천구 암자라는데 그걸 다 구경할려니까 울마나 걸려.

구경을 딱 하구서, 그냥 옷 해 입은 거 다 떨어지고 그지가 되어 가지고 슬설 들어오니까, 집에 오니까 잔치를 하고 양 야단이거든. 어여,

“이게 무슨 잔치냐?”

니께, 그 애 돌잔치라 더래.(웃음)

16. 조선의 야사

김익채(91, 남)/호동T 2뒤3앞뒤

[호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장소를 호 2리인 예직 마을로 옮겨, 이간난 할머니에게 만나 민요 3편을 들은 다음에 한 아주머니의 소개

로 제보자를 댁으로 찾아갔다. 제보자는 91살의 할아버지로 마을의 지리를 알려 주시고, 우리 역사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 내용은 야사로 설화적 내용이 있어, 앞부분의 삼국과 왕건의 건국 부분은 생략하고 그 뒤 부분을 녹취하여 수록하였다.

1) 바람 부는 대로 공격한 이성계

한 400여 년 해 묵다가 우리나라 이태조. 이태조. 우리 이조가 도움이 어디냐면 서울 아니여, 서울 한양, 한양 도움. 서울인데 이성계가 저기 고구려 개성은 때려 맞혔지 뭐여. 개성을 때려 봤쳤는데, 우티기 때려 봤쳐느냐면, 그때 저 만주 만주가 저기, 저기 때(대)국당 아니여, 만주가.

옛날에는 옛 조선 당군제 있는 건데, 그걸 체신을 못 해 가지구 때린 거지. 조선에서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대국 가서 저기 승전을 하구. 전쟁을 일으켜 가지구 전쟁에 들어갔어. 승전을 해 줘 가지구, 재서 저기 만주를 근게 저 거시기 내 주었어유, 강감찬이. 그까 강감찬이 나중에 돌아간 뒤로 이것이 한국에서 그걸 벗졌지. 대국서,

“이건 그 사람 사대질로 준건데, 그 사당네가 생존 못하구 읍서졌으니깐 안 된다.”

고 벗어갔지. 그저 워낙은 한국 땅이 그대로 들어났던 거여. 게나 한국에서 이성계란 임금이, 우리 대만 서울 한양 나라에서는 최고 아주 임금이여. 그때 저 대국으로 만주로 뭐야 거시기 해 가지구, 그 무슨 것으로 그 대개 저 만주 이런 데는 이름을 뭐라 하나면은 애국 사람 소리 안 해요, 오랑케라구. [조사자 : 오랑케.] 오랑케.

“저기 우리가 모르구 백성도 모르구 먹는 것만 안다.”

구. 나쁜 놈, 그거를 집어치라고, 집어 칠라고 갔다. 때다 박을라구 해서 인저 만주를 우리가 차지 할라구 저 이렇게 나가는 거. 이성계가 누구하구 나가나면은 통두라니, [조사자 : 통두라니요?] 통두라니. 통두라니란 신하여. 근데 게 대장이여. 그게 다 공부여. 통자가 우티기 되나면은 이렇게 가로 알

밑에, 이렇게 하는 게 가로 알 아니여, [조사자 : 가로알 밑에.] 밑에 눈 목이라. 눈 목 쓸 줄 알지. 눈 목 이렇하고 하나, 두울, 시엿. 세움 통자 통자라고. [조사자 : 예, 통가.] 통두라니 게 이름은 마을 두자하구 안손 라자 하구 통두라니여. [조사자 : 통두라니.]

게 통두라니 하구 이성계 하구. 이성계는 저기 선봉 대장이구, 저기 통두라니는 후봉대장이구 그래유. 대장이라 칼 들구, 옛날은 칼하구, 총이지 아니 칼하구 창이지. 이 총이 없어유. 까 그 들구서 군사 한 몇 천 몰구선 저기 만주를 치려, 치려 나가는 거여.

만주 치려 나가니까 바람은 불구, 불구. 어깨 뒤에서 바람 불구, 소나무가 쓰러지구 그냥 나갈 수가 없다구. 게 군사는 몰구, 옛날인게 말타구 나갔대, 대장은 인저 말타구 군사들은 그냥 창 들구 칼 차구, 저기 창 들구선 그냥 휘둘구 나가고자 하는데, 자꾸 비바람이 치구 뭐가 나가고. 도로 뒤로 쳐 여기가 개성일 거 같으면은,(손가락으로 그려 보이며) 개성서 인게 나오잖어. 나올 것 같으면은 서울쪽으로 나오는 거.

나오는데 인제 땃백이 뒤를 들고, 앞에 들고 인저 선봉대장 후봉대장 군사를 몰고 나가는데, 작꾸 바람이 뒤로, 뒤로 치진다. 이렇게 불어야 나가기 좋은데, 뒤로 치데 그까 우티기려 이렇게 나가려다 바람이 뒤루 치면 우티기 사느냐고. 바람이 뒤루 치면 제발리 풀잘 뒤로 치는 거. 비는 두루 퍼붓고 갈 수가 없다. 근대 앞에서 그냥 억지루 가는 거지. 억지루 가는데 앞에서 어떤 나이 많이 사람이 저기 소, 암소를 가지고 밭을 가려 비를 맞구 밭을 가려. 인저 고비를 잡고.

“이 늙의 소야! 어능 가. 이러 저리 가자.”

하는데. 그 저기 농부가 뭐라구 지껄이나며는,

“이늙의 소야! 이 미련한 늙의 소새끼야. 응 이성계같이 미련한 늙의 소새끼야. 응(하하)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라.”

하거던. 그런게 거 농부가 소 가지구만. 아이 어머니께, 통두라니가 저기 후봉대장이 있다가,

“가마 있어요, 대장님! 저 소리 좀 조금 들자.”

구. 중시하는겨. 중지하니께 또 소를 흘떠리면서 이성계가, 자기가 이성계 아니여.

“이 이성계같이 미련한 소야. 바람 부는 대로 깃발 치는 대로.”

어른덜 못 알아듣지. [조사자 : 아니요] 그게 왜 그러면은 저기 판대로 나갈 거 읍다구. 분명히 뒤는 치야 하거든. 그럼 뒤로 치니까 역적 아니면, 자기 임금을 뒤로 칠라니까 게 통두라니까 가만히 봐도 이상스러우니까,

“바람 부는 대로 깃발 치는 대로. 음 이성계처럼 미련한 소야.”

이성계는 자기 대장, 대장 정작 화봉대장 이성계네, ‘이성계같이 미련한 소야’ 하거든. 그까 얼른 사하고 아아 이판사판, 이것은 까낙대로 이니까 뛰자 곧 돌아와 가지구 개성을 뒤로 쳤지 뭐여. 개성을 도읍한 왕건 태조가 저기 뭐여, 저기 만주 치라구 내보냈더니 아 고거 군사를 몰구 뒤루 치네. 간단하지 뭐 행복만 할 수 있어. 치는데,

“행복하라.”

그래 가지구. 개성을 점령해 가지구 저기 하는데.

2) 정몽주의 선죽교의 죽음

그때 개성을, 왕건 태조의 신하가 누구냐면 정포은이여. 조선의 야사 [조사자 : 종폰] 정포은. 정포은이란 것이 그 선생님 비서요. 정포은이. 정포은이란 선생님이 원운 정간대, 그 분이 왕건 태조의 최고 충신이라고, 정포은. 정포은은 저기 저 아주 최고 그저 왕건 태조의 최고 책임자, 시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무시기 국무총리 같은 그런 신하라 이거여. 그러니께 임금 다 음의 최고 책임자라.

그러니 그 분을 행복을 받으라고, 저 뭐여 인자 불러들일 거 아니. 불러들이는 데 어디 와. 안 자면 개성을 치고 들어갔지만, 거기 앉아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행복을 받을 수 읍거든. 그러니께 이 서울지구에서 인저 부르는 거여. 부르는게 저 분이 옛날엔 전부 말을 타고 땡겼다구. 말을 타고 땡기는

데, 그 저기 아래 신하하구, 그래 부하지. 부하 보고선 인저 말을 갖다가 데라구 인저 행복하러 올 겨여.

오는데 그 정포은 정선생이 말을 이래 꺼꾸로 타요. 말을 바로 타야 손을 잡을 꺼 아니? 꺼꾸로 타니께, 그 부하가 그니께 말부쟁이지. 부하가,

“아니, 대감께서 왜 저기 말을 꺼꾸로 타십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 중간에 파편 들어오는 거 싫어서, 파편 들어오는 거 싫어서 그러니께 어이 가자.”

고, 아, 이러니께 그 대감께서 꺼꾸로 타구선, 어여 몰라니께 몰 수뻐기. 저기 정포은 정선생은 이렇게 꺼꾸로 타구선 앉아 있는 겨. 아 뭐 말은 앞으로 타 올러, 올러 오는다.

개성서 서울 오자면 선죽교 다리가 있어, 선죽교. 착할 선자에 대 죽자 다리 교자 선죽교라 하는 겨. 선죽교 다리에다가, 다리 밑에다가, 밑에다가 한양 조씨 조영주(용규)란 사람을 갔다가, 이 저 이성계 아들 이성계씨가 저 무시파편을 들렸어. 첩편으로 한 번 치면 사람이 죽어유. 첩편을 들려서 그 밑에다가 매복을 시켜 놔다구.

그 정포은 선생은 맴이 끝나 가지구 행복을 안 했다 이겨여. 응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충신은 임금 둘을 섬기는 법은 없어유, 죽으면 기냥 앉아 죽었지. 저 임금 섬기다가 이 임금 생기면 이 임금 섬기는 거 아니라구. 그러니까,

“그 승질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 놈을 죽여야 되겠다구. 응 그놈을 죽이야지 그 놈 살려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용규란 사람을 시켜서,

“첩편을 들러 가지고 있다가, 그 저 정포은 선생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 첩편으로 나가서 쳐 죽여라.”

이겨여. 그러니까 매복을 시켜놔지. 그람 정포은은 중간에 가다가 죽을 줄을 밟서 알았어유. 내가 행복 안하믄 중간에 사람을 시켜 가지구 내가 목

숨이 끊어질 줄 알고서는, 그 첩편 드는 거 싫어 가지구서 말을 꺼꾸로 탄 거여. 알아 들었어? 아 책임질게 따로 있지.

아니라 달리. 선죽거리를 막 다리를 건너 서니까, 조영규가 첩편을 들고서 한 발자국 치니까 대번 꼭절이지. 그래 오도가도 못하지 뭐. 사람은 죽고 뭐, 정작 저 뭐여 상전을 죽었는데 말 끌고 여기 와 봤자 소용 있어. 가봐야 대감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러믄서 그 다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이 르기를 비 오는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선죽교 다리가 시뻘컘다는 거여. 이 중년까지 되서 그 말이 있었어유.

유명한 충신이 그르키 억울하게 죽은 때문에, 그래 가지구 신하 받는 사람은 받고, 행복 못 받고 이래 가지구 서울에 와서 경복궁 창덕궁이 임금 들어가는 대궐이여. 경복궁은 그 아드님들이 있는 대궐이구, 그래서 거기를 짓구서는 들어서서 이성계가 왕 노릇하지 안 했어.

3) 한양터를 잡은 무학대사와 정삼봉

그럴 적에 대궐을 짓자면, 저기 지관을 데려다가 터를 잡아야지 될꺼 아녀. [조사자 : 근데 서울.] 한양터 터를 잡는데 지관을 불러는 거. 그럼 지관은 누가 갔나면, 아 태조 적에 한양 도움자리 정삼봉, 절에 중 무학대사, 웬만한 나이 지긋한 사람은 무학대사하면 다 절의 아주 그때, 이태조 적에 일 등 지관인 줄 알아.

무학대사하고 정삼봉이하고 둘이 가서 한양터, 서울이 한양여. 경복궁, 창덕궁 대궐터를 잡는 거여. 서울 터가 뒤는 북쪽이고 앞은 남쪽이라. 자자오행이여. 자자 아들 자자가 북쪽을 자방, 아들 자자 무 방자 앞은 남산이라. 일본 놈들이 많이 출입하던 데가 남산 아녀. 자자오행은 저기 놓고서루 집을 직게시리 터를 잡는 거여, 대궐터를. 이제 첨 잡는 거여. 무학대사가 정삼봉을 보고, 정삼봉이가,

“자자오행을 놓자.”

고. 하는 거여. 저 무학대사 말이,

“자자오행 놓지 말자.”고

“왜, 자자오행 놓으면 남향편이고 좋은데, 왜 그러냐?”니께.

“당신 말마다나 자자오행을 놓으면 골육생장이 생긴다.”

골육생장이 뭐냐면 뼈 골자 하고 고기 육자, 서로 상자하고 다틀 장자, 골육상장이 뭐냐면 아들이 애비 죽이구, 애비가 아들 죽이구, 동생이 형 죽이구, 형이 동생 죽이구, 삼촌이 조카 죽이구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예기여. 그니께 ‘자자오행 놓으면 안 된다.’ 이라니까,

“자자오행 놔서 골육상장 생겨도, 내쳐 한국이 결단이 안 나고 내쳐 이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이다가 이라는데, 인저 무학대사 말은,

“그렇게 놔서 골육상장이 나면, 그 세상이나 집안이 절단 나는 거 아녀. 그러니께 안 되니께 나 하는대로 하자.”

“그럼, 너는 으트게 놓으려고 하냐.”

“해자사향, 해자사향을 이돈 해자. [청중 : 돼지 해라고 하잔여.] 해자사향을 그 자자오행을 놓는 것부터, 그 자자오행은 이렇게 오는데 해자사향일 것 같으면 이렇게 뒤틀린다구. 그러니께 정삼봉이 말이,

“너 하는대로 해자사향을 놓는 날이든, 전부 한국을 전부 한국은 생이 된다. 우리 한국은 예의동방이다. 예로 예자 오를 이자 예의 동방, 오륜삼강을 다 알고 예의 동방 예를 지키는 나라인데, 전부 두 나라가 되면 두 나라가 되면 저기 국도만 성하면 뭐 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무학대사는 중이고, 정삼봉이는 나라에 조금 거리끼는 사람이여.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가 졌지 뭐여. 아무케도 힘없는 사람이 지잖어. 그래 무학대사가 저 가지구는 서울이 자자오행 났어.

4) 자자오행으로 인한 골육상쟁

자자오행을 났으니까 골육상장이 생기지 않거나 골육생장이 바로 생겼어유. 바로 골육생장이 어떻게. 전부 얼마냐면 이십팔 명이유. 스물여덟 임금

이러구, 아버지가 나이가 많던지 하면 아들한테 옮기구 돌아가구. 넘기구 이러구 아들이 잘못해서 채택이 안되면 그 동생이 할 수도 있구, 그 아들이 할 수도 있구. 그러니까 그걸 세자 봉합이라는 게라.

이태조가 안적 연세가 많지 않아유. 아니 연세가 많은데, [청중 : 그렇게 뭐 글력이 없어서.] 우리네처럼 늙어서 누워서 볼일 보는 것도 아녀유. 근데 나이가 지긋하구 하니까 아들한테루 서류한 게라구 성애하는 것은 이 옥쇄, 그 옥쇄가 나라 임금이 뭐가 있어야 옥세가 있어야 해유. 옥세가 구슬 옥자 하구 옥세 세자. 옥세가 뭐냐면 이런 옥에다가 만들어 새겼어요. 그걸 가져야 임금이지, 그거 안 가지면 소용이 없어. 그래 그 이름이 옥세라.

옥세에다가 뭐라고 새겼냐면, ‘수명우천’이라 받을 수자 목숨 명자 어조사 우자 하늘 천자 ‘수명우천’이라구 글자가 넷이여. ‘이 명령을 하느님한테 받았습시다.’ 이거여. 그것만 가지면 왕 노릇을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임금이 임금이라는 명목이 없다가. 그러면 이태조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아들한테로 그걸 전해야 저기 왕이 되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요.

그럼 아버지는 인저 비켜나면 선왕이지. 선왕이라구 이름하는 거구, 지나간 임금이라 이거여. 아들이 태정정중대명이라 정할 정자 정중대명, 작은 아들은 태종이구 클 태자 태종이구, 형젠데 십팔 형제인데 다 덮어 놓구 둘만 내가 얘기하는 거여. 정종 큰아들한테로 옥세를 이어갈 것 아녀.

“나는 늙고 거시하니까, 니가 옥세를 가지구서는 용상에 앉아서 볼 일을 봐라.”

이렇게 내주면 아들이 임금이 되요. 그럼 그 아버지도 아들이 임금이 되면 ‘해라’를 못해요. ‘주상전하’라 하지, 해라를 못하게 만들었지. 옛날에는 아들이라도 임금되면 꼭 하우 해야 되고, 며느리가 중전이 되면, 임금이 마나님이 중전 아녀. 중전이 되면 그 친정 어머니나 시 어머니래두, 꼭 가서 절하구 ‘중전마마님’이라구 해야지, 며느리라구 ‘해라’ 못 한다구. 그러니 나라 부모는 민지부모라 하는 거 아녀.

그런데 옛날에 소론패가 있구 또 노론패가 있구, 남인패가 있구 북인패가

있구 그래. 그 정종 대왕은 큰 아들이구 태종 대왕은 작은 아들인데, 큰 아들째가 따로 있고 작은 아들째가 따로 있잖여. 그럼 작은 아들째는 작은 아들을 밀어주면, 큰아들을 죽이고 지가 살 것 같으면 자기가 국무총리 되고, 그때는 이조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

옛날에 영의정이 지금의 국무총리고 그래. 그 영의정 지내구 영의정, 좌의정, 이조판서 지낼려면 대감이여, 대감님 대감님하구 큰 양반이라고 벼슬한 사람이 양반이지 벼슬 못한 사람은 상놈이 따로 있는게 아녀. 아무 것도 모르고 벼슬 못한 사람이 상놈이지. 얼굴에 표가 나는 게 아녀 무식해서 그렇지.

태종 대왕 그 작은 아들째가 가만히 생각하니께, 자기가 자기내 꽤가 그 정종 대왕째한테 매여 가지고 뭐 해 먹도 못 하구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소근소근 해 가지구 지들끼리 소근거리 가지구, 정종대왕 그 임금을, 자기형을 죽이구 자기가 들어서기를 꾀 했대구. 그래 가지구 정종대왕을, 자기형을 가서 동생이 가서 죽인게 아니구, 타국연합해 가지구 그냥 약을 먹여서 그 형이 죽었지 뭐여.

죽구 인저 동생이 들어설 판여. 그람 위에서두 제대로 됐으면, 제대루 그러키 일부러 기냥 죽이구선 들어앉을라구 했으니, 그렇지 제대루 그 형이 병에 있어서 죽은 거 같으면 동생한테루 제대루 내놓을 리 아녀. 아직 너는 어리니까 그 아버지가 하게 달란 거니까. 이걸 일부러 동생째가 형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알었슈. 암 그럼 몰러. 알었으니깐 부애가 나니깐, 그렇대구 큰 소리를 내서,

“니 꽤가 니 형을 죽였으니깐 그런게 어디 있냐?”

구. 그 작은 아들을 죽여 어트랴. 그러니께 큰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옥세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은 죽었으니까 가서 옥세를 찾아 가지구서는, 그 작은 아들이 달라면 쥐야 되니까 저리 옮겨가야 그걸 가질 거 아녀. 근데 그걸 가지구선 그 아버지가 함경도 함흥으로 그 후에 데리고 갔다. 신하들을 데리구서는 함흥으로 파천을 했지 뭐여. 파천, 나라 임금이 도망기는 걸 파

천이라구 하.

5) 함흥차사

그 뒤로 함경도 함흥으로 내려갔어. 함흥이 서울서 천오백 리나 돼요. 그러면 옛날은 말을 타고 댕겨두 몇 달을 가야 되요. 사람이 걸어가면 석 달이 걸릴 데도 있구. 거기 가서 인저 덕 안저 계신거지. 아 그러면 신하들이 죽 있구, 앞에 신하들이 칼 들고 세워놓고 임금노릇을 하든 분이니까, 아주 한국의 최고 책임자 아녀.

아 서울서 한양에서 그 태종이, 작은 아들이 형을 살해 시키구서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 이 옥세가 있어야지. 옥세가 아버지가 가지구선 함흥으로 파천을 갔으니 도망들 갔으니 이 옥세를 받아야 임금을 하지. 옥세가 없으면 말만 임금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왔어 가지구, 들어왔어 있는데 이 옥쇄가 있어야지. 그 아버지가 가져간 걸 찾아와야 할 것 아녀. 그래 신하들을 내려보내는 거. 신하들에게 내려보내서, 저 뭐여, “선왕한테 가서 옥세를 찾아 오라.”

고. 그러면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 뭐 하루나 이틀을 가는게 아니구 며칠 달을 건너가지고 함흥을 내려가는 거. 내려가서 문안을 드리는 거. 그러면 이 태조 대변인이 그 누구냐고, 내 거기에 신하로 말할 것 같으면, 비서 그 밑에 신하들 있을 거 아녀. 시방 말할 것 같으면 비서나 마찬가지로지. 비서실에서 아,

“나는 서울서 온 칙사라. 임금이 보낸 사신 임금이 보낸 신하를 칙사라 해, 칙사가 왔습니다.”

“아 됐어. 그 서울서 온 칙사거든, 신하를 불러, 저놈 갔다가 몸 베라고. 그 옥세 찾으러 온 거걸랑, 그 작은아들이 보낸 거라.”

그러면 나가서 대감이 죽이라니까, 가서 그냥 칼로 목 베었지 뭐. 서울선 알기나 알아, 사람은 죽었는데. 그러면 그 부하들만 그 부하를 쫓아간 사람은 혼자간, 혼자 왔을 망분이여, 그놈만 죽었지. 그 부하들을 다 죽여. 그럼

서울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보낸 사신은 안 오고, 그 뒤쫓아간 사람만 오고 사람은 죽었다 이거여.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죽은 줄 알고, 나중에 사람을 또 내려보내는 거여. 갈 적마두,

“서울서 칙사가 왔습니다.” 하든.

“저놈 내다 죽이라.”

구. 그럼 함홍차사 가든 그만이여. 그 얘기 들었지. ‘함홍차사 가든 그만, 가면 소리도 없네’ 왜 가끔 이런 소리 있잖어. 함홍 차사가 내려가든 그냥 죽이니까 그만이여. 이 태종 대변인이 왕노릇 할건데 옥세가 있어야지. 그걸 옷재 안 가져오느냐 말여. 날마다 연구가 그거여. 별 연구를 다 하니까 거기서 있다가, 그 같이 천하 얻을 적에 아까 얘기하던 풍두란이, 풍두란이가 이 태조의 충신 아녀. 아들들이 해도 이 풍두란이가 인저 신하루 암만 나이가 많어두 거기서 말하면 이거 아녀. 그 태종대왕이 아주 근심을 해 잠을 못 자구.

“그건 안 됩니다. 그거 백날 칙사 내려보내야 다 죽고 마니까, 지가 꼭 생각 같아선 아무게 풍두란이 그 신하를 내려보내면 혹시 모른다. 그 분은 그 대왕하고 친구니까 그 분하고 둘이 이 천하를 얻었으니까 그 분을 내려보내면 어떻겠느냐?”

고 그 연구를 자주 하는 거여. 그러니까,

“그려.”

그래 그 풍두란이를 불렀다.

“경이, 저기 선왕한테 내려가서 대왕을 모셔 오라.”

고 옥세를 찾아오라는 게 아니구 대왕을 모셔 오라는 거. 제 아버지를 모셔와야지. 그냥 옥세만 달라면 옥세를 줘. 가 선왕을 모셔 오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 이 분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면 될 것 같어여. 근데 그 풍가가 성이 나쁘니까, 그 대왕 이태조가 성을 나라에서 고쳐 줬어유. 그럼 풍가가 청한 이가 됐어유. 청안 이씨. 풍두란이가 이씨가 됐으니까 이두란이여. 그래 가지구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가 가 보겠습니다. 지가 가서 대왕을 모시고 올라오겠습니다.”

갈 적에 원낙이 큰 사람은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겨. 그냥 내려가면 안 돼 유. 말을 타고 가는데, 새끼 띠 놓은 말, 금방 엇그저께 새끼 띠 놓은 말, 노새 자기 새끼를 띠 놓구, 서루 들을 새끼를 띠 놓구 가요 며칠 안 된 새끼를 띠 놓고 그냥 어미만 타구서는 썩 내려가는 겨. 함흥에 가서 그놈의 노새를 띠 놓구 비서실에 가서 인저 문안을 드리는다.

“이 대신, 이두란씨가 내려 왔다.”

는 겨. 아 자기 개국공신 자기 친구여. 아 그러니까 죽일 수가 있어. 아 자기 친구를 으트게 죽이냐구. 그 사람 때문에 저 천하를 얻어 가지구 왕노릇을 하구 한양 도읍도 하구 그랬는데. 그 사람 아니면 자기 혼자여.

“그러냐구. 두루 오라.”

구. 그러니까 죽이라 소리도 못하고 죽이라(들어 오라)고 했다구. 이 대신이 들어가서는 덮어 놓구 이라구 옆드려 있는 겨.

“아니 이 사람야! 일어나게. 아니 자네 어인 일인가, 소린 못 하구 말여. 아 좀 일어 나라구 얘기나 좀 하게.”

이제 그때서야 이렇게 고갱 들구 일어나는 겨. 일어나자마자 바깥에서 타고 매 논 당나귀가 ‘껍껍’ 거리구 우는 겨. 그러니까 이태조 대왕 말씀이, “저 우는 소리는 무슨 소린가?”

“예, 그게 지가 타고 내려온 말인데요. 지가 새끼를 난 지가 얼마 안 되는 데 지가 띠 놓구 내려왔더니 새끼를 생각하구 저리키 읍니다.”

그 의미가 무슨 소린지 알아? 저런 짐승도 새끼를 생각하구 우는데, 대왕께서는 잘 하구 못하군 간에 아들놈 생각이 안 나시냐 그 소리여. 그게 연구여. 그저 ‘가자’구 할 연구가 없으니까, 그저,

“엇꼬저께 새끼 난 애민데 새끼를 띠 놓구 왔더니 그 새끼를 생각하구. 집에서 웬통 나되구 하는 걸 생각하구 저리키 읍니다.”

이라니까. 아 큰 사람이 그거 못 알아들어.

“자네가 나 테릴러 왔네 그랴.”

알았어.

“백안에 누구 있니? 어여 가서 말안장 짓구 해라. 나 서울 올라가겠다.”
(웃음) 그래 가지구 올라갔어. 말 타구선 그 신하하구 서울 올라갔어.

6) 싯뫼이 전설

서울 올라오면 첫 문이 어디냐면 함경서 올라오면 동대문이 첩 아녀. 동대문을 들어서니까 자기가 있던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 아녀. 들어서니까 문에서 소름끼쳐요. 아들 한 버르장머리를 생각하니까 말여. 지형을 죽이고 지가 들어왔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금방 오면 자기 둘째 아들 태종을 썰러 죽이고 싶다구.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니까 이런 활을 가지고 다니잖여. 동대문 들어서면서,

“멈추라.”

고 그 멈추라니까 다 좌정을 하구 자리를 펴고 앉게 만들어 놓을 거 아녀. 아 그 신하들이 하나 둘이여. 인제 죽 았었는데, 태조대왕이 활을 땡겨 가지구, 이라구 았아 있는 겨. 태종대왕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옥세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께, 마중 나올 거 아녀. 나오면 썩 죽일려고 이라구 았아있는 겨. 그것이 이제 창덕궁으로 소문이 들어갈 거 아녀. 그 태종대왕이 그냥 이라는 겨. 아버지가 활 당기고 있으니까 ‘나 썩 죽일라구’ 그러니까.

한산 이씨가 이라는 겨. 한산 이씨가 그때 그 바람에 시방도 양반이지. 그 한산 이씨가, 대왕이 벌벌벌 떠나니까,

“걱정 마셔유. 죽어두 지가 죽을 테니까 저 하는 대로만 하세유.”

그러면서, 지가 앞장을 서. 한산 이씨 그 신하가 앞에 시유. 그 대왕이 그 뒤에 시유. 대왕이 뒤에 시구, 그 대신이 인저 앞에 서서, 인저 죽 그 아버지 있는 동대문으로 쫓아가는 겨. 나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보이니까, 물론 앞에 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분명할게라. 그런게 닥치니까 췌던 겨.

그런게 앞에 있던 놈이 쓰러지지, 뒤에 있는 놈이 쓰러지잖어. 앞에 그 이

씨가 쓰러졌지. 쓰러지니까 가까이에서 쓰러지니까 별안간에 활 잡을 새도 없구. 자기 아들인 중만 알고 쓴 것이 딴 사람이 쓰러지니까, 자기 아들이 태종대왕이 쫓아가서 “아이구 아버지” 하구 무릎팍에 엎드리네.(웃음) 그러니까, 하두 거시기 태조대왕이 옥세를 가지고 있다가,

“에이 이 노무자식! 너 이것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서 무릎팍에 내동댕이 치구서 들어왔다는 겨.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지 큰 사람들은 연구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하면 안 되는 겨.

다. 민 요

1. 사별가

이간난(85, 여)/호동T 2뒤

[호2리 밭] 박중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조사자들은 호 1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와우정사를 구경한 다음에 자동차를 얻어 타고 호 2리인 예직마을에 도착하였다. 이 마을에 들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이야기는 못하고 노래나 한 마디 부른다고 하면서 부른 것으로, 중간에 눈물을 흘렸다.

보령 천진 가신 낭군

돈 벌면 오시지

공동 묘지 가신 낭군

언제나 오시나

2. 창부가

이간난(85, 여)/호동T 2뒤

[호2리 발]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이 노래를 마치고, 조사자가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를 부탁드리자 생각이 났는지 불러주신 것이다.

노새노새 젊어 놀지
늙고 병 들면 못 노나니
화무도 십일행이여
달도 참한 기울내

3. 상여가

이간난(85, 여)/호동T 2뒤

[호2리 발] 박종수, 강현모, 윤소연, 김영미, 배상아 조사 (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고 다른 노래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이 노래를 불러준 것이다.

간다 간다
인혈 종천 나는 간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내년 춘삼월 꽃 피면 오니.

여

백

해곡동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문정필, 원용필, 윤준웅 조사 2000. 5. 22.

해곡동은 용인터미널에서 원삼면으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이다. 용인에서 동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버스가 하루 몇 차례 밖에 다니지 않아 교통이 매우 불편한 마을이다. 이 지역은 양지군 주서면 지역으로 바다골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인근 별미를 합하여 해곡동이라고 하여 용인면에 편입시켰다.

해곡동을 이루고 있는 자연 마을로, 우선 해곡은 옛날 조판서란 사람이 묘터를 선정할 때, ‘이곳이 묘터로 아주 좋으나 바다를 끼고 있어야 훌륭한 자손이 날 것이다’ 하여 연못을 파고 바다라 칭하였는데, 이 연못이 계곡에 있으므로 해곡이라 칭하였다고 하는데, 일명 바다골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별미는 옛날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올라오다 쉬게 되는데, 이곳의 산나물을 먹고 그 맛이 하도 좋아서 별미라고 한 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의 뒷산이 형제봉 줄기에서 남쪽으로 흘러 우뚝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산이라 별미가 별미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해곡동은 산간 마을이라 가구수가 매우 적었으며, 주업을 농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마을의 대지는 넓었으나, 농촌의 일반적 특징처럼 젊은층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 토박이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자 두 분만 살아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타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그나마 와우정사라는 꽤 유명한 절이 있어 그런지 도시 사람들이 가끔 와서 적막함이나 쓸렁함은 느낄 수가 없었다.

해곡동에서의 구비문학 조사는 허무하게 끝났다. 농번기란 시기적 상황으로 60대 노인들이 농사일로 정신이 없었고, 노인들이 모여 쉴 수 있는 노인정조차 없었다. 그

리고 대부분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조사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나. 설화

1. 장수 발자국

제보자1(70대, 여)/해곡동T 1앞

[자택] 박중수, 강현모, 문정필, 원용필, 윤준웅 조사 (2000. 5. 22.)

조사자들은 해곡동에 도착하였으나 막막한 산중이었다. 인간을 거의 없고 인근에 와우정사라고 절만 덩그러니 서 있어 막막하였다. 조사자들은 뛰엄 뛰엄 있는 마을의 집을 돌아다니다가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끈질기게 요구하였으나 아는 것이 없다고 하여 귀신 이야기로 접근하여 채록할 수 있었다.

(개짓는 소리 들리며) 인케 발자귀가 났는데,(손짓을 하며) 예 그 발자귀가 그렇게 났어요. 예 발자귀가 이렇게 났는데, 그게 장수 발자귀라고 그러더라고. 나두 그전에 새댁 시절에 들은 얘기 소리여

[조사자 : 그러면 여기 시집 오시기 전부터 들으신 거?] 그렇지. 그전부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시집와서, 새댁 시절에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그 발자귀를 봤다구. [조사자 : 그러니까 장수가 지나가다 밟은 거예요?] 응. 밟구 지나간 발자귀라 그러더라고. [조사자 : 그래서 그 발자국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디 이걸, 그 길 새마을 사업 하나라고 짝 그냥 치워서, 그래서 없어졌지. 그게 있었는데, 나 그 얘기, 형님(옆의 할머니를 가리키며) 있으니까 생각나네 그러.

2. 도깨비의 불

제보자1(70대, 여) / 해곡동T 1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문정필, 원용필, 윤준웅 조사 (2000. 5. 22.)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유도하였지만 망각이 되어 재
 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깨비나 귀신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
 하여 주었다.

저 이 여기서 올려다봐도, 그 불이 그냥 별마냥 반짝반짝 해서 기다랗게
 쪽 늘어났다가 그냥 읊어졌다 쭈욱 늘어났다 읊어지고 그런다구. [조사자 :
 아 도깨비불이여?] 여기서 쳐다 봐두. 해곡리 골짜이루.

날 곳고 비 올 때. 그런 건 많이 봤어. [조사자 : 사람 골탕 먹인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 읊었어, [조사자 : 도깨비나 귀신이나. 그렇구나] 예. 그게
 그게 참 무서워, 도깨비불이. 저 쭈욱 뭐가 저기 그냥 새가 똥 찌익 깔리는
 몬냥, 저기 길게 늘어났다 꺼졌다. 그러니까 그것 도깨비불이라구 그러더라
 구. [조사자 : 아, 도깨비불이여, 그게.]

3. 사람을 해치지 않는 호랑이

제보자1(70대, 여) / 해곡동T 1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문정필, 원용필, 윤준웅 조사 (2000. 5. 22.)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이곳이 산골이라 호랑이에 대해 묻자 생
 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아 그러면 이 근처에 옛날 때에 뭐 호랑이 관계가 옳고 아마 호랑이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러던데?] 응. 그전에는, 이전에는 저, (주위의 산을 가리키며) 위에 살쩍에, 외따루 집에 살 때여. 외따루 집에 살 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방에 있으면 이 뒤에 와서 이렇게 문을 막 긁고 그랬대여.

[조사자 : 아, 호랑이들이요?] 응. 이 문을 긁고 그래는 그저 가지고 살랑 살랑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요. [청중 : 아 호랑이들이.] 산밑이니까. 산밑인데 저녁에 해만 넘어가면 무서워서 내다보질 못 했다고 해. [조사자 : 아. 사람 인명 피해는 없었구요?] 예. 해꼬질 하구 이런 건 없었어. 사람이 해꼬질 안 하니까. [조사자 : 아, 호랑이들이요?] 예. 아니 사람이 해꼬질 해야 호랑이도 해꼬질 하는데, 사람이 해꼬질 안 하구 내비 두니까 아 그러니까. 해꼬질은 안 하더라지.

그런 거는 있었어. [조사자 :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지금도 산돼지 같은 거는 있나봐요. 산돼지 같은 게 고구마 심어 놓면 다 와 들어 쭈시구 파 먹구 그러니까.

Ⅲ. 양지면

여

백

양지리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이효숙, 서지숙, 이봉희, 박영진, 박건혜 조사

1995. 5. 13., 1997. 5. 18.

양지리는 용인시 터미널에서 동쪽으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양지촌부곡이었다가 조선시대 양지현으로 바뀌어 현의 치소가 있던 곳이다. 양지현이 되기 전에 추계현이라고 하였을 때는 광주군에 속하였다가 현 양지리로 치소가 옮겨오면서 양지현이라고 하고, 이곳을 읍내, 양지읍내, 양지리라고 하였다.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군이 폐지되고 용인군에 편입되어, 교동, 암곡리, 서촌, 등촌, 월곡리와 주동면 공세동의 일부를 합하여 양지리라고 하여 내사면에 편입되었다가 용인군이 시가 되면서 양지면으로 개칭되었다.

양지리를 구성하는 자연마을을 보면, 우선 교동은 양지현의 향교가 자리잡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서촌은 서편말이라고 하는데, 양지읍내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졌다. 암곡은 바위실이라고 하는데, 바위실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그리고 등촌은 두랭이라고 하는데, 등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원군수를 지낸 사람이 마을을 이루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하나,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한다. 월곡은 다라골이라고 하여 달과 곡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촌은 황새말이라고 하는데, 황새가 많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양지 3리는 일찍부터 여러 마을 가운데 유독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뜻밖이라고 느낄 만큼 신세대보다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눈에 띄고, 미신이나 무당 또는 귀신이 있다면 기도로써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옛날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다.

양지리는 1995년 5월 13일에 이효숙, 서지숙, 이봉희가 노인정과 한일부동산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997년 5월 18일에 박건해, 박영진이 양지 3리에서 노인정 단허 있어 개인 집을 돌며 추가 조사를 하였다.

나. 설화

1.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 준 사람

황해섭(78, 남) /양지리T 1앞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효숙 조사 (1995. 5. 13.)

조사자는 이 마을에 도착하여 노인정에 들렀을 때 10여 명의 할아버지들이 모여, 그들 중에 일부는 화투를 치기도 하고, 몇 분은 담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갑자기 와서 몰으니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를 문자 제보자의 증보부가 실제로 경험하였다는 내용이라며 그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다.

호랑이도 사람을 잡아먹고. 그전엔 호랭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데, 옛날 고리적 얘기지, 이게. [조사자 : 그렇지요?] 옛날에도 젊은 여자들, 건방진 여자들은 열게빰이라고 있어요. 열개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듽성듬성 이렇게 새가 나고, 발도 이렇게 굵고 그런데 태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이만 했지.(손으로 모양 그림)

[청중 : 반달 같지.] 음. 반달 같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쪽에다가 쫓고 땡겼어, 건방진 사람은. 건방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안 걸고 땡겼는데, 건방진 사람은 그런 걸 걸고 땡졌다고.

그래 해필 그 여자를 잡아 먹었어, 호랭이가. 그래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증조부여, 우리게는. 여기서 저 수원이루다가 쌀장사를 망기시는데, 쇠(소)에게다 실쿠 다녔지. 웬노무 차가 있나, 지끔마냥. 쇠에게 실쿠 가지 않으면 지구 가구. 그거배끼 읍어. 무신 구르마가 있어? 무신 마차가 있어? 쇠에게 쌀을 두 짝씩 쇠 잔등에 신고서, 새벽을 떠나서 수원을 가서 그 쌀을 팔구. 일찍 팔며는 저물지 않아서 오구, 늦게 팔리면 저문 후에 그냥 오시구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 주었어오.

아 수원 쌀을 갖다 팔고 오는데, 늦게 팔아서 저물어서 아주 딱 오는디, 여 작은 메주고개라고 요 수원, 여기 저기 가면은 메주고개가 그 전에는 거 호랭이 골이였거든. 도둑놈 골이구. 인제 이 골짜구리가 지금은 글로, 뭐야 신작로를 내가지구 지금은 아주 그냥 수원까지 그냥 쪽 해봤거든. 그래 거기를 막, 고개를 넘어서 저 몇 발짝 내려오니께 소가 영 안 가. 안 가드래오. 아 그래,

“왜 이, 이렇게 안 가느냐?”

고 그 소, 소 모는 인자 꼬맹이 막대에다 매가지고 이렇게 후려.(손동작) 그렇게 했다고, 그전에는.(헛기침, 청중이 들어와 인사과정 생략) 그래,

“어이 가자.”

고 이렇게 꿈무니 치니까, 가만이 있데요 가지도 않고. 그래도 오히려 물러서는 품이더래오. 그 암만해도 이상시려워서, 그때 시절에 웬노무 성냥이 있어? 부시. 이렇게 쇠루다가 돌에다 대구 이렇게 치며는 불이 나오. 그래요 부시기를 대구서는 깃을 대구 그렇게 치면은 고 붙거든. [청중 : 옛날 얘기 구만.] 아이 옛날 얘기. [청중 : 고시적 얘기이니.] 옛날에는 그런 거는 자유롭게 맹글어 쓰는 거니까. 쇠나 부시나 대장질을 해서, 대장간에서 그걸 치구.

그러 인저 그 부시깃이라는게 산에, 지금 먹는 나물깃이여, 그게. 저, [청중 : 떡퀴라고 있어.] 응. 떡퀴라고 이렇게 뿌영지. 그걸 뜯어다가, 그건 뭐 여간 많어, 옛날에. 지금도 많지만은, 지금은 없어. 들 해여. 그걸 막 뜯어다

가 넘어 말려가지고 바짝 말리지. 그놈을 부수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똥은 죄 떨어져 나가구, 고 솜마냥 이렇게 깃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맵글어 쓰는 거니께, 뭐 돈 주고 사나?

뭐 그래 그걸 많이 주머니에다 느꾸 다니면서, 그런 때 많이 깃을 대구서 이렇게 치며는 거 불이 붙어가지구 인자 그놈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그랴라 치면, 호호 불기두 해구. 그러면 자꾸 커져요 불이 나 이렇게 흰해지지, 이걸 많이 대니께. 그래가지구 소 앞을 돌아가 보니께 그 호랭이가, 범이 그렇게 웅크리고 앉았더라고요 길을 떡 막구. 그래서,

“왜 이 짧잖은 이, 이 양반이 이렇게 길에 가 앉았느냐구. 왜 이렇게 앉았느냐?”

하니께. 아가리를 벌리구서 그냥 고개짓을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에 뭐가 걸렸느냐?”

하니께. ‘그렇다’고 또 끄덕끄덕 해더라.

“그러면 어디 보자.”

구. 그래구 팔뚝을, 그전에는 바지 저고리이니께 뭐, 양복이 있어? 노인네 들어. 팔뚝을 이렇게 건애치구, 목안 이렇게 디밀어 보니께, 끄내 보니께 그 얼개빚이더라. 그 사람을 잡아 먹었어. 그래서 죽게 됐거든, 범이. 그거 뭐 어떡 해야, 그걸. 목에 가서 반달만한, 이거만한 얼개빚이 가서 짹 목에가 걸렸으니 그것두 죽어, 그냥 두면 죽어. 그래 그렇게 꺼내 노니께, 끄내 놓구서 인저,

“짧잖은 분이, 어이 가라.”

구 이래니께.

“그래라.”

고. 그래는 모생이지. 일어나더니만 그냥 툭툭 털구는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 앞으루다가 궁뎅이를 둘러대구, ‘타라’고 그 쫘지로 이렇게 이렇게 자꾸 타라구 이렇게 치드래요. 그래, [청중 : 호랭이 담배 피던 얘기여.(웃음)] 그래.

“나는 여 소가 있는게, 나는 걱정을 말고 어이 가라.”

구. 그러니께 대구 ‘타라’구 그냥 이래더라, 쫘무니를. 할아버지 앞에다 둘러대구. 그래 할 수 없이 고삐를 기다랑게 이냥 꼬트맥이만 지구 탕대요. 타니께 설렁설렁 인저, [청중 : 호랑이가 천천히 가는 편이지. 인저.] 할아버지네 대문 앞에다가 갖다 둘러대구는 내려놓드래요. 그래서,

“아이 고마워. 잘 왔다구. 난 잘 왔는데, 어이 그럼 가라.”구.

“그래라.”

구. 그냥 꼬대꼬대 하구, 아주 그래 범을 다 살려봤느니라구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

2. 묶여 있는 사람 살려주기

황해섭(78, 남) /양지리T 1앞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효숙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 많은 동물들이 살았다고 할아버지들끼리 대화를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하다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또 도깨비, 그때 시절에는 전부 의복이라고 상투를 했거든, 상투. 애들은 배지꼬랭이 허고 머리 딱서 이렇게 이냥 발뒤꿈 칠칠 허지.

그래 한 겨울 속, 수원을 갔다 오시는데, 아이 그냥 냥구에 양쪽으로 그냥 이렇게 아람들이씩 뭐 결국 이렇게 쪽 들어서고, 길이래는 것은 그냥 외골목인데 사람 걸어 땡기는 모습이 있어요. 아시 우리 상투 할매집이 나무에 가서 쳐매져 있는데, 그 위의 위의 사람이 보고선,

“그렇게 허고 있느냐?”

고 쫓아올라가 보니까, 그냥 끝차물(?)로 이냥 사람을 낭구에다 대고 되게(단단하게) 쳐매 놓았드래요. 그래 이게 목숨만 붙어 있게시리. 그래 칼로 질러 죽이지 않게요. 아 그래,

“왜 그러냐?”

고 그러니까,

“돈을 그 뺏아가고 나를 이렇게 찌매 놔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이렇다고 이렇다.”

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인네들이 장두칼이 있어. 이 차고 대니는 장두칼 있어. [칭취불능] 이렇게 쪼겨가지고 그 놈을 고리를 해서 이렇게 차고 덩기면서. 그 쪽, 딱 빼아가지곤 우선 끊어 놓고는,

“길 얼른 가라.”

고 그래서 아니 사람도 살려 보았다고 그랬어. 그런 얘기 우리 들었지.

3. 아내에게 버림받은 강태공

제보자H(? , 남) /양지리T 1앞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효숙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들뜰에 대해 물어지만, 잘못 알아 들어서 이것저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동구나무에 대해, 또 군 것질에 대해 말씀하시다 옆에 있던 제보자가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녹음기 고장으로 후반부를 녹음하지 못하여 전반부만 녹취하였다.

담배에 안 그래. 담배 말이여. [청중 : 응?] 그 구체적인 일 있잖아. 담배 심은 것, [청중 : 근데, 그] 참 글도 많이 배우고 증말 참 그가 아주 학자란

말이여. [청중 : 학자가 아니라 중국 가서 벼슬까지 해 오고, 해가지고] 응.

그러니 과거를 봐서 인제 장원급제 할라고 있는데 말이야, 이 조정이 말이요 인제를 잘 뽑을 줄을 몰라. 그런데 이냥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게 인자 하두 놀기가 심심하니까 말이여, 그래 세월 도망가라고 낚시질을 갔다 그 말이여, 강태공이가. 낚시질을 갔는데, 그 마누라가 그 별반한 읍은 반찬에 즈심을 해서 이고 갔단 말이예요. 그런게 그늘 나무 밑에서 내려 놓고,

“즈심 잡수라.”

고 그런게 낚시대를 여나무 개 쪽 꽃아 놓았던 말이여. 가서 낚시대 하나 빼서 이렇게 잡아 덩겨 보았던 말이여. 아이 보니까 낚시대 꼬부라져야 되는데, 이 끈은 낚시대를, 바늘을 달고(청중 웃음) 이려고 있던 말이여. 그런데 그 양반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으러 왔단 말이여.(청중들의 소란으로 청취불능)

그래 그것 하나만 거져고, 또 딴 걸 빼보았던 말이여. 그 역시 끈은 낚시여. 강태공이 고기 잡으러 간게 아니여. 그 시절, 시절 보내느라고 그 강태공의 그것 말이 부인이 승이 그 마가여. 마씨부인이 가만히 생각해도,

“똥구녕이 찢어지게 어렵고 험디 무엇이냐 허고, 이 따위 짓을 허고 있으니까 증말 자네 살 도리가 읍어.”

그래 낚시대를 발칼 뒤집어 놓고,

“에이 빌어먹을 것 안 되겠다.”

고 그 밥 메치고 들어왔단 말이여.(Tape의 뒷면으로 넘어가며 녹음기 작동불량으로 중단됨).

4. 경성 판사가 된 가난한 셋째 사위

박태연(81, 남) /양지리T 1뒤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효숙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듣고서 청중들도 점차 이야기판에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때 강원도가 고향인 제보자가 이야기판을 장악하게 되었다. 제보는 강원도 발음과 사투리와 주위의 소란스러움으로 듣기가 어려웠다. 이야기의 내용은 고전소설 신유복전의 내용의 일부가 변형된 듯하다.

옛날에 아들이, 참 딸이 삼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 인제 딸이 인자 두, 남주게 되었거든. 처남이 그 즉 아주 참 관상을 잘 봐. 관상을 잘 보기 때문에 인제 처남 보고서,

“내 딸을 좀 어데 자네가 그 조므 좀 놔 달라고 시집, 시집 보내 달라.”

고 그랬어. 인제 딸딸을 인자 사위 그 인제 관상을 보니까, 진사를 할 사위란 말이야. 진사를 할 사인데, 또 사위 보기고 또 둘째딸두 그 처남더러 그 즉,

“둘째 딸도 놓, 놓고 해 달라.”

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주 진사를 할 사위를 이렇게 봤거든. 보고 인제 또 그래도 인제 셋째딸도 또 남주게 되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또, 또 그 처남더러,

“자, 자아도 자네가 어디 골라서 놓고 해 달라.”

고 이러니까. 이제 참 한, 한 군데 멍기다 보니까, 나무하러 가는데 아주 촌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도중에 보니까 아주, 그 중에 웃는게 아주 곱상스런게, 얼굴을 보니까 경성판사를 할께드래. 하데 얼굴 보니까. 그래 그, 그래 되는데 가서 물었거든.

“니 어째서 그렇게, 그렇게 싸이구 그러느냐?”니까.

“나는 어무이 아버지가 다 죽고, 인자 삼촌네 집이 가 있겠다.”

고 그랬거든. 그래 삼촌이 참 잘 못, 못해서 뭐하는지 팔새를 하더라.

“그래, 니 그만 지게 뭐이고 내뻐이고 날 따라 가자.”

그랬거든. 그러하겠어. 그래 내쁘리고 인제 데리고 갔거든. 가사(가서) 이제 참 그 집에서 뭐이 갔던가, 보니까 참 어설적인 자리 없더라구. 병모(장모) 딱 보니 그 사위 볼 마음도 읊고, 병장(장인) 딱 보니 그 당체 드림댕이고 사위 볼 마음이 읊거든. 그래도 그,

“혼사 올려 달라.”

고 했으니까. 그 싫다고 할 수 없거든. 그래 참 그 사람 각시될 사람한테 가 물으니까,

“그래 외삼촌이 그러니, 그래구 뭐 할 수 있느냐?”

구 그래. 그래도 글 또 인제 그 끝에 딸이 제일 낫단 말야. 그것을 글을 가르쳐 보니까 아주 재주는 아주 참 아무 것도 없거든. 그 안에 것만 다 넣으면 경성판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 참 다 넣었던 말이어. 그래 어멈 아범, 응 참 저 병모 또 병장은 아주 그 사위를 뵈기 싫어들 한단 말야. 인제 살림을 저 어디 쪼뜨만 오막살이 집에다가 인자 살림을 내냈단 말야.

내냈는데, 이제 사위 들은 아주 뭐 참 잘 지내지 뭐야. 아주 그것 사우 잘 봤니라 치구. 그래 인제, 인제 그걸 끝에 딸은 그 오막살이 집에서 인자 참 신랑아가 인제 공부하구 그러는데. 뭐 으레이 뭐 그것 미워 놓이니까 뭐 참 돈 대주지도 안하고, 참 불쌍하게 지냈단 말이야. 그렇게 지내다 인제 참 몇 해 공부두 잘 하구, 인제 그때 인제,

“과거 본이다.”

하구. 소문을 듣고서. 그러니까 이젠 말, 인제 급해서 북으로 인제 그저 말을 타구서 과거보러 가구. 이 사람두 과거보러 갈라구 그러는데, 참 뭐 그 뭐 참 배운 그런 것 뭐, 보따리구 뭐구 매를(모두) 은구해서 짊어지구 따라가지. 따라 가는데, 인제 병모 병장 하는 얘기 뭐라고 하느냐,

“참 갔다 오다 차니 되겠다.”

인자 가서, 가서 인자 과거 보지. 그래 보니까? 그 집 맏사우들은 인자 진사 급제를 했던 말야. 진사 급제를 하구. 이 사람은 뭐 마지막에, 그러니까 참 과거를 보니까, 과거 참 경성판사가 됐단 말야. 그것도 내려와 가지구 그게 도문 장채(잔치)라는, 진사도 그렇고 경성판사도 내려와서 도문 장채를 할라, 해야 된단 말야. 그래 니려오니, 오 병모가 병장에 한단 말이,

“그 느무 자식! 따라 갔다가 과거 시험도 못할 것을 갔다 와, 진사해 가지구 와가지고 과거 이 도문(도임)을 할 때 나발이나 부르지.”

이런 벼슬하는 거야. 인저 그래 그 끝에 딸이 그 소리를 들었거든, 어무이 아버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인저 신랑더러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런 소릴 하더라.”

고. 아이구 그래서 인자 내려 와가지구, 인자 며치 날 인제 그 참 그 읍어도 인제, 진사는 그 거기서 군사를 못 데려와도 판사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인제 그걸 대라. 이려고서 그 졸병들 보고서 졸병들 대라.”

그랬거든. 그래 와서, 인제 매 집에 와 자는 판이지. 병보장이 인저 병모성 병장이 그러니까 그, 그 딸네 집에 가 봤거든. 가 보니까, 자는데 가 보니까 빛이라. 아주 늦다없이, 어찌다 들어가는데, 一 참 여러가지 걸어 났거든. 이런 직학이 빛해서 뺨해서.

그래 그 이튿날, 인자 사흘만에 진사 도문하는 날이란 말야. 도문을 하는데, 이견 병, 병 그 처가 집에서 아주 도문할 음식을 아주 두루 장만해 놔거든. 그랬는데 그래 그 그튿날,

“참 아무 시에서 이네 그리루 병사 그 졸, 병졸들을 대라.”

그렇게 허고 내려와서 뭐,

“여서 경성판사가 낳는데, 왜 도문을 안 하느냐?”

고. 고래고래 그만 소리를 모아 지르니, 산천초목이 두루두루 마구 떨드란 말이여. 마 그 음식을 그런게 땡겨가지구, 그가 뭐 진사는 뭐가 그가 치루는 것 놔뒀버리구. 그 음식을 가지구 참 경성판사는 도문을 했던 말야야.

그래 이, 그 사람이 인저,

“독을 두 개를 또 구하라.”

고 했어. 독구 두 개를 구하라 하고. [조사자 : 독구요?] 독구. 단지거든. 큰놈 두 개를 구하라고 또 수평(수)도 구하고. 또 나팔 인제 두 개를 가져오라 하고. 그래가지고 수평을 단지에다 넣어 놓고 벌겁게 달군단 말이야, 단지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저쪽에 하나 이려고, 이쪽에 하나 이려고. 벌겁게 달구고 인제 큰 사우는 저쪽 한 쪽은 찢은게 그 단지에, 벌겁게 달군데 세우고. 또 사우 하나, 둘째 사우도 저쪽에 가 단지에 세우고. 나팔 하나씩 인제 불게 시켰단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제 또 그 아주 참 시방 투박하게 불거든. 그래,

“나팔을 인제 끝지거든, 그저 징을 치라(흔을 내라).”

그랬거든. 그저 죽으라구.

“대구(자꾸) 불, 불으라구. 그리고 병모은 인자 죽은 사우한테 인제 그 서서 구경하라 하고. 인제 병장은 큰 사위 있는 데서 서서 구경하라.”

고 했거든. 그래,

“병모 병장들은 사우들 나팔부는 거 구경,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들어보라.”

구. 뭐 보니 땀을 철철 흘리느며 부는데, 뭐 그칠라 하니 그저, 차마 멈, “멈추면 징 친다.”

하니까. 그치지 않도록 불거든. 그래 그리 이것 보니까 뭐, 아이 이놈의 얘기 잘 할 줄 몰라요. [조사자 : 말씀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고 인제 참도문, 인제 경성판사 도문을 다 했단 말여. 다 하고 그 나팔도 그 뭐, 그 사부 병모 병장이 그러지 않았으면, 말만 안 했으면 다 잘 될건데, 그만 그 소리에 아니꼬와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거야.

그래 또 그 해가 다 저가지구, 인자 진사 급제자를 또 도문을 또 시켰단 말이야, 판사가. 그래 사람이 못 됐다구 업신여겨 보지 말란 말이야, 젊은 사람은. 그 경성판사가 그 사람이, 경성판사를 허고.

5. 좌수보다 뛰어난 어린 아이

박태연(81, 남) /양지리T 1뒤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효숙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내 이것은 들으라고 해야할 것 같아. 내가 그 81살이라 하는데, 내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원님이, 원님이란게 시방 군수란 말이여. [조사자 : 원님요?] 응. 원님이. 옛날에는 원이 군수인데, 이 골 골사이를 내려갔거든. 인자 말하자면 서울서, 인자. 인제 일제 서울서 높은 데서 인자 내려오든가. 내려오든가 바로 죄 내어 주거든. 시방 말하면 선생이고 인제 정도되는 것 한 가지란 말이여.

그래 그 고을 내려가서 보니, 인제 정아 뿔이 친구가 읍거든. 친구가 읍기 때문에 어디 친구 아는 삼을라고, 인자 톨인이라면 인제 그 시방 말하자면 원한테 아주, 아주 옛날에는 그 하인 종과 한 가지인 아주 그, [청중 : 톨인이라고.] 응. 톨인이 있단 말이여. 톨인도 불러가지고,

“저 의견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의견을 누 참 그려야 해.”

(조사자 일행이 들어와 잠시 중단) ‘노인을 하나 그러라’고 인제 시방 말하자면 가정이다 말이여.

“태양을 하나 그리라.”

고 했거든. 그리라고 하고 또,

“개를 하나 그리라.”

했거든. 개를 하나 그리고 또,

“매를 하나 인제 또 그리라.”

하고 인자 에이 그러가지고 이제,
 “통인 그랬느냐?”
 이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갖다 바치고자 저거 했는디,
 “그럼, 여기 의견 또 분 사람이 누구겠느냐?”
 인자 그러자, 토인은 여기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
 면,

“여기 응, 여기 경좌수나 알런지요?”

이러니께. 정좌수백이 알 리 읍다고 경가인데 인제 좌수란 말이여. [조사
 자 : 경좌수요] 응. 경좌수밖에 알 도리 읍다구. [청중 : 옛날 고목은 얘기
 지.] 응. [청중 : 조선시대.] 인자, 인자 경좌수한테 가서 갖다 주면서, 열흘
 인자 기한을 했어.

“열흘에, 열흘만에 인자 알, 그 표독해 들이라.”

고. 그 좌수가 받아 놓고 아무리 표독을 할라고 해 봐두, 생면으로 저 열
 굴은 그러, 그 개 하나, 매 하나 그려 놓고, 그 생면으로 표독해 드리라고 하
 니까, 아무리 생각해두 그 표독이 안 나졌거든. 그래 그까지 한 열흘 해갖고,
 한 사나흘 인제 열흘까지 다 차갔어.

“에이.”

모르니까, 암만 표독해도 모르니까 인자 산, 어디 저 산에 갔지요, 인제는.
 이 산 기슭기를 다 구영보더니, 옛날에는 산에 중간하면, 산에 가다 보면 집
 이 우짜다 있단 말이여. 그래 생각하며 산에 가, 자꾸 갔지.

가다보니까 참 집이 하나 있드라노만, 있는데 또 방, 그제 옛날에는 그것
 이 있어두 집에 가 찢는 방아가 있단 말이여. 인제 곡석들 인제 찢어서 먹기
 도 하고, 그것은 갖다가 찢어서 먹는데. 방애까지 그 면데 있는데, 그래 집에
 는 인제 아가 하나 있고, 쪼그만 한기 한 여니곱 살 먹은 기 있고. 그 그놈아
 어머니, 그 방아 찢는라고 하고. 어린애를 부르드란 말이여. ‘이리 오니라’

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니까. (잠시 음식을 시키기 위하여 잠시 중단) 아를 부르거든. 부르니까 이놈아 대답하니까.

“비를 가져 오라.”

고 이러니까. 개를 인자 시켜서는 ‘비를 가져오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놈아 개를 부르더라. 개를 부르더니, 그 경좌수가 보니까, ‘뭘 저놈아가 왜 비를 가지고 가지, 왜 개를 많이 부르느냐?’

“비를 가지고 가지 왜 개를 부르느냐?”

허니까. 이 개 목에다 이 비를 매달아 놓는데, 매면서,

“나보다 빨라요.”

의견 대드만,

“내가 가지고 갈라니까 더디고, 어머니 개를 불러요.”

이러니까. 참 보니까 개는 고작 뛰어 올라가드라만. 그 옆에서 그 좌수가 그 참, 그 태양 그린 그 이리 내놓고 아한테 보였지만,

“니, 이것 놓은 생리를 니가 알겠느냐?”

이러니까.

“그 양반이 그 쉬운 것을 가지고, 날 아(아이)라 놀리라고 이러는구나.”

이러더라 말이어. (일동 웃음) 그래서,

“그러면 니, 이 표독을 아뇨? 어떻게 터득하뇨?”

“천하 쉬운 것을 가지고, 그것 아 쪼그만 아(아이)라 나를 놀구라고 그러느냐?”

이러거든.

“그래 풀이 좀 해 봐라.”

이러니까.

“개를 불러 때 뭐이라고 합니까. ‘위리’ 이러지 않습니까. 위리가 돌월은 이월 달입니다. (조사자 웃음) 이월 초 이틀, 이월 초이튿날 낳, 그 원이 이월

초이튿날 낳습니다.”

이랬고

“또 매를 부르자면 뭐라고 합니까. 저 ‘구구’ 이리지 않소. 구구 이러면 구구 팔십일이부테고.(웃음) 이려고, 그래 내가 가가 처음하여 받지 말라 이런 말이여.”

그래가지고 뺑중에 원이, 이래 참 김(경의 잘못)좌수가 기겨갔다 말이여. 가져가서,

“나는 이러, 표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여.

“그래 맞다.”

했거든. 그래 ‘맞다’ 해. 그래 뭐냐 허는, 같이 땡기는 친구 돼 놀았다는 거여.

6. 시아버지 팔자고 아내를 꼬인 효자

박태연(81, 남) /양지리T 1뒤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호숙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주제의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계(기침). 인제 떠 떠느리 하나, 아들 아가 뭐, 아들이 인자 손자도 있겠지만, 보니 인자 아들은 적 아버지니까, 참 아내가 아버지를 조금 팔세를 허는 것 같거든. [조사자 : 시아버지를요?] 응. 아버지를 팔세하는 것 같으니까, 하루는,

“장보러 간다.”

고 허면서 그러드라만. 그래 장에 가, 갔다 오더니만 아 소피기를 아주 한 뼈를 그저, 한 여나무근 사갖고 왔거든. [청중 : 며느리가?] 응? [청중 : 며느리가?] 아들이. 이것 뭐 헐라 이것 참 돌려보면, 이 뭐 하나 많이 그 안 먹었어.

“이것 당채 먹지 말라. 절대로 먹지 말라. 오늘 장에 가 보니까, 패랭이 영 감, 쇠월이 몸, 아주 값이 무(높은) 값이더라. 당해지 못해 가지고 못 팔았다고 아 돈을 아주 수백을 받드라구. 우리도 아버지가, 아니 잘못, 참 대접 했지만은 아위였으니까 이 소고기를 많이 대접해 가지고, 우리도 살을 찌워서 우리 아버지를 갖다 팔아 먹세.”

이랬거든.(일동 웃음) 그래서 대접 하니까, 아이 이 늙은이는 그전에 안 그러더니 이 소고기를 끊어서 그렇게 잘 대우하니까, 그 여간 뭐 참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가 읊거든. 참 어린아도 잘 봐 주고 뭐 참 그전에는 낭구 때니까 불끈 들어주고 뭐 참 방아도 찼어 주고 옛날에 디딜방아 찼는데 방아도 찼어주고.

그만 아주 저희가 누매가 서로 들었는지. 그 며느리 생각을 대우하고 또 메 메누리는 시아버지가 아주 썩, 그냥 아버지를 위하는 것 같거든. 그래 보니, 이 아들이 보니까 아 그렇고 화사하는 일이, 아이 참 뭐, 그럼 아 그럼 시길라고 하는 판인데, 시겨단가 말 안아 들을테니까, 그런 것은 잘 안 하거든. 그래 몇 해 지낸 뒤에, 그 사 그 말 들어볼라고 그랬지.

“우리도, 자네가 아버지를 그래 잘 공경해서, 대접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인제 아버지를 갖다 팔아 먹어야 겠다.”(일동 웃음)

‘아버지를 팔아 먹자.’ 이러니까, 잔뜩 며느리도 그러거든. 참 각시가,

“당채 팔지 말라고. 사람을 어떻게 파느냐고 팔지 말라.”

고 그러드래. 그래서 아주 잘 살았드래, 그만. [조사자 : 그 집 며느리가 효도가 됐네요?] 응. 참 효부가 되고.

7. 여수 잡은 소금장수

박태연(81, 남) /양지리T 2앞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효숙 조사 (1995. 5. 13.)

앞에 한 제보자가 학질경에 대해 불러 주신 후에 옆에 있던 제보자가 다시 이야기 판에 끼어들어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조사를 마쳤다.

옛날에는 차두 없구 그러니까, 여울만 하면 여루 인천까지 저다 먹었을까요. 지게에다 지고 질러서 대개 저다 먹었거든.

[조사자 : 물을요?] 소금. 뭐 없으게 소금을 팔아 사다먹고 그랬나 부지요. 소금을 가서 짚 딱 한 짐 지고 이제 팔러가는 참이지요. 가자니까 이런 재는 넘어가고 이런 고을까지 넘어 가는데, 뭐이 그 너머에서 소리가 사각사각 나고나고 하더라 말야.

그래 이 소금짐을 놓고서 그 가서 이래 보니까 여깡이. 해골을 하나 주워가지구 이래 돌에 문데가지고 덮어 써보구 써보구 하니까, 이래 쪽 드가지 않으니까 또 돌에 갈귀 늘구느라고. 그래 인제 덮어쓰니까 이주 하이얀 할머니가 쭈쭈한 할머니가 되더라 말여. 그걸 덮어 쓰고 가만 보니까 그래가지구 가더라 말이야.

소금짐을 짊어지고 곧 따라갔더라만. 따라가니까 옛날에는 잔치를 여기 시방처럼 안 지내구 참 집에서 지내거든. 집에서 신랑집에서. 글루 들어가더라만, 가만 보고 있었는데. 그래 그 집에서 소금짐을 지구 가서 그 잔치를 읊어 먹었지. 먹구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집안에 좀 드가 보면 어떻겠느냐?”

하구 물어보지.

“그럼 드(들어)가 보라.”

구. 그 소금짐을 지구 가던 그 지팽이가 아주 든든한 걸 짊어다드면. 짊었는데 안에 그 지팽이를 가지고, 지대 놓고 드가 보니까 꼭 할머니를 찾아보는 거지. 찾아보니까 아주 신부 각시 옆에다 앉혀 뵈드라만 말여.

“그 할무이라고 그 잔치를 보러 왔다.”

고. 드가서, 자기는 봤으니까 그냥 두드려 뻐지.

“남 할머니 때린다.”

고. 지랄을 하드라므. 우뜨게 뻐건 말건 싫겄. 께다보니 그 여깁이가 뻐어. 그 집에서 잠깐 쉬려 드러운 놈이,

“어떻게 알았느냐?” 고.

“내가 뭐 아는게 있소, 내 지팽이가 아지. 난 전부 모릅니다. 지팽이가 아지.”

망할 놈이 짜구,

“돈을 많이 줄테니 팔라.”

고. 진득진득 하네. 그래 하는 수 없이 그 지팽이를 팔았던 말야. 팔고 그 사람은 소금 팔고 하니까 잘 해가지고 왔지.

이느무 지팽이 산 이는 잔치집만 찾네. 한 군데 잔치집이 나왔거든. 그 지팽이 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 사람 말대로 참 할머니, 거기서 질(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를 가서 들구 께거든. 여깁이는 무슨 여깁이. 학을 쳤지 뭐. 여깁이가 변동을 하느라고 해골을 써.

8. 산신의 신령스런 힘

김시천(61, 남) /양지리T 3앞

[양지 한일부동산] 박종수, 강현모, 서지숙, 이봉희 조사 (1995. 5. 13.)

조사자 일행은 양지리에 도착하여 조사할 곳을 고르고 있는 중, 할아버지

몇 분이 부동산에 계신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였다. 그리고 민속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사하였다. 이 이야기는 산신제에 대해 말씀하다가 산신제 지내다가 일어났던 일화를 말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이웃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듣고, 직접 경험하였던 일이라고 하였다.

옛날에 소는 아무나 안 잡았어, 웅 대부분, [청중 : 알기 쉽게 얘기해서 쌍놈들이 잡았다고, 쌍놈들이.] 웅. 요즘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해서 아무나 잡고 그랬지만, 박성부락에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하는 사람, 밥술이나 먹는 가정이었거든. 그러니까 머슴을 뒀는데 1년 머슴을 사는 거여. 인저 그 사람들이 소, 돼지를 잡는다고.

[조사자 : 지금도 지내는 곳이 있다가요?] 음. 그럼 지금도 모시지. 3년에 한 번씩 지내지. 아마 시월 초하루날 음력 시월 초하루날. 그래가지구서는 그거를 소를 잡으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 왜냐하면은 소 잡기, 잡어가지구서는 산지사рода 재 산장(산잔)등 꼭대기네, 거기다 고기를 재(저) 올라간다구, 재(전부).

그런데 그전에 몰래 그 고기를 한쪽 누가 훔꼈을 때어 먹었다는 거여. 그래서 그 훔꼈 떼어먹은 양반이 죽었대여. 그래가지구선 일절 금지를 한다구. 그 안에 재앙(제사)을 하기 전에는 이 밭 하나 누구 군입 하나 못 떼어 먹어요. 그런 유래가 있었어.

그래가지구서는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지내기 전에는 어떻게 해나면은 인자 지관이 뿔히고 당주가 뿔히고 제밥 해요. 그런데 그 거길 가보면 양력 음력 시월달이면 좀 엄청 추워요. 엄청 춥다구, 웅. [조사자 : 춥죠] 웅 엄청 춥다구. 그런데 그 당직자 뿔힌 양반들이 몸을 깨끗해 하고. 그런 양반들이 이자 나이 하고 여러가지 봐가지구선 뿔힌다구.

그 뿔히여서 거기 가서 치루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간에서, 그 후에 인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사랑방에서 얘기 해잖어. 그 지내고. 겨울기에 깊은 겨

울기에, 얘기를 허면은 이상이 되는 거예요.(기침) 거 엄청 힘해요 내가 알기론. 그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그 우물을 미리 파놓는 거여. 거기 깨끗하게 물이 나니깐. 인저 목욕을 하고 추운기도 하나 읊고 거 사실 찬물에 목욕을 하면 선뜻선뜻 해거든.

그런데 거 밤에 재양지킬란게 물을 떠오고, 냉수를 떠오고 그럴래면 물지게로다 물을 떠오면 힘이 안드는데. 지금 빈, 빈몸뎡이로다 그 미아질 올라가면 숨이 찬다구. 사실 근데 거 물지게를 지고 거기로 올라가만, 거 캄캄한 밤에도 거 재양식 치른 잠은 날이면은 달도 읊는거여, 음력으로 따져서. 근데 그냥 길이 흰하게 보인다. 그 그런 전설이 있다고 [조사자 : 하 대단하다.]

9. 건드릴 수 없는 고목나무

심태유(82, 남) /양지리T 3뒤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서지숙, 이봉희 조사 (1995. 5. 13.)

부동산에서 나와 노인정을 찾아 민속을 조사하던 중에, 마을의 고목나무에 대해서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 : 마을을 지키기 위한 나무같은 되게 오래된 나무를] 봐는 것. 봐는 것을 말하는 거여? [조사자 : 나무에 천같은 걸어 놓은 것, 옛날에 금줄을 걸어놓는 것 있었어요?] 고목나무 하나 있지. 근데,(고목나무에 관한 대화 생략) [조사자 : 고목나무에 돌 쌓아놓고 뭐 그렇지 않았어요?] [청중 : 500년 수천 년 저 묵은 고목나무라도 고사를 봤다고] [조사자 : 고사요?] 그 나무를 많이 위하고 지금 못 했어요. [조사자 : 지금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가지고, 그 나뭇가지 하나 못 건드리게 하지. 그거 꺾어가지구 병신된 사람도 있고, 말도 못하고 병어리가 된 사람두 있고 그려. [조사

자 : 나무를 꺾어서요? 나무 꺾는 거, 거 역시 무서운 거라구. [조사자 : 그 래 그 나무가 이 마을에 수호신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런게 나무가 아니라, 그런 나무는 원니(원래)가 손을 못 댔었구. 동네서 저 산에 가서 막나무 비 다가 집을 고치든지 허면 그런 옥살이 듣는 수도 있었지.

나무 장륙, 응 나무 장로가 든다고. [조사자 : 나무장륙요? 응. 이 동네에 서 위한 나무는 원니가 손을 못 대구. 산에서 비다가 아무 나무나 비다가 해 도 그런 수가 있었다구. 전에는 그랬다고 해서 목갈갱이라구 있었어. [조사 자 : 목갈갱이라고? [청중 : 목갈갱이라구.] 목갈갱. [조사자 : 경요? 응.

10. 사람을 소로 만들어 판 여우

심태유(82, 남) /양지리T 4앞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서지숙, 이봉희 조사 (1995. 5. 13.)

이 이야기는 성인식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구술 하여 주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여우가 사람을 소로 만들어 팔았다는 것으로 옛날에 게으름뱅이가 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의 변형으로 보인다.

옛날 얘기는 저 쇠장사가 있는데, [조사자 : 쇠장사? 응. [청중 : 소장사.] 소장사가 있는데, 이놈이 사람을 쇠로 속여서 팔아먹어, 사람을. 소를 속여 서 사람을 소로 팔아먹는데. 그 놈이 여우여, 다른 게 아니라. [조사자 : 사람 이 여우였어요? 여우가. 도섭해서 사람을 붙들어서 쇠를 만들어서 팔아 먹었어.

그래 어떻게 팔아먹는고 허니, 사람이 옛날에는 저 두루메기 옷거름(고름) 이 길잖어. 옷거름이 길다고. 이놈이 옷거름을 소고삐만냥으로 털렁 매는데, 말도 못하고 끌려 왔거든. 끌려 왔는데 아무도난,

“소를 사자.”

그러니깐.

“아이. 사라.”

고 그래 소를 붙잡데니 이가 찼다고 허거든. 살 사람이,

“이가 찬 소라.”

고 그래서,

“얼마냐?”

사가라고 했어. 돈을 다 줬으니 팔았던 말이여. 여우가 사람을 끌어다가.
그래 인제 팔아먹을 적에,

“그 무우밭 옆당이 매지 말라.”

고 그러거든. 무우밭. [조사자 : 아 무우밭요?] 응. 사람이.

“김장 저 갈아먹는 무우밭에 그 소가 닿으면 안 되니까, 무우밭에 가깝게
매지 말라.”

고 그러니까,

“아 무우밭 가깝게 째매겠느냐?”

고 그게 인자 여우래서 일러주는 거래. 무우를 뽑아 먹으면 허물을 벗는
다는 얘기가. 아 아문 디다 매면 어찌나. 아 맬적에 무우밭이 가깝이에 맬단
말이여, 이 사간 사람이.

아 이 소로 팔려간 사람이 무우을 하나 뽑아 먹으니께 그냥 꺾(허물)을 훌
랑 벗었거든. 마음대로 말도 되고 옷거름도 말뚝에다 대놈의 걸 끌을 수 있
고 그러거든. 그런게 사람이 되었어. 그런 얘기 들었어.

11. 장승의 청은 장씨

김상철(68, 남) /양지리T 4앞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서지숙, 이봉희 조사 (1995. 5. 13.)

마을에 ‘장승이 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생각이 났는지 장승에 대해서 일화 비슷하게 구술하였다.

[조사자 : 옛날에 장승 있었어요?] 응? [조사자 : 장승?] 장승. 장승 있었지. 길 옆에 마른 나무 두 개가,

“승이 뭐냐?”

고 묻더라고 [조사자 : 성이요?] 승이 뭐냐고.

“마른 막대 두 개가 그 나무의 승이 뭐냐?”

고 그래,

“모른다.”

고 그 나무 승이 장가여. 장승이니까.(일동웃음) 그 나무 승을 물으니까, “모른다.”

고 그러니까,

“왜 그것도 모르냐?”

고 그 나무가 장승이니까 승이 장가여. 장승이니까. 여기도 장승백이가 있거든. 저 위 저 강가 밑으로 올라가면 그 장승을 해서. 그 장승박이라고 아주 즐비하게 장승들이 가 있어.

12. 자식에게 나쁘게 말하지 말라

심태유(82, 남) /양지리T 4뒤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서지숙, 이봉희 조사 (1995. 5. 13.)

민간요법을 조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구술하는 것이 실화 같은데 이를 수록한 것은 자식에 대해 고

육 방법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남의 흠이 되는데, 남의 흠이 되는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82이니까, 내가 그때 한 15살 시절이여. 근데 성이 차간데,(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생략.) 근데 사람이 병신스럽거든 그 아들이. 아 그런데 이 몸의 격 아버지가 그냥 나무라면 좋은데, 꼭 병신이라고,

“저 병신같은 놈의 새끼! 이 병신아!”

그 아들이 그것이 철천지 원이 됐단 말여, 그 병신소리가. 자기 아버지한테 병신 소리 듣는게. 그러다 이 사람이 그럭저럭 나이를 먹어가지고, 밥줄이나 먹으니께 결혼을 했단 말여.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그렇게 나이가 이제 30이 돼도,

“이 병신아! 되져라.”

며누리 앞에서도 그러고. 이제 철천지 원 원수가, 원이 되니께, 지 아버지를 두들겨 뺐어.

“병신한테 좀 한 번 맞어보라.”

구.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냥 묶었거든. 예전에는 저 쇠바가 있잖아. 쇠바로다가 동겨 뺏단 말여. 동겨 매서 깊은 산골짜기, 멀진 않지. 동네가 가까운데 거기서, 저 동네가 가까운데 그 산골짜기다가 그냥 낭구다 붙들어 매고서 동네사람들이 왔단 말여.

“고생 좀 해 봐라.”

격의 아버지를 때렸으니까. 저의 아버지가 저기 했지만은, 저의 아버지를 때린 건 잘못이니까.

“너 잘못 했으니까 고생 좀 해 봐라.”

동네 사람이 전부 달겨들어서 묶어설라무니 산골짜기에 달겨다 붙들어 매서 동네 사람이. 이 놈이 어떻게 힘이 센지, 이 놈의 걸 그냥 용을 써서 끊었어. 그냥 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거든. 그 뒤에는 동네 사람이 말리도 못해, 워낙 천하장사니까. 사람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이 땀버서는 영 못 당하

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자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고선, 그 사람은 인저 그 워낙 사람이 그 정신병자 비슷하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니까, 누가 타치도 앓거든 병신 노릇하니깐.

그 사람이 형젠데 그 고장을 떠났어 그냥. 간 곳이 없이 어디로 떠나서 지금 소식도 몰라. 그 사람 나이가 우리보다 한 10년 윈데 죽었겠지, 저의 아버지를 때린 사람. 그 동상이라는 사람은 채수도 좋고, 우리보다 나이도 많으니까는 죽었는지 살았는 지도 그건 몰라. 그냥 그 고장을 떠났으니까.

13. 무당굿

제보자3(73, 여)/양지리T 6앞

[양지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박영진, 박건혜 조사 (1997. 5. 18.)

조사자들은 양지리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집에서 쉬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농사일과 가사를 겸하고 있으며, 평택에서 태어나 21세에 이곳 양지리로 시집을 와서 50여 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흥미있고 진지하게 구술하였다. 이름은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다.

옛날에 이가라는 사람이 낭구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 도망가다 똥을 차 병이 나 죽었다. 이 마을에서 옛날부터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옛날에 이 동네에 일 년에 한 번씩 그렇게 채수굿을 하더라구. 그러면 인저 귀신이라는 귀신은 다 나오더라고. 뽀뽀해서 죽은 사람, 그 집안의 혼이 나오고 또 저기 젊은 청춘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또 나오더라구.

그러면 무당이 거기서 대를 붙잡고(복숭아 나뭇가지들) 가지고 무당이 뭐
라 한 마디 말하면 대가 막 흔들려. 그라구 대를 내려놓으며 춤을, 무당이
덩실덩실 추더니 인자는 무당이,

“말문을 열으라.”

고 주문을 외우면 귀신은 통곡을 하며 울면서.

“억울하다고, 너무 젊어서 죽어 원통하다.”

고 그런 말을 해. 이 무당이 그 식구들을 만지면서 ‘불쌍하다’며 푸념같
이 하더라구. 글구 이 곳을 하면, 옛날 옛날 이 집안 할머니부터 있던 귀신
이란 귀신은 전부 나온다는 거야. 옛날에는 곳을 많이 했어.

14. 병속에 들어간 귀신

이복길(86, 남)/양지리T 6앞

[양지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박영진, 박건혜 조사 (1997. 5. 18.)

앞의 제보자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 좀 듣다가 더 이상 채록할 수 없
어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마을 돌아다녔다. 그때 집에 쉬고 있는 한 할아
버지가 있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86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젊어 보이셨고 기력도 좋았다. 학력은 국졸이나 옛
날에 서당에 다녔으며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제보자는 4대가
살아온 이곳의 토박이로 계속 이곳에서 사셨다고 한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술하여 주었다.

귀신이 몸에 들어와 병이 났는데, 그건 백약이 무효야. 귀신을 풀어 보내
야 몸을 아프게 하지 않지. 우리 어머니 병안을 알 수가 없어서 용하다는 경
읽는 사람, 장님을 찾아서 한 20리를 걸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장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귀신 보러,

“병 속으로 들어가라.”

고. 피고 무엇해도 영 안 들어, 한 사흘 동안이나 하는데. 그때 장님이 귀신보고,

“여기 병 속에 들어가면 좋은 세상 극락인데, 왜 안 들어 가느냐?”

고 해서 피어서 귀신이 그제야 들어 갔어. 그리고 장님이 왼 새끼줄을 왼 쪽으로 서 발 세 뺨 정도 피고, 메밀로 반죽을 해서 조둥아리를 콧 틀어 막 구 말여, 병 2개를 새끼줄로 연결해서 묶고 해서 놓았어. 그리고 귀신보고, “들어갔으면 한 번 놀아 봐라.”

하니까. 이리 둥굴둥굴 저리 둥굴둥굴. 사람이 병을 잡지도 않았는데 병이 정말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병도 낳았어. 정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신이 하는 짓은 정말 무서운 거야. 나 처음 알았어.

그리고 그 병을 논 밑에 묻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눈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면 그 논에서 귀신 울음 소리가 났는데, 요 몇 해 전 고물장사가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 버렸어. 요즘은 귀신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데.

15. 개 잡아간 호랑이

이복길(86, 남)/양지리 T 6앞

[양지3리] 박종수, 강현모, 박영진, 박건혜 조사 (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이곳에서 호랑이를 본적이 없느냐고 묻자,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내가 호랑이를 3번이나 본 사람이야. 그래 인자, 거기 저 큰집에서 살았는데, 밤에 마누라하고 저녁 먹고, 그때 내가 구장을 보아서 회의하려고,

“모이라.”

고 하고 나는 집에서 문서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는 거야. 그래서 밖에 한 번 보니까, 호랑이가 슬금슬금 사람이 다니는 길을 다니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옛날에 큰 사냥개가 있었어. 이놈도 무서워서 집앞 마루 밑에 숨어 있는 거야, 끄꿍대면서.

그런데, 호랑이가 사람은 잡아 먹지 않고 개를 잡아 먹었어. 그래서 호랑이는 사람은 잡아 먹지 않아, 동물은 잡아 먹어도 그렇게 산에서도 보고, 우리 아버지도 한 번 보았다고 하더라구.

16. 도깨비 진언

이복길(86, 남)/양지리T 6뒤

[양지3리] 박종수, 강현모, 박영진, 박건혜 조사 (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나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 건너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고개길이 있는데 밤만 되면 키가 구 척같이 큰 도깨비가 달려들어,

“씨름을 하자.”

고 했다. 옛날에는 도깨비가 많아서 사람을 성가시게 굴어. 도깨비는 진눈(진언을 잘못 말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깨비를 만나서 이 주문을 외우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야. 주문이.

각항 저방 진미기

두여 구술여 두를여며
필사상 정위유성 장의진

이것을 외면 도깨비가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이것만 외우면 정말로 도깨비가 내빼는 거여.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워낙 체격도 건강하시고, 기운이 장사라 도깨비랑 여러 번 만나셨대.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문을 외우고 다닐 정도로 도깨비가 정말 많이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들었어.

17. 속감신 얻게 된 일화

이복길(86, 남)/양지리T 6뒤

[양지3리] 박종수, 강현모, 박영진, 박건혜 (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였으나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명당이나 지관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구술한 것 같다.

내가 지관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을 은근히 구해서 말여, 저 산꼭대기 말여. 저 앞산 높은 산 꼭대기에 굴청 말여, 거기서 100일 기도를 해야 신과 통한단 말여. 그래서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그걸 도장으로 6갑인을 써 차서 사용하면 귀신이 잘 복종한다는 말여.

아! 백일을 산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리는데, 담이 약한 사람이면 죽어. 무서운 귀신들이 와서 놀라게 하고 큰일 나지. 아! 그래,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벼락맞은 나무를 구하려는데 있어야지.

그러는데 여기, 여기 저 산 아랍드리 전나무가 있었는데, 야! 하루는 날이 기울었는데, 베란간에 천동번개를 하고

“쿵!”

하더니. 벼락을 치는데, 그 아름답드리 나무를 콩가루같이 부서지듯 해 났어. 그래 뿌리가 있는데, 요만큼을 잘라다가 육갑인을 만들어서 차고 다녔어. 귀신들이 접근을 못 한다고 해서 말여.

다. 민 요

1. 학질경

제보자2(?, 남) /양지리T 1뒤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효숙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 ‘설화 6’을 마치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나서면서 옛날에 하였던 학질경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 달라고 하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주저하였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자, 학질이 하루걸이고 설명하다가 한 소절의 경문을 읽어 주었다. 이는 옛날에 몇 번 직접 하여준 적이 있다고 한다.

(하루걸이를 걸렸을 때) 학질경을 읽으면 낯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학질경은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잖아. 고때 자기네 집 봉당에다 지(않는 사람)를 갖다 앉혀 놓고, 키, 뭐 깔부르는 키가 있잖아. 그것을 머리예다 뒤썩워 놓고 뒤에가 앉아, 동쪽으로 나무간 복상(복숭아)의 가지도 하나 꺾어가 지고 요리 투적투적 이렇게 치며, 키를 치면서 읽는 거여.

낙반천채 낚바늘
평축정군 옛시부
개씨정군 무령왕
이씨정군 상낙등이라
영호영사 삼바하

하면서 우선은 키를 하나 딱 때려.

2. 아 리 랑

심태유(82, 남) /양지리T 5앞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서지숙, 이봉희 조사 (1995. 5. 13.)

술을 한 잔 드시고는 흥이 돌아 있을 때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렀다. 고향이 강원도인 제보자는 20년 전에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그곳에 부르는 정선 아리랑이라고 하였다.

아리랑 아리랑 알아리오
아라리 고개고개로 잘 넘어간다
오늘 가는 이 내일 가는 일
등주 등만이 읊는데
만남이 굴건 좋아를 왜 희 이어나

3. 심청가

심태유(82, 남) /양지리T 5앞

[양지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서지숙, 이봉희 조사 (1995. 5. 13.)

제보자는 술을 마시고 흥이 돌아 장구를 치면서 민요 한 편을 불러 주었으나 채록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시 민속을 조사하는 동안에 제보자는 이 노래를 불러 주었는데, 조사자의 실수로 끝까지 다 채록하지 못하였다. 민요는 처음에 개화기의 창가조로 부르다가 중간에 매우 늘린 속도로 부르다가 끝부분은 다시 빠른 속도로 불렀다.

그 지방은

황해도 한 가정 그의 식구 세 사람
돼지방에 심청이요 그의 부친 심학규
그의 모친 심청이를 낳으신 길일에
눈먼 병신 혼자 두고 이 세상을 떠났네

만고 효녀 심청이가 남방장사 선인께
공양미 썰(썰) 삼백 석에 자기 몸을 팔았네
이 몸 하나 죽는 것은 싫지 아니 합니다.
우리 부친 어두 눈만 하늘같이 뜨게소
개명천지 밝은 날을 속히 보게 하소서
부녀 서로 하직할 때 통곡하여 붙드는

잊어버려서 못하겠다.

부녀 서로 하직할 때 통곡하여 분드는
우리 부친 어둔 눈만 하루바삐 뜨게서
개명천지 밝은 날을 속히 보게 하소서
부녀 서로 하직할 때 통곡하여 분드는
선인들이 재촉하야 허릴없이 떠났제

(느린 속도) 이별이야~ 이별이야~
심청이와 심봉사가 이별이야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만경창포(파)야 배 띄어라~
어기여라~ 여기여라~
어기야 데야 예야 데야
예야 데야 예야 데야 어야 데야
예야 데야 예야 데야 어야 데야 예야 데야

(음영조로) 이 무도한 저 남방 장사 그 그 못 된 놈들이 적의 장사 잘 되기 위하여 그 처녀를 갖다가 돈 주고 사다가 강물에다 띄워요. 바다에다가. 그래, 그래 적의 장사 잘 되라고 그런 흉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남방 장사 그 뱃사공에게 그 끌려간 거예요. 끌려 가가지고선 거기서.(뒤는 녹음 하지 못함.)

여

백

남곡리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남곡리는 양지리의 남쪽에 위치하여 원삼면이나 백암면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용인 터미널에서 5분 간격으로 버스가 출발하는데, 포장된 도로로 한 7-8분 정도 떨어진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남곡리는 양지군 읍내 지역에 속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남촌, 용곡리, 월곡리 일부와 주서면 송동의 일부를 합치고, 남촌과 용곡의 이름을 따서 남곡리라 명명하여 내사면에 편입되었다.

남곡리를 이루고 있는 자을마을을 보면, 평대는 벌판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붙여 벌터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이름이다. 은리는 은이라고 하는데, 조선왕조 말기 박해를 받던 천주교도들이 숨어 살던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대건 신부가 처음 이곳에서 프랑스인 신부에게 발탁되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고, 사제 세품을 받고 귀국하여 최초로 전도활동을 벌었던 곳이라 한다. 남밭원은 남밭안이라고 하는데, 옛날 원의 터가 남쪽으로 뻗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용곡은 배매실, 배마실, 뱀의실이라고 한다. 마을의 형상이 배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배매실, 매투 매였던 곳이라 배매실, 마을 앞이 야트막한 야산이 뱀의 형국이라 뱀의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뱀보다는 용이 상스러워 붙여진 한자음으로 기록한 것이다.

남곡리는 남곡 1리, 2리, 3리, 4리로 나뉘어져 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남곡리 마을을 조사할 수 없어 가장 가까운 남곡 2리를 택하여 조사하였다. 남곡 2리는 130가구에 4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비교적 큰 마을이었다. 마을 안에 공장도 있었으나, 대부분 농사를 짓는 것 같았고 쪼갯소도 기르고 있었다. 시골이라 하기에 초가집은 볼 수 없었고 대부분 개량을 하여 도시와 다름없는 집들이 많이 있었다. 마을회관도 갖추

고 있었고, 상가도 조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사가 끝나 대부분 집밖에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 조사자들이 낯선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마침 그날 동네의 결혼식이 있어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수원으로 가서, 3시 이후에나 노인정에서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조사 시간이 부족한 데다가 조사 도중에 산불이 나서 제보자들이 대부분 밖으로 나가서 순간 당황하기도 하였다.

나. 설화

1. 호랑이를 물리친 소

이순복(64, 여) / 남곡리T 1앞

[남곡2리 콩밭] 박종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고 뒤에 있는 공장의 소음이 무척 심해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처음엔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조사에 응하려 하지 않았으나, 조사자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콩을 타작하는 중이어서 테이프에 콩 타작 소리가 녹음되었다. 의외로 한글 노래까지 듣게 되어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

(콩타작을 하면서)호랭이가, 마차 끌고 오는데, 여기가 시흥목이거덩. 여기 에기소 모탱이에. 거기 돌아오는데 그냥 소가 당채 안 가드래.

그래갖고 그냥 인자 큰아부지가, 큰아부지는 왜 그랬는지 몰랐지, 소가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냥 얼마 있다 보니까 호랭이가 그렇게 그냥 앞을 막드래.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소 시다(세다), 시다.”

그랬더니, 그냥 소가 왔, 왔드래, 집에를. 그래가지고 그 소가, 그래가

지고 그냥 우리 큰아버지도 맘을 철철 흘리시고, 소도 그냥 맘을 쪽 흘리고. 그리고 집애를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지 모(똥) 무슨 얘기할 게 있어.

2. 청성 드러야 활 기사

이순복(64, 여) /남곡리T 1앞

[남곡2리 콩밭] 박종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조사 목적과 별로 상관 없는 6·25에 대한 말씀하여 주었다. 그래서 제보자에 대해 간략하게 조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얘기 좀 해 주세요?] 소금장사가 저기 저 소금을 팔러 갔는데, 인제 주인을 잡아 가지고 인저 잘라 그랬는데, 그날이 지사래.

지산데, 인저 잘 때가 없어서 인제 이렇게 자는데, 그저 지사 지내는데 인제 저기 국에가 머리카락이 빠졌대. 그래가지고는 인저 가서 인저 공동묘지 가서 잘라고 그러는데, 인저 그 사람이 가서 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공동묘지서 그러더라.

“저기 지사를 먹으러 가니까루, 뱀이 빠졌다고. 뱀이 빠졌다.”

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기 언내(어린 아이)를 갖다가 국에다 빠져서 디게 했다.”

고. 그러면서 저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그러니까루.

“시궁창 흙을 발라주면 그게 나안(낮는다).”

고 저 그래서 그 소금장사가 인자 가서 의원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던 테는 시궁창 흙을 발라야 된다.”

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네 뭐.

3. 도깨비를 만난 사람

이순복(64, 여) / 남곡리T 1앞

[남곡2리 콩밭] 박종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소개해 준 사람에게 대해 말씀을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1 : 도깨비 얘기 같은 거 많잖아요] 도깨비가 뭐. 그전에 도깨비가
뭐 저기 빗자락이 도깨비가 된다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여기 있는 사람도, 인저 장에 갔다 오다가 도깨비가
만나가지구, 어디까지 끌고 갔대. 가 가지구 인저 날이 밝으니까 인저 길이
다 틀꺼 아녀? 저런 덤프사리가 더 길로 환하게 보인데, 도깨비가 홀리면.

그래가지고 그냥 인저 날이 밝아가지고 그렇게 도깨비한테 흘렸는데, 노
냥 이렇게 수족을(손을) 떨어. 항상 떨어. 그래서 그렇게 해다 그냥 그대로
그거 죽었어.(웃음)

4. 호랑이를 물리친 송감한 어머니

김옥순(78, 여)/남곡리T 1앞

[남곡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앞의 제보자에게 호자에 관해 간략하게 듣고는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니다 집에 쉬고 있는 제보자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 줄 것을 사정한 끝에 제보자가 손자에게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청중으로 고향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제보자는 충북 진천군 만월면이 고향으로 송인시 이동면 천리적동으로 시집을 와서 살다가 10-15년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막내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아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는데, 올라다니기가 다리도 아프고 숨이 차서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의 변형담이다.

[청중 : 웃을 것도 없어. 할 줄 알면 해여. 얘기 뭐 옛날 얘기야 다 아는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 지연(손녀의 이름)이가 더 좋아하더라. ‘할머니 얘기 좀 해 줘, 할머니 호랑이 얘기 좀 해 줄라?’ ‘미친년, 어서 호랑이 얘기는 듣고 와서 또 호랑이 얘기 해 달라.’ 그랬더니, ‘나 할머니한테 호랑이 얘기 듣고 싶어서 왔어.’ 그러더라고. ‘호랑이 얘기를 워떻게 하나?’ 그랬더니 자꾸 얘기를 해달래, 그것도 와서.

[청중 : 옛날 얘기 들을라고 그러, 개들이.] ‘할머니 호랑이 얘기 좀 해 줘’ 이래가지고 이제 엉터리로 했어, 내가 옛날에. [조사자1 :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웃음) [청중 : 여기와 앉어요, 바짝.] 옛날에(웃음) 그냥 저기 앉아서 듣기만 해요. 거기 앉아도 되요. [조사자1 : 아니, 이거 녹음시켜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옛날에(웃음) 지 엄마가 어디를 갔는데 인저 떡을 어서 한 보따리, 지 할머니네 집어서 해서 줘서 가지고 왔대요, 고개를. 고개를 넘어오는데 그냥, 호랑이가 그냥 잡아 먹을라고,

“으흥!”

그러더라고. 가서,

“내 떡 한 덩어리 주께 잡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그럼 달라.”

고 그러더래요 호랭이가. 그래서 떡 한 덩어리 또 집어 주고. [청중 : 호랭이가 떡 먹나. 으 그건 그짓말이지.] 그짓말이지. 다 보태서 하는 거지. 또 한 고개를 올라오니까 또 그러더라. 그래서 또 떡 한 덩어리를 주고 오고 게 집이루 와가지구서는, 인저 그 호랭이가 그짓말을 한 거여. 그 집에 와가지구서는,

“엄마 왔으니까 문 열어라.”

인자 그랬더, 그러더라 호랑이가. 게서,

“우리 엄마면 손 내밀어 봐유?”

그러니까는. 손을 디미니까 털이 났더라. 그러면,

“털이 났으니까, 발을 디밀어 봐유?”

그랬다. 게니까 발에 또 털이 났더라.

“아이고 우리 엄마 아니라.”

고 문 안 열어 줬다. 그냥 빙 찢고, 문을 찢고서는 얼굴을 쑥 디미니까. 아 그냥 애들이 기절해서 놀래 자빠지더라. 게다가 마침 지 엄마가 왔다. 게서,
“이놈의 호랭이가 으 내가 떡을 주고 다 그랬는데, 고개 고개 넘어오며 그랬는데 왜 우리 자식들을 잡아 먹으려고 그러느냐고. 잡아 먹으려고 그러거든 나를 잡아 먹으라.”

고 그러면서 지 엄마가 막 대들어서 호랑이를 쫓아 내더래요. 나 그게 꼭 얘기에요. 읊써 다른 거는.(웃음) [청중 : 호랑이 쫓아 냈구만.] 쫓아 냈데 그러구서. [청중 : 살았으니 다행이지.] 그래서 애들도 살리고 지도 살고 그랬대.

5. 도깨비에게 홀린 남편

김옥순(78, 여)/남곡리T 1앞

[남곡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또 댄 얘기 아무 얘기나 더 해 주세요. 선녀, 나뭇꾼 얘기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도깨비 같은 거 그런 거.] (웃음)도깨비 얘기 같은 거. 그럼 우리 영감 도깨비한테 홀린 얘기 좀 할까?

한 번 장애를 갔는데, 그냥 영감이 천애 안 와요, 그냥. 아 그래서 영감이 안 와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아침에 후줄근하니 들어왔더라고. [청중 : 살아서 돌아왔자여.] 응. 살아서 돌아왔어. 그래서 그냥 두루매기 소매를 다 뜯었어, 양쪽을.

“게, 왜 이렇게 뜯었냐?”니까.

“숨을 빼서 불을 놓느냐고 그랬다. 도깨비 쫓느라.”

고. 그래서 숨을 다 뜯어서 불을 놓고서 후줄근하니 들어 왔더라고. 게 내가,

“도깨비가 어딴냐?”

고. 그랬더니,

“왜 도깨비가 없느냐고. 도깨비가 있다.”

그랴.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산 그 도깨비 있다는 데를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우산을 씌고서, 서리 안 맞는다고 우산을 씌고 앉아서, 앉아서 거기 앉았어도 도깨비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짓말 하지 말라.”

고. 그러고는 괜히 쇠고기 사가지고 오다가 잊어버리고 그랬거덩. 게서

왜 그것말 하느냐고 다 술 먹고서 돈 내부리고 술 먹구 그랬다고. 그래서 두 내우 싸웠어.(웃음) 옛날엔 도깨비도 그렇게 있었데요.(웃음)

6. 시아버지 중풍 고친 며느리

김옥순(78, 여)/남곡리T 1앞

[남곡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못된 며느리나 효자같은 이야기를 부탁하자 모른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옛날 이야기를 모아야 된다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자, 생각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효자노릇한 거요. 효자노릇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요 중풍에 걸려서 드러누었는데, 5년을 똥 오줌을 받아냈어요, 며느리가.

그냥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시아버지가 그러고 병이, 시어머니가 먼저 죽고는 시아버지가 병에 들어서 들어 앉았는데, 목욕을 시켜야 할 텐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아 게서 인제 고무장갑을 그냥 어디 가서 주서다가 끼고, 부자집 가서 주서다 끼고, 그러고서는 처음에는 부살을 씻겨주고 그러는데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게 낭중에 하루이틀 하루이틀 씻겨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노바닥 날마다 목욕을 하루 한번씩 똥 오줌 싸는 걸 씻겼어요.

씻기고서는 낫는데 그냥, 문제는 또 어디서 또 기별이 오기를, 와서 뺨을 집 뺨에 가서 죄 망을 봤데요. 그 부잣집 사람들이 모두, 군에서 면에서 모두. 그래서는 망을 보고 가가지구서는 돌아왔으니께, 와서 상을 주고 그랬어요.

상을 타 왔데요, 잘 했다고 효자라고. 그래서 효자문 세우고 그랬어요. 그

런 건만 기억해요. 난 다른 건 뭐.

7. 안(安)씨와 권(權)씨의 성씨 싸움

송종섭(71, 남)/남곡리T 1뒤

[남곡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다녔다. 마을에 결혼식 있는 관계로 할아버지들이 오후 3시가 되서야 예식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셨다. 그때서야 비로소 남곡 2리 마을회관에 있는 노인정에서 할아버지들을 뵈 수 있었다. 노인정에는 7명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화투를 치시다가 우리가 조사를 하러니 화투를 멈추시고 조사를 도와 주셨다. 대부분 고령이셔서 조사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못하여 주시고 옆에서 다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호응할 뿐이었다. 처음에 이야기의 분위기를 돕기 위해 배원석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 마을의 모습과 할아버지의 옛 삶을 물어 이야기의 흥을 돋구었다. 배원석 할아버지께서는 일제 시대 때 우리 민족의 힘든 삶을 말씀하여 주었고, 그 마을의 독립투사도 소개해 주었다. 또 북한에게 무상으로 쌀을 제공한 것을 아주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셨으며, 무장공비 출현에 대하여도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남곡 2리 테이프 앞~뒤 중간까지 이어진다. 이런 도중에 옆에 있는 제보자가 나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조사자1 : 호랑이 얘기나 귀신 얘기 같은 거 있으면.] 귀신 얘기 같은 거. (웃음) 그 뭐 저 안(安)씨하고 권(權)씨 그 성씨에 대해서 전설 얘기해도 괜찮나? 그 뭐 다 아를 긴디. [조사자1 : 아. 저희는 그 이는 얘기 다 아는, 모르는 얘기 같은 데요.]

전씨 이저 안씨 성하고, 말하자면 안씨는 갓머리에 저 계집 녀자 아녀.
 [청중 : 그러 안씨는.(기침) 안씨는. [청중 : 아니 갓머리에다 계집 녀 한 것이 안씨고 그려. 권씨는.] 권씨는 인자, [청중 : 권씨는 나무목 옆에다가 그렇지.] 풀초에다가, [청중 : 그렇지. 입구 들하구.] 입구 들에다가 새로 신이지. [청중 : 그렇지. 입구 들하고.] 새로올 신. [청중 : 아니 근데 새 초자 쓰는 거야. 새 초자. 새 초자지 그렇지 그려.(웃음)]

내 인자 전설의 이야기를 한 마디 할까 그러면? [청중 : 그려. 한 마디 혀.] 안씨하고 권씨하고 참 다정한 친구가 살았는데 인저 장기를 두면은 안씨가 조금 부족해, 그 친구지간이라도 부족한다, 밤낮 권씨한테 안씨가 놀림을 받고 있거든.(청중 웃음)

“이 너는 무당이라고. 계집이 갓 썼으니까 무당이라.”

무당이라 하면서, 하 이저 장기 지는 것도 억울한다, 이놈은 무당이라고, 응 계집이 갓 썼으니까 무당이라고 이저 억울하거든. [청중 : 권씨가 그러니까.] 권씨 그러니까. [청중 : 그렇지.(웃음)]

이제 하루는 참 스님이 왔어. 인자 목탁치고 인자 동냥을, 시주를 하러 왔거든. 그러니까 인자 그 권씨(안씨의 잘못)가 하는 말이,

“그대 성명이 무엇인고?”

하고 물었어요. 아 저,

“어디, 어디서 왔는고?”

하고 인저 물으니까.

“예, 초일전팔에 입월이 복기삼 토촌서 왔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 성명은 무엇인고?”

했거든. 인자 그 송낙이라는 것은, 그 중이 인자 머리를 쓰고 땡기는 그저 종이로 맨드러 가지고 쓰고 땡기는 거 보고 송낙이라고 하거든. 그래 인자 목탁채라는 것은 나무 아녀. 응 나무지. 그러니까 그 목탁채로 갖다가, 송낙을 갖다가 탁하니 벗더니 탁 썩우거든.

그러니까 그러더니 주먹을 불끈 쥐더니 말이여. 이것 불끈 쥐고 윈, 오, 오른손가락을 쭉 빼문단 말이여.(오른손 주먹을 쥔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그런게 두 다리를 쭉 버티고서는 다리를 쭉 버틴단 말이여, 큰 대자로. 그러니 인자 인제 권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허는고 허냐면은,

“내가 그거 풀으면 못 풀을 바는 아닌데,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물었거든. 그런게 ‘초일전팔에 입월이 복기삼 토촌이라’ 함은 황룡사라 이 말이여. 초일전팔에. [청중 : 초일.] 그렇죠. 풀초자에 초일전팔이란 말이여. 황룡사. 그런게 초일전, 저 초일전팔이란 말이여. 입월이 복기삼이란 말이여. 입월이 복기삼 용 용자 아녀요. [청중 : 그렇지.] 예. 입월이 복기삼이면 용 용자란 말이예요. 인제 토촌이라 하면 절 사자 아니예요. [청중 : 그렇지.] 예 그러니까. 황룡사서 왔다 이 말이여.

그리고 인자 이름은 뭐냐 하면, 인자 저 뭐여 나무가 갓을 썼으니까, 이견 송(宋)가란 말이여. 네 송씨란 말이여. 그러면 나무목에 갓을 썼다 이말이여. 그러니까 송씨란 말이여. 그런데 이런 주먹을 불끈 쥐니까,(오른손 주먹을 쥐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스스로 자자란 이말이여. 스스로 자자 인자.

[청중 : 그렇지. 아니 이렇게 하면 스스로 자자가 되요(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스스로 자자가 된단 말이여. 그런게 이 두 다리를 쭉 뺀고, 다리를 뺀으면 큰 대자가 아니라, 불알이 있으니까 콩 태자란 말이여(太). (청중 웃음) 그렇지 아녀. [청중 : 그렇지.] 잉. 그런게 송자태라 이 말이여. [청중 : 그런데 그 읍싸야 되는데.] 있는 걸 어떻게 없어요. 여자 같으면 없지. 남자 같으면 있시아지. [청중 : 그려 그려. 맞긴 맞아.] 맞죠(웃음) [청중 : 맞아. 그게 있으니까, 천상 콩 태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게 인자 그 권씨가 하는 말이,

“그러면 좋단 말이여. 들어 오니라.”

후히 대접을 하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승이 권(안의 잘못)씨다. 권씨네, 그 안(권의 잘못)씨한테, 참 그 다정한 친구한테 이만한 놀림을 받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복수할 능력이 없냐?”

그랬거든. 그렇게 하는 소리가,

“예, 있죠. 그러면은 내일 내가 이만 때, 아무 때 올테니까 들어서 장기를 지고 실컷 놀림을 받으시오.”

말이여. [청중 : 뭐를 지고서? 장기를 두면서. [청중 : 아아.] 놀림을 받으라 이거여.

“놀림을 받으라. 그러면은 내가 와서 시주를 원하면 그대 승명이 무엇인고 그대 승이 무엇인고 그것만 물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참 그 이튿날 참 중하고 이별을 하고서, 그 이튿날 참 장기를 두면서 인자 더 친절하면서 막, ‘니놈’ ‘내놈’ 하면서 인자 놀림을 받는 거여. 인자 안씨가. 그때는 아닌게 아니라 참 스님이 왔거든. 와서 거시기 하닌게 목탁을 쥐고 시주를 하니까,

“그대 성명이, 참 승명이 무엇인고?”

허고 물었거든요.

“예, 제 승은 묻지 마십시오.”

그랬단 말여.

“아니, 뭘 승인간디, 승을 묻지 말라고 하느냐?”

고. 그 말이여.

“예! 그러 제 승은 묻지 마십시오.”

그러거든.

“예! 증히 알고 싶으면은 제가 말씀 드리리다.”

그랬어요.

“원시조 때, 자기 응, 그 말하자면 할머니는 하나인디, 인자 이 할아버지는 넷이라.”

이거여.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인자 손을, 손을 손이 끊기게 되었어. [청중 : 손이 끊기게 됐어.] 응. 손이 끊기게 되었으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유(柳)씨한테 나무 목을 떠오고, 응. [청중 : 거 유씨한테 나, 나무 그려.] 응.

유씨한테 나무 목을 떼오고, 황(黃)씨한테 풀초를 떼오고.(방바닥에 손가락으로 권씨를 쓰면서) 나무목 변에 이저 풀 초에다가 입구 두 개에다가 새로 신이 아니여요, 권씨가. [청중 : 음 그러. 아니 저기 입구 둘에다가, 밑에다가 새 초자 쓰는 건데, 권간데.] 예 예. 나무 목인게 유씨한테 나무 목을 떼 왔다 이 말이여. 유씨 집안한테. 그러니께 인자 할머니가 가서 떼어 온 거여 인자. 예. 떼오고 [청중 : 그렇지 떼어 왔는데.] 예. 황씨한테 풀 초자를 떼어 오고, 황씨한테. 여(呂)씨한테 입구 두 개를 떼어 오고. [청중 : 예 다 떼어 왔네.] 아니지. 인자 최(崔)씨한테 새 초자를 떼어 왔다는 얘가지. [청중 : 다 떼어 왔어(웃음)] 예.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넷이고, 인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 대는 끊기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께 참 상놈의 승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권씨, 저 권씨가 하는 말이 무릎을, 아니 저 안씨가 하는 말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너 이놈! 나는 무당이며 이놈. 너는 니 헬애비가 넷이여 이놈야. 니 할매가 하난디. 응(웃음)”

그렇게 해 가지고 복수를 하느디,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이러지 말고, 참 두 다정하게 지내십시오.”

하고서는 참 가더라는 그 전설이 있어. [청중 : 그래서 그 안씨하고 권씨하고 다정하구나.(일동 웃음) 관 됐지 뭐. 그래 이런 여담 이런 걸 들어보는데 좋은 소리 얘가지. 그러면 됐잖아. 그런데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지 마는 거 자꾸 해서 뭘 하나.

8. 결초보은(結草報恩)

배원석(75, 남)/남곡리T 1뒤2앞

[남곡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앞의 성씨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자, 노인정에서 이야기판을 형성하여 주었던 제보자는 조사자가 효자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말씀을 5분 동안이나 하였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조사자1 : 조금이라도 괜찮거든요. 어느 부분 얘기라도 괜찮으니까 저희는.] 근데 그 있는 얘기 같은데 내가 한 마디 할까. 옛날에 말야 상준데, 상주서, 인제 여기 있던 애긴데, 증말 아닌게 아니라 농촌에서 내가 몇 번 살은 사람인데, 농촌에서 살았는데, 그 얼마나 참 뒤흔는지 그냥. 땅은 토끼등등같이 다 벌어지고 가뭄이 들어서 농사는 못 짓것고.

근데 그 때에, 재정 때 얘기에요. 근데 인자 그 아들이 부산 가설랑은, 일본놈 집에 가설랑은 결국 남의 고용살이를 하는 거여. 그런게 인자 자기 생각에는 상주 자기 살면서, ‘그래도 내가 자식한테 가면은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조금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상주에서 부산 가자면은 거 도보로다 상당히 오래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가서 인자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을 만나서 그냥,

“아버지 왜 오셨어요?”

그랬는데.

“에, 그런게 아니라, 올해는 그냥 가뭄이 심하고 그냥, 그냥 농, 농지는 전부 가 그냥 거북이 등같이 전부 그냥 뽕개지고 이렇게 됐으니, 내가 살 수 없지 않느냐. 게서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한테 돌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주인한테.

“우리 아버님이 이런 사정으로 오셨는데, 그냥 어떻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몇 달을, 증말 그냥 내가 돈 받을 것을 미리 타서 쓰더라도, 아버님 위해서 내가 드려야겠습니다.”

이래서, 가서 일본 놈하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 놈이 그걸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11원을 주더라 얘기에. 그때 돈으로 11원을, 11원을 주는데, 11원을 받아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인제 11원을 인제 받으면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10원은 가지고 가시고, 1원은,”

그때 아마 경부선이 아마 통과가 됐는지, 됐는 거 같아요. 에이 차가. [청중 : 경부선이 일본 놈이 놓은 거거든.] 일본 놈이 났거든요. 그때 일본 놈이 났었지요. 그러니까,

“그럼 차를 타고 가시면은 1원 가지면 가실테니까 가져 가시라.”

고. 그래서 인자 11원을 가져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1원이면 얼마냐. 1원이면 이게 정말 기가 맥힌 돈인데, 내가 어떻게 차를 타고 가느냐.’ 인자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인지 자기가 11원을 인제 자기 몸애다가 간직을 하고설랑은, 자기는 ‘도보로다가 상주로 가겠다’ 그런 심정으로 왔다 이거여. 왔었요.

그래 참 올라오는 데, 왜 그때는 뭐 우리가 담배도 지금 이런, 이런, 이런 담배가 아니고(담배를 들어 보이며) 그때 인자 순절이 텔 때여. 인자 담배대에다가 이렇게 인자, 그냥 이런 그냥 전이 그냥 둘들 말아서 꺾 가지고 뼈끔 뼈끔 인저 퍼내고 그러고 그런데, 게 인자 얼마쯤 왔어요.

와서 인자 어느 고개를 다래로 넘을라고 인저 다래로 떡하니 인저 올라섰는데, 다랙이 기가 막히게 넓더라 그런 얘기에. 그러니 그 다랙을 올라오자니 기가 맥히지. 그래 먹지도 못하고 오는 거지. 그런데 그 돈 1원 때문에, 돈 1원을 벌라고 인제 그냥 올라온 거여.

올라와서 이제 떡하니 대개 이제 그런 마루턱에 올라오면 쉬는 장소가 있어요. 쉬는 장소가 있다고. 그 쉬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떡하니 앉아서 나는 담배를 한 대 태고, 이제 떡하니 그라고서는, ‘아 이제 다 쉬었구나’ 그라고서는 이제 내려오는 거여.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마상객이 말야, 말을 타고 올라오는데 아주 고귀한 손님인데 앞애다가 그 말 끌고 가는, 올라가는 말 구정꾼이 있었요. 말을, 마

차를 끌고 가는, [청중 : 마부지. 마부.] 그렇지. 마부라고 그러나, 뭐 마부라고 그러나. 아 뭐 말 무슨 뭐라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서 끌고 그 상관은 말을 타고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에.

그래 자기는 부지런히 자기는 갈 길을 가는 거지. 이제 얼마쯤 갔어요. 가다 보니까, 참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자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봐요. 그 마상객이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딱 쉴 자리에,(Tape 2앞에 계속 ; 중간에 끊긴 이야기는 상주로 가던 사람이 돈을 흘리고, 그 돈을 마상객의 마부가 보고 줍는 내용임.) 말을 끌고 가던 말종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상감님! 이거 저 아래로 내려가서 술이나 한 잔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주웠으니까. 그 영감이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그거도 주인이 있어. 그거 주인 있는 돈인데, 여 어디 가서 술을 먹어.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분이 꼭 찾아올 것이다. 여기 안 찾아올 리가 없어. 돈 그때 11원이라면 그제 큰돈인데, 이것 하야튼 그거 안 찾아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기다리자, 기다리자.”

게 인자 거기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기 얼마 안 기다리니까,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졌네. 막 힐레벌떡거리고 냅대 뒤쫓아 올라온 거지. 그 대뜸, 새를 그냥 냅대 올라서 가지고, 거기 올라와서 보니까 그 인자 먼저 내려올 적에, 그 마상객이 올라가던 그 영감이 거기 앉았더라 이런 얘기에. 게 가설랑은 그 두리번거리고 들여다 찾는 것을 찾으니까, 이것 뻔히 알지. 벌써 이것 이놈이 잃어버린 거 뻔히 알지. 그러니까,

“너! 너 뭐 잊어버렸느냐?”

“아, 지가 여기 참, 여기 오다가 좀 쉬었는데 뭘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거든.

“그러, 그러면 그럼 그 돈은 여기 있다.”

게 인자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게 인자 이 놈이 그걸 받아가지고 참 백배 사례하고,

“참 고맙다.”

고 참 인사를 하고설랑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는 그 한 인저 내려왔는데, 그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배(벼)랑간 위에서 비가 와가지고서는 이것 잉 북덜물이 냅다 쏟아져 내려가는데, 건널 수가 읍어. [청중 : 건널 수 읍지.] 건널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인자 거기서 기다릴 수밖에 읍지. 그러니까 배도 못 오고. 배가 어떻게 가.

어떤 놈이 그냥 가만히, 건너다 보니까 이놈이 옷을 훌렁훌렁 벗더니, 아 이놈이 냅다 그냥 모가지에다 뒤집어 쓰더니, 여기다 딱 달더니(목부분을 만지며) 수염(수영)을 쳐서 건너오는 거여.

건너다 보니까, 그냥 그 산 위에(흙탕물에) 냅다 휩쓸려 가지고, 이게 아 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지. 그래 자기가 하는 얘기가, 11원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게 어떤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11원을 줄테니, 저 사람 좀 구해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수염 잘 치는 놈이 있었던 모양이야. 게 이놈이 인제 그 돈 11원이 그때 큰돈이니까, 그냥 쫓아 들어가서 그놈을 건져냈거든. 건져냈어. 건져 내서는 딱하니,

“내 그놈을 건져냈는데, 이 누가 갖다 인자 집에다 갖다가서 간호를, 그러니까 물을 키고 그랬으니까 갖다, 어떤 집에 갖다 놓고서는 인자 간호를 했는데, 이 어떤 분이, 자기가 한 거여, 자기가. 자기가 그 사람 데려다가 인제 집에다 갖다 놓고설랑은 인제,

“나중에 비용이 얼마든지 내가 부담할 테니까 이렇게 살려나 주소.”

그래 갖다가 이 따뜻한 방에다 집어 넣고 물을 죽 빼게 만들어 놓고 해놔 줘야요. 그래 이렇게 하고설랑은 나중에 보니까, 아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여.

“아이고, 나는 이런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는 얘기여.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우리 아버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꼭 그 시간에 아버님한테 꼭 가야할 시간인데, 아버님께. 물이 많아서 그 시간에 아

버님 꼭 빌라고 내가 옷을 벗고서 들어서다 보니까 내가 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건져준 건 당신이 건져준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을 내가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아버님한테 이런 말씀 좀 드려봐야겠다.”

그거여. 그래서 인자 그 때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엘 갔어요. 집엘 갔는데, 아니 이게 아들이 온다는 시간에 안 왔으니, 얼마나 그 부모들이 그 얼마나 기가 맥힐 거 아니여. 그리고 인자 장만 저 가지고 냅대 비는 내려 쏟으고 그러니까.(이때 두 분의 할아버지가 들어옴) 가만 있어. 제정이 저기 잠깐 우리 얘기하는 도중이니까 잠깐 떠들지 말고,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래 그 가설랑은 그 자손이 들어가서는,

“아버지! 저런 참 위대한 분이 있고, 나를 살려주니 저 분밖에 옳다고 그런데 아버님! 자 어서 나가서 만나 보시오.”

아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운지, 나를, 내 자식을 그 애를 써서 살려줬었다니까, 그냥 두 발로다가 그냥 맨발, 아닌게 아니라 버선발로다 뛰어 나가서 만나보니까 그 산상에서 만난 친구더라 그런 얘기여. 산상에서 만난, 내가 돈 찾아준 그 친구가 내 아들을 살렸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그때부터, 뭐 우리가 옛날 그 얘기를 끝을 맺을라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참 재산을 전부다 갈라주고 그래설랑은 그 사람도 부귀하게 살았고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까지 하는데, 그래니 내가 그것 좀, 그제 송인가, 참 그렇게 내가 그때 그 돈을 내가 가지고 나가서 술을 먹었다면, 내 자식은 못 구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니지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서 그래도 주인을 찾아줘야지. 그래 주인을 찾아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 가설랑은 자기 아들을 구했다.’ 아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지.

아 요게 요리조리 인자 이게 구합을 해보면, 참 아닌게 아니라 기기묘묘 하죠. 묘묘한 그런 실정이 있지요.(웃음) 미안해요 [조사자1 : 아니 좋은 얘기였어요]

9. 쟁송집 남녀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

송중섭(71, 남)/남곡리T 2앞

[남곡2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옆에 있던 제보자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이어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조사자에게 녹음 테이프가 남아 있느냐 묻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입심도 좋으시고 많은 이야기를 아는 듯 하였다.

그러면은 내가 저 거시기 뭐. 녹음이 남은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옛날 얘기 한 번 더하지.

옛날에 정승이라면 지금 뭐가 될까요. [청중 : 판사지.] 판사. 판사 인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이(李)정승이 딸이 있고, 인자 김(金)정승이 아들이 있단 이 말이여. 그러면은 인저 그 전에는, 지금은 학교지만 서당이 거든. 서당은 인자 양쪽이 댕기는데, 그러면 이정승의 그 딸이 있는데, 김정승의 아들이 서당을 댕기면서 자주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여.

근자 우물은, 지금은 인자 각자 수도가 있지만, 옛날에는 우물이 있어. 같이 모아서 동네에서 전체로 먹지 아녀. [청중 : 옛날에는 우물이 있지.] 예. 그러면 먹는다, 인자 과년이 차가지고 서로 인자 음행을 알게 되고, 인자 알 정도가 되니께 인자 참 서로 연애라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연애 하(해)도 히야 짓는데, 인자 연애라도 히야 짓는데 어떻게 혈 길이 읍거든. 그러니께 근자 인자 이저 참 저 김정승 아들이 뭐라고 하는거 허냐 말여.

“우리 좀 이제 만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연애라도 한 번 하자.”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께 이정승의 딸이 뭐라고 하나면, 아무 말도 없이 호적 적(籍)자를 하나 써 줬어. [청중 : 그라.] 예. 호적 적자를. 예 잘 아시는 거 같구먼.(웃음) 호적 적자를 하나 또 써 주니까. 이제 서당을 댕기다가,

이걸 이놈이 고민 끝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상사병이 났어. 그것을 이저 그 뭐라고 할까. [청중 : 뭘 얘기하는데.] 이 자기가 알았으면 그런 병이 나지 않을텐데, 이거 몰르고 고심을 하니 인자 병이 생겼다 이 말이어. 그러니까 근저 즈 고모되는 사람이 와서,

“너, 왜 아무래도 너 무신 고민이 있단 말이어. 고민이 있으니까 니, 내가 니 소원을 다 들어 줄테니까 너, 저 즈 고모가 니가 뭐 한이 있는 얘기를 내게 다 해라.”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

“그 이정승의 딸이 있는데, 가하고 마참 얘기를 했는데 호적 적자를 하나 써 주더라. 그런데 내가 풀지를 못해서 그런다.”

고 말여. [청중 : 그러니까 풀이를 못하는 거지.] 응. ‘풀지를 못 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너 이놈! 헛 공부했다고 말여.(청중 웃음) 염려 말으란 말여. 그제 스무하룻날 [청중 : 낮에 만나자는 거여.] 응. 대밭에서 만나자는 뜻이니까. [청중 : 호적 적자.] 응 그러니까 대밭에서 만나라.”

말여. [청중 : 대밭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 죽자 밑에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조사자의 무릎을 잡으며). 호적 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대죽자 밑에. [청중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여. 스프 스프날. 스프날이야 스프날. 올 래자가 있으니까 스프날 오너라 그런 얘기여.(웃음)]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얘기지, 인자 만나자는 얘기. [청중 :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나무 밑에 스프날 오너라. 오너라 이거여.(웃음)] [청중2 : 그래 맞아.]

인자 그래서, 거기에서 인자 그때 인자 참 만나게 되어 있어.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놈은 인자 그것을 알게 되니까, 서당에 가서 인저 참 그냥 호적 적자만 써 놓고 그냥 좋아하는 거여. [청중 : 그렇지.] 호적 적자만 써 놓고 좋아하는 거여. 인제 그 선생이 있다가 그걸 눈치를 챘는가, 그날 스프날이 딱 당한 거여 인자. 당하니까,

“느 그제까장 배운 것을 전부 다 외워 뇌라.”

하고서는 자기는 외출을 했거든, 선생은. 그러니까 이놈이 이 때나 오나 저 때 되나 오나, 선생이 와야, [청중 : 그렇지.] 선생님이 와야 인제 거기를 갈텐데. 그런데 인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왔거든. 한게 인자,

“너 가라.”

그랬거든. 이제 거기부터 쫓아간 거여, 인자 대밭이부텀. 쫓아 가니겐 참 과연 누워 있거든. 누워 있어서, ‘참 기다리느라고 말여 지루해서 이렇게 걸리는가 보다’ 하고서는 가서 디다 가서 보니 칼에 맞아서 죽었어. [청중 : 죽었어?] 응. 칼에 맞아 죽었어. [청중2 : 그것 맞아. 칼에 맞아 죽었어.]

그래 이놈은 엉겁결에 말여 도망을 친거여. 도망을 치니까 그 전에는 뭐 저 고무신이 있어요? 짚신같은 것도 인제 있을 꺼 아니에요. [청중 : 그전에 고무신이 어디에 있어.] 또 인제 뭐 잘 사는 사람은 미투리를 신는다 이 말이여. 그 인제 왕골로 짜는 거. 그런 것을 신고 인제 거기 가다 신을 한 짝 인자 잊어버리고 와가지고서는 도망 갔단 말이여.

도망가도 인자 결국은 신발을 보고서 인자 그 범인을 잡은 거여. 잡았는데, 자기는 실제가 범인이 아난디 이거 억울하다는 얘기여. 그러나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사형으로 내렸다 이 말이여. 그게 인제 판사가 판결날은 되었는데, 그 옛날에는 그저 놋대야 있잔여. 놋대야. 큰 대야가 놋대야.

그러면 그 거시기에서는 옛날에는 양반들은 전부 다 꼭 이 마루에다가,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이 시켰으니까, 마루에다가 그 대야에다가 세수 세수물을 꼭 떠주게 되어 있어. 안 그렇습니까? [청중 : 그려.] 또 하인들이 다 갖다 떠 받치고, 거가 마루에 앉아서 세수를 하지. 나와서 이렇게 세수를 하는 법이 없거든, 그 양반들은.

그러니까 하루는 그 판사가 참 오늘은 인자 판결날인데, 저 사람은 참 자기도 억울한 사람이 죽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죄목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여. 인자 아침에 세수를 할라고서는, 참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서는 세수를 할라고 했더니, 아침에. 그 그 근방에 버드나무가 읍어. 근데 버드

나무 이파리가 팔랑팔랑팔랑 하면서 내려오거든. 내려오더니 자기 세숫대야 앞애다가 딱 떨어진단 말이여. 물에 가서. 그래서 보니까 구녕이 뽕뽕 떨어졌어, 벌레 먹은 구녕이. 이제 버드나무 이파리가.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재판을 인자 연기를 했던 말이여. 인제 자기도 그 버드나무 이파리에 대해서 풀어야 할 참인디. 자기도 풀 길이 없어. 그건 인자 그거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딸이 와서 인자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여.

“아버지가 아마도 무슨 고민이 있는데, 에 그 고민을 푸쇼.”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알 일이 아니다.”

말이야.

“나의 딸이라고 하는데, 나는 알으면 안 되느냐?”

고 말이여. 그런게 그 얘기를 다 했어.

“헤헤 아버지! 아버지 저 헛 판사요.”

말이야. 헛것 판사라 이 말이여.

“게 유공업을 찾아 보쇼.”

그랬거든. 앞사구 저 버들 유자, 버드나무 이파리니까. [청중 : 그림.] 예. 버들 유자 구멍 공자, 구멍 공자 인저 버드나무 이파리가 구녕이 뚫어졌으니까. 앞사구 엽자 이 말이여. [청중 : 유공업.] 예. 유공업이라 이 말이여. 그러니까 참 거기서 그것을 알고서는,

“유공업을 찾아라.”

이 말이여. 호적을 보고서 인자, 지금은, 지금은 뭐 컴퓨터로 나와버리니까 상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유공업을 찾아 보니까 그 학교 인자 서당 선생이더라 이 말이여. 근게 그 옛 그전부터 그 사모하고 거시기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도 그 여자를 인자 사모했던 모녕이쥬. 그래갖고서 행여나 거시기 안 들어주니까, 인자 칼로 인자(청중 웃음) 사살을 했다 그런 전설 있어요.

다. 민요

1. 한글 노래

이순복(64, 여) / 남곡리T 1악

[남곡2리 콩밭] 박종수, 강현모, 이정호, 최병선 조사 (1995. 11. 11.)

이 노래는 제보자가 ‘설화 1’을 마치고 6·25에 대해 말씀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노래는 제보자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따라 부르며 배웠다고 한다.

돌아 왔네 돌아 왔네
한글날이 돌아 왔네
기쁨이로 달맞이 하지
아야 어여 가가 거거
세종께서 주신 보배
해와 같이 본(반)쩍이라

여

백

평창리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평창리는 양지리에서 동남쪽으로 2Km정도 떨어져 위치한 마을로, 원삼면이나 백암면으로 가는 포장된 도로의 길목에 있어 용인 터미널에서 5분 간격으로 버스가 출발하여 한 7-8분 정도의 떨어진 교통이 편리한 곳이 있다. 평창리는 양지군 주동면 지역에 속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평촌, 도창리, 세동 일부 합치고, 평창과 도창에서 이름을 따서 평창리라 명명하여 내사면에 편입되었다.

평창리를 이루고 있는 자연마을을 보면, 평촌은 넓은 벌판 가운데 있다고 하여 범말이라 하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무유막은 옛날에 근심없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무수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 춤추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도창은 옛날에 창고가 있어 되창말이라 부른 것이 변하여 부른 이름이고, 도야기는 벌말 동쪽에 위치한 돼기, 도야기라고 부른다. 벌터는 벌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벌말과 구분하기 위하여 붙여진 듯하다. 새터는 새로된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용구리는 벌말 남쪽에 있는 용골에서 유래된 듯하다.

평창리는 1995년 5월 13에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이 윤정현 할머니를 댁에서 조사를 하였다.

나. 설화

1. 해와 달이 된 오뎨(수수대 빨간 이유)

윤정현(67, 여)/평창리T 1앞

[기정집] 박종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놀러온 황재숙씨가 제보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호응해 주었다. 제보자는 지루하지 않고 적당하게 시간을 안배하며 구술하였는데 적극적이었다. 조사자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부탁을 드리자,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였기에 거절하다가 조사자가 구체적인 이야기로 유도하자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이 이야기는 해와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것으로, 13살 때쯤 외할머니에게 들었다고 한다. 뒤에 이어서 구술하여 준 이야기들도 모두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어느 동네에 어머니하고, 남매를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살았는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구 어머니가 건넌 마을 동네 가서나 밥을 구걸 해다가 애들을 메기게 했다는데.

하루는 어느 동네에 잔치가 있다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인자 잔치집을 가서, 인자 심부름을 해주고 음식을 많이 인자 얻어가지고 오는 길에, 고개에, 산고개를 넘는데, 재를 넘는데 인자 그때 난데없이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너! 그거 뭐냐? 나 줌 주면 안 잡아 먹겠다.”

그러니까는. 그 음식 얻은 것을 조금씩 조금씩 주다 보니까 다 줬는데, 그걸 인자 다 뺏기고 나중에는 몸뚱이만 남았는데,

“내가 너! 팔 하나를 주면은 안 잡아 먹겠다.”

그러케 하고. 또 쪼금 가다 또, 팔 하나를 다시 마자 먹어버리고. 나중에

는,

“다리 하나 주면 안 잡아 먹겠다.”

그래가지구. 팔 다리를 다 인자 먹어 버렸는데. 기냥 몸뚱이만 남아가지고 산을 때굴때굴 등굴어 오는데, 거기서 뭐 호랑이가 날름 집어 먹어 버리지. 그걸 뭐 그냥 둘 리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완전히 인자 호랑이한테 다 잡혀 먹어버리고 간 데가 읍어졌는데, 온데 간데가 읍는데. 인자 호랑이가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했는지, 남매가 있는 집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문구멍으로 이렇게(쳐다보는 시늉) 쳐다보면서,

“엄마가 왔다. 문 열라.”

그러니까는. 애들 헨다 소리가, 이렇게 문구멍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는 엄마가 아닌 거 같으니까,

“그러면은 손을 한 번 문으로 들여, 들여 보라.”

고 그러드라. 그러니까는 손을 하나 이렇게(손을 내보임) 내밀어 보니까, 아 손이 송금송금하니 자기 어머니 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 주니까, 그 호랑이가 인자 잡아먹을 연구를 하구서, 아주 거기서 이자 어떻게 문을 어떻게 열구서 들어갈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애들이 놀래 가지구서, 뒷창문을 열구서나 나가지고서 뒤에 나무 하나가 썩는데,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에 앉았는데, 이 호랑이가 보니까는 애들이 소리가 없으니까, ‘이상하다’ 하고서나 인자 뒤 안이를 가다보니까는 애들이 그 위에서 있는데,

“너 어떻게 올라 갔니?”

그러니까는.

“저 옆집에 가서 참기름을 얻어다가 발르고 올라 왔다.”

고. 응 그러니까는, 호랑이가 인자 옛날 애긴게 이렇지. 응 그래가지고 가서 기름을 발르고서는 올라가니까데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 있간디, 못 올라가지. 그러는데 인자 나중에는 그 여자 아이가 일러줬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라 가냐?”

하니까.

“도끼로 나무를 꼭꼭 찍어가지고 올라 왔다.”

고 그러니까는. 인자 호랑이가 그 뭐냐,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올라 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냥 최후루 인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 같 어.

“우리를 살려 달라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 줄라면은 새 줄을 내려 주시라.”

고 그러니까는 줄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 줄을 타고서는 올라갔는데 이 호랑이두 그런 식으로,

“살려 줄라면 새 줄을 내려 주시고, 죽여 줄라면 혼(헌) 줄을 내려달라.”

구.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새 줄 한 도막, 혼 줄 한 도막이 이렇게 줄이 내려왔다는 거. 그 줄을 타고서나 올라가다 보니까냥 호랑이가 딱 떨어졌어, 끈이 떨어가지구. 끈이 떨어져서 그 죽었는디, 그 호랑이가 떨어져서 죽을 때 피를 흘려 가지구 죽어 가지구, 그 피밭에서 말하자면 수수가, 그래서 그 수수 색깔이 빨간하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 가지구 남자애는 올라가서 해가 되고, 여자애는 뭐 달이 되었다고, 별이 됐다고 했나(잘 모르겠다고 하심) 그리고 인자, 그 호랑이가 죽어서 그 피를 밭에다 흘렸기 땀에, 그 밭에 수수가 난 것이 오늘날 수수, 수수가 이렇게 색깔이 빨간하다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게.

2. 효자를 위한 산삼 동자

윤정현(67, 여)/평창리T 1앞

[가정집] 박중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친 뒤에 제보자에 관해 조사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

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어릴 때 친정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네에 효자 하나가 살고 있는데, 마침 어머니가 병석에 앓아 눕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든 낫구어야 하는데.”

백방으로 다 뛰어도 어머니 약이 없고 어머니 병을 낫구는 그런 약이 없어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냥 수심을 하던 끝에, 하루는 이렇게 자는데 꿈에 하얀 어른이 나타나더니 그러더라.

“너의 아들을 물을 팔팔 끓여서, 그 아들을 삶아서 그 물을 갖다 맥여라.”

그러더라.(웃음) 그러니까는 인자 어머니를 살릴라구 하는 효심은 지극한데다가, ‘아들을 갖다가 삶아서 느라’니까는 누구든지,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야. 그런데 인자 그 말을 듣고

“자식을 나면 또 자식이다. 잉.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한 번 돌아가시면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 보나.”

해가지구. 학교서 책가방을 들고서나 들어오는 놈을 불경 안아다가 그냥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이는 냄에다가 덩싹 집어 넣었어. 집어 넣어가지고 뚜껑을 딱 덮고서나 한참 끓여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드렸는데. 아 어찌 솥 뚜껑을 열으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

인자 물을 떠다 드렸는데, 그 물을 한 대접을 잡숫고 어머니가 땀을 쪽하니 흘리더니 낫었다 이거여. 그러니까는 자기 본인 자신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응 어떻게 이렇게 솥에다 눈(눈은) 우리 아들 시체가 등등 떠서, 죽은 시체라도 있을 건데 없다.”

하고서. 이상하고 참 궁금증이 나서 인자 해가 지다락(기울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저녁 때, 저녁 때 아들내미(놈)이가 들어 오더라야, 그 갖다 넣고 대린 아들이.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게 어떤 심판인가 하고서나 가서 인자,

“아니 너! 진짜 우리 아들이냐?”

응. 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하니까.

“뭘, 학교서 공부하고 뭐하다 이렇게 늦었다.”

고 그래 나중에 솔뚜껑을 가서 재차 열어보니까는, 큰 인삼이 하나가 둥둥 떠 있드라. 응. 그러니까 그 효심이 지극한 것을 보고서 들어 왔어. 인삼이 옛날에 사람 모양을 해갖고 걸어서 들어온 거여, 그게. 이 아들로 봐왔지, 그게. 그 아들이 이냥 불쌍 안아다가 놓(넙)고서나 가마솥에다가 막 물을 끓여서 쏘았는데, 나중에 인자 그개 효심이 하도 지극하니까 그개 산삼이 걸어진 거야. 응. 그래가지고 어머니 병을 낫구고 아들은 아들대로 찾았고.

그리고 효심이 지극한 사람은 그렇게 하늘이 도와서라도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3. 초립동이 알려준 장원급계의 문귀

윤정현(67, 여)/평창리T 1앞

[가정집] 박종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앞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가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것은 박문수가 장원급제한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등장인물의 명칭이 없다.

하나는 또, 진짜 구신 나오는 얘기다. 어느 제상을 지내는 집안에, 옛날에 인자 시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두 내외가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두 내외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인자 과거 시험을 보러 갈라고 공부를 하고 있데요. 하는데 아이 공부열심히 하고, 부모하고 그 아버지하고 단란하게 사는데, 이 어떻게 해서 이 여자 아이를 탄 남자가 눈에 맞은 남자가 생겼는데, 저녁이면은 이렇게 달밤에 그림자를 보면 누가 담을 후딱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러드라. 그래 ‘이상하다’ 하고서는 그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새 남자를 이렇게 들이시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할라구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아들이 행방불명, 행방불명이 되었드라. 아들이 근데 공부를, 과거를 보러 갈라고, 옛날에는 어려서는 초립둥이라고, 이렇게 초립 옷을 그냥 두루마리를 지어 입히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띠 띠서 이렇게 옷을 입히고

“초록둥이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고 하니까는, 아버지가 기가 막히니까 인자는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영아들을 찾을 길이 없고 그러는데.

하루는 요상하게 어떤 그 동네 사는 친구가, 그 집을 유심히 한 번 이렇게 살폈보내며, 그때만 해두. 그러니까 멀쩡하던 그집 아들 초록둥이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담을 후딱 넘어 뛰더라. 옆집에 그 과거의 그 아들하고 친절한 친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밤엔 내가 이놈을 꼭 잡아야지.”

하고서. 보니까는 그 메느리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마 저 두 남자가 저 집에 아들을 어떻게 어디로 갖다가 죽였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친구도 과거에 인자 급제를 할라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옛날에 그 먼 길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인자 과거 보는 날이 닥쳐서 인자 한양을 향해서 가는데, 하루는 인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마침 그 한양길에 가는 도중에서 어떤 초록둥이 하나가 앞에 와서 이렇게 우뚝 스투라. 그러니 이제 자기 친구두 같고 과거에 본 듯 한디 요리조리 잘 모르겠드라. 그래서,

“누구나?”

고 그러니까.

“아후! 내 소원 하나를 들어 달라.”

고 그러니까.

“무슨 소원이냐?”고.

“내가 오늘 시험을 보러, 과거를 보러 가는데 내가 글, 글귀를 끄트리판에 가서 몰라가지고 못 쓰는 글귀를 하나 일러 줄테니, 근게 쓰면은 장원급제가 되면은 나를, 원수를 갚아 달라.”

고 그라드라. 그라니까는,

“그러냐.”

고. 하고 그러는데, 끄트리가 가서 글자 하나를 일러 주는데, 도저히 자기가 못 알아 보겠드라. 그러니까 그 구신이 일러준 글자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인자 하여튼, ‘이상하다’ 하면서 인자 과거를 보러 가는데, 가서 과거를 인자 시험을 보고 앉았는데, 아 이 시험을 문제를 다 쓰고 끄트리판에 가서 영 기억이 안 나서 못 쓰고 못 쓰고 있는데, 아 그게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그 놈의 글자는 몰라도 그대로 써야겠다.”

응. 그렇게 해가지구 글자를 썼는데, 이 사람이 장원급제가 되얏어. 그래가지구 장원급제가 되니까는, 그러자 그 초립등이가 한다는 말이,

“아무디 아무디 방주가 하나 있, 방주가 하나 있는데, 그 방주에 물을 좀 다 품어 내면은 응, 거기서 내 시체가 나올 거라.”

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장원급제를 했으니까, 인자 많은 포졸들을 시켜서 그 물을 다 퍼낸 거야, 인자. 퍼내 가지고서는 보니까, 초립등이가 얽어져 죽었드라. 그런게 이, 그 말하자면 그 초립등이 전, 그 부인이 좋아하는 남자하고 짜고서 갖다 갖다 집어넵, 놓은 거여. 그 방주물에다가 집어던진 거야, 밤중에.

그러니까 행방불명 되야가지고, 이 시아버지는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고령고령 앓고 있지. 아 너무나 괴씸해서 그걸 염탐을 해서 찾아낼려고 아무

리 해도, 그 어떻게 잡지를 못 했는데, 과거보러 가는 도중에 초립동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내가 오늘 시험볼 때 모르는 글을 알려줄 테니, 나의 원수를 갚아 달라.”

응. 그러케 해가지구, 그 말을 듣고 시험을 본 결과 장원급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방주에 물을 다 퍼내니까, 그게 그 시체가 나왔대 이거지. 그래가지구 그 암행어사 출두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인자 그 원수 갚아달라는 그 초립동이에 부인되는 사람하고, 그 새 남자하고 데려다 놓고 인자 무릎을 꿇게 하고서는 이냥 고문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정께, 아무정께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구 거기서, 아주 그 사람들을 극형에 처하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그 증말 방향을, 향방을 찾고 나서는 아버지가 병이 차츰 차츰 나서가고, 그 사람은 그 아버지를 자기의 친아버지마냥 모셨다는 옛날 아주 일화가 있드라고. 내가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

4. 여우 동생을 물리친 오빠

윤정현(67, 여)/평창리T 1앞

[가정집] 박종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땀을 들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이것저것을 묻다가, 여우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너무 기다려서 낡은 딸이 여우이어서 집안이 망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은 낳는데 딸을 못 나가지고,

“아후! 딸 좀 하나 낳으면 낳으면.”

소원을 하고 딸 낳기를 원을 하고 있었는데. 아 우연히 어떻게 참 임신을

해가지고 난 것이 딸을 하나 낳어.

근데, 그 딸이 너무너무 이빠가지구, 아주 참 굉장히 이빠가지구 그 집안에서는 아주 그 딸 딸이라면 다 들어. 다 듣는데, 그 아들의 말은 무시를 하고 안 듣는 일이 있어도, 이 딸이 말하는 건 너무너무 잘 들어주고 신임을 하기 때문에, 아주 딸 딸이라면 잘 듣고 딸이 거기서 제일 대우를 받고 사는데.

아휴 하필이면 그 딸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중만 알고서 그 딸을 귀여워 하고, 딸 말을 잘 듣고 사는데. 아휴 재산도 많고 농사도 많이 짓고 가정이 참 그 동네서 갑부로 산다는 그런 가정인데. 아 자고 나면 짐승 한 마리가 없어지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또 짐승 한 마리가 없어지고 그라드라. 그러니까 인자 소도 없어지고 개도 없어지고. 짐승이 많았는데 짐승이 수시로 없어지니까는, 하루는 그 집 아들이,

“애라! 우리 재산이 자꾸 없어지니까는, 내가 오늘 밤에 망을 봐야겠다.”

하고서는. 잠을 안 자고서는 어디 가서 숨어서, 외양간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가지고서는 하루 저녁을 뜬 눈으로 샅 각으로 망을 보고 있는데. 아 자기 동생 방에서 여동생이 나오더니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부엌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부엌에 가서 이런 저기, 옛날에 나무로 맨들은 함같은 거 있어. 함지박 같은 거. 그걸 들고서나 나오더니 싹싹 이렇게 씻어서 싹내버리고 외양간으로 들어가더라. 자기 여동생이.

들어가더니, 그 소 이 궁둥이에다가 그 그릇을 이렇게 갖다 대고서나는, 팔을 건어 붙이더니 손을 갖다가 그 소 소문애다 막 집어넣고 창자를 다 끊어내더라. 응 끊어내니까는 조금 있다가 소가 그놈이 팍 쓰러져 죽드라. 죽는디 창자 끊어낸 것을 다 맛있게 먹어 치우드라내. 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서나 싹 닦고 지 방으로 들어가니, 날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이 죽어가고 죽어가고 했던 감. 그걸 아들이 보아서 인자 범인을 잡았으니까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한거여.

“아버지! 제가 어젯 저녁에 너무너무 그렇게 날마다 짐승이 죽어가고 그

래서 망을 봤더니,”

이거 즈 여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것이 나오더니 부엌에 가서 함지박을 갖다가 이렇게 소 궁둥이에 대고 팔을 걸어 붙이고, 손을 소, 소문에다 집어넣고 창자를 다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먹고설랑을 들어가더라고. 그래 소가, 그 소가 그냥 갑작스레 쓰러지고 그랬다.”고

“이, 저놈이 지 여동생 하나 있는 것 켜일라고 저런 소리를 한다.”

고 고지를 안 듣는 거야. 응 아주 귀여워서 그냥 그 딸 말이라면 다 듣고, 낮에 보면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고 딸이 인물일랑 이쁘고 그냥 그 딸을 기다리고. 바래다가는 그냥, 귀엽둥이 딸이라 아주 누가 뭐라고 해도 고지를 안 들으니까는, 이 아들이 속이 상하니까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우리 부모가 내 말은 안 믿고 딸만 알고 그러니,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 죽을까’ 싫어서 그냥 집을 나갔는데, 몇 해를 지내서 집이를 들어오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집안에 있는 모든 동물도 다 없어지고 짐승도 없어지고. 아 토방에 가서 이렇게 하나 여수 같은게 앉았는데, 아 지 동생이드라 응. 그래서 아후 눈이 히끗 해가지고설랑은, ‘아후! 저걸 내가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라나. 하고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걸었어.

“나 여수 오빠데 잘 있었냐?”

하니까. 깜짝 반가우면서 소스라치게 웃으면서,

“오빠! 오시냐?”

고. 막 그러드라. 그러자 그러는 척하고, ‘저게 분명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들고서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셨느냐?” 니까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러드라. 그랬는데 아후 아무래도 밤눈 썩는데, 그날 밤에 거기서 같이 잠을 자는데, 문고리를 잠그고 단단히 문단속을 하고 자는데, 밤에 누가 하얀 노인네가 나타나더니 그러드라. 그 빨간 저기 병을 하나 주고, 파란 병을

주는 주면서,

“그 이 병을 가지고 니가 빨리 도망을 가거라. 그러면 도망가다가 그 니 여동생이, 그 여우가 쫓아오면은 막 가다가 금방 잡힐 것 같으면은, 이 파란 병마개를 따서 파란병을 짝 이렇게 뿌리라.”

고 그라드라. 그렇게 참 시키는대로 자고 나서, 아침에 지기 동생 모르게 쌀짝 나와가지고 막 도망하는데, 어떻게 알고서나 쫓아오면서,

“오빠! 같이 가. 같이 가.”

막 쫓아오드라. 그냥 금방, 막 담박질을 어떻게 잘 하는지, 그냥 금방 잡힐 것 같아서 그 파란병을 마개를 따가지고 확 뿌리니까는, 이냥 물이 찰랑 찰랑하니 이냥 냇물이 되드라. 그러니까 거기를 막 허우적 허우적 막, 이 여동생이 오는 거야. 여우니까 오죽 잘 오겠어.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새 짝 담박질을 해서 또 도망을 가는데, 어디만큼 가다 보니까는 그냥 또 이렇게 여동생이 막 뒤쫓아 와가지고 잡을라고 그러는데, 병 하나 남은 것을 확 뿌리니까는, 무슨 가시나무 그냥 울타리가 이렇게 막 되면서 그냥 불이 막 확 붙어 가지고 타드라. 그렇니까는 그냥 못 올 것 아니며, 따라 오다가. 여우가 불을 무서워한다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 오빠는 도망을 해가지고서는 살고. 그 여우는 쫓아오다가 결국에는 가시나무에 걸리고 불에 타서 죽었다는 그런 그런 말이 있드라고. 그러니까 그 딸을 너무나 기다려 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주 딸 하나 낳으면 원이 없겠다.”

허고 밭에 가서 밭 매면서도 ‘딸을 하나 낳으면 좋겠다.’ 허고서 그 공을 드리고 하니까, 딸이 하나 태어난게 그 여우가 태어나가지고, 집안을 바짝 망해 먹었어. 그렇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5. 힘이 쉰 장수

윤정현(67, 여)/평창리T 1앞

[가정집] 박종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는 ‘인제 없다’고 말씀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여러 가지를 묻는 도중에 수수께끼와 서사구조를 갖추지 못한 압행어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여 주었다. 그런 도중에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장수, 여자들이 장수가, 하이튼 남자 장수가, 지하 대장군, [청중 :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그것? 그건 말고. 그건 서낭당에 다 있는 거고.

이건 남자 장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발자국 막 다 땡기며 돌, 돌에도, [청중 : 발자국이 있다데.]

그 여자들은 이 전쟁이 올 때 그 치마루 돌을 썩아 날랐다고, 그 여자들. [청중 : 힘이 있으니까. 그 돌을 그 치마에다 싸 날랐지.] 행주치마 같은 데다.

6. 도깨비에게 훔린 머슴

윤정현(67, 여)/평창리T 1앞

[가정집] 박종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앞의 동물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구술한 뒤에 다시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외갓집 머슴이 겪은 실제 이야기라며 들려 주셨다.

인자 남자들이 게막을 치고서 게를 잡으러 인자 강으로 가며는, 저녁에 인자 게 나오는 것을 잡을라고 이렇게 앉았으면, 한 밤중에 그냥 막 기참한 게막 집으로 온대. 게참한 짝 하는 소리가 들린대. 그러면 와가지고서는 ‘게를 잡는가 보다’ 하고 있으면 막 놔서 이 등짝을 한 대 딱 뚫고 도망을 간대. 아버지가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우리 외갓집의 며슴 하나가, 우리 집이 며슴 하나 있는데, 며슴이 어디를, 술을 얼근히 먹고 어디를 가는데, 심부름을 가는데 소로길로 소로길로 가는데, 아 이렇게 초저녁이 약간 지났는데 앞에서 호롱불을 가진 여자가 나타나드래. 호롱불을 이렇게나 들고서나는 여자가, 이쁜 여자가 한복을 입고서는,

“깜깜한 데 어디 가시냐?”

그러니까는.

“어디 간다.”

고. 하니까는,

“나도 거 가는데 동행을 해 드릴테니까, 이 불빛 보고 오시라.”

고. 그라고 가믄은, 밤새도록 그 빛만 쫓아다니면은,(웃음) 그라고 날 섰다. 그게 도깨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술을 다 깨서 현지에 보면, 도깨비한테 흘러가지고 그러고 멩겼다는 얘기가 나 있더라고. [청중 : 그러니 도깨비란 놈이여.]

지금도 있어. 피가 묻은 것은, [청중 : 피가 묻은 빗자루락 무엇이라고 된다고 허지.] 그라고 씨름하고 막 잡아가지고 씨름하고 보며는 별 수 없이 나무에다 퐁퐁 묶어서 매달아 놓고 오면, 아침에 나가 보면 빗자락.(웃음) 그런 얘기도 나가 들었어.

7. 어쩔 수 없는 죽을 팔자

황재숙(60, 여)/평창리T 1뒤

[가정집] 박중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조사자의 유도와 앞 제보자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셨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씀해 주셔서 듣기에 편하였다. 소극적인 듯 하지만, 조금은 적극적인 면도 엿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웃집에 살던 이야기를 잘 하시는 할머니에게서 국민학교 3학년 때나 4학년 때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루 끝에 가만이 앉아 밖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용한 관상쟁이가 그 사람을 보더니만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아이 당신은 아무 년 아무 달 아무 날 죽을 팔자군요. 그러면서 그날을 조심하라.”

고 그러드래요. 그래서 인자 그 사람은 아이 그 관상쟁이한테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날은 자기가 죽는 날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해서 그냥 살 수가 없어서, 불안한 생각 속에서 맨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에이 그 그날이 왔어. 그날이 와가지고선 그 사람이,

“아이고, 설마 내가 아무 테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죽지는 않겠지. 화를 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는, 아이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비만 오는 것이 아니고 번개,

“우루릉 쿵쿵! 우루릉 쿵쿵!”

그날 정신없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번개 치면서 비가 오고 있더라. 그 래 인제 그 사람이 그 관상쟁이가, ‘아무날 아무시 죽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날이 왔기 때문에,

“에이! 밖에 안 나가면 죽지는 않겠지.”

하고 있다가. 가만이 담 밑에를 보니까는 꽃 하나가 꺾어져서 쓸어져 있더라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꽃을 보니까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그 꽃을 일으켜서 좀 살려 볼려고, 그 비 오는 중에 그 꽃을 일으킬려고 밖에 나왔다가, 그 꽃을 일으켜 주고 살기를 바라고. 여하튼 꽃이든 짐승이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 꽃을 일으켜 놓고서 인제 살리려 하는데.

아이구 그 순간에 죽을 팔자리는 어쩔 수가 없는지, 그 꽃 하나를 살리겠다고 나가서 담밑에 쭉그리고 앉아 그 꽃을 살리고 있는 동안에, 밖에 안 나갔으면 됐으련만 그 순간을 면했으련만, 고때 그냥 그 꽃 하나 때문에 나가가지고는 그 꽃 하나 살리겠다고 담밑에 쭉그리고 꽃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때 담이 그냥 담이 ‘와루루’ 하고 무너져 가지고 그 사람은 그 담밑에 깔려 죽었대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의 팔자리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죽을 팔자로 태어난 사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가 봐요. 왜 그 꽃을 살리지 않을려고 그냥 꽃을 쳐다만 보고 있었으면은, 자기가 담이 쓸어졌을지라도 지가 거기가 없었으니까 살았을 께 아니여.

그러니 팔자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 담이 무너졌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죽었대요.

8. 며느리가 장모되고 딸이 시어머니

황재숙(60, 여)/평창리T 1뒤

[가정집] 박종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앞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하이튼, 옛날 어느 골짜기에 시어머니는 죽고 시아버지만 모시고 사는 젊은 며느리가 살았는데,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 그 지극한 효성이 오래 지탱됐으면 좋은데. 그 효성이 오래 가지를 못하게 아들이 참 죽어 버렸지. 아들이 죽고 보니까 시아버지와 혼자된 며느리가 참 살아야 참 딱해 가지고 시아버지가 그러드래.

“아가야! 난 걱정 없으니까, 너나 다른 데로 가서 잘 살으라.”

고. 그러드래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이구! 제가 가면 아버님을 누가 모십니까? 제가 끝까지 모실랍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착하기는 했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청춘도 한 때라니까, 그 시아버지 하는 말씀이,

“어서 발길을 돌려라.”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혼자 두고 떠나기가 발길이 무거워요. 그러면 아버님 세상 뜨시면 갈란다구. 저 아버님 세상 뜨시면 갈게요”

그 시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니깐. 그 시아버지가,

“에이구! 아가야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상을 치르고 나니까, 또,

“인제 제발 가 달라.”

고.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비는 거야. 그래 며느리가 하는 수 없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갔는데, 황아장사. 황아장사 황아를 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파는 사람. 바로 황아는 끝모, 담배 싹치, 바늘, 실 그런 잡싸, 잡물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사람한테 팔러 갔지.

그런데 물으나마나한 것은 황아장사도 인제 금년에 각시가 죽고 딸자식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처녀를 여월 적에, 시집 보낼 적에 좀 인물이 안 좋았었나부지. 그 새엄마라고 하면서 잘 사는데, 시어머니(시아버지를 잘못 말한 듯) 생각만 하면 맘이 걸려서 밥이 안 넘어가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루는 딸이, 하루는 딸이 뭐라고 그러고 하니,

“전실 딸 아닌가?” 그래.

“아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깐 그 아이 그게 사실 얘기를 쫓 했던 말여. 그러면서,

“내가 그리 시집 가, 시집 가지. 시집 가지.”

그리고서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 주었는데, 내가 가서 시아버지 위해 주느니, 그런데 잊어버린 거야. 한 달, 한 달쯤만에 며느리가 장모가 되고, 딸이 시어머니가 되는 일이 있었지. 희한한 일이지. 참 효자가 악처만 못하다고, 효자 불효 악처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효자 불효 악처, 이젠 바로 늙어도 자식은 짝을 지어야 한다는, 그래서 하는 말야.

사람은 늙으면 다시 남편이 돌아갔으면 다시 짝을 찾고, 부인이 돌아갔어도 다시 짝을 찾음으로서, 늙으막에 자기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항상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

9. 시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셋째 며느리

황재숙(60, 여)/평창리T 1뒤

[가정집] 박종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효에 관련된 말썽을 간략하게 이었다.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말썽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구성 과정에 구복여행담의 변형된 내용이 들어 있다.

애기를 하나 혈께.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가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데리고 살았지. 근데 그 재산이 대대로 물린 재산이라. 이 재산을 어떻게 아들들에게 잘 물려주나 하고, 시어머니가 하루는,

“아무게야!”

하고. 큰며느리를 불러서는,

“이거, 아주 중한 거다. 받아라.”

하고서는. 뽕씨 하나를 시아버지가 큰며느리에게 주었는데. 그 며느리가 그 뽕씨를 잘 받아가지고서는 밖에 나와서 보니까는, 아이 시아버지가 지성껏, 정성껏 주었으니 큰 보물이나 되는가 하고서 조심조심 끌러 보았드라지. 아이 끌러 보니까는 바닷이 주신 것이 뽕씨 한 톨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에이! 이제 시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노망을 하는가 보다.”

하고서는 그 뽕씨를 내버려 버렸어. 그런게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거 아주 중한 거니까 잘 받아라.”

그러고서는 뽕씨 하나를 주었지. 그래 그 둘째 며느리도 잘 받아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바닷 뽕씨 한 톨이야. 그러니까 그 둘째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아이구! 시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 들었나보다. 에이 버리긴 아깝다.”

그러면서는 그 뽕씨를 요번에 그냥 까먹어 버렸어. 그래서 인제 셋째 며느리를 또 시아버지가 불러서 나갔지.

“이것 되게 중한 거니까 잘 보관하라.”

고. 그래 인제 준 것이 바로 뽕씨 하나였어. 근데 이 셋째 며느리는 그걸 받아가지고서,

“야! 시아버지가 이걸 줄 때는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는. 그 뽕씨 알갱이 하나를 갖다가, 그 집에는 참 장난이 심한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말, 말한테서 그 말총 하나를 뽑아다가 훔치기 했어. 훔치기라는 것은 뭐냐면 올개미라는 거여. 그래서 올개미를 지어서 이리저리 엮어서 그 매듭을 지어가지고 이제 마당에다가 딱 두어버렸대.

아이 그러는데, 어디선가 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날라오더니, 아이 날라왔으니까 모이를 찍어 먹었지. 아이 모이를 찍어 먹었는데 보니까, 밭에서 뭐가 확 걸린단 말이야. 그게 뭐겠어 바로? 그 셋째 며느리가 말총을 뽑아다가 훔치기를 해서 거기다 쳐둔 거였지. 그래 새가 한 마리가 걸렸으니 며느리가 가만 있다. 그 새 한 마리 걸린 것을 확 잡아버려 빼렸지. 아이 그런데 그 옆집에서 어떻게 알고,

“그 참새를 약에 쏘려 하니까 달라.”

고 하면서 그거를 달걀 하나하고 바꿔 버렸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준 뱀씨하고 바꾼 거지. 뱀씨 하나하고 글To 달걀 하나하고 바꾼 거야. 그런데 이 바꾼 달걀을 가지고서는 인제, 옛날에는 그 부화라는 것이 있지 않고, 그 닭이 달걀을 품었다가 인제 병아리가 생겼는데. 그 달걀을 막 품고서는 한 스무하루가 되어서 보니까는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되었거든.

그 병아리를 이제 잘 옮겨서 잘 길러서 인젠, 병아리가 커서 뭐가 되었어. 암탉이 되지. 암탉이 되면 또 그게 커서 어떻게 돼요. 알을 낳지. 그 암탉이 또 알을 낳가지고, 그 알을 이제 또 그 응 닭 품에다가 품으니까 병아리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여. 알을 품은 그 병아리 인제 그 계란이 또 병아리가 되어서, 그 병아리가 인자 많아진 거지 뭐.

근데 이제 그 병아리를 남에게 주어서, 이제 남에게 주어서 이제 옛날에는 반씩반씩 이렇게 나눠. 이렇게 길르는 게 있거든. 그것더러 배내기라구 그러는데. 인제 그 병아리를 남한테 나누어 줘가지고서, 인자 썩기 나면 반씩반씩 이렇게 노나서 갖기로 했는데. 아 이 그 병아리가 썩기를 낳구 썩기를 낳구 하다 보니깐 그 숫자가 많아졌지.

그러게 그 많아진 그 숫자를 인제 그 병아리 숫자를 병아리를 인제 팔아가지고서 만들다 보니까, 인제 돼지도 살 수 있었거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병아리가 돼지가 된거야. 그래 또 돼지를 동네사람에게 다 나누어 가지고서 많이 거둬 들이니까, 아 이 그걸 가지고 보니까 또 소를 살 수가 있어. 그래 소를 사가지고는 또 송아지를 난거지. 이것두 인제 믿는 사람한테, 믿을만한 사람한테 이제 또 노나주어 가지고서 그것을 한 십 년쯤 하다보니까 이제 그 송아지가 또 논이 돼 버렸네.

또 논을 사다보니까는, 논을 사면 거기서 곡식이 많이 나와서 그 또 곡식을 팔 거 아녀. 그런데 곡식 판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또, 그 세째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준 그 벼톨 하나 가지고, 벼씨 하나 가지고서 참 재산을 많이 늘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아무개야!”

하고서는,

“10년(전)에 내가 준, 벼톨 준 것을 어찌 됐느냐?”

구 묻거든. 며느리가 셋이나 있으니, 셋 며느리에게 ‘다 주었지 않냐?’ 그러니까 따른 며느리들은 그걸 인제, ‘노망이 들렀다’고 버린 며느리나 또 까먹은 며느리나 얼굴이 빨갱게 홍당무가 되었지. 정신도 못 차리는 거야. 인제 그간 10년이 지났으니, 시아버지가 벼씨 하나 준 것을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인제 둘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아무 때 네게 벼씨 하나 준 것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네-?”

그래. 그리고.

“아 그때 시아버지가, 아버지 준 것 그 아까워서 내가 까먹어 버렸죠 뭐.”

그러니까는 시아버지가,

“에이!”

그리고 인제 그냥 한숨을 쉬는 것이야. 그러다가 인제 셋째 며느리 또 불러가지고,

“야! 내가 아무 때에 네게 벼씨 하나 줬지. 어떡했냐?”

그러니까.

“예!”

그래가며,

“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아 이 시아버지 앞에 내놓는 것이 무어나 하면, 논 세 마지기 그 문서를 딱 끌러가지고 시아버지 앞에 내노니깐,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어.

“으!”

하고.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면서 그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아들 며느리 서이(셋을) 다 불러가지고서는,

“애들아! 들어라. 우리 집 재산은 대대로 물려온 재산이다. 대대로 이 재산을 지켜왔는데, 이것은 큰 아들이 당연히 상속권을 이어받아야 옳을 이야 기다마는 재산을 지키고 살림을 이어받는 데는 그 집 며느리가 다 하는 거다. 그런께마는 남자들이란 그 집안 그 가산사를, 물론 가산사라는 것은 집안에 일이지. 집안의 사사로운 일.(개인적인 말은 생략) 그 가산사를 잘 모르는 법이다.”

하면서. 안 사람은, 안 사람이란 것은 며느리를 말하지. 그 며느리들한테.

“옛날 그 큰 며느리한테 내가 준 그 법씨도 기억도 없이 잊어버리고, 이 고지고서야 이래가지고서야 뭐, 이 큰 재산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둘째 며느리는,

“큰 성이 아니면 당연히 이어받는 것이지만, 내가 보니 홀랑 까 먹었으니 이래서야 어찌 재산을 내게 땀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시고.

“세째 며느리를 봐라. 그러시고 세째 며느리도 똑같은 법씨 하나를 주었는데도 시아버지가 준 그 법씨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아무래도 이 법씨 하나를 줄 때에는 그 속에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서는, 그 법씨를 늘리고 늘리고, 늘리다 보니 큰 재산이 된거야.”

그러니, 그 세째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그 재산을 맡길 수밖에 없었지. 큰 아들 그렇지. 둘째 아들 그렇지. 믿는 건 이제 세째 아들 뿐. 세째 아들이 아니라 세째 며느리지.

“며느리가 그만큼 며느리들은 그 집안에 일을 잘 맡아내면 그 집안이 부자가 되고, 또 잘못하면 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살림이기 때문에 며느리 손에 달린 거야. 그래 십년 후에 이제 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세째 며느리도 너는 십년 후에 내 재산을 다 모인 것이다 하면서, 내 유언이 대들보에다가 저 유언서를 얹어 누었으니까 그 때 보거라.”

하고서. 세째 며느리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초상을 치르고 나간 두 아들이 이제 이를 악물고 밥을 먹고 살아. 고생고생해서 노동일도 하고 머슴일도 하고 이제 잘 살게 되었지. 그러다가 십년이 되어서 아들 삼형제들이 늦게서 깨달았던 것이여. 이제 그 십년 후, 바로 제삿날 대들보에서 아버지가 써 놓은 그 유언서를 내려다가 다들 거기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글이 써 있느냐 하면.

“그 동안 큰 아들 큰 며느리,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쓰셨어. 그러면서,

“셋째 아들 셋째 며느리도 니들도 많이 애썼다. 그만하면 재산 일구고 일으키고 잘 살겠다. 그러시면서, 셋째의 관리 하던 재산을 이제 삼형제가 똑같이 삼분의 일을 나눠 갖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의리 지키고 잘 살아라.”

이렇게 써 있었던 것이여. 그러니 삼형제가 안팎으로, 서이가, 셋이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그 유언 속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궁금도 했겠지만. 십년을 살고 그 유언을 뜯어보니, 유언장을 뜯어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은 헤아릴 수 있는 그들이 되어서, 그 자식대에게도 이제 내려오며 내려오며 그런 얘기를 해 주셨겠지.

그러니 뭐 그들도 다 착하고, 그 대대손손이 잘 살며 번창했을 줄로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끝에는 뭐 나쁜 일일 수밖에. 나쁜 일만이 연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그걸 잘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지만서도, 그 얘기 들으면 아버지의 깊은 뜻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 같으니까, 그 옛날 얘기, 옛날 얘기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 같으니까, 그 말이 전해전해 오면서, 대대로 자자손손 이러한 그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전해 됐으면 좋겠지.

지금 애들은 뭐 옛날 얘기를 알기나 허나 뭐, 옛날 얘기라는 게 뭔지도 참 모르는 애들이 많을 거야.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옛날 얘기를 찾고, 옛 것을 되살리고 애쓰는 그런 것을 볼 때, 뭐 앞으로라도 태어날 애들이 옛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 학생들이 여하튼 이렇게 옛적부터 내려오는 옛날 얘기를 또 전해질 수 있고, 또 전해짐으로써 우리의 옛날부터 내려오던 옛 얘기들이, 얘기들이 일단 좋은 기회 좋겠네.

다. 민 요

1. 참깨 들깨

윤정현(67, 여)/평창리T 1뒤

[가정집] 박종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앞의 <설화 6>을 마치고 조사자가 ‘밭을 매면서 부른 노래 없습니까’ 하고 묻자, 좀 생각을 하다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특히 사람 차별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음영조로 불러준 노래이다.

참깨 들깨 놓는 데다
편자가 왜 일일까

땀쌀 찹쌀 놓는 테다
보리쌀이 웬 일일까.

라. 수수께끼

윤정현(67, 여)/평창리T 1앞

[가정집] 박종수, 강현모, 김진영, 권미란 전은경 조사 (1995. 5. 13.)

1. 배만 하나인게 무엇이나? 바늘
2. 앞으로 먹고 등허리로 똥싸는 무엇이나? 대패
3. 낮에 열고 밤에 닫는 것은 무엇이나? 대문
4. 파란 주머니에는 은돈이 들어 있고 빨간 주머니에는 금돈이 들어 있는
게 뭐냐? 고추
5. 장도 장도 못 먹는게 뭐냐? 송장
6. 떡도 떡도 못 먹는 떡은? 흥떡

여

백

제일리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최선희, 이소은,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제일리는 양지리에서 동쪽으로 2Km정도 떨어진 양지톨게이트가 있고, 이천이 가는 국도변에 위치한 용인터미널에서 버스로 7-8분 거리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제일리는 개나라리라고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산매동과 세동 일부를 합하여 제일리라 하여 내사면에 편입하였다. 나리는 하천, 땅 등의 뜻이 있는데, 이런 나리를 날로 잘못 생각하여 일자를 한자로 기록하여 생긴 명칭이다. 읍지에 이곳을 개천장으로 기록된 것은 개나라리의 뜻이라 하겠다. 이런 개나라가 제일(齊日)리로 명명된 것은 개인 날의 의미를 옮겨놓은 듯하지만, 이곳에 장터라는 지명이 있어 장이 섰던 곳을 알 수 있다.

제일리를 이루고 있는 자연마을을 보면, 공세동은 공세울, 공서울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걷어 나라에 바치던 창고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한자 명칭이다. 산매동은 마을 형국이 산막처럼 되어 있다고 산막골이라 하였는데, 음이 변하여 산막동(산맏골)이라고 한 것을 산매라고 쓰게 되었다고 한다. 간리는 셋말이라고 하는데 공세울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고, 밤나말은 밤나무가 많이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고, 장터는 옛날에 장이 섰던 터라고 붙여진 이름이고, 절골은 미력산 밑의 절이 있던 곳이라 불러진 이름이다.

제일리는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라기보다 수도권외곽지역의 특징적인 마을이다. 교통이나 가축으로 인한 잡음이 청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농번기이어서 대부분 농사일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 회피하여 설화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설화 수집에 용이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대부분

의 집이 텅비어 있어 곤란하였다.

나. 설화

1. 켄일리의 마을 유래

이영재(58, 남)/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조사자들은 제일리에 도착하여 제보자를 찾아다녔으나 쉽지가 아니 하였다. 한 동네에서 제보자를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곳 마을의 유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었다.

요리 지나가다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 보니까 비가 그쳤다. 그러니까 갯나루. 그래서 개 자, 개일 개, 날 일자, 날이 개였다는 얘기에. [조사자 : 날이 개였다고요?] 응. 그래서 제일리. 이를테면 개날리여. 제일리가 갯날이여.

그런데 옛말이 여기를 이르면 갯날이고, 지금은 제일리라고 하지. [조사자 : 그래서 거기에 그게 쓰여 있었구나.] 옛날엔 개나리로 통했지.

2. 추계 송대감

표내순(67, 여)/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것저것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였다. 지금은 일이

바빠 이야기 할 시간이 없다고 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이곳저곳 다녔다. 그 때 제보자를 만나 이곳에 살았던 인물에 관련된 일화를 듣게 되었다.

저기 내가 여기 시집을 왔는데, 왜정 때 왔는데 그 송대감이라고, 그래서 저 일본 사람들 그 저 세상이야. 그래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밥을 이고, 농촌 이니께 밥을 이고서 나갈게 아니여. 눈에 일꾼들을 맥일라고.

나가면은 그 송대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그러니께 송대감이라는 사람 사촌인지 촌수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인자 마을에서 죽 밥을 이고 나간다. 나가면은 딱 위에 쫓아오면서, 뒤를 쫓아오면서,

“각!”

하고 기침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저 밥상을 이고 이렇게 쳐다볼 게 아니어. 그럼 딱 치며는 이 어깨쪽지를 딱 붙잡어, 이렇게. 인저 무서운 거야. 그럼은 우리는 꾀작 못 하는 거지, 그때. 왜정 때니께, 응. 우리 사회는 왜정 때였었거든, 그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서워니까 스(서)는 거지. 인제 촌사람이니께 더 무서울 게 아니어. 무서워서 서서,

“왜 그래요? 인저 응 왜 그래요?”

그러면은,

“밥 바꾸니 좀 내려 놓으라.”

고. 인자 조사를 하는 거야. 인자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려 놓고는,

“왜 내려 놓라고 그래요?”

그래 쌀밥을 해면 말이지,

“왜 쌀밥을 해 먹느냐?”

고. 응 쌀을 그때는 감추 가면서 먹었어요 우리가 농사를 저도 감춰 가면서 먹었어요. [조사자 : 감춘 것 찾으라고요?] 응. 그렇지. 와서 감춰도, 감춰 눈

모두 그냥 파보는 거라.

“깡, 깡, 깡!”

쌀 묻은 데는 이 소리가 이상하잖아. 이런 당, 이런 땅은 ‘쿵, 쿵, 쿵’ 소리 나는 데도, [조사자 : 쌀 묻은 데 보느라고요?] 그렇지. ‘덕쿵, 쿵쿵’ 소리나는 데는 쌀 묻은 거지. 그러며는 그건 자기네들이 뺏어가는 거야, 무조건 하고 뺏어가면 뺏기는 거지 뭐. 빼기는 거여. 꼼짝없이 뺏기는 거여. 그래서,

“왜 이렇게 쌀밥을 해 가느냐?”

고 그랬지. 그러면은,

“일꾼들을 줄려고 쌀밥 해 가요.”

인저 우리가, 무서우니께 쌀밥, 그러며는 또 막 일본말로 말이지 욕을 하는 거야. ‘빠가야로’ 이렇게 이러면서 말이지.

“공출을 해야되는 건데, 니의 농사지었다고 니 맘대로 먹느냐?”

고 허면서 이자 야단을 맞은 역사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역사에, 그냥 밥을 이고 나가면 아주 외고 그러는데, 일꾼들 밥 먹는 데도 와서 조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참(셋거리)을 어떻게 해 가지고 먹느냐? 쌀밥을 해 가지고 먹냐? 보리밥을 해 나가서 먹냐? [조사자 :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응? [조사자 : 걸리면 그냥 쌀만 뺏어가요? 아니면 또 데리고 가서.] 인자 데리고 가거나, 아이 안면이 있으니까 인자 여기, 안에 [조사자 : 여기 안에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3. 도깨비 불

표내순(67, 여)/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 사람에게 대해 계속 설명하여 주었다. 그래서

조사자가 이곳에 있었던 도깨비에 대해 문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이곳으로 처음 시집을 왔을 때 실제로 경험한 것이라 한다.

왜정 때 일본 사람들에게 수배 당하는 것들을 봤을 거야, 학생들도. 고 시절에 내가 시집을 왔어. 그 시절에 고 시집이라고, 지금은 참 결혼식을 여간 잘 해요. 새겨 가지고서도 정을 들이고 가죠. 나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응 참 밤바닥에 기차로, 밤에 기차를 타고 시집을 왔어요.

나는 먼저 수원서 여기 시집을 와서 사는데, 닭을 봐도 우섭고, 응 소를 봐도 우섭고. 당채 본게 있어야지, 도대체가. 그런 걸 봤었어야 말이지, 수원서. 내가 수원이 고향인땡게, 보며는 노인네들은 숨을 가지고[청취불능] 아 마 지금들은 모를 거야.

그랬는데 하루는 비가 왔어. 비가 와 가지고는 인제 불 일 보러 인제 화장실 왔는데, 나왔는데, 나왔는데, ‘도깨비, 도깨비.’ 해도, 도깨비가 뭐가 도깨비인가를 나는 그거를 몰랐었던 말이지. 몰랐었던 것지. 아 그랬는데 딱 화장실에 앉아 있으니까, 막 그냥 퍼란불이, 퍼란불이 똥집에서 본 건데, 퍼란불이 그냥 팍팍 허는 기가 있었어. 그때는 여기 비설도 읊었어. 전기같은 게도 읊었지. 전기 들어온 지는 인자 한 30년 됐나? 여기 전기 들어온 지가. 시골이라 호롱불 갖고 살았거든.

아 퍼란불이 아 드그드그덕 하더니 안 보여. 어디로 간 곳 읊어. 그래서 우- 깜짝 놀래서 인제 그냥 어른들 계신디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들어가서 인제 막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놀랐으니까. 그 변을 불러다가도 놀랐으니까, 막 무서우니까 안 나오는 거 있지.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또 인자 불일 보고 싶어.

그래서 나와서 인제 그래도 인자 등잔불을, 그때 광술, 광술이라면 알까. 그래 그것을 인자 켜가지고 광에 갔더니만, 가서 앉았어도 그냥 혹시 또 그냥 퍼란불이 어리어리한 것 같아. [조사자 : 안 꺼져요? 화장실 안에서요?] 아니지. 지금은 딱혀 있지만, 그때는 나무대기로 대충 막아 났거든. 그러니

게 그냥 휘청대지. 장정이 한 번 딱 치면 나무떼기가 푹 뿌러지면 그놈 들나 들고. 애들이 그냥 개구녁으로 드나들 듯이 그랬었지.

아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께스로 퍼렸던 불이, 이 저녁에 본(변)색을 해가지고 불빛이, 불빛이 뭐라고 그럴까. 조금 노란빛이 에 나는 거야. 그게 도깨비이라는 거여. 그 불을 내가 보고서 방안에 들어가갔고, 그랬는디 노인네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헛개미를 봤구나!”

그래갖고

“아니요. 진짜 내가 본 거예요 내가.”

직접 내가 본 사실대로 얘기해 준 거이라고 하면서, 노인네들한테. 그거는 내가 기억을 해 갖고서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해.

4. 수수께끼 설화

고금선(64, 여)/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그때 마침 이사하기 위하여 집을 수리 중인 제보자를 만났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수수께끼형 설화를 내어 주었다.

소마차 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저 소에다 소 달구지 미구 짐 실어 나르는 사람. 달구지. 그 달구지 끌고서 마당썰이를 갔어. 마당, 마당썰이를 가서 미(뫼)라고 허는고 허니,

“여기 저 이 몇 바리나 들었소?”

이렇게 주인, 주인머님, 마담보고서 얘기를 허니까.

“이것까지 천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소 뿔이 둘 아냐. 다리가 넷이고 그럼 여섯 개란 말이야. 그래 소, 소 뿔이 천이요,

“다리하고 천, 뿔하고 천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몇 마리여.(웃음) 소가 몇 마리가, 몇 마리가 들어 가겠어, 그 마당 속에. [조사자 : 뿔이 천 개에 다리가 천 개요? 뿔이 천 개에 다리가 천 개요?] 그래. 소 한 마리에 뿔이 두 개고 다리가 넷 아니냐? 그러니 여섯 개지, ‘기우 좀 먹이철이여, 다리하고 뿔하고 천이니, 천이면 소가 몇 바리가 되냐?’ 그 말이야.

그거 계산해 봐. [조사자 : 송아지가 끼었다는 것이] 그 여하튼 뿔 없는 송아지가 한 마리 들어가야 숫자가 나온다 그 말이야. [청중 : 뿔 없는 송아지.] 뿔 있는 송아지가 들어가서는 안, 숫자가 안 나와. 뿔 없는 송아지가 들어가야 숫자가 나와. 계산해 보면 숫자가 나와.

5. 개금으로 부자된 효자

김춘석(?, 남)/제일리T 1앞

[제일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에게 수수께끼형 설화를 듣고 너무 바빠 새로운 이야기를 채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자리를 옮기는 도중에 만났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산에 저 나무해서 땀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이 나무를 죽죽 끊으니까 말이여 개금이 나오더라. 그래,

“이 하나는 아버님 갖다 드려고.”

또 굵으니까 또 나오드라.

“이것은 어머님 갖다 드려고.”

인자 나무 하는데, 계속 나오는데 귀신이 거기에서 사네. 그래서 인자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 아 그래서 늦어서, 난데없이 어떤 놈들이 평양 불꽃대회 해가지고 붙은 놈들이, 이런 붙들어 가더라.

붙들어 갖다 놓고서 막 뚜드니네. 뚜두리면서는, 사람 남자 자지 있잖아. 자지를 막 잡아 빼드라. 실컷 뚜드려 맞고서는, 인제 그렇게 했는디, 그래서 인자 마침 이놈들이 같이 나갔으면, 수근수근 대고 이게 하시고 허니 입장이 되어야.

“아무디 파며는 무엇이가 들었다.”

인자 그 그 얘기를 들었거든, 두드려 맞고서는. 그래서 인제 참 그 둘째날 새니 인자 가가지고서는 거기를 파니까, 음달 움푹한 단지가 하나 나오거든. 그 놈 파니 큰 단지가 하나 나오고 그래서 금방 부자가 되드라. 도깨비한테 밤새 두드려 맞고서도, 그런 얘길 들었어.

6. 삼 형제가 함심하도록 한 아버지

장제식(?), 남/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에 노래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를 강연 비슷한 조로 말을 하였으며, 뒤에 명심보감에 관련된 글귀를 인용하면서 장광설하게 인륜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다.

에 지금부터 오래된 옛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아들 삼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고이고이 길렀

어요. 그러다가 세월은 흘러흘러 아버님의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아제, 애비의 말을 들어라. 뒤에 수수밭이 있으니 가서 수수대를 꺾어 오라.”

고 했어요. 꺾어 왔는데, 맏아들을 보고,

“수수대 한 개를 부르라(부러뜨려라).”

고 했습니다. 부러졌지요. 두 개를 가지고 합쳐서 부러지겠어요. 또 부러졌습니다. 세 개를 합치니까 불리지 못 했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경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끝에 남기는 말씀이,

“너희들 삼 형제가 지금부터 나가서는 이 수수대대로 푹푹 뭉치면 살고, 시대만큼 헤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망(강의 잘못)하다.”

하는 것을 남겨 놓고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에 이 삼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길삼아,

“아, 우리 형제가 합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는 것을 아버님한테 배워서, 참 삼 형제가 단결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좋은 인물이 되었답니다. 이상입니다.

7. 처녀를 희롱한 중

유홍춘(62, 남)/제일리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의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옮기는 도중에 만났다. 제보자는 이야기의 내용이 좀 야한 것을 의식하여 녹음하는 것을 꺼려하여 할 수 없이 녹음 없이 최대한으로 받아 적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중이 있었어. 중이 있었는데, 이제 시주를 다니는 거야. 다니다가 우물 옆에서 처자를 본거야. 처자가 뭔지 알아? [조사자 : 예! 처녀요?] 그렇지.

근데 그 중이 처자한테 나쁜 마음을 품은 거야. 그래서 처자한테 가니까 막 도망을 갔어. 집으루 들어가는 거야. 그래 그 중이 집까지 쫓아가서 붙렸지.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그 처자 부모가 나온단 말야.

“무슨 일ियो?”

중이,

“방금 들어간 그 처자가 댁의 손이 아니요?”

하고 물었지.

“아, 맞다.”

고 그러니까 중이 그랬어.

“그 처자한테 나쁜 일이 있어서 불공을 들여야 한다.”

고 그러니까 부모가 안 믿는 거야. 안 믿지.

“그러면 내가 증명해 볼 테니까, 처자를 불러 달라.”

고 그래서 그 처자가 나왔어. 중이,

“다리 한 쪽을 들어보라고 거시기가(일동웃음) 빼들어 졌을 거라.”

구 했어. 아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라서 다리 한 쪽을 들어 올렸더니 진짜인 거야. 다리 한 쪽을 올렸으니까 빼들어질 수밖에 없지. 중이,

“내가 고쳐줄 수 있다.”

고 해서 하룻밤을 그 처자랑 같이 잤어. 다음날,

“다 고쳐졌을 거라.”

고 그 처자한테 양쪽을 다 들어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진당 똑바로 된 거야. 그래서,

“부모가 고맙다.”

고. 양식이랑 옷이랑 잔뜩 해서 중한테 줬다는 얘기가 있어.

다. 민요

1. 모내기 노래

원제남(73, 여)/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에게 더 이상 채록할 수가 없어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다녔다. 그때 만난 분이 제보자이다. 제보자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조사자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수수께끼부터 말씀하여 주었다. 그래서 노래나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불러 주신 노래이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개가 많이 짖어서 청취하기가 어려웠다.

여기 저기 꽃드라도
삼백 석 짜리만 벌어 주소.

[조사자 : 무슨 노래예요?] 모낼 적에 부르는 노래야. 삼백 석 짜리만 해달라고. [조사자 : 삼백 척이 뭐예요?] 삼백 석이 뭐야? 삼백 석이지. 아~ 근게 풍년 많이 들게 해달라고. [조사자 :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추수할 때 하던 노래는 없어요?] 어~ 추수할 때.

2. 백발가

원제남(73, 여)/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의 노래를 마치고 그 노래에 대해 설명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불러 주신 노래이다.

농촌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 마라.
나도 잊그적에는 청춘인데
오늘날은 백발이다.

이런 것도 적어 가? [조사자 : 예! 그런 것은 언제해요?] 응~ 모심을 때도
하고 아무 때나.

3. 석탄 백탄

원제남(73, 여)/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의 노래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불러 주신 것이다.

석탄 배탄 타는데
연기가 나는데
요 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짐도 안 나네
어야라 난다 디어라
허송 세월을 말아라

[조사자 : 그거 언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거 속상할

때 부르는 거야. 석탄 같은 것이 타도 연기 나는데, 내 가슴 타는데 왜 연기가 안 나오는 거야. [조사자 : 아~ 시집살이 노래는 없어요?] 난 시집살이 안 했어.

4. 연밥 따는 아가씨

원제남(73, 여)/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의 노래에 이어서 계속 불러 주신 것이다.

연못꼭지 영낭하네
연밥따는 저 여자야
연밥일랑 내 따줄께
내 품안에 정들어라

[조사자 : 언제?] 내 품안에 들어와서 정들라고 내가 남자잖아. 저 여자야 내 품안에 잠 들어라. 아 거 진짜 옛날 노래야

5. 모찌는 소리

장제식(? , 남)/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 (1995. 11. 11.)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였으나 아는 이야

기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가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에게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다 했네 다 했네
여기도 저기도 했네
산모퉁이 갈미봉에
여기도 저기도 했네
한 침 두 침 모침을
여기 저기 벌려 놓고

라. 수수께끼

원제남(73, 여)/제일리T 1앞

[제일2리] 박종수, 강현모, 이소은, 최선희, 김영철 조사(1995. 11. 11.)

흰 비둘기 열두 봉 칙사리에 흰 비둘기 앉아 있는게 뭐야? 몰래.

열두 봉 칙사리에 흰 비둘기 앉아있는 거? [조사자 : 열두 봉 뭐요?] 칙사리, 칙사리 열두 봉 칙사리이여. 열두 봉 칙사리 위에 흰 비둘기 앉아 있는 것이 뭐냐니까? [조사자 : 하얀 비둘기요?] 응, 하얀 비둘기. 그걸 가르쳐 내봐, 그럼 여기 나오지. [조사자 : 뭐지?] 지금 아가씨들 그걸 몰라. [조사자 : 뭔데요?] 몰래. 옛날에 길쌈할 때 몰래. [조사자 : 그럼 길쌈하면서 들은 얘기나 하시던 얘기 없어요?] 나 그런 거 다 잊어 버려서 몰라.

용 들은 싸우고 곰베팔은 춤추고 그게 뭔지 알아?

씨알

씨알, 씨알~~ 하나도 모르는 거니 가르쳐 주는 거야. 옛날에는 모 내려가서는 이렇게 씨알을 했어. 씨알하는 것은 용 둘이 싸우고 곰베팔 손으로 줍는 거여. [조사자 : 곰베팔? 곰베팔이 뭐여요?] 곰베팔이라고 있어. 손으로 줍는 것을 보고 곰베팔이라고 하는 거야. 곰베팔은 춤추고 용 둘은 싸우고 싸워야 인제 그게 나오는 거야. 목화는 시방. 목화도 모르지 아가씨들? [조사자 : 예! 목화는 알아요.] 목화 알아. 그럼 씨알에 트는 거여.

여

백

추계리

가. 마을개관

박중수, 강현모, 박준범, 서정협, 박기준, 최정환, 박준범, 손동희 조사 1995. 5. 13.
2000, 5, 18

추계리는 양지리에서 동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이천으로 가는 국도변에 위치한 용인터미널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이 추계리는 주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추계리에 공세동 일부를 합쳐 추계리라고 하여 내 사면에 편입하였다. 추계리는 원래 고미령이라고 하였는데, 고미령이라는 곳의 원을 지낸 사람이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살아서 그 태호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에 이곳에 현이 있다가 없어져 양지현의 별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추계 추씨의 시조 묘가 있었고 추씨들이 많이 살아서 추계리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없다.

추계리를 이루는 자연마을을 보면, 내추계는 추계리의 안쪽에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외추계리는 괴밀양, 공밀양, 고미령이라고 추계리 바깥쪽에 있어 붙여졌다. 건너말은 추계리의 건너에 있는 마을이고, 서촌은 추계리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불리는 이름이다. 이런 추계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고 있었으며, 변변한 상점도 하나 없는 농촌의 모습을 거의 잃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어 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추계리의 조사는 1995년 5월 13일에 박준범, 서정협, 박기준이 조사하였고, 2000년 5월 18일 최정환, 박준범, 손동희가 추가 조사에 임하였다. 이 지역에서 을사 오적의 하나인 송병준에 관련된 사실담이나 이야기를 많이 채록되었다. 이 송병준에 대해 국가적인 역적으로 몰아 붙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였다며 역적소리를 들을만큼의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다. 또 하나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천쌀’이라고 하며, 자랑을 하였는데, 깨끗한 물로 농사짓기 때문에 빛깔과 맛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예전에 유명한 장터가 있었는데 없어져 아쉽다고 한다. 이 지역 조사에서도 정확하지 못한 정보인 것 같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른다며 설화 조사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 설화

1. 추계리의 옛 이름, 고미령의 유래

이창(79, 남)/추계리T 1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박준범, 서정협, 박기준 조사 (1995. 5. 13.)

이창 할아버지는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시고 할머니는 세탁기 옆에서 빨래를 하고 계셨다. 조사자들이 도착하여 ‘이 마을에 대한 전설이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윗분들로부터 전해들었던 이야기 또는 우스갯소리도 좋구요.’ 하자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의 본관은 연안 이씨로 부부만 두 분이 살고 계셨다.

이 부락이 예전에 고명(古名)으로는 고미령이며, 고미령. 고미령인데, [조사자 : 고자허고요, 그 옛날 이 마을 이름이요?] 옛날 이름이. 고미령이며, 부락 이름이. [조사자 : 고자허고요?] 고기 [조사자 : 고미령.] 고미령. 여기 고미령이라는 군이 어디여. 고미령. [조사자 : 요 근처에 있나요?]

없어. 저 하도(아래 있는 도)여. 고미령이란 군이. 그- 저기 요 인제 동그란 산이 외봉산인데, 예- 거기 거 뒤에, 거기 밭이 크게 있어. 거기다 집을 짓고, 또 그 밑에는 논, 논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래 큰 연못을 파고서 그 북편에다가 나무를 심었어. 느티나무라고 알지? 거목. [조사자 : 큰 나무태기.]

응. 그게 몇 아름 잔데, 시방 그게 그저 살아 있어. [조사자 : 지금도요?] 응. 삼사백 년 됐는데. 그래 그 느티나무가 그 연못에, 연못 안에 그- 섬을 맨들 어 거기다 심었다 말여. 근데 그 연못은 다 며(메워) 읊어지고, 논을 맨들 어서 농사를 짓고 살구 하구. 그 나무 그저 거기 살아 있어.

그래. 그 여기가 왜 고미령이냐 하면은, 그- 고씨가 고미령 고을을 갔어. [조사자 : 고씨가요?] 원(院)! 응. 가서 인저 거기다가 인자 그 원 사니까는, 그 저, 인저 그 분의 택호를 저거지 인자 직함이지. 그걸루 인저 그걸 피해 서문에. 거기가 인저, 잉 부락 사람들이, 예전엔 그 몇 집 안 됐거든, 옛날에. 삼사백 년 전이니까는. 예전에 이런 촌에 한 너덧 집, 서너 집 밖에 더 살았 어.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인저 저 거길 갈라면 인저,

“고미령 댁엘 가거라.”

이제 타동(다른 동네)에서두,

“자네! 어디 가나?”

“저 고미령 댁에 가”

그래서 인저 대감(?)을 그만 두구서는 여기가 고미령이 됐어. 부락 이름이. 예전에 고미령이여. 고미령.

[조사자 : 그러니까 한 그 집안 그 어른신 그 분이 이름 때문에, 여기 마을이 고미령이 됐군요?] 그 분의 이름은 그게 고미령이 아니구, 인저 저기지 뭐 직함이지. 벼슬, 그 직함이란 말여.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고미령이 됐 구.

2. 추계의 유래

이창(79, 남)/추계리T 1앞

[지택] 박종수, 강현모, 박준범, 서정현, 박기준 조사 (1995. 5. 13.)

고미령에 유래에 이어서, 같은 지역의 이름이 추계로 바뀐 이유를 설명하여 주었다.

그 후에, 에 그 후에 이조 그때가, 에- 그러니까는 선조 전이여. 선조 전에 선조대왕 전에 다시 여기가, 또 부락 이름이 다시 저기가 됐거든. 그때 저 내사면 양지라고 있어. 저기가 그때는 읍이여. 저기가 [조사자 : 읍이요?] 응. 양지읍이구. 여기두 추계데, 인자 추계읍이라구 했어, 예전에는. 그때 판에,

인제 고미령이 밀양 고을을 가구 해서 그때 그 여기가 고미령인데, 인제 그때 그 선조대왕 그 무렵에, 여기가 다시 인자 저기 여기 저 인저 관사가 들어서구. 요 안마을에. [조사자 : 관사라면 뭘 보구 관사라 하나요?]

군청. 군(郡). 고을 군사. 군수가 그 관사거든. 그래가지고무네 여기가 인제 추계가 됐어. 추계. 왜 추계가 됐느냐? 추계라고 했느냐? 이 동네가 추계라는 그 이름을 다시 곤쳤거든, 그때. 곤쳐기주구, [조사자 : 선조대왕 때요?] 그 선조대왕 후인가 봐.

그 뭔가, 그 에- 그것이, 그래서 인자 여기 사는 사람이, 그전에 사는 사람이 성을 추가라고 했어, 본이. 추가라는 추자, 가을 추자 봤지? 추가가 있어. 요 그런데 여기가 본이란 말여. 본이 어디냐면 추계 추가라 그 말여. 근데 그 사람들네들이 인자 그렇게 돼서, 오래되록 백 년 이백 년 살다가는 인제 자꾸 퍼져 나가는데, 여기는 추가라구는 읍어.

[조사자 : 이 마을에는 현재 추씨가 없나요?] 없어. 없어.(웃으신다.) 요 안편 마을에 호수가 많아. [조사자 : 추씨가 그림 본이 하난가요?] 하나여. 추계 추씨 하나여. [조사자 : 이 마을에 본이예요?] 추씨 본이여, 여기가.

근데 추씨네들이 여기 산소를 찾으러 와. 근데 적어두 한 이백 년 전 묘이(묘)가 요 곤(근)방에 있거든. 근데 그게 추씨네 묘인데 못 찾아. 그 사람네들이 못 찾는대구. 그건 그 예전에 내려오는 그 전설인데, 그래서 추씨네들은 사방 다 헤어져 살고, 가끔 찾 찾아 와, 여기를. 그래 선대 산소를 찾으러 니까는 어떤 묘인 줄 알고 찾을 수가 있나, 하두 오래 되서. 못 찾구 가구,

못 찾구 가구 했다구.

[조사자 : 아까 말씀하신 그 고미령이, 그러면 이 추계리보다 그 더 넓은 지역을 고미령이라고 그런 건가요, 그럼? 고미령 안에 추계리가 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고미령은 없어지고, 예전 그 예전 고을 명이니까 뭐 그냥 두고, 그 인저 시방도 여기가 고미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저 [조사자 : 나이 많이 잡수신 분요? 응. 추계라면 여기가 추계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고씨가 밀양 고을을 갔단 말여. 경상도 밀양 아녀. 밀양 고을을 갔다가 오니까 이제,

“고미령댁! 고미령댁!”

하지. 이 동네껴정 고미령이 됐어, 그래서.(웃음) 그래 여기가 고미령이여, 예전에. 이제 그 후에, 선조대왕 그 후에 인제 추계라는 이름이 다시 됐지.

3. 이방원이 청몽주를 죽인 이유

이창(79, 남)/추계리T 1앞

[자택] 박중수, 강현모, 박준범, 서정현, 박기준 조사 (1995. 5. 13.)

제보자는 앞에서 시조를 2수를 붙른 뒤에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하여 준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농사철이라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할머니가 점심을 먹고 깨를 심으러 가야한다고 하여 조사자들은 다른 곳을 찾아 조사를 계속하였지만, 별만 소득이 없이 조사를 마쳤다.

에- 저기(기침) 정몽주 선생이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들어설 적에, 그래 이성계 아들 방원이가 자꾸만,

“자기를 도와 달라.”

고 하니깐. 싫다는 거지.

“도와주기 싫다. 하늘(하늘)의 해도 하나다. 또 중세소문(?)에 이군무사 읍다. 임금 하나 썸기는 게지 둘 썸기는 법은 읍다. 그리고 이 몸이 죽어 가서, 흙도 같이 진토가 돼도, 진토가 되도 흙같이 진토가 되도 내 맘은 변함이 읍다.”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달랠 수가 읍어. 읍잖어. 그러니까 방원이가 그 개성 선죽교 다리 앞에서 그냥 무사를 데려와서 그냥 거기서 쳐 죽였지 뭐. [조사자 : 선죽교에서?] 선죽교에서. [조사자 : 첩퇴를 그래 맞았다는 얘기는 들었.] 그래. 말이구 다 마부구, 응. 말이구 마부구 다 그냥 죽었다구 했어.

4. 강신환 딸을 죽인 양반집

이현식(71, 남)/추계리T 2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최정환, 박준범, 손동희 조사 (2000. 5. 18.)

조사자들이 추계리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찾았으나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주변을 서성이다가 혼자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황해도 옹진이 고향으로, 1.4후퇴 때의 일을 말씀하면서 그 당시의 경험과 현실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알 아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편안한 복장으로 아직도 농사를 지으며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당히 낙천적인 성격으로 보였다. 제보자는 우리를 보고는 상당히 반가워하였으며, 전쟁 때에 얻은 상처를 보여 주었다.

내가 들고 하지. 영, 이렇게 들고 하면 되지. 그 황해도 옹진이라는 데가, 영 옹진 광산, 삼년 광산, 수대 광산, 세 광산이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몇 십 리씩 떨어졌다고. 그런데 땅속으로는 서로 금줄을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속

에서 합쳤어.

근데 그 수대광산으로 가는 길목에 그 큰 소(연못)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양반 집이서 인제 딸이 무당이 내릴려고 저거 하나까, 죽일려고 그 바윗돌을, 바윗돌이 사람 한 두 아름 되는 바윗돌이 있는데 높이가 한 서너 길 된단 말야. 그래 석자 세치 되는 나막신을 만들어 주면서,

“그걸 신고 그 우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 네 소원을 이루어 준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대로다 그냥 밀어서 그 소로 쳐너서 죽였거든. 그 여자 죽고 나서부턴은 그 안에 가서, 저 마을에 있어서, 그 알아래)로 인제 옹진으로 인제 장을 보러 당기는 건데, 그냥 소고 사람이고 이 놈이 나와서 끌어들여 가고, 끌어들여 가고 끌어들여 가 잡아먹는 거지.

그러니 뭐 사람이 살 수가 있어? 그냥 인기척만 나면 와서 끌어들여 가니까. 그래서 동네 인제 장사소리 듣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소수랑(쇠시랑)을 인제 대장간에 가서 이제 크게 쳐서, 가지고 가서 그 바윗돌에, 돌을 탁 깨고서 서서, 서 인기척을 하니까, 이놈이 나와서 감고 땡기니까 바윗돌체 딱 절이다 댕으니까, 바윗돌체 끌어안고서 땡기니까 그 놈의 바윗돌이 끌려들여 가? 그래가지고 인제 조금 더 나오고 쪼금 더 나오게 나오다 보니까 이놈이,

“어떻거니 생긴 놈인데 안 오냐?”

하고. 대가리를 높이 떠 보니까, 그냥 소수랑으로다가 찍어서 죽였던 말이야. 그래서 죽이니까, 그 놈의 피가 칠 리를 흘러내려 가고. 또 그 그래서 칠리라는 동네가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그 들판사리 많은 동네가 있어. 한데 거 거길 가다 이 놈의 시체가 떠내려 가다 걸려서 거기서 썩어서, 게 더럽다고 해서 더렁이라는 동네가 있고 {조사자 : 옹진에요?} 응. 그래는데, 그 후로도 그런 말이 인제, 고결로 끝나는 거지.(웃음)

5. 귀신에 홀린 아저씨

김숙희(55, 여)/추계리T 2앞

[자택] 박중수, 강현모, 최정환, 박준범, 손동희 조사 (2000. 5. 18.)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도중에 집에서 쉬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옆에 논밭에서 일하고 금방 들어온 듯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라며 미루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약간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전원주택처럼 꾸며진 집에서 살고 있었으나, 이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 같지 않았다.

이 할머니한테 하라고 그래. [청중 : 나도 몰러.(부끄러워 하며)] (웃음) 아 이 참 내. 어, 오천 사는 아저씨 하고, [청중 : 오천 사는 아저씨네, 쇠꼴을 베러 갔대요] 영. 영. 오천 사는 아저씨가, 들에서, 들 저기 손골에서에 풀을 베고 있는데, 어떤 그냥 하얗게 소복한 여자가, 아 실, [청중 : 어떤지 자꾸만 달라지느란다]

하얗게 소복한 여자가 죽어. 어 하얗게 소복한 여자가 두 번이 되네. 영 소복한 여자가, 아주 큰 보따리를 양쪽에다가 들고 그냥 짹짹 매면서 들고 오더니, 자기 보따리를,

“좀 들어 달라.”

고 그러드래요. 그래서 그 꼴 베는 아저씨가 그 짐을 지게에다가 지고, 그 여자는 앞에서 스고 이 아저씨는 뒤에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얼마쯤 가니까 큰 기와집이 하나 있드래. 그 기와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여자가 그 기와집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은 내가 인제 저기 뭐야, 사례비를 주겠다.”

고 그래서, 그러고는 그 여자는 인제 붓다리를 들고 들어갔는데, 이 아저씨가 밖에서 이렇게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더니, 조금 있다가 그냥 큰 개가 막 짖으면서 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냥 뛰어 나오면, 뛰어 인제 그냥 하면서 환상에서 깨어난 거지 인제. 그래가지고는 인제 그 아저씨가 인제 병이 나가지고 인제 헤매다가 죽었다는 얘긴대.

그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그 오적에 들어가는 송병준씨의 손자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화대학에, 이화대학에 다니다가 손녀딸인데, 이화대학에 다니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서 죽었거든. 그래가지고 요 추계리 요 저기 송병준 선산에다 묻었어요.

그래 인제 그 아저씨가 나중에 그 개가 막 뛰어나와서 깜짝 놀라서 인자 깨어 보니까, 기와장은 간데 없고 그 무덤만이 있다더라는 인제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마을에. 예 지금도 저기 산소가 있어요.

6. 장자못 전설

박순자(64, 여)/추계리T 2앞

[김숙희덕] 박종수, 강현모, 최정환, 박준범, 손동희 조사 (2000. 5. 18.)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장자못 전설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변이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져 있다. 제보자는 정말 평범한 농촌의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방금 밭에서 온 것 같은 모습으로 보아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구체적인 부분은 쑥스러워 하며 말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냥 얘기하라고, 어떻게 하나. [청중 : 뭘, 그냥 하.] 옛날에 나 어렸을 적

에 우리 옆집 사랑방에 할머니가 살았었는데, 그 할머니가 옛날 얘기하시는데.

하도 그냥 그 대감으로 살던 집에서, 거지가 가든 이냥 이렇게 뭐 동냥도 안 주고 야단만 치고 보내니까는, 어느 도사님이 오, 오셔가지고,

“진짜 이 집이 진짜 이런가?”

하서람에, 오셔서 염불을 하면서 인제 뭐,

“시주하라.”

고 그러니까 거 대감이 나와서 그러드래, 영.

“뭐 줄게 있나. 이거나 가져가라!”

그러면서 쇠똥을 한 사발 쪽 퍼다가 주니까는, 아! 별안간에 난데없이 하늘에서 이냥 막 번개치고, 막 벼락치더니, 그 집애가 짹 쓸어가더니, 짹 쓸어가서 그냥 바다가 뵈데요.

그래서 바다가 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들여다 보면은, 그 집에 남은 것은 절구 백에 없대, 그 속에. 물 속에 가서 절구가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렇게 조그만 절구 보인대. 명지, 명주구리 하나가 다 풀리는 속에 가서 그렇게 뵈지.

그것이 이진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 밥도 주고, 잘 해 주라고 그렇게 전설로 내려온 거지.

7. 묘자리를 뵈었은 퉁똥주의 딸

김숙희(55, 여)/추계리T 2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최정환, 박준범, 손동희 조사 (2000.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장자못에 대해 말씀을 하다가 옆에 있던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정

몽주 산소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해가 되는 거니까. 아 그런데다가 내가 뭐 정확한, [청중 : 뭘 또 해. 해지 마유.(웃음)] 아니 이미 발표된, 연암 이씨 가문에 뭐 관계없는 얘기니까.(잠시 중단) 가만 있어 봐. 뭐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

아! 뭐 고려말 충신 정몽주가 아. 개성에 있는 선죽교 다리 밑에서 이성계에게 인제 죽음을 당해가지고, 아 어느 곳에 가매장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인제 저기 뭐야, 인제 잘 인자 선산에 모시기 위해서 다시 시신을 가지고 경상도에, 아 경상도에 있는 장지로 가던 중에, 아 용인 땅에를 도착했는데.

용인 땅에서 만장기 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한없이 인제 날라가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쫓아가는데, 그 만장기가 인제 꽃히는 곳이 있어서, 이곳이 아마 인제 어 뭐랄까, ‘좋은 묘지 자리로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어 그 장례 행렬이 어 인제 가던 것을 인제 멈추고,

“이 자리에다가, 저기 뭐야 묘지를 쓰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해가지고, 어 ‘애기가 잘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인제(웃음) 무덤을 인제 만, 그날 저녁이 인제 무덤을 인제 많이 파고서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자 그날 저녁엔 자고

그 이튿날 인제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는데, 그 정몽주씨의 손녀딸이, 시집간 손녀딸이 그 자리가 인제 아주 좋은 자리란 걸 알고 밤새도록 물을 퍼다가 그 판 무덤 속에다가 물을 부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인제 아침이 됐는데, 어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판 무덤 속에 어 물이 많이 고여 있으니까,

“아, 이 자리는 좋은 묘자리가 아니로구나!”

생각하고는 그 자리는 포기하고, 그 옆자리에다가 다시 인제 무덤을 만들어서 정몽주씨의 무덤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손녀딸이, 그러니까 연암 이씨 집안으로 인제 그 시집은 손녀딸이 그 좋은 묘자리를 기억해 두었다가, 어-

연암 이씨의 그 저기 뭐야, 그 조상들을 그 산소에 썼다는 인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후론 그 정씨, 정몽주씨 그 정씨네 그 후손들은 어 별로 벼슬을 못하고, 또 연암 이씨의 후손들은 인제 많은 벼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온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웃음) 이야기가 인제.

다. 민 요

1. 시조창 2수

이창(79, 남)/추계리T 1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박준범, 서정현, 박기준 조사 (1995. 5. 13.)

앞에서 ‘설화 2’를 마치고 조사자가 농사지를 때 부르던 노래를 부탁하자, 그런 것을 잘 모른다면 ‘아무 노래나 한 수 부르겠다’고 하면서 불러 주신 것이다. 닐티 알려진 황진이 시조와 성상문의 시조를 불러 주었다.

[조사자 : 보통 농사지으실 때 부르시는 노래는 없어요?] 그뎨 농사 짓는데 부르는 노래 뭐, 놀만한 소리. 저 입이 떠들 놀이를 하며는 저 한 마디씩 하는데, 뭐 예전소리 그까지 꺾 치것어? 기억이 나지만 잊어버린게 많지.

[조사자 : 기억나시면 한 소절만 좀 해주세요.] 기억이 없어 뭐. 한 소리라는 게 그러.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외(?)하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간단히 한거여.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지은 소리고. 예전에 학자가 지은 소리야. 보통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이런 노래도 못 짓거든.

사육신 저기할 적에, 세조 수양이 사육신 저기 처참할 적에, 성산문이가 지은 소리 있잖여.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견곤할제 독야청청 하리라

마음이 청청한다 이 말여. 자기 나라에 국록지신이 참 쇠같이 굳었던 말여. 변함이 없다 그거지.

여

백

식금리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박준범, 강정훈, 차재수, 심봉섭 조사 1995. 5. 13., 1997. 5. 4.

식금리는 양지리에서 동북쪽으로 6-7km정도 떨어진 마을로 추계리 북쪽에 있는 위치하여 있다. 산간마을인 식금리는 용인터미널에서 버스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나 버스가 자주 없어 교통이 불편하다. 이 식금리는 주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시에 식송리, 금곡리, 추계리의 일부를 합치고 식송과 금곡에서 앞의 한 자씩을 따라 식금리라고 하여 내사면에 편입하였다.

식금리를 이루고 있는 자연마을을 보면, 신구실은 심근술이라고 하는데 소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가루쟁이 동쪽 골짜기 있을 마을이다. 식송은 식금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일명 가루쟁이라고 하는데, 심근술에서 갈라져 나온 마을이라는 데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식송은 심근술의 한자 표기로 신구실과 식송(가루쟁이)은 같은 마을임을 알 수 있다. 금곡은 쇠일이라고 하는데, 쇠일에서 쇠는 ‘밝다’라는 옛말이고, 일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실에서 변음된 것으로 보인데, 이곳은 동남쪽으로 밝게 띄어 있어 아침이 일찍오는 마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큰 쇠일과 작은 쇠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늦점이는 옛날이 늦점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늦계미라고 하였다.

식금리의 조사는 1995년 5월 13일에 박준범, 강정훈이 조사를 하였고, 1997년 5월 4일에 차재수, 심봉섭이 조사하였다. 식금리의 한 마을은 12가구 내외의 가구들이 오밀조밀 자리한 작고 아담한 부락이었으며, 주위는 산으로 둘러 쌓였고 마을 가운데에 조그마한 다리(橋)가 있는 한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7-8년 전에 군부대가 들어서 마을 3면을 둘러싸고 있었다. 마을의 발전은 물론이고 전통문화 조사에도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없어 애로 사항이 많았다.

나. 설화

1.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정용우(69, 남)/식금리T 2뒤3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강정훈, 박준범 조사 (1995. 5. 13.)

조사자들은 윤재용 할아버지의 가게에서 2편의 민요, 세시풍속, 민속들을 조사하였다. 이때 윤재용 할아버지는 이야기꾼으로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원래 경기도 광주군이 고향으로 7살에 이곳 식금리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조사자들은 제보자에게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며 부탁하자 ‘민요 6’까지 불러 주었다. 그런 뒤에 세시풍속과 민속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에 부엌에 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부엌에, 대개 부엌에서 그런게 많았지요 뭐, 뭐 빗자루 깔고 앉으려는 여자가, 여자가 빗자루 깔고 앉으려는.] [조사자2 : 여자가, 여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개 부엌에서 뭐 여자가 그것을 깔고 앉기 마련이지. 예전에는 이 앉아서 불을 때잖이우. 이렇게 쪼그뜨리고 앉아서 불을 때지만, 지금은 좋지 않다는 거여. 저 그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알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르는 사람은 다리 아프니까 그냥 깔고 앉는 거지. [조사자 : 다리 아프니까요?] 아 쪼글뜨리고 앉으면 다리가 얼마나 아파.

[조사자 : 그런데 왜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 안 좋다고 하는 거요?] [조사자2 : 부엌에 깔고 앉을만한 게? 그게 왜, 예전에 호랭이가 동아줄 타고니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수수깡한테 찢려 죽었다는 말 있잖아. 그게 그게 수수깡이 그게 피라는 소리여.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애.

[조사자 : 빗자루를 그 수수로 만든 것이니?] [조사자3 : 여자가 깔고 앉지

말하는 것은, 여자가 월경을 하잖아요? 그게 그것은 의미하는 거예요? 수수깥이.] 그렇지. 피여. 빨긴, 빨것거든. 벌거름 허거든. [조사자3 : 그게 밤에 귀신으로 보이고 그런다고 깔고 앉지 말라고]

왜 ‘도깨비, 도깨비’ 하잖아유. 예전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도깨비가 많았거든. [조사자3 : 보셨어요 도깨비?] [조사자2 : 도깨비 보신 분들도 있다고 많지요. 그래 절까장이서 집이서 이렇게 띄는 도깨비들은 자꾸 보면은 빗자락이여, 빗자락. 빗자락이 도습을 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여. [조사자 : 도깨비불. 도깨비불 본다고 했잖아요?] 그 불이, 이 불 보고 도깨비를 알지, 불 없이 이 빗자락이 돌아댁기는데, 우리가 알아요. 그래 집이서 돌아다니는 것을 절이 가서 자꾸 보면은 비여, 비. 이 막 붙으면은 영락없어 그건.

[조사자3 : 그래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나 그런 것 뭐 없어요. 내가 한 번 겪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겠네. 내가 그때 인제 어머님 가시고 그때는 일곱 살 적이나 여덟 살 적이나, (한 사람이 놀러오셔서 대화 생략) 대문도 그저 지금도 칠지도 하고 철대문도 해 놓았지만, 예전에는 나무 저기 나무떼기 이런 것들 좇어다가 엮어가지고 해, 대문을 해 놓았거든. 그래 한쪽에 이렇게 붙들어 매고, 한쪽에 이렇게 열고. 걸은 이렇게 바뀌 땀어. 그래 애들이 몇 살 안 되었을 때, 그냥 별안간에 비가 와락 왔단 말이여. 그래서,

“어머니! 똥 마려!”

내가 이랬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저 늦게 앞을 잘못 보셨어. 그러니 나가다 들어나 마리(마루)에 가 앉았으니까, 인자 밤이니까, 그래 인자 마루가 어머니는, 어머미 나와 계시고, 마당에 나와서 내가 뒤를 보는데, 별안간에 그냥 싸림문이 ‘우그직차’게 올라가는데, 그냥 불이 들어온다는 소리여. 그러니까 쪼끄만 것이 올라나 놀라 거겠어. 이냥 똥 누다 말고는,

“어머니! 나 살려라.”

허고 뛰어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방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문을 또 안 열어 주네.(일동웃음) 그냥 마리에다(tape3 앞에 계속)

지금은 도깨비가 없지만, 그전에는 많았던 계비여. 지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다가 회를 허고 가신게, 회를, 인제 동네로 허니께, 인저 회의 헐 수 있잖아유. 회를 허이고 집이를 오시는데,(오신 할머니들과 대화 생략)

[조사자2 : 그럼, 그때 그 당시에는 도깨비는 귀신으로 둔갑 했겠네요?] 그럼. 귀신이란 소리는 안하고 도깨비래요, 도깨비. [조사자 : 도깨비.] 도깨비불은 그냥 왔다갔다 하니까. [조사자 : 그럼은 그 막기 위해서 기도, 기도 같은 것.] 기도같은 것은 뭐이고, 애들 뎨테 내가 무엇 알아.

그런데 그게 도깨비불이 대개 좋은 날에는 읍거든. 오늘같이 비 오고, 비가 오고 구중중헌 날 그게 왔다갔다 혀. [조사자 : 어른들은 아셨어요. 도깨비, 도깨비불?] 얘기허는 중에 그게 도깨비불, 도깨비불이라고 허는 것을 아셨지. 그래 결과적으로 그게 자꾸 보며는 빗자락이라는 거여. 원 도깨비가 그 빗자루이여. [조사자 : 빗자락 무슨 기도같은 것 안 해요. 제사 같은 것 안 해요, 그런 것 안 보이라고?] 그런 것은 못 봤어요. 기도 같은 것허고 뭐 뉘헌 것은 몰라요.

2. 비석 유래

박용익(60, 남)/식금리T 4앞

[김량장동송원다방] 박종수, 강현모, 차재수, 심봉섭 조사 (1997. 5. 24.)

조사자들은 식금리를 5월 4일에 조사하려고 도착하여 몇몇 노인분들을 만나 보았지만, 특이할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식금리의 유지로 전향토사랑 조사연구원이었다는 박용익씨를 소개를 받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래 뒤에 몇 번 연락을 취한 끝에 5월 24일 김량장동에 있는 송원다방에서 만나서 식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거기 동네 들어 왔었어? 거 동네 입구에 비석 봤어? [조사자 : 예, 비석 봤 습니다. 그 비석은 누가 써 놓으신 겁니까?] 그 내용은 읍취헌 박은이란 분 의 시야. [조사자 : 박자 은자요?] 박은은 내 15대 할아버지야. 내가 이가 빠 져서 말이 시원찮네 [조사자 : 호는 어떻게 되세요?] 읍취헌. 우리가 들어온 지 약 한 600년 돼 [조사자 : 식금리요] 음, 식금리.

그 다음 들어온 기 누군가 하려는 연안 김씨. [조사자 : 연녕요?] 연안 김 씨. [조사자 : 연안요] 어, 연안 김씨가 들어왔는데, 뭐 전설 얘기 하나? 역사 얘기 하나? [조사자 : 전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르신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식금리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안 김씨가 들어왔 어.

여긴 김씨가 누군가 하면 성종에 장인 있지? [조사자 : 성종이라면 조선시 대.] 어, 성종의 장인이야. 그 집안네가 그 세대가 계속 있었던 한양에서 한 번 몰래 야밤도주 했다가 이 자리에 왔지. 그래서 한 200년 있다가, 무슨 관 계로 야밤도주 해서 그 후손들이 전라도 진안 거 가 살고 있어. 그 직손들은 없고 방손들이 지금 여서 살고 있어.

그 여기에 묘소를 14분소를 내가 찾아 줬어. [조사자 : 14분소요?] 비석이 딱 가니까 써러져 있더라고. 산에 가다보니 써러져 있길래, 그 인제 보니까 연안 김씨네야. 그 가다 보니까 큰 비석이 또 써러져 있고, 또 그 옆에 웬지 보일락 말락 보일락 말락 하고 그래. 보니까 성종의 장인 김재신의 묘야. [조사자 : 김재승요?] 김재신이지, 김재신. 충추부사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이름 다 잊어 버렸네. 그 얘기 할라면 내가 가지고 나올 걸.

3. 도적골

박용익(60, 남)/식금리T 4앞

[김량장동송원다방] 박종수, 강현모, 차재수, 심봉섭 조사 (1997.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친 뒤에 식금리에 대한 전설을 묻자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그럼 어르신, 식금리에 뿌리 내리신 지 600년 됐으면, 전설 같은 것 많이 아시겠네요?] 저 동네 저리로 가면 도둑골이라고 있어, 도적놈의 소굴. 그 들어가다 버스에서 내려 쭉 들어가면 왼쪽에 공동묘지가 있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얽힌 얘기가 많이 있지. 달걀 도깨비가 있어. 달걀 도깨비가 스스로 혼자 때구르르 굴러가요.(웃음) 그래 가지고 놀래 자빠지고.

도둑골이라고 있는데, 사람 백다구가, [조사자 : 예, 옛날에 공동묘지였나 보죠?] 거기 산갈이 쌓여 있어. 공동묘지에서 보면 요거 밖에 안 보여. 요 넓이가 한 1000명은 들어갈 게야. 옛날 왜정 때도 그 해결 못 하는데, 뭐냐 하면, 하여간 역으로 찾는 데도 못 찾았고, 찾은 거는 세 사람의 도둑의 장이야. 세 사람의 도둑 두목. 청주 한씨, 청주 정씨, 진주 이씨.

거기가 이천 경계지, 또 진천서 대전으로 해서 광주 들어가는 지름길이야. [조사자 : 아. 저기가요? 지뢰길이면,] 옛날 지름길. 그 길이라는 게 마차도 못 댕기는 길이었다고, 좁아서 그 배까태(밖에)서 보면 도로가 안 보여. 그래 인제 내가 이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추측하는데, 약400년 전에 얘기라 이기야. 그래 셋이 모여 가꼬 의형제를 맺었어.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의 결의 모냐.

그러면 거기서 쌀을 씻으면은 뜯물이 오천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까지 4키로야. 이천하고 경계거든. 그 경계를 넘어 가지고 이천 쪽으로 한 4키로 들어가면 오천이야. 그 우까지 뜯물이 계속 나왔다 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거 알거 아냐? 지금은 물이 준거야. 몇 백 년 전에는 비가 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물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거야.

그래 가서 활동하면서 이천 쪽으로 양쪽으로도 가고, 그 무덤은 전설이 있는데 한 20년 전까정 있었어. 거 동네 들어가서 왼쪽으로 높은 산이 있어. 그게 금박산이야, 금박산. 늦점 위에 돌을 쌓어. 우에서 내다 보잖아. 죽어서

내가 지킨다 이기야.

계 청주 정씨야. 그 다음에 청주 한씨가 죽었고, 길 옆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진주 이씨가 죽었는데, 그 집안네가 동네에 있었는데, 전부다 지금 커. 거의 6척은 다 돼. 다 커. 청주 정씨나 청주 한씨나 진주 이씨들이 등치가 워낙 커. 그런데 아무 것도 몰라. 워낙 무식해서.(웃음) 지금들은 자료가 문서로 보관되지만 옛날에는 없었어. 그래서 말만 도둑골이라 전하고 있어.

4. 도깨비 불

박용익(60, 남)/식금리T 4뒤

[김량장동송원다방] 박종수, 강현모, 차재수, 심봉섭 조사(1997.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젊어서 내가 직장에 다닐 때, 할아버지 제사가 들으면 밤이라도 와야 되거던. 안 오면 야단 나거던. 그래 기차에서 내려서 동네 입구까지 한 30km 돼. 그걸 걸어가야 하거던. 그땐 수여선인데 5시에 내려서 여겨정 걸을 래면 밤 2시쯤 돼.

아! 그래 밤길을 걸을려면 불이 번쩍 해. 도둑골 골짜구나는 더 해. 그 도둑골 있지? 해 저물면 동네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왔는데 나만 안 왔잖아. 그래 사람들이 마중 나왔는데. 그 도둑골에는 불이 번쩍번쩍 했어. 지금은 성냥 불이는 거라고. [조사자 : 아! 인요] 잉! 그렇게 알지만 옛날에는 모두 도깨비불이라고 했어.

지붕 추녀 끝에서 불이 나. 아침에 보면 멀쩡해. [조사자 : 집에서 불이 난다고요?] 이런 불이 아니라 도깨비불이 나. 그러면 어딜 나가? 나가지 못 하

지. 아침에 나가 보면 말짱하. 야! 그게 도깨비불이지. [조사자 : 번쩍번쩍 하면서요?] 그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시면 한 120 되시는데, 그 분이 한 열 살 됐나? 산을 좋아하시는 분야.

장에 갔다 오다가 해가 저물어서 보니까 이 쪽으로 보면 이만하고, 저 쪽으로 보면 요만하고(손으로 크기를 가르키며) 뒤에 보면 크고 앞으로 보면 쪽그맣고, 옆으로 보면 넓데데하고. [조사자 : 도깨비 크기가요?] 어.

그래 이놈하고 싸웠어. 그래 허리띠로 묶어 놔는데 손자가 안 오니까 할아버지가 원 동네를 돌아 찾아가 보니까, 빗자루를 잡아 매놓고 기절해 있더라. [조사자 : 그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민승억. 이을승. 백천만억 하는 억. 참! 장사셨지.

5. 귀신 만났으면 응원해 줘야 할 소

박용익(60, 남)/식금리T 4뒤

[김량장동승원대방] 박종수, 강현모, 차재수, 심봉설 조사 (1997.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이 식금리가 과거길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곳에 일어나 이야기가 없는가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곳의 공동묘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호랑이와 싸운 소’의 변형답으로 보인다.

[조사자 : 용인은 서울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거 보러 다닌다거나 일 보러 쉬었다 가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없으세요?] 있지. 공동묘지. [조사자 : 공동묘지에 얽힌 얘기 있어요?]

‘지나다가 어려움다거나, 잠 잘 일이 있으면 무조건 공동묘지에 가서 자라. 그러면 공동묘지가 그 사람들을 살려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조사자 : 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동묘지 무서워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살려

준다.’ 그런 얘기가 있지. 공동묘지 시체들도 사람이여. 그래 도와 준다는 거.

[조사자 : 그런 걸 겪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 민승억 그 사람이 겪은 사람이여. 왜정 때 방아찌러 다니잖아. 그때 여러시 같이 다녀. 그 때 연자매라는 것이 있어. 소가 끌고 다니는 거 있어. 거 지금 같으면 방앗간에서 쪼어 온다고 아! 소에다 그걸 실코 오는데, 소가 놀래서(웃음) 소가,
“깡깡!”

거리는데. 이게 뭔지 알아야지. 뭔지 모르고 이 사람이. 소가 안 가. 그러니까 소를 놓고 도망가면 소가 달려 들어, 뒤에서 들이 받아. 그럴 때는 소를 응원해 줘야 돼. [조사자 : 아! 예. 소를요?] 그래. [조사자 : 왜요?] 소가 귀신보고 놀래 갖고 성을 내. [조사자 : 소는 왜 안 가고 사람을 받아요?] 소가 자기는 응원을 안 해주고 자기만 도망가니까,
“너무 한다.”

이거지. 아! 그래 소를 놓치고 산으로 뱀다 도망 갔는데 공동묘지드래. 밤에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지냈는데 아무렇지도 않드래. 아! 그래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귀신하고 얘기하면서 밤냈다는 거 아냐. 귀신이 지켜줘서 소한테 안 받치고. [조사자 : 귀신하구요?] 그렇지.

6. 용이 씻이 오른 용두천

박용익(60, 남)/식금리T 4뒤

[김량장동송원다방] 박종수, 강현모, 차재수, 심봉섭 조사 (1997.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앞에 언급한 것이 떠올라서 되문자 생각이 났는지 이곳의 지명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아까 말씀하신 장은 어디 장이에요?] 오천장. [조사자 : 거기 가
시다가 용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 데요?] 용두천. 오천 가는 중간에
있어. [조사자 : 용두천이요?] 그래. 오천 가는 중간에 보면 왼편으로 주유소
가 생겼어.

그 오른편에 보면 바위, 큰 바위가 있는데, 지금은 다 메꿔졌어. 그 바위
가 ‘용이 서이 올랐다.’ 이거야, 용이. 이무기가 올랐다 이거야. [조사자 : 거
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어이. 거기 이무기가, [조사자 : 이무기가요?]
구렁이같이 큰 거시기가 있어. 장마가 지면 장마 줄기 따라 올라가. 그러면,
“모두 새까만 이무기가 올라간다.”

그래. 이무기인지 뭔지 모르지만(웃음) [청중 : 우리들 많이들 봤어.] 그러
고 나면은 하늘꼬라는 게 있어. [조사자 : 하루꼬요?] 하늘꽃.(이후는 잘 알아
들을 수가 없음) 그게 한 번 지나가게 되면 마당에 봉어 미꾸라지같은 게 떨어
어져 있어. 거기에 물고기가 따라 덩기는데 그게 물기둥이야. 그 중에서 길
다란게 있어, 까만 거. 그걸 이무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구 나면 날이 짝 개
는 거야. 그러고 나면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7. 의병을 숨겨준 절의 샘터

박용익(60, 남)/식금리T 4뒤

[김량장동송원다방] 박종수, 강현모, 차재수, 심봉섭 조사 (1997.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동네에 절터 같은 것이 있어 제보자에게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저 위에 절이 있는 것 같은 데요? 동네 위에 절 있죠? 오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응. 그 절은, 그 절터가 몇 백년 전 옛날에는 암자 터였어.

거기에 흥보살이 살았다고 하는데, 왜정 때도 있었고 6·25 때도 있었어.

거기에 샘물터가 있는데 한 200년 넘었어. 내가 젊어서 의병활동을 하다 보니깐 절에 숨었어. 지금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절에 숨으면 이해했어. 옛날에는 암자였는데 전부가 아는 사람들이여.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들보고,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군대가 많이 꼬인다.”

그러면서 못 가게 했어. 그 원인은 그 암자 우물이 아주 깊어. 거기 숨는 거여. 그 스님이 거기에 몰래 숨긴 거여. 그러면 그 스님이 고발을 앓고, 아무리 큰스님이 아니더라도 잘 숨겨 줬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 못 하고 그랬는데, 절에 빈대가 많다고 태워 버린 거야. 그건 역사를 죽이는 거야. 거기에 글씨가 있는데. 전국에 풀어 달라고 해도 풀 사람이 없대.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지만, 용인에 암자 절이 한 150군데가 넘었어. 그것을 다 연결해 보면 이유가 있어. 독립 운동의 길이 있어. 남들이 뭐라 해도 참 안쓰러운 얘기여.

8. 만대복록지지가 있다는 금박산

박용익(60, 남)/식금리T 4뒤

[김량장동송원디방] 박종수, 강현모, 차재수, 심봉섭 조사 (1997.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는 이곳의 주산이라고 여기는 금박산에 대해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저기가 용인의 중심인 금박산야. [조사자 : 어떻게 돼서 금박산이예요?] 쇠 금자에 금이 머물르는 산이야.(잠시 쉬었다가) 금박산 밑에 자손만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명당이 있다는데, 어느 자린지 몰라 지금. 그걸 찾아 댕기

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 댕겨. 묘는 자손들이 잘 되라고 쓰는 건데,

“여기요?”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믿으면 안돼.(자신의 노력을 하라 말씀이 이어졌다.)

다. 민 요

1. 노랫가락(17)

윤재용(76, 남)/식금리T 1앞

[식금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강정훈, 박준범 조사 (1995. 5. 13.)

조사자들이 식금리에 도착하여 제보자를 소개를 받고 가게로 찾아갔다. 가게에서 세시풍속과 민속을 조사하다가 듣게 된 노래이다. 노래 중에 손님이 들어와 잠시 대화가 중단되었다. 조사자가 식금리의 유태에 대해 여쭙어 보자, 국민학교 교지를 보여 주었으나 별내용이 없었다. 전설에 대한 이야기도 아는 게 없고 들은 이야기도 없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공공기관에서 나온 사람으로 알고 냉대하였으나 나중에 술 한 잔을 먹고 조사에 응하여 주었다.

[조사자 : 조그만 하여 주세요.] 별안간에 와서 뭐. 그제 녹음이 들어가는 거지.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네 자랑마라

꽃두 낙화가 지면

어두운 나라(나비)도 아니 오고(?)

향기가 든 꽃무이 지면(?)
오던 새도 나 아니와요
사람도 늙어지면
어두운 님도 나 아니와요

2. 창부타령

윤재용(76, 남)/식금리T 1앞

[식금리 가계] 박종수, 강현모, 강정훈, 박준범 조사 (1995. 5. 13.)

앞의 노래를 마치고 조사자가 새로운 노래를 부탁하며 창부타령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 설명하다가 불러 주신 것이다.

[조사자 : 다른 노래는 없나요?] 다른 노래. 창부타령이지 뭐. [조사자 : 지금 부르셨던 건 뭐예요?] 그건 노랫가락. 노랫가락으로 들어가는 거야. 노랫가락이라는 게 인제 우리 한국에는 12조거든. 12조여. 한국 노래는. [조사자 : 창부타령 좀 한 번 해 주세요.]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제 못 놀면은 언제 노나
이 때 못 쓰면 언제 쓰나
쓰고 보자 먹고 보자
이 때 못 쓰면 언제 쓰나
죽어지면은 만수일자를
다 버리구 나만 가네

뭐.(웃음, 박수소리) 녹음 해 간데니까. 내 그래서, [조사자 : 아니 회안하 드라고요 저희는 아무리 할아버님들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 참 산골 노래라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또 아무나 못 해.

3. 대장부의 삶

정용우(69, 남)/식금리T 1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강정훈, 박준범 조사 (1995. 5. 13.)

윤재용 할아버지의 소개로 제보자를 자택으로 찾아 갔다. 마침 쉬고 있는 제보자에게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 여쭙어 보았으나, ‘노인들에게 듣기는 했어도 다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그러다 술 한 잔을 들구는 스스로 ‘노래는 잘 한다’며 노랫가락을 불러 주었다.

노래도 예날에 개 끌어가는 소리지. 제대루 지금 뭐 장단 맞춰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유. [조사자 : 할아버지 옛날에 부르시던 거, 그거 들으러 왔어요.] 옛날에 부르던 거야 좋지요, 뭐.

백구야 백구야 나지를 따라
내가 널 잡을 내 아니다
청산이라도 별 혈시면은(?)
내가 널 좇아 여기오리
나물 먹구서 물 마시구
팔을 비구서 누웠으니
대장부에 살림살이가
이것만 하면은 넉넉하지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4. 노랫가락(2)

정용우(69, 남)/식금리T 1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강정훈, 박준범 조사 (1995. 5. 13.)

앞의 노래를 마치고 다른 노래나 이야기를 부탁드리자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였다. 이때 녹음기가 작동 미숙으로 고장이 나서 잠시 중단되었다. 그런 뒤에 녹음기를 고쳐 민간 의료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런 뒤에 제보자에게 ‘노랫가락 하나만 더 부탁 드릴게요.’ 하자 그럼 ‘노랫가락 한 마디 해 볼까?’ 하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놀이 짝아서 놀아
늑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이 등글면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인데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조사자 : 지금 하신 노래는 언제 주로 부르시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실 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부른 노래는, 노랫가락은 일할 땀 못하죠 같이 놓고 이럴 때 부르는 거지요, 뭐. 일할 때 부르는 거는.

얼씨구나 지화자 좋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내가 너를 떠릴 적에는
 아프라고 때리느니
 차라리 계우 따린거슬랑
 말일랑은 노여(노여워) 마슈

이렇게 들고 나는 소릴하지.

5. 모심기 노래

정용우(69, 남)/식금리T 1악

[자택] 박종수, 강현모, 강정훈, 박준범 조사 (1995. 5. 13.)

앞의 노래를 마치고 모를 심을 때 부른 것을 부탁드리자 구술하여 준 것이
 다.

[조사자: 또 모 심으실 때 하시는 소리 하나만 해 주세요.] 모내는 소리는
 인제 그 소리 한 지가 오래돼서 잊어 버렸어요.

여기두 방인데
 여기 저기다 숨어라(심어라)
 여기두 하나요
 여기 저기두 또 하나

이래며 숨습니다.(심습니다) [조사자: 그러면 힘도 덜 드시죠?] 그러믄요
 그전에 예전 예전에는 줄모라는게 있었어. 줄모는 그런 장난을 못하지만 줄

없이 이이 꺾그만 논쟁이들은 줄 떨새가 없거든. 여럿이 들어 앉아서 그냥 심으며는 이저 방 저준다고 그냥 뽕뽕 돌아가매서루 가두는 거야. 서루. 서루 가두고 먼저 나오는 사람한테는 나중 나온 사람이 인저 행복을 해야여. 그러기 땀에 방 저주느라고 그냥 뽕뽕 돌아가면 심지. 지금은 기계로 심기 때문에 줄모도 없어요 농사짓기도 편하지유.

6. 우물놀이 노래

정용우(69, 남)/식금리T 1앞

[지택] 박종수, 강현모, 강정훈, 박준범 조사 (1995. 5. 13.)

앞의 노래를 마치고 농사를 짓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말씀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불러 주신 노래이다.

귀신은 안 해도 우물놀이는 했어요 거기 와서 팽과리 두들기며,

뚫어라 뚫어라
물구멍 뚫어라
새. 뒤풀 물을 잘 나라

구 말이유. 그렇기 때문에 우물에 뽕뽕 돌면서 놀았다구. 그러면 쌀 한 말 우물에 났다가 그 사람들이 또 다 가져가지유.

7. 노랫가락(37)

정용우(69, 남)/식금리T 1앞

[지택] 박종수, 강현모, 강정훈, 박준범 조사 (1995. 5. 13)

이 마을 이야기나 마을 사투리를 여쭙어 보았으나 없다 하시고, 건강과 잔치집, 민간의료,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중 잔치집에 가셨던 할머니가 돌아오셔서 며느리와 함께 다과를 대접해 주시며 같이 동석하였다.

말은 가자구 올고
 님은 날 잡구 농질 았네
 석양은 재를 다 넘구
 나의 갈 길은 천 리로구나
 벗님아 날 잡지 말고
 지는 저 해를 멈춰 주쇼

(잠시 이야기를 마치고 노래를 계속 이어 주었다.)

무심한 기차가
 날 저다 놓구서
 한 고향씩 들르라
 좋구나, 왜 몰랐더냐
 청천 하늘에
 잔별들도 많지마는
 요 내 가슴에는
 좋구나, 수심도 많구라

얼씨구나 지화자 좋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우리 술 한 잔 먹으면 이게 최고여. 진짜여 난.

여

백

대대리

가. 마을개관

박중수, 강현모, 정교현, 지청원 조사 1997. 5. 26.-28.

대대리는 양지리에서 서북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나, 양지리 쪽에서 가기보다는 용인시에서 주북리를 거쳐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하다. 산간마을인 대대리는 용인터미널에서 버스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나 버스가 2시간 간격으로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 대대리는 큰 대지가 있다고 한터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즉 한은 크다와 넓다는 뜻에서 대를 취하고 터를 의미하는 대(臺)를 취한 명칭이라고 하겠다. 이 대대리는 주북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무량동 사기동을 합쳐 대대리라고 하여 내사면에 편입하였다.

대대리를 이루고 있는 자연마을을 보면, 대대는 한터로 위 아래 한터로 구분된다. 당재들은 산재당이 있어 당제를 지내던 들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물건너는 한터 앞에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 있다고 붙여졌고, 중간말은 아래 한터와 옷한터 사이에 있다고 불려지는 마을이다. 운다중은 음달안이라고 하는데 해가 짧은 마을이라고 붙여진 음달안에서 고상한 용어로 바뀌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면난지곡은 골이 깊어 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 붙여졌는데 일명 미나지골이라고도 한다. 사기동은 사기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사기그릇을 굽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고, 무량동은 사기동 서남쪽에 있는데 평화로운 마을이라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대리의 조사는 1997년 5월 26일과 28일에 정교현 지청원이 조사하였다. 26일 대대 1리의 도착한 순간에 맑은 공기와 높다랗게 펼쳐진 푸른 산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 대대 2리를 조사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찾았으나 문이 닫혀 있어 마을을 돌아다녔다. 조사자들은 대대 1리의 산 정상에 있는 용화사라는 절을 찾았으나 스님이 몸이 불편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 조사자들은 비가 오는 28일에 대대리를 다

시 찾아 마을회관에서 5명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조사하였으나 별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송재문 할아버지를 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가 있었다.

나. 설화

1. 대대리의 유래

제보자(1(70, 남)/대대리T 1알

[2리 마을회관] 박종수, 강현모, 정교현, 지청원 조사 (1997. 5. 28.)

조사자들은 26일에 대대리를 다녀갔으나 조사하지 못해, 비가 오는 28일(수요일)에 다시 찾아 마을회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비가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밖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기는 힘들었고 다행히 마을회관에서 할아버지 다섯 분을 만날 수가 있었다. 한 분은 80세가 넘으신 분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60~70세 가량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다. 그들 중에서 한 분에게 지명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조사자 : 왜 대대리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지요?] 대대리는 좋은 터가 하나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큰 대자 집 터자 그래서 좋은 터라고 하지.

[조사자 : 큰집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큰 집이 아니라 큰 터라는 이야기야.

다른 곳보다도 여기서 저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다른 곳보다 큰 공터가 나오게 돼지. 그곳은 지정학적으로도 좋고 풍수지리설에서 봐도 무척 좋아. 그래서 옛이름은 그냥 큰 터라고 말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대대리라고 불렀지.

[조사자 : 그럼 대대리에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요.] 특별히 내려오는 이야기는 없는데, 옛날에 중국 사신이 와서 연각을 지었어. 중

국 사신이 왕이 여기까지 쳐들어 왔다가 연각을 지었어.

[조사자 : 연각이 무엇이죠?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연각은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어. 옛날에는 소도 잡고 거창했지.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그런 행사가 없어졌어. [조사자 : 여기 와서 구룡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룡탑은 아니고 사기막골(사기를 굽는 곳)이라고 있었지. 사기 굽는 거, 사기를 구워서 먹고 살았지. 그때 어려웠으니까.

2. 한터(대대리)의 유래

송재문(67, 남)/대대리T 1앞

[리 지택] 박종수, 강현모, 정교현, 지청원 조사 (1997. 5. 28.)

조사자들은 마을회관에 계신 할아버지들의 소개로 대대 1리의 살고 있는 송재문 할아버님을 찾으려고 길을 나섰다. 대대 2리에서 대대 1리까지는 긴 아스팔트 포장길로 대략 1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마을로 들어서니 집들이 그리 많지 않아 송재문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2층의 큰집에 쉽게 도착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학문과 서예에 조예가 매우 깊으신 분이어서 대대리에 관한 전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의 역사와 조상들께서 이루어낸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학점 이상의 지식을 얻은 것 같아 무척이나 기뻐했다.

[조사자 : 대대리에 관한 전설을 듣고자 왔습니다.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먼저 여기 대대리의 전설을 알기 전에 명칭부터 알고 시작해야 겠지.

대대리라는 이름은 그제, 여기 집터가 여기 옷마을에서 보면 큰 강물같은 것이 흐르는데, 그 끝에 터 하나가 아주 좋았다구. 그 집터가 크고도 넓고도 좋아. 지금 다른 지역인 대전 한밭이라는 것이 큰 대자가 크다는 뜻도 되고,

하나라는 뜻도 되거든. 그래서 그 한밭이라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였거든.

한터가 제대로 올바르게 내려와야 하는데, 영구불변으로 그 후손이 잘 살아야 하는데, 한 때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이 외지, 그러니깐 외지라 하면 다른 고장의 땅을 사는 것을 말하거든. 외전(外田) 장만한다고 하거든.

그런 걸 장만해 놓고, 여기 부근에서는 옛날 말로는 남의 것을 좇은 걸 관장하여 받아드리는 것을, 심부름 맡아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사음이라고 하거든. 사음이라는 사람이 주인 집에서 장만해 준 집을 가지고, 지주가 해 준 집을 가지고 살다가,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은 원래 김해 김씨인데, 그 사람들이 그 한터에서 살았거든. 내가 그 후손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집터가 좋은 관계로 그 집터가 한터라고 불렀거든.

그런데 그 집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중국에서 관운장을 모시던, 한 마디로 종교의식같은 거 믿는게 있으면 좋아 하잖아 왜. 그런데 그것을 전각이라고 하지. 여기 사람들은 전래라고도 했어. 거기를 모실 때는 상당히 부유하게 잘 살다가, 그 분들이 떠난 후에는 상당히 대접을 안 했어. 제대로 위하지를 않았지. 그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손이 그곳에 찾아가 일각문, 그러니까 문이 하나라는 얘기야.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려고 했는데 열쇠가 부러져,

“조상님이 노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대장장이를 불러 열쇠를 다시하고 그곳을 맡겼다. 근데 그 후로 그 후손이 망했시유. 그 망한 이유를 보면, 어 보통 사람들은 이 후손들이 땅을 다 팔아먹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내려오지.

지금까지는 윗 한터 이야기였거든. 아래 한터도 마찬가지로 여기만큼은 넓고 좋진 않아도, 아래 한터 나름대로 집터로써 손색이 없는 터가 있었어. 그래서 이 고장 전체가 한터, 즉 대대리라는 명칭이 있어. 그런 전설이 있어.

3. 말치 고개와 쇠뿔지 고개의 유래

송재문(67, 남)/대대리T 1앞

[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정교현, 지청원 조사 (1997. 5. 2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곳의 지명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앞의 이야기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지명이고, 뒷 이야기는 소가 뛰어간 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1) 말치고개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들도 보면 골짜기에 관한 전설이 많잖아. 여기도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고개가 광주로 육로로 걸어서 장보러 다니는 길이었는데. 지금의 버스 길은 저기 저수지 옆으로 돌아가는 거고, 옛날 길은 이 웃마을, 양쪽마을 사이로 돌아 올라갔어.

그 올라가는 길 사이에 조금한 집 하나가 남았는데, 말굽 모양의 한옥 집이야.(조사자 웃음) 그 옆에 주인이 기거하기 위해 지은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것만 남고 다 헐렸어. 헛간이고 뭐고. 저쪽에 집 세 개가 있는데, 그 중 한 집이 고개가 넘어가는 지점에 있었거든.

그 길이 뭐고 하니 말치고개라고 하거든. 말이 치뛰었다는 이야기야.(조사자 웃음) 그 말이 어서 나왔냐 하면, 아까 말하던 전각 뒤에 얽막하게 비산지인데, 그 넘어에다가 북향으로 향하는 묘소 자리가 있는데. 명당이기 때문에 깊이 파면 안 된다고 풍수지리 보는 사람들이 말했는데 욕심에, 옛날에는 한 자가 20센치 정도 됐거든. 지금은 한 자가 30센치이지만.

“얽이 파라.”

고. 했는데 깊이 팔더라. 너무 깊이 파니까, 말 한 마리가 놀라 그냥 뛰어 올라가면서, 언덕을 넘어가면서 고개를 치고 올라갔더라. 그래서 말이 뛰었다 해서 그 언덕을 말치고개가 된거지. 그 고개가 마을과 마을 사이에 난 고

개거든. 그런 말이 있고.

2) 쇠똥지 고개

또 다른 고개를 보면, 그 자리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 근데 그 묘지와 다른 묘소 사이에서 이상한 것이 올라오드래.

근데 그 묘에 묻힌 사람을 보니, 옛날에 소를 잡는 백정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좋던지 온 마을 장사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당겨도 끄떡하지도 않더라. 근데 그 백정은 소만을 잡는, 그래도 백정 치고는 계급이 높았어. 근데 그 사람이 잡은 소만도 몇 천 마리가 넘었대. 그래서 그 소의 영을 위로코자 제사를 올리고 잡았어.

근데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의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를 잡는데, 제사를 안 지내고 그냥 잡았는데, 근데 희안하게도 그 등치도 좋던 사람이(백정)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힘도 못 쓰게 되더니만, 며칠이 되지 않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게 되었다는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곳에 묻게 되었잖아. 그런 일이 있던 후부터 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질 못 했다는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치도 좋고 힘도 장사인 사람이 태어나질 못 했다는 (이)이야기야. 그래서 그 묘에 묻힌 사연이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옆에 묻힌 사람 사이에 고개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웬 노랑 송아지 한 마리가 이리 뛰어 가더라.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이 쇠똥지여. 쇠똥지. [조사자 : 쇠똥지요?] 아 니. 쇠똥지. 소가 뛰었다고 쇠똥지. 소가 뛰어간 자리.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면 그런 이름이 많아. [조사자 : 참 재미있는 고개 이름이네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 그곳의 전설을 붙여서 이름을 지었지. 어렵지도 않고 오랜 세월 전설로 내려오다 보니, 그걸 줄여서 그냥 짧게 부르다 보니 그게 그냥 명칭이 된거야. 요즘처럼 뭐 과학적으로 동이니 리이

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부르기도 쉽고 자동적으로 전설도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고개 이름을 붙였지. 그리고 보면 옛날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았 가며.(조사자 웃음)

4. 능안에 얽힌 간단한 전설

송재문(67, 남)/대대리T 1앞

[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정교현, 지칭원 조사 (1997. 5. 2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이곳의 지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볼터. [조사자: 예 그 이야기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능선 안이 무신 이름이 붙어 있나 허른 능을 잡으려고 왔는데, 국상이라고 하면은 나랏님 가족은 능을 잡잖여. 능 잡고 그러잖여, 나랏님이나 좀 높이신 분들은.

그래서 능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때는 보통 능을 잡으려면 도읍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100리에서 150리 정도 안쪽에다가 많이 잡거든. 모 특별한 규정은 아니더라도, 요즘에도 조금 높이신 분들은 땅 좋다는 곳은 저들 땅이라고 사놓고 그러잖아. 그런 거는 옛날에도 변함없어. 임금님이나 황실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야 하잖아.

“치우라.”

고. 하면 다 내어 주었어. 그런 제도였어. 이런 걸 보면 요즘의 부정부패는 옛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 같어. 그러니 이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검은 돈이 판을 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

능을 잡으러 오니깐 산세가 괜찮아. 산으로 덮여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팬찮더래서, ‘나랏님의 능이나 황실 사람들의 능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작정했지.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파악하고 답사를 해보니까 능으로는 타당치가 았거든. 그래서 능이 안 잡혔어. 다시 말해서 능으로는 타당치가 았은 터라고 결정이 났거야.

그래서 능이 안 뵈다고 해서 능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뵈어.(조사자 웃음) 너무나도 쉬운 이름이지. 능이 안 잡혔다고 해서 능안이니까.

그리고 뒤편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 안에서는 능이 축소된 것같이 조금만 자리잡고 있거든. 근데 이것도 능의 구실을 제대로 못 혀. 마치 기집이 시집가서 대를 못 잇는 것처럼, 터는 터지만 제대로 된 터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래서 거기는 능이 아니라서 능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능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능안의 뒤편에 있다고 해서 뒤편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뵈었지. 음 알아 듣지?

5. 효자탑에 얽힌 전설

송재문(67, 남)/대대리T 1앞

[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정교현, 지청원 조사 (1997. 5. 2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시간이 흘렀다. 조사자와 제보자는 목도 축이고 휴식도 취한 뒤에 조사자가 보았던 효자탑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이야기 있다.

[조사자 : 여기 대대리에 들어오는 길에 보니 효자탑이 있던데, 그건 뭐죠? 여기 대대리에도 효자가 나서 효자탑을 세웠나 보죠?] 어. 그것도 할 말이 있지. 어느 고장에나 가면 효자 이야기나 누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항상 있어.

왜냐면 어린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본보기를 보여 줄려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 고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면서 고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그런 거는 일부러 해주고 그래. 학생들은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 [조사자 : 저흰 아쉽게도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여. 도시 속에서 살면서 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마을의 공동체나 단결같은 것이 없었겠지. 현대의 사람들을 보면 각자 너무 개인주의거든.

하지만 여기 대대리의 효자탑은 정말 자랑할만 하지. 자기네들도 배워서 우리의 효의 사상과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을 갖길 바래. [조사자 : 네. 이렇게 나와서 조사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젠 효자비의 관한 이야기를 해 줄게.

그건 옛날 구한말에 나라에서 세운건데, 도로공사 하느냐고 깨트려 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이 효자비의 이름이 효자 김상술이여. 근데 웃긴 건 김상술인데, 여기서 술짜를 잘못 쓰면 구짜로 되거든. 근데 다시 세운 글자에는 술자를 잘못 알고 구짜로 써서 지금은 김상술이 아닌 김상구로 되어 있어. 웃지도 못할 이야기지 모여, 한자를 몰라 효자 김상술을 김상구로 썼으니 말이야.

아뿔튼 그 사람이 어떻게 효자비로 생겼냐 허든, 고개 넘어 저쪽에 김상술이라는 사람이 살았거든. 원래 그네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 부인이 무녀, 다시 말해 요즘에 무당이거든, 무당.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지.

근데 무당이면 그 남편은 화랭이라고 하거든. 화랭이란 무녀의 남편을 뜻혀. 그니까 김상술이 화랭인 것이지. 지금 살았으면 한 120에서 130살 정도 되었을 꺼야. 그만큼 오래된 이야기야.

이 화랭이는 무녀들을 도와서 함께 행동하고, 줄타기는 여러 가지 재주를 익혀서 같이 밥벌이를 하고 살지. 그래서 옛날에 장터 열리면, 부채 들고 외줄타기 하는 거 본적 있을 꺼야. 그런 사람들이 전부 화랭이야.

근데 그 김상술이라는 화랭이의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가 돌아가셔서 산소를 써서 묘자리를 쓰는데, 그걸 저 근너편에다가 했어. 근데 묘자리를 썼으면 내려가야 하는데 안 내려간다는 거야, 김상술이라는 분이. 부모님 묘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이 그때 말로 시묘를 산다는 것이야. 처음 듣지? 그럴 꺼야.

시묘산다는 것은 적어도 한 3년을 묘자리 옆에서 안 내려가고 모하느냐 하면, 그때는 산돼지나 늑대나 와서 묘를 파헤치거나 똥을 싸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걸 지키고, 그리고 잡초나 쓸모없는 풀을 정리하는 거지. 그래도 가장 큰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못 이겨 그곳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비중이 컸을 꺼야.

시묘를 살면서 눈이나 비가 오니깐, 그 주변에 있던 친구나 가족이 가서 조그마한 움막같은 것을 지워 주었지. 그렇지 않아? 그래야 시묘를 살지 그 속에서. 옷을 입은 채로 수염도 안 깎고, 더군다나 세수며 목욕이며 이런 건 아예 하지도 않았어. 말이 쉽지 그게 어디 쉬운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리고 손톱이며 발톱도 안 깎았어.

그러면서 오직 자기 부모만을 생각한 거야. 오직 그 산소만을 가꾸고 지키면서 한 3년을 살았어. 엄청난 효자. 요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식이나 여편네 밖에 모르지만, 이 분은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국가에서,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에게 효자비를 세워 줘라.”

이것이 모 자기 입으로 떠버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입과 입으로 전해 오면서 나랏님 귀까지 들어가게 된거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시묘를 살면서 보니 바로 자기의 집이 보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내려가고 싶었어. 힘들고 배 고프는 때에 더 하겠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기의,

“집을 옮기라.”

고 했어. 대단한 거지. 그래서 집을 옮겼어. 보이지 않으면 더 견디기 쉬울 거 같아서. 아무래도 그래겠지. 그래서 효자비가 생긴 거야.

주북리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영주, 김은진, 신민아,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5.
5. 13., 1996. 6. 1.

주북리는 용인읍과 인접한 마을로 양지리에서 서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양지리 쪽에서 가기보다는 용인시에서 북쪽으로 직접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하다. 이 죽북리는 주북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가좌리, 임원리, 박성동, 갈현리를 합치고 옛 주북면 치소가 있었으므로 주북리라고 칭하여 내사면에 편입하였다.

주북리를 이루고 있는 자연마을을 보면, 박성은 일명 치루개라고 하는데 박씨가 이 마을을 가장 먼저 이루어 붙여진 이름이다. 임원은 숲원리, 수버니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숲이 우거지고 그 속에 강당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임원은 죽북리 중에서 가장 큰 마을로 가구수가 100여 가구에 이르며 허씨의 큰 사당과 허씨들이 많이 산다. 가장곡은 가장골이라 하는데, 숲원리의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형상이 옥녀형이고 아름다운 농토를 가진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터를 잡으면 부자가 된다는 전설이 있는데, 현재 주북 3리인 이 마을은 최씨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3 가구로 이루어졌다. 갈현은 박성 남쪽에 있는데 고래실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은 고래논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현은 고래실 동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뒷산에 배밭이 있어 배실이라고 하였다고 하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밖의 뜻을 가진 뽕실에서 배실로 변화했고, 이를 한자음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주북 2리는 김영주, 김은진, 신민아가 1995년 5월 13일에 조사하였다. 입구에는 흐르지 않는 오염된 냇가에 근래에 돌로 새로 놓은 것처럼 보이는 주북교가 있다. 다리의 오른쪽에는 라일락꽃이 나무에서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그것 옆에는 아직 물들

지 않은 단풍나무가 서 있다. 다리 왼쪽에는 붉은색 벽들로 주위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 한 채를 짓고 있는 광경이 보인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슈퍼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마을은 곁에서 보면 시골같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집의 양식이 모두 양옥이었다. 그 양옥들은 도시의 집보다 더 세련되고 더 크다. 한옥들도 속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양옥의 구조이거나 양옥으로 개조한 흔적이 보인다. 그나마 시골스러운 것은 넓은 밭과 정자인데, 밭도 주인이 직접 매기도 하지만 시내에서 집단으로 와서 매기도 한다. 주북 2리는 허씨가 많은데 대부분 모여 지내는 편이다. 푸들, 불독, 셰파트까지 개가 많다. 그리고 대문은 모두 있지만 낮이라서 그런지 모두 대문을 연채 집안을 비워두기도 한다.

주북 3는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이 1996년 6월 1일에 조사하였다. 이 마을은 전체적으로 젊은층이 드물었고 농토가 현재는 공장 부지나 양계장, 양돈장 등의 단위시설로 많이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최씨성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 농업을 종사하고 어른들은 가까운 절에 다니고 계셨다.

나. 설화

1. 호랑이를 잡은 사람

탁민수(76, 남)/주북리T 1앞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영주, 김은진, 신민아 조사 (1995. 5. 13.)

조사자들은 주북리에 도착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집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신 제보자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찾아온 이유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자 마이크를 만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이 이야기를 옛날 어릴 때에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나도 몰라. 그냥 얘기만 들었지. [조사자 : 괜찮아요] 저어, 옛날에 풀을 비러 가잖아, 산에. 그런데 여기도 풀 비고 저기도 풀 비고 [조사자 : 풀 배요] 풀 빈다고. [조사자 : 풀을 벤다고요?] 근데 여자들이 죽게 산 등성이를 넘어가. [조사자 : 산요?] 응, 산을 넘어 가서, 저 쪽에 가서 또 풀 빌려고, 돈 벌려고. [조사자 : 풀 벨려고요.] 응. 그래. 넘어가단계 산, 산신령이 나오거든. [조사자 : 아, 산신령이.] 산신령님이 나오거든. 그래서, 자 이거 큰일 났어.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게 길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 이걸 우에나(어쩌나).”

하고는(손으로 콧등을 만지며) 그런게 그제 인제 옛날로 봐서는 호산(호랑이에게 잡혀감) 갈 때 그 된 사람이 있디야. [조사자 : 예?] 호산에. [조사자 : 호산. 호산요?] 응. 호랑이한테 물려간 사람. [조사자 : 아 집.(웃음) 호사람,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이 있다.] 잡아먹을 사람. [조사자 : 잡아먹은 사람요?] 음.(웃음) [조사자 : 잡아먹힌 사람, 호사람이 그 사람이요?] 응. 근데 그 사람은, 저 저 다 모두 적삼 집어넙쓰 듯 획 집어 넙버리는데, 막판에 한 사람이 저버다(집어다) 획 집어 넙쓰게, 앞에 갖다 이래 놓고 앉았거든.

“야! 이거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참 곤란하게 됐거든. 그래 그 사람 내비두고 가자도 맥랑하고, 안 가자고도 맥랑하고 그렇거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서로 눈치를 쳐다보고는 이래. 그렇게 누가 있다가,

“우리가 여 저 사람을, 때문에 밤새도록 밝고 있을 수도 옳고, 저 사람은 뭐 천상 할 수 옳다.”

그러니까 그만 갑, 아주 갑 작정 했지 뭐. 갑 작정 헐 모양이라. 그래서 낸 중에 밤이 절천지, 그 사람만 말하자면 12시가 넘었어.(수염을 만지작 거림) [조사자 : 밤 열두 시?] 영. 그래서 이놈의 걸 우에나 하고서, 댕문이 저런 댕문이 크게 있어. 옛날엔 전부 소낭구(소나무)로 짚지, 저래 안하고 아 댕문을 열려고,

“덜컹 덜컹.”

하거든. 그래서,

“이놈들 뭐 하는 거여?”

과함(고함) 지르드래요.

“아호, 저 사람 살아오는게 이상하다.”

서로 안 드러, 안 내다볼려고 그래. 그래서,

“우우, 같이 가자. 그런데 너희들이 나올 적에는 응, 저, 지악대기(작대기) 하나 하나씩 있으니까, 지악대기 하나씩 가지고 나오, 들고 나오나!”

[조사자 : 작대기 하나씩 들고 나오라구요?] 응, 지악대기. [조사자 : 나가
기 무서우니까 작대기 하나씩 들고 아.]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사는 기
가 맥힌 사람이지. 그런게 참말로 이 뭐 작대기를 하나씩 들었거든. 그래,
“대문 열어라.”

이라거든. ‘대문 열어라’ 이라게, 댓문을 이래 열고 두리번두리번 본게 콧
-손을 입에 대며) 큰놈의 개를, 개같은 거를 한 마리 몰고 들어왔단 말이다.
그래 모두 기암을 했거든. [조사자 : 호랑인 줄 알고?] 음.

“이거는 천에 없어도 내가 안 놓으면 괜찮은게, 니덜 막 패라?”

[조사자 : 개를요?] 응. 호랑이를. [조사자2 : 근게 사람들이 개인 줄 알고,
호랑인데.] 그런게.

“내가 놓으면,(안 놓으면) 니들 이걸 걱정 읊다.”

이래거든. 그래서 아하! 이래 막 뚜두려 패다보니 깝. 맨날 때 쪼 쳤거든.

“이제 내가 놓아 놓을텐게, 내빼들 못 한다.”

[조사자 : 예?] 내빼들 못 한다. [조사자2 : 내빼들 못 한다고 도망가지 못
간다고] 응. 도망을 못 가거든. 그래서 그래. 그러더니 입을 딱 벌리고 있드
래요. [조사자 : 호랑이가요?] 응.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소나무 올게 옛날
에-, 시방도 여 소나무가 있잖아. 소나무가 있는데, 그런 물개를 빼쪽하게,
양쪽을 빼쪽하게 잡아주고.

“나 좀 먹어라 하니, 이것 먹어라.”

구. 자꾸 들어 밀었네, 입에다가. [조사자 : 호랑이한테요?] 응. 그런게 입을 딱 벌리고 꼭 꾸였거든. 그래 꼭 깨물려카나 이게 아루위애가(아래 위에) 가 막 이것을 양쪽에 딱 끼었거든. 그렇개로,

“괜찮다. 예이 이놈의.”

그래 놓은게, 호랑이가 잡았거든. [조사자 : 호랑이 잡았어.] 응. 호랑이를 잡았어. 그래 그 사람이 밖밖에 가서 모두 뜨신 물을 끓여다 주고, 뭐 인제 죽은 사람이 살아 왔다고 속으로 소근소근. [조사자 : 아! 죽은 사람이 살아 왔다고요?] 그래. 그 사람 죽은 사람 아니야(아닌가). [조사자 : 누가 죽 사람이야?] [조사자2 :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호랑이를 데리고 온거야?] 그래. 그래 깨어나서, 다른 사람은 다 우쨌꺼나. 나 우에나 하고,

“집에 고향에 보내야 되는데, 저걸 우에야 되냐?”

했거든. 호랑이를. [조사자 : 고향에 뭘 보내요?] 집에. 집에. [조사자 : 집에 무엇을 보낸다고요?] 집에 저쪽으로 멩길러카 하면 100리도 가고 200리도 가요, 걸어서. 그래서, 그래 집에다 누가 하나 있다. 거 이웃지에 있는 사람이,

“그럼, 내가 데려다 줄텐가?(조사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구요?’ 물음) 걱정 마라.”

고 이래. 그래 데려다 주고 사흘만에 가서 죽어 버렸어. 호랑이도 잡고 사람도 죽고. [조사자 : 호랑이 데려간 사람도 죽구요?] 응. [조사자 : 누가? 호랑이 데리고 온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조?] 응.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애를 먹었어, 그놈 끌고 오자면. 그래 개같은 걸 이래 끌고 오거든. [조사자 : 아 그러니까. 개같은, 호랑이 큰걸 끌고 왔는데, 그 호랑이는 어떻게 뒀어요? 나중에.] 그 호랑이 죽고. [조사자 : 죽고. 그거에 끼어서 죽고요?] 아, 풀 비러간 영감도 죽고. [조사자 : 아, 영감도 죽고. 데리고 온 사람도 죽고요?]

응. 데리고 온 사람은 괜찮지. 그건 괜찮지. 그건 값지 풀 비러, 돈 벌려고. [조사자 : 그 풀 비러간 사람, 그 죽은 그 사람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모르지. 기암해서 죽었을테지. [조사자 : 아, 놀래서요?]

응. 놀래서 죽었을 테지. [조사자 : 그러면 호랑이를 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럿이 다 잡았지 뭐. [조사자 : 텔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호랑이 큰 개같은 호랑이?] 범한테 물려갈 사람이 그걸 갖고 왔어. 끌고 [조사자 : 아, 그 사람이 물려갈라고 했는데, 끌고 왔다구요.] 그래. 그래. 그랬데요.

2. 시아버지를 호식 면하게 한 효부

허기순(68, 여)/주북리T 1앞

[2리 자택] 박중수, 강현모, 김영주, 김은진, 신민아 조사 (1995. 5. 13.)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였으나 ‘일이 바빠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집안에 쉬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며 거실에서 이것저것을 물어 보았을 때, 서사구조를 갖추지 못한 고서태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조사자가 부엌에서 빗자루를 못 깔고 앉게 한 이유와 이곳의 옛날 생활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저어 저 한터(대대리) 사람들은, 한터 사람은 나물 가가지고(나무하러 가서) 호랑이를 봤데. 근데 부모님한테 효자래, 아주. 효잔데 나무를 갔는데, 호랑이가 이제 시어머니하고 둘이 갔는데 호랑이가 있더라. 호랑이가 있는데 시어머니를 잡아 먹으려고 그래잖어, 호랑이가. [조사자 : 호랑이가? 응.

그래니까는 인자 매누리(며느리)가 효자니까는 인자 못 잡아 먹게 가서 그 어머니를 깔고 앉았대, 깔고 앉아가서는 그 하도 효자라 호랑이가 못 잡아 먹었데, 시어머니를. 그러니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가, 매누리가 놀래가지고 이 눈이 툭 빼졌어. [조사자 : 그 며느리가요? 응. 놀래가지고. [조사자 : 눈이 빠져 나왔어요?] 아니,

눈이 툭 빠졌다고. 하도 놀래니까 툭 빠졌대. 여기 눈이, 그러니까 눈이 놀래 가지고 눈이 나왔다는 얘기지. 눈이 나왔대, 그 소리는 들었어. 옛날에는 워낙에 짐성이 많았었잖아. [조사자 : 근데 호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해서, 그래가지고 이냥 까물 쳤지 인저. 까물쳐 가지고 저.

[조사자 : 시어머니는 괜찮구요?] 시어머니는 못 잡아먹었지, 깔고 앉았으니까. [조사자 : 그래도 그 호랑이가 알아보고 안 잡아먹었어요] 그렇지. 하도 호자. 지극해 가지고, 그리 어느 중이 가다가 봤대. [조사자 : 그것을?] 응. 그래 가지고서는,

“사람 살리라.”

고. 개미소리 같은 게 들려 가지고서는, 이 해 가지고는 부고를 했데요. [조사자 : 그게 어느 쪽?] 저어 한터 사람인데, 오래 뵈어. [조사자 : 한터요?] 응. 대대리 사람인데, 오래 뵈어. [조사자 : 어디요?] 대대리. [조사자 : 대대리?] 응. 한터가 대대리라고. [조사자 : 여기서 금방이예요?] 응. 근방지, 요 윗 동네. 그 소리만 들었어 뭐.

옛날에는 짐성이 많아 가지고 도깨비 같은 게 이런데 막 돌아 땡겼대. 왔다 갔다 했구. 그러나 난 보진 못 했어. 그 소리만 들었지.

3. 원수를 갚은 개

허기순(68, 여)/주복리T 1알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영주, 김은진, 신민야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동안 멈추었다. 그래서 조사자가 구령이 이야기를 부탁하자, 잊어버렸다고 하여 이것저것 오래 동안 물어본 후에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상사뱀 이야기 유형이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

이 이야기가 옹인에 있었던 일인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노인네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개를 기르는데, 시집살이가 하도 심해가지고 개를, 개를, 개를 맥이는데, 시어머니가,

“개밥을 주라.”

고 쳤대. 근데 며느리가 배가 고프니까 그 밥을, 배가 고프니까 개를 안 주고 맑강 물만 퍼 주고 밥을 먹었다.

그런게 개가 어느 날 죽어, 저 산속에 가서 개가 죽어가지고 구렁이가 됐대. 구렁이가 되가지고서나 어느 한날 시어머니가 보니까 그냥, 구렁이가 들어 오드래. 그래서 이젠 웬수 갓을려고 들어오는 거지. 매누리를 맑강 물만 줘서.

그래 웬수 갓을려고 들어오는 건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아 채리구는 광에 다 갖다, 항아리에 갖다가 이 뚜껑을 덮어서 무거운 것을 찢러 냈대. 찢러 냈는데도 구렁이가 쏜살같이 고릴 가가지고 휘휘 감았다.

감았는데 매누리가 살았거니 하고, 간 뒤에 열어보니까 그냥 맑강 물만 하나 고였드래. [조사자 : 며느리는 죽고요?] 그렇지. 매누리가 살아버렸지. 뱀이 그렇게 싸느가는 그냥 녹아 버리드라. 녹아서 죽었다. 인제 며느리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 소리만 들었다.

4. 부처 바위

허기순(68, 여)/주북리T 1앞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영주, 김은진, 신민아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잊어버려서 알지 못 한다

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서낭당 민속에 대해 묻자 이것저것 말씀하였다. 그때 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바위 같은 건 우리 친정 동넨대. 학일리. 친정인데 친정인데, 학일리인데. [조사자 : 학일리요?] 학일리인데, 거기는 이 산이 뭐 베내미잔봉, 뭐 문수봉, 무슨 뭐 저기 그런 산이 명산이 이렇게 있어, 명산이.

명산인데, 옛날에 명산 베내미잔등이라고 아주 하늘하고 똑같애. 그런 산인데, 그 나무를, 어떤 사람이 나물 뜯으러 갔는데, 거기 그 절이 옛날에 베내미잔등에 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가 있었다. 그러니까 부처. 그러니까 베다다리는 부처가 따로 있고, 문감하는 부처가 따로 있고 부처가 둘이 있는데, 나물을 뜯으러 가서는 날이 찡찡한 날 나물을 뜯으러 갔대.

그래가지고 인제, 지나가던 나물 뜯다가 이 바위가 부처님 같이, 사이는 큰. 짐채만큼씩한 바위가 있잖아? 그런 바위를 한 사람이 인자 들어가면서, “이게 부처님인가 봐!”

그랬대. 어떤 사람이,

“이까짓 것 무슨 부처여!”

그리고 대가리를 툭툭 때렸데. 도라지 꼬챙이로다가. 그랬더니 뇌성번개를 양(그냥) 별안간에 쏘내기가 막 쏟아져서 인제 산에서 내려올 것 아냐? 그러니까 그 배락 때리는 아름답해 논 바위가 그, 그 사람 옆구리보다 ‘땀때 굴 땀때굴’ 그렇게 굴러 내려왔대. 바위가, 큰 바위가. 그러니 얼마나 놀래.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놀래서 집에 와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부처바위가 있어. 바위가 지금도. 부처바위인데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부처 그림 있구, 사람 그림 있구. 몸뚱아리는 이만한게 지금 짐채 이만해. 짐채만한데 가운데 요렇게 배 같은게 있대.(녹음 잠시 중단) 이렇게 높은데, 돌로다 사다다리를 집고서 올라가게 되 있어. 그렇게 큰

바위여. 그런 바위가 두 개여.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는 바위가 있고, 부처바위가 있고 그러, 배락 때린 바위가 있고 그러.

그래서 그 바위를 똑딱 똑딱 두드려 가지고 중간에 가서 앉았어, 그 바위가. 사람이 돌아서 모가지 똑똑 때리던 사람을, 쫓아 내려오다가, 굴러 내려오다가 그래서 중간에 가서 앉았어. 거기가 인제 배내미 잔등이라고 해. 배 내밀었다가 배내미 잔등이라고 해. [조사자 : 배내미 잔등이라고요]

그러니까 산 이름이, 산 이름이 배내미 잔등이라 해, 문수봉이라 그러고. 문수봉. 문수봉, 배내미 잔등 그렇게 이름인데, 하두 하늘하고 똑같은데, 그 길력지가. 이름이 명산 이름의 산 이름이라고.(이야기가 끝난 줄 알고 다른 이야기 유도하는 과정 생략) 바위가 요렇게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였어, 항상 가물 때도 거기서 눈이 자물자물한 사람도 거 가서 찍어 발르고 그랬더라고. 새우젓 먹고 가면 이쪽 길에가, 거기에 뱀이 있어. 항상 뱀이 있다고. [조사자 : 새우젓 먹고 가면] 비린 것 먹고 가면. 지금도 거기 있어. 비린 것 먹고 가면, 이렇게 드러다 보면 거기가 구렁이가 있다고. 그것도 날둥이서 요만큼 배같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고기 물이 항상 가물 때도 고기 고여 있다고. 구렁도 많이 뚫렸어.

[조사자 : 왜 비린 것 먹고 가면] 그래서 그게 부처바위라고 그랬어. 부처바위. 부처바위. [조사자 : 왜 비린 것 먹고 가면 뱀이 보여요] 그러니까 비린 것, 옛날에는 일부러 산 같은 거 위험하는, 그러며는 이 절 같은 데에서 비린 것만 안 먹잖아. 통 비린 것만 먹잖아. 불공 드리러 가면 그런 것 안 먹잖아. [조사자 : 뱀이 비린 것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 비린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위하는 거니까 신령님이 있으니까, 부처님도 있고 신령 있고 그러니까, [조사자 : 비린 것을 먹고 가면.] 부처바위니까 뱀이 나온다는 얘기에, 들여다 보면.

저런 약수들도 인자 정성 드리고 가다 이렇게 보면 뱀이, 그 물 먹은 뱀이 벌써 몸, 우리네가 그 물을 먹으면 좋지 않으면 벌써 구렁이가 나와서 휘젓잖아.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그런 거야.

5. 구렁이가 나오는 샘

김선례(54, 여)/주북리T 1뒤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영주, 김은진, 신민아 조사 (1995. 5. 13.)

조사자들은 허기순 할머니에게 조사를 마치고 장소를 오경례 할머니 댁으로 옮겨 안방에서 이야기판을 형성하였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민경숙 할머니가 서사성을 갖추지 못한 호랑이 이야기를 하였다. 다른 이야기를 묻자 민경숙 할머니께서 잊어 먹어서 모른다고 하자, 그 뒤를 이어 이 집의 며느리인 제보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이곳에는 오경례(여, 76) 할머니와 남편인 할아버지, 다른 할머니 1명, 아이 2명 있어 함께 들었다.

[조사자 : 샘통이.] 샘통에. 그전에 이 저 뭐야 지도같이 생겼어요 [조사자 : 샘통이요?] 응. 근데 거기 그 목판에 둥그렇게 생겼는데, 그 안이 시커멓게 생겼어요 근데 물도 많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거, 뚱그렇게 생긴게.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묵이(뺨, 구렁이) 나온다’고 막 거기서 낮에는 거기 가서 뺨들러 서서 그냥 구경을 하고 또 저녁 때 일찌감치 들어와서, 무섭다고 일찌감치 다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들어 들어가서 인자, 그 이튿날 또 나가서 보면, 여전히 또 그렇게 둥그런게 그저 있어, 이냥.

[조사자 : 어딜 들어가서요?] 아니. 그래서 인제, 그게 이묵이가 거기서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는 거지. 그 나오는 걸 보려, 본다고. 근데 그게 나오는게 사람 눈에 띄며는 이묵이가 아니지. 그게 인제 나와가지고 인자 하들로 용이 되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지. 그 용이는 사람 눈에 띄면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거지.(아이 소리) 죽기밖에 더 해,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그걸,

“이묵이 나온다.”

고 막 거기 가서 구경들을 하고, 나도 거기 가서 막 구경하고(웃음) [조

사자 : 보셨어요? ‘그래 얘기 뵤 사람은 거기 가서 구경하면 안 된다’고 그 래가지고 인제 그께 궁급한 거여.(웃음) 궁급해서 자꾸 가서 보는거지. 그래 도 당장 해가 없으니까, ‘가서 봐도 된다’고 자꾸 그냥 쪽 가서 서서 보는데, 거기서 서서 보고 그랬지.

그런데 인제 그, 그 똥그렇게 생긴 게 없어졌드라우, 언제 없어졌는지. [조사자 : 똥그렇게 생긴 게 뭐예요? 아니, 그 안에 똥그렇게 생긴게. 똥그 령게 생겼는데 거기서 이목이가 나오는데 거여, 이게. 근데 그께 뚜렛이 보 여, 거기가. 시커먼게 똥그렇게 생겼는데, 물은 다 똑같은데 거기가 그렇게 이, 이상하게 생긴 거여, 거기가. [청중 : 그게 아니고 용이 되서 올라가는 거 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는데, ‘새벽에 올라간다’고 해서 난 또 새벽에 나만 불려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또 보고.(웃음) [조사자 : 보셨어요?] 아! 못 봤지, 그걸 어떻게 보아. 그걸 보면 그께, 그께 부정타서 살아서 올라 가? 그께. [청중 : 떨어져. 떨어져!] 언제 올라간 지도 모르게 올라가 버린 거 지. 자는 새 올라갔든지.

[조사자 : 지금 그 섹터, 지금도 있어요?] 있지. 그께. 저 아래, 우리 발머 릃 가에 있는데. [조사자 : 요기 주북리.?] 응 주북리. 그래가지고 그께 어느 곁에 없어 졌드라고. 그 똥그렇게 생긴 게 없어졌어. 거기가 이렇게 무슨 평 지로 보자면, 거기가 인제 논 가쟁이(가)에 웅덩이라든가 그렇게 보이는 거 야 그께. 논 가운데. 뭐 섹통 가운데라 그렇게 보이는 거여.

그런데 인제, 그 섹통을 또 도자(브로도저)로다가 그냥 가쟁이를 다 쳐올 리고, 막 그래가지고 지도같이 생긴 거를. 한참 그 가물었을 때, 가물어도 항 상 거기엔 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쟁이(가)를 도자로 막 쳐올리고 그 래가지고 깊어지고, 또 저기 이 지도같이 생긴 게 달리 생겼어요. [조사자 : 지도같이 생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응? 그 곱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런데 지금은 변해, 그냥 막 저 도자로다 막 쳐올리고 그래서 틀러졌어요.

6. 도깨비와 씨름한 할아버지

민정숙(70, 여)/주복리T 1위

[2리 개인집] 박종수, 강현모, 김영주, 김은진, 신민아 조사 (1995. 5. 13.)

앞의 제보자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던 제보자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오경께 할머니 댁에 놀러오셨다가 조사자의 요청으로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그런데 고림동의 유래에 대해 고인들이 있기 때문에 되었다고 간략하게 말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이것은 오경께 할머니 부부와 며느리, 아이 2명과 함께 들었다.

밤에, 이 마을이 아니고 저기 마을여. 요 다리 건느면 고림리고, 여긴 주복리여. 근데 한 할아버지가 우두리 지나가는데, 에 어떤 기운(힘) 신 놈이, “씨름 하자.”

고 댐비드래. 그래 ‘씨름 하자’고 막 댐벼서, 그 할아버지하고 싸우다가, 어느, 어느 나무에다 그걸해서 똑꼭 잠매 났대. 근데 아침에 와보니까 그게 빗자리드래, 빗자리.

[청중 : 빗자루지 뭐.] 응. 빗자루. 빗자루 이런 데 피가 묻으면은, 응 도깨비로 변해 가지고 밤에 막 그런대. 그래서 도깨비가,

“이놈! 씨름 하자.”

고 막 댐비드래. 그래서 도깨비하고 막 싸우다가, 도깨비를 낭구(나무)에다 똑꼭 잠매 났대. 그러가지고 밝은 날에 와보니까는 모지랑(몽당) 비 한 자루가 잠매져 있다.

[조사자 : 아 그럼, 비가 도깨비로 변한 거예요?] 응. 거기 인저, 뭐가 피같은 게 묻어가지고.

7. 헛간의 도깨비

민정숙(70, 여)/주북리T 1뒤

[2리 개인집] 박종수, 강현모, 김영주, 김은진, 신민아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 도중에 한 할아버지가 마을을 오셔서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그리고 옛날에 나는 또 요- 아랫 동네에 사는데, 응 헛간이라고 이렇게 왜
비 오면 왜 꺼지는데 있지. 옛날엔 담배를 많이 피니까, 담배 그걸 널을라고
헛간을 저 봤어. 그랬는데 그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야.

해가 저물어서 조금 컴컴할려고 하면, 도깨비가 막- 절구질을 그냥,
“쿵광! 쿵광! 쿵광!”

해는 거여. [조사자 : 거기서요?] 응, 도깨비 절구질을 그렇게 해는 거여.
그래서 기침하고 나가면 딱 그쳐. 그래고 또 조용하면 또 그러는 거여. [조
사자 :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게 터가 서[췌]서 그렇대. 그러다간 세
월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동상들이 많이 죽었지. 터가 서가지고 많이 죽었
어. 많이, 많이 죽어가지고.

여기 할아버지 오시네.(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많이 죽어가
지고, 인저 세상이 자꾸 과학이 발달하잖여. 그래니까 그게 없어지드라고.
(자신의 가계에 대한 설명 생략) 우리 동생들. [조사자 : 돌아가신게 아까 그
도깨비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니 터가 췌니까 그렇지, 그 터가.
그런데 그거를, 그 도깨비를 대우를 잘 해면 돈도 갖다 준대. 근데 그걸 안
했잖아.

8. 도깨비 도둑으로 부자가 된 사람

민정숙(70, 여)/주복리T 1뒤

[2리 개인집] 박종수, 강현모, 김영주, 김은진, 신민아 조사 (1995. 5. 13.)

앞의 도깨비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또, 우리 아버지가 민-, 우리, 우리 할아버지가 민병훈인데, 또 민병세라고 서울에서 사는 분이 있어. 그 분은 도깨비가 가져다 준 재산이 수억대래. 밤에 그냥 막 그냥, 저기 도깨비가,

“쿵쾅! 쿵쾅!”

하고 땡기면, 도깨비 좋아하는 걸 뭣이 이렇게 해다 놓고 그러면 돈을 그냥 아궁에도 하나, 솥에도 하나, 그냥 자주 이렇게 갖다 놓는데. [조사자 : 왜-, 왜 그랬대요 처음에?] 그러니까는 도깨비가 인저, 도깨비가 들어오니까 도깨비 대우를 잘 해서 그렇지. [조사자 : 돈을 이렇게 해갖고서요?] 응. 참 많이 갖다 줬는데, 도깨비가 틀리면 그 돈을 다 가져간대.

그래서, [청중 : 다 정성껏 해도] 그래서 인저 이 사람이 그 도깨비를, 도깨비를 인저 쫓으려고 그 돈을 다 땅을 샀대. 도깨비는 땅은 못가져 간대. 땅을 사면은 이 사람하고 수 틀리면 땅에다 말뚝을 박고 밤에마다 와서,

“의짜! 의짜!”

해도 땅은 못 떠간대. 다른 건, 돈이고 뭐고 다른 건 다 가져간대, 도깨비가 도로. 그래서 그 민병세는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도깨비가 갖다준 재산으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여.

[조사자 : 지금도?] 지금도 부자일텐데, 그 분이야 돌아갔겠지. 자식은 대로 살겠지. 우리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거기 가서서, 거기 가서서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을 관리를 하고 계셨어. [조사자 : 어, 지금요?] 지금

은 인저 돌아가셨지. 오났지(오래 됐지) 6.25때 돌아가셨으니까. 6.25 난 지가 벌써 45년이나 6년 됐으니까.

9. 도깨비 때문에 죽은 아기

민정숙(70, 여)/주북리T 1뒤

[2리 개인집] 박종수, 강현모, 김영주, 김은진, 신민아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무당에 관해 말씀하여 주었다. 다시 도깨비에 대해 분자 도깨비에 홀린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우리 친정 집에는 도깨비가 이렇게 광광 어둡기만 해머는, 쿵쿵쿵 광 절구질 허고 절구질 허고 이러니까, 도깨비를 대우 안 해서 그런지, 애기를 울어머니가 애기를 낳아 가지고 한두 살이나 세 살만 되면 죽는 거야. 그 나이만 되면 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한- 넷인가 남자가 그렇게 죽었어. 그 래니까는 어려서 죽었지. 업고 땡길 때 죽으니까는. 한- 첫돌 지나고 한참 예뻐 때, 그때는 꼭 죽는 거야.

그 많이 그렇게 하고, 하나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미신을 안 지켜 가지고 장님을 불러다가 아 옥출경을 읽었어. [조사자 : 옥출경이 뭐예요? 옥출경을 읽으면 그런 귀신이 읊어지라고. 그래서 옥출경을 읽는데, [조사자 : 옥출경요? 옥출경. 귀신 읊어지라고. 옥출경을 읽는데, 그랬는데도 죽었어, 애기가. 죽었는데 그 읽는 동안에 죽은 거야. 애기가 대단하니까 인제 무슨 잡귀가 붙었으면 떨어져 나가라고 읽었는데, 애기는 결국 죽은 거여.

죽었는데, 살이 맞아서 죽었다. 살. [조사자 : 살이 맞은게 무엇이에요요? 그러니까 내가 애기를 비오는 날 업고 나가서 땡겼어. 비오는 날 나가 업고

맹졌는데, 살이 맞았다고 여기 왜, 이 시퍼렇게 되가지고 죽었드라고. 애기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랬는데 그 터가 서가지고, 우리 애기가 죽으니까, 옆집에서 들으니까 그냥 절구도 굴러내는 소리, 그래니까 그 부정한 낭구르다가 절구를 헨 거야. 근데 인저 애가 죽었으니까, 도깨비는 그걸 다 굴러내는 거야. 절구도 굴러내는 소리, 마루로 놓, 집 지면 마루 놓으라고 인자 송판도 해놓고, 뭐 나 무도 많이 해놨는데, 그것도 막 쿵광 내 던지드래, 밤에 옆집에서 들으니까. 송판도 다 내던지고 절구도 굴리고 막 그래드래. 그러는 소리가 나드래.

근데, 우리 애기가 죽었을 적에, 인저 그렇게 귀신이 그런 저기를 한거지. 그래가지고 애긴 결국 죽었어. 죽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산천, 우리 어머니가 저 고향에 황해도에 가서 산천 밑 기도를 드려가지고 애기를 낳는데, 아들을 하나 꼭 낳는데, 그 아들이 지금 쉰일곱 살어.

10. 도깨비에 홀린 사람

오봉희(78, 여)/주복리T 2앞

[3리 입구] 박종수, 강현모,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6. 6. 1.)

양지면에 도착을 한 후 맨처음 주복 1리로 들어갔다. 그러나 농사철이었고 그 시간대가 점심식사를 할 시간이어서, 노인정에 들켜 보았으나 어른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특히 주복 1리는 노인들의 수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적다는 동네 주민의 말씀을 듣고 주복 3리로 출발하여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신 두 분의 할머니를 만나서 조사를 시도하였다. 처음엔 감퇴된 기억력을 탓하며 구술하기를 꺼려하다가, 조사자들의 끈질긴 유도로 남편에게 들은 도깨비에 홀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조사자 : 도깨비 얘기 좀 해주세요.]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조사자 : 여기 저기 도깨비 많았다면서요?] 도깨비는 밤에 도깨비가 돌아 땡기지. 저기 도깨비는 밤도깨비라. 도깨비는 빈집에서 돌아 땡기지 밤에.

여기 인날(옛날)에 저 아래에서 여어쪽 아래로 살면 사람이 콩 타작을 하고 있잖아? 콩 타작을 하면은 저 안산에서는 저 작은 대추골 올라가는 곳에 여우가 쾅쾅 올라가고 또 도깨비 이만한게 일루 주루룩 올라가고 주루룩 내려가고. [청중 : 우리 노인네는 남구하러 새벽 4시나 5시나 돼서 가면 그냥 도깨비 무슨 저 여우는 쾅쾅 짓으며 그냥 지랄하지. 그때 불이나 있어요? 마땅한 곳에 지게 지고, 영감이 여우한테 흘려서 어디까지 갔었는데.]

우리 집 노인네는 우리, 내가 5남매를 뒀는데, 니째 때 딸을 낳는데 할머니를 모시러 숲원리로 갔는데 증조할머니 모시러. 시상에 안 오셔서, 시상 안 오시니까. 주북리에서 모시러 올라오시니 그전엔 길이 없었어. 소릿길이지. 이런 길이 어땀어? 시상 안 와, 안 오셔서 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
“나 혼났어.”

아 도깨비를 흘려가지고 산 구석으로 괜히 글루 들어갔지. [조사자 : 할아버지가요?] 응. 저 구석키로 글로 올라가가지고 암만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다가 정신을 가만히 차리고 나니까, 아 내가 여기 왜 왔지.(이하 과일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청취불능)

[조사자 : 도깨비한테 물렸다고요?] 흘린 거지. [조사자 : 흘렸다고요?] 흘려. 그럼 도깨비 흘리면, [조사자 : 그럼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 도깨비를, 정신을 차리면 이 뻐, 이 뻐를, [조사자 : 이뻐요? 네?] 비. 비! [청중 : 쓸개질 하는 비.] [조사자들 : 아! 비요? 빗자루요?] 달아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손을 비었던지 무슨 피를 묻었던지 그러면 그게 도깨비가 된대, 밤이면. [조사자 : 아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했다구요?] 이런데 내비리면 그게 도깨비가 도섭을 한거지. 그래 붙잡고 땡기며 붙잡이고 다니다 깨면 도리깨 장치, 그 타작하는 도리깨 장치라는 거. [조사자 : 예. 할아버지가 그 빗자루를 봤어요?] 응. 구러다가 그냥 밝았지. 뭐 집에 오신 거야. 오셔서 왜

인자 오시는가,

“나 도깨비 흘렸었어. 산꼭대기로 기올라 가서 혼났지.”

[조사자 : 해는 안 입히는 거예요? 사람한테.] 해는 안 입히고 밤새도록 논이나 마나 길을 모르니까 털털 돌아다니는 거지 뭐, 그걸 붙잡고. 옛날에 전설에 그루고.

11. 논을 사야할 도깨비 돈

오봉희(78, 여)/주북리T 2앞

[3리 입구] 박종수, 강현모, 안광연, 박수진, 장숙화, 한민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의 사촌 오빠가 겪은 일화를 계속 구술하였다. 그 내용은 사촌 오빠가 대추를 사갔고 오다가 도깨비에 홀려 고생을 하였으나, 그 대추는 서낭당에 그대로 있어 갔다가 잔치를 치루었다는 내용이지만, 녹음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녹취하기 불가능하다. 이를 구술한 다음에 이어서 구술한 준 것이 이 이야기이다.

도깨비가 벌어다 준 놈을 도깨비가 가져간대. 그래가지고 땅을 샀어. 그런데 도깨비가 벌어주는 돈은 땅을 사야 돼. 어디 땅 속에다 묻어야 되여.

물으니까 도깨비가, 나중에 돈이 있으면 어느 시에 다 집어가 버리잖아. 그래니까 그냥 땅을 사야 한대요. 땅을 사야 물어 노니까, 이놈의 도깨비가 나중에 다 도와주고 가지고 갈려고 그래니까 뭐어, 땅에다 지 물어봤으니 흙뿐이니 그놈 가져갈 수가 있어?(웃음)

[청중 : 강진 상리구가 왜 부자가 된 줄 알아요? 그 할머니가 도깨비, 도깨비가 아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만 그냥 그냥 뭐든지 갔다가 문을 열어.

“이거 먹어라.”

또 가락을 물레질 하는 가락을,

“물레질 해, 가락 여겼다.”

그걸 갖다가 쥐, 밤새도록 내하고 이만큼이야. 그래 도깨비도 어짜피, 그런게 그게, 이 도깨비가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흘려주는 거야, 한꺼번에. 하루가 불이 빨간 했어, 그 집이.

“어머! 저기 불났다.”

그 사람에게만 보이지 딱 사람에게, 하나도 안 탔어, 금방 꺼졌어. ‘불 났다.’ 그러고 꺼졌어. 그래 저런데 오방하면, ‘도깨비가 지랄하네’(웃음) 하잖아?

송문리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유은숙, 이선경, 임옥인,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 조사

1995. 5. 13., 2000. 5. 14.

송문리는 용인시 마평동과 양지면 양지리 사이에 있는 마을로, 버스로 2-3분 거리에 있는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양지군 주서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반정리, 정문리, 송동 일부를 합쳐 송문리라 하여 내사면에 편입하였다.

송문리를 이루는 자연마을을 보면, 송동은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송씨가 많이 살아서, 그리고 옛날에 소나무 대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일명 굴안, 구란이라고도 하는데, 형제봉에서 바라보면 용인이 전부 보이니 형제봉에 있는 굴속에 들어가서 보면 오직 송동 지역만 보여 굴안이라 하게 되었다. 굴안은 벌판에 있다고 벌구란과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구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반정은 형국이 소반 모양으로 생겨서 칭하여진 이름이다. 일명 잔정이 반쟁이라고 하는데,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지 소나무를 반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정문은 충신 유복립의 정려가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정문말이라고 한다. 주막 거리는 옛날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문리는 1995년 5월 13일에 유은숙, 이선경, 임옥인이 송문리 송동마을에서 조사를 하였고, 2000년 5월 14일에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이 송문 2리와 3리에서 추가 조사를 하였다. 송문리는 1리, 2리, 3리로 나뉘어져 있었다.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했으나, 송문 2리 복지회관만 할머니들이 계셨고, 다른 곳은 다 비어 있었다. 더욱이 농번기라 주민들 대부분이 논에 나가 계신다는 소릴 들었다. 그래서 추가 조사는 송문 2리를 중심으로 복지회관, 송문 2리 논옆 나무 그늘, 송문 3리 읍씨 덕 등에서 조사하였다.

나. 설화

1. 지극 정성을 보인 효자

송재윤(60, 남)/송문리T 1앞

[송동마을] 박종수, 강현모, 유은숙, 이선경, 임옥인 조사 (1995. 5. 13.)

산신제를 조사하는 도중에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본 정령문에 대해 묻자, 자신의 ‘직계 6대조 할아버지의 정령문이라’며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조사자 : 아까 여기 뒤에 뭐 있던데 그게 뭐예요?] 그건, 응 내가 송가인데. 나한테 6대조 할아버지가, 6대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효자로써 그래가지고 효자 정문을 하사 받으신 분이.

[조사자 : 특별한 이유 없으시지요?] 특별한 이유는 구전이 되어내려 와.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여기 그 설문 세운 내력이라든가, 그 뭐이 근거되는 것이 뭐 뒤에서 어떻게 현판같이 것 해서 그것이 있었어요.

있는데, 6.25, 6.25 때 내가 그 때 15살이었거든. 근데 그 해 겨울 다시 개축을 했어. 여기 이쪽에 있던 것을 저 앞으로 내서설문 다시 지었다고 그랬는데 짓기는 미완성 있다가 6.25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먼저 건물 이 있는 것, 그것 전부다 우리 집이 고 앞 밑에 고 밑에 있었어. 여기다 전부다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인자 6.25가 났으니 피난을 갔지. 갔다 오니까 우리 집이 다 타지, 모두 다. 그 자료들이 다 타서 아무 것도 없어요. 고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듣고 했던 것 그런 것 밖에 못해요.

[조사자 : 지금 대충 아시는 거요.]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6대조 할아버지가 바로 직계야, 내가. 할아버지가, 우리가 여기서 살지는 않고서 그전 이는 옛날에 이 고개 넘어 하나 있어요. 고개 넘어 거기서 농사는 지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인저 여기서 살기만 했지,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을 나셨는데 참 제대로 이 약이란 것이 그렇고, 제대로 해 주질 못하고 약 짓는 것을 못하고 어려웠던 모양어. 그랬는데 불구하고 참 무술, 그 그 양반이 잡수시겠다 그런 얘기를 허면은 참 뭐 아무 때라도 이 큰 홀륭하고 그래서 나가면 다 들어온다는 거지.

나가면 겨울에도 그냥 뭐 어름 속에서 큰 잉어 같은 게 이렇게 잘 잡혀서, 잘 잡히고 그래가지고 밥 반찬해 공경을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

그러면서 이런 밤같은 데 이런 짐승같은 것 먹고 이런다 할 것 같으면, 이 호랭이, 호랭이가 인자 그 할아버지 허고 그렇게 굉장히 친하셨대, 말은. 그래가지고 그 호랭이가 먹이를 해서 갖다주면 그걸 거기 갖다가 공양을 허고 그랬다는 얘긴데.

이것은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인자 제사를 여기서 지낼 때, 그때 그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내는 6대지만, 아가씨는 아는지 모르지만 보통 5대 봉사를 헌다고 허잖아. 5대 봉사라고 그러거든, 그전에. 나는 6대지만, 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은 4대가, 5대가 되는 게 벼.

그때 제사를 인자 지낼 때는 그 꼭 이렇게 밤에 흰한 것 같애. 그게 뭐냐 허면 그러면 호랭이가 와서, 늘 업고 다니던 그 호랑이, 그 호랑이가 내려와서, 그때 내려와서 참석을 한다야. 하야간 불도 쓰고 환하다는 그런, 그런 기억은 내가 나. 중학교 땀가 고등학교 되었을 땀데, 그래가지고 그 그렇게 병간호하고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이 돌아 가셨데.

그렇게 돌아가셔서 가지고. 그 다음해 돌아가신 다음에도 삼 년 동안 그 할아버지, 그 자기 아버지지. 그러니까 아버지 산소 인자 밑에다 움막을 지어 놓고 삼 년 동안 거기 기거를 하셨데요. 그 모든 일을 전폐를 하고 삼 년 동안, 뭐 이런 봄갓도 고치지 않고서 있으니까 그것을 파했는 데는 그 삼 년 동안 거기서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기서 여러 가지 하야튼 어떤

몇 가지 얘기가 들어가서. 결과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

2. 방앗간에 상주하는 달걀 도깨비

송재운(60, 남)/송문리T 1앞

[송동마을] 박종수, 강현모, 유은숙, 이선경, 임옥인 조사 (1995. 5. 13.)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귀신이나 도깨비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어릴 때 귀신같은 못 보셨어요. 도깨비?] 아 여기가 가면 개울
옆에 물방아가 있었지. 물레방아. 그런데 거기를 가을에 추수해서 갖다 놓으
면, 그런데 정미소라는 게 드물었으니까. 여기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정미소
도 없었으니까 물로써 하거든. 그런데 물레방아가 저기 있었는데, 그래 벼들
이 많이 갖다 쌓아 놓았던 말이야. 밖으로 안으로 오통 많이 쌓아 놓으니 밀
려요. 그랬는디 그거를 겨우내 짚어도 그게 한 2월 달까지를 쌓여 있었지.

2월 달까지 썩어요, 방아를. 그렇지 않으면 거기 바람이 굉장이 센 곳이거
든. 그러면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하야튼, 내가 굉장히 놀래는 건데.
거기 가서 밤에 우리는 방앗간 놓으니까는 그래 아버지 방앗간 대신 나갈
때 뒤쫓아 나가서 대신 볼 때가 인자 많아. 그때 내 나가 보라고 해서 그러
면 그때 방아를 관리하는 사람이,

“물 없다.”

고 인자 그러는 거야.

“방아를 짚다가는 물이 가만히 있다.”

고 또 어떤 때는 혼자 와서 방아를 짚을 때란든지 이러면 그 방앗간 안
에 쪼그만 방이 있었는데, 거기 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방앗간 밖에 문이

달그닥 달그닥 하고, 한참 달그닥 달그닥 하다가 문이 저절로 열린 데요. 잉문이 저절로 열린다가도. 그런데 문이 활짝 열리면은 뭐가 벗겨져. 피대가 뺏겨진다 얘기에.(웃음) 그렇다고 작은 아버지가 졸졸 얘기를 해 주드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가서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인제 그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핑계인지 뭇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초하루나 보름이 되면, 꼭 떡을 해 놓으라고 그래. 우리 집에다가. [조사자 : 초하루하고 보름하고요?] 응. 보름에. 떡시루 해다 놓으라고 그러고 막걸리 받아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더위 집에. [칭취불능]

그것을 안하고 우두커니 있으면, 그 아까 같은 그런 자꾸 되풀이가 되고, 또 방아가 유지 돌아가지를 않아요. [조사자 : 방아가요?] 응. 방아는 뭐냐면 물로 해는 거기 때문에 이 피대가 이렇게 걸어서 허는 건데, 이 피대가 자꾸 벗겨져요. 동력하고 정미기하고 연결되는 그 피대가 있거든. 그러면 그 피대가 자꾸 벗겨진다 말이에요. 그것을 안하면.

그래 그것은 도깨비가 벗겨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깨비. 그것 허면은 괜찮다. 또 실질적으로 그래.(뒤부분 생략) 하야간 그래가지고 도깨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소위 달걀 도깨비는 방앗간에 아주 상주하는 도깨비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

3. 호랑이 태몽으로 얻은 아들

김남이(63, 여/송문리T 2앞

[2리 복지회관] 박종수, 강현모,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 조사 (2000. 5. 14.)

조사자들이 송문리를 돌아다녔지만, 송문 2리 복지회관에만 할머니들이 모여 있어 이곳에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자들의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꿈에 대해 문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실제로 꿈을 꾸어

기라 하겠다. 제보자는 성격이 매우 쾌활한 편이셨으며 마을회관에 계셨던 분들 중 제일 멋쟁이로 매우 진지하게 말씀해 주었다. 청중은 모두 3명이었는데, 모두 진지하게 제보자의 얘기를 들었다.

밤 따러 가서 범을 만나, 범을(이상은 녹취하지 못함) 만나 갓구 무서워서 인제 막 도망을 치니깐. 이 범이 먼저 앞질러 가서 셋구 셋구 해는 거여. 그래 밤두 못 따고 집으로 쫓겨와서 보니깐 집에 와서 있어.

그래서 인제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면 안 올 줄 알고 방에 뛰어 들어 갔더니, 방에 그 다락에 가서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드라구.

그러니깐 인제 그걸, 옛날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아는 소리 좀 헛 데는 할머니야, 그 창선 엄마가. 그래서 그 할머니보고 물어 보니깐 그러더라구.

“태몽 꿈이라고 그 범을 잘- 위해야 된다.”

고. 그래 꿈을 깨보고 보니깐, 어휴 진짜 무섭더라고 그 다락에 앉았었다는 생각만 해도. 그래 그렇게 꾸고 나서 인제, 그러구서 진짜 태몽 꿈이라고 하는데 바로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낳는데 그게 우리 아들인데

4. 죽은 용꿈으로 얻은 딸

김남이(63, 여)/송문리T 2앞

[2리 복지회관] 박종수, 강현모,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 조사 (2000. 5. 14.)

앞의 이야기를 같은 소재의 용꿈에다가 실제로 낳은 꿈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인제 우리, 바로 그러구 나서 인제 친정애를 갖는데, 사람들이 그래, “비가 오는데 빨-리 나오라.”

고 바깥에서 소리들을 질러. 그래.

“왜 그러냐?”

고 그러니깐.

“저기서, 용이 하늘에서 내려온 데. 그랬는데 빨리 가서 받는 사람이 모
(뭘) 재수가 있테나 복이 많단나.”

그래서 나가 보니깐, 아호 진짜 저기서 내려오는데, 발 네 개 다 달리고
머리도 이렇게 있고(손을 머리에 가져가서 큰 원을 그리는 모션을 취해 주
심) 꼬리도 달리고 그런게 진짜 막 흔들고 내려오더라고. 그런게 옛날에 그
광목 행주치마들 많이 입었잖아.

근데 또 꿈에 웬 행주치마를 다 찼는지. 행주치마를 벌리고 이렇게 막 나
도, 그냥 사람들이 뛰길래 나도 막 뛰었는데, 어머 이게 내 행주치마에 와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구 이렇게 안고 와 보니까는 죽었어, 용이 살지 않
고. 그랴 그게 살아야 되는데 죽었더라고. 그래서,

“어머나! 이거 죽은 걸 뭐하지?”

그랬더니.

“그래도 갖고 들어가래.”

사람들이. 그래서 방에 갔다 났는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게 죽었으니깐 딸이라.”

고. [청중 : 죽은 것이?] 그러고 화순이를 낳은 거야. 그게 꿈덜은 다 영,
대게 그냥 낳는데.

5. 뱀 꿈으로 얻은 아들

이양재(67, 여)/송문리T 2앞

[2리 복지회관] 박종수, 강현모,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 조사 (2000. 5. 14.)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약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 같고, 매부 리코를 가지셨으며, 동작이 매우 큰 모션까지 취해 주시며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고, 3명의 청중들도 진지한 태도로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도 제보자 자신이 꿈이었나 한다.

내 꿈 얘기해 봐? 나는 한성 아범 있을 적에, 내가 숯골 가신 거여. 거기 갔더니 큰 뱀이, 뱀 꿈을 꾸고 났어. 귀가 이렇게 달렸어. 이렇게 달려서 뱀 이래는데, [청중 : 용이지 뭐.] 엄청 큰 뱀.

아 그게 그냥 내가 가다 돌려다 보면 또 쫓아오고, 가다 돌아보면. 그래서 인자 집에까지 왔어. 그래서 인제,

“집에다 두면 안 된다고 이걸 구경을 시켜야 한다.”

고 이 큰 박스에 담아 가주구(웃음) ‘그걸 들고서 구경시켜야 한다’고. 그러구 구경을 시켰어. 그래,

“이것 뱀 좀 보라고. 이런 뱀 봤느냐고. 귀가 이렇게(양손을 귀에 얹은 흉내를 내며) 진짜 달렸다.”

고. 그러고 췌어. 그래 가주구, 그래 가지구.

6. 돼지 꿈을 꾸고 얻은 아들

김남이(63, 여)/송문리T. 2앞

[2리 복지회관] 박종수, 강현모,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 조사 (2000. 5. 14.)

앞의 이야기와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 한다.

우리 규영이 짝에도 장마가 막-져 갖고서 무슨 뒤업불이 막 내려오는데, 돼지가 엄청 떠내려 온데. 그래 다구 우리 여 송문리 사람들이 돼지를 몰러 나두재. 그래서 나두 그 저 원근네 앞에 나그니까, 아주 시꺼-먼 돼지가 이 거만한 게 그냥 한(큰)길로 쭉렁쭉렁 오더라고.

그래서 가서 막대기로 이렇게이렇게 몰아갖고 우리 집 있는 데로 데리고 들어 왔는데, 데리고 와서 내가 싸리문을 활짝 열어놓고 돼지를 몰았는데, 큰- 돼지가 우리 마당에 와서 벌렁 자빠지더니 새끼가 7마리가 들어 땡기면서 젖을 먹는 거야, 그냥. 그 어미 씨러진 데 가서.

그리고 나서 우리 규영이 있어서 낳거던. 그래 우리 규영이는 아들도 많이 날꺼고, 돼지꿈을 꺾어서 잘 될 꺼리는데, 언제 잘 돼. 아직 나이가 있고, 그래서 진짜 꿈덜은 다 아주 현명하게 잘 꾸는데, 시방 애들이 그러는 거여. “태몽 꿈 좀 엄마가 잘- 꺾어서 주래.”

근데 남의 태몽 꿈은 못 꺾주네.

7. 무 꿈으로 얻은 손자

김남이(63, 여)/송문리T 2앞

[2리 복지회관] 박종수, 강현모,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 조사 (2000. 5. 1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소재의 태몽에다가 실제로 낳은 꿈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는 손자를 얻게 된 태몽담이다.

근데여, 우리 시방 규영댁이 이 아들 낳 적에는,
 “그 친정 집이 김장을 많이 들여왔다고 친정 집에 김장을 해 주러 가래.”
 날보고. 그래,
 “아휴! 사둔집 김장까지 해러 가냐?”

이러니까.

“엄마! 좀 가 거들어 줘요.”

그래서 갔어, 그 집이름. 그 집이 김장을 해주러 왔는데, 무를 경운기에 그냥 하나 실고 와서 진짜 부리는데, 아주 무가 이 만큼씩 한게 어떻게 이 빠지 딱(딱) 든게 잘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걸 니리면서, 거기서 제일 크고 좋은 걸로 하나를 감춰어.

‘아휴 갖다가 국 끓여 먹으라고 줘야지’ 그랬더니, 어머 사둔 마누라가 그 걸 보더니 그걸 도로 가져가고, 젤 못 생긴 무를 하나 준다, 나를. 그래서 내가,

“어휴, 내가 이거 안 가져갈래요. 차라리 장에 가서 사다 먹지, 나는 좋은 걸루 골라 났는데 어디서 이런 걸 주느냐?”

구. 그러구 나두 오기가 있지. 내가 그걸 가져 올 거 같애! 그래서,

“아휴, 싫다고, 안 가져간다고 그냥 다 하시라.”

고 그러구는 그냥 ‘장에 와서 사다 먹는다’고 그러고는 안 갖고 왔어. 그 래 내가 감춰 놓 무는, 그것두 못 갖구 오구. 그랬는데, 그래두 거기서 우리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난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만히 개를 볼 적마다 그래. ‘어휴 내가 허연 무를 태몽 꿈을 꺾어서 니 얼굴은 끝지두 앓고 이렇게 허연가 보다, 이놈 자식!’ 그래 개는 별에 나가도 끝지를 앓아. [청중 : 원낙 회잖아!] 응.

그래서 무꿈은 확실히 아들인 걸 알고. 막걸리 좋아하든 아들이구. 밤, 밤 두, 아람밤두 시켜면 아람 밤은 아들이고 빨건 아람은 딸이야.

8. 반청의 유래

류봉수(71, 남)/송문리 2앞

[2리 논가] 박종수, 강현모,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 조사 (2000. 5. 14.)

복지회관을 나온 조사자들은 논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 약간 부정적이며 사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말씀을 할 때 한자까지 손수 써 주는 적극성도 보였다. 말씀하는 중간중간 담배를 피웠으며, 처음엔 좀 거칠게 말씀하다가 뒤로 갈수록 차분히 구술하여 주었다. 청중은 며느리 두 분이 있었는데, 각자의 일에 정신이 없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제보자는 도제단의 이사, 그리고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신 분이라고 한다.

유래가, 왜 으 무슨 부락이 됐데는 거, [조사자 : 안 그래두 제가 아래서 여쭙봤어요 ‘왜 송문리예요’ 그랬더니 모르신 데요 해서.] 이는 사람이 읍지, 여기.

이 부락이, 여기가 송문 3리라구, 지방 행정구역 단위로는 송문 3리라고 그러는데. 이 부락이 반정이며. 반정이라고 반자가 무슨 반자냐? 소반 반자야. 소반 반자. 이거 저 배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쓰는, 소반 반자야 이게. 소반 반자에다 정자 정자. 정자 정자해서 반정인데,(한자까지 써 주며)

이 부락이 왜 반정이나 하면, 이 집두 왜 저 참나구 이렇게 수폭하게 낱구 있는 거 있지. 그 산이 그것이라 금반향이라고 해 가지구 금소반, 두레소반, 둥근 이 저 소반. 두레상 있지, 두레상 지방. 두레상 몽양 등글게 되 가 주구, 금반향이라고 해 가지구설람, 풍수지리상 금반향이라구 해 가지고, 이 반자를 딴 거여.

그래 그 산이 그게 명산이지, 그계. 그래서 그 반자를 따고, 정자 정자는 왜 정자가 정자 정자를 썼냐 허믄, 여기 보며는 여기 이 저 숲이 우거진데, 숲 우거진데 그 위에 거기 가면 은행나무가, 45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조사자 : 하 450년이요?] 음. 은행나무가. 그래 그거를 정자로 삼구 해 가지구 설람 응 반정이라고 하는 거여, 이 부락 이름을. 반정이구.

9. 송문리의 유래

류봉수(71, 남)/송문리 2앞

[2리 논개] 박종수, 강현모,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 조사 (2000. 5. 14.)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곳의 지명이란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송문리는 왜 송문리가 됐느냐? 이 안 끝짜기에 들어가면 도치당풀이라서 있어. 도, 돼지 도자. [조사자 : 돼지 도요?] 돼지 도자, 도차. 기른다느 치. 치자 해서 도치당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내 12대조 여기 정문이 있어요, 여기에 충열문이.

[조사자 : 아 충열문이요?] 충열문이 요 아랫 동네에 있어, 요기. 문화재로 지정된 예 충열문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정문이 누가한테서 정문이냐 하든, 내가 12대조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에서 돌아 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깐 그 할, 어머니가 외아드님을 데리고설랑 이루 낙향을 해 내려오신 거야. [조사자 : 아 낙향해 왔었요?] 예. 이 끝짜기로다. 도치당풀이라는 데로다가 낙향을 해 내려 오셔 거주구, 돼지를 메기구 짐승을 메기면서 일생을 냉기셨단 말이야, 여기서.

그때 어떻게 부(부유)했는지, 정부에서 그러니깐 하사를 내린 그 땅이 많구 그래 거주구, 많아 가지구설랑은 하두 부자란 소리가 나 가지구, 나 가지구설랑, 여기가 양지지. 양지 현감이, 양지 현감이, ‘반정에 유 아무개네가 부자라 소리가 있으니’ 조곡이라고 있어. 예전에 조곡이라고 할 거 같으면, 시방으로 말하며는 응 세금 내는 거야. 세금을 갖다가 인자 곡석으로 받는 거여.

“조곡을, 참깨를 300석을 내라.”

구. 그랬다구. [조사자 : 300석이요?] 어. 그래 와서 얘기를 하니까, 참께 300석을 두말 앓고 내주셨다 그 말이여, 할머니가. 참께 300석을 내주구 하 인들더러,

“창고에 얼마나 남았냐?”

니깐. ‘아직도 몇 백 석 남았다.’ 이 말이여. 그렇게 부자로 사셨다 그 말 이여. 그 당시에 여기서부터 이리루다가 쪽 나오면서 소슬대문이라고 있지. 소슬대문이라고 시방 문화재, 저기 민속촌 같은데 가면 이렇게 개화(기와)집 이렇게 넓따랗게 이렇게 저기하구, 대문 이렇게 허구 허는, 이렇게 또 집 짓 고 이런 저기가 있지. 이게 수슬(소슬)대문인데, 여기까지 쪽 이리로 나가면 서 12대문을, 문을 열 둘을 해단구 사람이 살았다는 거여.

그러구는 이 신작로께 여기다가 솔문이라고 있어, 솔문. 이렇게 문을 해 세우구, 이걸 소나무 저런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전부 이것 소나무다가 이렇게 잎파리를 이렇게 꽃아서, 소나무로만 잎파리를 꽃아가지고서 문을 해달는 거여. 그게 솔문이라고 그러는데, 소나무 송자 문 문자. 송문을 해 세 우구, 요 아래 내려갈 것 같은 문 용인하고 양지하고 경계가 있어. 요 커브 도는 데지, 국도 커브 도는데.

거기가 장승배긴데, 거기다 장을 세웠단 이 말이야. 그전에 5일장이나 이 런 장을 세워서 세우구, 송문을 해 단구서는 장을 해서 세우구. 그래서 소나 무 송자, 문 문자 해서 여기가 송문리가 된 거여. 이 바깥으루가 이게 송문 리가 된 거여. 그래서 송문리구.

그리고 여기는 원은 반정이여, 반정이구. 그렇게 되서 유래가 여기는 반 정이요, 송문리는 소나무 문을, 솔문을 12솔문을 해 세웠기 때문에 송문이다 이렇게 되 있는 거구.

양지가, 양지현이로 있다가, 양지군이로다가 되면서, 일본놈들이 나오면 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양지면을 없애구설랑은, 그전에는 양지군에 주내 면, 주동, 주서, 주북, 주동면 4개 면을 있었던 그 말이여.

그래서 여기 시방, 여기 송문가든이라고 시방 뭐 들꽃향기 집인가, [조사자 : 네 들꽃향기요?] 거기에, 거기에 저기가 있었어, 주서면 사무소가. 주서면 관내가 여기 어디라 할 것 같으면, 요기 저 너머 운학리라는데, 운학리, 마평리, 신평리 이리루다가 전부가 주서면이야. 용인 일대까지도 주서면이야, 주서면에 속했었지.

그래서 4개 면을 일본애들이 나오면서 합쳐가지구 내사라고 한 거여, 내사. 안 내자 녁 사자 내사면으로다가 행정구역 단위로 만들어서 용인군으로다가 합쳐되면서, 그래서 내사면이 4개 면을 합쳐서 내사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지라는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시로 승격되면서 우리가 양지라는 그 고유어, 그 예전 지명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구서는 양지면으로다가 도루, 예전 명으루다가 복귀한 거지, 인자 환원한 거지. 도루 양지면으루다가.

그렇게 유래가, 여기 유래가(잠시 다른 대화 생략), 양지의 면하구 여기의 유래가 그렇게 돼서 여기가 반정, 송문이라는 것이가 그래서 송문리가 여기가 된 거여. 여기 송문리 유래하는 사람 읍지?

10. 잔치에 채일을 치는 유래

류봉수(71, 남)/송문리T 2앞

[2리 논개] 박종수, 강현모, 김보경, 원지현, 정희영 조사 (2000. 5. 14.)

앞에 이곳 지명인 송문리에 대한 유래를 마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용에 대해 묻자,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서 조사자가 용이 승천하는 것에 대해 묻자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옛날에 보면요 용이라는 게 구렁인가 뭐가 이렇게 올라가서.]

용이래는 것이기 뭐이나 허며는 용이래는 것이기 뭐를 가지고 용이라고 하면은, 용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근데 뱀이, 뱀이, 이런 것 배암, 배암이 삼천 년을 묵으면은 이미기(이무기)가 된다는 거야. [조사자 : 이무기요?] 응. [조사자 : 이무기 들었어요?]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삼천 년을 묵으면 용이 된다는 거여.

[조사자 : 그러니깐 뱀이 육천 년이 되야 용이 되네요?] 그러니깐 그 뭐 용이 되는 것을 누가 봤다든지.

그래서 이무기가, 이미기가 지나가면, 그 저 뭐여 잔치 때 같은데, 장사 때 뭐 음식 먹을 이런데 차일들 치지. 텐트, 시방 텐트들 흔히 많이 치지. [조사자 : 장막이요?] 응 텐트 뭐 이렇게 텐트를, 갑바나 이런 것들 많이 치잖아. 하늘을 가리잖아. 그 원인이 왜냐?

이무기가 지나가는 그 그늘, 이무기가 그것이가, 영 이무기가 삼천 년을 묵으며는 또 진이새가 된다는 거여. [조사자 : 진이새요?] 배암이 삼천 년을 묵으며는 이무기가 되고, 이미기가 삼천 년을 묵으며는 진이새가 된다는 거여. 새가 용이 된 데는 거여. 새루 변하는 거여. [조사자 : 새요?] 응.

그래 그 차일 치는 원인이, 그 육천 년 묵은 그 진이새라는 것이가 날라가는 그 그늘, 그 그늘만 쏘여도 그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야. 그렇게 독하다는 것이지. [조사자 : 그럼 그 얘기가 있겠네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래서, 그래서 ‘그 이무기, 저 진이새 그늘을 막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하는 데는 반드시 하늘을 가린다.’ 그런 뜻이로다가 이전부터 그 차일을 친다는 거지.

[조사자 : 그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누가 봤나? 전설이지. 그거는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지. [조사자 : 전설로요?]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진이새 그늘을 막기 위해서 채일을 친다. 이 텐트 같은 것을 친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진이새가 또 삼천 년을 묵으면 용이 된다는 건대. 용이 된 용을 봤다는 사람은 읍데는 거 아니여. 다 중국 같은데 가봐도 용 봤다는 사람은 읍고. 용에 형상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것만 추측이지.

중국에 저 공자님 사당에를 가면은, 기둥이 전부 용으로 되 있어. 용이 이렇게 상천해서 올라가는, 비비틀어서 이렇게, [조사자 : 공자님?] 공자님 사당 기둥이. 그 공자님 사당의 용이 삼천 수(마리)요, 공자님 마나님 사당에는 이를테면 공자님 사당 위에 있는데, 거기는 봉황이 삼천 수요. [조사자 : 봉황이요?] 응. 그렇게 해 봤는데, 용이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은 들어보질 못했어. [조사자 : 봉황도 본 사람 없죠?] 봉황도 그렇고. [조사자 : 그럼 둘 다 신비의 동물이네요?]

왜 용이라는 것이가 참 다리도 있고 뭐, 수염도 있고 사람 형상으로 생겼다고 허지마는 그게 어떻게 된 거인지 시방 과학자들이 원, 다른 건 다 여길 하면서, 어떻게 용같은 거는 그런 저기는 여기를 못 하는지. 전자에 그게 뭐여. 그게 뭐, 그게 뭐여. 왜 그, [조사자 : 반도체요?] 아니. 그게 뭐인가 뭐 그 사람도 에 저기 허고, 공룡. [조사자 : 공룡요?] 공룡같은 건 저기 하면서, 어떻게 용같은 저기를 못 허는지 모르겠어. 근게 용의 형상이라는 게 어디에 읍는 모양이지? 공룡이나 이런 건 빠라는 게 있고, 뭐 그런 걸 발견을 할망정, 용에 그런 저기는 읍는 모양이지?

11. 송문 3리에 있는 청려의 유래

유한종씨 모친(70, 여)/송문리T 2양

[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보경, 원지현, 정화영 조사 (2000. 5. 14.)

앞의 제보자에게 송문 2리에서 지내는 산제사에 대해 듣고, 장소를 송문 3리로 옮겼다. 송문리에서 대대로 시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없고, 그의 어머니가 계tu 이것저것을 묻는 도중에 이 분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저 할아버지께서는, 저기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저 진주항에서 돌아 가셨대. 물에서 그냥 돌아가셨대.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싸우시다가, 이 저 장군이셨대. 인제 유복님, 아이 유복림 할아버지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인제 물에서 빠져 돌아가서 가지고, 이 투구하고 이래 인제 그냥 옷만 건져서 딱 다른 데다 모시고, 또 그냥 그래서 인제 하사, 임금님이 하사 하셔서 가지고 벼슬을 많이 얻으셨어.

그래가지고 인자 집안에서 참 크게 저 공로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문을 세워드리고 각처에 댕어. 저 양지도 있고, 뭐 저 아래도 있고 뭐 그런데. 모셔 가지고 거기에 하사 무슨, 거기다 써 붙인게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런 저 할아버지를 모신 데고.

그 옆에는 또 인제 효부, 옛날에 유씨 댁에, 전주 유씨 댁에 인제 효부가 나셨데요 그래서 또 한편 한 분 모시고 그래 이쪽에는 또 유명한 인저 또 인저 저기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다 모실려고 한 칸을 더 해놨데. 세 칸이여 거기가. [조사자 : 안 그래도 들어오는 길에요, 송문리라는 첫 비석이 있는데 그게 전주 유씨 이렇게 써 있더라구요]

유씨는 저 전주 유씨, 전주 유씨, 문화 유씨 이렇게 있으시고 유씨는 왕씨하고는 결혼을 안 해. 왕씨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갈라져서, 옛날에는 같은 손이신가 봐.

여

백

정수리

가.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변홍제, 이지운 조사 1997. 5. 26.

정수리는 정수산 밑에 위치하고 있어 정수, 정세, 중수라고 칭하는 양지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지만, 용인시에서 주북리 대대리를 거쳐 가는 것이 편한 산골마을이다. 이곳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번밖에 없어서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이다. 양지군 주서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사기점, 주촌, 양달말을 합쳐 정수리라고 하여 내사면에 편입하였다.

정수리를 이루고 있는 자연마을을 보면, 정수는 마을의 중심으로 정수산 밑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서촌은 양달말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고, 건너말은 정수 건너쪽에 있어 붙여진 마을이다. 그리고 양달말은 정수 동남쪽에 있는 해빛이 잘 들어 붙여진 이름이다.

5월 26일에 정수리에 도착하였는데 하늘이 너무나도 푸르고 화창한 날이었다. 그곳에는 새마을 회관과 정수리 노인정 그리고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다. 집들은 잘 보이지 않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온통 푸른산 뿐이었다. 구멍가게에서도 노인정에서의 조사도 별 성과 없이 마쳤다.

가. 설화

1. 기남시 고개의 유래

제보자1(70대, 남)/정수리T 1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변홍제, 이지윤 조사(1997. 5. 26.)

조사자들은 택시를 타고 정수리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양지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의 지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었다. 그 택시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물었더니 위치를 알려 주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들이 잘 안다고 하였다. 노인정에 도착하여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면서 기남이 고개를 문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술하기 전에 청중들 사이에 주인공이 박기남이란 분이라고 하였다.

인자 기남이 고개란게 어떻게 된고 허면, 이 정수리가 옛날에 저 아주 산 간벽짜이었어요 그리고 기남이 고개가 왜 기남이 고개가 됐느냐? 그 기남이런 분이 우리 정수리에서 살다가 이 양지에서, 옛날에는 군이었었어요.

군에 나가서 국민학교를 다녔어. [청중 : 보통학교이지.] 보통, 아 그 보통학교 참, 보통학교 고 다음에 국민학교이고 그런데 그 양지서 보통학교 때에 정수리에서 거기 땡기는데, 그 어째서 그 [청중 : 걸어 땡기지.] 걸어 땡기는 데도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땡기는데, 옛날에 그 가닥(나막신) 신고 걸어 가는데, 옛날에 그것도 우리 미투리 신발 신고 땡기잖아요, 그 학교를 기남이가.

그 분이 인자 서울 가서 살다가, 참 그래서 돈 많이 모았어요. 모아 가지고, 이 분이 그래도 살던 고향을, 어떤 수를 썼던지 들어와 가지고 그 고개를 뚫어 줬었는데, 내 쌀은 인자 양지면에 거기 정수리에 갖다 먹고. [청취 불응].

그래서(웃음) 해가지고 인제, 그래서 인제 그 분이 그 고개를 뚫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 아까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왜 기남이 고개라고 하느냐. 그 양반이 길을 뚫어 줬어요, 기남이 고개를. 그 분이 길을 그렇게 뚫어 줬기 때문이 우리 이웃에서, 정수리에서 그 협동을 하면 그 고개를 가리켜서 현재 기남이 고개로 표시가 되고(이후 골프장이 들어와 기남이 고개의 변모양상과 표석 문제를 말씀하심)

2. 수난의 기남이 고개

제보자2(70, 남)/정수리T 1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변홍제, 이지운 조사 (1997. 5. 2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기남이 고개의 위치에 대해 말씀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정수리에 일어난 전설에 대해 묻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제보자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후 이곳의 열녀에 대해 말씀하였는데 사실적 진실로 서사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

[조사자 : 기남이 고개에 얘기 말고, 정수리에 관한 얘기 있어요] 네? [조사자 : 기남이 고개 말고 정수리에서 전해 오는 그것 얘기가 있나요?] 그게. 그게 참 좋은 질문이신데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 또 나 아이 나는 인제 뒷 80도 못 되고 70쪼금 넘었는데, 그 전이는 몰르지요. 에 아는 것만 우리가 얘기허지, 모르는 건 뭐 얘기할 필요는 읍지.

그전에 정수리가 뭐가 있으며, [청취불능] 그런게 옛날 그 일본 사람 정치 때, 내 고것 한 마디 허지. 왜 그러냐면 여기 아주 산고랑이여. 그런 지금 왜 정 때 내사면이라고 했지만, 지금 양지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때에 왜 저기, 저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한국 사람한테 식량 빼앗가는 것, 그건 우

리들 다 했어요 지금 나이 적은 사람은 모르지만, 70넘은 분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저 기남이 고개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그게 고개가 무척 컸어요. 그러면 인자 공판이라고 했어요. 배(벼) 받아가는 것 그거를 강제로 시켜가 지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지게, 지게는 아시겠지요. 거기다 두 개씩 지고 이런 고개를 넘어 가느라 할 것 같으면 다치고. 그리고 또 농사지라면 비료를 또 거기 가서 저 날라와야 허. 그래 힘 센 사람은, 비료 그전에는 25킬로 짜리 아니예요. 그럼 그걸 세 푸대씩 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약한 사람은 두 푸대 지고 오고, 또 그만 못한 사람은 한 푸대씩 지고 오고.

그 고개를 끝없이 높여, 기남이 고개란게. 무지게 참 높은 고개여. [청중 : 기남이 고개요?] 그래서 인제 그 고개가 높아서 기남이래는 분이 정수리 사람 고생하는게, 참 여기 낳신 분이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인제 길을 닦아준다고 인제 했는데, 내가 그것 한 마디, 그 벼를 이냥 두 가마씩 지고 서, 지게뺨이 읊는데 공판할라면, 그것 참 두 가마씩 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저 넣기고 또 저 오고 이렇게 해서 살던 길이 기남이 고개라고.

민속관계 도서목록

용인서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강현모/신국판·20,000원

용인남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강현모/신국판·18,000원

용인중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강현모/신국판·20,000원

영남지방의 동제와 탈놀이

박진태/신국판·7,000원

한국의 탈

전경욱/국배판 양장·70,000원

경북성주의 한개 마을문화

이명식/신국판·6,000원

남도민속학개론

지춘상/신국판 양장·18,000원

북청사자놀이 연구

전경욱/4×6 배판·30,000원

신재효 연구

서종문·정병현/신국판 양장·17,000원

경산의 지명유래

정호원/신국판·13,000원

한국의 기와 문화

이재인/신국판 양장·9,000원

호남검무

임순자/4×6 배판 양장·25,000원

판소리 동편제 연구

최동현·유영대/신국판·15,000원



값 20,000원



ISBN 89-7626-544-0